TR 2023-04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2023 YU&EYE 탐색보고

영남대학교 교육혁신처

목 차

Contents

Ⅰ. 요약 ····· 1

Ⅱ. 사업개요 ····· 7

1. 사업배경 및 목적 ····· 9
2. 조사내용 ····· 10
3. 분석대상 ····· 10
4. 조사 및 부석 기간 ····· 11
5. 자료처리 및 분석 ····· 11
6. 조사대상 학과 ····· 12
7. 모니터링단 취합의견 특성 ····· 13

Ⅲ. 1학기 조사결과 ····· 15

제1장 교양교육과정 ····· 17

1. 장점 ····· 17
2. 현황 및 문제점 ····· 18

제2장 전공교육과정 ····· 22

1. 장점 ····· 22
2. 현황 및 문제점 ····· 23

제3장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 27

1. 면담자용 질문 ····· 27
2. 세부 질문 내용 ····· 28

Ⅳ. 2학기 조사 결과 ····· 29

제1장 교양교육과정 ····· 31

1. 현황 및 문제점 ····· 31
2. 추천 교양 과목 ····· 35
3. 신규교양강좌 제안 ····· 39
4. 교양강좌 운영 ····· 40
5. 교양강좌 평가기준 ····· 41

제2장 전공교육과정 ····· 42

1. 전공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 42
2. 전공별 추천 전공과목 ····· 126

제3장 학사제도 ····· 206

1. 현황 및 문제점 ····· 206

제4장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 212

제5장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 214

제6장 유학생 의견 ····· 215

[부록Ⅰ] 1학기 세부 응답 ····· 217

[부록Ⅱ] 2학기 세부 응답 ····· 267

[부록Ⅲ] 추천교양과목 세부 응답 ····· 493

본 연구는 2023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요약

1. 교양교육과정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2년 조사결과	■ 강의 다양성 부족, 트렌디 한 주제의 교양과목 부족 → 교양 과목 영역을 재분류/세분화하여 다양한 선택지 제시 → 학생 수요 및 시대적 이슈와 흐름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강좌 개편 ■ 인기강좌 여석 부족, 학점 채우기 용이한 강좌에 쏠림 → 학생들의 강좌에 대한 수요와 근거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강좌 개설 → 필요한 경우 강좌 수강인원을 증원하거나 분반, 또는 온라인 강좌로 지원 ■ 성적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불명확/지필 평가 비중 과도 → 강의계획서에 평가 관련 기준 명시, → 교수자에게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여 학생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원
23년 조사결과	■ 수강 신청 시 수요-공급 불균형 → 강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조사 → 인기 강좌가 인기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파악 → 수강 내용, 시수, 시간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와 선호도 조사 후 전략적 강좌 개설 필요 ■ 평가 피드백, 소통 부족 → 교수자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을 수업 OT 시간에 안내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조율 → 다양한 방법으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되, 시험, 과제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고지하고 피드백 실시 ■ 강의 다양성 부족/시대 반영한 주제 부족 → 학생의 수요, 사회적 요구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설 시 반영 → 단순한 주제 다양성을 넘어서, 체험형 수업, 자기설계 수업 등을 시행하여 다양성을 체감토록 함

2. 전공교육과정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2년 조사결과	■ 학과 교수진 수가 적어, 전공 강의 선택에 제약 → 교수진 확충/동일한 교수진이라 하더라도 분반 형태로 운영 → 타대학 학점 교류 제도화 및 활성화, 온라인 오픈 강좌를 활용한 학점 취득 방안 ■ 저학년 실습강좌 이수 기회 제한적 → 1, 2학년 때 실무적인 부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공 관련 실무자 특강 진행 ■ 단순 암기식,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지적 → 수업 성격에 맞게 수업을 운영하되, 학생의 참여도와 이해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에게 교수법 관련 자료, 정보 제공 ■ 학년별 전공 학점비율 적절성 → 1학년 때 전공 이수학점을, 학습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후 전공 학점 이수 부담을 경감
23년 조사결과	■ 강의 다양성 부족 → 전공과목 다양성 부족 문제는 교수자 부족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교수요원 확충이 필요 → 타 대학 학점 교류 제도 활성화, 온라인 오픈 강좌를 활용한 학점 취득 방안 마련 ■ 실습 과목 부족 → 저학년 때부터 이론-실제의 연관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 봉사활동, 직무체험 프로그램 제공 ■ 수업 피드백, 소통 부족 → 시험 및 과제 평가 결과 공개, 모범답안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수 교수자 인센티브 제공 → 수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ex LMS 활용도 극대화, Teaching Assistant 활용) ■ 전공 필수 과다 → 전공 필수, 졸업 이수학점 감소를 추진하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요청되는 지식 및 전공 이수 체계에 대한 상세한 안내 제공

3. 학사제도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22년 조사결과	■ 진로 취업 정보 부족 → 취업한 선배와 재학생 후배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보 제공 → 학생이 상시적으로 진로취업 정보를 문의하고 피드백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복수전공 여석 확보 및 선발기준 다각화 필요 → 해당 학과에서 복수전공 지원 인원을 파악하여 신청인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여석 마련 → 복수전공 기준이 지나치게 '성적'에만 치우쳐 있어, 다양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졸업 요건 점검 필요 → 단과대 별로 졸업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특정 단과대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 졸업 조건을 조정 → 학점, 어학성적 외에도 학과별로 다양한 졸업요건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학과 진로와 큰 관련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완화할 필요 있음 ■ 진로 취업 지원 강화 필요 →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매체나 수단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지도교수 또는 진로취업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한 진로취업 지원 강화
23년 조사결과	■ 진로 취업 정보 부족 → 학과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 취업 선배-재학생 후배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교내에서 진행 중인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홍보 ■ 졸업 요건 점검 필요 → 단순한 통과 의례 또는 너무 통과하기 어려운 허들로 졸업 요건을 활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해당 전공 학사로서 필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으로 실제적인 전공역량 함량에 도움되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졸업 요건 재정비 ■ 복수전공 제한 / 전과 제한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저학년 때 부복수 전공 신청, 이수과목, 취득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 → 부복수 전공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관련 부서, 해당 정보 게시 홈페이지 등을 홍보 → 해당 학과에서 복수전공 지원 인원을 파악하여 전공 여석 마련 필요 ■ 강의 다양성 확대 필요 → 타 학과 전공 이수 시 전공학점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마이크로 전공 제도 확대) → 타 대학과 협력하여 학점 교류 시행

4.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22년 조사결과	■ 컴퓨터공학과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학과와의 연계 및 융합에 대한 요구 높음 → 미래 IT산업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과와 연계 요구 높음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관해 배우는 컴퓨터공학과 연계하면 진로 설정 용이 ■ 언론정보학과 → 미디어 계열, SNS활성화 시대 흐름에 맞춰 영상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연계하고자 함 → 영상제작, 편집 등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공으로 다양한 진로 설계 가능 ■ 3개 이상 전공 복합적으로 연계 → 다양한 전공과 연계하여, 자기 주전공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격 혹은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 진로, 취업을 고려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은 전공과의 융합 및 연계 요구가 높음 → 인문계열의 경우, 진로 취업 설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주로 IT 관련 전공 혹은 무역, 상경계열 등 확장성이 높은 전공과의 연계 요구가 높음
23년 조사결과	■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통계, AI,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 관련 과목에 대한 연계 및 융합에 대한 요구 높음 → 향후 미래를 선도할 산업의 핵심 학문이자, 타 학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가 높음 → 진로 및 취업 시에도 해당 전공 관련 지식과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경영학과 → 미래 준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영학은 어느 쪽으로 진로나 취업을 정하더라도 확장성이 있는 과목 ■실제적인 쓰임과 활용도가 높은 전공과의 융합/연계 요구가 높은 한편, 현재 전공을 보완하고 심화하는 전공에 대한 연계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IT 관련 전공, 경영학 등 확장성이 높은 전공과의 연계 요구가 높음 → 교육학-심리학, 한문교육-국어교육, 조경학-건축디자인 등 자기 전공을 심화, 보완할 수 있는 전공과 연계 수요도 높음

5.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22년 조사결과	■ 필수 이수 과목을 해제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계획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전공을 개설하고 다양한 트랙을 마련하여 학습을 심화하는 한편, 타전공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 교수자 간 강의 질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수자 간 소통, 협력 확대 방안 필요 ■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하여 융합과목을 확대하고, 강의 시설 및 스마트 교육 인프라 확충
23년 조사결과	■ 강의 주제, 방식, 평가, 활용 면에서 강의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생-학교의 상호 피드백 및 수업 개선 ■ 필수 이수 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되, 필수 지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수체계 홍보 ■ 전공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학사제도 유연화, 범-전공 프로젝트 과제 제시 ■ 저학년에 경험할 수 있는 실습과목 또는 프로그램 개설, 운영 ■ 과제 및 시험 평가 기준고지 및 성실한 피드백



Ⅱ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조사내용
3. 분석대상
4. 조사 및 분석 기간
5. 자료처리 및 분석
6. 조사대상 학과
7. 모니터링단 취합 의견 특성

1. 사업배경 및 목적

1) 사업배경

- **YU&EYE 학생 모니터링단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시각에서 본교의 교양 및 전공 수업 운영, 학사제도, 학생 편의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환류 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대학 측에 건의하는 제도임**
  - 영남대학교는 2019년에 학생 모니터링을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 5년째 진행 중임
  - 기 건의된 사항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환류 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평가)
  - 현시점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YU&EYE 학생 모니터링 활동은 소속 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5개 분야에 대해 총 117명의 「학생 모니터링단」이 활동하여 총 1,170여 명 학생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음**
  - 학생모니터링은 2인 1조가 되어 대담자 20명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됨
  -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 가능(학부과별 특수성 반영 가능)
  - 현재(2023년 4월 1일 기준) 영남대학교 재학생 수는 20,350명으로, 본 보고서에 활용된 1,165명의 의견은 학교 전체 대비 약 5.7248%임
- **YU&EYE 학생 모니터링단은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점검 등을 실시함**

2) 사업목적

-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활동 참여를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성 향상 및 학교 행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자유도가 높은 모니터링 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 배양
  -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대학 측에 건의
  - 대학 교육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애교심 및 소속감 제고
- **영남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학사 운영에서 교육수요자(학생)의 의견 반영 통로 체계화, 단과대학별 개선사항 제시를 통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및 객관적·효율적·체계적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2. 조사내용

1) 1학기 학생 모니터링

- **1학기 학생모니터링 활동은 교양 및 소속 학부(과) 전공교육과정 파악·진단 및 2학기 학생 모니터링단 활동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시행**
- **교육과정 관련 3개 영역에 대한 개방형 질문**
-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 강점,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교육혁신 방안 모색 :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면담자용 질문

2) 2학기 학생 모니터링

- **교육과정 관련 5개 영역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
-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학사제도,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양 및 전공 추천과목 및 추천이유,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제안의견
  -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제안의견

3. 분석대상

1) 1학기 학생 모니터링

- **2023년 1학기 학생 모니터링 보고서 121개**
  - 총126명이 YU&EYE 학생 모니터링단으로 지원하였으나, 5명이 중도 포기하여 최종 회수된 보고서는 121개임

2) 2학기 학생 모니터링

- **2023년 2학기 학생 모니터링 보고서 1,165개**
  - 총 121명 61개 팀이 학생 모니터링단으로 지원하였으나, 2팀이 중도 포기하여 최종 회수된 보고서는 1,165개임

4. 조사 및 분석 기간

1) 1학기 학생 모니터링

- **2023년 1학기 학생 모니터링 보고서 121개**
  - 학생 모니터링 활동 기간: 2023년 5월 31일 ~ 7월 19일
  - 분석 기간: 2023년 7월 20일 ~ 8월 17일

2) 2학기 학생모니터링

- **2023년 2학기 학생 모니터링 보고서 1,165개**
  - 학생 모니터링 활동 기간: 2023년 9월 1일 ~ 10월 31일
  - 분석 기간: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5.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 개인 또는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조사 방법으로서 현재 메시지뿐만 아니라 잠재적 내용도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양적/질적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 내용분석법 절차는 '연구 문제 설정', '모집단 규정 및 표본 추출', '분석내용 범주 설정', '분석단위 규정', '수량화 체계 규정' 등으로 진행됨

2) 분석

-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PS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통계 분석함
  - 영역별 상세 내용은 부록에 수록

6. 조사대상 학과

- **최종 12개 단과대학, 59개 학과 학생들이 조사대상임**
  - 1학기 학생모니터링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 행정학과, 화학과 1인 제외(중도포기)
  - 2학기 학생모니터링에서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의생명공학과 제외(중도 포기)

단과대학	학과
1) 인문대학	문화인류학과, 역사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프랑스어문전공), 유럽언어문화학부(독일언어문화전공),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2)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3)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화학공학부(고분자바이오소재전공), 화화학공학부(에너지화공전공), 화학공학부(융합화학공학전공), 화학공학부(화공시스템전공), 환경공학과,
4)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기계설계전공),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전공), 기계공학부(첨단기계전공), 로봇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5)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6) 경영대학	경영학과
7) 약학대학	약학부(약학과·제약학과)
8)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생명공학과, 식품경제외식학과, 식품공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학과
9)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류패션학과, 주거환경학과, 체육학부(무용학), 체육학부(체육학)
10)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음악학부(기악과), 음악학부(성악과), 음악학부(음악과), 트랜스아트과, 회화과
11)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한문교육과
12) 글로벌인재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7. 모니터링단 취합 의견 특성

1) 1학기 학생 모니터링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항목에서 긍정의견은 353건, 현황/문제점은 299건의 의견이 있음**

항목	장점/대응(모색)방안		현황/문제점	
합계	353	100%	299	100%
항목 평균	176.5	-	149.5	-
1. 교양교육과정	183	51.8%	159	53.2%
2. 전공교육과정	170	48.2%	140	46.8%

2) 2학기 학생 모니터링

- **교양강좌 평가 기준(1,157건) 및 신규교양강좌 제안(1,154건) 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음**
  - 항목별로 평균 제안의견은 약 1,041건임

항목	현황/문제점, 제안의견	
합계	3737	100%
항목 평균	622.83	-
1. 교양교육과정	-	-
1) 신규교양강좌 제안	754	20.2%
2) 교양강좌 운영	535	14.3%
3) 교양강좌 평가 기준	612	16.4%
2. 전공교육과정	624	16.7%
3. 학사제도	602	16.1%
4.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610	16.3%



Ⅲ

1학기 조사결과

제1장. 교양교육과정
제2장. 전공교육과정
제3장.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제1장 교양교육과정

1. 장점

- **'강의 다양성 만족/개설 강의 수 많음'(30.5%)을 교양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음**
- **다음으로 '관심분야 지식습득'(12.1%), '흥미·적성 발견, 진로선택에 도움'(11.0%), '자유로운 수강신청'(6.8%), '폭넓은 교양'(6.3%) 등의 순이었음**

※ 총 121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함. 총 190개의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세부항목(중복응답, %)	
강의 다양성 만족/개설 강의 수 많음 - "타 대학 대비 개설 강좌가 다양하여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넓다" - "기본적 교양 함양 강좌부터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강좌까지 다양한 구성" - "적성과 흥미를 찾아볼 수 있는 강의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30.5%
관심분야 지식습득 - "학과 공부 이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 - "전공과 별개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흥미 충족"	12.1%
흥미, 적성 발견, 진로선택에 도움 - "교양을 들으면서 나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11.0%
자유로운 수강신청 -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6.8%
폭넓은 교양	6.3%
교양에 걸맞은 쉬운 수업 난이도	5.8%
강의진, 교수진 관련	5.8%
전공과목 학습에 도움	5.3%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지식습득	5.3%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방식(상의형태)	2.1%
교양 함양	2.1%
교수와 학생의 소통	1.1%
성적 평가 방식	1.1%
학문적 재미	1.1%
교육과목 및 교육과정 구성에 만족	0.5%
시간표 설계에 용이	0.5%
기타	2.6%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2.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학사제도'(26.1%)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험/평가방식'(25.3%), '수업운영'(20.3%)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총 121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함. 없음/무응답을 제외한 159개의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영역	세부항목(%)	
학사제도 (26.1%)	강좌 신청 관련	15.8%
	강의 시간대 편향	8.9%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0.7%
	교양 학점 관련	0.7%
수업운영 (20.3%)	매년 비슷한 구성	14.5%
	수업 난이도 부적절	1.9%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1.9%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1.9%
시험/평가 방식 (25.3%)	평가 피드백, 소통관련	13.9%
	시험문제/시험난이도	8.2%
	성적 관련/평가방식	3.2%
증원/개설 등 (19.6%)	강의 다양성 부족/시대 반영 주제 부족	12.6%
	증원/분반/폐강	7.1%
기타 (8.7%)	타과 학생들과 교류 기회 부족	2.6%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9%
	기타	5.2%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1) 개선방안 및 핵심지표

구분(%)	세부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핵심지표
학사제도 (26.1%)	강좌 신청 관련	15.8%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강좌 신청이 너무 어렵다"	▪ 인기 강좌를 파악하고 강좌 분반, 여석 확대 등을 진행 ▪ 인기 강좌의 특징을 분석하여 비인기 강좌를 개선	(1)
	강의 시간대 편향	8.9%	"오전에 듣고 싶은 교양 과목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전공과목과 시간 겹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교양 강의를 온라인으로 개설	
	교양 학점 관련	1.4%	"개설된 교양 과목이 2~3학점인 경우가 많아 1학점만 남은 경우 신청하기 불편"	▪ 1학점 정도에 준하는 내용과 과제로 된 수업을 신규 개설	
수업운영 (20.3%)	매년 비슷한 구성	14.5%	"매년 비슷한 구성이 결국 족보 문제를 야기하고, 공부를 최소한만 하도록 한다"	▪ 족보문제가 제기되는 수업에 대해 조사하여 담당 교수자에게 해당 문제를 고지하고, 수업내용과 자료 업데이트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	(2)
	수업 난이도 부적절	1.9%	"교양과목 특성상 여러 학과 학생이 수강하여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	▪ 일반교양과 심화교양으로 구분하여, 난이도를 조절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1.9%	"일부 강의의 강의 계획서 미등재, 입력 부실, 실제 강의와 불일치"	▪ 강의계획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화 ▪ 기한 내 강의 계획서 업로드 의무화 ▪ 강의계획서 입력 및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1.3%	"강의자료를 읽기만 하는 수업. 특히 인터넷 강의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 "참여형 수업이 적음"	▪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 마련 - 예컨대 채팅방, 퀴즈 등을 활용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세부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핵심지표
시험/평가 방식 (25.3%)	평가 피드백, 소통 관련	13.9%	"시험, 과제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부족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기 어려움"	▪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 ▪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다면적으로 평가	(3)
	시험문제/시험난이도	8.2%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을 문제화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고 있음" "매번 똑같은 시험 문제 출제로 족보가 횡행"	▪ 각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검토하여, 평가 점수 하위 과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 실시 ▪ 객관식이나 단답형 대신 서술식 답변 요구하는 문항 출제	
	성적 관련/평가방식	3.2%	"지필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음"	▪ 각 과목에 해당하는 적절한 평가 방식을 고안하고, 다면적 평가를 실시	
증원/개설 등 (19.6%)	강의 다양성 부족/ 시대 반영 주제 부족	12.6%	"개설된 강좌는 많으나, 해마다 동일한 강의가 개설되어 낡은 강의가 많음"	▪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 ▪ 교양 영역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재분류하고 세분화하여 개설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강의	(4)
	증원/분반/폐강	7.1%	"흥미로운 교양들이 자주 폐강되고 있음" "인기 강좌에 수강신청 쏠림"	▪ 폐강 강좌의 경우에도 단순히 폐강하기보다는 폐강 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인기 강좌의 경우, 분반으로 하거나 여석을 확대	
기타 (8.7%)	타과 학생들과 교류 기회 부족	2.6%	"타 대학과 교류 기회가 부족하여 관심분야를 넓힐 기회가 제한적임"	▪ 타 대학과 더불어 작업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교류 기회 확대 ▪ 융복합적 사고와 지식이 요청되는 과제 및 프로젝트 시행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9%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강 신청 시 어려움" "강의난이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교육 실시 ▪ 다양한 홍보채널 확부 후 공지	
	기타	5.2%	"학점 채우기용 이수가 많음"	▪ 양질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2) 부문별 발전 방안

핵심지표1. [학사제도 - 강좌 신청 관련]



- (수요-공급 불균형) 강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인기 강좌의 인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섬세한 대응 진행
- (수강 신청 경쟁 과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강 내용, 수강 시간, 시수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강좌를 배치하여 강좌 쏠림 현상을 완화

핵심지표2. [수업운영 - 매년 비슷한 구성]



- (수업자료) 수업자료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피드백될 수 있도록 수업 평가 방안 마련
- (강의방식) 동일한 수업내용과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강좌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핵심지표3. [시험/평가방식 - 평가 피드백, 소통관련]



- (사전공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제도화하여 교수자의 개인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라는 인식 극복
- (다양한 평가 방법) 지필시험, 이론에 대한 암기 평가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한 평가방법, 예컨대 과제, 발표 등을 활용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

핵심지표4. [증원/개설 등 - 강의다양성, 시대반영 주제 과목 개설 필요]



- (수요 파악) 학생들의 강좌 수요, 사회적 요구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신규 개설 시 반영 필요
- (트렌드 반영)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단순 이론적 교양이 아닌 실습형 강의 마련
- (체험형 과목) 직접 체험 혹은 실험할 수 있는 유형의 과목 개설 논의
  : 수업 방식이 일방적이고 이론형에 머물러, 교양 과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험형/실습형 과목 등의 배치를 통해 다양성 제공

제2장 전공교육과정

1. 장점

- **'체계적인(단계별) 학업 커리큘럼'(16.8%)을 전공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음**
- **다음으로 '교수 역량 만족'(16.8%), '양질의 수업/전문성 있는 수업'(14.5%), '실용적인 전공과목(실무, 자격증 취득 관련)'(8.2%), '평가/피드백'(8.2%) 등의 순이었음**

※총 121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함. 총 170개의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세부항목(중복응답, %)	
체계적인(단계별) 학업 커리큘럼 -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화되는 수업을 통한 전문성 향상" - "기본적인 과목에서 응용과목으로 또 실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교육과정"	16.8%
교수 역량 만족 - "애정과 열정 넘치는 교수님의 강의" -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학생 맞춤형 수업" - "전문적인 지식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으로 설명"	16.8%
양질의 수업/전문성 있는 수업 - "전공수업을 통해 전문지식 습득, 나아가 진로 설정까지 가능"	14.5%
실용적인 전공과목(실무, 자격증 취득 관련) - "실용적인 전공과목을 통해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	8.2%
평가/피드백	8.2%
진로·취업에 도움	8.2%
수업방식	6.4%
개인 역량 강화	6.4%
강의 다양성 만족	5.9%
다양한 커리큘럼	2.4%
실습과목 관련	1.2%
수업분위기	0.5%
졸업요건 만족(자격증 취득 등)	0.5%
기타	4.0%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2.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개설/분반/폐강'(51.2%)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업운영'(11.4%), '학사제도'(7.7%)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총 121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함. 없음/무응답을 제외한 140개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영역	세부항목(%)	
학사제도 (7.7%)	전공필수과목 과다	3.0%
	학년별 전공학점 비율/배당학점 관련	2.3%
	교육과정편람 재정립	1.6%
	강의 계획서 부실/불일치	0.9%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0.9%
	학사제도 기타	1.6%
수업운영 (11.4%)	수업 피드백, 소통	5.2%
	수업방식(강의형태, 진도 등)	3.0%
	수업 안내 부족	2.3%
	강의자료	0.9%
강사진/ 교수진 (2.9%)	강사진/교수진 관련	2.9%
강의 질 (4.5%)	수업 난이도	2.9%
	수업 전문성 미흡	1.6%
시험 운영 (6.6%)	성적관련	5.8%
	평가 방식의 적절성	0.9%
개설/분반 /폐강 (51.2%)	강의다양성 부족	26.4%
	실습과목 관련	12.9%
	증원/분반/폐강	10.8%
기타 (16.7%)	타 학과 교류 부족	5.4%
	전공 강의 시간대 편향	5.1%
	커리큘럼	2.2%
	기타	4.0%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1) 개선방안 및 핵심지표

구분(%)	세부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핵심지표
학사제도 (7.7%)	전공필수과목 과다	3.0%	"졸업을 위한 전공필수 학점이 많아서, 전공 수업 선택권이 별로 없다"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필수 과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수업내용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인 지식 및 과목의 수준과 단계에 대해 공지	(4)
	학년별 전공학점 비율/배당학점 관련	2.3%	"특정학과의 경우(시각디자인, 도시공학) 전공배당학점이 적거나 계열별로 개설 전공 과목 수 부족으로 졸업 최소 이수학점을 맞추기 쉽지 않음"	▪ 특정 학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점 배당 비율 문제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교육과정편람 재정립	1.6%	"교육과정이 변화가 거의 없어 트랜드 반영 등이 더딤"	▪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되, 학생들과도 소통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선	
	강의 계획서 부실/불일치	0.9%	"불성실한 강의 계획서 입력으로 수강 시 혼란"	▪ 강의 계획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0.9%	"졸업학점, 교내 필수로 알아야 할 제도 등에 대한 안내 미흡"	▪ 입학 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내 필수 혹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소개	
	학사제도 기타	1.6%	"복수전공 시간표 짜기가 어려움"	▪ 필수 이수 과목 및 학점을 완화하고,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수업운영 (11.4%)	수업 피드백, 소통	5.2%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점수 미공개 및 피드백 미흡"	▪ 시험 점수 및 모범답안 공개를 의무화 ▪ 강의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상시 소통	(3)
	수업방식(강의형태, 진도 등)	3.0%	"매년 유사한 수업 구성- 수업 내용 및 수업 방법"	▪ 수업 방법에 대한 평가가 낮은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수법 지원 확대	
	수업 안내 부족	2.3%	"저학년일 경우 강좌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려움"	▪ 강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 ▪ 학과 홈페이지에 수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시 ▪ 수업 자료 등을 사전에 공유	
	강의자료	0.9%	"오래되고 재사용되는 콘텐츠"	▪ 전공지식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례 등은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예시와 사례 다양화	
강사진/ 교수진 (2.9%)	강사진/교수진 관련	2.9%	"교수자의 발음, 필기 부정확,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	▪ 교수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발성, 판서 등) 실시 ▪ 학생과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매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수자가 학생과 소통 진진할 수 있도록 지원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세부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핵심 지표
강의 질 (4.5%)	수업 난이도	2.9%	"수업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 따라가기 어려움"	▪ 진도가 빨라지거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단계적 학습 지원	
	수업 전문성 미흡	1.6%	"개론적 수준에서 그치는 수업 또는 급하게 진도를 나가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 기초수업-심화수업으로 수업을 계열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수업 진행	
시험 운영 (6.6%)	성적관련	5.8%	"시험 점수, 과제 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기준, 평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	▪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 제시 ▪ 평가의 객관적인 지표 제시를 의무화 - 강의 평가에 높은 비중을 반영하도록 제도화	
	평가 방식의 적절성	0.9%	"관련 행사 참석/불참석 여부가 실기시험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평가 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업 시간에 안내하고 소통	
개설/분반/폐강 (51.2%)	강의다양성 부족	26.4%	"전공 핵심 과목 다양성이 부족." "트랜드 반영한 강좌 개설 미흡" "전공 개설 과목 수가 적어서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개설된 거의 모든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	▪ 강좌 신규 개설 시 사회적 트랜드를 조사하고 반영 ▪ 타대학 학점 교류 활성화 ▪ 인터넷 오픈 강좌를 활용한 학점 취득 방안 마련	(1)
	실습과목 관련	12.9%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 부족" "3, 4학년 때 실습, 실험과목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저학년 때는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볼 기회 적고, 이론과 실제가 동떨어진 느낌을 받음"	▪ 1, 2학년 때 전공 관련 실무자 특강을 여러 회 진행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저학년 때도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인턴, 봉사활동, 직무 체험 프로그램 개설	(2)
	증원/분반/폐강	10.8%	"수강을 원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여석이 너무 부족" "부복수전공 시 여석 부족으로 인해 수강신청 어려움"	▪ 필수과목인 경우, 부복수 전공자를 위한 별도 여석 마련 필요 ▪ 필수 강좌이지만, 전공교수가 없을 시, 강사 섭외, 대체과목 개설 등을 통하여 대안 마련 ▪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강좌 개설, 여석 확보	
기타 (16.7%)	타 학과 교류 부족	5.8%	"타 학과 교류 기회 부족"	▪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전공의 경우, 타 전공과목 이수 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전공 강의 시간대 편향	5.1%	"사람이 적은 소수 과일수록 전공 시간대 편향이 심하고, 문제가 더 심각함"	▪ 전공필수 과목일수록, 가급적 듣기 편한 시간대에 우선 배정	
	커리큘럼	2.2%	"학기당 성적 우수자 이수 학점 축소로 인해 2학점이 남는 문제"	▪ 전공 기초적인 내용의 2학점 교양 강좌 개설	
	기타	4.0%	"학생들의 태도" "학생들 간 소통"	▪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에 대한 점검 및 과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 ▪ 소통 간담회 등 교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통 증진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2) 부문별 발전 방안

핵심지표1. [개설/분반/폐강 - 강의 다양성 부족]



- (강좌 개설) 사회적인 요구와 트렌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 강좌 개설
- (전공 다양성 확보) 타대학 학점 교류 제도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전공교과목 다양성 확보, 인터넷 오픈 강좌를 활용한 학점 취득 방안을 검토하여 수강 선택권 보장
- (교수 충원) 다양한 전공 기반 교수 충원을 통하여 학습자의 전공 선택권을 보완

핵심지표2. [개설/분반/폐강 - 실습과목 관련]



- (실험실습 수업 증대) 이론수업과 연계하여 실험, 실습과목 개설 확대
- (실험실습 수업 배정) 저학년 때에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그림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 관련 실무자 특강을 진행, 인턴, 봉사활동,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개설하여 저학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고학년에서 배울 이론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험실습 수업을 저학년에도 개설
- (실습 피드백) 실습 및 체험 수업 후 이론과 실습, 실무를 매칭할 수 있도록 상세한 피드백 제공

핵심지표3. [수업운영 - 수업 피드백, 소통]



- (점수공개) 시험 성적, 과제 점수 미공개로 인하여 시험을 통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어려움
  → 시험 및 과제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능하다면 모범답안도 제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
- (피드백 강화)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소통,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
  → 강의지원, TA(Teaching Assistant)활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원할한 소통 체계를 구축

핵심지표4. [학사제도 - 전공 필수 과목 과다]



- (전공필수 학점 축소) 졸업 학점, 전공필수 학점 감소 추진
- (핵심 전공 체계 안내)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식 및 전공 이수체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하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

제3장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1. 면담자용 질문

- **모니터링 활동 시 면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으로, 세부 항목 기준 '강의수요'(13.4%)와 관련된 항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추천/비추천 강의(인기 있는 강의 이유)'(10.3%), '수업방식(6.2%)', '수업 만족도(5.8%)', '커리큘럼 관련'(5.8%) 등의 순이었음**

※총 121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함. 총 292개의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영역	세부항목(%)	
전반적 만족도 (28.4%)	추천/비추천 강의 (인기 강의 이유)	10.3%
	수업 만족도	5.8%
	교과목 선택 이유	5.1%
	교양 장단점	4.5%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선사항	2.7%
학사제도 (3.1%)	교양 관련 제도	1.7%
	시간표	1.4%
수업운영 (12.2%)	수업방식	6.2%
	수업 난이도	2.0%
	수업 피드백, 소통	2.0%
	강사진/교수진 관련	1.0%
	온라인 강의 관련	1.0%
과목개설/ 증원/분반 (21.2%)	강의수요 관련	13.4%
	강의 다양성	5.1%
	수강인원	2.7%

영역	세부항목(%)	
시험 (3.7%)	평가방식, 성적산출	2.0%
	시험 변별력	1.7%
필수교양 과목 (3.0%)	필수교양 필요성/해제	1.3%
	학과별 필수교양	1.0%
	필수교양 관련 기타	0.7%
학과 및 전공 (9.6%)	커리큘럼 관련	5.8%
	전공 실용성	1.7%
	전공관련 진로 선택 도움	1.4%
	학과 장단점	0.7%
학교생활 (5.8%)	학교시설(강의실) 만족도	2.4%
	학교에 바라는 점	1.7%
	강의평가	1.0%
	비교과과목	0.7%
기타 (13.0%)	기타	13.0%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2. 세부 질문 내용

※영역에 관계없이 세부 질문내용 기준으로 상위 5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질문 내용

강의수요 관련 13.4%

☞ 기존에 없는 신설 과목 혹은 타대학에 있는 과목 가운데 원하는 내용

Q. (트랜드) 요즘 트랜드에 맞는 교육 및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Q. (신설) 신설되었으면 하는 교과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수요)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교양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수업은 개설되어 있는가?
Q. (타대학) 타대학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중 우리 학교에 도입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추천/비추천 강의(특히 인기 있는 강의 이유) 10.3%

☞ 추천/비추천 강의의 종류와 이유, '인기 있는 강의'의 유형과 선호 이유

Q. (추천/비추천) 학우들에게 (비)추천할 만한 교양(또는 전공) 강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만족/불만족) 다양한 수업 중 관심있는 수업/기피하는 수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효용성) 의미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의는 무엇이고, 그러한 강의의 성격은 어떠한가?
Q. (인기 강좌) 요즘 가장 있기 있는 교양교과목과 인기 있는 교양과목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업 방식 6.2%

☞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 및 개선 방안

Q. (선호도)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인가?
Q. (이해도) 수업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의 수업이 어떤 수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Q. (참여도) 학생들이 관심있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은 어떤 것인가?
Q. (방안) 변화시키고 있는 수업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수업 만족도 5.8%

☞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 파악 및 향상 방안

Q. (만족/불만족) 지금까지 수강했던 수업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수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Q. (효용성) 수강한 수업이 진로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Q. (방안) 전공/교양 수업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커리큘럼 관련 5.8%

☞ 학과 커리큘럼 인지 및 개선 사항

Q. (인지) 학과 커리큘럼 전반을 인지하고 있는가?
Q. (적절성) 커리큘럼 구성은 적절한가? 새롭게 개편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세부 응답 [부록 I] 참고



Ⅳ
2학기 조사결과

제1장. 교양교육과정
제2장. 전공교육과정
제3장. 학사제도
제4장.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제5장.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제1장 교양교육과정

1. 현황 및 문제점

- **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과목 개설/증원'(21.9%) 관련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강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조사됨.**

※ 총 1,144명의 응답을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가운데, 한 응답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체크한 후, 응답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구분	문제점 세부사항(%)	
학사제도 (5.8%)	전공자의 관련 교양 수강 제한	0.5%
	강의시간대 편향, 강의시간 겹침	3.2%
	학사제도 관련 기타	2.1%
수업운영 (21.7%)	강사진, 교수진 관련	2.1%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2.7%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인터넷 강의 개선	3.1%
	수업 난이도 부적절	4.1%
	강의시설, 강의도구, 실습도구	0.1%
	강의자료 미흡	1.1%
	소통 미흡, 피드백 미흡	1.6%
수업 내용 (9.0%)	강의의 질 차이	2.2%
	전공과의 연계성 저하	0.2%
	교양 효용성 관련	4.8%
	수업 분위기(참여도, 학업 수준 등)	1.8%
시험 운영 (15.6%)	성적, 평가 관련	2.4%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시험 감독/관리	0.3%
	시험 관리 기타	1.0%
	과도한 과제, 시험 부담	1.7%
과목 개설/증원 (21.9%)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폐강 문제	0.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교양필수과목 (4.0%)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4.0%
수강신청 (15.5%)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4%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학교생활 (0.3%)	학우 간 교류 미흡, 소통 미흡	0.3%
기타 (6.2%)	기타/없음	6.2%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1) 문제점별 현황 및 해결방안

구분(%)	문제점(%)		현황	해결방안	핵심지표
학사제도 (5.8%)	전공자의 관련 교양 수강 제한	0.5%	"전공 관련 교양은 수강 불가"	▪ 전공지식과 관련성을 따져서 다소 관련성이 적다면 수강 허용 필요 ▪ 수요조사를 통해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 전공자를 위한 교양으로 개설	
	강의시간대 편향, 강의시간 겹침	3.2%	"다수 교양이 인문대학쪽에 개설되어 이공계 학생은 시간표짜기가 어려움"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 시간이 겹침"	▪ 학기별(정기적) 교양수업 시간, 장소 조정 필요 ▪ 사전 수강신청을 통하여 인기 강좌의 개설 수 확대 및 수강 시간대 다양화	
	학사제도 관련 기타	2.1%	"2학점, 1학점 교양과목 부족" "교양 이수 학점의 제한으로 듣고 싶은 과목 듣지 못함"	▪ 1~2학점 교양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유연하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양 이수 학점 제한 완화	
수업운영 (21.7%)	강사진, 교수진 관련	2.1%	"교원 수 부족"	▪ 교수 충원 ▪ 인터넷 강좌 개설로, 교수자 수 부족 문제를 보완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2.7%	"수강 신청 시 교수 미지정 과목이 많아 불편"	▪ 수강 신청 전 교수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이론수업 과도, 주입식 교육" "PPT 읽는 식의 강의방식"	▪ 발표, 토론, 논술 팀과제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식 활용(학생 참여형 수업)	(4)
	인터넷 강의 개선	3.1%	"피드백 부족" "동일한 수업자료 재사용"	▪ 주기적인 강의 평가 실시 ▪ 영상 및 수업자료 재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시험은 필히 매년 다르게 출제	
	수업 난이도 부적절	4.1%	"학생들의 기초 지식 수준 차이" "교양과목임에도 높은 수준의 이해 필요"	▪ 단계별 수업 지원(분반 수업) ▪ 수강생에 따른 난이도 조정	
	강의시설, 강의도구, 실습도구	0.1%	"전문적인 실습 진행 시설, 장비 부족"	▪ 장소,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면 우선 대여하고, 차차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	
	강의자료 미흡	1.1%	"낡고 매년 재사용되는 강의자료"	▪ 강의자료 업데이트 미흡 시 제재 ▪ 외부강사 초빙 등 강사진 교체	
	소통 미흡, 피드백 미흡	1.6%	"학생-교수 소통 부족" "학생의 피드백이 즉각 반영되지 않음"	▪ 교수자-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익명 평가 및 평가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수업 내용 (9.0%)	강의의 질 차이	2.2%	"교수진들 사이의 실력 차이" "교수 간 추구하는 방향성 차이가 있기 때문"	▪ 교수자가 수업의 질, 강의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 ▪ 동일과목 교수자 간 사전 조율 통한 수업 편차 완화	
	전공과의 연계성 저하	0.2%	"일부 교필은 전공 관련성 부족"	▪ 교양필수 지정에 대하여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안내와 소통	
	교양 효용성 관련	4.8%	"단편적 지식 습득, 성적 취득 위주의 교양 수업 수강"	▪ 양질의 교양수업 이수를 위하여 강의 내용 내실화, 참여도 평가 강화	
	수업 분위기(참여도, 학업 수준 등)	1.8%	"단순 이론 강의, 일방적 수업"	▪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나 퀴즈 등을 활용하여 수업 참여 독려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핵심지표
시험 운영 (15.6%)	성적, 평가 관련	2.4%	"교수마다 상이한 채점 기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모름"	▪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 ▪ 성적의 투명한 공개 ▪ 성적 및 평가 후 피드백 제공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매년 동일한 시험 문제"	▪ 족보가 판매되는 과목 조사 후 담당 교수자에게 고지하여 시험 출제 변형 요청, 추후 점검 ▪ 암기 시험 외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 제출	
	시험 감독/관리	0.3%	"컨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 객관식, 주관식 혼합형 출제 ▪ 퀴즈, 쪽지시험, 과제 빈도 확대	
	시험 관리 기타	1.0%	"온라인 테스트 증가로 시험 관리감독이 어려움"	▪ 대면 평가 확대 ▪ 온라인 시험 시 줌 또는 영상 제출 필수	
	과도한 과제, 시험 부담	1.7%	"교수와 학생의 눈높이 차이"	▪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 시험 출제	
과목개설/증원 (21.9%)	인기강좌 여석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인기 과목 편향, 수강인원 제한"	▪ 인기 과목 조사 후 분반 확대	(3)
	폐강 문제	0.3%	"신청 인원에 따른 강좌 폐강"	▪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강의의 질이나 해당 인원의 만족도를 고려하는 등 수강 인원 외 폐강 기준 고려하고 반영	
	강의 다양성 부족	13.6%	"교수진 부족(학교 예산 부족)" "신규 개설 과목 부족" "특정 영역 교과목만 신규 개설"	▪ 수요조사 결과 반영하여 교양 과목 편성 ▪ 부족한 영역 강좌 개설 확대	(1)
교양필수 과목 (4.0%)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4.0%	"불필요한 교양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고, 필수학점 지정 과도"	▪ 교양필수 지정 재검토를 통한 타당성 제고 ▪ 교양필수 학점 완화	
수강신청 (15.5%)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4%	"신규 강좌, 수업에 대한 정보 부족"	▪ 신규 교양과목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 개설 및 이를 통한 홍보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인기강좌에 너무 많은 학생 몰려" "수강신청이 선착순이라" "양질의 강좌 개설 부족 "	▪ 수강인원 증대/분반 ▪ 야간 수업, 인터넷 강의 개설 ▪ 새로운 교양 수업 개설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학생들의 관심이 수업의 내용보다 성적에 치중됐기 때문"	▪ 학생들의 교양에 대한 인식 개선	(2)
학교생활 (0.3%)	학우 간 교류 미흡, 소통 미흡	0.3%	"코로나 이후 강의 내 학생 의견 교류 활동 감소" "학생들 간 소통 활동 시간 적음"	▪ 팀 플레이, 공동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의 과제 확대	
기타 (6.2%)	기타/없음	6.2%	"문제점 없음, 만족함"	-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2) 부문별 발전 방안

핵심지표1. [과목 개설/증원 - 강의 다양성 부족]



- (수요조사 반영) 학습자 수요, 사회적 수요, 시대적 트렌드,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교양강좌 개설 시 반영
- (교양과목 분류) 교내에 분류되어 있는 교양과목 영역별로 개설 과목을 점검하여 부족한 개설 영역 추가 개설. 영역별로 교과목 수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과목 유사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과목 다양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
- (교수진 확충) 신규 교과목의 부족은 교수진 부족 문제와도 이어져 있으므로, 강좌 개설 시 필요한 교수진 확충

핵심지표2. [수강신청 -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 (난이도 재설정) 학생들이 쉬운 교양에 쏠리는 이유는 성적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교내 평가는 상대평가이므로 실제로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음. 다만 쉽다고 생각되는 교양은 과목 자체의 난이도, 과제 부담이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교양 난이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적 기준 명시화) 성적 산출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성적에 대한 과도한 관심도 줄어들 수 있음. 또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혹은 p/f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교양 과목 홍보) 일반적으로 수강신청 전에 선배나 친구들에게 꿀교양에 대해 듣고 수강하기에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심함. 다양한 교양 과목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핵심지표3. [과목 개설/증원 -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 (수강 인원 조정) 제한된 수강 인원으로 인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인원을 조정하거나 분반을 늘려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함
- (인터넷 강좌 개설) 인기 강좌의 경우, 인터넷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절
- (교양 인식 개선) 꿀교양 대신 양질의 교양과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양과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핵심지표4. [수업운영 -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 (수업방식 다양화) 수업 방식 또는 수업에 활용되는 매체를 다양화. 이론식 수업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 팀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여 학생 참여 확대
- (교수자 교육)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론과 방법에 대한 특강을 교수자에게 제공하여 수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천 교양 과목

1) 추천 교양 과목

- **추천 교양 과목으로는 '생활체육', '생활과 세금', '애니메이션의 세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아래는 1.0% 이상의 응답 비율만 기재함

추천 과목	사례수	비율(%)
1. 생활체육	63	6.5%
2. 생활과 세금	40	4.1%
3. 애니메이션의 세계	29	3.0%
4. 사회체육	22	2.3%
5. 미술치료의 이해	21	2.2%
6. 진로상담과 자기실현	20	2.1%
7. 리빙디자인과 문화	19	2.0%
8. 문학과 영화	18	1.9%
9. 인간발달과 교육	16	1.6%
10. 창업길라잡이	16	1.6%
11. C프로그래밍	15	1.5%
12. 미국드라마로 배우는 영어표현	15	1.5%
13. 자산관리와 인생재무 제표	13	1.3%
14.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	13	1.3%
15. 융복합글쓰기	12	1.2%

추천 과목	사례수	비율(%)
16. 현대사회와 스포츠	12	1.2%
17. 광고의 이해	11	1.1%
18. 성공과 창업전략	11	1.1%
19. 식물의 세계	11	1.1%
20. 식품과 건강	11	1.1%
21. 결혼과 가족	10	1.0%
22. 사랑학개론	10	1.0%
23. 심리학의 이해	10	1.0%
24. 영어로 배우는 의사소통	10	1.0%

※그 외 응답 비율 1.0% 미만 과목

- (응답 5건 이상) 기초독일어, 나만의 책 만들기, 영화로 하는 영어공부, 음악감상 및 비평, 토익스피킹, 현대인과 패션, 생활법률, 서양음악의 이해, 실용영어, 초급중국어, 스무살의 인문학,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한국의 전통교육, 행렬 및 행렬식, 미분적분학, 사회적 기업의 이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영남뫼가람의 생태와 생물, 운동과 건강, 좋은 삶과 사상 찾기, 4차산업혁명 시대 창업과 법의 세계, 갈등관리의 이해, 대구경북의 이해, 대학생활설계, 디지털시대의 예술문화, 미술치료로 이해하는 가족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슬기로운 건강생활, 음악으로 배우는 인문학, 장애인의 이해와 실천, 초급일본어

- (응답 3건 이상) 4차산업혁명과 기업가정신, 경계를 넘는 인문학, 나무의 이해, 문학과 금기, 뮤지컬과 친해지기, 삶의 기술, 서바이벌 베트남어, 소비자의 이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영어회화 트레이닝, 영화속 인공지능과 인문학, 예술과 교육, 인간과 동물, 자연과학과 삶의 이해, 한국미술의 이해, 행복한 삶과 가족, AI시대와 언어, 경영과 컴퓨팅, 계열실무영어, 고전에서 만나는 리더, 공업수학, 국가안보론,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내 몸과 질병 이야기,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생활한자, 숲과 물의 세계, 식탁의 혁명, 신짜오 베트남, 실용베트남어,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우리 땅 독도이야기, 융합 디자인 사고, 인간관계와 철학, 인권과 법, 전기 기기, 전자공학기초실험(1)/(2), 전쟁의 이해, 진로 코칭 프로젝트, 취업설계, 컴퓨팅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컴퓨터 비전프로그래밍 및 응용, 키워드로 듣는 문화 스토리텔링, 트렌드영어, 한국 근현대사, 한국사, 환경과 웰빙

- (응답 1건 이상) 4차산업혁명, 기초수학, 논리적 쓰기와 토론, 드라마로 배우는 일본어, 문학의 이해, 뮤지컬의 도시 대구 돌아보기, 미래 사회와 디자인, 북한학, 사회공헌과 봉사, 사회과학과 수학, 생명과학입문,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세상을 움직이는 코딩이야기, 스마트사회의 이해, ACADEMIC ENGLISH, 여성과 법, 역사 속의 철학, 영문독해, 영화로 보는 생명공학, 영화로 보는 춤 이야기, 유럽의 이해, 음악으로 배우는 유럽문화, 음주 문화와 술의 이해, 의사소통기술, 이야기 고사성어, 이야기로 듣는 철학,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물로 보는 중국사, 일반물리(1)/(2), 일반화학, 자원봉사론, 진로탐색, 통계학, 파이썬 프로그래밍, 패션과 문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현대미술의 쟁점, 현대정치의 이해, 협상의 심리학, 환경과 조경, 건강한 노화와 운동과학,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경산의 재발견, 경영학의 이해, 공연예술의 이해, 공존사회와 교육, 교양원예, 교육평가, 국어표기법과 표준화법, 국제문화의 이해, 글로벌리더십, 글로벌 사회공헌의 이해와 실천, 기술혁명과 공학윤리, 기업회계의 이해, 기초프랑스어, 뇌와 인간,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답사를 통해 본 마을학 이해, 도시의 이해, 독도의 역사, 독서와 토론, 독일어권 도시기행, 드라마로 보는 분단 그 너머, 디지털 영상처리, 디지털 통신공학, 메디치가문 이야기, 모바일 앱만들기, 무기체계론,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범죄수사론, 베트남 사회문화 탐구, 비만학개론,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의 이해, 상상력을 디자인하는 동화 쓰기, 생명과학(1), 생명과학실험, 생활과학입문, 세상을 바꾸는 명연설과 리더십, 세상을 읽고 소통하는 크리에이터 되기,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 쉽게 배우는 영어 뉴스 앤 이슈, 스스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시창청음, 신문 만화와 대중 문화, 신비한 생명의 세계, 신에너지공학, 실용금융, 실용중국어(2), 아동과 현대사회, 언어와 인간, 역사와 자연생태로 알아보는 독도이야기, 영남대학교의 미술문화, 영남 라이프 아카데미, 영남뫼가람, 영상문화의 이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유럽의 신화와 문화, 융합인문학, 음악 기초이론 따라가기, 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윤리, 일반물리실험(1)/(2), 일반생화학, 일반화학실험, 재료와 인간의 역사, 전공세미나, 전기공학 기초실험, 전력전송공학, 전산기계제도, 전쟁사, 정보통신학개론, 좋은 문서 디자인 A to Z,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이야기, 진로설계, 창업의 법과 세제, 청년기와 청년문화, 축제와 인간사회, 취업전략(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언어, 클래식 친구만들기, 통신시스템, 프랑스문화의 이해, 프로그래밍언어, 피드백을 통한 논문작성의 실제, 한국전통성악, 현대독일의 이해, 현대미술의 이해, 현대사회와 범죄, 현대인과 생활환경, 화성법

2) 추천 교양 과목 상위 10개 과목과 추천 이유

①생활체육 (n=63, 6.5%)

- (체력증진) 대학생활 중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데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음
- (체험, 실습 수업) 앉아 있는 수업만 하다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음
- (낮은 성적 부담) 패스과목이라 성적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수업
- (효용성) 운동을 배울 수 있고, 함께 운동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쉬움

②생활과 세금 (n=40, 4.1%)

- (효용성) 세금 관련 수업이라 실생활에 많은 점에서 도움
- (수업방식) 실제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수업이 재미있고 도움됨
- (수업내용) 세금의 역사, 세금 징수 이유, 세금의 종류, 세법, 해외 사례 비교 등 세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상세하게 설명
- (상식) 사회 생활 시 필요한 세금 상식 함양

③애니메이션의 세계 (n=29, 3.0%)

- (수업내용) 애니매이션 제작, 감독의 창작 의도, 촬영기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애니매이션을 조명
- (교수자) 감상평 과제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 흥미로운 수업 방식
- (난이도) 성적에 대한 압박이 없음
- (효용성) 다차원적으로 애니매이션을 해석하여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함

④사회체육 (n=22, 2.3%)

- (관계증진) 타과 사람들과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확장
- (체력증진) 신체기능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 (스포츠 기술)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스포츠를 시도하여 스포츠 기술을 습득

⑤미술치료의 이해 (n=21, 2.2%)

- (자아성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과목을 수강하며서 내면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음
- (수업방식)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의 팀별 진행으로, 팀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
- (교수진) 교수님이 학생들의 그림을 해석해주고 소통해주어서 좋음

⑥진로상담과 자기실현 (n=20, 2.1%)

- (관계증진) 팀활동이 주를 이루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
- (수업부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음. 쉽게 접근 가능
- (자아성찰) 자기를 분석하는 여러 분석 도구를 배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계속)

(앞장에서 계속)

⑦리빙 디자인과 문화 (n=19, 2.0%)

- (수업방식) 시각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흥미을 유발
- (교수진)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수업
- (교양함양) 디자인에 대한 역사와 상식이 증진됨
- (난이도) 얕지도, 너무 깊지도 않은 수업난이도로 학습자 부담이 크지 않음

⑧문학과 영화 (n=18, 1.9%)

- (수업방식) 학생 참여 비중이 높음. 영화 감상 기회가 많음. 영화 감상평을 서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
- (지식함양)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음
- (교수진) 교수자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학생과 소통도 원활

⑨인간발달과 교육 (n=16, 1.6%)

- (효용성) 삶의 철학, 인간발달, 교육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문제제기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유도
- (교수진) 유쾌하고 매끄러운 강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음
- (자아성찰) 인간발달, 교육에 대해서 듣고 나서 자신에 대한 성찰 기회를 갖게 됨
- (수업방법) 다양한 시청각 자료(영화, 다큐 등) 활용

⑩창업길라잡이 (n=16, 1.6%)

- (효용성)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 구현 방법 제공
- (난이도) 패스/페일 강의, 시험이 없어서 수업 부담이 적음
- (수업내용) 단순 창업 팁 제시를 넘어, 시장, 경제를 읽는 법 등을 교육해서 좋음

3. 신규교양강좌 제안

- **신규교양강좌로 '생활체육,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 등을 제안함**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신규교양강좌 영역	%
생활체육,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7.3%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	6.5%
실생활과 밀접한 수업	5.8%
음악/ 뮤지컬/ 악기	5.8%
다양한 실습과목	5.0%
외국어/ 실전회화/ 토익 등	4.9%
주식, 보험, 부동산 등 경제 관련	4.0%
진로, 취업, 면접 스킬 관련	4.0%
다양한 직업 알기/ 직무 체험	3.4%
토론 등 학생참여가 높은 수업	3.3%
컴퓨터/ 프로그램밍/ 인터넷 등	3.0%
미술/ 예술	2.6%
인문학, 철학	2.4%
교양다운 교양/ 부담 없는, 쉬운 난이도 교양	1.9%
전공 기초과목/타 전공 학습	1.9%
음식, 요리, 베이킹, 커피 등	1.8%
글쓰기, 말하기	1.6%
심리학/기질	1.6%
예체능 관련	1.6%
자기개발/탐색	1.6%
다양한 교류 가능한 수업	1.5%
스트레스 관리/ 힐링/ 명상	1.3%
영상편집/1인 미디어 관련	1.2%
경영/경제학	1.0%
데이터, 빅데이터, 4차 산업 관련	0.3%
역사	0.9%
영화/연극	0.9%

신규교양강좌 영역	%
최신 트렌드/ 사회 이슈	0.9%
법률	0.7%
건축/설계/패션/디자인/인테리어	0.6%
기후, 환경	0.6%
동물	0.6%
외국문화	0.6%
인간관계/사회생활 관련	0.6%
청업 관련	0.6%
과학 관련	0.4%
사진	0.4%
취입 발굴 가능한 수업	0.4%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0.4%
E-sports	0.4%
공예	0.3%
대구 경북 지역 관련	0.3%
댄스	0.3%
독서	0.3%
여행	0.3%
융합강좌	0.3%
봉사/사회복지	0.1%
응급처치/안전/범죄 관련	0.1%
인권/성평등/젠더/여성학	0.1%
정치/사회	0.1%
종교	0.1%
기타 과목 관련	8.0%
기타 수업 형태 관련	4.2%
특별히 없음	1.2%

*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4. 교양강좌 운영

-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적평가'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세부사항별로는 '객관화, 평가 기준 공개' 등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음.**
- **한편, 응답자 5명 중 1명 가량은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운영방식에 만족을 보임.**

※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구분	세부사항	%
수업방식 (29.0%)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8.4%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강의 정보 사전 공개	5.9%
	이론 외 다양한 수업방식 진행	5.7%
	학생 의견 반영 / 자료 업데이트	2.7%
	온라인 강의 환경 개선	3.0%
	난이도별 분반/ 난이도 조절	1.5%
	기초에 충실/ 기본지식 함양	1.0%
	과제, 실습에 대한 피드백 필요	0.8%
성적평가 (40.6%)	객관화, 평가 기준 공개	7.4%
	평가 기준 완화 / 적정 수준의 과제와 시험	6.1%
	P/F로 변경	5.3%
	다양한 평가 방식 필요	4.8%
	시험보다는 과제로 평가	4.8%

구분	세부사항	%
성적평가 (4.06%)	과정 중심/수업 참여도 등 평가	3.8%
	부정행위 개선	1.5%
	절대평가로 진행	1.5%
	팀플레이 비중 낮추고, 개인 평가 비중 높임	1.3%
	서술형/소논문 방식 선호	1.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1.1%
	평가 기준 강화	1.0%
	출결 비중 강화	0.8%
	상대평가로 진행	0.1%
강좌/ 증원 (10.2%)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	5.2%
	수강인원 확대	2.1%
	새로운 과목 신설	1.3%
	온라인 강의 확대	0.8%
	1~2학점	0.8%
기타	현행에 만족함/ 기타	20.2%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5. 교양강좌 평가 기준

- **교양강좌 평가 기준으로는 '소통 및 상호작용 활발/학생 참여가 높은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내적 성장/유익함/지식습득/기억, 여운이 남는 수업', '교양 수준의 수업/과제, 수업부담이 적은 수업' 등의 의견이 나타남.**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교양강좌 평가 기준	%
소통 및 상호작용 활발/ 학생 참여가 높은 수업	13.9%
내적 성장/ 유익함/ 지식습득/ 기억, 여운이 남는 수업	9.8%
교양 수준의 수업/과제, 수업부담 적은 수업	8.9%
흥미로운 주제/공감할 수 있는 주제	8.5%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수업	6.9%
성적 평가에 부담없는 수업	6.9%
상식/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수업	4.1%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 생각할 수 있는 수업	3.5%
평가 기준 정확/ 종합적 평가	2.8%
강의력,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2.6%
발표, 조별활동, 토론식 수업	2.5%
진로, 취업에 도움 되는 수업	2.3%
피드백을 잘 주는 수업 /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 많은 과목	2.3%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2.3%

교양강좌 평가 기준	%
실습, 체험 가능한 수업	2.1%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	2.1%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1.6%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1.2%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수업/ 주제와 맞는 수업	1.0%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	1.0%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	0.3%
학생 의견 반영 수업	0.3%
인성/자기계발 관련 수업	0.1%
강의력,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0.1%
조별 과제 없는 수업 / 개별 평가 강화 수업	0.1%
그 외 기타	6.6%
기타 성적 관련	4.6%

*

*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제2장 전공교육과정

1. 전공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각 전공별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아래의 학과 순으로 정리함

순서	단과대학	세부학과
1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	인문대학	역사학과
3	인문대학	문화인류학과
4	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프랑스어문전공)
5	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독이러문화전공)
6	인문대학	철학과
7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9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10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12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13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14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15	공과대학	화학공학부(화공시스템)
16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에너지화공)
17	공과대학	화학공학부(고분자바이오소재)
18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융합화학공학)
19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
20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기계설계)
21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첨단기계)
22	기계IT대학	전기공학과
23	기계IT대학	전자공학과
24	기계IT대학	컴퓨터공학과
25	기계IT대학	정보통신공학과
26	기계IT대학	미래자동차학과
27	기계IT대학	로봇공학과
28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9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30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1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32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순서	단과대학	세부학과
33	경영대학	경영학과
34	약학대학	약학부(약학, 제약학)
35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36	생명응용과학대학	원예생명과학과
37	생명응용과학대학	조경학과
38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39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공학과
40	생명응용과학대학	생명공학과
41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42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43	생활과학대학	의류패션학과
44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체육학)
45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무용학)
46	사범대학	교육학과
47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8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49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50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51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52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53	예술대학	회화과
54	예술대학	트랜스아트과
55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56	예술대학	음악학부(음악과) - 국악및 작곡
57	예술대학	음악학부(성악과)
58	예술대학	음악학부(기악과) - 피아노/관현악
59	글로벌인재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1) 영어영문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선택지의 부족

해결방안

- 영어통번역학과, 영어교육과 등 타과 강의 수강, 전공학점을 인정
- 전공 필수 이수 학점 완화
  →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취업 역량 강화에도 영향
- 교수님 초빙을 통한 새로운 강좌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진도 분배를 적절하게 했으면 함

해결방안

- 교재의 한국어 해석본이 있으면 학생 자체적으로 공부가 가능함
- 수업 개관 시 전체 내용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마련하면 흐름 파악이 용이함

✓ 현황 및 문제점 : 실용성 있는 과목이 부족함

해결방안

- 무역 영어나 취업, 경력을 위한 영어 과정 과목 개설
- 전공 학점 채우며 영어 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취업 연계 가능한 수업 개설
- '영어 인터뷰 연습'을 수강하며 큰 도움 받음, 이렇게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목의 개설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영미권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해결방안

- 교양 과목으로라도 영미권 문화에 관련된 수업 개설
- '영미문화와 사회' 강좌에서 문화에 대해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다루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내용 및 수업 참여도의 문제

해결방안

- 조별과제를 통해 작품 선정, 해당 작품 조사 후 발표하는 수업 방식 고안
- 단순 발표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 간의 상호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면 좋을 듯함

✓ 현황 및 문제점 : 1학년 1학기 과목 중 '영어학의 이해' 과목이 1학년이 듣기에 난이도가 높음

해결방안

- 영어학의 이해 과목을 1학년 2학기로 옮긴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강에 수월할 것으로 생각됨

✓ 현황 및 문제점 :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음

해결방안

- 매주 2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영어와 한국어를 교차해가며 진행하는 방안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역사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강좌의 다양성 부족

해결방안

- 특정 분야 전공 교수와 강사를 더 채용하여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수업을 전개해야 함
- 다양한 형식의 강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과 차원에서 독려하거나 지원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과목의 부족

해결방안

- 주요 교과목은 강좌와 교수를 고정시키고, 그 외에 캡스톤 디자인 강의 같이 다양한 형식의 강의를 개설하여 실습이나 실무 위주의 수업도 만들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강좌 신청의 어려움

해결방안

- 수강인원이 제한된 학과 내규를 변경함과 동시에 특정 인기 있는 전공 강의는 수강인원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강의실로 바꿔야 함. 예를 들면 인문관 103호와 같이 8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로 바꾼다면, 인원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더 늘릴 수 있음. 즉, 수강 허용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재수강이나 재이수 인원들의 여석 제한을 정해두어 처음 이 수업을 수강하는 인원들을 더 우대해 주는 방안도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방식의 적절성 & 매년 비슷한 수업내용

해결방안

-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전공 수업을 개설하여 저학년 때 수강할 필요가 있음. 계명대학교에선 1학년 전공으로 <역사학입문>이라는 수업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지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역사에 대한 기본 토대를 쌓을 수 있음
- 교수 혹은 강사를 더 채용하여 단순 암기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서 전공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식을 채택해야 함. 예를 들면 위키나 챗GPT를 활용한 수업이 있음
- 겹치는 내용이 많은 과목들은 학과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임
- 단편적인 사안들만이 아니라 좀 더 심화된 내용의 과제를 교수님께서 제시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시험 문제 & 평가 피드백 부족

해결방안

- 단순 암기 말고도 역사를 활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묻는 문제 형식 등 다양하게 암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함
-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이 시험 및 과제 피드백을 하도록 권유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 부재

해결방안

- 최대한 강사들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교과목의 교수는 고정시켜 놓고 언제든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강의 개설 시간대 편향 문제

해결방안

- 교수별로 편향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함

3) 문화인류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타과 학생들의 쉽지 않은 접근성

해결방안

- 보다 흥미 있는 수업 제목으로 리뉴얼
- 타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확산성이 높은 수업 개설
- 학과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학과 홍보 채널(예컨대, 충주시 홍보맨 같은)을 개설하여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선후배 교류 제한적

해결방안

- 선후배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수업 과제 제시
- 선후배-교수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영역 제한적

해결방안

- 융합 연계 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에 대하여 1학년 때부터 안내하고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 취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교수자와 학생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취업 특강을 학과에서 개설하고 이수를 장려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미리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함

4) 유럽언어문화학부(프랑스어문전공)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과 현실과의 떨어짐

해결방안(4)

- 산업과 현실과의 연계 강화 수업 내용을 현업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지식을 연계 시켜 실무경험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공을 살려 현장에 나가 있는 전문가와의 협력 프로젝트나 인턴십 기회 취업 , 특강 등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학습 경로 다양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여 관심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고급수업 연구, 프로젝트 현업실무경험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수용해야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형화된 커리큘럼

해결방안(3)

- 다양한 전공 간 협력 프로젝트나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줌
- 교과과정을 업계 동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교수진에게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제고
- 학생들을 교육 프로세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의 의견 을 수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려고 해야함

5) 유럽언어문화학부(독일어문화전공)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방향의 수업 필요(언어 외 취업과 관련된 수업)

해결방안

- 타 학과의 전공 수업이랑 우리 학과의 전공 수업을 합하여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수업이 더욱 다양해져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ex.무역학과 + 유럽언어문화학부 : 무역 독일어, 무역 프랑스어, 프랑스 무역 제도의 이해 등)
- 그 언어가 활용되는 직업군에 대해 학생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직업군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편성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수준 편차에 대한 보충 필요

해결방안

- 전 학기 내용을 수업 시간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거나 부족한 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
- 방학이나 수업 후의 시간을 활용한 기초반이 개설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불필요한 암기식 수업

해결방안

- 앞서 말한 기초독문법과 같은 강의를 예시로 들면 정말 암기보다 이해를 중요시하고 반복을 통해 교육하다 보면 스스로 암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암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부족 및 전공 수업 양극화

해결방안

- 소수정예 수업 방식으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혹은 수업의 정원이나 조금 더 많은 수업을 개설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언어와 인문학의 융복합적인 수업이 개설되면 좋을 거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 증설

해결방안

- B1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안내와 기존 강의를 활용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더 많은 자격증 관련 수업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자격증 과목 중에 하나인 듣기 관련 수업이 특히 필요함.)
- 듣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학년부터 할 수 있는 자격증 대비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심화 전공 수업 필요

해결방안

- 문학 강의 수요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한 후 개설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에게 투표를 진행하여 원하는 과목들을 정해서 개설하였으면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선후배의 교류 부족

해결방안

- 참여도 높은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를 더 많이하여 선배와 후배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사업 증진

해결방안

-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단체 학습 견학이나 해외 경험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음.
- 어문계열 학과인 만큼 학생들이 해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6) 철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핵심교과와 비핵심교과의 큰 의미없는 구분

해결방안

- 교직이수과정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혹은 타과생의 수강 비율이 높은 과목을 전공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시거나 강좌의 커리큘럼을 전공생에게 조금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별 너무 차이 나는 수강 인원

해결방안

- 각 학년별 2개의 학년 강의까지 제한이라도 있었으면 한다(예. 2학년은 1,2학년 수업 가능, 3학년은 2,3 학년 수업 가능 등)
- 학생들이 더욱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열리지 않는 과목

해결방안

- 한 해에 계획된 과목이 있다면 임시로라도 좋으니 사전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이수 과목 모형을 재정비해 고정적으로 늘 열리는 강의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강의를 체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수와 강사 초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 참여적인 흥미로운 과목 부족

해결방안

- 다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성적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토론을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활동이 생각보다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의 내용 중 학생들끼리 논의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설명이 끝난 후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조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조별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현황 및 문제점 : 반복되는 내용의 강좌 다수

해결방안

- 유사 내용의 강좌를 정리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7) 수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모르는 과정이 많으나 간단한 설명 또는 생략

해결방안

- 강의 시간 외 인강이나 보조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에 대한 영상, 자료 업로드
-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
- 수업 후에 따로 강의 영상을 올려주신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음
- 미적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학과의 기본인 미적분을 따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필요해보이고, 진도를 빨리 나가기 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위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음
- 강의포털을 이용해 주차별 강의자료 혹은 참고할만한 자료 등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음
- 선행수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게 아니기에 조금 더 꼼꼼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교수님들께서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함.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정확이 어느 부분을 더 꼼꼼히 복습해서 보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함
- 타 전공수업에서 활용한 방법인데 한 링크를 열어 거기에 질문을 올리고 그것이 실제로 양방향 소통이 잘 되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의 선택의 폭이 적다

해결방안

- 더욱 다양한 전공 과목 개설
- 다양한 교수님들이 과목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음
- 타학교 수학과 과목들 중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개설
- 수강신청 전 각 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위주로 배우는지 글이 아닌 영상으로 제작하여 진짜 수업 듣는 느낌을 주게 해 흥미 유발

✓ 현황 및 문제점 : 논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지만, 단계적인 공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해결방안

- 시험 대신 문제의 풀이를 발표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과제 제출 기한이 문제의 깊이에 비해 짧은 것 같다

해결방안

- 제출 기한은 그대로 두더라도, 한 번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의 문제 수를 줄여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길게 주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 어떨까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강의를 빠졌을 때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해결방안

- 강의 자료나 추가적인 강의 영상이 올라오면 따로 공부하기에 수월할 것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시험 문제 유출(족보) 및 변하지 않는 문제 출제 유형

해결방안

- 중간 시험 및 기말 시험 전에 퀴즈나 모의 시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항상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시험에서의 매년 다른 유형의 문제 출제
- 교수님들의 힘이 가장 필요. 매년마다 문제를 새로 만드시는 교수님의 수업은 족보를 타지 않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음. 이것이 올바른 성적 부여 방법인듯함.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 이해 점검 방법 부족

해결방안

- 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학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수업 방식을 가져와서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은 없으나 바라는 점

해결방안

- 개인 복습 및 예습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
- 4학년 과목 중 수학세미나 과목과 같이 수학의 여러 내용 가운데 WHY?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과목이 전공 학습 이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음
- 수학세미나 과목 내용 전체를 저학년 수업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2학년 교과목에 수학의 기본 질문 등에 쉽게 질문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음

8) 통계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원이나 석사 희망 학생의 부족

해결방안

- 교수님과 학생 간 상담 등 소통 방안 증가
- 학생들의 교직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

해결방안

- 전공 과목 담당 교수 변경 시 전공 커리큘럼 인수인계
- 다양한 세부 전공을 가진 전문 교수님의 수를 늘린다.
-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공은 IT 관련 분야 강사진을 채용하여 수업을 담담하였으면 좋겠다.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훌륭하시고 학생들을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 현재 교수님들처럼 좋은 강사분들께 교육을 받고 싶다.
-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과목은 과감히 없애고, 해당 전공을 대체할 새로운 전공 과목을 개설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관련 프로그램(SPSS 등) 부재 및 구동 문제

해결방안

- 학기마다 컴퓨터에 SPSS, SAS 등 과목에 필요한 통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즉시 고쳐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 심화 부족

해결방안

- 필수 교양에 기초적인 실무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을 증설한다.
- 실제 취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쳐준다.

9) 물리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간 대비 인정 학점 부족(3시간 2학점)

해결방안

- 학점만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올리면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라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교수 인력 부족

해결방안

- 교수 고용 조건의 안정성 향상: 교수들의 고용 조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연구와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규 교수 고용을 증진하고 비정규직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교수의 연구 지원 강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시설 및 리서치 어시스턴트와 같은 리소스를 교수에게 제공하여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 화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수강신청

해결방안

- 전공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수를 고려하여 여석의 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 무기화학 교수님과 상담 결과 얻은 정보인데, 우리 학과가 예전에는 화학과와 생화학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생화학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가 적고, 생화학 전공 교수님도 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 학과 운영에 지장이 생겨 화학과로 통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라도 화학과 교수님을 조금 더 채용해주시면 좋겠다.
- 융복합 글쓰기 같은 과목 대신 일반물리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수하도록 하면 좋겠다.
-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골라서 듣게 하되, 졸업 전공학점의 기준을 올려 학생들이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면 좋을 것 같다. 한쪽으로 지식이 편향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주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배움으로써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급격한 난이도 변화

해결방안

- 2학년 때 배우는 전공과목의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진다는 내용에 대해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공의 난이도를 낮추기보다 1학년 때 배우는 일반화학의 난이도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내용을 빼고 쉽게 바꾼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마저 더 난이도를 내린다면 학생들의 전공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일반화학 난이도를 높여 교양과 전공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 방학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전 주6일제 수업을 할 때는 50분씩 3번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75분씩 2번 수업을 한다. 총 수업 시간은 같지만 2번 수업하는 것과 3번 수업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업 속도에도 차이가 있고, 다루는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지금 당장 3번 수업으로 늘릴 수 없으니 방학을 활용하여 계절학기가 아닌 자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 전공과목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 등 독립적인 내용이 많은 과목을 먼저 수강하게 한 뒤 다른 전공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을 고학년이 되어 수강한다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 현재 3학년에 편성된 생화학의 경우에만 preview 버전의 강의(일반생화학)가 존재한다. 다른 과목(물리,유기,분석,무기)에도 쉬운 버전의 강의를 교양으로나마 편성하면 좋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문제

해결방안

- 학점 부여는 교수님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만큼, 평가 시에 기분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 문제가 되는 한 학생 때문에 반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동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 역시 인간의 도리로 여기며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생활해야 하는 마음을 학생 스스로가 길러야 한다.
- 교원능력평가처럼 교수님의 태도를 평가하여 권력 남용을 막는다.

11) 생명과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수 및 다양성 부족

해결방안

- 분야별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본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비해 정원이 적은 점 때문에 교수 및 교직원의 증원은 힘들어 보임. 방학을 이용한 학점교류에서 관련 전공이 개설되는 것이 좋겠음
- 생명과학과와 비슷한 생명공학, 의생명공학 등 생명응용과학대학 학과들의 전공을 본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타과 전공 학점 인정 과목을 늘리는 것은 좋은 수단임
- K-MOOC 강의에 전공 강의를 확대
- 실험 수업의 경우 수강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가 다수 있음. 실험 수업의 수를 늘리고 수강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숙련도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내용 중복, 반복 문제

해결방안

- 수업 내용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거나, 넘어가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라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 등의 방법으로 내용의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부•복수전공의 여석 증설

해결방안

- 부•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의 경우 강의를 증설하거나, 여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함
- 학생들의 부•복수전공 신청 시, 신청하는 모든 인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인원을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시간 편향 문제

해결방안

-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하는 블랜디드 강의를 늘림

12) 환경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부·복수전공자와 편입생이 많은 과 특성상 고학년 수업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 전공관련 기초지식 부족 학생을 위한 교육 부재

해결방안

- 방학기간을 활용한 특강을 개설하여 보강수업 진행
- 고학년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다른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학과 홈페이지에 취업 관련 정보가 올라오는데, 정보의 양은 적고,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기 불편함. 학생들의 희망 취업 프로그램을 파악하지 못하고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족

해결방안

- 취업, 진학에 대한 정보를 자주 알려주는 박람회 등을 개최
- 인턴이나 현장실습에 대한 제도 늘리기
-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을 소재관에 설치
- 1대 소수의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개설
- 취업한 졸업생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시험 시 컨닝 및 족보 매매 등으로 인한 시험 공정성 부족

해결방안

- 감독하는 교수님이나 조교님을 더 배치
- 족보를 판매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이나 게시판을 감시하는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팀별 과제 시 일부 팀원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참여 부족

해결방안

- 팀별로 진행되는 과목에서 팀원 참여 비중에 관한 평가 점수 늘리기

13) 도시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 수 부족. 도시공학과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개설되는 과목이 적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세부 분야의 수업도 거의 모두 수강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음 (전공 최소이수학점 채우기가 매우 힘듦)

해결방안

- 다른 과와 연계하여 함께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늘려 도시공학과 교수님의 부담을 줄임
- 학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육과정 중 실제로 열리는 과목은 많이 없음. 띠라서 교육과정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부족한 과목을 정비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 수가 부족해서 개설되는 과목이 적어 자신의 세부 전공과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없으며 양적, 질적, 선택적 수업 불가 (심도 있는 공부가 어려움.)

해결방안

- 교수진을 충원하고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세부 전공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수 대비 학점. 실습수업은 수업 시간부터 과제까지 들이는 시간에 비해 너무 학점이 너무 부족함 (“도시설계제도” 강의 시간 4시간, 2학점 “단지설계스튜디오” 강의 시간 6시간, 3학점) 수업과 난이도에 비해 대부분 전공과목이 2학점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전공을 듣게 되어 성적 관리가 어려움

해결방안

- 실습 수업 같이 수업시간이 긴 과목은 학점을 더 늘려야함
- 학점을 시간에 비례해서 배정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배분 불균형.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이 너무 적어 1학년 때 전공 적합성을 알기 어려우며 2~4학년 때 거의 모든 전공과목 들어야 하는 부담이 큼.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학년 전공 수업이 부족함

해결방안

- 1학년 때 적어도 교통/도시설계/환경 세 분야의 수업을 전부 맛볼 수 있는 전공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강의를 확인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

14)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현황 및 문제점 : 1학년 때 세부 전공과 관련된 과목 안내 부족

해결방안

- 1학년 때 세부 전공 과목이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교과목 개설을 통해 전공 선택을 도움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방식 - 수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수업, 빠른 진도

해결방안

- 1학년 때부터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이더라도 찬찬히 설명해주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서로 간의 세대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소통할 때의 어려움이 있다.

해결방안

- 본과에서도 꽤나 많은 워크숍과 세미나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면 후배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추세와 어느정도 멀어진 교육과정이다.

해결방안

- 현직에 있거나, 경험이 많은 외래, 객원교수들을 초빙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매학기 진행되는 실습과목과 연계하여 전공과목이 적고 또한 전공선택과목이 적어서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해결방안

- 교수건축과 밀접한 곤련이 있는 토목과, 도시공학과, 환경공학과 등의 수업과 연계해 전공수업, 교양수업의 과목을 늘려 선택지를 넓힌다.

15) 화학공학부(화공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 족보 문제 - 시험문제를 매번 같은 방식으로 출제. 또한, 학부연구생들이나 학생회와 친한 학생들이 선배들로부터 암암리에 족보를 받아 그들끼리만 보며 시험에서 고득점을 내고 있음.

해결방안

- 매년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낸다.
- 시험문제를 기출로 공개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타전공 수업 이수 시 전공학점 미인정(일반선택으로 인정) - 지나친 전공 세분화 경향

해결방안

- 기계과처럼 전공을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전공을 나누지 않고 타전공의 과목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강의 녹화 재활용. 학교에서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다.

해결방안

-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확인하고 제한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과제, 질문 및 시험에 대한 피드백 부족

해결방안

- 시험 문제 및 과제 풀이를 제시
- 학교에서 시험지와 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만든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수업에 관한 내용들이나 취업 및 자격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부족

해결방안

- 교수 또는 전공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는 전문가 특강
- 선후배, 취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취업자 특강, 선후배 간담회 등)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한 전공과목 감소, 교수자 수 부족.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춰 과목을 증설하는 것이 힘들다. 4학년때는 학점 취득보다 취업에 전념하게 되는 방식이라, 2,3학년에 비해 수강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 수가 매우 적다.

해결방안

- 비정교직 교수 자리라도 늘려서 교수자 채용을 늘려야 한다.
- 3년 동안 수강한 전공과목 중 수업 일정의 한계로 강의하지 못한 파트나 단원들을 설문조사하여 4학년 때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캡스톤 과목 학점 평과 방식 - 기여도 측정에 따라 학점이 나뉘는데, 이 기여도 측정 기준 불명확.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에 혼자 있게 될 경우, 기여도 몰아주기에 당하기에 억울하게 학점이 낮게 나올 수 있음

해결방안

- 기여도 측정을 없애거나 학점 평가 방식을 PASS/FAIL로 변경한다.
- 화공시스템도 다른 전공처럼 3학년 2학기부터 개설했으면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캡스톤 주제 다양화. 제한적인 캡스톤 주제로 한 분야에 경쟁이 치중된다.

해결방안

- 화공시스템 전공의 경우, 반도체관련 주제는 캡스톤에서 열리지 않고 이차전지의 경우 하나이 주제만 열려서 경쟁이 심화 될 것이 예측된다. 정통화공시스템도 반도체 이차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통화공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에 관한 비중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을 거 같다.

16) 화학공학부 (에너지화공)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 제한된 인원수로 인한 수강신청의 어려움. 학부생 인원은 매우 많은데 비해 교수진의 인원이 적어 전공 수업 선택의 폭이 좁고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커리큘럼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수강인원 수가 적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꽤 있음. 전공과목은 계절학기가 불가하므로 재이수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강신청이 어려워짐

해결방안

- 학생이 몰릴 것 같은 과목을 분반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나눈다.
- 화학공학부 학생 수를 줄이거나 교수님을 더 많이 늘려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
- 전공 핵심의 경우는 들어야하는 학생들은 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남은 자리에 재이수를 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세부전공의 전공과목 이수 시 학점 미인정. 화학공학부에는 에너지화공, 화공시스템, 융합화공, 고분자가 있는데 학과 자리 여석이 부족한 이유로 에너지화공이 아닌 다른 세부 전공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전공학점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음

해결방안

- 같은 학과 내에서 다른 세부 전공의 전공과목을 듣더라도 필요시 전공과목 이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업데이트 되지않는 화학공학부 홈페이지. 비교적 간단한 전공소개로 인해 1학년 졸업 후 세부전공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교과목트리가 19년도로 나와 있어서 화학공학부가 하는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해하기 어려움.

해결방안

- 교과목트리를 재정비하여 더욱 한눈에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듦
- 세부전공 소개를 더욱 자세히 하여 영남대 화공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세부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개선
- 매년 학생회가 바뀔 때 마다 학생회가 이를 맡아 재정비함
- 각 과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소개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함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의 커리큘럼 문제점. 수업에 관해서 설명과 자료에 대한 설명 부분이 부족함. 실험수업에서 시간 상의 문제로 해야 하는 실험이지만 실험과정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다음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게 힘듦

해결방안

- 수업시작 전 해당 과목에 대해 이 과목이 추후에 어디에 쓰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확실히 하여 공부하는 데 동기를 만들어 줌. ex)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과목은 화학공학부에서 연구하는 화학 공정의 기본 원리를 다룹니다. 물질 및 에너지 수지 수업에서는 화학 공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장 이상적인 화학 공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과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해 주시면 좋겠다.
- 어려운 과목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우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 또한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 학과에서 매칭해주는 1대1 멘토멘티 등

✓ 현황 및 문제점 :실험 수업 시 문제점 - 늦은 수업시간의 배정이 학생에게 부담을 줌. 실험을 빨리 끝내는 경우 수업을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실험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위험한 약품을 다루는 실험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서두를 때도 있음

해결방안

- 실험 수업을 되도록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낮에 실험 수업을 실행하도록 한다.
- 중요한 실험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학생들이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함.

✓ 현황 및 문제점 : 선수강지도 미흡 - 모든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다음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듦. 수강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수강신청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이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이는 다음 학기에 전공수업 수강신청에 성공한다 해도 그 전공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움.

해결방안

-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그 다음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수강신청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 다음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전공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사한 과목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해야 함.

17)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담당 교수 부족, 전공과목 제한적 개설. - 수업 주제나 내용, 방식이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졸업학점을 위해 이수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많음

해결방안

- 교수 추가 채용을 통한 증원 및 이를 통한 강좌 다양화
-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차별화를 독려하고 인센티브 제공
- 강의 자료를 강의지원 등에 업로드하도록 하고 강의 자료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피드백이나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시험문제 공정성 - 족보문제

해결방안

-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내고, 이를 학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강의내용 - 실무 및 취업 연계성 부족, 산업 트렌드 및 변화 미반영. 중복 내용이 많으며 강의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음

해결방안

- 실무와 최신 산업과 연계시켜 수업을 진행한다.
- 강의 내용을 좀 더 실제 현장과 관련성 있는 내용으로 개선
- 중복 내용을 최소화, 최신의 전공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방식

해결방안

- 강의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관찰해가며 수업의 속도나 내용을 조절
- 동영상 및 사진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18) 화학공학부(융합화학공학)

✓ 현황 및 문제점 : 부족한 여석 - 교수의 수가 부족하여 개설되는 과목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강의가 한 전공에서 한 과목이 한 강의밖에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에 사람이 몰리게 됨

해결방안

- 강의의 수강신청 인원을 늘리거나 다른 시간대의 수업을 더 개설해서 인기있는 수업은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함.
- 그 학기에 듣기 부담스러워 다음 해로 넘긴 학생이나 재이수를 하는 학생처럼 커리큘럼으로 지정된 해에 못 듣는 학생을 위하여 다른 학과처럼 (ex:전자공학과) 학년별 여석을 따로 만들어놓아 수강 신청 기간에 공개해주었으면 좋겠음.
- 수강인원을 강의실 최대 정원인원으로 열어주면 좋을 것이다
- 교수님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전공 과목의 수와 반을 늘려주었으면 함.
- 기존 교수님의 처우를 더 좋게 해주어 교수님들이 오래 있도록 학교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공학부에 반도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음. 하지만 그에 비해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은 '반도체 소자 공학'한 과목으로 관련된 과목이 부족함.

해결방안

- 성신여대처럼 학생들의 취업 후 진로를 위한 실용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주제와 내용을 담은 심화 교과목을 개설하여 핵심교과목과 심화교과목의 위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구성으로 학과 전공을 이수했을 때 진출할 수 있는 영역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매년 학생들에게 원하는 진로와 방향을 설문조사한 뒤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전공 교과목 개설 조절해주었으면 좋겠음.
- 전공과목을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설계하고 자율 전공등의 비중을 늘려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기회가 늘었으면 함.

✓ 현황 및 문제점 : 답안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는 방법 중 하나임. 하지만 전공서적의 연습문제 풀이과정, 답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해결방안

- 답안지와 풀이과정을 올려주시거나 과제로 하는 대신 문제풀이에 대한 점수는 없고 제출에만 의의를 두어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과 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음.
- 시험 문제를 예제 유형에서 조금 더 변형하거나 다른 문제와 합쳐 좀 더 넓은 지식을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종종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이해하기가 힘들다. 중요하지 않아서 가볍게 설명하시는지, 중요하지만 너무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가볍게 설명하시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대면 강의라면 교수님께 찾아가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인강 강의 같은 경우엔 바로바로 질의응답이 불가능하므로 번거로움이 있다.

해결방안

-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강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 혹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19)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들의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교수님 따라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음

해결방안

- 교수님들끼리의 소통을 통해 수업에 대한 편차를 줄여서 한 수업에 집중되고 몰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ppt로 요약하여 수업 진행. 수업 진행 속도가 빠름

해결방안

-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강의 속도를 조절
- 수업에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기보다는 수업 일부를 예습해오는 과제를 주어, 수업을 진도에 급급하지 않게 진행하고, 다양한 예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는 변하지만 교육과정, 커리큘럼, 수업 방식 등 옛날 방식 고수하는 것

해결방안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교육내용에 반영
- 학생의 수요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개론적 수업

해결방안

- 타 대학처럼 산학 연계를 강화 시킨다거나 각종 프로젝트에서 심화과정으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강의는 매년 동일한 강의를 돌려 쓴다.

해결방안

- 새 영상을 찍고 최신화된 교육자료로 교육. 학교측 검사

✓ 현황 및 문제점 : 필수과목과 높은 최소학점으로 인해 직무와 관련된 수업과 같은 다른 활동에 제한됨. 과 특성상 많은 역학 과목 때문에 다른 것을 이수할 시간이 없음

해결방안

- 필수과목, 전공필수학점 등을 기준완화, 학생의 수업 선택권 강화
- 전공수업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과목을 이수할수있었으면 좋겠음. 예) 반도체 강의, 2차전지 강의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 위주. 실습 과정의 과목이 인기가 없음(실습과목 취득학점이 낮음). 학교에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습 및 실험 등 수업들이 실험실이 부족.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때, 실습, 실험류의 수업을 많이 듣지 않았다면 이해도나 습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생각함

해결방안

- 이론 수업을 줄이고 학생들이 서로 협업해서 과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함.
- 실습위주의 교과목들을 여럿 편성하여 취업시 도움될만한 교육과정 개설, 취득학점 증가
- 미래자동차공학과처럼 직접 체험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 다양한 실습과목을 늘려주었으면 함.
- 단순히 쓸모 없는 학점 채우기용 교양필수학점을 줄이고 전공실습학점을 따로 추가해주면 좋을 거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새로운 과목들이 잘 개설되지 않음

해결방안

-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 취합 후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파는 책들은 모두 원서를 번역한 번역본이 대부분인데 수업이나 과제 시험이 모두 원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풀이법을 알기가 까다로움.

해결방안

- 수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원서는 강의계획서 등에 명시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면 수업 자료로 제작하여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동일한 교제를 매년 사용한다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작하여 개인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학습의 어려움 -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때 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포기했다면 2학년 2학기에는 응용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3학년 1학기에 기계요소설계 과목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전에 배웠던 걸 다 응용하는 과목이 쌓여서 그런 것 같다.

해결방안

- 커리큘럼에서 꼭 필요한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수강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필요과목 들면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생각한다.
- 사실 이는 대부분의 공학 교육이 그럴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에 비해 교수가 적어서 반 배분이 잘 되지 않음. 교수진 부족. 정해진 커리큘럼.

해결방안

- 반 배분을 잘하거나 인원을 충원한다.
- 교수를 더 뽑거나 외부인력 충원.

20) 기계공학부(기계설계)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운영 - 이론 위주의 수업, 과제 피드백 부족, 실습과목 및 실습 인프라 부족

해결방안

- 수업시간에 각 과목이 어떻게 실무나 자격증에 이용되는지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
- 실습실과 실습 키트등을 좀 더 구비해서 실습과목이나 실무와 연관된 과목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너무 틀에 맞춰서 짜여진 교육과정 및 서로 상이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 - 기계공학의 전공 수업 특성상 커리큘럼이 비교적 명확하게 짜여져 있어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자유도 측면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공 구분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교수님들 간의 수업 차이가 너무 크다. 교수님들이 같은 수업을 다른 교재와 방식으로 수업을 하신다. 선수과목의 진도가 교수님마다 상이해서 응용과목을 시작할 때 복습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해결방안

- 같은 과에서 하는 같은 과목 수업인만큼 교재와 강의자료, 진도정도는 통일을 해주면 좋겠다.
- 설계전공의 경우 필수인 과목이 첨단전공은 선택인 경우가 있다. 첨단기계전공의 경우처럼 전공과목에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 진로상담과 취업, 대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과목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토의하고 모두 같은 부분을 강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고정된 캡스톤 프로젝트 기간 - 캡스톤 이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어서 휴학 및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데 제약이 있다.

해결방안

- 1학기 시작 수업과 2학기 시작 수업을 둘 다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4대 역학의 난이도가 어려운 데 비해 한 학기 만에 끝나서 따라가기가 어려움.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모두 전달하려다 보니 교수님은 급해지시고 학생들은 따라가기 버겁다.

해결방안

- 다른 학교의 경우 4대역학과 관련된 전공 수업들 중 난이도가 높은 열, 유체역학의 경우 1학기와 2학기에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방식이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들은 예전에 사용한 강의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

- 새로운 인강으로 수업을 하시면 좋겠다.
- 실제 강의하시는 것처럼 올려주시면 좋겠다.

21) 기계공학부(첨단기계)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 수 부족(많은 학부 인원에 비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한정적).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설 전공 수 감소. 여석 부족. 교수자 부족(주전공자가 아닌 교수자가 해당 강의 담당)

해결방안

- 전공 과목 개수 늘리기
-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교수님을 많이 뽑아야함
- 반도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과목 개설 필요
- 계절학기처럼 전공과목에 대한 과목 수요 조사 실시하여 반영
- 시간대의 자유로움을 늘려서 수업의 수를 늘려 여석이 없어사 못듣는 사람을 없게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구식한 커리큘럼 및 실무교육 부족 - 업계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않고 오래된 커리큘럼을 유지하여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학교의 전공 교육이 실무적인 스킬과 현업에서 요구되는 지식 교육 부족

해결방안

- 교육체제에서 커리큘럼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역량을 반영하고 실무 중심의 기술과 지식을 제공
- 산업 및 현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제 산업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
-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비중 확대
- 실습 수업 비중, 학점 확대

22) 전기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개설이 필요 - 전공학점을 모두 수강해야 74학점이 나온다. 전공선택과 전공핵심 등은 선택을 하여 듣는 과목인데 전공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라 다들 억지로 수강하는 과목들이 많다. 이 정도면 전공선택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해결방안

- 2024년이 되면 교수가 2명이나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겨우 버티고 있는 지금의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기에 교수진을 늘려야 한다.
- 교수님을 몇 분 더 모시고, 다양한 전공분야의 강좌 개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외부강사와 비정규직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학점 개선 필요 - Abeek가 사라지면서 교수님도 동시에 퇴직하시고 전공수업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현재 모든 전공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여석은 정원의 반만 열어줘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 중에 있음. 학교 관계자분들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전공개수를 인지하고 있는지,교수님이 적어 여석 확장이 불가피하면 전공학점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 실험 과목에 대한 학점을 3학점으로 높이고 기존 재학생의 졸업학점을 낮춰야 한다. 입학년도에 비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 현저히 줄었는데 채워야 하는 전공학점은 그대로일뿐더러 타 학교에 비해 실험과목도 학점이 낮기때문에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교수진을 늘리고 전공과목 증설을 하든, 졸업학점을 낮춰주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3) 전자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빈약한 커리큘럼 및 전공과목 수 부족.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설된 전공과목의 수가 부족해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학생 수 대비 교수님의 수 부족. 학과 내부에서 커리큘럼을 갱신하는 역할이 부족한 것 같음. 트랙과 상관없이 졸업을 위해 모든 트랙의 과목을 강제로 다 들어야 함

해결방안

- 학과 내 신임 교수 채용을 통한 다양한 수업 개설
- 커리큘럼 개편 - 부족한 반대체, 회로, 전자파, HW 수업을 늘리고, SW 관련 수업을 축소
- 적극적으로 외부 강의를 소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전공이 안 된다면 교양과목으로라도 관련 내용의 과목을 많이 개설
- 타 학과와 전공과목 공유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심화적인 내용이 없음. 특히 프로그래밍 수업들은 각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고 끝내는 수업들이라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불가능함. 취업하기 위한 실무적인 경험들은 학과 전공 수업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음. 현업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해주시는 분이 많지 않음. 있다고 해도 꽤 예전 시기의 내용이 많았음.

해결방안

- 학과에 맞는 전공 트랙별 실습을 진행하는 등 실무적인 수업을 더 많이 개설
- 기계공학부와 같이 세부 전공(트랙)을 나눠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
- 더욱 다양하고 많은 팀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 경험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림

24) 컴퓨터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1,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전공 수 부족, 전공이 고학년에 치중됨. 2학년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에 전공이 치중되어 있어서 1학년이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적응하기가 힘듦

해결방안

- 1, 2학년 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전공 선택 수업을 추가 개설
-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확실히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되는 과목들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족보 등을 이용하여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시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정답 공유 등으로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음

해결방안

- 온라인 시험 대신 오프라인 시험을 의무화해서 공정한 상황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함
- 시험문제를 족보로 전부 해결하지 못하도록 매번 새롭게 업데이트

✓ 현황 및 문제점 : 수강생에 비해 협소한 강의실. 부복수전공자들의 증가, 입학 정원의 무분별한 증가, 편입생 및 전과생 증가로 인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임

해결방안

- 유명무실한 실습실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강의실을 배정하여 수강 인원 확대
- 수강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강의동에 있는 대형강의실을 사용

25) 정보통신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난이도 문제. 동일과목 다른 교수자의 강의/평가 시 편차 심함

해결방안

- 교수님들께서 적절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시험 출제 전 사전 회의를 진행
- 같은 전공이더라도 다른 교수님이 진행할 경우 강의자료만큼은 같은 것을 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다양성 문제 - 자신이 듣고 싶은 세부트랙에 관해서 많은 수업이 있지 않다. 학점에 맞추어서 듣는 등 세밀하게 학습을 하지 못한다. 이론중심적인 수업이 대부분이다.

해결방안

- 학생선호 또는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공 수업 개설
-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이론을 활용한 실습수업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시간표 문제 - 같은 전공이더라도 시간표의 시간대가 심하게 나누어져 있다. 인기있는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수강신청을 하기가 어렵다. 공강 시간이 크게 남음

해결방안

- 전공같은 경우 인기 있는 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수업을 진행
- 같은 학년 수업을 비슷한 시간대에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간 문제 - 한학기에 방대한 전공내용을 모두 배우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 뒷부분으로 갈수록 배울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향. 이로 인해서 수업에 따라가기 어려움

해결방안

-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한 적절한 분량의 수업 시행
-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 2개 학기로 나눠서 수업
- 수업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업 녹화후 강의를 온라인에 탑재하여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26) 미래자동차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의 다양성 부족. 현재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많은 교수님과 다양한 수업을 바탕으로 2학년부터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미래자동차공학과 현재 특성상 세부전공을 나눌 여건이 부족한 상황. 또한, 공학인증제도 의무 이수로 인해서 전공과목 선택이 불가한 상황. 현재 학생들의 전공 수업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전공학점을 채워야하기에 자신의 진로방향(관심 있는 분야)과 다른 수업을 위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해결방안

- 교수진(자율주행 전공/전기자동차 관련) 추가 채용을 통한 다양한 세부전공과목 개설
- 미래자동차공학과이긴 하지만 다른 기계장치나 응용할 수 있는 전공수업(혹은 교양) 개설
- 공학인증 전공과목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전공과목들을 개설
- 실습교육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신설학과 특성상 잦은 교육과정 변화. 잦은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해 학년에 맞지 않는 과목이을 이수해야 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들어야 할 수업이 갑자기 없어져 못 배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해결방안

-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과 측에서 빨르게 공지
-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타 대학 경우 고학년에 배우는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과목을 고학년 수강용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전공을 통해 학년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

27) 로봇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핵심 과목(특히 이번 학기 정역학)의 여석 부족 - 재이수,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자 몰리며 이런 현상이 발생

해결방안

- 재이수/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은 별도로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 위주의 강의 진행

해결방안

-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과 같은 수업은 실습 내용이 들어가면 전달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산을 지정받아 일부 중요 내용은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커리큘럼 조정

해결방안

- 선수강 과목이 없는 과목의 경우, 커리큘럼상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필요할 때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

28) 정치외교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이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전공의 수가 너무 많음. 이로 인해 한 과목당 학생들이 들일 수 있는 노력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결과물의 질이 떨어짐.

해결방안

- 졸업 이수학점 조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강의식 수업이 많음, 글로써 수업하는 과목이 많음

해결방안

- 강의식 수업 후 실습할 수 있는 시간 제공 또는 실습형 강좌 개설
- 학과에서 강의식 수업과 연계하여 현장 견학, 강연 참여 등의 활동 기회 제공
-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이 수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식 활용

29) 사회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방식 - 단순 이론 습득 점검에 그침

해결방안

-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제시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과제나 문제를 늘려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위주의 수업 - 수업방식의 변화 필요.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공에 대한 회의감 발생. 실습 형태의 수업을 하기에 큰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이론 중점 수업에 국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큼

해결방안

-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공 또는 교양 수업 개설
- 전공 지식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수업 내용
-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교육방법에 대한 교수자 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의 다양성 부족. 과 특성상 전공수업이 많지 않아 선택 폭이 좁음. 듣고 싶지 않아도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해 선택해야 함. 커리큘럼 체계에 대한 안내도 부족함

해결방안

- 입학 정원 수와 더불어 교수진들을 늘리는 것이 핵심적임
-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강의가 있다면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기재, 해당 강의에 개선 요청 메시지를 상시 전송/확인,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 학과 사이트에 전공 과목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들과 추천하는 선수강과목 등에 대한 커리큘럼의 제공 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과 사회적인 요구의 괴리 - 과에서 배우는 전공수업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과는 동떨어짐. 취업준비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자격증과 스펙을 쌓아야 함

해결방안

- 전공 지식과 스펙을 함께 쌓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컨대 사회학과 전공과 영어를 융합하는 수업을 개설하면 영어공부도 하며 전공공부도 할 수 있을 것. 영어에 자연스레 노출되며 취업에 도움이 됨.

3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언론정보학과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설 수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음

해결방안

- 실습 과목 확대 개설
- 영상 촬영, 제작, 편집에 대한 과목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한 과목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과목 다양성 부족, 강좌 신청 어려움 - 매 학기 개설되는 강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과목의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좁으며 특히, 복수전공 학생에게는 신청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매번 불편함을 겪고 있다음. 수강신청을 할 때 가끔 서버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문자율전공 학과에서 학생을 너무 받아 교수의 수에 비해 학생수가 많음

해결방안

- 졸업요건의 기준을 낮춘다.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졸업 요건 중 전공 학점은 63학점 이상 채워야 한다. 이를 10학점 낮추어 53학점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 학과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는 커리큘럼의 강의라도 개설해야 하지만, 안된다면 홈페이지 안내도 정정해야 함
- 교수진 충원이 가장 중요. 당장 개설된 과목도 폐강되고 있어, 강좌 다양성이 더 줄어들고 있음을 느낌. 2학년까지 전공필수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후 3학년 때부터 전공선택으로 세부 전공을 정하여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충원이 필요
-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생이 보다 원활한 수강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학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강좌의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활용해서라도 전공강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 수강인원을 늘리거나 과목을 증설하거나 적어도 외부강사라도 초청해서 기간제로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
- 수강신청 서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동시접속이 많아도 접속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평가 - 몇몇 교수님들께서 문제 수에 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주신다. 예컨대, 20문제를 5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다. 또한 일부 강좌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기재해주지 않아 피드백이 부족

해결방안

- 시험 제한시간에 대한 학생의견 청취 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
- 시험 결과에 대한 점수 및 통계에 대한 피드백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영상을 만드는 수업 - 기초만 배움

해결방안

-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 전문적인 실습 수업 추가 개설 - 예시) 촬영 기법, 편집 기법과 같은 수업 개설

31) 군사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의 질 저하. 현재 군사학과의 교수님들의 인원 부족 각 학년마다 담당 교수님이 계셔야 하지만 현재 교수진 부족으로 4학년 학생들은 담당 교수님도 없는 상태. 교수님 한 명 당 강의하는 수업의 수 증가.

해결방안

- 교수님들 인원을 더 늘려 교수님께도, 학생들에게도 부담 없는 강의진행 필요
- 외부 강사 고용

✓ 현황 및 문제점 : 1학년 과목선택 제한. 1학년들의 시간표가 제한되어 1학년이 2.3.4학년 수업을 듣고 싶어도 수강할 수가 없음

해결방안

- 전공지식을 함양을 위해 1학년 1학기에 성적 우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한해서 2, 3, 4학년 교육과정의 수업을 1, 2개 정도 제한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해줌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운영 관련 -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발표, 소극적인 수업태도, 시험문제 난이도

해결방안

- 발표 주제를 다양화하고, 발표 외에도 레포트같은 다른 과제들을 부여
-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어 있어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졸업요건 등을 조정하여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함
- 시험 문제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

32) 심리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 부족, 과목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전공 학점 채우기가 어려움

해결방안

- 교수 충원, 심리학과의 경우 현 교수진이 4명 밖에 없음.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교수 충원이 필요함. 또한, 교수님이 많아져야 강의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사회심리학과 법 심리학은 재이수 및 재수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실 부족, 실습이 필요한 과목에서도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해결방안

- 통계 수업에서 실습실 추가 - 심리 통계학의 경우 통계에 대한 이론을 배우지만 직접 통계를 이용할 기회가 없음. 스스로 통계를 직접 처리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여겨짐.

✓ 현황 및 문제점 : 과목별 난이도 및 시험 범위의 불균형 -.과목 별로 전공 공부의 양과 부담감의 차이가 심함. 양이 많은 과목은 몇 백페이지가 넘는 강의자료로 공부를 해야 하고, 과제가 많아서 힘든 과목도 많음.

해결방안

- 교수 간의 소통으로 과목별 난이도 및 시험 범위(공부의 양) 통일
- 같은 과목명이라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임. 강의의 진행 및 시험은 교수재량인 만큼 학생들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교수 간 수업 전 사전 소통과 합의 진행

33) 경영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1학년 전공 수업 부족 - 타학교 경영학과에 비교하면 1학년 전공수업이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우리 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전공수업은 회계원리 밖에 없으며, 경영학의 이해, 기업회계의 이해, 경제학의 이해, 응용통계학 과목은 교양으로 개설돼 있음.

해결방안

- 경영학의 이해, 기업회계의 이해, 경제학의 이해, 응용통계학 같은 과목을 교양이 아닌 전공과목으로 전환. 타대학 같은 경우 위 과목이 교양이 아닌 전공과목으로 개설돼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쏠림 현상 - 같은 과목이라도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과제, 시험 난이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한 교수님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남.

해결방안

- 수업방식을 정해진 기준대로 평준화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특히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 전부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

✓ 현황 및 문제점 : 경영학과라는 대형과 특성상 전체적인 전공 안에서 세부적인 선택이 어려움.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또한 지도교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어렵고 교수님도 많은 학생을 보다 보니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다고 느낌.

해결방안

-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꼭 아니더라도 교수님과 조금 더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이전 학기와 동일한 수업자료, 유사 과목에도 동일한 수업자료 활용

해결방안

- 학교 측에서 매년 동일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교수자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인원 제한이 있어 수강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음. 이유로는 한정된 교수진과 한정된 수업이라고 생각함.

해결방안

- 전공과목에 대해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거나, 교수진을 늘린다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 중심의 수업. 경영학과에서는 마케팅, 재무,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지만 대부분 이론 중심의 수업이라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결방안

- 전공 수업을 배울 때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론 수업 후 실제로 적용하는 수업을 한 세트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

✓ 현황 및 문제점 : 경영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세부 전공이 정해지지 않고 마케팅, 재무, 인사 등 다양한 전공을 진행해 깊은 전공지식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음.

해결방안

- 경영학과도 다른 학과처럼 세부전공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경영학과 같은 대형 과에서는 수강인원이 많기 때문에 팀플을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움. 팀플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전공에 대한 배움을 얻는 과정인데 이 점이 없어서 아쉬움.

해결방안

- 같은 전공 과목을 여러 분반으로 개설해 대형강의를 팀플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중형강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방향

34) 약학부

✓ 현황 및 문제점 : 확실하지 않은 평가기준과 시험범위 -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

해결방안

- 강의계획서에 명확한 기준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졸업이수학점, 필수 이수학점 과도 -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점 부담을 가하고, 학업 일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 학생들은 전공과목 외에도 다양한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학업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해결방안

- 교양 및 전공 이수 필수학점 축소 또는 졸업이수학점 완화

35) 식품경제외식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 수업의 부족

해결방안

- 한 과목이어도 반을 늘려서 수강 인원을 더 받거나 학생들에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실습 과목의 투표를 받아 신설하면 좋을 것 같음
- 학생들의 적은 신청으로 폐강되더라도 개설해주신다면 신청해 그 과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현황 및 문제점 : 애매모호한 학과 정체성

해결방안

- 식품자원경제, 외식산업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 트랙별로 구분된 수업의 개수를 더 늘린다면 자신이 속한 트랙의 정체성도 뚜렷해질 것이고 선택의 폭이 더 넓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임
- 계명문화대는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라는 과가 있는데, 이름에서부터호텔이 앞에 있다보니 주된 내용이 호텔이었고 안에서 전공이 4가지로 나뉘어지지만 호텔리어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면 다들 취업을 호텔관련 서비스직으로 많이 취직을 했음. 하지만 내년 2024년도 부터는 외식창업과, 호텔관광서비스과, 커피문화경영과로 나뉘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게 됨

✓ 현황 및 문제점 :성적 평가 방식 불분명

해결방안

- 총학생회가 성적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실행. ex) 시험지에 학생 본인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작성하여 공지사항에 성적 공지

✓ 현황 및 문제점 :계절학기를 통한 전공이수 불가

해결방안

- 계절학기를 들을 때 전공수업도 같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이론적인 전공 수업

해결방안

- 실제로 현장답사나 야외수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건이 필요로 할 것임. 시간표에 짜여진 수업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해당 수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현장실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얻도록 해야함

36) 원예생명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실습 경험 부족

해결방안

- 실외활동 활성화, 유관기관 현장실습, 현장실습이 가능한 곳과 협력을 맺는 것 등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실험, 실습과목 수 부족

해결방안

- 근본적으로는 강의수를 늘려야 함
- 전공흥미유발을 위해 신설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함. 또 '실험수업 통합운영' (ex. 영남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 생명과학과 + 생명공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수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론수업시에 짧게나마 관찰, 실험을 할 수 있다면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수에 비해 적은 교수님 인원

해결방안

-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수님 충원, 외부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진로와 취업방향에 맞는 맞춤형 과목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음
- 1학년 교과과정 중 학기당 1~2개 정도의 전공과목은 개설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는 학생

해결방안

- 저학년 학생들이 학과의 커리큘럼을 숙지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함. 그러나 이러한 일이 특정 학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학과의 신입생들이 새내기 배움터 또는 단톡방 공지 등을 통해 학과의 커리큘럼을 숙지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2학년에는 실험실습보다는 전공이론에 치중되어 있다.

해결방안

- 이론과 실습을 같이 응용할 수 있게, 2학년에도 실험과목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37) 조경학과

✓ 현황 및 문제점 :전공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 필요

해결방안

- 설계가 아닌 시공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보셨던 교수님들이 몇 가지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만들었으면 함.
- 타 대학인 건축학과는 학생들에게 각 개인에게 컴퓨터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있음. 우리 학과도 학교 지원을 받아 전공/실습을 위한 학습환경과 인프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부담스러운 재료비용

해결방안

- 물려주기 형식으로 자신이 활용하던 재료를 기부하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 학교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과목의 연계성 및 학년 배분

해결방안

- 이론 내용을 응용하여 할 수 있는 과제 등을 도입
- 교수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체 과정을 통합된 교육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각 과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1학년 때는 실습 수업을 위주로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게 하고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듯함

38) 산림자원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ppt에만 의존한 수업

해결방안

- 사진 및 동영상, 표본과 같은 적절한 보조매체의 추가
- 수업에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업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ppt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습과 병행한 수업이 필요함.
- 강의 자료에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거나 글을 요약하여 수업 시간에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 관련하여 전공선택이 부족함

해결방안

- 블렌디드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거나 교수님 수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함.
- 비슷한 계열의 타 학과 전공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목록이 있으면 좋겠음.
- 새로운 세부전공자 교수님을 채용하여 전공선택권을 확대
- 학과 교수진 수업 외에 타 대학과 학점 교류 수업이나 특강 등 강의 개설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관련하여 심화된 수업내용

해결방안

-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며 함께 실습을 진행하거나 유인물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안이 될 것 같음.
- 수업의 방향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알기위해 교수님들이 쉽게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음
- 비전공 교양과목 담당 교수가 학생들의 상태를 보며 난이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학과제도의 홍보 부족

해결방안

- 학기 초에 어떠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함.
- 활성화된 공지를 통해 대외활동 및 홍보를 늘리고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거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이론 수업에 비하여 실습 수업의 빈도가 적음

해결방안

- 실습을 제외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표본집 활동 추가
- 이론 수업에 배운 내용을 간단한 영상자료와 함께 익히거나 실제로 실습해보면서 몸소 익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거 같음
- 현재 과에서 3학년 여름방학 때 경주에 있는 박달리 연습림을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빈도를 늘리고 관련 기업 선배님들과 함께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늘리면 좋겠음.

39) 식품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개설의 한계 - 강의 선택 폭이 좁음

해결방안

- 전공 이론 관련 강의가 개설되기 어렵다면 실험,실습 강좌라도 개설되었으면 한다
- 교수님 수를 늘리거나 박사님들이 실험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과 지원
-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도구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운영 문제 - 수강 안내, 시험 난이도, 수업방식, 과도한 학습분량

해결방안

- (영어수업) 강의자료나 시험이 영어로 제시된다는 것을 사전 공지 해주고 수업 시간에 정확한 안내 진행
-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 내어 변별력 나누기 힘들다면 기말고사를 좀 더 어렵게 내거나 과제를 추가하여 변별력 관리
- 실제 삶에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위주의 수업을 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위주의 방식을 하거나 무작정 암기하여 푸는 서술형이 아닌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면 좋을 것 같다
- 수업을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거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식품의 이름을 보고 왔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배우는 화학의 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화학의 난이도 조절 필요
- 학습 분량을 조금 줄여 주시거나 중요한 부분 집어주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주는 방향으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의 세분화

해결방안

- 학년이 올라가면 전공과목을 정하고 더 세분화하여 그 과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인강 수업으로 대체도 가능하니 강좌의 다양화 늘린다

✓ 현황 및 문제점 : 제한된 강의여석

해결방안

- 전공마다 정원을 늘려 학생수를 더 받아들이거나 각 학년 인원수는 널널하게 정해두고 재이수나 재수강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아 먼저 들어야 하는 학생들을 듣게한다
- 강의실이 작다면 큰 강의실로 옮기거나 분반을 나눈다.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의 불확실성

해결방안

- 취업과 관련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취업 관련 강좌를 하나 정도 개설해 주어 학생들이 꼭 듣게 했으면 한다

40) 생명공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수 대비 학점(3시간 2학점)

해결방안

- 전공학점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되어야 함. 학생들이 들이는 노력을 보면 3학점 그 이상을 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모든 전공과목에 3학점을 주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이론 과목은 2학점, 실습과목은 3학점이 되어야 함.
- 전공학점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전공 학점이 2학점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해야 함. 별다른 설명 없이 전공 학점을 3학점으로 변경했을 경우 학생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학우들이 원하는 교과목에 대한 정원 부족

해결방안

- 학기별 전공과목에 대한 여석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전공과목에 특정과목 중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는 교수님

해결방안

- 학교차원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수업이 양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질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되도록 조율
-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 시험기간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41) 주거환경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관련

해결방안

- 3~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수업 신설 필요
- 교수님과 학생의 진로 상담 기회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여석 부족으로 인한 전공학점 이수 불가

해결방안

- 학생들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더 다양한 전공수업을 개설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 실기 수업 부족

해결방안

- 실습 가능한 공간, 컴퓨터와 제도판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을 모아 따로 보충수업을 하거나,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개별 과제를 낸다.
- 1~2학년 수업은 기초수업으로 늘리고, 3~4학년 수업은 심화수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한다.
- 교육과정을 새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된 시설

해결방안

- 새로운 장비 구매
- 장비 고치기

✓ 현황 및 문제점 : 부담스러운 과제와 시험의 양과 소요시간

해결방안

- 전체적인 전공과목들의 과제의 적절한 배분
- 여유로운 과제 마감 기간
- 진도 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학습

✓ 현황 및 문제점 :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과정

해결방안

- 개편된 만큼, 학생과 교수님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생각함.
- 나눠진 반에 따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통지
- 새로운 커리큘럼 마련 및 모색

42) 식품영양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실험 및 실습 수업이 부족함

해결방안

- 생명응용과학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의 '한식조리및실습' 또는 '양식조리및실습'처럼 자격증과 관련된 강좌의 추가 개설
- 추가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타과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학생들의 높은 수강률을 위해 지도와 학습 내용의 홍보 필요
- 인기 과목의 증설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수많은 과제와 팀플로 인한 부담감

해결방안

- 한 과목에서 팀플과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부담감이 줄어들 것임
-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하향조절
- 두 과목 이상이 연계할 수 있다면, 두 과목 동시에 동일한 팀플을 진행
- 2022년, 실제로 '식품학'과 '생화학' 두 과목이 융합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수업과 팀플을 진행하였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에 대한 이해도 부족

해결방안

- 전공수업에 대한 자료 추가
-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및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과목 개설
-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다른 학년으로 배정 요망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필수과목을 합반으로 구성

해결방안

- 기존의 수업방식처럼 일괄적으로 분반으로 진행
- 학생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나온 방식으로 진행

43) 의류패션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넓고 얕은 전공 교육 과정

해결방안

- 1, 2학년에 걸쳐 의상 디자이너, MD, VMD, 소재, 텍스타일 등 패션의 분야를 5가지 정도로 국한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고학년이 되어서는 분반하여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을 제공해야 함. 이때 분반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기를 거듭하며 분반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교환학생, 국내외 인턴 등 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연이나 프로젝트를 통하여 설명해주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을 학교 내에서 주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습득보다 실습 활동을 통하여 능력을 쌓을 수 있을 강의를 다수 제시하여 자신의 능력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그 예로 외부업체의 실습 활동 혹은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학교 내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의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강 신청 여석 부족 문제

해결방안

- 매 학기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를 분석하여 수강 가능 인원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함. 또한, 수강 신청 전에 강의실과 학생의 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수강 신청을 조금 앞당겨 그 결과에 상응하는 강의실을 선택하거나 분반을 나누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조건 수강 가능 인원수를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이 선호했던 강의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혹은 해당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교수의 메일로 부탁할 경우 융통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의의 최종 인원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실 및 실습 재료 지원 부족

해결방안

- 실습 전용 강의실을 개설하고, 학년별로 사용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학생들이 실습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 실습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학과 내에서 유료 프로그램이나 실습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방안을 계획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구식의 강의 방식과 강의자료

해결방안

- 창의력이 동원되지 않는 서술식 과제나 학습 내용을 주입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과제는 그들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현재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나 결과물을 제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제시해야 함. 그 예로 자신의 브랜드를 창조하여 브랜드 가치관에 부합하는 의상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활동 등이 있음
- 새로운 강의 방식과 자료가 생겨남과 동시에 구식의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강의나 다수의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수업은 과감한 방식으로 뒤엎어야 함.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지식 함양 과정에서 필요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과감히 분량을 줄이거나 없애야 함

44) 체육학부(체육학)

✓ 현황 및 문제점 : 체육관의 시설 부실

해결방안

- 천장누수공사 필요.
- 시설 차원에서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 지원 또는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실기 과목 축소

해결방안

- 학과 자체의 문제보다는 학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학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실기 수업이 기초적인 부분만 다룸

해결방안

- 종목에 따라 수준을 나누어 분반을 만들어 실기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자 강의력

해결방안

- 강의력이나 전문성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함
-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많은 소통을 하는 수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체육시설의 소유권과 이용권 문제

해결방안

- 체육학부생의 수업 장소로서의 체육관과 영남대학교 교원 및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의 명확한 소유권의 구분이 필요함

45) 체육학부(무용학)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의 다양성 부족

해결방안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정확한 수요조사 실시
- 학생들이 요구 가능한 선에 대한 안내
- 학생들이 수업, 전공 다양성 측면에서 불만을 느끼는 것을 여러 가지 비교과 또는 의미 있는 특강이나 행사로 보완
- 다양한 장르 전공 교수님들의 수업 개설
- 실기 수업 편성 시 순수학문와 실용학문의 비중을 조절
- 창작하는 과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수업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진행과 평가

해결방안

- 매 학기 학생들이 수업, 교수 평가를 필수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학과 유지 비용 증액 - 무용학과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외부 강사 / 현재 강사를 적재적소에 적절히 사용
- 소통을 하며 수업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 반영

46) 교육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범대학 타과 대비 교직 관련 교육 부족

해결방안

- 전공 분야를 교육학 전공과 교직과 관련된 전공 두 가지로 분류하여 이수하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현황 및 문제점 : 1학년 이수 전공 부족

해결방안

- 대부분 2학년 때 듣는 교육평가와 3학년 때 듣는 특수교육론을 1학년 전공 과목으로 배치하여 1학년 때 한 학기 전공 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방식과 관련한 문제

해결방안

- 수업과 강의자료를 활용해 수업 시간 내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가독성 있고 풍부한 내용의 강의자료를 공급
- 학과 특성상 교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논술형 시험을 출제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시연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교직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
- 학생의 발표 수업을 제외한 이론 수업의 경우, 단순히 ppt를 읽는 강의식 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방식(토론, 게임, 팀활동) 을 활용하여 학생의 수업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불만족

해결방안

- 학생들이 개인의 성적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없도록 모든 점수와 등수를 각 개인에게 직접 공개
- 팀 내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수를 부여

47) 국어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임용 위주의 커리큘럼

해결방안

- 원래는 임용을 준비하려고 왔지만, 학생 수가 줄며 임용 합격률이 너무 낮아져 현실과 꿈을 타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하나의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임용을 준비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필요
- 교직 이외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도록 세부 분야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공선택 과목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수강정정 기간 전 수업결손

해결방안

- 1주차 수업만큼은 강의를 녹화하여 수강을 정정한 학생들도 수업 결손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의 수가 적음

해결방안

- 추가적인 교수님의 임용이 필요하다.(특히 고전문학 교수님)
- 교수님 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전공 개설 다양성 문제 등이 많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48) 영어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 많음

해결방안

- 교육과정 중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있다면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다른 강의를 개설할 것
- 꼭 필요한 수업이라면 비슷한 수업이더라도 중간에 기간을 두고 수업을 구성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끔 할 것
- 학생들이 진정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지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시켜주되, 과도하게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과감히 정리
- 기존에 있던 교육 과정 검토, 개선 필요
-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것

✓ 현황 및 문제점 : 주를 이루는 암기식 공부

해결방안

- 복습하는 시간을 중간중간 가지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생긴 경우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게 됨
- 효과적인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 기억에 좀 더 남을 수 있는 수업 구성

✓ 현황 및 문제점 : 흥미도가 떨어지는 일부 수업

해결방안

- 평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중간중간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는 등 수업 방식의 변화주기
- 학생들이 특정 개념들을 각자 나누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등 여러 수업 방식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 이해의 어려움

해결방안

- 수업에 대한 난이도를 파악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업은 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49) 한문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의 심화성

해결방안

- 논어와 맹자같은 사서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매 학기마다 개설한다
- 사서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한다
- 문자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와 문화 수업을 개설한다
- 매 수업에 많은 글을 볼 수 있도록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
- 한시 수업을 증설한다
- 수업 시간에 한자어 테스트와 같은 퀴즈를 많이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에 대한 과도한 기대

해결방안

- 학생들의 수준을 먼저 알아본 후 그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진도와 수준을 조사한 후 수업을 진행

50) 유아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전공 과목에서 지장이 생김

해결방안

- 전공 과목 내용에서 이전 전공 선택 과목과 겹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교수자가 이를 넘기는 것이 아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함
- 전공 선택과목의 중요성을 수강 신청 전에 고지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교사자격증을 따는 데에 필요한 '전공선택'에 대한 안내 부재

해결방안

-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의 경우엔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거나 이를 전공필수 과목으로 분류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이 분반되어있어 수업 진행 편차 있음

해결방안

- 학과 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실습수업이 아닌 경우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해 학생들끼리 다른 내용을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함
- 한 반에 30명의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듣더라도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니 전공 분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과제 기간이 짧음

해결방안

- 기간을 더 여유롭게 설정해주었으면 함
- 수업 이해도를 높이고 과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업 중 활동을 추가하거나 교수님과 양방향 소통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과제 수행을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님의 수가 많지 않음

해결방안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더라도 비대면 강의 진행

51) 수학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강좌 다양성 부족, 강좌 신청의 어려움

해결방안

- 교수자를 채용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 한 과목당 수강 인원이 30명 정도이므로 분반하지 않고 수업 진행
- 분반하더라도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강 인원을 조정하여 분반 개설

✓ 현황 및 문제점 : 학기·학년별 과목 시간표 배치 문제

해결방안

- 학생들의 의견을 조합해 최적의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음
- 2학년에 들을 전공과목들을 1학년 때 들을 수 있도록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교수와 학생 사이의 소통 부족

해결방안

- 양방향 수업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학생들이 필기에 급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설명을 들으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내용의 충실성

해결방안

-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함
-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수업 개선
- 수업자료 및 추가 자료 제작/배부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 및 시험 난이도의 적절성

해결방안

-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예제 문제를 더 많이 풀어줬으면 함
-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난이도와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골고루 출제

✓ 현황 및 문제점 : 피드백 부족, 시험 성적 비공개

해결방안

-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내용 보충
- 강의 시간에 질문들을 모아서 풀이 시간을 가짐
- 시험 다음 시간에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틀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이
- 시험 성적을 학생 개개별로 알 수 있게 한다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 부족했는지 알 수 있고 취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음

52) 특수체육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수업의 다양성 부족

해결방안

- 체육학의 하위학문에는 대표적으로 체육인문학에 '체육사', '체육철학' 등이 있으며, 체육의 사회학에는 '체육사', '스포츠경영학', '체육교육학', '스포츠마케팅' 등이 있고, 체육과학에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의학' 등이 있음. 이를 참고해서 개설
- 특수교원이 되기 위해서 장애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장애 유형별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해야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육학의 하위학문들 중 '스포츠경영학', '스포츠마케팅' 등 새로운 과목들도 전공수업으로 개설되면 좋을 것임
-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임용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시설 (이희건 체육관 관련)

해결방안

- 이희건 체육관 대관 문제
  - 이희건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많은 다른 과 학생들, 교직원분들께서도 이희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은 이희건 체육관 사용이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 있어서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에게 대관의 우선권을 줄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다른 과 학생들, 교직원들이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이 체육관을 써야만 할 때 못 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희건 체육관 시설 문제
  - 이희건 체육관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함.
  - 이희건 체육관에서 발견되는 비둘기의 경우 수 차례 학교 측에 문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비둘기를 잡는 것은 학생이 결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학교 측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2층의 깨진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벌레와 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희건 체육관 2층의 창문을 전반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희건 체육관을 관리하는 것은 학생의 일이기도 하지만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루빨리 이희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수 대비 학점(3시간 2학점)

해결방안

- 전공학점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되어야 함. 학생들이 들이는 노력을 보면 3학점 그 이상을 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어떤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모든 전공과목에 3학점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론 과목은 3학점, 실습과목은 2학점 부여
- 전공학점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전공학점이 2학점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해야 함. 별다른 설명 없이 전공학점을 3학점으로 변경했을 경우 학생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음.

53) 회화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수 대비 적은 학점

해결방안

- 동국대학교 서양화과의 경우, 한 수업당 50-60호의 과제량과 단국대학교 서양화과의 경우, 한 수업당 30호 이상의 작품 두 점 등 타 대학의 미술(예술)대학 학생의 과제 활동을 둘러보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과제를 부여하고 많은 고민과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음. 작품의 호수를 줄이고 학생들이 작업에 돌입하기 전 필요한 사전 조사와 교수님과의 충분한 담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창작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배움의 과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함. 또한 작가노트 및 본인의 작업 세계를 글로 작성하며 풀어낼 수 있는 수업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음
- 한 학기에 3개의 전공만 들어도 충분하도록 전공 학점의 상승과 각 전공 교수님들의 협의를 통해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소화 가능한 과제의 양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주관적인 평가로 다양한 창작 능력을 억누름

해결방안

- 전공 특성상 그림 나만의 작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교수와의 면담에 할애해야 하는데 교수마다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이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관람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의 작품 세계가 흔들리기도 함. 개인의 관심사나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음
- 방대한 작업량을 무조건 문제라 할 순 없지만 그 점이 학생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점은 분명함. 또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은 해주나 교수자의 주관이 작업과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라 생각함. 주관성과 추상성이 존재하는 분야이기에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잣대나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성적 평가 기준 안내 부족

해결방안

- 학생과 교수 간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수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여러 교수님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수업 초반 다수의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의 기준을 세우고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졸업 이후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짐

해결방안

- 학교 측에서 예술대학에, 전공 특성에 맞는 관심을 가져주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금전적 지원과 작가 이외의 직업을 가지신 교수님을 더 많이 영입한다면 보다 다양한 전공 교육과목이 생길 것 같음
- 예술대학 내에서 다른 학과와의 연계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부복수 전공의 경우 학점과 과제의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지만 연계 수업 과목을 개설한다면 더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임

54) 트랜스아트과

✓ 현황 및 문제점 : 실기실 환경 및 공구, 도구들의 상태 열악

해결방안

- 공구 담당 학생을 배치하고 수업 또는 작업에 쓰일 모든 공구를 공구실에 넣어둔 뒤에 누가 언제 빌려 갔는지 종이에 쓰고 돌려받은 뒤에도 공구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실히 체크한 뒤 문제가 생기면 공구 담당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가장 확실히 공구를 소중히 다루는 방법이라 생각됨

✓ 현황 및 문제점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적음

해결방안

- 분반을 통해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질적으로 전공과목 제한 인원수를 늘려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전공을 얕게 배우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전공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어려움

해결방안

- 전공별 학생들과 교수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 과목을 2학기 정도는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사진표현, 사진 연구는 같은 교수님이 1.2학기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과목을 조금 줄여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한 가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강의를 한다면 적어도 1년을 한 가지 과목을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
- 차라리 개설되는 수업의 폭을 확실히 넓혀서 더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한 학기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수업들은 1, 2로 나누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기초 수업 이외의 심화 과정을 위한 수업 과목의 개편이 필요함
- 트랜스아트과에 입학한 후 그 안에서 조소/사진/영상/디자인으로 과를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최소 재료 이해에 대한 수업은 1, 2로 나누어서 2번 이상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조금 더 세분된 수업 개설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 현황 및 문제점 :수업 시간 편성

해결방안

- 수업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로 긴 전공과목 수업을 오전, 오후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수업 시간에 따른 학점 부여도.

해결방안

- 학점을 높이는 것 또한 방법, 불가피하다면 분반하여 시간에 구애받는 것을 축소하도록 해야 함
- 신입생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며 대학 본부에서 내려오는 한정된 금액으로 다양한 기간제 강사를 채용하기 부담이 커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함. 따라서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전공이 모인 만큼 각자의 전공인 수업에만 흥미를 느낌

해결방안

- 교수님들께서 더욱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비전공자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수업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함

55) 시각디자인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시수 대비 학점 (3시간 2학점)

해결방안

- 전공학점이 3학점으로 상승되어야한다
- 3학점을 주는 것이 불가하다면 난이도가 높은 수업에 한해 3,4학점을 부여하는 식의 차등적인 형태를 고려해보아야한다
- 전공학점을 변경했을 때 2학점으로 대부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도 어떤 이점이나 학점을 부여해주는 식으로 학생들 간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재료값, 프로그램값 지원 부족

해결방안

-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이 졸업하는 2월달까지 지원해주어야 한다
- 전자기기를 학생할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개체, 프로모션 등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이 온전히 작업에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 전체의 퀄리티를 올린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 수에 반해 최대 수강 인원이 적다

해결방안

- 같은 교수님의 같은 수업을 여러개로 분반하여 진행한다
- 금요일 공강 체제를 없애고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실습과 피드백의 반복으로 그 외에는 무의미한 시간

해결방안

- 크리틱은 제출기간 이후 교수님이 강의포털에 따로 짧게 댓글/pdf 파일로 개인 과제마다 첨언/첨부해주시는 형식으로 변경
- 학생 작업 중 몇 사례만 가져와 모두와 공유하며 크리틱을 진행하고 모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수업방식
- 개설 강좌를 늘려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56) 음악과

✓ 현황 및 문제점 : 융합전공, 실기 과목 개설 부족

해결방안

- 발레와 현대무용 전공 등을 배우거나 함께 수업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한다.
- 제 2실기를 들을 수 있는 횟수와 수강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 부족

해결방안

- 전공에 대한 강의를 늘려달라 교수님께 요청한다.
- 강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만든다.
- 학점을 줄이더라도 강의를 늘린다.
- 수업 내용의 질을 올린다.
- 작곡 전공 홍보를 통해 신입생을 많이 받는다.
- 작곡 관련하여 국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늘린다.

✓ 현황 및 문제점 : 강의 난이도 어려움

해결방안

- 수준에 따라 수업할 수 있도록 교수님을 늘리거나 학생 간 수준을 좁힐 수 있는 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
- 계획서를 통해 난이도를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수준 파악에 힘쓴다.
- 수업 시간을 늘림

57) 성악과

✓ 현황 및 문제점 : 학과 부전공관련 커리큘럼 미흡

해결방안

- 조금 더 많은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전공 커리큘럼을 만든다.
- 타과 학생들과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의 밸런스가 맞지 않음

해결방안

- 수준별로 분반을 진행하여 수업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어 준다.
- 전공수업의 시간을 늘려서 진행하거나, 하루를 더 추가해서 진행한다.
- 따로 참고할 수 있는 언어 교양과목을 만들어, 1학년 과정에 있어 그 과목과 연계시켜 전공 수업을 진행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의 개수와 학점이 너무 적음

해결방안

-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더 늘리고,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학생들에게양질의 수업을 제공
- 이제껏 진행되어온 핵심적인 전공수업의 학점을 3학점으로 배분하고, 부수과목의 학점을 더 낮게 배분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성악가로 성장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적음

해결방안

- 통계 자료나 졸업한 선배들의 작은 설명회를 진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나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연습실 사용제도의 허점

해결방안

- 타임 테이블 제도를 없애고, 선착순으로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58) 기악과

✓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 수 부족/여석 부족

해결방안

- 다양한 전공교양의 과목이 개설 돼야 함
- 전공과목의 수강 여석을 더 늘려야 함
- 예술대학 내의 전공에서도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흥미가 없는 전공과목

해결방안

- 수업 중 질문만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 시킨다.
-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분야의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 생각됩니다.

59)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현황 및 문제점 : 강의 간 중복 내용이 많아 수업 몰입과 효과성 저하

해결방안

- 기본적으로 교수회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며, 여러 강의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공통과정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교수가 학생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학 계열 전공 강의 제한적인 개설

해결방안

- 동일과목을 분반시켜 수강 신청 인원을 분산시키고, A,B 반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 사회복지 연계 전공 과정과 타 대학 학점 교류 등을 통해 본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홍보함

✓ 현황 및 문제점 : 실무중심 강의에 참여기회 부족

해결방안

- PDM 작성 등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 등 실무중심 강의를 더욱 많이 개설하고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국외현장실습에서 국내로 전환한다면 비용을 절감시켜 더 많은 학생이 실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현황 및 문제점 :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강의 요구

해결방안

- 명사초청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개발협력활동가 또는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 진행
- 학생주도적으로 각자 심도있게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별 스터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
- 타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학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
- 복수전공제도를 통해 타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을 습득해 국제개발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홍보(타 대학의 경우, 기존의 전공학점을 줄이는 대신, 무조건 복수전공을 하도록 졸업요건으로 지정하기도 함)
-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사회복지학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

2. 전공별 추천 전공과목

※각 과목별 순서가 추천 응답 비율의 순서를 뜻하지는 않음

1) 영어영문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영어회화	• 고등학생 수준의 회화에서 벗어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회화를 배움 • 원어민 교수님과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됨 • 영어회화능력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이 수업을 통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았음
2	영어인터뷰연습	• 실용적, 실제 취업과 연계되어 큰 도움 받음 • 영어인터뷰를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학생들, 교수님과 영어 면접을 준비할 수 있어 좋았음
3	시네마영어	•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통해 영미권 사회를 들여다보고 다양한 영어표현을 배움
4	19세기영국소설	• 소설의 줄거리, 시대 상황, 문화 등을 고려해 인물의 대사, 감정, 특징을 이해함 • 당시 사용하던 표현과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음 • 시험은 어려웠으나 수업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함 • 영국에서 겪으셨던 경험, 문화 등에 대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흥미를 유발함
5	영미소설의이해	• 1학년 전공필수과목인 만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이 진행됨. • 수업 내용의 세세한 설명을 통해 빠른 이해가 가능했음
6	근대미국소설	• 소설 하나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과제 수행이 부담되지 않았음 • 과제를 통해 수업 내용을 복습, 학생이 주체적으로 심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음
7	19세기미국소설	• 시대적 배경과 사상,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 대해 배우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과정이 흥미로움
8	영미문화와사회	• 철학적인 내용과 세계의 정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음
9	영어음성음운론	• 교수님의 열정이 엄청나고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짐 • 수업 계획표 일정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좋았음
10	음성분석실습	•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됨, 직접 참여하고 분석하는 수업 방식이 좋았음 • 시험 문제도 실습에서 배운 것들이 출제돼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낌
11	영미시의이해	• 영국, 미국 문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재밌고 가볍게 전공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음 • 영어영문학과 학생에게 필수적인 지식부터 역사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음
12	영어학의이해	• 제목에 맞게 영어학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음 • 수업 중 내용에 충실한 강의, 공부하기에도 좋았음 • 대학 수준에서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배우며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깊게 공부함 • 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며 수업에 더욱 흥미를 가져 기억에 남는 과목임
13	영미연극의이해	• 연극 작품 등장인물에게 몰입하여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원어 연극 참여를 계기로 연극에 관심이 생겼는데 연극을 주제로 하는 전공과목이 있어 원어 연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2) 역사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동아시아고대사	• 교수님이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형태의 과제물(위키)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우 체계화되어 있으며 학생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여 강의 피드백을 한다.
2	동아시아중세사	• 교수님이 챗GPT와 같이 인문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며 스토리텔링을 잘하셔서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다.
3	한국고대사	• 단순히 전공과목에 대한 암기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를 통한 수업 방식을 채택하며, 답사과제를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이다.
4	고려시대사	• 한국고대사> 추천이유와 비슷하다.
5	역사연구와디지털 인문학의기초	•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하는 수업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디지털을 역사와 연관 지어 공부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유용한 수업이다.
6	한국사의이해	• 역사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사 세부 전공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토대를 이 강의에서 쌓을 수 있다.
7	동아시아사의이해	• 전공 기초답게 차근차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며 몰랐던 역사 용어에 대한 유래 등을 설명해 주셔서 아주 유의미한 수업이다.
8	서양사의 이해	• 전반적인 수업자료가 괜찮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서 추천한다.
9	조선의사회와문화	• 사료적으로도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10	한국근대사	• 과제나 수업이 깔끔하고 학생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교수님의 수업 전달력이 압도적이여서 추천한다.
11	한국현대사	•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수업 전달력이 압도적이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의 내용이라 현실 속 문제들과 연관시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3) 문화인류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문화인류학개론	• 교수님들께서 친절하셨고 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말씀해주셨음 • 1학년 첫 전공임에도 이해가능하게 쉽게 내용을 구성하셨음 • 인류학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임
2	민속학개론	• 내 관심사와 부합한 과목이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좋았음.
3	문화콘텐츠론	• 문화를 콘텐츠와 엮어서 문화콘텐츠가 어떠한 과정으로 생겨나는지에 대해 배우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자료 등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흥미가 생기고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음. 교수님께서도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좋은 강의인 것 같음. / 쉽게 설명해주심

4) 유럽언어문화학부(프랑스어문전공)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생활프랑스어	• 프랑스 출신 현지 교수님분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화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라 좋았음
2	기초프랑스어	• 프랑스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참여형 강의 방식이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됨
3	기초프랑스어(2)	• 강의를 이해하기 쉽게 지도해주시고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좋으심
4	델프프랑스어(2)	• 프랑스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델프 자격 증 에 대한 A1,A2 팁이나 방식을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추천함 • 교수님이 수업에 대해 엄청 열정적이고 델프 시험 고난이도 클라스를 다루는 수업이라 난이도 자체는 좀 높은 편이지만 수업 방식과 시험 방식이 델프 시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해서 자격등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수강이 하기 좋음
5	프랑스어회화(1)	• 생활프랑스어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회 화 수업이라 회화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6	프랑스어연습(1)	• 프랑스어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프랑스어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나 문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수업 하나로 프랑스어 문법을 대부분 알 수 있음
7	프랑스어연습(2)	• 프랑스어연습(1) (1) 을 바탕으로 하는 문법 수업이라 을 수강해야하지만 (1)에서 놓치거나 이해되지 않은 문법을 열심히 설명 해주셔서 수업에 따라가기에 문제되지 않음
8	프랑스문학이해와 감상	• 조모임 등 다양한 토론 수업을 통해 프랑스문학을 알아볼 수 있고 문학에 대한 견해들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음
9	프랑스어회화(2)	• 기본적인 회화는 기본으로 해야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교수님이 프랑스어 출신의 현지 교수님인만큼 프랑스회화 실력 이 수업을 통해 상당히 향상됨
10	프랑스소설	• 수업 내용이 프랑스 소설로 수업하는 과목이라 수업 자체가 흥미롭고 교수님이 재미있는 부연설명들을 많이 해주셔서 총체적으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수업임
11	영화로배우는 프랑스어	• 프랑스 영화를 실제로 보고 수업하는 수업이라 프랑스인들의 현지 발음과 속도이기에 듣기 능력이 상당히 향상됨
12	프랑스어로 표현하기	• 교수님 수업 방식이 상당히 꼼꼼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시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음
13	프랑스샹송이해와 감상	• 프랑스 샹송을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라 수업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음

5) 유럽언어문화학부(독일어문화전공)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독일영화화사회	• 다양한 독일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며 독일영화 전반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됨.
2	초급독일어	• 독일어 문법에 관한 부분에 쉽던 어렵던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심에 실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평가함에 있어서 선행 정도를 전혀 보지 않는 점이 좋았음 • 독일어 기초부터 숙어, 문법 등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주셔서 좋았음. • 독일어 문법과 어휘를 포괄적으로 공부 할 수 있음.
3	독일미디어의이해	• 미디어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에 접목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즐거움.
4	생활독일어	• 원어민 교수님과 독일어로 소통하며 수업이 가능하며 수업 과정이 흥미로움.
5	기초독일어	• 독일어를 이해하기 쉽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고 수업에 지루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심. • 독일어의 기초 문법, 표현을 자세히 배울 수 있고, 교수님의 유학 이야기와 독일의 문화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함. • 독일어의 기초 문법, 표현을 상세히 배울 수 있어 추천함. • 독일어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어 좋았음.
6	기초독문법	• 정말 이해를 중요하게 보여주시고, 이해를 한다면 교수님의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듬.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방법들이 정말 쉽게 와닿기도 한다. 이 전공 과목을 통해 독일어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
7	독어독문학입문	• 독일의 기본글쓰기와 독일어문학작가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 수있게 되었음.
8	독일역사와문화	• 교수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도 친절히 해주시며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즐겁게 들은 강의임.
9	유럽영화운동	• 유럽영화의 전반적인 역사와 연관된 사회운동을 알 수 있고 영화를 직접 감상하고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임.
10	생활독일어	• 초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며 학생이 활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라 지식을 빨리 습득하게 되고 그로인해 독일어에 흥미를 느끼게 됨
11	A2 대비반	• 자격증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됨.
12	유럽문화의이해	•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어려움 없이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음
13	초급독일어회화	• 기초적인 독일어 지식을 쌓은 후, 회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임.
14	독일어번역	• 독일어 자격증 시험과 병행하며 독일 시사에 대해 알 수 있음.

6) 철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중국고대유학	• 동양 철학의 근간에 대해 배우고 쓸데없다고 생각한 유교문화의 명분을 살펴볼 수 있음.
2	불교철학사	• 불교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잘 없는데,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하여 불교 사상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성립 과정 등 전반적인 흐름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3	서양철학원전강독	• 원전 읽을 기회가 생기고, 영어 실력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서양근대철학	• 서양근대철학을 실제 원서도 읽으며 심도 싶게 다루기에 전공필수 과목에 적합한 강의였다. • 서양 근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과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기도 하여서 좋은 것 같다. • 토론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5	중국고대유학	• 고대유학의 사상들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 내용을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셔서 따라가기 편했다.
6	도기철학	• 다른 철학 분과에 비해 생소한 느낌이 드는 도가 철학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7	한국철학사	• 평소에 한국철학(특히 성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당 과목을 통해 한국철학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8	기호논리학	• 기호를 이용하는 논리학을 배우는데, 평소 사상가들의 이론을 다루는 수업들과 다르게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이다.
9	철학적인간학	• 철학사상을 인간학과 엮어 이야기하는데, 이를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고 또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다.
10	서양고중세철학	• 방대한 양의 서양의 고대와 중세 철학에 대한 전반을 한 전공을 통해 배울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업의 흐름에 포함시키는 수업 진행 방식이 좋았던 것 같다. • 내용적으로는 방대한 면이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철학적 사유를 담은 내용들이라 가장 추천할만한 과목이라 생각한다. • 서양의 고대, 중세 시대까지의 철학사상에 대해 알아보며,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워갈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기에 추천한다. • 서양고중세철학을 시작부터 제대로 천천히 배우면서 기본기를 익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1학기에 들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철학과를 다니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교과목으로 철학의 탄생과 철학에 대해 입문하는 단계에서 배우기에 좋은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서양의 근대철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한다.
11	형이상학	• 강의내용이 정리된 ppt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직접 강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철학자에 대한 더 깊고 풍부한 내용의 전공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원문 강독의 특성상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므로

No.	과목명	추천이유
		논리적인 이해력도 키울 수 있다.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상가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이 크다. • 큼직한 사상가 둘을 한 학기동안 다루기 때문에 한 사상가를 면밀히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익하다.
12	이야기로듣는철학	• 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업 자체가 정말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귀에 잘 들어왔고 관삼 갖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생겨 재미있고 유익했다.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도 흥미로워서 수업이 지루할 틈이 없어서 좋았다.
13	현대동양철학	• 교수님의 강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14	응용윤리학	• 철학과 수업 중에서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잘 없는데 토론과 자신의 생각을 자주 어필해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 생각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배울 점이 많다.
15	도덕심리철학	• 토론 위주의 수업 이여서 다른 사람들과 수업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16	현대유럽철학	• 네 명의 철학자와 대표적인 해석학자들의 사상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포인트가 많아서, 크게 인상이 남은 수업이다.

7) 수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정수론	• 수학과의 강의 대부분이 정수론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들으면 수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차후 고학년 과목의 공부를 할 때 훨씬 수월하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건너 뛰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수론 강의를 먼저 듣는다면 좀 더 다른 과목에서 이해와 심화가 쉬울 것 같다.게 이해를 할 수 있다. • 현대대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인 집합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자연수와 정수에 대해 정의하는 과목이다. 수학에서 쉽게 생각했을 때 당연한 부분을 증명함으로써 수학의 기초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어서이다. • 이후 3학년 교육과정에 기반이 되기도 하고 수학적인 추론 및 증명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정보와수리과학	• 옛날에는 암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규칙으로 암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배웠다. 영화 같은 곳에서 암호를 보며 항상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며 궁금증이 해소 되었고 흥미가 가는 수업이라 공부를 할 때 다른 전공보다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 암호에 대한 문제들을 해석하고 방법을 파악해나가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암호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직접 암호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팀원들과 함께 만들고 다른 팀원의 암호를 풀어보며 다양한 암호해석 방법을 알 수 있는, 실생활에 생각보다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 숨은 재미 알아갈 수 있는 전공과목이였던 것 같다.
3	수학세미나(1)	•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 학습한 것 같습니다. 수학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4	선형대수학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느낌이라 다른 수업에 비해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조금이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선형대수학이 미래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는걸 알게됨. 벡터와 행렬 등을 이용해 정리를 증명하는게 수학과 전공생들에게는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음. • 제가 기하, 벡터 쪽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벡터들을 그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기기도 하고, 변형도 시키다 보면 선형대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5	수치해석학	• 1학년때와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미적분의 근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정의와 함께 배울 수 있고 이러한 근의 오차를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6	미분방정식	• 수학과에서의 가장 기본은 미분과 적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양한 방정식에 적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해석학개론	• 초중고에서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수학에서의 공식들을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하여 유도하여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수학에 대해 '그냥 외워'가 아닌 '아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오는거구나'라는 반응으로 수학적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8	수학적프로그래밍 및실습	• 수업시간 동안 계속 이론만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습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몇몇 문제들을 퀴즈 형식으로 내며 URL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학과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해설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8) 통계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실험설계와분석	• 통계학이라는 학문적인 이론에 한정적인 것이 아닌, 실제 예시와 문제 등으로 실제 통계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 3학년 전공과목으로, 3년간 배운 통계학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잡을 수 있으며 동시에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나아가 데이터 분석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 솔직히 과제도 그렇고 수업내용도 그렇고 저한텐 어려워서 너무 힘들긴 한데 배우는 내용이 활동적이고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들이라 다른 수업들에 비해 색다르게 느껴졌음.
2	빅데이터분석	• 직접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고 배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통계데이터베이스	•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본 적이 있다. 이때 항상 언급되었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sql 이었다. 해당 과목에서 SQL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좋을 거 같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현재 기술이 잘 반영된 과목인 것 같다. • SQL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어느 정도 희망 직무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 이 수업을 듣고 앞으로 나의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 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들었던 SQL은 SQLD자격증 시험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잘 가르치시며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워 유익하다.
4	통계적방법론	• 통계학을 배울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확률변수나 확률변수의 적률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
5	통계패키지	• 개념 설명 수업이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하기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 속에서 전공 관련 개념을 활용하기에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전공을 처음 시작하는 2학년 과목 중 전공핵심 과목인 만큼 통계의 기초가 되고 조모임이 없어 편하며 과제는 적당히 주셔서 공부하기에 부담되지 않아 좋다고 생각함.
6	확률과정모형	• 확률 수업이지만 현시점과 미래의 시점에 대해 생각하고 행렬로 풀이식을 표현하며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에서 배운 행렬을 이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
7	보험통계	• 통계학과 수업 중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고 평소 복리, 단리에 관해 확실하게 정리되어 보험과 관련해 관심이 가게 해준 과목이다. • 이 과목을 듣고 나서 보험 종류, 계산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그 시작만 이겨내면 뒤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자료만 봐도 시험문제 푸는 것에 충분한 것이 너무 좋은 것 같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8	통계조사방법및분석	•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 • 교수님께서 강의력이 너무 좋으심. 수업관련 자료 공유는 물론이고 필기도 크게, 목소리도 크셔서 뒷자리 학생들까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심
9	통계프로그래밍	• 컴퓨터 코딩을 직접 하다보니 실력이 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은 점점 늘어날 것이니 이렇게 기초적인것부터 쌓아가는 수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9) 물리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기초수리물리학	• 1학년때 배우는 첫 전공과목임. 그러나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고학년에 배우게 될 과목들의 기초를 모르고 배워야 해서 꼭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음.
2	전자기학	• 전자기학은 물리학과 전공자로서 꼭 배워야할 과목이라고 생각함.
3	수리물리학	• 수리물리학도 기초수리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다른 전공과목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양자역학	• 양자역학은 정말 어렵고 난해한 과목이지만,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해주셔서 추천함.
5	현대물리학	• 1학년때 배운 일반물리학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어렵지않고 재밌게 수강했던 기억이 있어서 추천함.
6	신재생에너지 물리실험	• 수기 레포트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수기로 작성하니 더 기억에 잘 남아서 추천합니다.
7	역학	• 물리학과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	전자회로와실습	• 회로를 직접 제작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신기했고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직접 회로를 제작해서 꼭 추천하고싶은 과목임.
9	에너지물리개론	• 물리학과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활용하여 조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협동심과 발표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0	에너지와광학	• 개인적으로는 다른 전공수업들 보다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았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11	프로그래밍과물리	• 컴퓨터를 활용하여 매트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프로그래밍에 대해 막연히 겁내기보다는 직접 해보자며 격려도 해주셨고 막상 배워보니 재밌었어서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12	현대물리응용실험	• 현대물리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을 조별로 진행하였고, 레포트 작성과 학기말에 진행한 종합설계 발표를 통하여 개인적인 발표능력과 조원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3	나노물리개론	• 물리학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질좋은 강의와 강의자료로 수업을 이해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개인 발표를 준비하며 한 학기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두 번정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영어물리 프리젠테이션	• 물리학과 학생이지만 영어물리프리젠테이션을 수강하며 토익스피킹이라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다른 전공 수업들과 달리 토익스피킹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15	물리창의실험 (캡스톤)	• 직접 조원들과 물리학과 전공을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작성하고, 실험을 진행한 내용으로 교수님들께 발표도 하며 개인적으로는 물리학과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16	열및통계물리학	• 열정적인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7	현대광학응용실험	• 광학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최신 실험 장비들로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8	디스플레이광학	•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식과 개인간 발표를 준비하며 전공지식 함양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9	고체물리학	• 고체물리학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셔서 재미있게 수강을 하였습니다.
20	반도체소자물리학	•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 실력과 질 좋은 수업으로 반도체에 관한 지식 함양과 발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10) 화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유기화학	•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 전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다.하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중간중간 한국어로 요약하여 설명해주신다. 외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들으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물리, 분석, 무기화학에 비해 기본 개념이 이해하기 쉽고, 교수님이 설명을 잘하신다. • 미래 진로와 가장 근접한 과목이기도 하고 수업에도 흥미가 있다. •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것 같다
2	효소생화학	• 생화학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전공 내용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신다.
3	분석화학	• 교수님의 강의 열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과목이다. • 내용은 어렵지만 교수님께서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신다.
4	유기구조분석	• 분석기기(IR,NMR,MS)에 대해 배우고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서 유용하고, 실험실에세 가장 도움이 된 과목이다.
5	분석화학실험	• 다른 실험수업과는 다르게 실험 전 조별로 세미나를 갖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6	물리화학	• 교수님의 강의력이 뛰어나시다.
7	무기화학	• 문제풀이를 잘 진행해주시고, 개념을 빠짐없이 꼼꼼히 알려주신다.
8	기기분석	•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개념 설명 및 내용의 흐름을 잘 이야기 해주셔서 전공 지식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11) 생명과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발생생물학	• 생명과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2	분자생물학	• 생명과학도라면 알아야 할 만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대부분 학습하며, 그 원리와 현상, 실험 방법등에 대해서도 다룸.
3	생명과학캡스톤디자인	• 강의 시간에 배울 수 없던 실험적 기술을 배울 수 있음. 또한 일반 실험 수업과는 다르게 성공적인 캡스톤 실험 결과를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이론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됨
4	생태학	• Arc gis라는 현장에서 사용 할 만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음. 실험과 이론이 적절히 섞여 있어 둘 모두에 큰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해 준 과목임. • 지금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을 이용함으로 인해 새로움을 느꼈고 흥미로웠음.
5	세포생물학	•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있지만 교수님께서 전공과목과 관련된 진로 조언을 해주셔서 유익함. •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수업임.
6	식물분류학	• 배운 뒤 그냥 지나쳤던 식물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을 느낌.
7	유전공학의실제	•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많이 이용되는 실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과목임.
8	유전학	•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 원리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해주심. •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과 수업진행 능력이 좋았고, 학습 내용이 유익했음. •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중 하나라고 생각함.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음. •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높았음.
9	진화생물학	• 교수님의 수업을 진행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짐.
10	행동생물학	• 흥미있게 학습함. • 동물이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음. • 교수님이 주제를 흥미롭게 잘 설명해주심. • 교수님께서는 뛰어난 강의력으로 여러 동물들의 행동의 이유를 보다 쉽게 설명하심. 논리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설명으로 흥미롭게 수강함. • 동물의 기본 행동 습성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으로 흥미롭게 수강함. • 지구상의 생물에 대해서 고유한 행동양식에 따라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유전자에 따른 상호작용 그에 따른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 학습함. 유전학 진화학 생태학까지 아우르는 매력적인 학문임.

12) 환경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환경 에너지 계산	• 교수님이 유머러스하고 단위환산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잘 가르쳐주심. • 교수님이 열정이 넘치시고 앞으로의 전공에서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배움.
2	환경분석화학	• 담당 교수님께서 과의 자부심과 수업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편이라 이해하기 쉽고 세세하게 알려주심.
3	수리학	• 전공에 대한 깊은 수리학적 관계와 공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 교수님께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주심.
4	수질공정시험법 및 실습	• 전공 교육과정을 실험을 통해 접함으로써 조원들과 팀워크가 형성되고 경험과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임 • 좋은 장비를 갖고 있음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음 • 수질환경기사필기와도 밀접한 공부였고 직접 실험을 하면서 실험보고서를 쓰며 공정시험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음. • 직접 실험을 통하여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흥미로웠음.
5	폐기물관리	• 강의 진행이 깔끔하고 질의응답이 좋아 학생을 위한 수업임. •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셔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음.
6	환경유체역학	• 강의 준비가 철저하고 수업 진행 중엔 힘들기도 하지만 배운 게 가장 많아 도움 되는 게 많음. • 교수님께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진행해 주심.
7	환경화학	• 2학년 때 환경화학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3학년 수업 때도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두기 위해 듣는 것을 추천함.
8	상하수도공학 및 정수처리 실습	• 최근 변화하는 환경 분야 트렌드를 알아갈 수 있음. • AI나 설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
9	환경공학계산	• 단위변환과 물질 수지등 앞으로의 전공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 상식들을 가르쳐줌. • 교수님이 다양한 예제들을 올려주셔서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키울 수 있음.
10	환경공업수학	• 교수님께서 수업에 열정적이시고 들었던 전공과목 중에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과목임. •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과목으로 부담되는 과목이지만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걱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았음. • 메일을 보내는 매너, 레포트를 쓰는 형식 등 사소하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좋았음.
11	환경오염생태학	• 다양한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12	환경화학	• 교수님께서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전공지식 함양에 도움이 됨.

13) 도시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도시설계제도	• 평소 제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수업으로제도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실습수업이라 재미있었음. •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습수업이기에 우리가 직접 그리며 배울 수 있음 • 실무 관련 수업이라 추후 실기 자격증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음 • (강의 내용) 설계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과 명암, 글씨 연습 등을 주로 알려주심
2	도시설계CAD	• (교수진의 열정, 강의 내용) 실습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학생 한명 한명 꼼꼼히 봐주려고 노력하시고 수업도 체계적으로 진행됨 • (호용성) 살면서 꼭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3	도시계획법	• (강의 내용, 지식 함양) 도시공학과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을 가장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절한 사례가 많아 도시공학과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함.
4	부동산개발론	• (효용성, 교수진, 강의 내용)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 교수님께서 유쾌하게 진행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음. •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학문적으로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됨.
5	도시계획개론	• (지식 함양) 도시계획의 기초 이론에 대해 배우는 수업으로 도시계획기사 시험을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6	도시설계세미나	• (시험) 재미있고 수업과 과제, 시험이 다른 수업들에 비해 부담 없음. • (교수진) 도시재생센터장으로서 본인이 경험하신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해 주시려 노력하시고, 실무적 이야기를 접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
7	도시및교통 통계분석	• (효용성, 교수진)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교수님 강의력이 좋아 집중이 잘되었고 실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8	도시계획사	• (강의 내용) 현대 도시의 모습이 아닌 과거 다양한 나라의 도시계획방식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선사시대부터 21세기까지 인류가 거쳐온 도시들은 시간대 순으로 배워 흙에서부터 콘크리트까지 그사이에 얽힌 다양한 역사 사건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전공의 수가 매우 적어 추천할 만한 전공과목이 없기에 선택함.
9	단지계획	• (교수진, 지식 함양) 강의력이 좋으셔서 집중이 잘 되고 전공지식이 향상됨. 교수님이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심.
10	단지설계스튜디오	• (교수진, 강의 내용, 효용성)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과 피드백으로 기사 시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음. • 전공 분야를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과목임.

14) 건축학부(건축학전공)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한국건축사	• 원래 한국건축사에 관심이 있었고 다양한 시각자료와 자세한 설명, 여러 가지 건축물 사례를 보여주고 흥미로워서 추천하였음
2	건축설계	• 가장 우리학과에서 중요한 대표 과목일뿐더러, 이 수업을 통해 얻는 마감기한, 피드백, 설계 과정 등등이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이후의 과정에서도 당연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건축설계의 기초수업	• 도면을 모르는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도면에서 쓰이는 선 굵기부터 시작해서 벽의 종류나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수업이므로 가장 추천하는 과목이다.
4	설계 수업	• 설계수업이 가장 기본이자 학교를 다니는 이유
5	서양건축사	• 건축의 전체적인 기본 역사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일반 상식 까지 많이 늘게 되었다.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관련 경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좋다.
6	건축구법	• 건축의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함.
7	CAD 및 실습	• 스케치업과 포토샵 프로그램을 전공에 맞춰 쉽게 가르쳐준다.
8	건축환경론	• 수업내용과 관련된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수업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에 더욱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9	건축설계	• 해당 학과를 전공하고 취직했을 때 하는 주요 업무와 그 과정들을 미리 배워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건축학과의 주가 되는 과목이고 건축학과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형태구성	• 수업 내용이 어렵긴 했지만, 강의 분위기도 좋았고 건축물의 비정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11	현대건축	• 강의 난이도가 있지만 수업 학생의 참여가 높은 구성이다. •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자기신념 확보 가능하다. • 교수님이 열정이 많으며 건축학도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
12	환경친화건축	•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친환경건축에 관련해 실습 과목을 수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13	건축개론	• 1학년때 수강한 과목이지만 4학년을 끝내고 5학년 초입인 지금도 그때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건축의 전반적인 개념을 전부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14	인간생활과 건축	•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좋다.
15	건축구성론	•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및 해석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15) 화학공학부(화공시스템)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유기화학(1)	• 유기화학을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시고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화공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력이 가장 좋으시다. • 어느정도 화학의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내용 확인 질문을 하셔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열정이 느껴져서 좋았음 • 어렵고 생소한 유기화학(1)에 대해 직관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유기화학(1)을 잘 배우고 나니, 뒤에 배우는 유기화학(2), 기기분석, 공업화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다소 쉽게 배울 수 있었다.
2	기초실험(1)	• 공이론들을 실험을 통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성적 반영 비율에 보고서 비중이 커 장기적으로 평가된다.
3	물리화학	• 이후 듣게되는 여러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었던 과목으로 꼭 들어야 할 전공과목이라 생각한다. • 2~4학년 중 안 쓰이는 때가 없다. 화학공학과의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 물리화학 수업이 교수님이 시험을 단원마다 퀴즈로 치셨는데 제가 중간 기말 형식은 맨날 공부안하다 몰아하는데 퀴즈 형식은 그래도 공부해서 좋았습니다. • 2학년 전공들이 앞으로 배울 전공들의 기초이자 제일 알아야 할 과목이라 생각한다. • 2학년에서 4학년 교육과정에 골고루 쓰이는 화학공학부의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4	반도체소자공학	• 전찬욱 교수님이 강의하셔서, 정말 자세하게 반도체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화공열역학(2)	• 화공의 목적인 물질의 고순도 분리를 위한 상평형과 반응평형을 배운다. • 정통화공을 배우는 화공시스템학과의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 4학년에 배우는 분리공정을 듣기 이전에 필수로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6	생물화학	• 교수님이 수업도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며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7	화공유체역학	• 화공시스템전공특성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8	에너지수지	•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치심.
9	물질수지	• 화학공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인 것 같다. • 2학년 전공들이 앞으로 배울 전공들의 기초이자 제일 알아야 할 과목이라 생각한다. • 전공에 대한 기초이고 재미있음.
10	유기화학	• 2학년 전공들이 앞으로 배울 전공들의 기초이자 제일 알아야 할 과목이라 생각한다.
11	양자화학	• 진행과 설명이 매끄럽고, 학생들의 눈높이게 맞는 수업을 잘해주셔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높다.

16) 화학공학부 (에너지화공)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에너지화학공학 실험(1)	•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작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음. 과제의 느낌이 아니라 개인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음
2	화공유체역학	•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3	유기화학(1)	• 단순히 문제로 유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남게하여 이해가 잘되기 때문이다.
4	물리화학	• 전공수업에 과제가 잘 없는데 이 강의는 챕터마다 간단한 복습용 문제 과제가 있어서 시험 공부할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전공들보다 공부하기 수월했다. • 사담이 없고 수업체계가 잡혀있다. • 2학년 1학기에 배웠던 전공인데 후에 다른 전공을 공부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 많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추천한다. • 수업의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교수님이 잘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으며, 앞으로 배울 과목들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과목이 어렵지만 교수님이 잘 설명해주신다. • 다른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함 • 물리화학 전공에 대한 내용이 다른 전공에서도 계속 나오고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ppt가 가독성이 좋고 교수님이 수업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다. • 물리와 화학을 접목하여 나중에 배울 과목들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유기화학(2)	• 이승우 교수님이 75분이라는 긴 수업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만큼 재밌고 이해가 잘 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강의를 추천합니다. •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구를 활용하여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유기화학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과목인 것 같다.
6	공업수학(1)	• 공대에서 필요한 수학의 기본 개념을 알 수 있어서 추천한다.
7	유기화학	• 화학공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유용한 지식들이 될 것 같다. 유기화학은 화합물을 합성해보며 어떻게 합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8	에너지수지	• 공정을 하는데 시스템 설계에 응용햐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9	기초실험	• 다양한 연구실 경험과 실험을 할 수 있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10	공업수학	• 교수님의 강의방식이 개념과 증명까지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해주시며, 잘 못하는 학생들도 듣기 쉽고 학생들을 배려해주시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이해도를 위하여 많이 노력해주셨다. • 교수님이 수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
11	반도체소자공학	• 반도체적인 지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17)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기기분석	• 설명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공에 맞는 과목이라 추천합니다.
2	공업수학	• 수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으며 공대의 필수과목이라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고분자바이오소재 심화실험	• 이론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실험으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재료과학	• 배운게 많았으며 전공 지식과 관련하여 취업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5	바이오생체재료	• 고분자 바이오소재 전공이지만 바이오 관련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으며 서술형 시험이라 공부를 많이 하게 해줍니다.
6	고분자바이오소재 기초실험	• 몇 없는 실험 수업이며 실제 전공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험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8) 화학공학부(융합화학공학)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물질수지	• 화학공학부에서 다른 모든 전공들과 이어지며 가장 기본적인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된다. • 향후 심화 전공을 들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2	화학공학실험(1)	• 이론을 배움과 동시에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 전공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화공기초설계	• 화학공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화학공학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어떠한 원리들이 필요한지 등의 기초를 설립할 수 있는 전공이라 생각함. 무엇보다 화학공학 전공 과목들의 내용들을 함축해놓은 과목이라 미리 들어놓으면 확실히 나중에 전공을 들을 때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 생각됨.
4	반도체소자공학	• 반도체 소재 및 소자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었다. • 실제 직군과 관련된 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은 어렵지만, 교수님께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열심히 한다면 관련 지식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강의력이 정말 좋고, 남는 게 많은 수업이다. •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유일한 반도체 과목이다. 반도체 관련 전공지식 함양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공정에 대하여 강의해주셔서 실제 산업에서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 실제 산업과 가장 연관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반도체 관련된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자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 이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식과 관련되어 많은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다. •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었을 때 심화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 유일한 반도체 관련 과목이라서 진로가 반도체쪽인 사람은 대부분 수강하였을 것이다.
5	유기화학1	• 유기화학이 화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께서 반응의 메커니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 이승우교수님께 유기화학1을 듣는 걸 추천한다. • 1학년때 배운 일반화학내용과 비슷하여 다른 공학적인 과목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6	전기화학공학	• 2차 전지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교수님이 가르치는 열정이 매우 높고 수업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실려고 노력해주신다. 수업도 잘 가르쳐주신다. 전기화학을 배우면서 배터리 관련내용도 함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기화학적 측정법, 분석법을 배우고 전기화학 소자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운다.
7	물리화학	• 교수님 수업 방식이 학기 중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시는 방식이라

No.	과목명	추천이유
		복습율도 높고 본 시험기간에 부담을 덜 준다. • 거의 모든 전공과목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를 추천한다.
8	공업수학	• 수능 수학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신다. • 우선 교수님들이 과목에 진심이십니다.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가 쉽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업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9	에너지수지	• 다른 과목들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9)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취업/현장 기술세미나	• 기업의 대표자들에게 현재 트렌드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2	고체역학	• 고체역학뿐 아니라 기계공학부로서 4대 역학을 배움으로 인해 충분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함
3	3D모델링	• 현업에 나가서도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라서 •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카티아는 도움이 된다. • 직접 실습을 통해 전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이론 중심의 전공과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많이 사용하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
4	캡스톤디자인	• 남는 것이 많았던 전공과목이라 생각한다.
5	미래자동차 및 대체에너지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에 대해 공부 함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6	로봇공학	• 미래에 전망이 좋은 수업
7	기계요소설계	•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업 • 수업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문제 풀이도 잘 해주시는 거 같아 좋습니다.
8	전산기계제도	• 실제 산업에 잘 쓰일 수 있음 • 기계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카티아 프로그램에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된다.
9	자동차공학	• 다른 전공수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자동차에 대해 더 자세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 실제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무자가 직접 오셔서 질의응답해주시기까지 해주셔서 아주 흥미로웠다. • 실제 자동차의 부품을 보며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음. • 기계의 꽃은 자동차라고 생각한다. 이 자동차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수업 자체도 재밌고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
10	기계공작법	• 기계공학부에서 나중의 자격증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예전에 배운 기계 재료의 내용도 내포되어있어 도움이 되는 과목인 것 같음.
11	유체역학	• 기계공학 학습에 있어 매우 필요함.
12	공업설계	• 타전공에 없는 전공과목이어서

20) 기계공학부(기계설계)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정역학	•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전공과목이며 다른 전공을 배우는데 기초가 된다.
2	자동차공학	• 수업시간 중 3D 안경을 가져오셔서 수업을 하셨는데 독특한 수업방식이라 재밌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고 있기에 자동차 공학은 기계공학과라면 꼭 이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	자동제어	• 기계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서 자동제어 과목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
4	3D모델링	• CATIA라는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도면을 컴퓨터상에 나타내고 표현하는 게 재미있어서 추천한다. • 4대역학 같은 이론수업만 하다가 CATIA 프로그램을 쓰는 수업을 들으니까 흥미를 느꼈다. • 카티아라는 설계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전산기계제도	• CATIA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는 과목이다. CATIA 프로그램은 거의 매 학기마다 사용하지만,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도 사용하기에 복습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실제로 접할 일 없었던 부품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설계해보면서 기계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6	동역학	•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흥미로웠다.
7	열역학	• 기계기사시험에 나오는 필수과목들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다.
8	고체역학	
9	유체역학	
10	FEM응용설계	• ANSYS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고, 조별과제를 통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11	고체역학	• 교수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과목이었고, 하나라도 더 챙겨가기를 원하시는 걸 수업에서 느꼈다.

21) 기계공학부(첨단기계)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열전달	• 기계과에서 반도체 쪽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함
2	정역학	• 모든 역학 과목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3	미래 자동차 및 대체에너지	• 자동차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유익해서
4	3D모델링	• 우리학과에서 이때까지 수강한 과목중 가장 실무에 가까운 과목이라 생각했고, 또 매일 이론위주의 수업만 듣다가 실습을 하니 흥미가 있었다. • 제일 실용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함
5	전산기계제도	• 직접 실습을 통해서 기계과의 수업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6	기계요소설계	• 진짜 기계과에 들어와야만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서
7	응용고체역학	•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시고 강의력도 기계과 탑. 고체역학에서 애매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명강의었다.
8	카티아 실습 과목	• 취업할 때 도움 될 거 같다.
9	기계공학실험(2)	•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할 공작과정을 실습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줌
10	유체역학	• 교수님이 과목에 대해 잘 알려주시고 여러 기체와 유체등 흐르는 성질의 유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11	캐드	• Kati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 D모델링을 배우면 기계공학 분야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및 제조 분야에서 높이 평가되는 기술입니다.
12	동역학	• 역학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
13	열역학	• 교수님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너무 잘 설명해주신다
14	컴퓨터계측과 프로그래밍	• 내가 직접 키트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는게 재미있었다
15	캡스톤 디자인	• 학생 주도의 실험 및 토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다른 과목보다 더 실무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16	고체역학	• 고체역학은 박상신교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나 수업등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차근차근 따라가고 복습한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체역학은 4대역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은 박상신 교수님께 배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22) 전기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회로이론<1>	• .교수님이 기본적인 공학의 이해를 위한 수업을 하신다. 왜 이식을 써야하는지 이 근거는 뭔지 수식을 증명하고 이해를 붙이기 위한 수업을 하신다. 단순 암기가 아닌 공학에 대한 기초를 배우려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키우기에 굉장히 도움된다. • 기초 지식이 없어도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었고, 전기에 대한 기본을 배울 수 있었음. • 우리 과의 가장 대표 과목이기도 하고 수업방식이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의 수업방식이라 전공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전기공학과 특성상 연관이 안 되는 과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함.
2	회로이론<2>	• 전기공학특성상 회로이론을 포기하면 다른 수업도 포기하는것과 같고 물리와 수학에 재미를 넣어줌 •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개념도 설명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에 관해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다. • 전기공학과의 근본인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내가 여태껏 쌓아 온 지식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발돋움이 되는 과목이며. 가장 흥미롭게 수강했지만 동시에 가장 머리 아픈 과목이었기에 전기공학도로서 꼭 성실히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므로 추천한다.
3	전력전송공학	• 교수님께서 강의를 되게 잘해주신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시고 기본적인 전공지식까지 신경써서 알려주신다. 또한 자격증취득과도 연관해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되는 강의였다.
4	수치해석	•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 전공적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
5	자동제어	• 전기공학 학사로 졸업한다면 제어에 대한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들어두면 도움이 된다.
6	배전계통운용	• 전기공학과라는 것을 가장 크게 와닿게 한 강의이며 전공적 지식과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명강의라 생각한다. • 한국 전력 공사의 대학생 송배전 캠프에 참가해서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직접 보니까 더욱 유익하게 느껴졌음
7	신에너지공학	• 우선 친환경 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친환경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식으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알 수 있었다.
8	전기공학기초실험	• 수업만 듣는게 아닌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9	공업수학	• 공업수학이 실제 공학환경(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접목하여서 쓰일수 있는 지 예시를 들어서 수업해주시고 교수님께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10	전자기학	• 전기공학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전공 학문이고,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과목으로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다. 이후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때도 전자기학에서 배운 이론이 가장 도움 되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1	전기기기	• .전기공학과의 대표적인 핵심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두 분은 강의력이 매우 좋으시기로 소문나신분입니다. 짧게 핵심만 요약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험 관련 족보가 전혀 없고 수업이 실무지식 바탕으로 진행됨. • 전기기기들의 구조 및 기본적인 동작원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음.
12	공업입문설계	• 과목의 책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해주시는 느낌이 좋습니다.

23) 전자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전자공학기초실험 (1)	• 논리회로 과목의 내용을 직접 브레드보드 위에 구현하는 실습으로 학습할 수 있어 좋았음.
2	전자공학기초실험 (2)	• 회로이론(2)에서 배웠던 이론을 직접 실습하며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음. • 오실로스코프, 함수 발생기 등의 장비를 다뤄볼 기회가 있어 좋았음.
3	디지털통신공학	• 관심있는 내용의 전공 과목임.
4	임베디드인공지능	• 리눅스와 인공지능, 임베디드 보드를 배우고 팀플을 통해 직접 임베디드 보드에 인공지능 모델을 포팅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은 수업인 것 같음. •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배우는 내용 외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행착오와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음.
5	통신시스템	• 교수님께서 수업을 정말 잘 가르쳐주심.
6	컴퓨터비전 프로그래밍및응용	•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매우 만족스럽고, 주제 또한 흥미로웠음. • 컴퓨터 비전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 재밌었음. •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계심.
7	논리회로	• 강의 중에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전공 지식을 익히기 좋았다고 생각함.
8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교수님께서 열정이 있으심.
9	신호 및 시스템	• 전자과의 핵심 부분인 신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필수적인 과목이라 생각함.
10	공업수학	•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심. • 해당 과목이 졸업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함. • 이 과목 하나만 잘 배워두더라도 어느 과목이든 운용할 수 있다.
11	회로이론	• 처음 접했을 때, 회로분석이 어려웠지만 복잡한 회로일지라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12	반도체공학실험	•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현업과 연계하여 전공적 부분 설명
13	디지털시스템설계	• 논리회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설계해보고 동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디지털영상처리	•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음.
15	수치해석	• 수치해석에서 배우는 여러 해석 기법들이 공학분야에 굉장히 많이 적용됨.

24) 컴퓨터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컴퓨터네트워크 실습	• 수업내용도 유익하며, 교수님 또한 수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는 과목이었다.
2	자료구조	• 이 과목을 배우고 안배우고에 따라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이다. • 내용은 어렵지만 교수님의 과목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 전공으로써 현재까지 수강 한 과목들 중 가장 전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 • 컴퓨터공학과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 컴퓨터공학에 대해 본질적으로 파고들어 이해를 더욱 잘하게 됨. 교수님이 매년 새로운 과제를 내어 족보 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 가능함.
3	알고리즘	• 체계적으로 잘 가르침
4	데이터통신	• 교수님이 열정적이시며, 수업의 내용과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실용적임 •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 수업을 매우 잘 하심. • 교수님이 열정적이시며, 수업의 내용과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실용적임
5	데이터베이스	• 개발자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개발 지식중에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과제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과제 난이도가 부담스럽지 않다.

25) 정보통신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통신시스템	•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 수업을 정말 세세하게 진행하시고 성적도 최대한 너그러이 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공학습에 좋다.
2	객체지향과 자료구조	• 자료구조를 배우기에 기본적인 수업으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학습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업이다. 교수님께서 이론수업뿐만 아니라 실습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료구조를 직접 구현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 들을 알고리즘 수업을 미리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3	C프로그래밍	• C언어를 이용해서 쉬운 구현과 어려운 구현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개념으로만 공부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는데 많은 실습과 홈워크를 통해 수업을 따라만 가도 실력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후반에 간단한 자료구조를 학습할 수 있어서 좋다.
4	회로이론	• 하드웨어적인 회로의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회로의 이론 같은 경우는 물리에 해당해서 안배운 사람에게 어려울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알려주시고 매 수업마다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주시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없이 진행 할 수 있다. 계산하는 내용이 주로 있다보니 외우는 내용이 없어서 좋다.
5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 요즘 많이 쓰는 Python언어를 배울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python같은 경우는 데이터분석이나 인공지능 등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야하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6	공업수학	• 푸리에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과 같이 통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수학적 배경을 쌓을 수 있다.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전공을 하기에는 많은 수학적 지식이 겹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교수님께서 공식을 하나하나 유도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학습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
7	논리회로	• 전공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편에 속하는 강의인데,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설명도 쉽게 해주신다. 그리고 수업 관련한 어떤 질문이든 받아주시고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학습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CS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습을 병행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8	컴퓨터네트워크	•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워서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주시려는 교수님의 노력이 많이 보이는 수업이다. 특히 실습을 통해 이론을 통해서만 배웠던 네트워크를 좀더 편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9	빅데이터응용	•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다. 특히 R Studio나 python을 실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추천한다. 특히 교수님이 다양한 언어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입문을 하는데 좋은 수업이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0	알고리즘	• 블렌디드 강의로 눈높이 학습이 가능하다. 수업중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반복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시간에 더욱 치중할 수 있다. 특히 이해도 높은 강의력을 가지고 계셔서 학생들이 학습할 때 편하다. 이론과 실습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좋다. 객체지향자료구조 수업을 잘 들었다면 심화학습을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
11	회로실험	•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회로이론과 논리회로를 병행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습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처음 보는 오실로스코프나 회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조교님과 튜터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

26) 미래자동차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기계요소설계	• 기계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 직접 감속기 설계를 해봄으로써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통능력과 피드백을 통해 지식을 키울 수 있고 취업 직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계 특성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고 팀 프로젝트와 실습과제를 통하여 조원들과의 협업 및 경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없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결과물과 설계과정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	미래자동차 공학기초	• 교수님이 친절하게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공과목인 만큼 꼭 들어야하고 저희학과의 대표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	• 어려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림 그리는 것과 접목하여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4	자율주행자동차	•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학부생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ROS프로그래밍을 추천합니다. 코딩도 함께 배울 수 있어 남는 것이 많습니다. •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핫한 트렌드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접할 수 있는 과목이고, 실습을 통한 자율주행의 시스템 이해, 실습경험 ,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취업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5	임베디드시스템	• 회로구성과 코딩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현재 트렌드인 만큼 필수적인 역량이라 생각됩니다. • 실습을 통해 직무 이해도를 상승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6	전기자동차공학	•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 취득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자동차를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전기자동차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7	3D 모델링	• 취업 후 직무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들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현재 학과에서 후에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알아두면 3D printing 등 여러 가지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8	유체역학	• 전공과 관련하여 취직 하였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과목이라서 추천 합니다.
9	전산기계제도	• 자동차나 모든 사물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어 1학년 전공 중 대표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카티아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10	자동차기능실험	• 책으로 배우던 전공 내용을 실험을 통해 직접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고 직무 능력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7) 로봇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수치해석	•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지만 과목의 중요성과 교수님의 강의력을 생각해본다면 수강하여 손해보지 않는 과목이다. 학과의 커리큘럼 중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동역학, 자동제어 등에서 배운 내용을 내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	3D모델링	• 우리과에서 진행하는 기계 설계 관련 실습 강의이며, 다양한 창의력을 토대로 자신만의 로봇을 설계해보는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설계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학 수업에 가장 가까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론수업과 달리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 좋았다
3	기계진동	• 교수님의 열정 있는 수업과 난이도 조절에서 배려가 느껴지는 수업으로, 현실적인 공학 문제를 접할 수 있다.
4	컴퓨터 계측	• 로봇공학과 밀접한 실습과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공업 수학	• 공과대학 학생이라면 거의 필수로 접해야하는 강의이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좋았다.
6	계측 및 실습	• 가장 로봇공학과 다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활용법과 각종 센서의 작동원리 등을 학습하여 로봇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어서 추천한다.
7	고체역학	• 부재를 다루는 지식은 강체를 다루는 로봇공학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8	동역학	• 기본적인 공식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교수님의 말씀처럼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가 아닌 개념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

28) 정치외교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선거와 정당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 이 수업이 좋았다.
2	한국정치사	• 한국의 근대와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좋았음. • 수업 난이도가 1학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전공인거인 만큼 난이도가 적당함. 그리고 정치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국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정치학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함. •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 상황과의 비교도 함께 접근하여 수업이 진행되어 이해하기에 수월하였다. •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수업이라 좋았음. • 한국의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3	외교론	• 국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수업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계대전 과정,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보 등을 배우며 국제 시사에 대한 생각을 깨우칠 수 있는 수업이라 추천한다. 외교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음.
4	권력과 리더십	• 적은 학생 수로 인해 더 집중하기 좋은 수업 환경, 수업 내용의 흥미로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5	정치학 원론	•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슈되는 시사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줌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정치구조. 민주주의 등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짐.
6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 사례에 적용해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음
7	생활법률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법들을 깊게 배우면서 법에 대해 공부 할 수 있고 실제 사례,사건등을 위주로 공부하여 몰입감 있게 법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음. • 생활 속 살아가며 유익한 정보가 너무 많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채울 수 , 있어서 좋았습니다
8	국제시사영어	• 국제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가 생기고, 그것을 영어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실력 또한 향상 가능 • 외국 기사로 수업을 진행하여 영어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 발표를 통해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시사를 파악할 수 있음
9	정치평론연습	• 정치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됨.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쓰기로 표현하는 연습이 매우 유익함
10	세상을바꾸는 발표와 토론	• 강의식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발표와 여러 차례의 토론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담당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하였다.
11	한국정치론	•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한 수업
12	문화예술과 정치	• 학생들의 토론 등 참여 중심 수업임
13	국제관계사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제 관계, 외교 관계에 다루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존재하며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 있음

29) 사회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문화사회학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사례, 뉴스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함.
2	사회조사방법론	• 학생들의 적극적 질의를 통한 수업진행으로 지루하지 않음. • 교수님의 중간중간 가벼운 이야기를 해주심에 따라 쉬는 시간을 가지며 편하게 수강할 수 있었음.
3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 수업내용이 흥미진진하였으며 과제를 제출하였을 시 피드백을 매우 꼼꼼하게 해주심.
4	사회학개론	•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듣는 전공과목인 만큼 사회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쌓아주는 과목이라 생각함. • 다른 전공과목들에 비해 교수님의 일방향적 수업이 아닌 교수님의 예시와 설명이 함께 된 쌍방향적 수업이라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를 느낌.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더욱 흥미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전공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쉽게 배울 수 있었음. (2명)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 문제점이나 여러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논쟁거리 혹은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음.
5	사회문제론	• 사회문제에 대한 수강생들간의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음. 과제로 소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시기에 제대로 된 논문 작성법을 배울 수 있었음.
6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배워 사회구성원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음. 개념과 더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있게 다뤄 앞으로 나아갈 제도의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인간 발달 관련 지식을 배우며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전공과목들에 비해 학습한다는 기분이 들었음.
8	지역사회혁신캡스톤디자인	•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보고 실제 구현해보는 등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의미있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음. •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와 조원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는 성취방식에 매우 흡족함. •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음.
9	현대사회학	• 사회학이 얼마나 학문적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강의였음.
10	인구사회학	• 고전적인 이론 수업보다 통계적인 특면을 통해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회학을 가장 잘 활용하는 강의임.
11	사회학강독	• 사회학과 학문에 대해 기초적으로 배우며, 길잡이 느낌으로 배우기 때문임.

3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스피치의 원리와실제	• 성적 취득 용이, 진로선택 및 취업 시 도움, 스피치 향상에 도움 • 열의있는 교수님, 적절한 시험난이도, 적절한 과제량, 흥미로운 수업주제, 실생활 적용 • 스피치에 대한 원론을 듣고,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발표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학우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과의 소통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후에 스피치를 하는 자리에서 강의 내용과 실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
2	스토리텔링과쇼잉	• 관심-흥미 충족, 재밌었다
3	디지털스토리텔링	• 수업내용 충실, 교수자의 열의 높음, 교수-학생 소통 원활, 다양한 분야 교류, 매주 영상을 만듦으로써 전공 역량을 높일 수 있다. • 평가방식 적절, 협력활동 • 수업내용 충실, 진로선택 및 취업 시 도움, 관심-흥미 충족, 몇 없는 실습과목 • 학기 동안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영상, 기획서를 제작하다 보니 창의력이나 순발력을 비롯하여 영상을 다루는 기술을 기르기 용이했다.
4	영화론	• 이론만 가득한 미컴 전공과목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대부분 영화에 흥미가 있기때문에 들으면 좋은 강의인것 같다.
5	미디어글쓰기와 말하기	• 수업방식 적절, 수업 난이도 적절, 진로선택 및 취업 시 도움, 교수님의 과제 피드백으로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6	사진저널리즘의 실제	• 수업내용 충실, 교수자의 열의 높음, 교수-학생 소통 원활, 전공지식 함양, 진로선택 및 취업 시 도움, 관심-흥미 충족, 실생활 도움, 사진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하며 사진 기술 함양
7	커뮤니케이션이론	• 해당 과목 수강 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타 전공과의 교류도 가능해졌으며 교수진과 학생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흥미도가 높은 과목이었음.
8	영상커뮤니케이션	• 교수님의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영상이나 우리학과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음
9	영상제작의실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걸맞게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탁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영상을 제작하면서 배워가는 지식이 크다고 느꼈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끊임없이 주고 받는 소통은 전공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	영상기획의실제	• 수업방식 적절, 교수-학생 소통 원활, 몇 없는 실습 위주 전공이고 재미있음 •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11	커뮤니케이션 통계학	•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통계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고, 직접 통계 과정을 실습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통계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2	광고creative	• 수업내용 충실, 수업방식 적절, 교수자의 열의 높음, 전공지식 함양, 진로선택 및 취업 시 도움, 관심-흥미 충족, 직접 공모전을 나갈 수 있어서 몸소 느낄 수 있고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흥미가 생김 • 트렌드에 맞는 방식의 수업. 실제로 공모전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조별과제로 개인의 다양한 창의성과 협동심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음
13	언론정보학의이해	• 수업내용 충실, 수업 난이도 적절, 교수자의 열의 높음, 교수-학생 소통 원활, 전공지식 함양, 교수님께서 열정이 넘치시고 학생들에게 사랑이 느껴집니다.

31) 군사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리더십	• 리더십에 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2	군대윤리	• 이론적인 것보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있는 정보를 많이 얻음
3	병영체험훈련	• 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군부대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생활하면서 군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아 전공과목 중 가장 추천합니다. • 이론으로 배우는 것 보다 실제 겪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4	군사학개론	• 이 과목에 대해 추천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도서인 전쟁론을 기반으로 이론-발표(토의) 순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강의에서 부족했던 점을 동기들의 발표를 통해 이론을 보충하거나, 예시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수업방식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함.
5	북한학	•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관심없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기초지식 필요함 •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6	군사지리학	• 지리학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음. 또한, 추후에 부대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차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많이 함양 할 수 있음 •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여러 전쟁과 연관하여 전쟁에 대해서도 배우고 더 확장해 지리적 측면도 배울 수 있음. 전쟁을 배울 때 한번도 지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과목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지식 확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일단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졸업 논문을 쓸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실제 임관 후 쓸 수 있는 것들을 유일하게 배운 과목임
7	천마인재계발 및 체력단련	• 영남대학교 인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견한 재능을 교수님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좋은 전공인 것 같음. 예를 들면 자격증, 토익, 무도 같은 부분. • 대학 생활을 하며 부족하였던 체력을 천마인재 전공 시간에 체력단련을 함으로써 심신의 수련도 되어 좋은 것 같음. • 군인을 꿈꾸는 학생인 만큼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음 • 이 수업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데 있어(자격증 취득 관련 & 체력 향상)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 4년동안 천마인재계발 및 체력단련이라는 전공 과목을 들어보니 이 과목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만을 채워넣는 과목이 아닌, 심신의 수련을 다하는 과목이라 장교 후보생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 및 체력을 기르고 단련할 수 있었기에 군사학과와 가장 어울리는 과목이라고 생각함
8	전쟁사	• 학생분들도 역사에 관심이있거나 전쟁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 어렵지 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9	군사이론	• 군사학과 학생으로써 미래 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10	군사심리학	• 심리학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임관 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야전에서 필요한 병사관리는 심리학을 전공하면 편하고 야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임

32) 심리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인지심리학	• 인지에 대해 배우며 흥미가 생김
2	학습심리학	• 강의에 흥미가지기 쉽도록 진행 • 매시간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충설명을 해줬으며 수업 내용도 풍부했기 때문 • 전공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들은 과목이기 때문
3	심리평가	• 수업 내용이 알차고, 과제가 내게 도움이 됨
4	창의력과문제해결	• 21세기 인공지능 등장 이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무기는 창의력이다. 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이 재미있다. • 딱딱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직접 모둠끼리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특히 직접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5	심리학사	• 심리학사는 심리학의 기원부터 시작해 기초,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이를 수강하고 다른 전공을 이수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6	상담심리학	•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7	사회심리학	• 팀프로젝트의 협동심, 토론식 수업으로 인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짐
8	언어심리학	•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말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음
9	청소년상담	• 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실제 상담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33) 경영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마케팅원론	• 단순 경영학에서 벗어나 심리학, 사회학 등 많은 학문들과의 융합성이 돋보임. 또한 마케팅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아 좋았음 • 기존 전공개념과 더불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알찬 수업이라고 느낌.
2	광고론	• 다양한 광고 사례와 광고 이론을 배워 흥미로우며 학생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라서 추천함
3	소비자행동론	•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통한 수업으로 흥미유발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는 마케터에게 필수적인 부분으로, 시장을 세분화 하고 타켓팅하며 포지셔닝을 수행하는 마케팅 전략부터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부분을 배움.
4	국제경영학	•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틀에 박힌 이론 수업이 아닌 현재의 국제 정세 흐름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줌. 또한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학습할 수 있어서 추천함.
5	테크노매니지먼트	• 창업대회에 참가해, 수업을 통해 대외활동 경력을 쌓게 해줌. 창업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6	인터넷비즈니스	• 마케팅,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점이 좋았음. 또한 강좌에 대한 교수의 애정이 잘 드러나는 점이 좋았음
7	생산운영관리	• 수업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 회사에 취업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추천함.
8	21세기지식특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특강을 전공과목의 수업에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음.
9	국제비스니스협상	• 국제 정세, 역사적인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 협상에 대한 자세와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워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익한 강의라서 추천함.
10	hr조직시스템의 이해	•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의 역사, 실제 회사의 사례 등을 배우고 직접 팀플을 통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관점과 실제 이론 기반의 조직을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함.

34) 약학부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약학개론	• 전반적인 수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약학지식의 전반적인 개론과 앞으로 배우게될 과목을 미리 아주 살짝 엿본다는 점이 유익한것 같다. • 약대에서 배우는 과목의 전반족인 틀을 알게 해줌. • 다양한 교수님들을 마주볼 수 있는 기회이자, 향후 4년간 무슨 과목을 배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좌이기 때문이다.
2	해부학 및 의약용어	• 배경지식을 배울 수 있다. • 앞으로 수강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다. • 잘 몰랐던 인체 구조와 그 용어들에 대해 배워나가는 게 흥미롭습니다. • 인체를 폭넓게 다루는 과목으로 약학부 학생들이 인체에 관해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할 토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약물학	• 각 질병에 쓰이는 약물들에 관한 생리 기전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전공과목들을 수강할 때 더 쉽게 이해 가능
4	약물치료학 1~6	• 해당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스킬, 지식, 및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실 세계에서 능숙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돕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진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해당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약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지식, 및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약사로서의 직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약사로서의 진로 선택에 대한 미리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원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실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약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5) 식품경제외식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한식조리및실습	• 실습 수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임 • 외식업, 요식업에 진로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한식조리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수업임. 또한 과에 몇 없는 실습 수업이라는 점, 직접 실습(요리)하는 재미도 겸비해 추천하는 과목임
2	호텔경영학원론	• 수업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예시를 들어 쉽게 강의해주시고, 현장 과제 후 부족했던 부분들을 피드백을 통하여 알려주심 • 식품경제외식학과 중에서도 외식트랙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이이라고 생각함. 실제로도 이 과목에서는 호텔에 직접 현장답사를 다녀와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호텔분야에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인상깊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 호텔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호텔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배울 수 있었기에 흥미가 있었음
3	조주기능실무	• 다른 학과에는 없는 특색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외식산업트랙을 대표할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함. 우선 실습수업이라 학습 효과도 높으며, 다양한 기법을 배우면서 칵테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전공 수업에서는 흔치 않다고 생각함
4	푸드테크론	• 현재 새로 뜨고있는 산업이라 같이 배우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고 미래 방향도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음
5	외식산업컨설팅	•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인데, 전공 수업 이름 그대로 외식산업과 컨설팅에 대해 연관성을 지어 강의하심. 교수님의 말씀이 핵심만을 집어주며 학생으로 하여금 컨설팅이라는 것에 관심을 생기게 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줌. 그래서 학교를 2년 동안 다니며, 가장 유익한 수업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추천함
6	식품산업경영분석	• 과제물 중 자신이 원하는 식품 기업(거의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ppt형식으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있는데 평소 할 수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식품 대기업 회사의 현황이 어떤지 자세한 수치를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임
7	소비자행동론	• 수업 내용은 수강 과목의 특성상 자칫 지루할 수 있으나 학업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수업의 대한 참여도에 따라 성적에 반영이 되니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임
8	식품자원경제학	• 강의 내용이 좋고 전공 취지에 적합하다. •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좋다 • 강의력이 좋고 강의내용이 깔끔하다 • 수업내용이 깔끔하고 정확히 한만큼 나오는 과목이다 • 전공 취지에 적합하고 자신이 공부할 수 있어 좋다
9	마케팅원론	• 강의내용이 깔끔하고 예시를 들어 수업하셔서 이해하기 편리한 점이 많다 • 내용이 깔끔하며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좋다
10	거시경제학	• 자신이 한만큼 공부할 수 있고 내용이 좋다

36) 원예생명과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원예생명공학실험	• 이 학과를 온 이후로 제일 실용적이고, 지난 학기동안 배워왔던 이론, 기술 등을 직접 씀으로써 연구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었음 • 연구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원예생명공학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의로, 4인 1조로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원예생명과학과에 입학하였다면 이 강의는 꼭 들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함 • 전공수업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실험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식물생명공학개론	•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분야이고 중요한 분야라, 향후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에 추천함
3	식물생리학	• 이 과목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과목들이 공부하기 • 수월해지기에 추천함 • 수업내용은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지만, 교수님의 강의력이 뛰어나 그 몰입력에 이해가 잘 됨. 강의만 열심히 따라간다면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기에 추천함 • 교수님께서 열정을 다해 수업해주시고, 이 수업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기본적인 식물 생리작용의 대부분을 심도깊게 가르쳐주셔 전공공부 시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기에 추천함 • 식물을 공부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강의이고,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4	원예작물저장	• 작물 구매시 어떤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배우다보니 가장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됨. 또 내용도 흥미롭고 재미있어 추천함 • 일상생활에서 원예작물을 고를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 '원예'와 관련한 자유 주제를 하나 정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20분가량 발표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힘으로만으로도 이 정도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수업이었습니다.
5	식물조직배양실험	• 조직배양에 대한 기본지식을 복습하고, 1학기동안 조직배양의 전 과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추천함
6	화훼장식실습	•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있던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7	과수및식물보호학실험	• 식물을 어떻게 관리, 보호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학과에서 수강할 수 있는 실험과목 중 실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과목임.

37) 조경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그래픽디자인 워크숍	•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작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았음. 과제의 느낌이 아니라 개인작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음
2	조경적산학	•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이지만 다양하고 유용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다.
3	조경설계스튜디오	• 제일 힘이 들고 한학기 내내 판넬을 만들어야 하지만 완성작품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전공을 살려서 나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조경 설계 스튜디오는 사실 실습형 수업이며, 교수자의 강의보다 개인의 고민이 더욱 많이 이뤄지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작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직접 순차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4	조경디지털그래픽	• 입학한 후 처음 조경과 관련된 실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내용을 배웠기 때문이다. • 설계 시에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주는 강좌이기 때문이다.
5	조경수목의이해와 연습	• 실습 수업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끎 • 조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에 좋다.
6	cad및그래픽기초 설계	• CAD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추천한다. • 진로에 도움이 되는 CAD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7	조경관리학	• 설계 관련 포함 더 넓은 곳에 적용 가능한 전공 지식 •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심
8	동양조경사	• 동양의 역사는 배우는 경우가 많지만 동양의 조경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동양의 조경역사도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기 때문에 배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9	조경식물학 및 실습	• 실외에서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진행되는 수업으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경 설계에 있어 식물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	조경 설계 스튜디오	• 조경학과 특성상 단순 암기의 과목이 적지 않은데, 이 수업은 실습형 수업이다. • 설계 능력을 기르고, 컴퓨터 그래픽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다. • 설계를 해야하는 과목이기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많은 고민과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 직접 주어진 조건에 대해 한 학기 동안 생각하고 설계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조경학과를 대표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11	조경드로잉 및 표현기법	• 조경드로잉을 직접적으로 수업하면서 조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됬습니다. • 실습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38) 산림자원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수목학실습	• 수목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고 실습을 하면서 직접 나무를 채집하고 표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게 수종의 형태와 특징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음. • 영남대의 넓은 숲과 다양한 공간 사이에 끼어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음
2	숲과물의세계	•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지않게 수강할 수 있는 내용이며 숲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한다. • 아직 1학년이라서 전공 수업을 한가지 밖에 못 들어서 우리학과의 필수교양인 숲과물의세계를 추천함. 그 이유로 숲과 관련되서 학과 생활을 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쌓기 좋은 수업 같음. • 산림자원학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게 배울 수 있고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의와 올려주는 ppt 자료를 통해 쉽게 산림자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임 •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전공에 대해 아직은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숲과 물의 세계 수업을 통해서 전공을 시작하기 앞서 얕고 쉽게 전공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함.
3	산림자원경영학	•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수업이라 전공지식을 많이 배워가는 과목임.
4	산림측량학	• 이론과 실습 수업을 하루에 진행하며 오전에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오후 실습을 통해 바로바로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음. 조별활동으로도 협동심을 쌓을 수 있었음.
5	산림정보학개론	• QGIS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라 지루하지 않고, 앞으로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함. • QGIS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수업인데 우리학과에서는 QGIS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듣는 것이 좋음.
6	산림자원측정학	• 실제 현장과 관련된 실습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었음.
7	목재가공학	• 나무와 관련된 전문된 지식과 함께 교수님이 수업과 관련된 자신이 겪은 지식들을 알려주어 흥미로움
8	수목학	• 기본적인 수목에대한 지식 습득가능
9	연습림 종합 실습	• 연습림 종합 실습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는 수업이고, 졸업 후 자격증과 취업 후 현장에서 도움 될 만한 실습으로 유용하고 남는 게 많은 수업임.
10	산림토목학	•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며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현장기술에 대해서도 이론으로나마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39) 식품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축산식품가공학 실습	• 수업이 재밌었고 실습수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요리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어 유용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개념 및 원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 재밌었다.
2	영양학	•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심분야가 아니라도 큰 도움이 되며 공부할 때 아는 내용이 나올때도 있어 재미있다.
3	식품유기화학	• 시험 자체는 다른 전공들보다 어려운 편이긴 하나 수업방식이 확실하고 성적을 후하게 주심 • 본인이 화학에 관심이 있다면, 매우 재밌을 듯한 과목이다. • 일반화학보다 심화적인 화학적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식품공학 분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수업을 듣는 데에 더욱 흥미가 끌리고, 일반화학(교양필수)과 연관되어서 수업 난이도에서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식품공학과의 수업에 대한 틀을 다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잘하신다 • 수강하게 되는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에 추천하는 전공과목이다.
4	식품위생학	• 위생사 자격증 취득할 때 함께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5	글로벌식품이론및 개발실습	• 전공 과정에서 여러 방면의 세계 음식의 개념을 접하고 직접 만드는 실습 수업도 있기 때문 •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적절하여 충분이 이해하고 실습을 할수 있어서 좋다 • 조원들과 같이 요리하며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많아서 추천하였다. • 세계 나라들의 음식문화와 음식들을 만들고 이론으로 배우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식품화학	• 식품공학과 수업의 전반적인 기초틀을 다질 수 있다.
7	식품미생물학 실험	• 전공을 배우기시작하며 처음 듣는 실험수업이기도 하고 각종 • 실험도구들을 사용해보면서 사용법을 익힐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별로 같이 활동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전공을 배움에 있어 흥미를 가지게 해주었던 과목이었습니다 • 이론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해 보면서 더 확실히 이해하고 재미있게 알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거 보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8	식품생화학	• 식품공학과의 기본이 되는 것을 배운 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	식품공학	• 식품공학도로서 당연히 들어야합니다.

40) 생명공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생물정보학	• 생물정보학은 최근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이며, 해당 수업 교수님께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업 부분은 다시 영상 강의로 올려주시며 수업 내용의 양이 과도하게 많지 않고 적당한 편이다. 소수로 이루어지는 과목 특성상 실습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인기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물학적 Tool의 활용을 배움으로써 미래에 사용가치가 높고 효율적이다.
2	미생물분자유전학	•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진행하는 전공과목에서 많은 내용을 미리 배우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재밌는 수업, 뜻깊은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전공내용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생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과목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말 그대로 미생물 유전에 대해 배울 수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미생물 따로 유전학 따로 알려주시다가 미생물 유전학에 대해 설명해주시다보니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3	세포생물학	•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나 따로 피피티를 정리해 주셔서 올려주시니깐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하다.
4	식물학	• 생명공학의 기초이며 공부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다.
5	생명공학및생화학 이론과실험	• 전공 수업에 대해서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고 수업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 1학년들에게 실험 수업은 정말 좋은 기회인거 같습니다. 교수님도 어렵지 않은 실험들로 저희에게 많은것을 가르쳐 주셔서 좋은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 실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 설명 시간이 항상 있고 넉넉한 수업 시간 동안 실험의 전반적인 과정에 전부 참여할 수 있음. 직접 실험의 전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실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짐.
6	유기화학	•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진행하여 이해가 높다. • 유기용매에 대해서 공부 가능
7	생화학	•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진행하여 이해가 높다.
8	유전공학	• 유전공학 기술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음. 또한 DNA Cloning에 대해 실무적인 실습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 수업을 들을 때는 양도 방대하고,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얻어가는 지식은 많았다.
9	생명공학입문(2)	•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함. 또한, 생명공학과에 다니면서 생명공학 및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수업을 추천한다. • 교수님이 열정이 넘치시고 영상으로 이해도 시켜주시면서 잘 가르쳐주셔서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들은 수업이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아직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수업도 잘 해주시고 다양한 특강을 여는 것에서 학생들을 위함이 느껴져 추천한다.
10	인간유전체학	• 인간 유전체학을 수강함으로써 생명공학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구들의 작동 방식과 개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11	기초생명공학이론 및실험	• 교수님께서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설명해주신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신다. • 보통 실험만 하는 실험 과목이 아니라, 이론도 학습할 수 있어서 추천한다,
12	생명공학과pc활용	• 단순 강의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13	화장품생명공학	• 생명공학과의 진로로 대부분 바이오, 제약을 생각할텐데 화장품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화장품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강의 중에는 학과에서 유일하다고 생각.

41) 주거환경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주거공간디자인	• 이 수업에서 제도를 배우면서 제도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추천함. • 처음으로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직접 단독주택을 설계하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추천함. • 한 학기에 걸쳐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나만의 주거 공간을 계획해볼 수 있었고, 주거환경학과라는 전공에 맞게 제도법이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추천함. • 차근차근 자세히 가르쳐주셔서 더욱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교수님이 수업에 대한 열정이 높으셔서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기에 추천함,
2	기초설계및조형	• 도면 그리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며, 본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직접 모형까지 만드는 수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환경학과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하여 추천함.
3	공간과CAD	• 제조업이나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캐드는 필수인데 캐드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때 유용하고, 캐드를 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기에 추천함. • 실제 공모전을 나갔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기에 추천함. •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과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내주셔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기에 추천함. • 전공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CAD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수업을 통해 기초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추천함.
4	실내디자인사	• 다양한 시대의 유명한 건축가와 그가 증명한 다양한 원칙과 건축물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팀플을 통해 건축가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팀플 과제가 매우 인상 깊었고 기억에 오래 남았기에 추천함.
5	공간과미디어	• 포토샵, 스케치업과 같이 혼자서 학습하고 습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학교에서 사용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기에 추천함. • 실무와 연관되는 프로그램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음.
6	주택유지기술	•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들었던 전공과목 중에 실질적으로 배운 점이 가장 많았음, 제일 전공다웠던 과목이라 생각하기에 추천함. • 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음. • 전공지식을 많이 얻은 수업이라 추천함.
7	주거환경학	• 이론,실습 수업이었는데 매주 있는 실습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배운게 가장 많은 수업. 현대인과 생활환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에 비해 남는게 많고 실습으로 더 기억남는 과목이기에 추천함.
8	현대인과 생활환경	• 수업 관련된 다양한 영상자료 및 사례들로 수업을 진행해 전공의 기초를 쌓는 과정에 이 수업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추천함.
9	공간과 그래픽	• 주거환경학과에 매우 다양한 실습수업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있는 수업이라 느껴졌기에 추천함.

No.	과목명	추천이유
10	창의디자인 스튜디오	• 졸업전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수업으로 매우 유익했기에 추천함.
11	특수계층과 이해	•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었기에 추천함.
12	한국주거의 이해	• 과거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거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기에 유익함.

42) 식품영양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임상영양학 (2인추천)	•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잘 맞았음. •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내용이 담긴 전공과목이었으며, 교수님께서 선호하시는 수업방식에 큰 만족을 하였음. 또한,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주시는 사담이 유익하여 실제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됨.
2	식품화학	• 식품영양학과의 학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의 밑바탕이 되는 식품화학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방향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봄.
3	고급영양학	• 고급영양학 수업은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쉽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수업 끝나기 약 5분 정도를 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4	급식경영학	• 전공과목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	영양교육및상담	• 영양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영양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제작 시에 필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음.
6	생화학	• 전공답게 많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여 모르는 것을 알아냈을 때의 성취감이 크기 때문임.
7	기초영양학 (3인 추천)	• 내용이 많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수업을 잘해주심. 심지어 생화학 등 다른 전공과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수업임. • 몸에서 일어나는 영양 성분의 변화도 배우고 식품에 대해서도 배워서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기 좋은 과목이다. • 전공으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목 중의 하나로 영양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루어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성분을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교수님께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에 대해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셔서 더욱 집중하고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음.
8	인체생리학 (6인 추천)	•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강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심. 학년이 올라가면 중요할 것들도 미리 간단히 강조해주셔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됨. 학생들과 부담스럽지 않은 소통을 자주 해주셔서 매우 좋았음. • 들은 전공이 인체생리학뿐이지만 인체생리학 교수님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강조한 부분 다른 전공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미리 알려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천함. • 일단 김나형 교수님의 강의력이 매우 뛰어나심. 처음 듣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상적인 내용들의 질문들도 매우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알게 되었던 강의임.

No.	과목명	추천이유
		• 후에 배울 영양 관련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의 강의로,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과목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함. • 들은 전공이 하나밖에 없지만, 쉬운 것만 쏙쏙 골라 가르쳐주셔서 앞으로의 전공수업 또한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게끔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된 강의였음. • 아직 들어본 전공수업이 인체생리학밖에 없지만, 교수님도 열정적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쉽게 잘 설명해주심.
9	조리원리실습	•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계란 하나 직접 삶아보지 못했으면서 현장에서 영양사로 조리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짐. 조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였던 것 같아 아주 좋았음.
10	급식경영학	• 급식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실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셔서 급식의 체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음.
11	식사요법	•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으로 식생활과 밀접한 질병 특성 맞춤 영양 관리 방법 등의 수업 구성뿐만 아니라 수강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well-being) 개선 방법을 제시해주는 등 교수님의 학부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음. 또한, 수업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해주심.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공수업임.
12	식사요법실습	• 실습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우기 때문임. 또한 꼼꼼함과 섬세함,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시는 좋은 교수님과 함께 하는 실습수업이라 더욱 좋은 듯함.

43) 의류패션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디지털서피스 디자인	• 디자인의 가장 기초적인 일러스트를 교수님께서 차근 차근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좋았고, 기말 작품을 공모전을 목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공모전이나 디자인 프로그램을 잘 몰랐던 1학년 때 수강하기 적절했다. • 교수님이 일러스트를 잘 가르쳐 주신다
2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및실습	• 팀플 활동이며 시간도 공도 많이 드는 과목이다. 하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며, 개인적으로 이 과목을 들으며 스스로의 발전을 많이 느낀 것 같다.
3	텍스타일디자인 캐드	•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될 것 같음.
4	어패럴 CAD	• 여태 들었던 전공과목, 특히 실습 수업 중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남는 게 많았던 수업이기 때문이다. •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입니다. 요즘같이 취직하기 힘든 시기에 3d를 배우고 진로를 3d 쪽으로 전향하거나 프로그램 사용가능자가 될수있는 수업이라서 매우 유익했고 다들 그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워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였는데, 교수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공모전, 취업설명회 등 많은 것을 서포트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전공이여서 추천합니다
5	테크니컬디자이너 실무매니지먼트	• 의류패션학과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이론과 실습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패턴을 익히고 이를 직접 그리고 재봉틀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6	의류패션캡스톤 디자인	• 올해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신만의 패턴과 도식화를 디자인해볼 수 있고, 기업과 연계해 직접 DTP를 출력해 확인해 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최종 리소스북도 제작해 의미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7	입체패턴설계이론 및실습, 패션디자인기획및 실습	• 의류학과하면 딱 상상하게 되는 그런 수업. 패턴 뜨고 마네킹에 옷 입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제하고 미싱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강의다운 강의였다.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수업.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되는지 틀을 잡게 되서 정말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한다.
8	패션머천다이징및 실습	• 사실 학생들이 바라는 점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과제 많음, 내용 어려움, 조별과제, 성적 잘 받기 어려움)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과 학생들이 2학년 때 이 수업을 제대로 수강함으로써 앞으로 졸업까지의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배움이 가장 컸던 과목이었습니다. • 교수님이 학생참여형수업에 적극적이시고 학생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십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9	패션일러스트및 실습/테크니컬디자이너실무 매니지먼트	• 손으로 그리는 인물, 의상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자주 쓰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 / 이 수업을 통해 재봉틀을 처음 사용해보는 학생이 꽤 많으며 의류를 제작하는 실습수업 외에도 실무에서 다루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10	의류패션캡스톤디자인	• 기업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수업이라 굉장히 의미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능력도 훨씬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1	텍스타일 액세서리디자인	• 액세서리 디자인을 하며 우리학과를 졸업해서 옷이 아닌 다른쪽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브랜드 제작과정부터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며 로고디자인 등등 여러가지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서 좋았다. • 깔끔한 교수님의 수업 방식과 전공지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복식디자인론	• 디자인과 관련된 기본 이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다.
13	입체패턴설계이론및실습	• 옷에 대한 기본 구조와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레이핑 실습을 통해서도 전공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었다.
14	패션소비자심리	• 소비자 심리에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을 배울 수 있고수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가볍게 들을 수 있음
15	패션일러스트 및 실습	• 벼락치기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패션 일러스트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4) 체육학부(체육학)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농구	• 농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교수님이 잘 형성하시고 지도해주셨음. 운동할 때 숨은 디테일들을 쉽게 잘 알려주심.
2	트레이닝원리와 방법	• 비교적 저학년인 학부 2학년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단편적으로 트레이닝론에 접근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3	체육측정평가	• 체육측정평가는 체육지도자로써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을 갖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갖추도록 해준다.
4	골프	• 골프는 고비용의 낮은 접근성을 가진 스포츠이나 전공강의를 통해 이를 지도함으로써, 체육학부생이 다면적이고 고차원적인 스포츠 지도 역량을 갖추도록 해준다.
5	스포츠경영학	• 경영과 경제에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 이 수업을 수강하고 나서 경영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반 스포츠경영, 경영뿐만 배우는게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등을 배우고 있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	체육논리및논술	• 체육학 전공자들이 사회학, 철학, 심리학 등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 체육과 관련지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목을 통해 체육 현장에서 논리학을 적용하여 사고력을 키우고 글은 물론 말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목이라고 생각함.
7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8	씨름(2인 추천)	• 다른 수업의 교수님보다 자기 과목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다. 그만큼 전공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학생들이 즐기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진도도 적당하고, 한 사람씩 지도를 해주시고 학생에게 집중하는 것이 느껴져서 좋았다.
9	운동과건강	• 일상생활에서 몰랐던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양소들과 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10	체육원리	• 이전까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잘 알아볼 수 없었던 체육,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체육이 다른 학문에 비해 학문적인 정의, 정립이 잘 되지 않고,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스포츠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추천한다.

45) 체육학부(무용학)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전공실기	• 자유로운 춤을 출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 • 교수님의 독특한 티칭법과 자유로운 수업 • 최근 취미 발레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학교에서 돈 안들이고 배우면 좋을 것 같다. • 다양한 워밍업과 동작들을 배울 수 있다.
2	문화예술교육개론	• 전공인 무용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흐름, 교육 법 등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발레테크닉	• 발레 작품을 해보면서 전공자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던 안무를 해볼 수 있었다 • 일상생활에서 하는 화장과 무대에 오를 때 하는 화장이 차이가 있다. 무대 화장은 진해야 하고 선명해야 한다. 그런 화장법의 기초부터 춤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화장법까지 상세히 다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4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 무용전공자로서 필요한 과목이고 흥미로웠다.
5	창의적방법을통한 무용교수법	• 과목명처럼 정말 창의적인 수업이었다. 놀이 형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수업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춤을 춰야하는지를 자세히 느끼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7	현대테크닉	• 교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친절한 설명과 많은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전공을 인정해주시는게 너무 좋았다
8	체육원리	• 전공에 대해서 가장 깊게 배울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9	무용교수학습방법	• 수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재즈	• 분장법은 일상생활이나 공연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서 유용했다. 기초실기워크숍은 우리가 직접 생각해보고 만들어가고 생각을 바꿔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 체력적인 것과 기술적인 실력도 늘릴 수 있고 수업내용도 즐거워서 추천한다.
11	무용분장법	• 몸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홀튼 테크닉의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몸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 아무래도 전공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공연이나 무대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12	현대무용테크닉 심화(1)	• 기존 현대무용과 발레와 다른 장르를 배울수 있어서 재밌었다.
13	기초실기워크숍	• 다양한 방식의 시험주제와 창작을 통한 개개인의 발전을 도울 수 있어서

46) 교육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교수학습이론	• 수업 시연을 직접 해봄으로써 이론적으로 학습했던 내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 실제 교직현장에서 사용되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 직접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시연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직접 수업 시연 영상을 제작하면서 전공 지식, 전문적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교육사회학	•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3	교육심리	•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좋다. 강의 후 토론, 질문 등의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아마 학생들 중에는 결혼을 해서 양육을 할 학생들이 있을텐데 교육심리를 수강하면 나중의 자식 교육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4	교육학원론	•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많이 알려주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업의 과정에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이나 발표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함으로서 확립할 수 있기에 매우 좋은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교육에 무지했던 내가 이 수업을 통해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고, 단순한 이론수업뿐만이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 내 생각을 확립할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 교육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첫 경험으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함
5	교육과정	• 우리가 학생 때부터 왜 이런 교육을 받는지,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우리가 교직에 있으면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텐데 그런 교육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으로,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좋은 수업이라 생각한다
6	교육평가	• 어렵고 방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 근거들이 평가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다. • 교육학과 전공수업으로, 임용고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자들을 접할 수 있고, 직접 수업을 실연해보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봄으로서, 선험적으로 교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7	윤리사상과 교육적 인간 이해	• 책을(장자,니체) 읽으며 자신의 사고를 정리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메타인지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학생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한다. • 매시간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와 조별로 토론 활동을 거치고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 내용 자체도 삶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조원들과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고

No.	과목명	추천이유
		발표하며 발표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시험 범위 또한 책 내용의 단순 암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라서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었다. • 매시간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타인과의 의견 교환 과정이 즐겁고 자신의 신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타 과목과 차별성을 띤다고 생각합니다.
8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이라는 분야를 처음 알게 되었고, 현재 교육 분야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됨 •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며,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함
9	데이터 사이언스와 교육	• 단순히 '교육'이라는 전공지식 외에 현시대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47) 국어교육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국어학개론	•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주신다 • 2학년이 되기 전에 문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좋고,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틀에서 전공자가 되어 배우는 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배울 수 있다.
2	국어교육론	• 국어교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교과서 분석 및 수업시연을 경험할 수 있다.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시연이나 수업지도안 작성, 교과서 분석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위의 3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배워볼 수 있는 과목이고 실제 해보는 강의라서 내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3	국어사	• 교수님이 설명을 이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지식을 수업해주십니다. •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중세국어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없어져서 차후의 임용고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4	국어음운론	• 문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법을 공부할 때 유리한 사고 과정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 • 국어문법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음
5	한국고전문학강독	• 막연하게 어렵고 동떨어진 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고전 작품들을 인간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의 작품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쟁점들에 따른 견해들을 이해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6	한국현대문학사	• 평가 기준 중에 소설을 읽고 시험을 치는 것이 있는데, 평소 책을 읽어야 하지만 잘 읽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7	국문학개론	•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서, 학습의 흥미 유발과 내용 탐색이 가능하므로 1학년 전공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추천함.
8	언어와국어의이해	• 국어와 문법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사고의 확장이 다른 전공과목 수업을 들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9	학교문법강의(4)	• 전 범위 문법 관련으로 임용식 수업이 되고, 사고의 확장을 시켜주는 수업이다. 그래서 임용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팀플 수업을 하면서 조원들과 생각 교류를 통해 나의 잘못된 지식을 고치는 등 좋은 수업이다. • 교수자의 열의가 높고, 교수-학생의 소통이 원활하다. • 해당 과목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임용고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어교육과 특성상 과목의 성향이 문학과 문법으로 나뉘는데 문학의 경우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복습이 되지만 학교문법강의의 경우 문법 수업의 마무리단계에 가깝기에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이후 수업에서 문법 체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0	국어사자료강독	• 국어사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중세 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국어사 자료를 해석하면서 중세 국어에 대한 흥미를 길러 2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국어사 과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매체언어교육론	• 책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뉴 미디어인 광고와 뉴스를 분석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재밌게 다가왔다. 또 발표식 수업이라 흥미가 계속 동했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지식까지 놓치지 않고 잘 전달받은 수업이라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 나는 영화와 같은 매체자료를 교과서가 정해놓은 방침대로 상징적 의미를 암기할 뿐 자의적으로 해석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 특히 영상 매체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발전한 기술공학을 다루게 될 예비 교사로서 우리는 책을 해석하는 방법과 영상 매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2	문법교육연습	• 학과 성격에 맞게 임용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담이라는 형식은 학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3	교직실무	•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직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학사 업무 등의 교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다.

48) 영어교육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영어말하기	• 영어를 많이 뱉음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어 회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음
2	영문독해	• 평소에 혼자 독해할 때와 다르게 교수님께서 어떤 용어가 실제로 쓰이는지, 독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 지에 대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심 •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영문독해할 때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혼자서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됨 • 영문독해를 할 때 적용하는 절차나 방법들을 상세히 알 수 있음 • 단어에 대한 부분은 강의도 따로 촬영해 주셔서 단어 암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됨
3	영문법지도	• 수업 진행 중 중간중간 질문하는 시간도 가져 공부하다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궁금증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중간중간 퀴즈를 진행해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헷갈리던 문법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가 됨 • 교수님께서 각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 • 퀴즈가 있어 시험 전 자신의 지식을 몇 번씩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점을 좀 더 보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음 • 세밀한 공부 가능 • 해당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영문독해 등 여러 영어 공부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 • 영문법에 대한 전체 개념 정리를 하기에 충분하였음 • 대학 진학 전 배웠던 영문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음 •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문법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개념들의 중요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됨

49) 한문교육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한문학개론	• 한문이 생소한 1학년에게 필요한 수업이었으며 한문 공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2	한문문법	• 한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이다. • 한문을 해석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 • 한문을 독해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법을 배움으로써 나의 독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	문자학개론	• 한문을 시작하는 사람이거나 한문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기초를 제대로 다지기위해 들어야한다 생각함. • 한자의 어원에 대한 내용이라 우리 과라면 꼭 들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4	생활한자	• 한문교육과에 들어와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하며 생활 속에서 쓰이는 한자와 그 유래 그에 얽힌 고전 이야기들을 배워 흥미가 생김 • 생활 속에서 쓰이는 한자와 그 유래 그에 얽힌 고전 이야기들을 배워서 흥미로웠다.
5	한문소설선독	• 한문 소설에 대해서 번역뿐만 아니라 문법도 알 수 있었고 동기들끼리 토론을 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논어강독	• 논어라는 고서를 통해 선현들의 지혜와 그들의 사유체계를 비롯한 올곧은 정신을 과목에서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용을 위한 사람이라면 필수로 봐야하기 때문임
7	한시선독	• 한시란 무엇이며 한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음
8	선현들의글과삶	• 이 수업을 통해 여러 서예 필법을 학습하고 연습해볼 수 있기에 한문교육과 졸업요건 중 하나인 '서예 전시회 (후소연묵전) 작품 2회 제출'에 큰 도움이 된다. 쉽고 짧은 내용의 여러 글을 배우기 때문에 기초적인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9	맹자강독	• 임용을 위한 사람이라면 필수로 봐야하기 때문임 • 3학년에 올라와서 맹자 암송 시험과 쓰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미리 한번 접해보고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	한문소설론	•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그저 과제가 아닌 놀이로 즐기며 하시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놀이로 생각하며 틀려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차츰 문장을 보는 힘이 생겨났고 한문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전공이었기 때문입니다.
11	이야기고사성어	•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사성어도 배우고 고사성어의 유래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다. • 이야기를 통해 고사성어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한문국역연습	• 전공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원들과 협력하여 수업하는 방식이라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수업했던 본문의 내용이 흥미로운 이야기라 집중해서 잘 수강했던 것 같다.
13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 수업시연을 하면서 예비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를 수 있기에 추천한다.

50) 유아교육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놀이지도	•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놀이에 대해 배우는 것이고, 학생이 직접 놀아보는 것이 과제라는 점이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게 만듦 • 교수님의 강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도 있고 학생들 간의 간단한 토론 활동, 강의 주제에 따른 놀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전공 개념에 대한 다양한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나의 관점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됨 • 놀이에 대하여 심화하여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놀이를 해보며 놀이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임
2	유아교육론	• 수업시간 중 재밌는 활동을 한 적이 많았고, 교수님도 수업을 재밌게 진행함 •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인 만큼 4년 동안 학습할 전공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수업이며, 교수님께서 개념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의 예시를 자주 들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 유아교육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전공 과목임 교수님이 바뀌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계절에 맞춰 산책도 하고 현장 견학도 몇 차례 갈 수 있어서 좋았음 개론이라는 이름처럼 유아교육과에 와서 흥미를 돋우기에 좋은 과목 • 유아교육과에 처음 입학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유아교육개론을 배우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기 때문 •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중에 가장 기본을 배울수있는 과목이라 생각해서 추천한다.
3	유아교육사조	• 1학기 전공필수과목 유아교육론, 2학기 전공필수과목 영유아발달을 수월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학습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을 집중적으로 학습 가능함 무엇보다 담당 교수가 학생들을 고려하며 수업을 진행하여 전공과목이라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수강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교수님이 너무 좋았고 수업시간 수업은 집중이 잘 되게 적절한 정도의 질문을 하시고 저희의 이해도를 중간중간 체크하시며 내용을 이해하도록 많이 도와주심. 과제도 난해하지 않지만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과제들이었음. 과목 내용도 유아교육 관련 학자들을 폭 넓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1학기 때 들은 과목인데 2학기 수업까지도 도움이 많이 됨.
4	영유아발달	• 유아교육과라는 학과에 다니면서 앞으로 만날 다양한 아이들의 행동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그 발달에 알맞은 교육방식과 어떠한 점에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음 •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관 설정에 좋은 과목이였음.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그 이유를 알게 되니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생겨 영유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발달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었음. • 다른 모든 전공과목들의 뼈대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함. 이 과목을 배우고

No.	과목명	추천이유
		나면 다른 과목들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 이 수업을 들을 때 필기한 공책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두면 두고두고 꺼내어 찾아볼만큼 도움이 됨. • 유아의 발달 수준에 관련해 알 수 있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5	놀이지도	• 직접 놀이를 해보면서 유아들의 놀이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고, 이론 수업에서도 놀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임
6	아동문학	•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과 문학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음 또한 수업 중간 중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내용이 흥미롭고 뜻 깊음 •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할 때 수업관련 그림책을 읽어주시거나 함께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매일 수업을 기대했던 기억이 있음. 유아교육과 특성상 그림책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강의가 매우 도움이 되었음
7	아동미술	• 단순히 이론 수업을 할뿐만 아니라 실습과 병행하는 게 인상 깊었음. 주제에 맞는 만들기를 조별로 직접 해보고, 마지막에 전시회를 하는 활동이 알찬 활동이라 생각함. 특히나 직접 유아를 데리고 와 우리의 작품을 가지고 소통해보는 게 마음에 들었음.
8	유아음악교육	• 유아 음악 교수업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하고 연구해보는 과목입니다. 피아노를 배운적도 없고 음악에 큰 소질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직접 음악극도 해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유아음악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날이 기대됩니다

51) 수학교육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동적기하와기하학 교수학습론	• 다른 전공들과 달리 재밌었다.
2	복소해석학	• 설명이 깔끔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3	선형대수학	• 다른 전공과목보다 접근하기가 쉽고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다. 행렬을 계산하고, 더 나아가 벡터공간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선형대수학이 사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전공과목을 추천하고 싶다. • 선형대수학 과목이 다른 전공과목보다 이해하기 쉬웠고 교수님의 열정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 실제로 앞으로의 배울과목에 많은 도움이 된다. • 교수님이 임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수업만 성실하게 따라간다면 임용에서 선형대수 관련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과목이다.
4	실해석학입문	• 교수님이 쉽게 가르쳐주시고 유익하다. •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과목이다. • 모호하던 수학의 내용들을 좀 더 엄밀하게 다루어주고, 증명과정에 대해 실해석학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수학을 전공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
5	현대대수학	• 전공지식을 쌓는것에 도움되고 교수님의 안성맞춤 수업이 제대로된 지식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졌다. • 교수님의 열의가 느껴진다. • 임용에 필수적인 과목이고,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6	해석학특강	• 얼마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성적으로 반영되어서 좋았다. 문제풀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도 좋았다.
7	의사소통기술	• 교수님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으며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
8	인공지능수학	• 작년 첫 개설된 과목이고 요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고 수학 수업에 계산기를 쓴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이다.
9	인공지능의이해	• 현재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수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IT매체를 통한 여러가지 과제와 수업을 통해 네트워크 시대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해준다.
10	정수론	•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 스타일과 많이 달라서 재밌었다.
11	집합론	• 추후 다른 전공을 위해서 필수로 배워야 할 과목이다. • 고등학교 수학에서 벗어난 대학 수학 과정의 필수 입문과목이므로 추천한다.

52) 특수체육교육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장애아운동발달	• 농구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다.
2	체조지도법	• 체조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었을 때 체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실무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많이 익히게 됨
3	운동생리학	•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의 심화된 과정과 그걸 운동과 엮어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 교수님의 강의력이 매우 좋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깊게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 • 내용이 어렵지만 재미있고 우리 몸의 기전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다
4	장애학생통합교육(2)	• 직접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과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장애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5	스포츠사회학	•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스포츠 이슈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과목이었습니다. • 항상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며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또한 어려운 개념과 문제에 대해서도 예시와 방법 등을 함께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해주시며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십니다.
6	장애진단및평가	• 관심 없는 분야였는데 기말 평가까지 치른 후에도 유익했다고 생각했고 만족했던 수업이었습니다
7	건강장애학생교육	• 다양한 장애 종류와 유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8	운동과건강	• 특수체육을 배우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몸의 성질, 특징 혹은 신체부위의 이름, 질환 또는 질병의 증상 등 광범위하게 기초지식을 다룬다.
9	특수교육교육과정(재활)	• 현재의 역학적인 흐름을 잘 배울 수 있다
10	지적장애학생교육	• 임용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진짜 최고
11	운동역학	• 강의력이 정말 좋다 이해할 때 까지 설명은 물론 운동 자세와 몸의 근육에 대해 배워 살아가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신다
12	장애유형별 운동처방	• 실제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	특수체육현장교육	• 임용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수업내용 • 이론수업보다 직접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 실습 경험이 많다.
14	장애학생수중훈련	• 수영 수업이라 재밌고 교수님이 좋으셨음

53) 회화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회화스튜디오	• 교수님과의 일대일 개별 면담을 하며 보다 심층적으로 자신의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개개인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상징적인 것들을 바깥세계로 투사하여 형상화 또는 객관화 시킬 수 있었고 전공의전문성 또한 키울 수 있었음.
2	판화기법	• 일반적으로 회화라 함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바르는 것을 쉽게 떠올리는데 익숙한 방식이 아닌 틀을 만들어서 작품을 찍어낸다는 점에서 또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매력있게 다가옴. 사전에 제작해놓은 틀을 사용해 색상이나 도구만 바꾸어 매번 다른 느낌의 작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음. 교수님께서 판화를 처음 배우더라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작품을 찍어내는 것을 직접 시연해 주셔서 수업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음. 판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접하기 쉬운 기법의 과정으로 수업을 구성해 주셔서 수업이 알차고 지루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었음. 판화를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고 다양한 판화 기법들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판화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었음. 단시간 내에 많은 판화기법을 빨리 습득할 수 있어서 좋음.
3	회화모사	• 대부분 학생들은 서양화를 전공해 입시 시험을 치르고 영남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전통적인 동양화 수업을 정밀하게 배울 수 있음. 실제로 회화모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과제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업 시간 내에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이지만 큰 부담감 없이 편하게 배울 수 있었음. 교수님께서 열정이 많으셔서 학생들이 배워가는게 많을 것 같음. 회화모사의 경우 실제 조선시대에 쓰였던 안료로 작업을 해볼 수 있어서 새롭고 좋은 기회라 생각함.
4	기초2D그래픽	•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 동시대 미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현대 미술에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의 습득을 가능하게 함.
5	현대회화재료기법	• 현대회화를 임하는 태도와 방식 등을 편견없이 자유롭게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추천하는 과목임. • 수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교수님이 추구하는 그림의 미학적인 부분이 잘 맞고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음. 다양한 재료와 방식의 연구 기회와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됨.
6	기초실기	• 1학년 필수과목이라 입학 이후 본인 작업의 기틀을 닦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과목임. 수업 내용이 유익하고 담당 교수는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7	문인화	• 본인의 주전공이 아니라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항상 밝은 격려와 피드백을 주셔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배울 수 있었음.

No.	과목명	추천이유
8	유화기법	• 1학년 때부터 유화를 다루기는 하지만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기가 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 세계관을 구축해가기 좋은 과목임.
9	전통회화재료기법	• 교수님이 개개인의 학생 의견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시고 적절한 방법과 방향을 잘 찾아주시며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통해 각자의 작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심. 작업과 과제물에 있어서 좁고 막히지 않은 자유로운 생각의 폭으로 학생의 관점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좋은 의견 및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며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자유성과 학생들의 생각에 귀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교수님께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함.
10	드로잉수업	• 회화과는 크기가 큰 작업을 위주로 작품을 다작하기 때문에 작업 들어가기 전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됨. 드로잉은 이를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드로잉 관련 수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남들이 평소에 평범하게 느끼는 것들을 좀 더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음.
11	현대미술의이해	• 전반적인 미술사와 작품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심.
12	드로잉연구	• 교수님이 개개인의 작품에 맞는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시고 각자의 속도와 작업물에 맞춰 과제물 또한 학생별로 다르게 내주심.
13	평면조형	•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업이다보니 더욱 흥미롭고 여러 재료와 주제들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그 외의 미술에 관한 질문사항이 생기면 즉각적인 면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작품을 제작할 때 꼭 필요한 유화 사용법에 대해, 혹은 자신이 그려내고 싶은 작품 스타일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의아한 순간이 생길 때가 많음. 이럴 때마다 해당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14	동양미술사	• 동양미술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수업 내용이 더욱 알차고 유익함. 불교미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동양미술 혹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추천해주고 싶음.
15	미디어와 설치미술	• 회화과라는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전공 내에서 여러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과목임. 설치미술뿐만 아니라 디지털관련 영상, 대지미술 등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음. 이에 동시대의 현대미술에 대해, 그리고 미술이란 어떤 것인지를 본질적으로 생각해보게 만드는, 스스로 사유하게 하는 과목임.

54) 트랜스아트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기초사진	• 교수님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심. 매 수업 시간마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음. •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됨. • 카메라와 사진의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한 방법을 토대로 원하는 피사체와 풍경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임.
2	메타버스와디지털공간을위한컴퓨터아트	• 점점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직접 접해보고 경험해보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 현재 메타버스나 AI, 가상공간 등등 발전된 현 사회가 된 시점에 배워놓고 나중에 언젠가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듦. 본인은 메타버스 과목을 들은 후 과학기술을 잘 알게 되었고 더 깊이 들어가 과학기술이 들어간 프로그램도 배우고 싶어지기도 하였음.
3	트랜스아트론1,2	• 철학적 접근을 통하여 예술과 미술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음,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좋았음. •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음.
4	시간조형예술론	• 전공 실기수업만 듣다가 이론 수업을 들어서 작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됨.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좋았음. •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음.
5	공간조형예술론	•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좋았음.
6	평면조형	•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7	입체조형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입체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음.
8	인스톨레이션아트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입체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음.
9	디지털컨텐츠제작	• 요즘 시대에 갈수록 진화하는 VR,AR등 가상현실이 상용화될 수 있는 시대에 평면적인 작품만이 아닌 입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상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꽤 진취적이라고 생각함. 이때 아니면 3D를 배울 기회가 흔치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임.
10	금속미술품의재료와기법	•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용접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됨. •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용접이란 기술을 배워볼 수 있어 좋음. 이 수업을 들은 후에는 철을 이용해 간단한 구조물 정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게 됨. • 어려울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음.
11	미술보존복원의이해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업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수업 내용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음.

No.	과목명	추천이유
12	인터렉티브아트	• 가상의 공간을 컴퓨터를 통해 직접 만들어보며 점점 발전되고 있는 기술을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13	테라코타	• 입체 조형물을 흙으로 직접 만들고 구워보며 완성된 작품을 보면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음.
14	기초2D그래픽	• 요즘 직업군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15	메타버스와디지털 공간을위한 컴퓨터아트	• 현실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가상세계를 직접 만들어 vr을 통해 자신이 만든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추천한다

55) 시각디자인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UXUI디자인	• 매주 과제를 디벨롭해야하고 교수님의 학생에 대한 기준치도 높지만 꼼꼼하고 예리한 피드백으로 디자인 스킬이 올라간 것을 경험할 수 있음
2	UX디자인 프로세스	• 디지털 시대에서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UX 디자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용자 중심적 디자인 원칙을 통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디자인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UXUI 분야에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쉬운 과목이다.
3	브랜드디자인	• 수업이 자유도가 높지만 그에 반해 얻는 지식도 많아서 심적인 부담감이 덜한 수업
4	서비스디자인	• 체계적 수업 계획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무 또는 디자인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학생의 생각을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 교수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나의 생각이 중요 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가 잘 되었고 교수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수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어서 추천 합니다.
6	융합캡스톤디자인	• 학교와 각 도시들과 협력하여 그 도시들을 홍보. 발전시킬 수 있는 • 프로그램, 서비스를 직접 기획할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 3d 프로그램 중 ‘cinema 4d’를 배워 다소 한정 되어있는 2d프로그램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디자인리서치	•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며 진행하는 수업의 방식이 좋았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 발표 시 학생들이 서로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게 한 점이 도움이 되었음. • 리서치에 대한 디자인적 분석과 그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알려주신다. 수업 도중에 각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셔서 리서치를 하는 과정이 쉽고 어려움이 없었다
9	디자인이슈	• 사회적 이슈나 문제될만한 주제와 연관된 책을 읽고 디자인 분야와 연계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생각들을 주고 받는 것이 좋았다.
10	UX/UI디자인 워크숍	• 프로세스에 대해 매주 이론수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배워가는 보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11	타이포그래피	• 교수님께서 실무에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단순히 일대일 피드백 방식이 아니라, 여러 작업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 타이포그래피는 시각디자인과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타이포그래피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학년 시기에 디자인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교수님께서 매 시간마다 유명 디자이너들을 소개해주시고 다양한 디자인 책들을 들고와주신다. 피드백이 명확하고 도움이 된다.
12	북디자인	• 점점 사라져 가는 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부터 시작하여 디자인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13	디자인콘테스트 워크숍	• 공모전을 선정하여 참가하는 과목인데, 공모전 참여를 해 본 사람에게는 피드백이 되는 수업이고 참여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여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4	그래픽디자인 워크숍	• 그래픽디자인을 도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배우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56) 음악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전통음악의이해	• 교수님이 착하시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며 기본적으로 전공생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2	전공세미나	• 교수님이 매우 열정적이시고 친절하고 수업방식이 재미있다. 또한 공연을 할 기회가있어서 좋다.
3	연주수업	• 연주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려주시고 연주 태도에대한 피드백이 확실하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또한 학기당 1회 연주하고 나머지는 감상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다. 작곡전공의 경우 본인 곡을 발표하기 위해 여러 경험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수업이다. 음악대학 학부생들과 서로 알게되어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이 몰랐던 연주 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무대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패스과목이어서 좋다. 그리고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4	서양음악의이해	• 국악전공의 경우 서양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이 많은데 이 과목을 통해서 유익하게 서양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높아진다.
5	전통음악의이해	• 국악전공이어도 본인의 전공에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1학년 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국악 이론에 대해 많이 알게되었다.(삼분손익법 등)
6	전공실기	• 교수님이 유쾌하고 칭찬을 자주 해주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더 타오른다. 고쳐야 할 부분을 잘 짚어주신다. 악기에서 더 좋은 소리를 내기위한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자신감을 올려주신다.
7	세계음악과춤	• 아시아 문화권 등 다양한 문화의 음악과 춤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음악을 해야하는지 도움이 되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 발표수업을 통해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다. 교수님도 열정적이다. 한국 음악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음악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8	시창청음	•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가능한 많은 것 들을 알려주시려 한다.
9	화성법	• 전공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교수님의 인품, 실력이 존경스럽다.
10	음악분석	• 전공분야에 관한 밀접한 지식들을 잘 가르쳐주시고 전공 관련된 과제를 할 때 매우 유익하다.
11	전공실기	• 교수님이 전공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친절하다. 전공에 관한 실기실력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가 이 수업 덕분이다.
12	음악감상과비평	• 음악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 알기 좋았고 교수님이 전공과 밀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신다.
13	음악분석	• 조금 지루해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또한 전공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전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며 마음을 바로잡아주신다. 어떤 곡이 좋은 음악이며 어떤 생각으로 작곡을 해야하는 지 알려주신다.
14	음악감상과비평	•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열정적으로 수업하신다. 여러 음악을 들으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재미있는 수업이다.
15	화성학	•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여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신다. 전공에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과목이다.
16	서양음악사	• 교수님의 열정이 많으시고 학생들과 소통이 잘되며 유익하다.
17	전공실기	• 세심하게 문제점을 집어주시고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쉽게 잘 가르쳐주신다.

57) 성악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음악통론	• 음악 이론에 대해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헷갈리거나 잘 몰랐던 기초적인 악상기호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추천한다. • 아직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이며, 음악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어서 추천한다.
2	화성법	• 음악의 토대를 이해하고 더욱 탄탄한 지식을 통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추천한다. • 잘 배워볼 기회가 없기도 하고, 화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잘 알게 될 수 있기에 추천한다.
3	서양음악의 이해	• 이론적인 면이 많은 과목 이였지만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시청각 자료를 통한 수업이 흥미를 이끌었음에 추천한다.
4	연주수업	• 전공에 맞게 무대에 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무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며 즉각적인 교수님의 피드백이 가능하여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에 추천한다.
5	합창	• 1-4학년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부담없이 노래를 부르며 화성에 집중 할 수 있기에 추천한다.. • 전 학년이 유일하게 다 같이 듣는 수업이고, 합창의 매력에 대해 알아 갈 수 있기에 추천한다. • 유명하고 다양한 합창 곡들을 배우고 직접 불러 볼 수 있으며, 이 곡들로 여러 무대에 참여하며 과 사람들과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고, 단합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기에 추천한다. • 모든 학년이 다 같이 해서 재밌음
6	시창청음	• 악보를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졸업 후 합창단 시험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한다.
7	성악 앙상블	• 성악을 하며 둘이서 듀엣을 해볼 기회가 잘 없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화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듀엣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추천한다.
8	성악문헌	• 독일의 성악문헌에 대해 배웠었는데 작곡가에 대하여 배우면서 쉽게 알 수 없는 역사와 작곡가의 음악적 스타일 배경을 이해하며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9	이태리어	• 이태리어에 대해 심화 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이태리 가곡을 부를 때 적용될 수 있는 발음과 기초적인 문법을 배울 수 있음 • 이태리어의 발음기호를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시며 음악을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어서 추천한다. • 이 과목이 없었다면 가장 성악곡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이태리어를 쉽게 알지 못했을 것이고, 교수님께서 음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태리어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추천한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0	전공실기	• 실기 위주의 학과이다 보니 이 시간에 다양한 곡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이기에 추천한다. •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제일 자세하게 음악과 곡을 같이 공부할 수 있기에 추천합니다. • 전공이 성악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목일 뿐더러 노래를 부름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어 추천한다.

58) 기악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대위법	• 지금 공부하는 음악에 있어 전반적인 음악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	화성법	• 대학교 아니면 쉽게 수강하기 어렵고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 도움됨 • 클래식 전공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전공과목 중 화성법을 추천합니다. • 음악을 전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강좌라 추천합니다. • 음악 이론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였는데 이 과목을 통하여 여러 음악이론과 관련된 지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가능하였고, 실력 향상도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일반합창	• 피아노가 아닌 나의 목소리로 실기를 칠 수 있어서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해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수업이 강의 형식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업을 임할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4	피아노앙상블	• 피아노과 특성상 실기를 혼자서만 치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업은 함께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부담이 덜 했습니다.
5	피아노문헌	• 수업내용은 어렵지만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집중이 잘되고 전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수업 받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피아노의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레슨도 중요하고, 연습도 중요하지만 작곡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곡과 여러 가지 음악용어들을 종합적으로 배움으로써 깊이와 넓이는 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6	음악분석	• 음악분석 과목을 듣기 전과 후 실력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
7	시창청음	• 평소 다른 학우들에 비하여 청음 실력이 많이 부족하였는데 꾸준한 수강을 통하여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수업에 참여하고 알아갈 유익한 정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8	피아노테크닉	• 피아노를 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인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기초를 다질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 사실 대부분의 대학교 입시생들은 기본기를 다져서 차근차근 입시에 임하기보다 대학 입시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입학을 합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기본기부터 기초적인 이론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어 추천합니다. • 피아노를 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9	전공실기	• 대학에서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어 소리나 피아노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0	연주수업	• 수업을 통해 연주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곡들을 접할 수 있으며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습을 통해 얻는 경험과 무대를 서기전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59) 새마을국제개발학과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새마을국제개발 세미나	• 새마을국제개발학이란 전공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SDGs의 관심 목표를 설정해 직접 그 분야를 연구하여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새마을학의 이해	•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로 우리 학과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힐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함 • 실전경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진행되어서 발전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3	글로벌경제의이해	• 글로벌 경제라는 과목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경제를 주로 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음. • 단순하게 이론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4	국제개발영어	•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강의 중 하나였다. 수강명은 국제개발영어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 배웠다. 다른 나라의 문화나 각 나라에 대한 수업도 포함이 되어있어 좋았다.
5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 조별과제로 직접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가하는 수업이여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사회생활을 간접체험함으로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6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여러 국제기구들을 배우는게 흥미로워서이다 • 처음에 수업을 들으면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듦. 이 수업을 바탕으로 과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 새마을 국제개발학과에 들어온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람도 많겠지만, 더 큰 해외의 국제개발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과목. 국제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함.
7	개발경제의이해	• 빈곤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경제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음. 통상적으로 교재 읽기 등의 편협한 수업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임. • 단순하게 이론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 무지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던 과목이라서 추천합니다
8	게임및행동이론과 국제개발	• 이 수업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수업입니다. 일단 행동경제학으로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그에 대한

No.	과목명	추천이유
		해결책을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계의 경제 현상을 다양한 관점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 단순하게 이론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 게임과 경제학을 연결함으로써 통해 이해가 쉬웠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사회복지학개론	• 과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1학년에게 추천합니다. • 사회복지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10	지역사회통계론	• 취업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11	도시및지역재생	• 교수님께서 수업 실력도 있으시고, 내용도 유익하였으며, 과제도 흥미로웠던 것 같다.
12	국제문화 커뮤니케이션	• 국제개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의사소통'을 다양한 문화권의 의사소통의 예시 및 방식으로 어떻게 한국과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우리학과의 전공에 필요한 전공이라고 생각됨

제3장 학사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진로취업'(27.4%)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음. '진로취업' 중에서도 특히 '진로 취업 정보 부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룸.**
- **다음으로 '교육과정'(26.4%), '졸업'(19.8%)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남.**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구분	세부사항	%
교육과정 (26.4%)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강의다양성	3.8%
	실습과목	1.9%
	이수학점	1.6%
	교육과정 안내 미흡	1.2%
	전공 선택 어려움/ 전공 바꿀 수 없음	1.0%
	교양필수과목	0.7%
	기타교육과정 개선	7.0%
수업내용 (3.3%)	교수진	1.8%
	강의 질 관련	1.2%
	수업난이도	0.3%
수업운영 (4.6%)	수강인원	1.8%
	수강 신청	1.0%
	강의시설 및 활동	1.0%
	강의 시간대	0.5%
	전공자 수강 제한	0.3%

구분	세부사항	%
시험/ 평가 (5.8%)	시험문제	1.9%
	과제/시험 피드백	1.2%
	시험시간대	1.0%
	부정행위	0.7%
	평가 기준	0.7%
	평가 방법	0.3%
졸업 (19.8%)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졸업요건 정보	3.0%
	졸업학점	2.5%
	조기졸업/졸업유예	1.6%
	졸업논문/시험/작품	0.9%
	자격증/어학성적	0.9%
	영역별 이수 조건	0.1%
진로취업 (27.4%)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진로취업프로그램	3.2%
	취업의 질 문제/ 특정 경로(임용)만 지원	3.0%
	전공 살린 취업 어려움	2.8%
	진로취업 상담	2.1%
	진로취업 과목	0.5%
	기타 지원 부족	2.3%
기타 학교생활 (12.7%)	학사정보 안내 미흡	3.4%
	장학금 관련	0.3%
	학생 의견 청취 부족	0.3%
	만족/없음/모름/기타	8.7%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1) 문제점별 원인 및 해결방안

구분(%)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핵심지표
교육과정 (26.4%)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복수전공을 해도 타과 여석이 적어 수업 신청 어려움" "부복수전공 신청 안내 미흡"	▪ 다양한 복수전공 선택의 기회 부여 ▪ 복수전공 여석 확대 ▪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 준거로 설정	(3)
	강의다양성	3.8%	"과목 다양성 부족" "전공 강의수 부족"	▪ 다양한 전공 교수자 충원 ▪ 타과, 타교 학점 교류 확대 ▪ 인터넷 강좌 확대	(4)
	실습과목	1.9%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부족" "실습 과목에 대한 투자 미흡"	▪ 실무적 경험 증진을 위한 인턴제도 확대 ▪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이수학점	1.6%	"타학과 전공 이수시 전공 이수학점 인정 불가" "최대학점 기준이 적고, 3학점 기준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 시간표 짜기가 어려움"	▪ 마이크로 전공, 융합연계전공 등을 확대하여 학점 인정 방안 마련 ▪ 1~2학점 과목을 개설	
	교육과정 안내 미흡	1.2%	"학과 홈페이지가 크게 도움되지 않음-정보 미흡, 누락, 불일치"	▪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보완 ▪ 정기/수시 설명회 개최 ▪ 체계적인 안내 제도 확립	
	전공 선택 어려움/ 전공 바꿀 수 없음	1.0%	"전공 선택 후 재선택 기회 부재" "1학년 성적만으로 전공 선택권 배분"	▪ 전공 선택 후에도 다른 전공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제도화 ▪ 다양한 전과 기회 확대 ▪ 성적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공 선택	
	교양필수과목	0.7%	"교양필수 강의 비중 높음"	▪ 교양필수 비중 축소 ▪ 필수강의에 대한 선호도, 타당도 조사	
	기타교육과정 개선	7.0%	"산업 연계 프로젝트 부족" "취업 연계형 프로젝트 부족"	▪ 캡스톤디자인 수업 확대 ▪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교과를 확대 ▪ 산-관-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수업내용 (3.3%)	교수진	1.8%	"교수진 인원 부족" "수강신청 시 교수자 미지정"	▪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 초빙 ▪ 학과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을 확보하거나, 학과를 통합해서 운영	
	강의 질 관련	1.2%	"지나친 학문중심 수업 방식" "시대에 뒤쳐진 강의"	▪ 수업 방식 변경 등 교수법 개선 ▪ 교육내용, 교과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필요	
	수업난이도	0.3%	"학생 수업 준비도로 인한 양극화"	▪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단계적인 학습 가능하도록 지원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핵심지표
수업운영 (4.6%)	수강인원	1.8%	"여석 부족으로 전공 이수 어려움 - 학과 통합으로 교수님들이 직업 수업 여석 열어줄 권한 소실" "실험과목 여석 부족"	▪ 교수자 여석 열 권한 재부여 ▪ 실험 과목 인원 증원, 수업 빈도 확대 ▪ 부복수 전공 기준 여석 설정	
	수강 신청	1.0%	"실험과목 수강 신청 어려움" "주전공-복수전공 학생 수강 신청 모두 어려움" "수강신청 서버 불안정"	▪ 실험실습실 인프라 구축 및 실험실습과목 여석 증원 ▪ 사전 수요조사 시 학생 참여도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실제 수요와 일치한 정원으로 개설함 ▪ 수강신청 서버 안정화 시행	
	강의시설 및 활동	1.0%	"제도판 부족, 컴퓨터 고장 등" "열악한 냉난방시설, 책상 등"	▪ 학교에서 실사를 통해 교체할 수 있는 기자재는 교체 실시	
	강의 시간대	0.5%	"수업 시간대 겹침"	▪ 학과별 수강 경향을 파악하여 주요 수업간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전공자 수강 제한	0.3%	"수강과목 제한으로 과목 선택지 부족"	▪ 교양필수 축소, 전공선택과목 학점 조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선택 자유도 확대	
시험/ 평가 (5.8%)	시험문제	1.9%	"매년 동일한 유형의 시험 문제 출제"	▪ 전년 대비 70%, 80% 등 일정 비율을 정하여, 동일 유형 문제 출제를 제한 ▪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시험문제	
	과제/시험 피드백	1.2%	"교수님들의 시간 부족은 이해하나 과제와 시험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다소 부족"	▪ 교수님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시간 마련 ▪ 과제와 시험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하는 제도 마련	
	시험시간대	1.0%	"전공 시험과 부·복수 전공 시험 시간의 중복" "공식적인 시험 주간 이외에 치루는 시험으로 인한 피로감"	▪ 기존 수업 시간표대로 시험 시간도 동일하게 편성 ▪ 최대한 시험 주간 내에 모든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부정행위	0.7%	"온라인 시험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족" "대형 강의실 부정행위 발생"	▪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진행 ▪ 시험 문제를 매년 최신화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	
	평가 기준	0.7%	"명확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 "교수간 소통 부족으로 동일 강의라도 다른 방식 차이 발생"	▪ 사전 공개된 평가기준 그대로 평가하며, 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평가 기준에 따른 피드백 시행 필요 ▪ 교수간 회의를 통해 비슷하거나 공통된 평가 기준 설정	
	평가 방법	0.3%	"전공수업은 분반으로, 성적은 학년 전체로 진행되어 반별 특성 고려 안 됨"	▪ 성적도 반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핵심 지표
졸업 (19.8%)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	"너무 높은 졸업요건" "실효성 없는 졸업요건" "각 단대별 졸업 요건이 너무 차이남"	▪ 졸업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게 조정 ▪ 단대별 졸업 수준 비슷하게 조정	(2)
	졸업요건 정보	3.0%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부족, 학교의 무관심"	▪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제공	
	졸업학점	2.5%	"졸업 이수 학점 기준이 높다"	▪ 졸업 요건 중 부담이 되는 전공 이수 학점을 축소	
	조기졸업/졸업유예	1.6%	"조기 졸업 관련 공지 미흡" "졸업 유예가 불가능함"	▪ 학과 행정실에서 조기졸업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게시하여 저학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졸업 유예 제도 재시행 검토	
	졸업논문/시험/작품	0.9%	"졸업 및 취업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졸업 요건으로 인한 부담" "졸업 전시 관련하여 제약 사항이 너무 많음"	▪ 학과의 진로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졸업 요건들을 설정 ▪ 예체능 관련 학과의 경우 졸업 전시/공연 등을 진행할 때 자율적인 작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자격증/어학성적	0.9%	"졸업 요건 중 자격증 응시료 부담" "어학시험은 유효기간이 짧아 돈과 시간 낭비 심함"	▪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 졸업 요건인 경우, 교내 시험으로 대체	
	영역별 이수 조건	0.1%	"교직 이수 학과 한정적"	▪ 교육대학원 등 교직 이수 가능한 루트 안내	
진로취업 (27.4%)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취업 및 진학 정보 부족" "전공 관련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의 취업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 학과 차원에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전공 이외 분야로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시행	(1)
	진로취업프로그램	3.2%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족" "현장실습, 인턴십, 실무체험 등 비교과프로그램 부족"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기업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한 현장실습, 인턴십 기회 창출	
	취업의 질 문제/ 특정 경로(임용)만 지원	3.0%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등만 신경쓰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음"	▪ 주 전공 취업 이외의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제공	
	전공 살린 취업 어려움	2.8%	"학과 특성(인문대/음대)상 취업이 어려움"	▪ 주 전공이 아닌 다른 경로로 취업한 선배들과의 소통 마련 ▪ 취업 박람회나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들을 해당 학과만이 아니라 전체 학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 ▪ 부복수 전공 장려	
	진로취업 상담	2.1%	"취업 관련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교수진과 소통 부족"	▪ 교수님과 학생 상담-소통하는 시간 확보 ▪ 교내 전문 취업 상담 프로그램 홍보·안내	
	진로취업 과목	0.5%	"진로 취업 관련 강의 부족"	▪ 수요 조사를 통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의 개설	
	기타 지원 부족	2.3%	"진로 취업 탐색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학회, 스터디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계속)

(앞장에서 계속)

구분(%)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핵심지표
기타 학교생활 (12.7%)	학사정보 안내 미흡	3.4%	"학사제도 정보, 홍보 부족" "학과 행정실 접근성 낮음"	▪ 학과 홈페이지에 학사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푸시 알리미, LMS 등을 통해 상시 소통	
	장학금 관련	0.3%	"장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하거나 너무 천차만별"	▪ 장학생 선발 기준을 획일화하거나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내 다양한 장학금을 안내 책자나 인스타그램를 통해 종류별로 상세히 안내	
	학생 의견 청취 부족	0.3%	"학과 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짐 "	▪ 학과 홈페이지 활성화	
	만족/없음/모름/기타	8.7%	-	-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2) 부문별 발전 방안

핵심지표1. [진로·취업 - 진로 취업 정보 부족]



- (취업 관련 멘토링) 취업 선배 초청 특강, 멘토링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이외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학과-학생간 온라인 채널 마련) 선배나 교수님들의 조언을 얻거나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채널 마련,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학생들과 상시 소통, 피드백 제공

핵심지표2. [졸업 - 졸업요건 변경 필요]



- (졸업요건 실효성 확보) 학점이나 어학성적 등의 졸업요건 이외에도 각 학과별로 다양한 졸업 요건들이 적용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졸업 요건들 중에서 학과의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거나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단과대별 졸업 요건 평준화)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별로 필요한 졸업 요건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단과대별 졸업 요건들이 너무 상이하여 특정 단과대는 지나치게 졸업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단과대별로 졸업 요건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핵심지표3. [교육과정 - 복수전공 제한/ 전과 제한 등 정보 부족]



- (부복수전공 안내) 저학년 때 부복수 전공 신청 방법, 이수과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부서, 홈페이지 등을 홍보하며, 나아가 부복수전공을 이수함으로써 향후 확대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안내
- (복수전공 여석 확대) 수강신청 시 복수전공 여석이 부족하여 복수전공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음. 현재도 주전공과 복수전공 여석은 분리되어 있으나 수강신청 시 직접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여석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해당 학과의 복수전공 인원을 파악하여 신청 인원 만큼의 여석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 (복수전공 승인 기준 다양화) 현재 복수전공 기준이 지나치게 '성적'에만 치우쳐있다는 의견이 많음. 성적 이외에도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핵심지표4. [교육과정 - 강의 다양성]



- (교수 충원) 가능하다면 신임 교수 충원이 필요함. 교수자 수 부족으로 인해 강좌 다양성이 제한되는 부분이 큼
- (마이크로 전공 확대) 마이크로 전공을 확대하고, 마이크로 전공에 대한 가이드를 충실시 제공하여 기존 강좌 중 선택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 (학점교류, 인터넷 강좌 확대) 당장 교내 자원 늘릴 수 없다면, 타대학과 학점교류 및 인터넷 강좌를 확대하여 강의 다양성을 확보

제4장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방안 제안

- **전공별 융합 및 연계를 원하는 방안이 상이하지만, '컴퓨터공학과', 혹은 '경영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과 같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학과 또는 미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취업 및 실무와 관련이 깊은 학과들과의 융합 및 연계를 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남**

- **그 외, 전공별 특성에 맞게 응답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타 의견으로 '연관성 있는 여러 학과 융합 교육'에 대한 니즈(needs)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세부항목(중복응답, %)	
컴퓨터공학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공학, 통계, 빅데이터 위주의 교과목 연계" - "컴퓨터공학과 연계하여 컴퓨터 비전 교과목 증대 필요" - "디지털 시대, 컴퓨터공학과 IT전공 융합이 미래를 선도"	8.4%
경영학과 - "경제, 경영학은 어느 쪽으로든 연결성과 확장성이 높다" - "경영학과 연계하여 진로취업 가능성 확대"	5.8%
전기/전자공학과	4.9%
식품영양학과/식품공학과	3.4%
심리학과	3.4%
건축학부	2.9%
공과대학	2.9%
어문학과	2.7%
시각디자인학과	2.7%
인문대학	2.7%
기계공학과	2.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6%
생명응용과학대학	2.4%
통계학과	2.4%
한문교육과	2.3%
화학공학과	2.1%
체육학부	2.0%
국어교육과	1.7%
사회과학대학	1.7%
의류패션학과	1.6%
교육학과	1.5%
예술대학	1.3%
의과대학	1.2%
체육학과	1.2%
유아교육과	1.1%

세부항목(중복응답, %)	
미래자동차학과	1.0%
무역학부	1.0%
특수체육교육과	1.0%
글로벌인재대학	0.9%
자동차기계공학과	0.9%
자연과학대학	0.9%
주거환경학과	0.8%
로봇공학과	0.7%
신소재공학부	0.7%
철학과	0.7%
화학과	0.7%
환경공학과	0.7%
경영대학	0.6%
기계IT대학	0.5%
영어교육과	0.5%
기타 (연관성 있는 과들과 모두 연계)	19.0%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제5장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강의 다양성(11.6%)에 대한 제안의견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도, 학년별 전공분배)(10.1%),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7.5%), 실습과목(실무교육 부족, 실습기회 부족)(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총 1,1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산출함

세부사항(%)	
강의 다양성	11.6%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분배)	10.1%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	7.5%
실습과목(실무교육 부족, 실습기회 부족)	6.2%
교수-학생 의사소통(과제 및 시험 피드백, 학교생활 상담 등)	6.0%
교수진(교수 부족, 강의 질 편차)	5.7%
취업 지원(대외활동, 인턴, 자격증 취득 관련)	4.9%
과목 부족(세부 전공/트랙 과목 부족)	4.4%
취업 정보(재학생-졸업생 네트워크, 기업 정보)	3.7%
교류의 장(멘토-멘티, 학생 간 교류 부족)	3.6%
수업방식(대면/비대면, 이론강의/참여형 등)	3.2%
교내시설(화장실, 과사무실, 스터디룸 등)	3.1%
교육과정 안내(커리큘럼 정보 부족)	2.6%
강의 시설(소프트웨어 미지원, 시설고장, 실습실 부족)	2.4%

세부사항(%)	
성적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 AB 비율 확대)	1.8%
수강 신청(수강 꾸러미 불편, 수강 신청 시간대)	1.6%
장학제도(장학금 안내, 장학제도 재정립)	1.6%
진로 탐색(진로 설계, 인턴십, 기업탐방 등)	1.6%
외부활동(탐방 등 체험활동, MT/축제 등)	1.4%
졸업요건(졸업학점 과다, 어학성적)	0.8%
수업 난이도(기초교육 부족, 기초/심화 구분 필요)	0.8%
학점인정(타 학과 개설과목 전공학점 인정)	0.6%
이수학점(2학점 전공과목 관련)	0.6%
선수강지도(형식적인 선수강지도)	0.1%
수업 시간(수업 간 이동시간 고려)	0.1%
기타	14.0%

* 세부 응답 [부록Ⅱ] 참고

제6장 유학생 의견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유학생 인식조사를 진행함**

  - **전공수업 이해도 문항**에 대하여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따라갈 수 있다(86%)", "수업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9.5%)" 순으로 응답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무리 없이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교양수업 이해도 문항**에 대하여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따라갈 수 있다(66.7%)", 수업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19.0%)" 순으로 응답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무리 없이 수업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한국어능력부족(80.9%)", "공부에 대한 노력 부족(19.0%)", "수업에 대한 흥미 부족(4.8%)" 순으로 응답하여, 언어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으로 파악됨

  - **수업 활동 중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는 "발표(33.3%)", "시험(19.0%)". "토론(14.3%)", "팀과제(9.5%)", "리포트(4.8%)" 순으로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도 "한국어 미숙"이 가장 많이 언급됨

  - **수업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교수 또는 학교 측에서 제공하였으면 하는 지원**으로는 "수강신청 매뉴얼/이수체계도 제공(17.0%)", "수업 오리엔테이션(17.0%)", "수업 관련 자료 사전 공지/업로드(17.0%)", "유학생 대상 수준별 한국어 능력 향상 수업(13.2%)", "학습 TA 지원(11.3%)", "시험 및 과제 피드백 제공(9.4%)", "한국학생들과 교류 기회 확대(9.4%)", "학사 행정 도우미 지원(3.8%)" 순으로 응답함

-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

  - 학업 성취도가 높은 선후배 학생들이 모여 유학 생활 및 학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

  - 효과적인 학습법 상담 지원

  - 장학금 확대

  - 교내 부서, 은행, 병원 등 관공서, 기관 등에 가서 함께 소통해줄 도우미 지원

- **유학생활 전반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

  - 유학생 모임, 활동을 더 많이 조직

  - 대체로 현재에 만족



부록 I

1학기 세부응답

1. 교양교육과정 장점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강의 다양성 만족 / 개설 강의 수 많음 30.5%
▪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있어서, 다양성이 다른 대학에 비해 뛰어납니다.
▪ 우리 학교는 1, 2학기에 (중복 포함) 약 250개 정도의 교양 과목이 개설 되어 있다.
▪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영남라이프아카데미와 같은 비교과 과목도 진로 개설에 도움이 되었다.
▪ 7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속한 강좌들의 종류가 많다.
▪ 교양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언어 교양 과목만 보았을 때도 한, 중, 일 뿐 아니라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교양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대학과 비교하여 볼 때도 개설 강좌가 다양하다.
▪ 타대학과 비교하여 개설강좌가 다양하며 흥미로운 강좌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크게 여러 가지 분야로도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도 나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 개설강좌가 다양하다.
▪ 과가 많은 만큼 교양과목의 종류가 다양하며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가 있다
▪ 전공 기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 다양하고 현재 1학년들도 자율적으로 교양을 들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 개설 강좌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타 학교에 비해 강좌가 엄청 다양하고 실력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 개설 강좌 다양성: 평소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관한 강의가 다양하게 개설돼있어 학생들의 숨어있던 흥미를 자극 시킬 수 있다.
▪ 개설 강좌 다양성 : 적성과 흥미를 찾아볼 수 있는 강의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 타 대학에 비하여 개설강좌가 다양하다. (Ex: 케이묵 , 각종 분야의 다양한 교양)
▪ 개설 강좌 다양성: 여러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 여러 분야별(인문/예술/과학 등)로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선택이 자유롭다. 또한 현재 기준, 교양필수로 지정된 과목(경제학, 소프트웨어 등) 역시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것 같다.
▪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영남대는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술대학에 다니는 제가 법과 관련된 교양을 들을 수 있고, 패션과 미술 관련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엮거나 작품을 보면서 언어공부를 한다거나 토론 등 타대학에 재학하는 친구들에게서 신기하다는 반응이 꽤 있었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 한 분야에 대해 여러 갈래로 나뉜 다채로운 강좌가 많다.
▪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게 장점인 거 같습니다
▪ 다양한 과의 교수님들께서 교양 과목들이 개설하기 때문에 타 학과의 지식을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어 융합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 한 분야인 전공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를 경함할 수 있다.
▪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강의도 있고, 기본적인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까지 다양하다.
▪ 심리학이나 의예과 수업 등 평소 관심 있던 다양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 다양한 강좌가 개설 되어있고 난이도 또한 적절하게 설정되어있어서 비교적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강의 다양성 만족 / 개설 강의 수 많음 30.5%

- 개설강좌가 다양해 좋습니다
- 법학과목을 들어보고싶었는데 7개의 영역(말하기·글쓰기, 외국어, 인문·사회, 자연·과학, 컴퓨터·공학, 법·의학, 예술·체육 영역)으로 잘 나누어져있었다. 덕분에 다양한 과목을 듣을 수 있었다. 또 영역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있어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 자신이 원하거나 흥미있는 분야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다.
- 개인적으로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서 좋았다
- 개설 강좌의 스펙트럼이 넓다
- 다양한 교양 강좌와 모든 강의에 교양이 함양되어 있다.
- 정말 다양한 교양이 존재한다
- 관심이 생긴 언어나 과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배워봄으로써 자신의 흥미를 충족 시킬 수 있음.
- 다양한 과목이 존재하므로 관심, 흥미 있는 분야를 부담없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 교양 과목이 워낙 다양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과목을 듣는다면 관심과 흥미 충족이 가능하다. 완전히 학구적인것이 아닌 패션, 애니메이션 등 일상, 여가와 관련된 과목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현재 트렌드에 맞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교양강좌가 타 대학과 비교하면 많다.
-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충족하는 다양한 교양 과목들이 있으며 전공 외 분야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 개설 강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외의 관심사를 교양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대학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개인의 경험에 비롯된 것이지만 저는 전공이 폭이 넓은 편인데, 교양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 강좌가 많고 다양한 주제(법률/과학/취미/경제 등)의 강의들이 있음
- 우리 대학은 타 대학과는 달리 많은 수업들이 학생중심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 및 지원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폭넓은 교양교육의 기회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학년이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의 경우 적정한 수강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항시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수님과 학생의 쌍방향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는 타 대학과는 달리 k-mook 시범운영 사업선정을 받아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온라인 학습을 통하여 수강하고 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교양과 전공수업을 보강함과 더불어 정규 교양과목으로 되어있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2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하고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깊이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영남대학교 교양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과목이 존재하므로 과목 선택 또한 자유롭습니다.
- 시간표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들을 보면 글쓰기, 외국어, 인문, 자연, 공학, 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많은 종류의 교양이 존재한다.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엮을 수 있는 교양부터 시작하여 숲과 물의 세계, 식탁의 혁명과 같이 전공 외의 자신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도 가볍게 교양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것
- 타대학에 비해 과목이 다양하여 교양선택의 폭이 넓다
-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과목들이 분야별로 개설되어 있어 관심과 흥미를 충족한다.
- 교양에서 전공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접해봄으로써 꿈과 진로를 확립해나갈 기회가 넓어지는 것 같다.
- 공공디자인, 현대인과패션 등의 과목을 관심 및 흥미의 이유로 들어보았는데, 같은 과목이더라도,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공 시간과 겹치지 않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됨. 관련학과 학생들 뿐만아니라, 실제로 해당 분야에 관심있다면,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음.
- 과목 선택의 자율성: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 개설강좌가 다양함
- 행렬과 행렬식이나 응용통계학, 사회과학과 수학같은 경우 수학과 2학년 전공(선형대수학)들어가기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강좌가 열려있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새로운 분야도 배워보며 흥미를 키울 수 있습니다.

1. 강의 다양성 만족 / 개설 강의 수 많음 30.5%

- 개설 강좌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 관심 및 흥미 증진에 도움이 된다.
-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있음
- 개설 강좌 다양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있어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
- 진로 선택 및 취업 시 도움:
- 개설과목이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교양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의 폭이 커서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2. 관심분야 지식습득 12.1%

- 저는 원래 방송이나 영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관심사에 대해 흥미를 더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들을 수 있다.
- 학과 공부 이외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다.
- 수업을 들으면서 교양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전공과목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적으로 들을 수 있거나 흥미가 있는 부분을 새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 교양함양, 관심흥미충족: 또한, 애니메이션의 세계, 문학과 영화처럼 흥미를 충족하거나 폭넓은 지식, 즉 교양을 쌓을 수 있다.
- 관심-흥미 충족: 전공과 별개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춰 강의를 들으며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 전공과 다른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 관심-흥미 충족 : 공부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 다양한 강좌가 열려있어 전공과 관련이 없는 평소 관심있는 항목에 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관심 ,흥미 충족 : 비교적 분야가 많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골라 들을 수 있다.
- 교양 함양 :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이외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경험이 된다.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나 정보를 주고 받을때 이런 교양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많은 도움이 된다.
- 교양 함양 : 개설 교양들의 내용이 겉핥기가 아닌 진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 교양이라고 해서 교수자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 외 지식을 얻어가기 좋다.
-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부드럽게 알아갈 수 있다
- 평소 전공과 관련한 내용 외에는 배우기가 힘든데, 교내 교양을 통해 함양할 수 있어 좋다.
-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교양은 글쓰기, 영어, 도시의 이해 등 정말 도시공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우리 대학 전체 교양 또한 평소 궁금했던 부분, 교양 다운 교양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관심- 흥미 충족: 내가 관심 있거나 흥미 있는 과목이 충분하게 있어서 선탁할 수 있는 과목이 많다.
- 우선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교양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내용의 지식들을 더 자세히 배워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 관심-흥미 충족 : 평소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저로써는 '사회체육'이라는 교양 강좌에 야구 강좌가 개설되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인 야구에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이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에 관심-흥미 충족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심-흥미 충족 : 전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얻으며 '나'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 전공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관심-흥미충족: 본인의 흥미와 연관지어서 들을 수 있을만한 과목들이 많다
- 관심-흥미 충족 : 전공과 별개로 관심분야를 공부하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수강 했었던 <위대한책

2. 관심분야 지식습득 12.1%

위대한생각>과목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여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 또 서로의 글을 직접 첨삭해주며 나의 작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흥미, 적성 발견 진로 선택에 도움 11.0%

- 내가 1학기 때 이수한 과목으로 '인물 한국사'가 있는데, 1학기에 유일하게 선택해서 들은 과목이었다.(나머지는 교양 필수) 평소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고, 수능 때도 한국사 등급은 잘 나와 대학교 가서도 한국사 과목이 있다면 꼭 들어야지 하고 다짐한 적이 있었다. 공부할 때도 수월했고, 팀티칭 수업이라 여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다.
- 내가 선택한 과 수업만 듣다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내 전공과 상관없는 수업을 듣다 보니 학교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진로도 고려해 볼 수 았다.
- 김윤미 교수님의 기초독일어 수업을 들으며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언어 및 회화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기를 마치고 방학동안 독일 여행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교양을 들으면서 나의 관심과 흥미있는 부분에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
-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이 여럿 개설되어있어 좋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 관심 및 흥미 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 자신이 흥미있는 주제의 교양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 자신의 관심분야와 흥미에 맞추어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취업이나 가족의 권유 등 본인의 순수 학문적인 흥미와는 다른 전공을 선택했거나 본인의 전공 이외의 분야에 학구의욕을 가졌을 때 교양 과목을 통한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앞서 말한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설명할 때 예시로 든 것과 유사한 데, 이따금 역사에 관심이 있는 타 학부(과) 학생들이 '인물로본중국사'나 '인물한국사' 등을 수강하기도 하고, 반대로 역사학과 학생들 중 다른 진로를 계획하고 실현할 때(전과나 복수전공 등), 그 전에 미리 해당 학과 전공과 유사한 교양 과목('경제학의이해', '생활과세금', '경영학의이해', '광고의이해')을 수강하기도 한다.'
- 교양 과목들을 둘러보았을 때, 주제가 뻔한 것만이 아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드라마와 과목을 엮는 과목도 있었고, 언어에서도 기초 언어와 회화로 나뉘는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 교양을 통해 전공 분야 외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체험해 보는 데 용이하다.
- 흥미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이 많기에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취업 시 도움이 된다.
- 전공 과목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별 특성에 맞춰 본인이 흥미있는 분야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또한 전공 과목과 연관성 있는 교양 강좌는 더욱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개설 강좌로 진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고등학교 때 희망하던 전공으로 대입 실패했을 때 교양과목으로 관심분야를 들을 수 있는 거 같다.
- 교양 함양 :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이외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경험이 된다.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나 정보를 주고 받을때 이런 교양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많은 도움이 된다.
- 교양 함양 : 개설 교양들의 내용이 겉핥기가 아닌 진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 교양이라고 해서 교수자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 외 지식을 얻어가기 좋다.
-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부드럽게 알아갈 수 있다
- 평소 전공과 관련한 내용 외에는 배우기가 힘든데, 교내 교양을 통해 함양할 수 있어 좋다.
-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교양은 글쓰기, 영어, 도시의 이해 등 정말 도시공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우리 대학 전체 교양 또한 평소 궁금했던 부분, 교양 다운 교양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전공수업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 같다.

4. 자유로운 수강신청 6.8%

- 몇몇 과목을 제외하면 전공 가릴 것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내가 흥미 있고 원하는 교양을 내 학점에 맞춰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교양과목을 선택하는데에서의 제한이 없다
- 일부 타 대학의 경우 시간표가 모두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남대학교의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타전공과목의 내용이 포함된 교양과목 또한 해당 전공학생이 아니더라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를 들자면, 나는 평소 영화 좋아하고 깊게 봤었어서 '문학과영화(노상래 교수)' 교양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어 '심리학의이해(류석진 교수)' 교양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었다. 또한 내 주변만 보더라도, 내 동기는 독일어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기초독일어'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이따금 역사에 관심이 있는 타 학부(과) 학생들이 '인물로본중국사'나 '인물한국사' 등 본인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교양 과목 수강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본인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수강신청이 자유롭고 교양과목 수강시 도움되는 부분이 많았다
- 과목 선택의 자율성: 신청 학점에 여유가 있다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과목 선택의 자율성 : 전공에 한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 과거에는 교양과목을 분야별로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원치 않아도 이수했어야 했고, 흥미가 적어 강의 참여에 열의가 적었다.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아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신청해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과목 선택의 자율성: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다.
- 과목 선택의 자율성: 단지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우리 영남대학교의 교양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1학년 때는 교양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규정도 사라져 더욱 자유롭고 다양하게 교양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 과목 선택의 자율성: 전공 시간표와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있는 교양들이 많고, 자기 전공의 기초 소양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과목이 없어 자유롭다.

5. 폭넓은 교양 6.3%

- 언어, 산업,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과목이 골고루 개설되어있다. 특히 4차산업, AI등 트렌드에 맞는 과목도 생겨서 더 다양하다.
- 특히 분야별로 개설 강좌가 다양하게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공부
- 다양한 분야를 적정 난이도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양 함양에 좋으며 교양 함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의 과목을 신청하여(토익스피킹, 언어 수업 등)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함께 함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적절한 난이도로 흥미를 잃지 않고 교양을 쌓을 수 있다.
- 교양함량: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움. 예를 들어 본인은 인간과 동물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를 통해 평소에는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동물들의 특징과 종류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교양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됨.
- 교양 함양 :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여 들었던 교양이 '문학과 영화'라는 강좌였습니다. 하나의 영화를 여러번 돌려 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취미였기에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키우기 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강좌 자체도 영화의 촬영 기법이라던지 음향의 효과, 미장센의 사용 등 이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얻기 힘든 교양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교양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 되는 것이 영남대

5. 폭넓은 교양 6.3%

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높은 교양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물론 교양 by 교양이기는 하나,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
- 교양함양: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될만한 과목들이 있다.
- 세금 관련 과목과 같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있어 유용합니다
- 소속한 단과대의 수업과는 다른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있어서 교양 지식을 쌓기 좋은 기회인것 같다

6. 교양에 걸맞은 쉬운 수업 난이도 5.7%

- 아직 세부적인 전공 과목을 듣지 않은 1학년이라 그런지 고등학교 때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등의 교양 과목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다. 실제로 1학기에 이수했던 미분적분학의 경우, 수능 선택과목인 미적분의 내용이 70%였고, 나머지 30% (최적화, 극방정식 등)만 새로 배우는 내용이라 시험공부하는데 부담이 적었다. 또, 일반화학(1)의 경우, 고등학교 화학1, 화학2의 내용이 많이 있었고, 일반화학(2)는 아직 이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책을 훑어보고,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난이도를 파악해 보니 1학년이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들께서도 1학년들의 상황을 알고 계셔서 최대한 쉽게 내용을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신다. 수업 중간중간에 예제도 많이 풀어주셔서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직접 보여주신다.
- 일부 교양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타 전공내용을 교양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과목이 개설되어있는데 심화된 내용이 아닌 적절한 난이도로 조절하여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 교양수업은 전공에 비해 좀 더 대중적이고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의 난이도이므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
- 자칫하면 전공 수업만 가득한 시간표 속에서 전공 난이도로 인해 학교 안 공부에만 온 신경을 다 쓰며 한학기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한두 개의 교양 과목 수강은 효율적인 학기 중 시간 배분 및 충분한 교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가령 교양 인터넷강의는 특정기간 내에만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폐쇄성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본인도 작년 2학기에 22학점을 들을 때 인터넷강의가 하나 있어서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인터넷강의가 아니었다면 22학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교양 수업의 난이도는 전공수업보다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졸업학점에서 애매하게 1, 2학점이 모자르다면 그 1, 2학점을 교양을 찾아서 어렵지 않는 난이도로 들을 수 있다.
- 여러 교양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교양수업이다보니 전공수업 만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해를 시켜주는데에 충실하여 교양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전공과목에 비해 다소 쉽게 이해가 가능하며 새로운 방면으로 지식을 키울 수 있다.
- 교양과목은 딱 교양 수준으로 너무 얕게도, 깊게도 아닌 적정 수준의 난이도로 잘 가르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의 이해를 들었는데 상경계 학생들도 어려워할만한 부분은 교양으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범위에서 빼주시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적정 난이도로 수업하려고 하셔 좋았습니다.
- 전공과목의 깊은 내용과 달리 비교적 난이도도 적절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다.
- 모든 교수님이 어려워하는 학생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 다양한 강좌가 개설 되어있고 난이도 또한 적절하게 설정되어있어서 비교적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공과목과 달리 비교적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수강하기에 적절하다 생각함

7. 강의진, 교수진 관련 5.7%

- 우리 학교에는 '대학생활설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도 교수님과 2번 상담 후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다. URP에서 지도 교수님께 상담 메일을 보낸 후 일정을 조율하여 필수적으로 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팁을 얻을 수 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어떤 교양을 이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주셔서 수강 꾸러미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상담을 위한 필수 과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남은 시간 동안 교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잘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주십니다.
- 교수님들이 흥미롭게 가르칩니다.
- 타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교양수업의 교수자가 수업에 늦게 참석하거나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영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교수자가 수업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 강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 특정 전문 분야에 지식이 많은 교수님과 해당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이 관계가 만나면, 학생은 지식을 습득한 또 다른 지식인이 되며, 교수자는 자신 분야에 지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지식 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매주 과제가 있는 수업은 모든 과제를 매번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학생들의 과제를 피드백해 주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신다.
- 과제 중이나 복습하다 모르는 부분 있어 질문하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수업 마치고 질문을 하거나 쪽지, 열린 게시판, 메일 등으로 빠른 연락이 가능했다.
- 제가 다니는 학과 특성 상 많은 교양 수업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제가 들어본 교양 수업 생활과 세금 같은 경우 교수님이 비 전공자인 학생들을 위해 적정한 난이도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고 교수 님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만큼 학생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수강했던 과목들 모두 교수님들이 열정적이게 수업해주셨다. 또한 강의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뤄주셨다. 교양 과목인 만큼 전문지식보다전체적인 내용, 챕터마다의 연계성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이로써 교양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과의 소통
- 교수자 열의: 열의 있으신 교수님이 많으시고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신다.

8. 전공과목에 학습에 도움 5.2%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도움을 준다.
- 이 외에도 전공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어 좋았습니다. 부활동으로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전공자로서 제가 이끌어나가는것에 한계를 느낀적이 있었는데 이때 음악 전공이 아닌 학생들에게 음악 기초와 관련된 교양 과목을 추천해주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 기억이 가장 인상적이였습니다
- 전공과목에 도움이 많이 됨.
- 전공공부에 도움: 심리학의 이해, 경영학의 이해처럼 전공 전 기본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 전공공부에도움 : 성악과 같은 경우는 다른나라 언어로 노래를 불러야합니다. 독일어 불어 등등 기초적인 문법과 회화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전공공부에 도움: 한 전공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와 관련한 교양 수업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한 것 같다.
- 각 분야별로 교양이 많기 때문에 전공 공부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양을 듣는다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융합형 인재가 중요해진 시대에 교양을 통해 연관이 어느정도만 있거나 관련 없는 수업을 들어도 전공에 녹여내면 도움이된다.
- 진정한 흥미에 기반한 전공 탐색이 가능
- 전공 내용을 익히는 과정은 물론이고 활용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

9.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지식 습득 5.2%

-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의 전공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저희 학과 전공만 듣고는 저의 진로의 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과의 수업을 교양으로라도 들으니 진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현재 존재하는 '진로상담과자기실현', '진로코칭프로젝트', '진로탐색' 등의 교양 교과목은 진로상담 전문가 혹은 그 분야의 전현직 경험자가 직접 코칭을 해주는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수업의 평도 좋고 취업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진로선택 및 취업시 도움: 전공 수업 외의 흥미로운 강좌들을 경험하고 배우며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관련 강의를 듣고 관련 진로를 결심하게 됐다.
- 진로 선택 및 취업시 도움 : 공무원이나 자격증 등 수업을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도움이 된다
- 취업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있다.
- 아무래도 교양교육은 과목 선택이 다소 자율적이기 때문에 전공 외의 나의 관심이나 흥미의 영역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양이 함양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
-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접하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양과목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인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취업 시에도 교양교육에서 습득한 넓은 지식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과 다양한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다양한 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과 연계해보며 (ex: 도시공학과X경제학)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과목별 과제(발표,PPT)등으로 개인 능력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 문화예술사자격증 딸 수 있다
- 진로 선택 및 취업 시 도움 : 위 이유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나 지원서 작성에 있어 작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진로코칭프로젝트> 와 같이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교수님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학기별 체계적인 교양 과정이 진로선택 및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준다.

10.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방식(강의 형태) 2.1%

- 우리 학교에는 블렌디드러닝, 액티브 플립드러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이 있다. 블렌디드러닝이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강의로 교과목 특성에 맞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강의를 말한다. 액티브 플립드러닝이란 짧은 강의 동영상을 먼저 학습하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강의실에서 토론, 팀 프로젝트 등을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1학기에 이수한 블렌디드러닝 과목으로는 대학생활설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있고, 액티브 플립드러닝 과목으로는 미분적분학(1), 일반물리실험(1),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이 있다. 대학생활설계의 경우, 1학기 전체 수업 중 3번만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수업이었다. 이로 인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다른 과목 시험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일반물리실험(1)이나 일반화학실험(1)의 경우 실험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게 한 것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실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 동영상이 있어 시험 기간 복습할 때도 유용했는데, 수업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질문할 곳이 없어 막막할 때 개념 강의 동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함으로써 혼자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업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 교양교육은 교양선택/말하기.글쓰기/외국어/인문.사회/자연.과학/컴퓨터.공학/법.의학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매년 항목별로 새로운 과목들과 타 대학과 교류하는 수업 혹은 K-mooc 수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이론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강의식 이론 수업 위주로,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강의와 실습 비율을 조정하여 수업한다.

11. 교양 함양 2.1%

- 전공 공부 외에 살아가면서 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양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령 앞서 언급했던 '문학과영화' 수업을 수강하고 난 뒤, 영화를 시청할 때는 수업때 배웠던 촬영 기법이나 형식 등을 생각하면서 시청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영화를 보는 수준이 스스로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11. 교양 함양 2.1%

- 전공과정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학습가능
- 교양 함양: 전공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 교양 함양: 전공과목 외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12. 교수와 학생의 소통 1.0%

- 전공 과목과 달리 교양과목은 편하게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질문 사항이 생기면 편하게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어 장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 의외로 전공교수님보다 교양교수님들을 대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13. 성적 평가 방식 1.0%

- 과목별/ 교수님 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디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많았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적어야 점수를 줬다' 라는 내용을 직접 화면에 띄워주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고, 일반화학(1)이나 일반화학실험(1), 미분적분학(1)에서는 시험지 확인이 필요한 학생은 직접 찾아오면 본인이 적은 답을 보여주면서 점수를 확인시켜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적은 답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공정하다고 느꼈고, 오답을 보면서 2학기에는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
- 이전에 제가 들었던 안의진 교수의 '광고의 이해' 라는 강의를 예시로 들면 중간 및 기말고사가 끝나면 본인의 점수와 평균 및 점수별 학생 분포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올려 주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몇점이고 어느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어 평가가 투명히 이루어 졌습니다.

14. 학문적 재미 1.0%

- 다양한 분야의 교양지식을 쌓으며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 전공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양과목에서만 얻을 수 있는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와 관련된 과목의 경우 언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께 과목을 수강하며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 교육과목 교육과정 구성에 만족 0.5%

-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흥미를 충족하도록 하는 유용한 교육과정이다.

16. 시간표 설계 용이 0.5%

- 강좌 내용, 시험 등 바뀌지 않아 정보를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2.6%

- 타과 학생과 소통이 가능하다.
- 강의 계획서에 있는 계획대로 수업이 진행되며 강좌명에 부합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목이 많이 없는데 교양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가능했다.
- 다른 과와의 교류 가능성이 높다.
- 수업 내용 충실성

2. 교양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학사제도

1. 강좌 신청 관련 15.8%
▪ 다양한 강의가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의는 수업의 수와 여석이 많지 않아서 강의 신청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 수강 신청 때마다 항상 서버가 터져서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수강 꾸러미가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과목(꿀교양이라 불리는 강좌, 인터넷 강의 등)은 항상 수강 신청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과목의 정원 수를 교수님들의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10~20% 늘렸으면 좋겠다.
▪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교양은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물린 경우가 적어 학생 본인에게 꼭 필요시되는 교양도 못 듣게 될 때가 있다.
▪ 사람이 자주 몰려서 관심이 있어 듣고 싶어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과목이더라도 학생들이 너무 몰리게되어 그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기억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 개설된 강좌가 너무 같은것만 여러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인기있는 강좌의 경우는 수가 적어서 오히려 수강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기있는 강좌의 수강신청이 어렵다
▪ 시간대가 안 좋아요
▪ 인기 과목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 의견/약학부는 학과 특성상 교양을 듣지 않아 현 1,2,학년 학생들만 들어서 후배들 의견 참고했습니다.)
▪ 강좌 신청의 어려움 : 강의마다 인기도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서 인기 강좌의 경우는 신청이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인기있는 과목같은 경우 신청하는 인원이 많아 듣고 싶어도 못듣는경우가 있다
▪ 강좌 신청 어려움 :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정원이 적어 수강신청에 실패할 때도 많다.
▪ 강좌 신청 어려움: 듣고싶은 인원은 많지만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듣기 어려운 과목들이 많다.
▪ 강좌의 신청이 경쟁이 치열해서 어렵다.
▪ 교내에서 인기가 많은 과목들은 진정 듣고 싶은 인원이 많더라도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워 못 듣는 강의들이 있다.
▪ 분명 여러 종류의 교양들이 존재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라 꼭 듣고 싶었으나 인원이 제한적이고 빠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1~2초 사이에 신청이 마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많은 경쟁률이 높아 신청이 어렵다.
▪ 수강신청의 어려움
▪ 수강신청 경쟁이 너무 심하다. 듣고싶은 수업을 듣지못해 등록금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 학교마다 그렇겠지만 수강 신청이 전쟁그 같아 듣고 싶은 교양을 못 들을 때가 많다.
▪ 강좌 신청 어려움: 특정 인기 많은 과목들의 경우에는 4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듣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을정도로 인원이 몰리는데 반해 여석수는 많지 않다.
▪ 경쟁률이 높은 강좌일 경우 수강 신청하기 어렵다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실패하면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듣게된다.
▪ 인기있는 과목 신청이 어렵다
▪ 희망 수강 강좌와 전공필수 등의 개설 시간대가 겹쳐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강의 시간대 편향 8.9%

- 흥미가 있는 수업들이 개설된 강의는 대부분 요일이나 시간대가 겹쳐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사범대 학생이 아니라면 교직이수 과목의 시간표가 너무 저녁 시간이거나 오전 시간대라 아르바이트나 교육봉사 등 학교 수업 외 활동에 제약이 많다.
- 개설된 강좌들 중 학점이 다양하고, 여러 시간대로, 동시과목이 많아지면 좋겠다.
- 강의 개설 시간대 편향 : 이 부분도 대체로 이해하는 편이지만 동시간대의 수업이 너무 많아 듣고 싶은 과목을 한 학기에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 강의 개설 시간대 편향: 교양필수나 전공과목과 겹치는 교양들이 많아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개설 강좌가 다양하지만 강의시간 때가 비슷하여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수업이 오전으로 잡혀있어 다른 강의와 수강신청할 때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수업이 대체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강좌 신청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강의 개설 시간대가 전공별로 많이 편향되어 있어 시간표를 구성하기 어렵다.
- 원하는 과목의 시간대가 같은 경우가 많아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 상대적으로 월~목요일 수업이 많이 있었고 금요일 수업이 많이 없었다.
- 금요일 수업이 너무 적다. 또 아침 시간보다 저녁 시간 과목이 현저히 부족하다.
- 개설된 교양 강좌의 시간대가 편향되어 있어 원하는 강좌가 중복된 경우가 있다.
- 예체능 과 특성상 낮 시간에 2-3시간 연강인 수업이 많은데 그 시간에 교양 수업이 많이 몰려있어서 듣고싶은 교양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개설된 강좌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다소 겹치는 시간대가 많아 수업을 듣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3. 교양 학점 관련 1.4%

- 필수적인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남은 학점중에서 교양과목을 선택하여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교양 과목이 대부분 2-3학점으로 구성되어있어 한과목만 선택이 가능하거나 전공 과목을 포기하고 교양을 들어야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1학점으로 구성된 교양은 k-mooc강의가 대부분이라 단점으로 꼽고싶습니다
- 우리 학교는 자신의 졸업학점의 40% 학점까지 교양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점 제한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다 듣지 못하고 졸업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공 최소학점과 교양 학점을 다 채운 학생은 주로 일반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포기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예시로는, 40%라는 기준을 좀 더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수업 운영

1. 매년 비슷한 구성 14.5%

- 최신의 트렌드 반영한 교과목을 늘렸으면 좋겠다. 매년 비슷하게 수업 방식이나 푸는 문제 등이 구성되다 보니 일명 '족보'만 구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가 늘어나고 있다.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지난 시험의 족보를 구해서 대충 훑고 시험을 치르는 방법은 전문적이고 세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자연과학대나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족보를 구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족보를 구하는 데에 돈이 들기도 하고, 과거 기출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입학한 1학년들의 시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매년 시험 문제를 바꾸거나 수업 내용 중 예제 문제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또한 작년과 비슷한 개설 강좌는 수업 방식과 내용이 흡사해서 족보가 많아 불편함을 겪는다.
- 매년 비슷한 구성의 수업과 시험는 족보를 야기한다. 매년,매학기 강의 공부가 아닌 족보 공부를 하는 등의 족보로 인

1. 매년 비슷한 구성 14.5%

한 문제가 생긴다.

- 교양강의들중 예비 수강신청 기간이 지나서도 담당교수가 미지정 된 강의들이 있는데 이로인해 수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메타버스재활헬스케어) 또한 교양강의들중 인터넷 강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나타나는데, 매년 수업과 시험이 비슷한 구성이다 보니, 소위 족보라는것이 생겨나고 이를 구하기 위해 돈을내고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이 합니다.
- 족보라는 것이 떠도는 강좌가 많고, 수업을 들어가보면 일방적으로 교수님만 수업하시는 수업들이 많다.
- 매년비슷한 구성: 영남대 수업의 경우 매년 열리는 과목이 비슷하다. 교수님들도 수업자료를 그대로 쓰고, 강의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수업방식도 변화가 없다. 이럴경우, 시험문제도 유사하여 족보를 쓰는 학생이 유리한 것이 실상이다.
- 교수자 열의부족: 강의자료, 구성도 매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피티를 그저 읽기만 하는 교수들이 많다. 수업연구 및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 시험 문제의 변화폭이 크지 않고 매년 비슷합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업은 등장하지만 수업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요.
- 매년 비슷한 구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나치게 오래된 정보로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족보 판매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는 것 같다.
- 매년 비슷한 구성: 강의평이 좋지 않은 과목들을 없애고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 강의 방식, 강의 자료 등이 매년 똑같이 재사용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꿀교양, 출제 경향 등이 널리 알려진 과목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강의평이 매우 낮거나 학생들의 평가가 미미한 강의가 매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 매년 시험 문제가 동일한 교수님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에서 해당 교과목의 족보를 사서 시험을 치는 사람이 많아져 형평성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매년 교양수업의 구성이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강의에 대한 시험 족보와 강의자료 타이핑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그걸 사는 구매자가 생긴다. 판매와 구매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에브리타임 내에서 "영대해피캠퍼스" 라는 게시판을 가장한 족보 장터까지 생겼다. 영대해피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교양 과목의 족보를 판매하고 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년 교수님들의 시험 출제 문제와 강의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족보를 구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적을 동일하게 받거나, 혹여나 족보를 산 사람의 성적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 그 누구도 노력해서 성적을 얻으려 하지 않고 돈으로 사려고 할 것이다.(학생들의 교양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 저하) 이는 분명히 교양 교육의 본 목적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한다.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 주제들이 바뀐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매년 똑같은 수업 내용과 똑같은 수업 방식, ppt 자료 등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수업 구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개설 강좌가 매년 똑같다. 변화가 크게 없어 듣고 싶은 강의가 없을 때도 있다.
- 매년 열리는 과목이 비슷비슷하다. 인강이 인기가 많다면 빌부는 학생들 의견에 따라 대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도도 좋을 것 같다.
- 매 학기 과목의 변동이 거의 없는 느낌이고 몇몇 과목은 학기마다 시험 문제가 유사하여 소위 족보만 있으면 성적을 잘 받게 된다. 매 학기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출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물론 새롭게 개설되는 강의도 있지만 학생들이 교양인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매년 구성되는 강의가 비슷하여 고학년으로 갈 수록 부담이 적고 흥미로운 과목을 듣고싶어 하는데, 관심있는 분야는 이미 저학년 때 들어 흥미 있는 과목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 모든 과목들이 그렇진 않지만 매년 비슷한 구성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족보를 통해 시험 보는 인원들이 있어 성적 받기가 어려울때가 많다.
- 매년 비슷한 구성 : 이로 인해 족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양 수업을 통해 지식을 얻어가려 하지 않는다.

1. 매년 비슷한 구성 14.5%

- 교양수업은 매년 올라오는 수업이 비슷하고, 정작 진짜 듣고 싶은 수업은 교양으로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수업 난이도 부적절 1.9%

- 교양 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학과의 학생이 함께 수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 전공과목과 맞먹는 부담감을 느끼거나 높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과목이 몇 있어 교양과목 수강이 어려움
- 장점과의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다. 교양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의 어느 과목이던 깊이있게 내가 알고, 배우고 싶은 교양을 쌓을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깊이있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전공 공부도 하기 바쁜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1.9%

- 강의 계획서와 불일치한 수업이 몇몇있었다. 또한 교재구입을 했지만 전혀 쓰지 않은 적도 있었다.
- 강의계획서랑 실제 강의하는 내용이 달라 일이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 공부하기 어렵다.
-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4. 수업방식(강의 형태 등) 1.9%

- 현강에는 잘 없지만, 인터넷 강의에선 강의자료(ppt, pdf)에 적힌 그대로만 따라 읽으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 본인이 직접 수강했던 과목 중에선 '키워드로듣는문화스토리텔링(노상래 교수)', '영화속인공지능과인문학(신지숙 교수)' 이 두 인터넷 강의 모두 그러했고 이러한 수업방식이 수업 집중도나 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개설된 강좌가 흥미롭고 다양한 방면에 체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참여형 수업이 적다.

3) 시험/평가 방식

1. 평가 피드백, 소통관련 13.9%

-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하여 더 깊이 있는 질문 등을 하지 않는다.
- 점수정도만 공개하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나 코멘트가 부족하다.
- 교수님이나 조교님마다 내가 적은 답을 보여주시지 않는 분들이 꽤나 있다. 이는 타 대학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한다. 본인이 적은 답을 편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다음 학기에 있을 시험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교수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 인원이 많다면 소통이 어렵다.
- 피드백이 없는게 아쉽습니다.
-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과제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 평가 피드백, 소통관련 13.9%

- 평가피드백부족: 영남대 교양 수업을 들으며 시험 및 과제의 피드백을 남기는 교수님은 거의 드물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한 문제도 모른채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점수조차 공개 안 하는 교수가 대부분이다.
- 평가 피드백 부족: 평가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싶은데, 평가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아쉽다.
- 평가에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 시험 점수를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성적 예측이 불가하며 평가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기회가 있지만 수강 허용 인원이 넘어가면 신청을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시험과 과제에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 소규모로 교양 수업을 진행하며 교수님과 다른 학우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토론도 하면 지식 함양에 더 도움이 될 듯한데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 아무래도 교양은 듣는 학생의 수가 많아 교수자가 피드백하기 어려워 평가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다.
- 아무래도 교양 교육이다 보니 평가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따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
- 시험과 퀴즈가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것 같으나, 그렇게 하는 교수님과 수업들이 많지 않다.
- 피드백이 부족한것같습니다
-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 과제 제출, 시험 직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대부분의 교양 수업에서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명확히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들은 교양 중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가 만점이 아닌 이상 왜 점수가 깎였는지, 시험은 시험지를 보여주며 답안지와 어느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있으면 자신의 학점에 대한 불만이 없어 이의신청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양 강좌에 수강생들이 많은 반면 교수자는 1인인 경우가 많아 개별적 피드백이 힘들다.
- 시험을 치는 강좌는 중간, 기말 고사의 성적이 정량적으로 기록되지만 과제 대체인 강좌의 경우 과제의 체점 방식이나 체점 기준 등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제 과제의 점수 또한 제가 별도로 문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대면 시험의 경우 개인의 점수를 문의가 없다면 항상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문제/시험난이도 8.2%

- 시험시간은 짧은데 문제 수는 터무니 없이 많아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렵다.
- 교양과목 중 인터넷강의의 경우 시험문제가 전년도와 동일하여 족보가 도는 경우가 많다.
- 인터넷 강의 시험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다. 인터넷강의가 아무래도 비대면 시험으로 치다보니 말 그대로 오픈북 시험과 같아지는데, 이러한 현상때문에 문제가 엄청 지엽적으로 나온다. 가령 본인이 들었던 '키워드로듣는문화스토리텔링(노상래 교수)' 중간고사 시험에서 인터넷강의 중 교수님이 흘려가는 말로 딱 한번 언급만 했었던 문제를 내기도 하고, '철도의역사' 강의가 아닌데 경인선의 개통연도 문제가 나온다던지 엄청 지엽적으로 나온다. 또, '영화속인공지능과인문학(신지숙 교수)'에선 영화 속 한 장면의 세부 묘사 등이 지엽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시간이야 많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30문제에 20분이거나 20문제에 15분을 주는 인터넷강의 시험은 말그대로 운이 추가된 스피드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험 문제를 저번 학기와 비슷하게 내시는 교수님이 종종 계셔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
- 시험 문제 : 교양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전공과목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하는 과목도 있으며 시험문제도 그만큼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시험 문제가 매번 비슷해 소위 학생들이 말하는 '족보'라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 어플 "에브리타임"에 족보를 파는 경우를 많이 봤고, 족보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족보를 구하지 못한 학생이 피해를 본적이 있다.

2. 시험문제/시험난이도 8.2%

- 몇년째 같은 수업 구성으로 인해 시험문제가 비슷하여 족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나 교양 특성상 수업 난이도가 쉬워 변별력을 가리지 못해 시간을 매우 적게 주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교양 수업 시험의 평가방식을 방해한다고 생각함.
- 족보가 넘쳐나고 있으며 매 비슷한 내용으로 시험이 출제되어 변별력이 떨어짐
- 몇 강의들은 소위 말하는 '족보'의 문제가 심하다고 느낌, 변별력 없고 매번 같은 문제의 시험이 출제됨
- 시험문제를 찍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수중에 족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족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험문제가 족보를 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같은 경우에는 시험문제가 매년 비슷하게 나와 이러한 안 좋은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교양수업이 매년 유사한 시험문제를 내면서 족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험문제 : 간혹 전공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분량의 과목이 있다. 또 매년 시험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3. 성적 관련/평가방식 3.2%

- 교양교과목의 평가가 시험에 편중된 경우가 많다.
- 지금까지 들은 교양교육과정 강의 경험을 돌아보면 모든 강의가 자신의 성적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 모른채 학점을 받게 되었었음.
- 특히 교양수업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족보를 통해 공부를 하는것을 본다. 이렇게 되면, 족보가 없는 사람은 불리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 생기게 되는것 같다.
- 교양수업의 경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과제 대체로 내 주시는 교수님들이 꽤 많고, 대체로 그런 수업들이 꿀 교양이라고 불린다. 나도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는 교양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과제물이라는 것이 앞서 언급한 족보나 타이핑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과제 점수가 공개되면 정말 나의 점수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되었는지, 점수를 얻었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 교수님이 주시는 점수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고, 학습의 질적인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
- 각 교양과목에 맞는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쉬움

4) 증원/개설 등

1. 강의 다양성 부족/시대 반영 주제 12.6%

- 2022년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이 개설되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파이썬을 주로 다루면서 프로그래밍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 과목 외에 추가적인 트렌드 반영 과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21세기는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더욱더 앓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환경공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았을 때, 전공과목으로만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교양 과목으로 환경오염을 다룬 과목은 없어 아쉽다. 환경공학과 이외의 학생들도 환경오염을 주제로 한 교양 과목을 필수로 듣고, 현대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좋겠다.
- 개설된 교양강좌가 학생들이 관심이 아닌 교수가 강의하기 쉬운 강좌 위주로 개설되어 있다.
- 생각보다 다양한 강좌가 있지 않다.
- 교양 증진을 위한 강좌가 다양하지 않고 수가 적어 수강신청이 힘듦.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매년 개설되는 교양 수업이 한정적인 것 같다.
- 다양성 부족
- 개설되어 있는 강의는 많으나 매년 거의 똑같다

1. 강의 다양성 부족/시대 반영 주제 12.6%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많은 과목이 있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타대학의 경우로 예를 들면 수업을 듣고 엑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만드는 등의 과목을 추가하면 훨씬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 인문이나 자연 분야는 개설된 강좌가 많지만, 법과 의료분야는 너무 편협적이다.
- 개설된 강좌가 다양하지 않고, 인기있는 강좌의 경우 수강신청이 너무 힘듭니다.
- 새롭고 신선한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다른 학교에는 교양 수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예를 직접 실습을 통해 하는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작 실습을 많이 하는 수업 보다는 이론적으로 하는 수업이 더욱 많은 것 같다.
- 제가 생각하기엔 다양한 교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매년 같은 교양 밖에 보여지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 있기는 강의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 때 마다 실패를 하고 낙담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개설하여 다양성을 늘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인기있는 과목으로 수강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인기강좌의 경우 추가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양성이 부족하며 매년 같은 강의
- 개설된 강좌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
- 매년 똑같이 개설된 강좌로 다양성이 부족함. 이전에 스페인어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 교양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개설된 강좌가 없어서 신청하지 못함.
- 개설 강좌가 다양하지 않으며, 여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 개설된 강의가 많지 않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내용의 강의들 역시 많이 보이지는 않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신청을 성공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크다.
- 너무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보이는 교양 강의들이 많다.

2. 증원/분반/폐강 7.1%

- 매년 수강신청 해보면서 직접 느끼지만, 일전에 다양했던 수업은 줄어들고 교양 과목이 획일화되어 가는 느낌이 있다. 사례를 들자면, 본인이 19학년도 2학기에 직접 수강했던 '심리학의이해'는 그 당시에 모두 총 5개의 동일한 교양 수업이 있었고 인기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현재는 동일한 1개의 교양 수업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마저도 미지정 교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인이 수강했던 '이야기로만나는과학(안재석 교수)'이라는 수업 역시 당시 인문학도였던 본인도 어렵지 않고 재밌게 수강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현재는 사라진 교양 과목이다. '뮤지컬과친해지기(남정섭 교수)' 같은 수업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사라진 과목이다.
- 한 강좌에 몰림
-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의 수강 인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 인기있는 교양이나 꿀교양이라고 알려져있는 수업들은 빨리 마감이 되어 강좌 신청에 어렵습니다.
- 특정 과목에 편향되어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을 하려하여 다른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
- 인기있는 과목으로 수강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인기강좌의 경우 추가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용 가능 인원수 등의 기타 요인으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해당 강의를 듣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국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예시로는, 해당 강의 개설을 늘리거나 인터넷 강의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인기가 많은 교양일 경우, 정말 듣고 싶어도 수강신청이 어려워 수업을 듣기 힘들다.
-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절하지않은 강좌가 많음
- 인기 강좌의 경우 인원 증설이 필요할 정도로 신청이 어렵다.
- 교양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후 폐강이 잦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5) 기타

1. 타과 학생들과 교류 기회 부족 2.6%

- 아무래도 필수 교양 과목 자체는 학과 내에서만 같이 수업을 들으니 타과 학우들과는 수업을 통해 친해질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융합 전공이나 마이크로 전공 또는 학생 자체 개설 전공 등이 있지만, 이는 고학년이 되어서야 할 수 있고, 당장의 1학년은 기회가 없다. 실제로 내가 1학기에 들은 '인물 한국사' 역시 타과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강의식 수업 방식이라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는 없었다. 강의식 수업 방식을 토론식 수업방식으로 바꾸거나 타과 허용 필수 교양 과목 수를 늘려 타 학과와의 교류를 늘렸으면 좋겠다
- 타 대학과의 교류가 적기에 관심분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 타 학과와 교류 부족
-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접하고자, 전공과 다른 계열의 교양을 듣는 경험을 하는만큼, 다른 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2.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9%

-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강 신청 시 어려움이 많음.
- 교양교과목의 난이도가 강의계획서에 적힌 난이도와 다른 과목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너무 쉽고, 때로는 너무 어려운데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 예비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양 과목 중 일부분이 미지정 교수로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수는 둘째치고 수강계획서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강신청을 하는 것인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기타 5.2%

- 학점 채우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아무래도 수업의 질은 수업 교과목 이름보다 교수에 따라 바뀌는 거 같다.
- 전공수업을 채우느라 관심사에 따라 교양수업을 듣기 어렵다.
- 완벽해요
- 캠퍼스 면적이 크다보니 전공 수업 끝나고 30분 뒤 시작하는 교양 수업이 있으면 좋은 자리 얻기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태블릿PC나 노트북을 사용해야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에 콘센트가 충분하지 않아 배터리가 없으면 수업을 따라가는게 벅찹니다.
- 교양 강좌는 많은데 항상 학점 받기 쉬운것만 찾다보니까 강의 내용보다 학점을 잘 주시는지가 요점이 되어버렸다.
- 전공 수업 시간과 겹쳐서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할때가 많음

3. 전공교육과정 장점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장점

1. 체계적인(단계별) 학업 커리큘럼 16.8%
▪ 화학과의 경우 1학년 때 일반화학, 2학년 때 물리, 유기, 분석, 무기 화학을 배우고 3학년 때 생화학을 배운다. (일반화학은 교양선택임) 각 화학별 실험이 매 학기마다 편성되어 있다.
▪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화학 때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2,3학년 때 심화 화학들을 배운다고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닌 다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수업이 구성된다.
▪ 교육과정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내용의 단계적 심화가 잘 되어 있다.
▪ 앞서 설명했듯이 개설 강좌가 다양해서 역사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 강좌의 일부('서양현대사', '동아시아사적강독' 등)는 석사인정 과목이기도 하다.
▪ 전공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게 이루어져있습니다.
▪ 전공지식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다.
▪ 우리의 분야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깊이가 있어서 좋다.
▪ 개설된 강좌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순차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전공 지식을 순차적으로 잘 쌓을 수 있다.
▪ 교육과정 구성 체계성: 전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때 이전 학기에 항상 필요한 선행지식을 배우며 다음 전공으로 넘어간다.
▪ 교육과정 구성 체계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공을 들을 때 막힘이 없다.
▪ 전공수업을 들을때, 교수님께서 처음 정해두신 커리큘럼은 항상 잘 지켜시면서 학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부족함 없이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전공은 말 그대로 전공인만큼 교양보다 더욱 교수와 학생의 소통이 원활하고 평가 피드백이 수월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이 학년 별로 난이도와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습과정을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점차 심화되는 수업을 진행하여 전공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문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생 스스로에게도 체감이 된다. 이번 1학기에 2학년 과목을 재이수하게 되면서 내가 점차 심화되는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니 재밌지만 두렵다는 의견을 주는 것으로 보아 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우리 학과가 3가지 분야로 진로 선택이 가능한데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자신과 더 맞는 분야를 찾아나갈 수 있다.
▪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좋습니다.
▪ 전공과목의 구성, 자격증과 설계 부분을 골고루 배운다
▪ 과의 특성과 맞는 필수적인 과목들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습득 할 수 있는 자격증에 도움이 된다.
▪ 추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강좌로 구성되어있음
▪ 실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험 전 이론수업을 통하여 어떤 실험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전공의 내용과 관련된 실험인지와 같은 사전 수업 후 실험을 진행하는 체계적인 구성 덕에 더 머리에 남고 자신이 가진 전공지식과 관련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이 아닌 전공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초반엔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서론을 배우며 그 전공이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어떤 과목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단계적으로 심화함으로 어려운 전공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체계적인(단계별) 학업 커리큘럼 16.8%

- 연주수업, 전공실기 등 실기과목과 화성법, 음악사 와같은 이론수업이 적절히 개설된다. 또한 1학년때는 조성곡 위주고 2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대곡을 접하게 되어서 단계적이라 생각한다.
- 교육과정 구성 체계성(이론-실습 비율 적절, 내용의 단계적 심화)
- 수학같은 경우 베이스가 중요한데 미분1,2 -> 미분방정식 -> 해석학개론 -> 해석학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난이도로 학생들의 이해도로 높여줌
-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수업도 다양해지고 내용이 심화됨
- 교육과정 구성 체계성: 커리큘럼이 짜여서 나오고 교과목 트리에 따라 전공과목을 듣게 돼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어 내용을 따라가기에 용이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교육과정 구성 체계성 : 3학년 1학기 수업을 기준으로 느꼈을때, 부족한 인원의 교수님 수에 비해 과목을 최대한 많이 개설해주셔서 다음학기 수업내용과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다.

2. 교수 역량 만족 16.8%

- 에너지환경 나노소재를 연구 중이신 강미숙 교수님, 무기 고체화학 전공 김영일 교수님, 유기광화학 전공 조대원 교수님, 단백질공학, 생체물질 공학, 바이오센서 전공 김창섭 교수님, 나노소재화학, 플라즈모닉스 전공 김영수 교수님, 표면 물리화학 전공 윤영상 교수님, 나노광전기화학 전공 윤석준 교수님, 나노의학 전공 홍철암 교수님, 유기화학 전공 임희남 교수님까지 화학과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다. 1학기 때 강미숙 교수님의 일반화학(1)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는 화학 내용도 예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통해 쉽게 풀어주셔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다.
- 뛰어난 교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 전공에 관한 전문지식을 뛰어난 교수자에게 배울 수 있다.
- 수업에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교수자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
- 역사학과 전공수업시 강의 자체는 주로 강의식 수업이지만 그 안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 진다. 다만 학생이 먼저 소통을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교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소통은 매우 원활하다. 또한 류준형 교수의 경우 매 학기 종강전 수업에 익명으로 그 학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여 질의응답을 나누는데 익명의 효과로 인해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다. 또한 역사학과 전공의 대부분은 수업계획서에 계획되어 있는대로 수업이 잘 이루어진다. 이에 미리 어떤것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하다,
- 열의 넘치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전공 지식을 깊게 습득할 수 있다.
- 이해하기 쉽고 학생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심
- 교수자 역량 : 학벌과 경력이 대단한 교수님들이 많아 강의의 질이 높습니다
- 전문 지식 습득 및 교수자 역량: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께 심도 있는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교수자 역량: 전공을 알려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매끄러우며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아 보이신다. 믿고 배울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다.
- 수업 방식 적절성 : 학생들의 시점에서 잘 풀어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교수님들이 훌륭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게 눈에 보인다.
-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께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장점인데 같은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여러 교수님이 계셔서 어디에 편향되지 않고 본인과 맞는 수업 스타일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 전공 수업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뛰어난 교수님들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만큼 교수님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과 교수님들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전부 실제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는 실무 이야기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취업 욕구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몇십년을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교수님으로 계셔서 학생으로서,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함

2. 교수 역량 만족 16.8%

- 저희 학과 전공교육과정의 장점은 저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깊게 배울 수 있고 직무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해당 직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해주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느낌
- 각 교수님들마다 다른 심화 전공 지식의 이해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로 생각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가능함.
- 교수님들은 실제로 가르친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경험과 역량이 높다.
- 교수님들께 언제든지 모르는걸 물어볼 수 있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
- 교수님이 말할 것 없이 뛰어나셨습니다. 강의력 모두 좋으시고, 학생들을 위해 강의해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 모든 교수님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지도해주시기 때문에 전공 지식 습득에 큰 도움이 됨, 지도 교수님의 경우 진로와 현재 학생의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심
- 내가 들은 전공 수업은 체육학전공의 전공 수업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 전공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타 과에 비해 우리 과는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통이 곧 학생들의 진로 선택 같은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 교수님이 잘 가르쳐주심
- 교수님들의 열정 역시 넘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고 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 학생들 역시 더욱 더 집중하고 흥미있게 강의를 듣는다.
- '전공생'인 만큼 교양에 비해 교수님과의 친밀도가 높고, 교수님도 학생들을 하나하나 더 의지를 가지고 챙겨주려하시는 점이 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가르쳐 주셔서 전공을 듣는게 의미있다고 느낀다.
-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교수님이 많습니다.
- 수업 난이도가 적절하며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수업이 재밌는거 같습니다.

3. 양질의 수업/전문성 있는 수업 14.5%

-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은 화학의 기초를 5개로 나눈 과목이며, 이 전공들이 바탕이 되어 사회에서 화학을 다루는 사람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 전공내용 심화
- 수업 내용이 자세하다.
-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 매우 적극적이고 수업내용과 시험이 깔끔하다
- 수업내용에 충실하다.
-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다뤄주어 고등 교육과정보다 더 심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수업내용이 좋음
- 전문지식습득: 전공과목은 내용이 깊고 넓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유용하다
- 전문지식 습득: 한 학기를 마치면 그 전공에 관한 지식이 남는 것이 느껴진다.
- 전공지식을 기초부터 다질 수 있다
- 수업내용 충실성 : 수업의 취지에 맞게 좋은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전문지식 습득 :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다
- 실무자가 되기 위한 적절한 과목
- .난이도별로 수업이 잘 나눠져 있어서 좋습니다.
- 전공 수업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게 되고, 현장이나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3. 양질의 수업/전문성 있는 수업 14.5%

- 전문지식을 습득하기에 좋다
- 전문적으로 깊은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전문 지식 습득 가능하다.
- 전공수업을 들음으로써 기사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전공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로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업에 도움이 되고 미디, 작곡, 지휘 등 진로에 있어서 큰 갈피를 잡고 생각하는데 도움이된다.
- 실기 수업만 진행하지 않고 이론 수업도 적절하게 진행하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음. 한국화는 물론이고 서양의 다양한 사조들과 표현방법 기법, 작가 등에 관련한 정보를 배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음.
- 전문지식 습득: 나의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대학교와서 많이 습득했다.
- 전공 과목들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진로 선택 및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
- 전공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하신 교수님들과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실용적인 전공과목 (실무, 자격증 취득 관련) 8.2%

- 통계학과라 ADsP나 사회조사분석사 2급같은 자격증 시험은 배웠던 내용도 있어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통계학과 김병수교수님의 통계조사방법및분석과 시계열자료분석과 예측 강의를 들으며 사회조사분석사 2급과 Adsp 자격증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 특정 과목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모전에 참여하는 데에 유리하다.
-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전공들을 배움을 통해 실무에 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 도시설계 제도나 단지 설계 등 실제로 도시설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면 이러한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 실무역량 강화
- 환경공학과를 전공으로 하면 보통은 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학년에 맞게 전공수업이 만들어져 있다.
- 화학공학과의 경우, 전공 교과목(유기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열역학 등)의 전공과목이 화공기사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은 후에 사회에 진출할 때 자신의 스펙이 되며, 해당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사 자격증과 관련된 전공 수업이 존재합니다(공업화학, 열역학, 공정제어, 화공실무 등). 이로 인해 자격증 공부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수월합니다. 기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화학분석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 일반화학, 유기화학 등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와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관련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독일 등에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전공관련해서 외국의 지식도 알 수 있다.
-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된다.
- 현재 전공과목을 통해 내가 취득하고 싶어하는 자격증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강의가 있다.
- 취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다.
- 자격증 취득 : 이번 기사시험 응시를 하면서 생각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5. 평가/피드백 8.2%

- 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셔서 전공 지식과 수업에 대한 내용과 방식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내용도 어느 교수님이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에 대해 문의를 하면 언제나 평가 방식이나 피드백을 주십니다.
- 과제, 발표, 태도, 시험 등의 여러 요소가 평가에 골고루 반영된다.
- 각 평가에 대한 점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 교수님들의 피드백 및 코멘트가 확실하다.
- 교수-학생 소통: 수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자유로우며 강의 이외의 소통또한 자유롭다.
- 평가 피드백
- 교수와 학생의 소통이 활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본인의 추후 진로와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피드백 받는 수업에서는 디테일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전공 관련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 학과별로 인원에 따라 분반으로 나뉜다던지 수업 수가 많아 그만큼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쉬워 더 양질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전공교육의 경우 교양보다 전문지식을 습득해 갈 수 있고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공정한 것 같다.
- 전공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번의 쪽지시험과 과제, 시험을 친다. 많은 과제와 시험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물어보기 전 교수님들이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평가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신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능력과 학습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
- 시험 치고 자기 성적과 학과 성적을 다 공개하여(이름X) 투명하게 평가했다.
-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수업 끝나고 바로나 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가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또 메일이나 쪽지 등 피드백이 빨랐다.
- 교수님과 메일 이외에도 카톡, 전화로도 소통이 잘 되었다. 학생들과 면담도 정말 섬세하게 해주셨다. 또한 대외활동을 진행할 때도 교수님께서 단톡방을 만들어 함께 지도해주시는등 꼼꼼한 소통이 이루어 졌다. 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자신의 펜을 쥐어주며 공부시키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6. 진로취업에 도움 8.2%

-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는 자신이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은 화학의 분야를 선택해서 전공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화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는 고분자 생화학, 분자 핵산 생화학, 물질대사 생화학, 세포화학, 효소 생화학, 물리생화학, 배위화학, 양자화학, 산업화학, 분석생화학, 유기 구조분석, 유기합성의 이해, 분자분광학, 고체 무기화학, 면역생화학, 화학반응 동역학, 전기화학 개론, 표면 물리화학, 생분자화학, 생화학특론, 유전생화학, 고분자화학, 재료물리화학, 유기재료화학, 고체 재료의 합성과 분석 등이 있다.
- 수업을 할 때 교과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할 때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습득과 후에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로에 필수적인 지식 획득이고, 필드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는 실습들도 배움으로써 좀 더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수학교육과라는 과 특성상 전공 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임용고사에 많은 도움이 됨
- 전공지식을 키워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된다.
- 자격증취득: 과목을 수강하기만해도 자격증이 나오거나, 자격증을 따가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좋다. 또한 자격증과 내용이 많이 겹쳐서 자격증 공부와 병행하기 유용한 과목도 있다
- 전공에 맞는 전문지식을 심도있게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수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 계획을 형성할 수 있다.
-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진로취업에 도움 8.2%

- 전공수업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
- 취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진로와 비슷한 과목을 배울 수 있다
- 진로선택 및 학업 시 도움 : 한 전공에서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배움으로써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를 깨닫게 되고, 진로를 그려나가게끔 한다.
- 교수님의 우수한 실력과 경험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줌.

7. 수업방식 6.4%

- 적은 실습 수업 중 사진 수업과 영상 수업은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었다.
- 실기 전공이라 전공실기과목이 매 학기 포함되어있는데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 학생이 배우며 질문하면 교수자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체로 역사학과 교수님들은 수업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 이론과 실습 수업이 적절히 섞여 학생들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배울 수 있다.
- 학과 특성상 한주에 이론 1번, 실습 1번 인 수업들이 많아 이론적인 부분을 연계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와 가깝게 수업을 해서 전공 지식을 배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 물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습득이 가능하지만, 수업을 듣고 바로바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 습득에 보다 좋은 기회가 된다.
- 실험이나 기타 추가적인 방법들을 통해 수업해주셔서 만족을 느낀다.
-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잘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강의 형식 외에도 학생발표 강의가 많아 새로웠다. 학생 발표를 진행하며 ppt제작과 발표 역량을 키워 1학년 전교생 진로설계 대회에서 도시공학과 학생이 4명이나 수상하였다.
- 학년별로 꼭 필요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쉬웠다. 교재에는 전문 지식을 챕터별로 분류해 도시계획가, 도시계획 방법, 도시계획 역사가 잘 수록 되어있었다.
- 군사학과의 대부분의 강좌들은 학생들의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질의응답과 더불어 교수님들께서 각 학생마다 섬세한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사지리학' 강좌를 진행하신 장순배 교수님께서는 질문과 토의, 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일방적 소통의 강좌보다는 쌍방향 소통의 강좌 형태로 강좌를 진행하신 점이 군사학과 전공교육과정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 개인 역량 강화 6.4%

- 전공교육을 통하여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일반인에 비해 더 깊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다.
- 개인이 공부하는것 보다는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얻게되는 지식이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것 같다.
-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
- 전공에 가장 충실한 교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
- 실제 도시설계가 들의 작품들과 이때까지 도시설계의 역사, 서양의 여러 도시들 모습을 여러 사진 자료와 함께 보며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전공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전공에 관련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독일 등에 유학을 다녀오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전공관련해서 외국의 지식도 알 수 있다.
- 충실한 내용이 있어 전공함량에 도움이된다

8. 개인 역량 강화 6.4%

- 자신의 진로 분야와 적합한 학과의 전공을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해당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 특성상 자신의 작품을 많은 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1학년때부터 4학년때까지 다양한 수업에서 작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됨.
-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우며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좋았습니다.

9. 강의 다양성 만족 5.9%

- 우선 개설 강좌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만 보더라도 '서양사의이해', '동아시아사의이해', '한국사의이해' 등의 개론적인 강의가 있기도 하고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한국고, 근, 현대사', '동아시아고, 중, 근, 현대사', '서양고, 중, 근, 현대사' 등 시대별 강의가 있기도 하다. 또, '한국지방사', '한국사회경제사', '조선의정치와문화', '영국의역사와문화', '일본의역사와문화', '서양의인물과사상'와 같이 국가(지방)사, 주제사 등 전공심화 계열의 전공들도 존재하기에 다양성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개설 강좌 다양성 : 전공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강좌가 다양하다.
- 수업 방식 적절성 : 학생들의 시점에서 잘 풀어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수업 내용이 다양하다
- 교육학과 내에서는 교육철학, 행정, 과정 등 여러 분야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전공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 개설된 강좌가 다양하다
- 여러분야의 세부 전공 지식에 대하여 배우고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할 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학과 특성상, 전기-전자-인공지능-기계-컴퓨터 에 관련한 지식을 모두 강의한다.
- 로봇(기계)은 혼자서 설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양한 교과목을 접하며,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볼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혹은 한가지 분야를 토대로 로봇(기계)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양한 전공이 있다

10. 다양한 커리큘럼 2.4%

- 다양한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기에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깊게 쌓을 수 있다.
- 대부분의 강의에서 실무와 유사한 형식의 팀 프로젝트 기획 과제가 다수 요구됨.
- 하나의 전공 안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눠 수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광고, 영상, ux, 그래픽디자인 등 학우들이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실무역량을 강화해주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있어 작업물 퀄리티 상승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능력이 상승됨을 느꼈습니다.
- 다양한 장르의 수업을 맛보기처럼 들을 수 있음. 향후 적성에 맞는 심화 수업을 택하기 좋음

11. 실습과목 관련 1.2%

- 수업 중 딱딱한 지식 자체만이 아닌,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2. 수업 분위기 0.5%

- 우리 과 학생들끼리 학과 교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식영과 어머니, 고모, 이모 등 대부분 가족 호칭을 붙여서 부른다. 이것만 봐도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교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수업 전 학생들과 스몰토크 진행은 물론이며 질문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학생들도 교수님께 예의를 갖춘 선에서 장난도 치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하며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간의 선은 지키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럼없이 교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교수님들도 다가오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맞이해주시니 교육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13. 졸업요건 만족(자격증 취득 등) 0.5%

- 졸업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14. 기타 4.0%

- 저희 과는 완벽합니다
- 영남대 회화과는 타 대학 회화과보다 말도 안되게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때 이 과정을 완수하여 사회로 나간다면 자기주도능력은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작업량 자체도 차이가 나서 영남대 학우생의 장점이자 무기입니다.
- 수업 난이도 적절성 : 너무 어렵지 않고 적절하다.
- 대학 생활의 설계 강좌와 전공 수업이 연결되어 교수와 학생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
- 수업 계획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시며, 내용에 맞게 충실히 수업을 진행하신다.
- 수업만 빠지지 않고 잘 따라간다면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교수- 학생 소통: 나의 전공을 먼저 전공하신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 도움이 된다.

4. 전공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학사제도

1. 전공필수과목 과다 3.0%
▪ 전공필수학점이 많다. 특히 복수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많다. ▪ 들어야할전공이 너무 많다. ▪ 전공필수학점이 조금 과다하다. ▪ 졸업모의사정에 개시된 전공학점을 채우려면 우리과 전공을 거의 빠짐없이 들어야 해서 전공을 선택해서 들을 수 없다.

2. 학년별 전공학점 비율/ 배당학점 관련 2.3%
▪ 디자인미술대학은 전공학점이 2학점이고 18학번 기준 졸업학점은 130점인데 전공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가 적다 보니 오히려 교양수업으로 학점을 채우려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교양수업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공수업에 되려 소홀해지는 패턴을 보았을 때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점이 너무 과다해서 시험기간에 공부가 어렵다. ▪ 도시공학과는 진로에 따라 도시설계, 교통, 환경으로 나뉜다. 진로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3가지 과목 중 하나에 집중해서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싶으나 개설 강좌가 한정적이라 전공 최소 학점을 맞추려면 선택이 아닌 거의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만 이수가 가능한 정도이다.

3. 교육과정편람 재정립 1.6%
▪ 트렌드에 맞는 전공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이 실무에 나갔을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매년 강좌의 구성이 같아 아쉽습니다. ▪ 변화가 있는 과목도 있지만 대부분 변화가 적습니다.

4. 강의 계획서 부실/불일치 0.9%
▪ 이번 2학기 예비 수강신청을 할 때 손승회 교수님의 '일본의역사와문화'라는 수업을 들을까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작년에는 블렌디드 수업이었기 때문에 통학하는 입장에서 편하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수업형태란(비고란)에 블렌디드가 안적혀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강계획서를 봤는데 수강계획서는 작년처럼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역사학과 과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수업형태란에 블렌디드가 적혀 있지 않으면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라고 말했었고, 결국 본인은 그 수업을 예비 수강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에 다른 학우에게 듣기로는 알고보니 교수님이 블렌디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우리가 과사에 말을 하고 난 뒤에야 수업형태가 블렌디드로 바뀌었다. 이처럼 몇몇 개의 강의계획서가 작년과 동일하거나 수정이 되지 않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5.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0.9%
▪ 입학 후 설명회에서 urp의 활용과 졸업과 관련하여 학점에대한 설명, 여러 제도 등을 소개해주면 좋을 듯 하다.

6. 학사제도 기타 1.6%

- 채워야 하는 전공 학점이 많고 강좌가 제한된다.
- 전공필수같은 과목은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하는데 학기별로 강좌 수나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표 짜기가 특히나 힘듦

2) 수업운영

1. 수업 피드백, 소통 5.2%

- 중간, 기말고사는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안내해주셔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외 과제나 출석, 팀프로젝트의 경우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피드백을 주지 않으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 이따금 과제 평가까지는 해주는 교수님(황혜진 교수, 최온 교수 등)은 계시지만, 대부분은 시험문제 피드백은 물론, 과제 피드백도 안해주신다. 전공을 3년 배우면서 한번도 시험 문제를 피드백 받은 적이 없었다. (현재 본인이 복수전공하고 있는 '문화인류학과'에서는 시험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 평가피드백부족: 중간, 기말, 과제 점수도 공개하지 않은채 최종 학점만 부여하는 교수가 너무 많다. 이를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는 교수들도 있다
- 평가 피드백 부족 :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평균 점수 등을 안 알려주시는 교수님들이 있다.
- 평가 피드백 아예 없음. 매년 시험문제가 똑같음. 족보가 있기에 부공정함.
- 대부분의 과제가 문제풀이 형식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종종, 과제와 보고서에 대한 답안이 올라오지 않거나 피드백 없어 점수만 감점을 당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최종 학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여전히 피드백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든 교과목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와 과제 답안 공개 필수화를 통해 개선하길 바랍니다.
- 교수자들의 원활한 피드백이 있다면 학생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다.

2. 수업방식(강의형태, 진도 등) 3.0%

- 이론 위주의 수업이 많다. 같은 수업이 반복되고 새로운 수업 개설이 되지 않아 현재에 맞지 않은 수업이 대다수이다. 교수나 강사를 더욱 채용해 수업의 다양성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 역사학과의 전공 시험은 대부분 말그대로 그 주제에 관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외워서 적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최온교수의 '사학개론', '서양중세사'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교수가 그렇다.) 그만큼 외워야 할 양도 많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고는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만 해서 치는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이다.
- 매해 똑같거나 비슷한 구성의 강좌 열림
- 내용이 매년 같다

3. 수업 안내 부족 2.3%

- 제가 1학년이라 아직 세부적인 화학을 배우지 않아 기초 화학들을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수업을 위해 고학년 커리큘럼을 자주 찾아봤는데, 강좌 제목만 보고는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베너에 들어가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한 한 줄짜리 요약본만 있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어도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걸 알고 가면 좋은지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재의 목차 정도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3. 수업 안내 부족 2.3%

- 강의계획서 부실: 특정 몇몇 과목들은 강의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계획서가 있다고 하여도 그 계획대로 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실기 과목이라 어느정도 계획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수업 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수업 내용에 있어 의문이 많이 들게 됨.

4. 강의자료 0.9%

- 전공 특성상 기반이 되는 지식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강의 자료나 과제들이 비슷합니다.

3) 강사진/교수진

1. 강사진/교수진 관련 2.9%

-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고 모든 학생들이 들릴 수 있게 정확한 발음과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 전공 특성도 있지만 평가자 주관성이 너무 많이 반영된다.
- 다양성도 부족하지만 시간대가 한곳으로 몰릴 때가 많다. 문제는 교수님들이 부족한 것도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 학교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 것 같다

4) 강의질

1. 수업 난이도 2.9%

- 때로는 수업에서 요구하는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하기도 한다. 특히, 이전에 배운 지식의 내면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가기 버거워지는 전공수업이 존재한다.
- 어렵다
- 수업 난이도 적절성 : 타 과와 함께 듣는 저학년 후배들의 고충 중 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심자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강의를 원한다고 했다.
- 수업의 난이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경우 따라가기 힘들다

2. 수업 전문성 미흡 1.6%

- 수업내용은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 깊지않다.
- 얕은 지식만을 배우게 됨: 과 특성상 여러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여러 전공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배우기 때문에 전문적인 스킬을 알 수 없게 됨. 때문에 한 학기만 지나버려도 배웠던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허다함. 예를 들어 포토샵을 배운다고 하였을 때 한 학기만으로 절대 전문적인 스킬을 배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만 포토샵 수업을 배울 수 있어 4학년 졸업 작품을 할 때 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5) 시험 운영

1. 성적관련 5.8%

- 시험과 과제 등에 대해 피드백이 있다면 추후 전공 과목에도 더욱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전공 지식 함양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 매년 똑같은 문제로 인해 족보를 구한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아도 시험을 잘보는 상황이 발생함. 매우 불합리적이라 생각함.
- 학과 교수님이 부족하여 원래 있던 과목이 없어지고, 홈페이지 교육과정에는 있던 과목이 열리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어느부분에서 점수가 어떻게 채점되었는지 추후 피드백이 필요함
- 중간/기말시험, 과제, 교수님의 기타 평가 부분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적지 않다. 성적의 투명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 평가 후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 자신의 학점이 왜 이렇게 나온지 납득하지 못 하는 학생이 다수 존재합니다. 점수를 모두 알려주어 평가를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점이 '평가의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 시험 점수, 과제 점수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평가 방식이 투명한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굳이 따로 연락드려서 교수님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평가 방식에 관한 의문들이 뒤에서 이야기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 평가 방식 적절성 0.9%

- 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의 경우 전공 실기과목이 있는데 전공 실기과목의 실기 시험 점수로 학점을 매기는 것이 아닌 교수님들 및 조교님들의 연주회, 학교 행사들에 불참을 하게되면 학점이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시간과 겹쳐 부득이하게 연주회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실기 점수가 깎이는 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재이수가 불가능한 점 또한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6) 개설/분반/폐강

1. 강의 다양성 부족 26.4%

- 교육과정과 다르게 개설되지 않은 전공으로 인해 전공의 선택지가 적고 부족하다.
- 일반화학실험 때도 겪었던 일인데, 같은 실험을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이 아쉽다. 이는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연세대, 성균관대 등 타 대학에서도 똑같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같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매년 비슷한 구성의 실험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대학의 독창성을 알릴 수 있는 심화된 실험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편성하여 교육과정에 넣는 것을 건의한다. 1학년의 경우 아직 배운 것이 없어 실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너무 많고, 아는 것이 적어 이론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론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 개설 과목들이 너무 이론중심이고 트렌드와 좀 거리가 먼 느낌이다
- 개설된 전공 핵심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 수강신청하기 힘들다.
- 개설 강좌가 매우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
- 교수자의 전공 및 분야에 따라 배울수 있는 전공수업이 한정되므로 특정 학과의 경우 중복되는 분야의 교수자님이 많은 경우 강좌가 특정 분야로 치우쳐져 있다.
- 전공강좌가 체계성을 갖고 있는 반면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강의 다양성 부족 26.4%

- 전체적인 과목 수가 너무 적고 일부 강의는 피드백이 적거나 없다. 또한, 내용 이해보단 문제 풀이식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학사 및 교육과정 안내 부족: 매 학기 개설되는 전공 수업이 한정적이고 학사 일정 그대로 수업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 또 2년에 한 번 개설되는 전공 수업도 있어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점이 아쉽다.
- 강좌 개설이 적어서 수강신청이 어려움
- 학과 신설 후 한번이라도 개설되었다가 소멸된 과목을 포함해 역대 개설된 과목 51개 중 환경분야 전공교과목은 2개(녹색성장사회의이해, 지속가능한환경관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19학년도 1학기를 끝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고 있다.
- 강좌가 많이 없어 선택폭이 좁다
- 실습과목 부족 : 자격증 취득에 대비하기 좋은 실습과목이 없다. 타 학교에는 한식조리실습, 양식조리실습 등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실습과목이 한 두개정도 있지만, 본교는 하나도 열려있지 않다.
- 실습과목부족: 직접 실습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교직 특성 상, 현장 실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사실 상 교육실습 과목 말고는 이를 다루는 과목이 없다.
- 전공핵심과목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공선택 과목이 많이 있는데 전공핵심으로 변경이 가능한 과목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 학과의 경우 신설 학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수님 인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열리는 강의수가 학생 인원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들을 수 있는 전공은 줄어들고 학생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전공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고 학점을 챙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교육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재수강이나 재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과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설된 강좌가 다양하지 못하고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에도 수강신청이 어렵다.
- 개설된 전공 강좌가 부족했다. 특히 1학년들은 전공 과목이 적어 전공 적합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늘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 개설 강좌 다양성이 부족하다
- 교수님이 적어 강좌가 적다.
-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수에 비해 강좌 허용 학생수가 적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다양한 수업을 선택하여 듣고 싶은데 수업이 적어 관심없는 수업도 들어야한다. 수업 구성도 비슷하여 '미디어 글쓰기와 말하기', '온라인 및 모바일 저널리즘의 실제'처럼 강의 이름만 다르고 배우는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있다. 또한, '영상기획의 실제', '영상제작실습'도 같은 경우다.
- 전공 교육 과정에는 있는 과목이 실제 개설되는 경우가 별로 없음 (강의 수 부족)
- 소속 학과인 사회학과의 경우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 관련 과목이 다소 적은 듯하다. 이는 전임교수님들이 다른 학과에 비해 없으신 탓에 수강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을 모셔와 사회학과의 학생들에게 사회학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 등으로 사회학과의 전반적인 전공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공교육과정과 더불어 연계전공을 사회학과 학우들은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공과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
-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사라진 전공 과목으로 인해 학과 내에서 학점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또한 실습 과목들의 정원이 적어 수강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다. (ex: 2022년 2학년 전공 과목인데 정원 초과로 인해 해당 학년에 수강하지 못하고 2023 3학년 때 수강. 그러면 2023년 2학년은 또 수강하지 못하여 악순환의 연속)
- 경험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이다.
- 사회학과에 소속된 교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전공 과목을 유지하는 것을 더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2학기 과정이었던 강좌가 1학기 과정으로 줄고, 있었던 과목이 사라지는 등 개설강좌가 줄었다. 특히 국악전공, 작곡전공 으로 나뉘어있는데 작곡 전공의 경우 작곡 관련 강좌가 줄어서 많이 아쉬워한다.
-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배워보고 싶었던 과목 역시 없어 전공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강의의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

1. 강의 다양성 부족 26.4%

다.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 개설된 강좌는 다양하나 몇몇 강좌들은 세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고 느꼈던 점이 지금까지 전공 강좌를 들으며 느꼈던 몇 안되는 단점입니다.
- 전공 특성상 개설 강좌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에 전공 내에서의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 소수과라서 개설된 강좌의 수가 너무 적다.
- 개설강좌 다양성 부족: 아무래도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어서 과의 전공지식중에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도 커리큘럼 상의 주요 과목이 아니면 수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 개설된 강좌가 부족하다
- 트랜드에 따른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ex : 로봇, 전자 등)
- 개설강좌 다양성 부족 : 세 분의 교수님께서 졸업학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해주고 계신다. 하지만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개설되는 모든과목을 다 수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실습과목 관련 12.9%

- 화학과에 편성된 실험 과목으로는 분석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생화학실험이 있다. 화학의 기초를 5개로 나눈 각 기초화학의 실험들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강좌가 편성되지 않아 실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화학은 더욱이 실험 과목이 중요하다. 이론이 일주일에 2번인 만큼 실습 과목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화학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론과목에 비해 실험과목의 수와 수강인원이 적어 배운 내용을 실습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실습 또는 실험 과목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학과라고 해서 실습수업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융복합이 중요한 시대에 어불성설인 것 같다. 물론 역사학과 역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존재했었으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학과와 유사밀접하며 고고학을 배우는 '문화인류학과'에서도 이번 2학기에 '로컬콘텐츠캡스톤디자인' 수업이 개설되어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실무능력을 익히는 만큼 역사학과에도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다시금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 조금 더 다양한 실습수업은 학생들의 역량 증진에 도움된다고 생각함
- 1학년이기에 전공 기초 이론에 관해 배우고 있어 실습이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실습과목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미래에 취업 시 실무에 필요한 실습 관련 강좌의 수가 더욱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 실습 과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 특성상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함으로써 역량을 키우고 싶은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전공수업은 이론으로만 학습하고 외워서 치는등 수업이 끝났을때 많은 지식이 남아있지 않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다.
- 실습과목이 너무 부족하다. 졸업까지 채워야하는 일정 전공학점이 있으나, 그것을 채우려면 교수님께 자리를 열어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하고 어떻게든 한수업이라도 더 듣기위해 힘써야한다. 이 부분이 매년 스트레스였다.
- 실습과목부족
- 3학년부터 실습과목이 있는데 2학년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 타 대학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비교하여 실습과목이 부족하다. 사진, 미디어, 광고 등 분야별 실습과목이 1개씩 존재한다. 하지만 1개는 적다고 생각하여 8학기 동안 분야별로 2개 이상의 실습과목은 들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취업 준비할 땐 실습 과목 같은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단순한 유기 실험 외의 실습 과목이 존재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융합화학전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지 등을 목표로 배우는 전공인데 이와 관련된 전자재료 실험, 반도체 실험 등의 과목이 없어 아쉽습니다.(신소재 공학, 전자공학 등에는 존재)
- 진로와 관련된 실습과목이 많지 않다
- 실습과목 부족: 과 특성상 주로 현장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반해 그러한 현장지식이나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는 실습과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2. 실습과목 관련 12.9%

- 실습을 할수있는 과목이 적다
- 진짜 들을 수업이 너무 없습니다. 실습 시간에 비해 학점이 너무 적습니다. (3시간 수업 2학점)

3. 증원/분반/폐강 10.8%

- 학생 수에 비하여 여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3년간 복수전공을 하면서 타과 및 부복수 여석 문제로 수강신청에 문제를 겪었다. 대형과이고 부복수전공으로 유명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석은 터무늬없이 적었다. 듣고 싶은 수업에 집중하기보단 수강신청에 성공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 이번 학기 역사학과의 전공 수업 여석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35명 정도만 열어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충분하게 전공 수업을 듣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가뜩이나 졸업을 하기 위해선 전공 학점뿐만 아니라 전공핵심 학점도 채워야 하는 데 전공핵심의 수도 적을 뿐더러 여석도 적기 때문에 성적이나 기타 문제가 아닌, 수강신청 경쟁에서 밀려 졸업이 유예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 역사 학과에는 23-2학기 기준 전공 수업은 19개가 개설되었으나 조명근 교수의 안식년으로 인해 국사 강의를 진행할 교수님이 부족하여 개설된 강좌중 국사 트랙의 강좌는 4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학년에 45~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지만 개설된 강좌들의 자과 여석수는 35에 불과하여 강좌 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 2학년 전공 수업인데도 정원이 많지 않아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 인원이 다 차면 수업을 듣고싶어도 못듣게돼 슬퍼요
- 강좌 신청 어려움:원하는 강의를 못들을수도 있다.
- 인원이 적어서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꼭 들어야할 수업을 못듣습니다.
- 한 수업 당 적정 인원이 20명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나(이보다 많으면 피드백 수업 시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어 20명이 적정이라 생각합니다) 수요가 몰리는 수업은 강의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요 파악 후 더 많은 분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어하는 강좌의 인원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복학생 및 다른 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원이 항상 초과되어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다.
- 우리 에너지화공전공은 강좌 좌석이 부족해 수강신청을 실패하면 전공을 듣고 싶어도 다른 전공의 강좌를 들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전공이 아닌 교양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점이 매우 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강좌 좌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공신청가능인원이 적어 신청하기 어렵다.
- 학생들은 수강신청 때마다 수강신청이 실패할까 걱정합니다. 해당 과목 수강신청 실패 시에는 교수님께 여석 증원을 부탁드리거나, 해당 과목이 열리는 다음 년도-해당 학기에 그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화학공학과의 경우 해당 학년-학기에 열리는 전공 과목이 다음 학년-학기와 연계되는 과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격증 일정과 학교 일정을 맞춰 짜놓은 계획이 수강신청을 실패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강의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해당 강좌를 더 개설하거나, 인터넷 강의 방식을 채택하여 수강 인원 제한을 없애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전공과목을 듣기 위해서 우선 수강꾸러미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신청 전공과목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전공과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기타

1. 타 학과 교류 부족 5.4%

- 아무래도 전공 과목은 화학과 내에서 듣는 것이다 보니 타 학과와의 교류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실습 같은 과목은 물리학과나 화학공학부 등 결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배우는 학과와 함께 하여 타 학과와의 교류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타과와의 교류를 통해 좀 더 넓은 진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공교육을 심화하게 됨으로써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 도시공학과에 전과를 한 학생이 아니라면 타과학생을 찾기 힘들었다.
- 아무래도 전공이다보니 다른 학과와의 교류가 부족하다
- 타 학교와 교류 부족: 막학기에 교류를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 타학과와의 교류나, 강좌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다보니 타 학과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2. 전공 강의 시간대 편향 5.1%

- 전공 강의 시간대가 오전에 많이 몰려있어서 학교와 집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전에 수업을 듣기도 힘들고, 오후에 교양이 있으면 수업과 수업 사이의 텀이 너무 길어 힘듭니다.
- 수업시간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다.
- 학생들이 시간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이 분배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강의 개설 시간대가 교수님에 따라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위주로 강의를 하는 손승회 교수님은 본인이 입학한 19년도부터 매번 빠지지 않고 09시 수업이나 10시30분 수업에 배정되었고, 반대로 동아시아 고중세사를 위주로 강의하는 류준형 교수님이나 한국근현대사를 위주로 강의하는 조명근 교수님은 매번 오후 15시 이후 시간대로 수업이 개설된다.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산다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만, 나와 같이 멀리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 세 분의 교수님 수업을 한번에 듣지는 못할 것이다.(요일도 뒤죽박죽이다) 본인은 19년도 1학년때 손승회 교수님의 '동아시아의이해' 수업을 듣고 싶어서 그 수업 하나만을 듣기 위해 1시간 거리를 매번 통학해서 09시에 왔었고 그 한 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바로 하교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역사학과는 정교수님들의 강의 개설 시간대가 엄청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강의 시간대가 아침에 몰려있어 힘든것같습니다 .
- 전공 수업이 있는시간에 교양이 몰려있는 등 학점을 채우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 전공은 교양과 다르게 강의 시간대가 거의 정해져 있다. 교양은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시간대가 다양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전공은 학년 별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사람이 적은 소수과의 전공시간이 다른 대형과와 매우 편향되어 있다. 이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3. 커리큘럼 2.2%

- 딱히 전공 수업에 대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우리 식품영양학과만의 선수/후수 과목 이다. 선수/후수 과목은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후수 과목으로 지정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인데, 영양사 면허를 위해 점차 심화되는 내용을 배우는 우리 과의 특성상 학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선수 과목과 후수 과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선수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수강 인정을 받지 못하면 후수 과목 수강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졸업의 시기와 졸업 시험 자격 미달 및 면허 시험 자격 미달 등 많은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은 전공 수업을 거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 휴학을 해야 하는데, 선수/후수 과목 때문에 우리 과의 휴학 기간은 1년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수 과목의 수강 인정이 되지 않아 휴학을 결정하는 특수한 경우 외에도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로에 대

3. 커리큘럼 2.2%

한 경험을 쌓기 위해 / 취업 준비를 위해(인턴십,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휴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하지만 6개월 휴학과 12개월 휴학은 기간부터 두 배 차이가 나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우리 과에서, 동아리, 연구실 등 부가적인 활동을 스스로 해보지 않는 이상,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로봇을 설계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함.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졸업이 다가오는 학기 (3-2, 4-1)에 이뤄지는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자신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조차 감을 잡지 못하거나, 역할이 부여되더라도,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가장 동기들끼리 대화에서 자주나오는 주제입니다. 2022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줄어들면서 학기당 성적우수 경우 21-> 20, 최소 18->17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3학점 6과목을 들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3학점 5과목하고 2학점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학년부터 교양학점은 대부분 다채워 교양보다는 전공을 들으려하는데 수학과에는 2학점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동기들의 생각으로는 위의 장점이유에서 설명한 미분체계랑은 달리 2학년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들어가기전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선배한테 듣고 인지해서 교양수업으로 행렬과 행렬식을 듣고 오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아예 그런 정보를 모르고 바로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2학점 전공으로 '행렬과 행렬식'과 같은 과목을 1학년 2학기에 개설해주시면 좋은 해결방안이 될것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4. 기타 4.0%

- 우수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단점이 없습니다.
- 다른 학교에 비해 임용 준비를 하기 어렵다
- 강좌신청의 어려움: 심리학과의 경우, 과목 수가 적음에도 과목별 열리는 여석이 부족하여 신청의 어려움이 많다.
-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지 않고 수업에 임하여 수업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듣고 싶은 교수님 수업을 수강신청에 실패하게 되면 들을 수 없다
- 주로 음악학부에서는 음악과(국악-작곡) 외에 기악이나 성악과와 교류가 거의 없다. 수업 외에 교류할 수 있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특정 교수님께서 과목을 과도하게 맡으셔서 매 학기 열리는 강좌가 다르다. 주로 격년으로 열려서 잘못하면 졸업때까지 원하는 과목을 듣지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5.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질문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전반적 만족도

1. 추천/비추천 강의 10.3%
▪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교양 수업 추천, 개선점 ▪ 지금까지 들어본 교양 수업 중 어떤 과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나요? ▪ 교양과목 추천 ▪ 요즘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다고 생각되는 교양을 알고 있나요? ▪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교양과목은 무엇인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영남대 학생들이 많이 듣고 싶은 과목과 관련된 강의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 ▪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아나요? ▪ 요즘 학생들이 꺼려하는 분야를 아나요? ▪ 우리가 전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요? ▪ 본인이 흥미가 있는 교양 과목의 분야는 무엇인가요? (ex. 인문 사회, 외국어, 자연 과학, 컴퓨터 공학,...) ▪ 가장 듣고 싶은 교양 강의는 무엇인가요? ▪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어떠한 강의를 선호하는가요? ▪ 새로운 교양과목이 생긴다면 어떤과목을 듣고싶나요? ▪ 현재 개설된 교양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가요? ▪ 교양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그 수업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학생들이 다양한 교양수업중 특정 수업을 기피하는 이유? ▪ 자신이 선호하는 교양수업의 형태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인강, kmooc, 대면등) ▪ 학교 내에 있으면 반드시 들을 것 같은 교양 수업이 있나요? ▪ 현재 우리 학교의 교양교육 과정중 얻고 싶었던 지식들을 얻고 배울 수 있었던 강의는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본인이 들은 교양 중 가장 추천하는 교양과목이 무엇인가요? ▪ 후배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전공과목은 무엇인가요? ▪ 학과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 듣고 싶지 않은 교양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교양 강좌를 알고 있나요 ?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 강의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이 관심있어하는 진로와 전공분야를 알고 있나요 ? ▪ 본인이 추천하고자하는 교양과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교양 수업을 들으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수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양 수업을 들으며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수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수업 만족도 5.8%

- 이때까지 이수한 교양 과목이 본인의 흥미/관심 충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삶의 질을 높이거나 관심이나 흥미를 충족한 경험이 있는 교양이 있나요?
-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 배우고 싶은 교양
- 관심있는 분야 등
- 교양과목의 다양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 교양수업을 통해 개인적인 관심사나 역량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세요.
- 전공 수업 관련해서 불만사항
- 교양 과목 수강 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나요?
- 대학교에 와서 많은 지식을 쌓고 졸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식보다는 성적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라 힘듭니다.
- 교육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이 1학년 교양 '대학생활설계'에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됐었습니다.
- 이때까지 들은 교양 중 가장 만족한 교양은 어떤 분야였나요?
- 흥미가 생긴 과목에 대해 교양을 신청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셨나요?
- 교양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학교 교육과정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나요?
- 수강했던 교양 강의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지금까지 수강했던 교양 수업 중 가장 만족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3. 교과목 선택 이유 5.1%

-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 교양 수업을 선택하는 면담자만의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주세요. (학점취득의 용이성/본인의 흥미 고려/공강 등의 시간표 고려 등)
- 교양 수업 선택시 우선 고려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 교양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양 과목 수강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고 수강을 하셨나요?
- 전공 중에서 이전과는 다른 깨달음이나 다른 방향을 선사했던 과목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학생들이 듣는 교양 수업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
- 자신이 이때까지 수강한 교양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교양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교양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시간, 학점, 관심 등)
- 주로 어떤 교양을 선호하는가요 ?
- 교양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게 어떤 것인가요?
-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과목을 알고 있으신가요 ?
-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양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교양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양 과목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 지식 함양 교양 강의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 중 어떤 강의를 원하시나요?

4. 교양 장단점 4.5%

- 교양 수업을 들을 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4. 교양 장단점 4.5%

- 교양 강좌를 들으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나요?
-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 : 장단점 설문
-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강좌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교양강좌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 수업의 형태와 그 이유?
- 전공 및 교양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 전공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과 만족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우리 학교만의 교양 과목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만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배운 교양과목 중 칭찬할 부분이 있었다면?
- 자신이 배운 교양과목 중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5. 교육과정 개선 2.7%

- 전공 과목을 듣기 전 교양 과목으로 전공과목의 기초를 배우고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양 수업에서 바뀌었으면하는 부분이 있나요? (ex) 시험 방식)
- 교양 수업을 들을 때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 전공과목을 수강할 때 개선되었으면 하는 수업방식 혹은 새로 도입되었으면 하는 수업방식이 있나요?
- 전공학과 중에 좀 더 개선되거나 추가 되었으면 하는 과목
-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교육의 방식은 어떤건가요?
-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요? (장점 단점 등) 만약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하신 해결방안이 있나요?
- 교양수업이 개선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나요?

2) 학사제도

1. 교양관련 제도 1.7%

-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과목이 있나요?
- 졸업 요건으로 교양 최대 학점이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부족, 만족)?
- 한 학기 최대 학점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부족, 만족)?
- 교양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학점들 중 몇학점이 좋나요? 예를 들어 1학점 ,2학점,3학점
- 본 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2. 시간표 1.4%

- 전공강의 시간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나요?
- 교양 과목을 신청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ex. 시간표, 팀플, 과제,...)
- 듣고싶은 교양과목이 학과시간표와 겹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 교양과 전공 수업의 시간이 겹친 적이 있나요?

3) 수업운영

1. 수업방식 6.2%

- 어떤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시나요?
- 강의식 수업 방식과 토론/팀 프로젝트식 수업 방식 중 선호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인가요?
- 블렌디드 러닝, 액티브 플립드러닝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런 인터넷 강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K-MOOC 강좌를 들어보셨나요? 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양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으로 TA 수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학생마다 차이있음), 이 TA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수강하신 적이 있다면, 본 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강의식, 체험식, 발표 및 토론식 강의 등 어떤 수업 형태의 교양이 교양함양에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 교양 수업의 수업 방식 중 원하는 수업방식이 있나요? 있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주세요. (강의식, 블렌디드, 토론식, 발표 등)
- 어떤 수업 방식을 원하시나요?
- 원하는 교양 수업 방식이 있나요?
-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교양수업 속 자료들이 충분히 최신화 되어있다고 느끼나요?
- 가장 좋았던 교양수업방식은 무엇이었나요?
- 기존 대부분의 수업이 듣기만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토론이나 토의 형식을 어느정도 결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 바꾸고 싶은 수업 방식이 있으신가요?
- 혼자서 과제하는 것과 여럿이 함께 과제를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 수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양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나요? (예: 블렌디드 수업, 강의식 수업, 참여형 수업 등등)
-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2. 수업 난이도 2.0%

- 현재 이수한 교양 과목들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양 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요?
- 교양 과목을 이수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자신이 듣고 있는 교양의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수업 난이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수업 피드백, 소통 2.0%

- 매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나올 때마다 본인의 시험지를 보면서 교수님께서 피드백해 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결과를 알고 싶나요?
- 강의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미일치해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 시험이나 과제의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 모니터링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학생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 같은 게 있나요?
- 전공수업의 시간이나 교수님들의 피드백 등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나요?
-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있나요?

4. 강사진/교수진 관련 1.0%

- 미지정 교수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문제인가요?
-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원할해지고 전공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우리대학은 타대학에 비교하면 교육과정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올라오는 수업이 비슷하고, 교수님 수가 부족한 과가 많아 교양 수업의 다양성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대형과 말고도 작은 과의 교수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수가 적으면 한 교수님이 담당해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많아질 수록 수업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5. 온라인 강의 관련 1.0%

- 온라인(비대면)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어떤게 있을까요?(지엽적인 것 말고)
- 인터넷 강의와 교양과목의 장단점
- 다수의 학생들이 패스이기도 하고 온라인강좌는 그냥 틀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팁들을 놓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예: 온라인강좌시청후 간단한 퀴즈풀기)

4) 과목개설/증원/분반

1. 강의수요 관련 13.4%

- 배우고 싶은 전공수업이 있나요?
- 어떤 분야의 교양이 더 생겼으면 좋겠나요?(자세하게, 그 이유도)
- 타 대학과 비교하여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 과목이 있나요?
-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요즘 트랜드에 맞는 교육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라 생각되나요?
- 본인이 듣고 싶은 교양 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 어떤 분야의 강좌가 새로 개설되기 원하나요?
- 당신이 수업을 개설한다면 어떤 수업을 개설할것인가요? (본인 전공관련)
- 정치외교학과 학우들에게 필요한 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최근 트랜드에 따라 화제가 되고있는 교양이나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교양, 분야가 있나요?
-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교야오가목도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수학과 예: professional english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외에도 더 필요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 대학교에 오면 성적이나 학점 상관없이 듣고싶었던 교양이 어느분야인가요?
- 요즘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양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배우고 싶은 종류의 지식이 무엇인가요? 경험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 요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양을 알고있나요?
- 어떠한 교양 과목을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 개설되어있지 않은 교양이나 전공 중, 배워보고 싶은 수업이 있나요?
- 내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어떤 걸 가장 배우고 싶나요?
- 본인이 들어보고 싶은 교양 과목이 있나요?
- 듣고 싶거나 개설됐으면 하는 강좌가 있나요?

1. 강의수요 관련 13.4%

-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 과목은 무엇인 것 같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양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나요?
- 흥미있어하는 교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다양한 트렌드에 맞춰 배우고 싶거나 개설됐으면 하는 교양강좌가 있을까요?
-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 과목이 있나요?
- 자신이 전공과 관련해서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거나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 개설되었으면 하는 전공 과목이 있나요?
- 다양한 트렌드에 맞춰 배우고 싶거나 개설됐으면 하는 교양강좌가 있을까요?
-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양 수업이 뭐가 있을까요?
- 대학생활 중 가장 듣고싶은 교양은 무엇인가요
- 요즘 사회에서 어떤 분야가 유행하고 있나요? 면담자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 자신이 배우고 싶은 교양 과목이 있을까요?
-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교육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교양 수업에서 듣고싶은 분야가 있나요?
- 듣고 싶은 분야의 교양수업이 개설되어 있나요? 없다면 듣고 싶은 교양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2. 강의 다양성 5.1%

- 개설된 교양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양 수업이 개설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양에서 흥미를 느낀 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어떤 분야의 교양이 개설되었으면 하나요?
- 교양으로 이수하고 싶었지만, 교양으로 개설되지 않아 타 전공 강의에서 찾아본 강의가 있습니까? 동시에 타과허용이 0이어서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강의가 있었습니까?
- 우리학교를 다니며 개설되었으면 하는 강좌나 교양이 있나요?
- 새로 개설됐으면 하는 교양 수업이 있나요?
- 어떤 교양이 새롭게 개설되면 좋겠나요?
- 더 개설되었으면 좋겠거나 다양성이 추구되었으면 하는 교양 분야가 있을까요?
-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양 수업이 있나요?
- 교양과목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대부분 만족을 느끼고 있음
- 전공 과목 개설 강좌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흥미가 있어서 배워보고 싶은데 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 되지 않은 분야가 있나요?
- 교양에 중요한 법, 세금 등의 내용을 다루는 교양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악,작곡 수업을 섞어서 듣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수강인원 2.7%

- 수강여석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이 교양은 여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수업이 있나요?
- 전공수업의 여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여석을 늘릴 시 인기가 많은 전공 과목에만 사람이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수강인원 2.7%

- 일명 '꿀교양'을 잡기 위해 매 수강 신청 때마다 서버도 터지고 힘든데, 이를 위해 수강 꾸러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강 꾸러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수강 꾸러미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 교양의 경우 전년도에 수강꾸러미에 넣은 학생수를 조사하여 그 다음 학기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수강인원을 설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다보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을까요?
- 예비수강신청(수강꾸러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석 부족으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비수강신청(수강꾸러미) 진행 후 강의실 여석을 더 늘리거나 동일 강의 편성을 늘려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시험

1. 평가방식, 성적 산출 2.0%

- 형평성에 어긋낫다고 느낀 교양 강좌의 평가 경험이 존재할까요?
- 교양수업을 수강할때 교양내용과 비슷한 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루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세요.
- 교양수업의 평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시험마다 개인의 성적을 공개하는 교수님들과 공개하지 않으시는 교수님들 두 유형의 교수님들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 교양과목의 족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양 시험을 보면서 불편함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2. 시험 변별력 1.7%

- 시험 자체로 본인이 100% 발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비슷한 구성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과연 학생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 족보를 타는 강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학점만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족보를 타는 강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 교양 수업 시험에 소위 ""족보"" 라는것이 존재하는지 알고 있나요?
- 현 (역사학과)전공 시험 문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바꿔야 할까요? (변별력이나 전공지식 습득 등등)

6) 필수교양과목

1. 필수교양 필요성/해제 1.3%

- 우리 학교에는 약 250개 정도(1,2학기 중복 포함)의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양 선택 과목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는데, 4개의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장의 단계이지만 이것을 필수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양 필수 과목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필수교양 필요성/해제 1.3%

- 실용영어, 융복합글쓰기, 도시의 이해, 통계학, 경제학의 이해등) 도시공학과의 교양 필수과목 선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과정 중 필수로 지정됐으면 하는 교양필수과목이 있나요?

2. 학과별 필수교양 1.0%

- 학과 지정 교양 필수 과목 선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통 교양으로 사회공헌과 봉사, 대학생활설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과목이 있는데 더 추가해야하거나 보완해야할 공통과목이 있을까요?
- 1학년 공통 교양으로 지정된 사회공헌과봉사, 대학생활과설계, 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 과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더 추가되어야 할 과목이 있을까요?

3. 필수교양 관련 기타 0.7%

- 교양필수과목 수업이 교양 함량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있습니다. 그에 맞춰 교양과목도 바뀐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 practice english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이외에도 더 필요한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7) 학과 및 전공

1. 커리큘럼 관련 5.8%

- 전공에 대한 실습과목이 필요한거 같나요?
- 현재 전공 수업의 분배도가 적절한가요?
- 수강신청이나 강좌가 어떤방향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나요
- 미술(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꼭 해보고 싶었던 교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전공 수학 과목에 대한 학년 배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3,4학년)
- 전공 과목 중 새로 개설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개선점을 말해주세요
-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나요?
- 전공과 교양 시간표를 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시간대)
- 수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있나요?
-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듣고 있나요? 선택한 이유는?
- 영남대 전체의 교양교육 과정 또한 모니터링단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지원동기가 학과 커리큘럼이 진로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인 만큼,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함.ex) 로봇공학과를 로봇공학부로 전환하고, 내부 전공을 개설하게 되면 어떨까? 현재 진로가 있는지, 진로가 있다면, 로봇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진로가 없다면, 로봇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가는지, 충분히 비전이 있어보이는지, 학과 커리큘럼이 흥미로운지, 전공이 맞지 않다면, 옮겨보고 싶은 학과는 어딘지 등.
- 수학과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있나요?
-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듣고 있나요? 선택한 이유는?
- 1학년부터 기초전공과목을 개설하는 건 어떨까요 ?
-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나요?
- 화학공학부의 경우 2학년부터 세부전공을 택하여 나뉘어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학공학부에는 선수과목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전공 실용성 1.7%

- 학생들이 전공을 통해 어떤 내용을 배우길 바라나요?
- 우리 학교 전공과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 개설돼었으면 하는 전공과목이 있나요?
-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은 어떤 과목이었나요?
- 2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에 있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요?

3. 전공관련 진로선택 도움 1.4%

- 대학생활설계에서 진행된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이 학교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었나요?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상담 이외에 학교생활하는데 학교가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있다면 졸업 전까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가지면 좋을까요?
- 학생들의 흥미와 전공이 일치하는지 알고 있나요?, 나의 미래 직업에서 전공과목의 실용성이 있나요?
- 선호하는 전공 트랙이 무엇인가요?

4. 학과 장단점 0.7%

- 전공 강좌에서 개선해줬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우리 과 전공 과목에 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8) 학교생활

1. 학교시설(강의실) 만족도 2.4%

- 이희건 체육관 사용에 있어 건의하고싶은 것은?
- 강의실 위치의 중요성
- 요즘 학교에서의 불편한점
- 전공 실기실 관련 불만사항
- 학교 시설에 대해 좋다고 느끼는것과 아쉽다고 느끼는것이 있을까요?
- 실험실의 경우 노후된 장치로 인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학공학부 열람실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람실 이용 시 공지된 날짜와 시간에 화공관 열람실에 방문해야 하는 기존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 통학/자취의 유무

2. 학교에 바라는 점 1.7%

- 수강 신청 시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이 학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지원해주면 좋을까요?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찾지 않아도 교내의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복수전공을 하는 인원들이 졸업 요건 등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원들을 위

2. 학교에 바라는 점 1.7%

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처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유롭게 학교에대해 하고싶은말이 더 있나요?

3. 강의 평가 1.0%

- 학생 평가방식의 문제점이 있나요?
- 강의 평가 방식에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습니까?
- 강의평가가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비교과과목 0.7%

- 비교과 프로그램 중 가장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 학교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려 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9) 기타

1. 기타 13.0%

- 전공과 교양 졸업 학점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적당하지 않다면 어떤 비율이 좋을지?
- 타 학과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교양 과목을 들으며 생각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 교양 강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 요즘 학생들은 어떤 교양을 배우고 싶어한가요?
- 수강신청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나요?
- 패스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어려운것을 알고 있나요?
- 학생들이 교양과목 교수님과 자신의 전공 학과가 아니라서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 요즘 핫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우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나요?
- 트렌드와 관심사를 결합한 수업 제안 / 반응 살피기 - 예) 인공지능이 요즘 핫이슈라고 대답 주셨는데, 그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서치 관련 수업이 개설된다면 신청하실 의향이 있나요? - 답변 예) 네, 요즘 인공지능이 계속 화두에 오르는 중인데 이걸 잘 활용해야만 도태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 답변 아니요) 인공지능 활용 리서치는 다들 어느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점수 채점 기준치가 높을 것 같아 난이도 부분에서 끌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끌어내기
-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 교양수업을 통해 학생이 발견한 관심 분야에 대해 대학에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듣고 싶은 교양과목이 학과 시간표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기타 13.0%

- 진로 선택 시 교양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복수 전공 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복수전공, 부족공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소 이수학점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리 학교의 수강신청, 수강 꾸러미를 경험하며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 저희학교에는 한학기 최대학점이 정해져있습니다.(평균 20) 한 학기 최대학점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공학과는 교양 최소학점(33학점)이 정해져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강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 우리 학과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양 과목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강신청을 하다보면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을까요?
- 현재까지 듣고싶었던 교양 만을 들었나요? 듣고 싶지 않은 교양을 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음악과를 사람들에게 어떤식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나요?
- 입학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생각하나요?
-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중 자신의 진로나 전공, 발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되었던 경험은 뭔가요?
- 본인이 생각하는 영남대학교 대표 교양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학부연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연구생 활동 계획 유무와 해당 활동의 장점)
- 과제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마트출결을 이용한 출석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듣기 싫지만 학점을 채워야해서 들은 교양 수업이 있나요?

6. 기타 교양·전공·비교과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없습니다!
- 개설되는 전공 수업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 교내 무료 모의 토익 응시 제도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공지와 같은 안내가 다소 느린 점이 불편합니다
- 영어영문학과의 전공 강좌가 더욱 다양하게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
- 전공 교육에서 AI를 활용한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컴퓨터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면서 ICT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학교 현장에서 연수를 통한 재교육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퇴직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교실 수업 환경이 AI를 활용한 수업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차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의 학교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대학 교육과정 차원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이미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우리 영남대 역시 이러한 강점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합니다.
- 트랙제로 운영되는 학과의 경우 전공수업의 양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과 과목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양 과목의 수와 다양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양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인기있는 수업의 경우 같은 수업을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교양 수업 할 때 교수님 다른 학우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s로는 얕은 지식밖에 알기가 어렵고 혼자 관심분야를 독학하기엔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수업은 수업시간이 길 수록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론 형식을 통해 잘못된 생각은 바로잡고 다른 학우분들의 얘기를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으로 학우들이 본인과 맞는 수업 방식을 찾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생들은 학교가 아무리 그들을 도와주려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이 소통하는 공간이나 강좌의 강의평에 귀 기울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만들어놓은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은 더욱 자신의 성장이나 학교의 성장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복수전공 수업의 여석 증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늘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슨 과목을 듣든 학점은 항상 중요한지라 수업 난이도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각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강의평가(시행해야 성적을 미리 볼 수 있는 것)를 제외하고 정말 그 강의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받을 수 있는 평가책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 졸업 요건을 맞추려면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 더 다양해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교에 와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평소 관심이 있어 꼭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수강신청 시 선착순으로 정해진 인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원치 않는 수업들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같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더 열어주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가급적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수강 꾸러미로 인원을 체크하여 블렌디드식 강의로 분반을 만들어 두 반이 번갈아가며 한번은 실제 강의, 한번은 인강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다. (ex. 월, 목 강의라고 하면 A반- 월요일 실제 강의, 목요일 인강 B반- 월요일 인강, 목요일 실제 강의)
- 교수님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공 과목 수가 부족하거나 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해결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니터링단 파이팅!

-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토피아와 어울림등에 직접 들어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해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같다. 인스타그램같은 SNS로 홍보한다면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 1학년때 신청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1학년때 교양 학점을 다 채워버려 아쉽다.
- 다양한 체험을 위해 타과 전공과목을 들으려 했지만 전공과목은 타과여석이 잘 나지 않는다. 타과생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비교과 프로그램 소식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학점이 왜 이런 학점이 나왔는지 평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니터링단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ex) 포토샵과 컴활과 같은..)
- 비교과 교육이 예전에는 특정 분야(이공계)에 치우쳐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디어 분야 비교과 수업(교육)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진로 상담 선생님들이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야의 선생님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수강꾸러미 진행 후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발표 일정이 좀 더 당겨져서 수강신청 계획을 세울 시간이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 인스타그램 카테고리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많이 원활하게 수업 및 과제는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은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학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생-학생 간의 관계를 조금더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강의의 협력도를 높이면 좋겠다고 판단하며 교양, 전공, 비교과교육에서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만남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수강신청 전 수업계획서와 미지정 교수가 명확히 밝혀져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기 원활합니다.
- 융합화학전공 모니터링단에도 올렸듯이 202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전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편성된 교과목 중 12학점을 취득하면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인데, 이 과목들은 타과로 들어야합니다. 찾아보니 대부분의 편성 과목이 타과 여석이 0이었습니다. 수업학적부에 연락하고 과사에 연락하고 교수님께까지 연락드려 겨우 타과여석을 열어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타과를 0으로 할거면 타과 수업을 듣고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과 수업을 부담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타과여석을 열어놓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2-3석의 적은 자리라도 좋으니 타과 여석을 미리 열어놓거나,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여석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찾지 않아도 교내의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대학교에 와서 많은 지식을 쌓고 졸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식보다는 성적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라 힘듭니다. 더 좋은 교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복수전공을 하는 인원들이 졸업 요건 등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처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없다
-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원할해지고 전공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교육과정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이 1학년 교양 '대학생활설계'에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패스이기도 하고 온라인강좌는 그냥 틀어두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팁들을 놓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예: 온라인강좌시청후 간단한 퀴즈풀기)
- 교양의 경우 전년도에 수강꾸러미에 넣은 학생수를 조사하여 그 다음 학기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수강인원을 설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양에 중요한 법, 세금 등의 내용을 다루는 교양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대학은 타대학에 비교하면 교육과정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올라오는 수업이 비슷하

고, 교수님 수가 부족한 과가 많아 교양 수업의 다양성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대형과 말고도 작은 과의 교수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수가 적으면 한 교수님이 담당해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많아질 수록 수업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부록 Ⅱ

2학기 세부 응답

1. 교양교육과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학사제도

1. 전공자의 관련 교양 수강 제한 0.5%	
현황 및 문제점	▪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일반 교양수업은 해당 학과 수강제한으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전공과 관련된 교양은 수강을 할 수가 없음 ▪ 우리 학교에 운영되는 교양 수업은 많지만 'X학년만 수강'이나 인원 제한으로 인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 전과 예정학과의 전공을 수강하려고 하면 타과 제한이 되어있음
해결방안	▪ 전공에서 배운 지식과 크게 관련이 없다면,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교양 수업 또한 수강 허용을 해주어야 함. ▪ 전공과 관련된 교양의 경우 특히 관심도가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여 제한을 없애는 것을 제안 ▪ 전과예정자, 자율전공학생, 복수전공, 부전공 등 학과를 체험할수 있는 교양교과를 늘렸으면 좋겠다 ▪ 다른 학과 선배들을 볼 수 있는 교양 등의 개설희망

2. 강의시간대 편향, 강의시간 겹침 3.2%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교양이 문과대학쪽에있어, 이과계열학생들은 다음 전공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음. ▪ 교수부족, 예산문제, 위치문제 라고 생각함. ▪ 다음 전공수업이 있을 시 기계관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교양 수업시간이 조금이라도 늦게 마치는경우는 전공수업 자리잡기가 어려워지므로 교양은 조금 일찍 마쳐주면 좋겠습니다. ▪ 수업 시간표를 짜는데 이동시간을 고려해야 함 ▪ 공대에 재학 중인 경우,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넓은 강의실이 많은 상경대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때 수업 동선을 고려하면서 시간표를 짜다보니 한계가 있음 ▪ 수업 시간이 겹쳐 수업 도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님의 재량으로 시간표 조정이 필요 ▪ 같은 내용에 과목이 시간대별로 4개가 있는 경우, 더 다양한 교양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 ▪ 수업시간이 다양하지 않다 -> 교양 시간표가 같은 시간대에 모여있다. ▪ 수강인원 부족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듣거나 흥미로운 교양 수업의 부족 그리고 동일 과목 다양한 시간대 필요하다. ▪ 공과 대학과 교양 수업건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면시간표를 짜는데 한계가 있다. ▪ 학교가 너무 넓고, 특정 건물에서만 열리는 개설과목이 많다. ▪ 원하는 과목도 시간 때문에 듣지 못한다. ▪ 교양 수업을 듣고 싶은게 있어도 전공 필수 과목을 들어야 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전공 수업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있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다. ▪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 교양 수업의 선택지도 적고 시간도 전공 시간을 생각해서 배치하다 보면 들을 수 있는게 적음 ▪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시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꼭 들어야 하는 교양과목이 전공시간과 겹치게 되면 전공과 교양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길에 놓이게 된다. ▪ 듣고싶은 교양이 편성된 시간이 1가지밖에 없다.

2. 강의시간대 편향, 강의시간 겹침 3.2%	
	▪ 교양과 전공이 시간이 겹치게 되어 결국 하나를 포기해야 함. ▪ 원하는 교양과목을 전공 시간표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과 내 하나의 전공 강의가 여러 반으로 개설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인기 교양과목이 하나만 개설될 때 발생하는 것 같다.) ▪ 시간대가 불규칙적이라 시간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음 ▪ 수업을 담당할 교수가 부족하여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의 시간과 겹쳐 신청하지 못한 적이 많음. ▪ 만약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수업간 간격이 너무 커서 신청하기에 고민이 됨 ▪ 듣고 싶은 교양 과목이 있더라도 전공 과목과 시간이 겹칠 경우 수강하지 못함 ▪ 전공 시간표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수강하고자 하는 교양을 신청하기가 힘듦 ▪ 겹치는 수업이 많아서 수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늦은시간에 강의가 많이 잡혀있음 ▪ 저녁시간대에는 집중력이 떨어짐
해결방안	▪ 이과계열인 it관에서도 공통교양이 많이 개설이된다면 좋을 것 같음. ▪ 교수를 더 뽑고 더 다채로운 수업을 들을수 있게 해야 함. ▪ 시간표의 시간대를 늘려서 수업의 여석이 없어서 못듣는 학생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여석을 더 늘리거나 인기있는 과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와 비슷한 계열의 과목을 증설한다. ▪ 교수님께서 마치는 수업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 기계관, 화공관, 건설관과 같이 공대 대형과 건물 이용 ▪ 동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빈 강의실 사용 ▪ 학교 순환버스에 노선을 추가하거나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단축 ▪ 3학점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 ▪ 팀플이나 공동과제를 통하여 학생들 간에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 늘리기 ▪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하여 교양 강의 수 부족 ▪ 인터넷 강의 혹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의 시간대를 더 다양하게 배치 고려 ▪ 교양과목 선호도 조사를 통한 인기 있는 강과 늘리기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수강신청 나눠서 진행한다. ▪ 공과대학 건물에서도 열리는 교양과목을 개설하면 좋겠다. ▪ 다양한 시간대를 개설한다.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 수업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한다. ▪ 필수교양을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같은 교양을 한두가지만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간대로 편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수강꾸러미를 통해 어떤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수업 정원을 늘리거나 반을 하나 더 개설하면 좋겠다.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시간을 분리하면 좋겠다. (교양-오전, 전공-오후) ▪ 교양을 듣는 인원수가 많다면 수업 시간대를 다양하게 열도록 함. ▪ 인기 교양과목의 수업을 늘리기 ▪ 분반을 여러 개 만들어 다양한 시간대가 있도록 수업을 계획 ▪ 교양 강의 교수자를 늘림 ▪ 미리 조사를 하여 특정한 강의를 듣고싶어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강의를 중복되는 시간에 강의를 추가 개설 ▪ 같은 수업이라도 다양하게 시간표를 짠다. ▪ 교양강좌는 가능한한 낮에 편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3. 학사제도 관련 기타 2.1%	
현황 및 문제점	▪ 교양학점이 어느정도 채워지면 교양과목을 못 듣게 제제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다양한 교양들이 존재 했으면 좋겠고 교양과목마다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 교양 학점 다양성이 너무 작다.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지만 1학점 강의의 수는 적고 2학점 강의의 수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문제의 3학점 강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과목들이라 선을 그어 놓은 것들이 많다. ▪ 학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 위와 같은 상태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 설정에서 어려움을 느낌. ▪ 학업에 대한 동기를 얻기 어려움. ▪ 저희 학과의 경우 공학인증제도로 인해 필수로 들어야하는 전공 학점과 과목이 있고 이 학점을 취득 못 할 경우가 졸업이 불가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을 필수로 전공과목을 들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양 과목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 특정 과목은 1, 2로 나뉘어져 있으나 학기에 따라 1 과목이 개설되지 않음. ▪ 특정 과목을 먼저 수강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드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학생이 교양과목 간의 선, 후행 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잘 알기 힘들다. ▪ 이런 현상의 원인은 같은 과목명의 교양 수업이더라도 교수가 다르기 때문임. ▪ 교수에 따라 이론 위주의 수업, 실기 위주의 수업 등 각자의 수업 방식이 다르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달라 선후행관계가 서로 맞지 않게 된다. ▪ 학교의 교육과정 처리 미숙 ▪ 2학점 교양과목의 수가 적다. ▪ 주로 3학점이나 1학점 수업이 대부분임. 학점이 애매하게 남을 때 수강할 수 있는 2학점이 없는 것이 아쉽다. ▪ 졸업학점이 줄었다고 해서 강의를 그대로 두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가득 채워 들을 수 있게 2학점, 1학점 교양을 늘려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 22학번부터 졸업학점이 줄어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17학점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한정되어 있어 교양과목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함
해결방안	▪ 시간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학점을 채울 교양수업들을 마련하는게 좋을거 같다. ▪ 학점의 분포가 더 퍼져 있어야 한다. ▪ 수강학점에 따른 교양과목 수강 제재를 금지해야 한다. ▪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수업 제작 ▪ 과목명이 어려워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한 실험 등으로 예를 들어 고학년 수업 설명 ▪ 학과 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입학 전 문서로 간단히 제공 ▪ 공학인증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거나 공학인증제도의 필수 취득 학점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공학인증 과목에서 검토를 통해 없어도 될 전공과목의 경우 교양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측에서 수강 신청 전, 교양 과목의 선, 후행 관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강신청, 수강정정 등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 ▪ 2학점 교양과목을 많이 만들어주기 ▪ 교양과목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수 학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 과목의 학점 만족도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음. ▪ 1, 2학점 강의들을 어느 정도 증설한다면 좋을 것 같음

2) 수업운영

1. 강사진, 교수진 관련 2.1%	
현황 및 문제점	▪ 강의력이 좋지 않은 교수님들이 많으시다. ▪ 교양 강의를 개설하는 교수님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 교수님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교수님을 채용하지 못하여 교수님이 미지정으로 뜨는 강좌가 많습니다. ▪ 새로운 교수님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동일한 교수자가 매번 같은 강의를 개설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 ▪ 교수님의 수가 부족하다 ▪ 전공이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많아 따라가는 학생들도 ▪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 이미 고착화된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고등 교육자로써의 의무와 학문적 연구의 의무를 지니는 대학 교원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교양과목의 경우는 시험 내용이 매년 같은 경우가 많음. ▪ 학점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학생들의 동기가 문제이지만, 그런 학생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본인 역시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수업하는 교수님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수업의 목적이 교양의 함양이라는 목적성 보다는 그저 평가의 유용성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얻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는 것이다. ▪ 수업을 진행할 교수자가 부족함 ▪ 간혹 몇몇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혹은 수업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휴강 공지를 하심 ▪ 수업을 들으러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의 경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먼거리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수업 시간 이후에 휴강을 알린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됨 ▪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소통이 없음 ▪ 우리 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수님의 수가 현저히 적다. ▪ 교수님들의 업무량은 많은데 수가 적어서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해결방안	▪ 퇴직하신 명예교수님들과의 재계약이 아닌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유능한 교수님들을 뽑아야 하고 강의평가 제도를 더욱 엄밀하게 반영하여 강의평 안좋은 분들에 한한 시말서작성 등을 통해 강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학교 예산을 통해 다양한 과목이나 교양의 교수님들을 추가 임용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이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함. ▪ 새로운 교수님을 모셔오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 예산 투자를 통해 새로운 교수님 채용 ▪ 동일 내용의 수업이더라도 다른 교수자의 동일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하여야 함. 즉, 더 많은 교수나 강사의 채용이 필요함. ▪ 교수님과 학우의 1:1 면담 또는 1:다수 면담 ▪ 타 대학과 기관과의 협력으로 강의 공간과 교수진을 공유하고 교육자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부족한 자원과 교수진을 보강 ▪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이 다양한 교양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공과목이 아닌 교수자가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의 세미나, 심포지엄을 찾아 학교에서 지원금을 준다. ▪ 최대한 전공이 아닌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없게 한다. ▪ 고착되어있는 일부 강의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성실히 공부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년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출제. ▪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순 암기의 평가보다 교양을 통해 증진된 학생의 사고를 물을 수 있는 평가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 인터넷 강의를 신설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교수자가 휴강을 할 경우엔 전날 밤에 공지를 내리도록 해야 함

1. 강사진, 교수진 관련 2.1%	
	▪ 팀플, 토의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 ▪ 구체적 기준을 세워 발표, 질문 등의 참여도를 성적에 일부 반영 ▪ 야외 수업 등 기존과는 다른 환기가 필요함 ▪ 교수님 수를 늘린다. ▪ 한 교수당 담당 업무량을 줄이고 수업 질을 개선한다.

2.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2.7%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수업을 개설하거나 자리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수강신청 직전까지 담당교수가 미 지정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수업계획서 미탑재가 현재 교양과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개강직전까지 특정 교양과목의 담당교수님이 미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담당교수님과 수업계획서 또한 참고하지 못한 채로 교양교육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업의 경우 수강신청인원이 적어지고 다른 교양과목의 수강신청인원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점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학교의 전반적인 교양교육과정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뉴스에서 또한 영남대학교의 문제점으로 이슈화 되었었습니다. ▪ 교수님이 미지정인 상태인지라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음 ▪ 수강신청 시 미지정이었던 과목들이 많다. ▪ 수강신청 당일 날까지 교양 담당 교수가 미지정되어 있어, 명확한 교수자와 수업계획서를 알지 못한 채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 문제 ▪ 적지 않은 강의들이 수업계획안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 수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됨 ▪ 어떤 종류의 과목들이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다. ▪ 미지정 교수가인 경우 교양 정보를 알기 힘들다. ▪ 교직이나 야간 과목의 경우 여러번 되돌아가서 찾아야해서 불편하다. ▪ 강의 자료 그대로 읽어 진행하는 수업이 재미가 없음 ▪ 교양을 선택할 때 교양 이름만 있고 어떤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고르기 망설여진다. ▪ 교양 제목만 보고 선택을 했지만, 강의 내용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다. ▪ 첫 수강신청 이후 수강정정기간에는 남아있는 수업이 많지 않은데 위의 문제점 때문에 수강취소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과목은 많지 않다. ▪ 학생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서 흥미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됨 ▪ 수업계획서에 단순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차별 계획서와 간단한 주제 정도만 설명되어 있는 교양이 많음 ▪ 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진행이 다르게 진행되는 교양 수업도 많다고 느껴짐 ▪ 교양 과목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과목 존재, 제목에 나온 그대로가 아닌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강의의 정체성 혼란 ▪ 교양과목은 정보를 찾기가 전공에 비해 어렵고, 평가기준도 알기 힘들다. 그렇기에 이전 수강생의 의견을 듣고 학점을 따기 용이한 과목으로 몰린다. ▪ 매년 같은 과목을 같은 교수님이 진행하여 강의계획서도 매년 그대로지만 수업방식이나 평가방법은 매년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들이 학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김. ▪ 수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적혀 있어 그 강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블렌디드 과목을 수강할 때 비대면 수업에서 하는 내용과 대면에서 하는 수업 내용에 차이가 있음 ▪ 대면강의에서 인강에 대한 내용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인강의 내용과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2. 강의계획서 미등재/부실/불일치 2.7%	
	있음 ▪ 복잡하고 복합적인 강의명을 가진 교양이 많음.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수업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듦. 강의명을 보고 신청했는데,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종종 있었음. ▪ 하나의 키워드와 개론이 합쳐진 강의명이 많고, 강의명 자체가 포괄적이라 어떤 내용이 중점이 되는지 학생들이 알기 힘듦.
해결방안	▪ 교양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전에 수업 내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소개가 있으면 좋겠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차원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소한 수강신청 전까지 담당교수와 수업계획서의 공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행정부서 혹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모니터링 하여 빨리 캐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소한 수강꾸러미 신청날 전까지는 당담 교수자를 확정하여 공고해야 함. ▪ 타 대학에서는 수업계획서와 OT를 짧게 촬영한 영상을 수강 신청 전 제공함 ▪ 과목과 강좌에 대한 영상을 통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교수자 미지정, 수업 계획서 누락의 문제점도 개선 가능함 ▪ 바뀌는 세대에 맞춰 수강계획서나 강의내용을 조금씩 수정, ▪ 반드시 수강꾸러미 기간에 수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완전한 수업계획안이 공유되도록 대학 차원에서 권고 바람 ▪ 교양 과목의 종류가 정리되어있는 표를 제공한다. ▪ 미지정 교수 과목에 대해 어떤 수업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각 과의 교양을 제외한 모든 공통 교양이 한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 방식 연구 및 개설 ▪ 강의 자료만 집중하기보다 영상자료나 체험식의 활동 추가 ▪ 수강 꾸러미 등의 화면에서 과목을 선택하면 그 강의에 대해 간략하게 ▪ 설명해주는 창을 만든다. ▪ 학교 홈페이지에 각각의 교수자들이 강의에 대한 설명내용을 적어 놓으면, ▪ 이를 파일로 만들어 올려 놓는다. ▪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조사 ▪ 수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교수님의 의견이 함께 기재되면 좋을 것 같음 ▪ 교수님이 이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함께 기재한다면 수업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학생에게 바라는 수업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이 있다면, 수업을 선택하기도 수업을 듣기 전 준비를 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예상 ▪ 강의계획서를 명확하게 쓴다. ▪ P/F를 늘리고 교양의 내용, 평가기준, 평가 난이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한다. ▪ 체험, 실기,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아진다면 학생들의 교양 선택의 기준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학생의 흥미가 늘어날 것이다. ▪ 매년 교수님들이 강의계획서를 업데이트하여 다시 올림 ▪ 학교에서 수업계획서의 완성도를 요구했으면 좋겠음 ▪ 블렌디드 수업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 계획을 확실히 짜서 그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함. ▪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나 1차시의 자료를 간략하게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음.

3.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현황 및 문제점	▪ 개개인의 성격 차이로 짝 혹은 조를 이루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과목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됨. ▪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만 함. ▪ 자유로움이 없음 ▪ 시험을 위한 암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론수업의 과목이 대부분이다. ▪ 강의식 수업으로 낮은 수업 참여도 ▪ 이론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인터넷 강의이기에)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전달력 부족 ▪ 수업 피피티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수업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아쉽다 ->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을 원하지 않으며 단순히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고 시험치며 점수를 받는 기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과목이 많다. -> 시험 내용을 알리기에 급급해 주입식 교육만 하는 교양 강의가 많은 것 같음. ▪ 온라인 수업 선호도가 높아져, 대면으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 수업 대부분이 이론위주 수업으로 매우 지루함 ▪ 학생 참여형 수업이 적어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움 ▪ 블렌디드 강의는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온라인 강의 출석인정기간이 대면수업보다 늦어서 대면수업을 다 듣고 온라인강의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 강의와 대면수업의 내용이 완전히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이론적인 수업만 한다. ▪ 수업이 이론식으로만 진행이 된다. ▪ 나중에 취업을 했을 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 이론형 강의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지루해지기 좋다. ▪ 교양 강좌인 만큼 전공 강좌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원함 ▪ 참여형 강의가 잘 없고 대부분 정보만 전달하고 끝나는 느낌의 강의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참여형으로 잘 이해시켜가며 수업을 진행시키기에는 교수님도 한분이 다양한 수업을 맡으시는 경우도 많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강의가 한학기만에 끝나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려면 참여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 대부분이 지루한 이론들을 중점으로 많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다. ▪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전하지 않고 교양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 ▪ 딱딱한 수업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과제를 내주는 수업이 많음. 즉, 교양 수업 진행 방식이 전공 수업 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음. ▪ (진도빼기 급급한 실정) 교수마다 다를 수 있으나, 13~14주 안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 정해져있다 보니 너무 급하게 진도를 나가는 경향이 있음 ▪ 짧은 강의시간으로 하나에 대해 깊이 알 수가 없다. ▪ 교양 수업은 대부분 PPT 읽기식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대했던 수업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았음. ▪ 수업의 제목만 보고 유추했던 수업의 내용은 흥미로우나 수업하실 때 강의자료를 단순히 읽기만 하는 수업이 대다수이며 이런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몰입도를 떨어트리는 길이라고 생각함. ▪ 매년 똑같은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 교양 수업은 PPT 읽기식 수업과 기대했던 수업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았음.

3.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 수업이 두 번 나뉘어져 있고, 그만큼 시간이 더 짧아져 수업 분위기가 집중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임의적으로 수업을 연장해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교수님이 가끔 있다 ▪ 이런 공지가 당일에 알려지게되어 그 다음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강의실을 벗어나야하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 교양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딱딱함 ▪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진도만 나가심 ▪ 교수님이 수업을 대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주입식,일반화된 교육으로 인해 너무 답만을 요구하는 수업 방식이 문제임. ▪ 대부분의 교양수업은 단순 강의식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 ▪ PPT를 보고 외우는 식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시험 내용 위주의 내용 티칭으로 인한 교양수업의 흥미 저조 ▪ 흥미를 이끌지 못하고 그냥 ppt만 앞에서 읽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 수강 인원이 많고, 수업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교양수업의 대부분이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 ▪ 이론 위주와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학생 참여로 실질적인 배움이 부족함. ▪ 강의식 수업에 치중됨 ▪ 이론 수업이 대부분이라서 학생들의 집중도도 함께 떨어짐. 이론 수업이 실습수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이론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함. ▪ 일정한 수업 형식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함. ▪ 시험을 치루기 위한 진도나가기 강의식의 비효율성 ▪ 단순 암기식 수업이 많음 ▪ 대부분 강의식 강의실이며 실습을 할 만한 환경 마련이 되어있지 않음 ▪ 대부분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전통적인 강의 중심 교수법이 학생들의 참여, 상호작용,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 동기 부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 교수님의 일반적인 수업 진행 ▪ 이론위주의 공부이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지 않는다 ▪ 이론 중심의 강의가 많다. ▪ 단순 이론 중심의 교양교과목 이로 인해 내적 동기 유발을 이끌지 못함 ▪ 이론수업에만 집중을 하니 수업이 지루한 경향이 있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짐. ▪ 대면수업이라고 하여도 수업이 아닌 태블릿으로 유튜브 등을 보는 학생들이 많음. ▪ 점심시간 이후의 이론강의는 대부분 자는 학생들이 많음. ▪ 대면으로만 이루어진 수업이 많아 시간대가 겹치면 듣고 싶은 강좌가 제한된다 ▪ 교양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지만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고 있음
해결방안	▪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 팀플을 만들어 다들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야함 ▪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 ▪ 이론 수업을 비대면 or 블렌디드로 변경, 실제 봉사활동 확대(이수 요건 2시간> 4시간), 활동 내용과 느낀점 위주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실제 성서에 있는 계*대에는 학교의 기원과 역사, 비전에 대해 가르쳐 학생들의 애교심이 많음 ▪ 학교 정보 교육 필요 ▪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홍보

3.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 Y형 폴리매스, 건강공제회, K-mook 강좌 등 필요한 강의 "유인물" 필수 제공 ▪ 1학년때 진행하는 영어과목처럼 인터넷 강의더라도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앱을 통하여 서로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기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거나 LMS 토론란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수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 시간을 세분화하고, 분반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자율성을 뛸 수 있기에 대면 강의 선호도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강의 시간을 늘린다. ▪ 팀플레이 및 관련 자료의 리서치, 발표, 과제물에 대한 교수와의 피드백 시간 가지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시험의 경우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형성하기 보다 주관식 또는 단답형, O/X 퀴즈 등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학생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거나 변별력을 가지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학생의 입장에서, 해치워야 하는 과제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사유할 수 있는 체험적인 수업방식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교수님이 학생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하고 싶은 교양과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수용하기 수월할 것임. ▪ 매년 동일한 커리큘럼이 아닌 수업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의 주제를 변경해 연차별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괜찮을 것 같음. ▪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수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야한다 ▪ 수업을 나누기 보다는 하루에 집중해서 학생들 집중도를 상승시킨다 ▪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경험이나 토론과 같은 다른 형식의 수업 방식도 필요하다 생각. ▪ 강의식 수업방식을 유지하되 수업시간의 일부분이나 또는 몇주에 한번 정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 강의시간을 활용하여 강의 내용에 대해 조별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강의 중 질문을 통한 대답이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 ▪ 학생들을 위하여 실습과목을 늘려 학생이 듣는 수업이 아닌 주체적으로 하는 수업으로의 전환 필요 ▪ 강의식 수업과 참여형 수업의 융합이 필요 ▪ 교양 강의 계획서에 관련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역동적인 소개가 필요하다. ▪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단순히 강의자료만 읽고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교수님이 전달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수업 중간중간 토론 및 실습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시험진도 나가는데만 목적을 둔 강의가 아닌 여유로우면서도 유익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발전시키기 ▪ 수강인원을 줄이고 분반을 늘려서 교수법의 변화를 꾀한다. ▪ 논술, 토론 등의 과제들로 수업을 구성하여 사회에 관한 여러 시사점들과 필요한 능력들의 개발을 도모해야 함. ▪ 수강 가능 인원 수를 줄이고 집단 중심 강의법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간 의사소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대부분 관심이 있어 신청한 과목일 텐데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함. 예를 들어 '도자기의 이해'라는 과목에서는 실습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들여 절반은 이론을, 나머지 절반은 직접 간단하게라도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유익한 교양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교육 과정을 현실 세계와 연결시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 경험를

3. 수업방식(강의형태 등) 6.9%	
	촉진 시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리더십과 정책 결정자는 교육 과정의 혁신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많은 학생들이 질의응답시간에 대답을 많이 할수 있도록 추가점수제도를 시행한다. ▪ 이론수업이 아닌 견학, 실험, 발표수업 등 학과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 수업의 ppt자료나 영상자료의 양을 줄이고 실습들도 종종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 돋구는 방법이 있음. ▪ 팀플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함. ▪ 많은 교수님들이 탐방 수업과 참여형 수업과 실습형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 ▪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이용한 교양 수 증가 ▪ 교양을 함양하는 즉 교양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 돼야지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안 됐으면 좋겠음 ▪ 이론위주 수업도 4주마다 1번씩 토론이나 발표 등의 학생참여형 수업을 만든다. ▪ 체험이나 실습위주의 수업을 개설한다. ▪ 온라인 강의 출석인정기간을 대면수업보다 앞댕겨 수업을 미리 듣고 올 수 있도로함. ▪ 온라인 수업 중 과제를 내서 오프라인 수업 때 이를 확인하는 등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 때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함. ▪ 실습, 실험 수업을 증대시킨다. ▪ 시험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 취업시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많이 진행한다. ▪ 과제를 제출만 하면 만점을 주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과제 난이도도 높여 변별력을 가르는데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음. ▪ 교양은 두학기 계속 한다면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인지는 아직 모호함 ▪ 단순히 PPT 내용을 암기하는 형식의 강의보다는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의 강의가 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실습을 추가해서 교양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 교양 수업에 있어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을 증대 ▪ 협력과 토론 장려: 학생들 간의 협력과 토론을 촉진하는 수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온라인 토론 및 플랫폼: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토론, 질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며, 유연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론 수업과 더불어 직접 경험하거나(실험이나 답사 등) 토론 등의 참여형 수업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 ▪ 개인 과제보다 조별 활동의 기회를 늘려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 ▪ 교양 수업답게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시청각 자료와 야외활동 등 획기적인 수업 방법 도입

4. 인터넷 강의 개선 3.1%	
현황 및	▪ 인터넷 강의와 실제 강의 간 진도 차이 ▪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그로 인해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과 형태 > 반복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음

4. 인터넷 강의 개선 3.1%	
문제점	▪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혹은 SNS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음 ▪ 수업 집중 X (인터넷 강의의 경우 틀어두기만 하는 경우 증가) ▪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는 교양 수업 목차만 보더라도 강의 내용이 상당히 오래됨을 느낄 수 있다. ▪ 오래된 강의자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 -인강에서는 몇 년 전에 찍어놓은 강의를 그대로 업로드 하실 때도 있다. ▪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기심 및 교양 증진의 목적으로 듣는 경우 그 목적이 희석됨. ▪ 매년 시험문제가 거의 같아서 족보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짐. ▪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 친구와 함께 답을 공유하며 시험을 침. ▪ 인터넷 강의 영상들이 너무 오래된 것이 많아서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임. ▪ 인터넷 강의의 경우 자료를 보면서 시험을 치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됨. ▪ 인터넷강의일 경우, 강의에 대한 피드백 반영이 안 됨. ▪ 인터넷강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강의자료 촬영의 어려움 ▪ 인터넷강의로 교양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강의를 실제로 듣지 않고 이수율만 채워 출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온라인 교양의 경우 영상 자체도 예전 자료를 그대로 틀어주는 식의 수업으로 내용에 최신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의 질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수강하는 데 불편함이 있음 ▪ K-MOOC에서 인터넷 강의 수업을 들을 때, K-MOOC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강의의 경우 족보를 타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왔고 출결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경우 발생 ▪ 온라인 영상의 음질이 듣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수업을 듣기가 어려움 ▪ 인터넷 강의에서는 매년 시험문제를 비슷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함 ▪ 시험 시간이 짧고 문제수가 많은 것은 인터넷 강의 특성상 시간을 길게 주면 강의 내용을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서 만점을 받는 학생이 많아지기 때문임 ▪ 인터넷 강의의 경우 몇 년 전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같은 과목의 같은 내용이니 동일한 강의 영상을 사용해도 수업 내용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음. ▪ 인터넷 강의의 경우 교수님이 매년 똑같은 영상을 사용하여 수업 진행함. ▪ 매년 바뀌는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한 영상으로 수업을 들으니 수업의 집중도가 낮아짐. 이는 영상 제작에 있어 많은 시간, 비용 등 노력이 필요하기에 제작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 ▪ 대학교 2년을 다녀보니 교양 과목 중 상당수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의 목적과 다르게 수강하는 인원들은 온라인 강의를 켜놓고 딴 짓을 한다던지 수업을 제때 똑바로 듣지 않음 ▪ 출석을 위해서만 강의를 수강함
해결방안	▪ 인터넷 강의와 대면 수업 간 커리큘럼 통일. 시험 출제를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에서 모두 출제 필요 ▪ 인터넷 강의와 실제 강의 간의 진도와 커리큘럼 조정 ▪ 대면 강의로 변경: 한주에 두 번 대면 강의를 해 생소할 수도 있는 파이썬 실습 시간을 늘림. ▪ 영상을 다시 촬영해야 함 ▪ (인터넷 강의) 매 강의를 수강한 후 짧게라도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을 올리도록 해 확인한다. ▪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는 교양 과목도 대면 과목처럼 최신화가 필요하다. ▪ 코로나는 이제 핑계일 뿐이기에 인터넷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대면 시험으로 진행한다. ▪ 인터넷 강의 시험은 매년 다른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 직접 시험을 치게 해야 함.

4. 인터넷 강의 개선 3.1%	
	▪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강의 업데이트 필요. ▪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험 시스템 개선. ▪ 대면 수업 옵션을 확대. ▪ 인터넷강의 평가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아래로 평가된 강의는 경고 후, 개선사항이 없다면 폐강 ▪ 인터넷강의 과목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선호하는 교양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음. ▪ 온라인 강의 경우 자료의 화질이나 음질 또한 너무 오래된 것은 필수적으로 새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의 수를 늘림. ▪ K-MOOC 사이트 수업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관리와 공지 필요. ▪ 족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수업내용이나 시험내용을 좀 더 다르게 출제 ▪ 주기적인 피드백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강의 재촬영 ▪ 마이크와 같은 음향 기기를 학교에서 지원 ▪ 학기마다 혹은 1년마다 문제를 새롭게 출제하도록 함 ▪ 대면시험으로 바꾸거나 시험 시간을 늘려 찾아볼 수 없는 서술형 문항을 늘리면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것임. ▪ 인터넷 강의이지만, zoom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수님과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이렇게 한다면 매년 동일한 내용보단 점점 발전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 학교 측에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을 측정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강의를 듣는 시간을 따로 정해주거나, 강의평이나 쪽지시험 메모와 같은 강의가 끝나고 5분 안에 추가로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수업 난이도 부적절 4.1%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수준을 제한하며 큰 기대감이 없다는게 원인인듯하다. ▪ 학기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교양은 수업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음. ▪ 타 전공의 학생들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하향 조절하는 경우가 있음 ▪ 다른 과목이지만 같은 학점일 경우, 투자해야 하는 공부시간이 다르다. ▪ 배우는 내용이 기본적인 것 밖에 없음 ▪ 전공과목과 달리 깊은 이해가 어려움 ▪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하는 전공수업과 달리 교양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 아무리 교양 수업이라지만 배우는 내용의 부분이 너무 얕고 수준이 낮다. 특히 이런 문제점은 수학 관련 교양과목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수학 교양과목은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만 다루어 대학 차원에 맞지 않으며 전공과목 수강 시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 나아가 전공 과목 학습에 힘이 너무 많이 들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악영향을 끼친다. ▪ 교양과목에서부터 내용을 너무 깊고 심도 있게 교육하면 강의 개설에 필요한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게 되고 결국 정원 미달로 강의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얕고 쉬운 부분만 가르치는 경우가 늘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 대부분 얕은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심화 수준의 교양강의가 적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어려움 ▪ 같은 교양강의더라도 강의에 따른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며, 교양강의임에도 전공학부생 정도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교양강의가 있음 ▪ 전공자가 몰릴만한 수업은 난이도 타과학생에게 벽이 생긴다. ▪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교양의 경우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5. 수업 난이도 부적절 4.1%	
	▪ 실기 위주로 들어온 음대생들이 간혹 전공 교양이 아닌 수업에 잘 따라가지를 못함 ▪ 전문적인 지식을 배움으로써 기초부터 배우지 않은 것이 문제 ▪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수준이 맞지 않는 수업이 어렵게 느껴짐 ▪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인 교양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제되는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들과 과제량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함. ▪ 예술대학 학생 입장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공과 계열 수업을 수강하는 것에 있어서 수업 내용이 전문 지식을 깊게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버거웠던 것 같음. ▪ 전공이 아닌 교양을 듣는다면 그것을 호기심에 재미있을 것 같아 듣는 경우가 많은데,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깊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음. ▪ 기본적 지식이 없을 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 보통 난이도가 높다 ▪ 재미와 기본 교양, 지식 함양을 위한 수강이 아니게 되어 흥미도도 떨어진다 ▪ 체험과 실무가 아닌 공부와 시험을 위한 고차원적 수업, 다른 학과 학생들의 의욕 저하 ▪ 수업내용이 어려운 교양이 너무 많다. ▪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보다는 잘하는 학생에게 맞추어 수업이 진행된다. ▪ 특정 과목은 이미 전문적으로 편향되어서 학습된 소수의 상위 학생들이 성적을 독점하게 됨.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양 학습을 추구하는 학생의 동기부여와 학습 효율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교양으로 듣는 과목이라 알고 있으면 유익할 정도로만 배우고 싶은데, 전공 공부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화되거나 과하게 많은 내용의 진도 ▪ 기초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차이가 많이 남. ▪ 유년시절 이미 습득한 언어능력 차이가 발생함. ▪ 진도가 많이 빠르고 언어습득 시간에서의 촉박함이 느껴짐. ▪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음 ▪ 내용이 너무 어려워 타과생이 접근하기에 어려움 ▪ 교양 수업마다 수업의 양, 시험의 난이도 등의 편차가 심함 ▪ 교양과목의 목적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는 것인데 비슷한 언어계열의 학생들이 듣는 경우, 전혀 관련없는 타전공생은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임 ▪ 교양 과목 중 수업명에서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서 연관 전공들을 모두 들고와서 수업하는 수업이여서 매우 어려웠음. ▪ 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음
해결방안	▪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분반을 만들던지 해야 할 거 같다. ▪ 시간을 다르게 배치하여 같은 교양이지만 난이도 별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 ▪ (1), (2) 와 같이 여러 학기를 거쳐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한다 ▪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를 폐지하고 인기 있는 강의 여석을 늘린다. ▪ 관련 전공자와 분리하여 성적,과제 채점을하거나 전공자는 수강을 제한한다. ▪ 교양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과목명에 '기초, 고급' 등의 수식어를 붙인다. ▪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진행 ▪ 지속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수준별 교육 진행 ▪ 수업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자료 및 적극적인 교수님들께서 저극적인 포털사이트 활용 ▪ 교양과목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 수업의 난이도와 과제의 량을 개선하면 될 것 같음. ▪ 이공과 계열의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실제 사회에 적용된 사례를 다수 알려주시면 좋겠음. 또한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전문 지식은 없지만 관심은 있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돌입하기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음.

5. 수업 난이도 부적절 4.1%	
	▪ 해결방안으로는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준에 맞추어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음. 해당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공에 관심이 있어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단계를 세분화하거나 수업의 내용 및 제목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음. ▪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체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교양 개설 ▪ 학생들의 만족도 우선시 ▪ 다양한 평가 방식 도입: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는 프로젝트, 토론, 그룹 과제, 포트폴리오,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분반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자들이 단체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마련해 어려웠던 부분이나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 질문을 받는다. ▪ 교수 간 소통을 통해 난이도 및 수업 내용 양을 비슷하게 맞춰야 함. 하지만, 실재로 많은 교수들이 소통을 통해 양을 일치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현실이라 판단 됨.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방대한 양의 수업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심화된 교양 수업의 강의 내용 개편. ▪ 수업을 수강할 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확하게 게시. ▪ 개론수준의 기초교양이었으면 좋겠다. ▪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파악하여 수준별 수업 진행 ▪ 다양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흥미 높이기 ▪ 강의 중간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여 수준별 수업 진행 ▪ 시험 중심 교양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 증가가 중점이 되는 수업 진행 ▪ 타과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난이도를 낮춘다 ▪ 언어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그 언어의 기초 교양반은 듣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음. 복습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교수님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양 과목은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중 관심이 있는 것을 들어보는 경험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가벼운 주제 및 수업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 교양과목이니 너무 전문적이거나 일반인이 자세히 몰라도 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듣기에 거부감이 적도록 얕게 파헤친다. ▪ 한 학기에 배울 내용을 1년에 걸쳐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음 ▪ 전공을 듣는 학생들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수업난이도에 따른 분반, 학생이 난이도를 선택. ▪ 수업의 방향을 여러 가지 주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양과목의 전반적인 난이도 하양, 난이도 평준화함. ▪ 입문-심화단계로 나누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선택 가능한 수준과 연계성 있는 과정을 운영하면 좋을 것

6. 강의시설, 강의도구, 실습도구 0.1%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적인 실험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 부재
해결방안	▪ 우선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간 또는 인프라 대여해서 사용하고, 점차 인프라 구축

7. 강의자료 미흡 1.1%	
현황 및 문제점	▪ 단순히 수업 자료, PPT를 읽거나 내용적으로 부실함을 느낀 경험이 있음 ▪ 몇몇 과목은 수업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시험 기간이나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몇몇 교양 강의에서 여러 해에 걸쳐 최신화가 전혀 되지 않는 강의 자료가 재활용되어 수업의 질이 낮고, 유사한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 내용이 많은데 강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타이핑을 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효율성과 수업의 질이 떨어짐 ▪ 교수님들은 저작권 문제라고 주장 ▪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오래된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빈번함. (교수님의 부지런함 부족) ▪ 일부 교양 수업이 전공 수업에 비해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 ▪ 최신화된 교육자료 부족으로 강의 내에서 지칭하는 '현재'가 몇 년 전인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음. ▪ 수업 자료가 매년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은 교양과목이 많다고 느껴짐 ▪ 매년 같은 자료로 반복해서 수업을 하는 교양과목이 있어 현재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해결방안	▪ 오래된 과목의 경우 수업 내용의 수정도 필요함 ▪ 교수님들이 PPT를 따로 제작해서라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강의평가 이외의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방법 모색 ▪ 매 학기 추가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 ▪ 2-3년이 지난 자료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하거나 새로운 녹음을 해야한 다는 식의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수업내용이 최신의 상황과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수업일 경우라도 반드시 너무 오래된 자료는 새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수강 신청 전 자료에 대해 미리보기 방식으로 자료를 일부분 보고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보고 자료의 부족으로 정정을 하는 경우를 예방

8. 소통 미흡, 피드백 미흡 1.6%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의 피드백을 에브리타임이나 URP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지만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음 ▪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시간 대면 수업 + 시간 대비 인원이 많아 교수님과의 소통이 쉽지 않음 ▪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만 진행하는 수업이 주류로 진행되어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듦. ▪ 학생과 교수 간의 원활한 소통이 없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혁신적인 수업이 거의 없다. ▪ 교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강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수업들이 많음 이로 인해 학생 . 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개별 지도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다인원으로 인해 출석인원을 한명한명 체크하기 어려워 출석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음. ▪ 대규모 교양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이 부족할 수 있으며, 학생-교수 간의 개별화된 피드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 토론 및 워크숍과 같이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커넥트 되는 수업이 비교적 적어 소통의 창구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함. ▪ 수업 내 학생들과 교수의 교류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강의평가 외에 소통수단이 없음 ▪ 대형 강의에서는 토론 형식의 수업이 불가능하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함

8. 소통 미흡, 피드백 미흡 1.6%	
	▪ 학생들의 피드백이 수업에 잘 수용되지 않음 ▪ 소통이 전혀 없다. ▪ 교수님들의 가치관과 학생들의 가치관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 ▪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얻고자 하는 바나, 수업이 끝난 후의 피드백 등을 통한 소통이 없다.
해결방안	▪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개설과목에 대한 수강자들의 평가와 그에 대해 이번 강의에서 개선된 점을 간략하게 표기 ▪ 과목과 전공의 접합 예시 강의 필요. 실제로 파이썬이 어떻게 도시공학과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필요함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교수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만들어야 함. ▪ 다양한 혁신적인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학생들 의견 수렴)과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함. ▪ 교양 과목의 수용 인원을 줄이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조금 더 신경쓰고 케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하며 또한 꼼꼼한 출석 확인이 필요함 ▪ 피드백 제공: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원합니다. 피드백은 학생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소규모 수업 개설: 큰 교양수업을 여러 개의 소규모 수업으로 분할하면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과 교수자와의 상호 작용 기회가 늘어납니다. 작은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은 더 쉽게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쉽습니다. ▪ 그룹 프로젝트 및 토론: 교양수업에서 그룹 프로젝트 및 토론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협력 및 팀워크 스킬을 개발하고, 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 교수자와 학생의 열린 소통: 교수자와 학생 간의 열린 소통을 장려합니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하도록 장려하며, 오피스 아워나 이메일을 통한 상호 작용을 촉진합니다. ▪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교류할 수 있는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창작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 개인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을 접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 조별 활동 없이 개인 과제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닌 lms 앱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쉽게 교류를 하여 소통, 팀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모니터링단과 같은 학교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같은 교양과목에 대한 분반 ▪ 학생의 참여, 토론 등을 평가에 기준에 넣으며 교양교육에 깊이 있게 흥미를 느끼고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만든다. ▪ 학생들의 피드백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다음 학기에 대학 자체에서 교수평가, 강의평가를 진행함 ▪ 수업 전에 어떤 수업을 예상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수업이 끝난 뒤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 이를 귀찮아하고, 설문 답변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기에 이 설문조사를 성적에 반영하면 좋겠다.

3) 수업내용

1. 강의의 질 차이 2.2%	
현황 및 문제점	▪ 이론은 넘어가고 문제 푸는 법만 배움 ▪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명 한명한테 집중을 못한다. ▪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시대 문화에 대한 적응이 부족함. ▪ 많은 교수님께서 몇 년 전 자료를 매년 똑같이 사용하고 계심. ▪ 따라서 몇몇 문장들은 현재 사회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있음. ▪ 교수별 수업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특정 교수에게로 수강 희망 학생이 몰림 ▪ 제공해주는 수업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음 ▪ 교양학문의 깊이가 얕으며 심층적 교육이 필요하다. ▪ 융복합글쓰기와 같이 몇몇 과목들은 교양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준의 강의에선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겨짐. ▪ 교양 수준도 아닌, 전공 수준도 아닌, 애매한 수업 난이도의 수업이 존재함. ▪ 매 학기 같은 교양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좋으나 내용적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됨 ▪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 시험 대비나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음 ▪ 평소 에타의 강의평을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정보가 없다”,“이 수업의 목적을 모르겠다”, “성적 따기에만 좋은 강의이다”라는 평들을 많이 목격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강의의 종류는 정말 많지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의들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작정 너무 세세한 과목들까지도 많이 개설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교양 과목은 학교와 학교 교수와 교수 간에 내용과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동일한 교양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확실한 개념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수업이 문제임 ▪ 개념적 요약이 부족한 강의 자료와 교수 개인의 사상과 주관이 많이 들어간 수업들이 있음 ▪ 기초부터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고여있는 것 같다. ▪ 교양과목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강의들이 부족하거나, 흥미로 선택했으나 다른 내용을 하는경우가 있음(또는 심도 부족) ▪ 교양이란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다루며 학문의 기초, 문화적인 이해,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등의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교양과목 중 그의 해당하는 과목이 몇 개가 있을지 의문이다. ▪ 교양수업이 제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고 재미가 없음. ▪ 교양 수업이기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 역량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음 ▪ 일부 교양 수업은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불만스러웠던 교양 수업의 특징을 보면 모두 체계적이지 않다. ▪ 매우 당연하고 상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 학기 내내 하니 수업을 들으면서 얻는 게 없고 단지 학점을 위해서 듣는 학생들이 많다. ▪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업로드하여 5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과목이 적지 않음 ▪ 교양교육의 본질보다는 학점 위주의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 ▪ 매년 반복되는 강의에 재학 기간 중 새로운 강의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함 ▪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같은 강의 ▪ 학생들의 의견 조사 미흡 ▪ 교양이라 하더라도 수업의 수준이 떨어지는 강의가 간혹 있음. 배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강의도 있음. ▪ 전공이 아니기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하다보니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듯함. -그럼에도 학생들은 학점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여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음. 결국 이는 단지 학점만 채우는 강의, 배워가는 것이 없는 강의가 되어버림. ▪ 흥미롭고, 실질적인 수업은 인터넷 강의 수업에 더 치중되어 있음 ▪ 교양 강의의 질이 극과 극으로 나뉨

1. 강의의 질 차이 2.2%	
해결방안	▪ 시험을 이론으로 내야 함 ▪ 정원수를 관리하면서 과목을 증설한다. ▪ 학교가 교수님들께 교육 자료와 강의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원 ▪ 전공의 벽을 허물고 통합성과 전문성을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 개편한다. ▪ 교수자가 수업을 확실히 준비하고 프로 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여야 함. ▪ 교양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편중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야 함. ▪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주제에 대해 자세하고 집중적인 강의 진행 ▪ 매년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하나씩 강의를 개설해야 함 ▪ 같은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 해당 과목에 대한 수준 내용들은 맞추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해야 함 ▪ 교수의 주관적 사상이 아닌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업 태도가 필요함 ▪ 수업의 방향을 여러 가지 주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강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이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재촬영하여 업로드하도록 함 ▪ 매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새로운 교양 창설 ▪ 총학생회 복지부 혹은 하나의 부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실시 ▪ 구글 폼을 통해 의견을 받고, 강의 평가 목록에 전체 교양 탭을 추가 ▪ 반응을 주기적으로 체크 (전체 대상 면담회) ▪ 교양 창설 대회에 뒷 받침 할 프로그램 만들어야 함 ▪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강의가 있다면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기재, 해당 강의에 개선 요청 메시지를 전송,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 인터넷 강의 수업 중에서 인기가 많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은 현장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른바 꿀강이라고 불리는 강의를 분석해 다른 강의들도 그와 비슷하게 변경. ▪ 비슷한 전공 사람들끼리 교양 선택하게 하고 진로에 맞는 실무 경험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하는 교육방식 만들기 ▪ 필요없는 교양수업은 빼고, 있는 교양수업은 명확한 주제를 가지도록 해야 함.

2. 전공과의 연계성 저하 0.2%	
현황 및 문제점	▪ 학과에서 지정한 일부 교양 필수과목들은 전공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듦 ▪ 전공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짐
해결방안	▪ 각 학과마다 요구되는 교양필수를 다르게 설정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분야를 정해서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

3. 교양 효용성 관련 4.8%	
현황 및	▪ 암기식 공부법으로 인한 문제. 학점만을 중요시해서 일어난 결과 ▪ 과목에 대한 이해나 응용보다는 결과값에 치중함.

3. 교양 효용성 관련 4.8%	
문제점	▪ 앞으로의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이 많지 않다. ▪ 학생들 또한 수강신청 시 교양보다는 전공과목의 신청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 전공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본 상식에 대한 과목(미분적분학, 일반물리 등)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 ▪ 교양의 경우도 학과의 공부와 관련된 과목이 많아지면 좋겠다. ▪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수강을 할 만한 과목이 없다. ▪ 교양수업의 성적이 시험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과제, 출석 점수가 있다고 하지만 성적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 성적만을 위한 수업이 아닌 20대 초반의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 많아지면 좋겠음 ▪ 매번 똑같은 수업과 흥미롭지 않은 교양교육과정 ▪ 교양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 또는 관심 분야와 관련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인턴이나 졸업 전 취업 시에 전공 외의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낌 ▪ 급변하는 트렌드와 달리 과거에 멈춰있는 교양 과목 분야 ▪ 교양과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의 혼재 ▪ 본인의 교양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점을 받기 쉽거나 만만한 수업을 선호함 ▪ 교양 과목이 교양 증진이 아닌 시험 준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 전공과 다르게 교양은 수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수업이 많아 시험이나 과제를 할 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와 달라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수강 이유에 대한 의문 ▪ 오직 성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공부하고 잊어버림. ▪ 교양을 증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강의들이 많음 ▪ 인터넷수업의 경우 매년 똑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음. ▪ 교양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강의들이 너무 많음. 실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보다 그저 학점을 주기 위한 과목들이 많다고 생각함. ▪ 실제지식 전달이 주 목적인 단편적 교육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 주입식 수업이 대부분이라 휘발성이 짙은 지식을 습득하게 됨. 때문에, 교양 증진을 위해서가 아닌 졸업을 위해 듣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음. ▪ 성적 산출만을 위해 시험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 같음 ▪ 타 대학의 경우 강의를 들으면 엑셀 자격증을 주는 등의 강의가 있지만, 졸업 후 도움이 되는 강좌가 부족하다. ▪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보다 학생들을 평가하기 쉬운 내용을 가르치려하는 경향이 있음. ▪ 학생들이 자신의 교양 수준을 넓히기 위해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그저 졸업을 위한 교양 이수 학점을 채우기 급급함. ▪ 교양다운 교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론 위주의 수업이 많고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교양이 부족한 것 같다. 교양이 지식의 확장보다는 암기의 확장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 ▪ 강의평을 중시하여 심화학습이 어려움. ▪ 학생은 교양을 졸업을 위한 조건 그 이상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음. ▪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하지 않는 이론과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외워야 함 ▪ 대부분 수강 교양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이 많은데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내용과 그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감소함 ▪ 교양 수업 같은 경우 교양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마다 그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게 평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3. 교양 효용성 관련 4.8%	
	▪ 자신의 전공과 대부분 관련이 없는 교양 강좌를 수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함 ▪ 교양의 강의수준이나 과제 등 요구 수준이 높아 부담감이 큼 ▪ 교양 교육이 너무 심화적임 ▪ 교양 과목과는 별개로 다른 내용을 강의하는 수업이 있음 ▪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교양이 다소 부족하다 ▪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신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교양평, 과제양의 여부, 교수님, 시험관련 정보 등을 통해서 교양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공부량이 거의 없는 생활체육, 창업길라집이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쏠린다. 취업이나 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양과목이 적다.
해결방안	▪ 조별로 모여 과제나 수업 진행, Speaking 실습 위주 수업 ▪ 학점 분배율을 조절하여 학점보다 교양 과목당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으로 교양과목 이수하였으면 함. ▪ 한학기에 한번씩 하는 강의평가를 좀 더 활용하여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개설해 나간다. ▪ 강의평가 시 듣고싶은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반영한다. ▪ 전공을 듣기위한 교양 필수과목의 경우에도 선택지를 늘려주면 좋겠다. ▪ 언어같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과목보단 미술, 체육 등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과목들을 더 많이 개설하여 교양과목은 큰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성적 뿐만아니라 교양과목이라는 특성에 맞게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아졌으면 한다. ▪ 토론 수업, 주체적 수업을 해야함 ▪ 여러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한 고착화 해결 ▪ 학문 분야 간 융합을 장려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접근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 현장실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설문조사 한다. ▪ 타 대학교의 교양과목을 벤치마킹 시도한다. ▪ 교양 과목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학사 규정 개정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토론, 그룹 활동 등의 학습 경험을 제공 ▪ 평가기준에서 시험에 비중을 줄이고 교양 증진의 커리큘럼 시행 ▪ 대면 수업 시, 팀별로 봉사활동의 “의의”에 대해 토의하거나 직접 해본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좋을 것 ▪ 교양에서 성적 평가방법을 바꾼다. 예)A,B,C 성적 분포를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고 교수님의 재량으로 +를 달아준다. ▪ 성적 평가시 시험성적보다는 출석이나 과제에 비중을 더 두어 평가한다. 예) 출석 20점, 과제 30점 중간, 기말 각 20점, 태도점수 10점 ▪ P/F 성적 평가방식의 강좌 증설 ▪ 인터넷수업의 경우 최대한 내용을 바꾸어 수업을 매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함. ▪ 사회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함. 예) 쉽게 배우는 노동법, 민법 등 ▪ 매 학기 말 교양 과목 시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교육방식을 수집

3. 교양 효용성 관련 4.8%	
	하고, 활용하면 학생들이 학점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교양을 가르칠 강사나 교수를 더 채용해서 실제 취업이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양 강의의 수를 늘려야 함. ▪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할 듯. 생각과 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활동이 주를 이뤘으면 좋겠음. ▪ 여러 가지 패스 과목을 만들어서 성적 위주의 수업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음. ▪ 학생들과 교수의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별 활동, 소통 도구 도입. ▪ 필수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양 과목을 새로 생성한다. ▪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교양 강의를 생성한다. ▪ 교양의 의미와 맞게 학생들이 직접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은 양질의 수업을 위해 직접 참여의 과제를 출제한다. ▪ 과제를 없애고, 대신에 양질의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 도출 가능할 것 ▪ 교양과목임을 감안하여, 시험 난이도의 하향조절 ▪ 설문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은 많지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목(예를 들면 예체능 계열, 간단한 실험 등)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 교양이지만 수업내용이 학생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로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음. ▪ 중간과 기말 시험의 평가 비율을 줄이고 교양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거나 현장 답사, 또는 조별 과제 등 같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제나 평가를 도입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한다. ▪ 교양 교육의 수준 하향화가 필요함 ▪ 교양 강의평가 의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교양 과목의 등급 제한을 전공보다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수강신청 전 교양 과목에 대한 충분한 소개나 안내가 있었으면 함 ▪ 패스 논패스 도입 ▪ 교양의 목적에 맞게 교양 과목의 확대 ▪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표나, 강의 방식, 출제 방식 등의 특정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으면 좋겠다.

4. 수업 분위기(참여도, 학업 수준 등) 1.8%	
현황 및 문제점	▪ 이론적인 강의가 많다보니 실무적이지 않고 수업에 흥미가 떨어짐 ▪ 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수업이다 보니 집중하지 않는 학생 다수 ▪ 학점 채우기 용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의지 부족 ▪ 교양수업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는 만큼 단점 또한 존재함. 실질적으로 교수님의 강의에 방해되거나 팀플레이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음. 특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팀플레이 과제 진행시에 수업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많지 않은 학생이 다수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음. 특정 인기있는 수업에 인원이 많이 몰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단순히 교양 학점을 채우기 위해 어떤 수업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음. 이렇게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는 것 같음. ▪ 현재 1학년 공통 교양과목인 [사회공헌과봉사]는 전면 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수업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강의임

4. 수업 분위기(참여도, 학업 수준 등) 1.8%	
	▪ 1학년이라면 모두 들어야 하는 중요도 있는 과목임에도 수업 출석률도 낮고 학생들의 태도도 좋지 않음. ▪ 교양과목이기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및 해당 과목에 대한 노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 학교에 비하여 교양과목 중 인터넷 강의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수강 측면에서는 인터넷 강의의 이점이 더 도드라지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 과제 참여율이 낮고 저학년일수록 더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 만만하게 보고 족보로 편하게 한다 ▪ 교양강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탐구할 시간을 가질 수 없다 ▪ 학생들의 참여도가 부족하다 ▪ 강의력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 15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 수업진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거 같다 ▪ 학생들을 수업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다 ▪ 지루하다고 느껴짐
해결방안	▪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관심 필요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후 수업 방식 적용 ▪ 전공분야별 교양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듣고 싶은 전공관련 교양과목의 선택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가 많은 만큼 사람들의 관심분야도 다양하기에 교양과목수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함. 시험이 이루어지기 전, 시험 시간동안 요구되는 학생의 에티켓을 사전에 알리고 권고하는 교수님의 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면 대면 수업이 아닌 블렌디드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한다면 좋을 것 같음 ▪ 인터넷 강의의 비중을 좁히고 대면 강의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 ▪ 강의 중간 쉬는시간 활용 ▪ 수업과 관련된 영상으로 지루한 분위기 전환

4) 시험운용

1. 성적, 평가 관련 2.4%	
현황 및 문제점	▪ 교양과목들이 요즘 학생들 성적 나누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거 같아 아쉽다. 교양과목 만큼은 평소에 다른곳에서 못듣지만 살면서 한번쯤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기에 한번 듣는 강의 그 강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싶은데 성적나누는데 급급해서 그런 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 취업과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이 취업에 목을 메기 때문에 학점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성적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힘듦(이의신청, 평균 점수 확인 등). 공개적이지 않은 성적 산정 방식 ▪ 평가 기준이 모호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평가 방식이 문제임. ▪ 팀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고, 팀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 교양과목들이 교양 함양을 위한 본지의 목적과는 반대로 수업자료와 글만을 외우는 학점 따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 교양 수업의 내용의 질보다는 교수자가 얼마나 학점을 후하게 주는지, 학점 취득이 비교적 쉬운지 등이 현재 교양 수강신청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임. ▪ 학생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아닌 성적을 잘 주고 쉬운 과목만 선택함

1. 성적, 평가 관련 2.4%	
	▪ 시험의 비중을 줄이게 되면 학생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여 결국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 교양수업에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 전문 분야 수업과 다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또한, 강의자 간에 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 너무 시험과 성적을 내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배우는 이유와 너무 동떨어지고 있다. (교양과목의 정의 :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배우는 행위) ▪ 학과마다 어떤 것을 위주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다 다르고 공통적으로 통합시키기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 생각함. ▪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아닌 학생들과 교수님의 주관적인 평가로 공평하지 못한 평가를 함 ▪ 시험 후 성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지 않음 ▪ 성적공개 의무화 미실행 ▪ 응용 능력보다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 시험방식이 시험 시간은 짧은 반면 많은 문제를 내 학생들이 점수 받기 어려워 함 ▪ 이과 계열 교양들은 전공보다 시험이 어려움 ▪ 약학대학 등 타과보다 월등히 잘하는 학과와 함께 수강 ▪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점수 등 세부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성적만 공개함. 학생들이 교수님께 세부기준을 물어보지만, 알려주지 않는 분도 있으시며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자신이 틀린 것을 알아가는 것 또한 공부의 일종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알지 않고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에서 그치는 시험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논술형의 경우 평가 기준이 모호함.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만을 겪는 것으로 보임.
해결방안	▪ 성적에 구애받지 않는 교양 과목이 많이 나오고 해마다 교양과목의 종류를 늘리고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트렌드를 가르쳐주는 교양도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LMS를 통한 학생 성적, 평균 성적 등 공개 ▪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팀원 구성시에 랜덤이 아닌 자율 구성 또는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관심사를 고려했으면 함. ▪ 교양 강의 간의 차이를 없애고 학점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나 P/F을 채택함. ▪ 교양 강의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학생들의 선호하는 절대적인 편향이 없도록 절대평가나 P/F 성적평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 문제의 원인은 소위 '꿀교양'에 있기에, 성적 평가제도를 P/F로 바꾸어야 함. ▪ 혹은 교양과목의 평가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거나 출석 점수에 확실한 차이를 두어야 함. ▪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면 해당 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역량 평가가 가능함 ▪ 시험 위주의 성적 평가보다 실기, 출석, 과제, 참여도에 중점을 두는 평가 방식 ▪ 중간/기말시험 중 하나를 과제로 대체해서 이해도를 파악함 ▪ 발달 과정 이론 또는 토론과 같은 활동들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 시험은 등급을 나누기 위해 필요하니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제의 방식을 활용하여 성적을 매기는 것을 추천 ▪ 시험 대신 과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 지면 좋을 것 같음 ▪ 교양 학점에 p/f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 같음 ▪ 인원수가 많다면 절대평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해당 수업의 학점 분배를 타 과목보다 좋은 수준(ex, A,B 비율 증대 등)으로 부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적, 평가 관련 2.4%	
	▪ 수업 시간을 이용해 평가하는 방식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ex. 토론, 발표) ▪ 재학생과 교직원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교양과목에 한해서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꾼다. ▪ 높은 성적의 비율을 높이면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1. 명확한 평가 기준 개발: 교양수업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학생들과 교수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해야 하며, 학생들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교수자 간 교육 및 교재 공유: 교수자들은 평가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교수자 간의 교육 협력을 장려하고, 좋은 평가 방법과 관련 교재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중립적인 평가자 고용: 학교는 교양수업의 평가를 위해 중립적인 평가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다른 학과의 교수 등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평가과정의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평가 방법, 기준 및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 0평가 방법 혁신: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학습 결과를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토론, 그룹 활동, 논문 쓰기 및 발표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스킬을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 교양과목에 한해서라도 높은 학점의 비율을 늘려(A학점의 경우 35%->45%)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수업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한다. ▪ 절대평가를 통한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택의 폭을 넓힘. ▪ 시험으로 성적을 내는 게 아닌, 학우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평가 ▪ 토론과 같은 참여형 과제 등으로 평가하는 비율을 확대함 ▪ P/F 교양강의 확대 ▪ 학교측에서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선 ▪ 학생들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교수님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필요 ▪ 학생들에게 세부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함, 대구대학교의 경우 시험 성적열람 시, 과제 점수, 중간 점수, 기말점수 등을 입력하는 칸이 있음. 이 또한 교수 재량으로 학생들이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성적만 공개하지 않고 함께 세부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이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짐. 만약 이를 반영한다면 세부성적 입력은 교수재량이 아닌 의무화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이 요구할 시 시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서술형 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특히, 논술형 및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경우 평가기준이 단순히 '교수재량' 혹은 '교수 마음대로'라는 말이있을 만큼 모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험 이후에라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함. ▪ 총학생회가 성적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실행 ex) 시험지에 학생 본인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작성하여 공지사항에 성적 공지 ▪ 중간, 기말 둘 다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실습 과제를 평가에 넣는 등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음 ▪ 문제수준을 좀 더 올리고 문제 개수를 줄인다 ▪ 평균학과 보다 뛰어난 학과는 과 안에서 교양 개설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현황 및 문제점	▪ 몇개의 교양과목들을 보면 다년간의 시험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과목의 시험에서 변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기도한다. 그래서 문제 1개라도 틀리면 A+에서 B+로 성적이 순식간에 내려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 같은 교양과목을 매학기 개설되다보니까 시험문제를 내는 것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몇몇 교수님들은 시험문제 제작하는게 번거로울수도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험문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과 형태 > 반복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다. ▪ 학생들간의 커뮤니티 혹은 SNS 등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다. ▪ 문제가 한층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보다는 이론에 충실한 고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반영될 필요성이 적다. ▪ 같은 교수가 매 학기 같은 주제를 활용해서 반복된 강의를 하고있기에 오래된 강의는 족보가 흔히 거래되고 있음. ▪ 족보의 유무에 따라 공부한 것과는 관계없이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 ▪ 매년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비슷하고 문제 유형이 비슷함 ▪ 에브리타임과 같은 sns에서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자주 보임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시험이 간편해져서 온라인 시험이 증가했다 ▪ 동일 ip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통화를 통해 시험 정보를 공유하며 시험을 친다 ▪ 혼자 시험을 보지 않고 옆에 시험을 도와주는 조력자와 같이 시험을 치는 문제 발생 ▪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과 형태 > 반복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음 ▪ 학생들간의 커뮤니티 혹은 SNS 등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음 ▪ 문제가 한층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보다는 이론에 충실한 고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반영될 필요성이 적음 ▪ 몇 교양 수업은 시험 형식과 문제가 미리 공유되어 정보의 차이로 학점 차이 발생 ▪ 학생들 간 정보 공유로 인한 학점 차이가 발생함 ▪ 한 전공에 속하는 교양이 많아 지식에 대한 편차가 발생함 ▪ 매년 같은 자료와 시험 문제를 반복 ▪ 일부 교양 수업의 매년 시험 문제가 바뀌지 않아 악용하여 족보가 공유됨 ▪ 어려운 내용과 시험으로 수강하기 부담스러운 과목이 많다. 족보의 유무로 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단순 학점 채우기 상황 우려 ▪ 비전공자의 학생들의 입장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 ▪ 학점 잘 주는, 인터넷 강의 및 족보가 돌아다니는 소위 '꿀교양'을 찾는데 목메이는 상황에서 학생 입장에서 전공 공부에 덧붙여 교양마저도 시험 문제가 어려운 과목을 하려 하지 않는다. ▪ 인터넷 강의 교양 과목들은 시험시간 대비 문제 수가 많고 매년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이 비슷해 족보를 통해 시험 치는 학생 수가 많다. ▪ 교양이라해서 전공에 비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며, 일부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전파되어 교수님 입장에서도 성취에 맞는 학점을 주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 교수님들의 바뀌지 않는 문제 출제로 인한 족보가 생성되는 시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학점중심의 경쟁사회 ▪ 교수님이 시험문제를 바꿔 제출하지 않고 매학기 똑같이 문제를 내는 상황이 발생 ▪ 매학기 시험문제가 같기 때문에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앱에서 족보를 팔거나 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 ▪ 공부를 하지 않아도 족보를 보고 시험을 본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시험을 본 학생 사이에 불공정함이 생김.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 인터넷 수업의 경우 매년 수업영상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스크립트 등을 구매하여 시험을 치는 학생이 점점 늘고있음.
- 시험 방식도 객관식이 대다수다
- 수업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족보를 통해 시험을 친다
- 교수님께서 시험문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험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시험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신 교수님이 대부분임.
- 일부 온라인 교양 과목의 경우, 온라인 시험 방식을 진행할 경우 이전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족보 유출과 또는 수강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함께 답안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루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균을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
- 시험 문제, 강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매년 반복됨
- - 강의를 듣지 않고 족보만 외워 시험을 보는 경우도 많음
- 족보 매매 과목은 성적 기준이 까다로우며 족보 유무에 따른 성적 편차가 발생함
- 교양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에 성실하지 않게 됨
- 시험의 경우 이해도와 응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보다 단순 암기 문제가 많음
- → 시험기간에 단기 암기 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 현황 및 문제점- 매년 같은 내용의 시험 문제가 나옴-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간에 족보나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알려주는 정보들을 사고 파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문제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 암기로만 진행되는 문제들이 많아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시험문제를 단순 성적 매기는데 쉽게하기 위해 단답형으로 많이 출제함
- 시험문제 자체가 단순히 내용을 암기해야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형식이 많음
- 교양교육 과정들이 암기와 시험을 위한 수단이 돼버림
- 깊은 이해와 공감이 되지 않아 암기에서 멈춘다는 느낌을 받아 교양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음
- 시험문제가 바뀌지 않고 순서만 다르고 또는 아예 순서조차 같은 경우도 있다.
- 학생들의 책임감 없는 문제 유출로 인한 흐려진 시험의 공정성
- 동일한 교수님이 같은 교양 과목을 유지해서 쭉 강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몇 교양 과목의 경우 '족보'라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지는 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순수하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의 피해가 있다
- 시험 문제가 매년 동일한 강의가 많아 강의에 대한 족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남
- 인기 교양과목과 비인기 교양과목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강신청 중 강의를 사고 파는 행위,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
- 많은 수강생이 듣는 과목이 많다보니 그만큼 시험 문제 유출도 다분한데 변하지 않는 출제 유형으로 유출된 문제를 얻은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에브리타임을 통한 족보 거래.
- 인터넷 강의의 경우 인터넷으로 족보를 사고파는 일이 많다.(짧은 시간 내 방대한 문제를 풀어야해서 시험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것같다고 함.)
- 족보가 이미 너무 대중화 되어있어 안사는 사람이 손해되버리는 구조가 되었다.
- =>시험문제 유출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완성되고 유통됨. 문제점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되는데 그 해결방안이 다른 문제점이 되는 교집합 구조가 보임.(흥미 > 족보매상매수 > 성적)
- 학기마다 시험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 족보 판매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
-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 시험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직접 강의실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에 출석해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돈을 주고 족보를 구매하여 유출된 시험문제를 암기하는 식의 공부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시험에 내는 문제들이 지엽적이다.
- 수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막연히 외우는 상황이 벌어진다.
- 족보를 구매하거나 복사하는 학생은 실제 학습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양수업의 학습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의 지식과 역량 향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족보를 소유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기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불공평한 시험 환경에서 더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게 됨
- 프레젠테이션 속 내용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수업 방식과 매번 유사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서 많은 학우들이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매년 시험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점은 교수로서의 책임감 부족이라고 생각함. 세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시고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도 더러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함.
-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못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강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족보가 사고 팔리는 교양이 생기기 시작
- 족보를 구하는 학생들이 있고,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 학습의 변별력을 가리는 시험문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족보가 존재함.
- 족보를 구매한 학생과 순수하게 학습한 학생 간에 존재하는 괴리감
- 일부 학생이 지난 학기의 시험 문제를 구입하여 공부한 뒤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 매년 시험 문제가 비슷하여 족보의 유무에 따라 시험 성적의 차이가 발생함.
-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과 형태 > 반복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
-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혹은 SNS 등으로 전년도 시험 문제를 사고 팜
-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꿀강'(꿀강의라는 뜻으로 학점을 따기 쉬운 강의)이라 불리는 강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등 강의로써 메리트가 높은 강의가 아닌, 족보를 잘타는 강의임.
- 족보는 영남대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전 학기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수업 내용을 타이핑한 것이나, 나왔던 시험 문제를 돈을 받고 판매함.
- 이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강의의 시험 문제가 매년, 매학기 같다는 것임. 물론 같은 수업 내용에서 매년, 매학기 색다른 문제를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예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 족보만 보고도 높은 학점을 받는 현상이 발생함.
- 족보 거래를 제지하는 실질적인 규정이 없음.
- 매년 비슷한 유형의 시험 내용과 형태가 반복 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학생들 간 커뮤니티, SNS 등으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음
- 문제가 한층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보다는 이론에 충실한 고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반영될 필요성이 적음
- 학교, 교수님 측에서 학생들의 문제 공유 현상을 인지
- 족보 판매
- 인터넷 시험의 경우 족보와 타이핑에 의존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수업의 참여보다는 족보를 사는 것이 더 시험을 잘 받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여짐.
- 족보의 유무
- 매번 똑같은 시험 문제
- 익명 오픈채팅방, 에브리타임 등에서 잘못된 방식의 족보 판매로 이익을 얻는 현실
-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교양은 자료가 너무 많이 퍼져있다
- 족보와 똑같이 나오는 시험문제
- 시험 문제가 매년 같아서 족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 족보를 거래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간단하게 구매 가능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 매년 유사한 시험 내용과 형태 > 반복되거나 같은 문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음 ▪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혹은 SNS 등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음 ▪ 문제가 한층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이론에 충실한 고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반영될 필요성이 적음
해결방안	▪ 다양한 교과목의 교양과목의 개설을 더 늘려주고 최근 교양교수님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교양과목은 1년단위로 개설하도록 제한을 하고 교수임용을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한다(ex. 고등학교 내신 문제 중 킬러문항) ▪ 시험 문제의 다각화 ▪ 족보를 타지않는 시험문제 출제 ▪ 교수님들께서 시험에 관한 연구 필요 ▪ 해당 학기에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를 받아 다음 학기에 질 좋은 예상문제를 반영 ▪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 시급 ▪ 시험 문제를 완전 개념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개념을 통한 응용문제를 출제 ▪ 온라인 시험을 치게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미리 방지 ▪ 학교측에서 온라인 시험을 퀴즈나 과제를 제외하고 시험에서는 무조건 대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교수님께 공지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대학원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 출제 고려 ▪ 시험의 30~40%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출제 ▪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레포트로 하여 시험 비중을 줄임 ▪ 조교생과 대학원생도 교수와 같이 문제 출제 ▪ 시험 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 시행 ▪ 시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감독 규정 강화 ▪ 학생들 간의 시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 강화 ▪ 에브리타임 등이나 족보를 공유하는 곳을 단속 ▪ 수업 내용과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고 과제나 출석 등 성적을 부여할 다른 방식을 더 늘려야 한다 ▪ 기준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 고려 ▪ 객관식 문항의 비율을 줄이고 배운 내용을 통해 생각하는 것들을 서술하는 방식의 시험 문제들을 출제하고, 매년마다 시험 문제를 다르게 제출 고려 ▪ 대학원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 출제 고려 ▪ 매년 다른 유형의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변경사항을 준다. ▪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다. ▪ 학생들이 사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한 무분별한 족보 판매와 구매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 채점된 시험지를 확인할 때, 개인 전자기기를 통한 촬영을 못하게 규제한다. ▪ 배우면 의미를 둘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실습, 실험 수업을 증대시킨다. ▪ 시험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 취업시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많이 진행한다.
- 타대학의 학점제도를 활용한다.(PASS/FAIL) 과목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학업 분위기 보다는 서로 배우고 질문하는 토론 형식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낙오된 사람 없이 모두가 경쟁보다는 배움에 목적을 두도록 제도를 활용한다.)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학교에서 강력 제제
- 대면시험의 경우 시험 문제를 주관식과 객관식을 분배하여 출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과제를 내서 과제에 비중을 더 두어 평가한다.
- 문제 형식을 all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과 주관식의 비율을 골고루 증가하여 출제.
- 해마다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
- 수업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하더라도 새로운 문제 출제가 필수적
- 오픈 북을 이용해 응용문제를 더 많이 출제하도록 함
- 교수님들이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족보 구매를 엄격하게 제지해야함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험 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후 출제 고려
- 각 교수님들은 해당 과목의 시험 문제가 이전 학기 시험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른바 '재활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족보에 대한 판매에 대해 강하게 제지하고, 시험 문제와 출제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저작권에 관한 교칙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저작권에 대해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분별한 족보 사용(또는 매수) 방지를 위해 글자만 바꾸어내는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공.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 및 내용을 수정(부분적으로)
- 교수님의 시험 문제 유형이 매번 같지 않게,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들과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에 수업 중 했던 내용도 꼼꼼히 출제하는 방식.
- 매번 다른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과제 대체 시험의 비율을 증가하면 될 것 같다.
- 시험 시간 중 엄격한 관리 감독으로 시험지 유출을 방지하고 매년 매 시험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대학원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 출제 고려.
- 교수님들의 시험문제 유형 변경 또는 족보 판매 단속
- 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한다.
- 족보 판매와 구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에브리타임' 앱의 단속을 강화한다.
- 시험문제가 일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매년 바꾸는 교수님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
-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시험에서 차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오직 등급을 나누기 위한 지엽적인 킬러 문제는 되도록 피한다.
- 수업 중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등 수업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해 객관식만 고집하지 말고 주관식 등 과목별로 시험을 다르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교육 환경 강화: 학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업을 더 흥미로운 경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열정

2. 시험문제 관련(특히 족보) 10.2%

	적인 교수진과 흥미로운 수업내용은 학생들이 족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에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대학 차원에서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지 않았는지 사전비교 검토 시행 다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 등 불가피하게 유사하게 출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사 출제문항에 대한 허용 비율을 정해 기준 안에 해당될 수 있도록 권고 ▪ 젊은 교수 채용과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권고했으면 좋겠음. 모든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교수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기에 일정 범위를 정해 전년도 대비 반복되지 않은 문제의 퍼센트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못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강의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족보가 사고 팔리는 교양이 생기기 시작 ▪ 시험 유형 혹은 방식을 매년 조금씩 다르게 바꿔야함 ▪ 매년 새로운 시험문제 출제 ▪ 적어도, 똑같은 시험문제의 내용이더라도 시험유형을 바꿔 출제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중 하나는 과제 제출로 하면 일부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한다. ▪ 족보의 유무가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시험 문제를 바꿔서 출제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대학원생 혹은 조교와 함께 새로운 유형 및 문제를 만들도록 한다 ▪ 문제를 아예 다르게 내긴 힘들겠지만, 만들어놓은 30개의 문제 중 20개를 뽑아 문제를 냈다면, 문제의 수를 늘려 50개 중 20개를 뽑아내는 등 전학기, 전년도와 문제가 중복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함. ▪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교수님들의 노력이 필요함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대학원 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이 필요함 ▪ 수업내용을 최신화하고 트렌드 반영. ▪ 매해 반복되는 내용과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함. ▪ 교수님들은 매년 수업을 다르게 출제하여 족보 판매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단순히 강의자료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세한 이론 설명과 영상 자료를 통해 수업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수님 개인의 강의 준비와 연구가 중요해보임. ▪ 시험 문제를 바꿔가면 출제를 하기 ▪ 매년 같은 수업자료가 아니라 개선하고 디벨롭된 강의방식과 강의자료 제공 ▪ 최대 운영할 수 있는 교양 연도 정하기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객관식 / 주관식 / 서술 등의 조합으로 공부한 학생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 가급적 대면을 지향 ▪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매년 다르게 출제하도록 노력 ▪ 일정 정해진 비율이나 유형을 고정 ▪ 대학원 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 출제 고려

3. 시험 감독/관리 0.3%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시험이기에 pdf 자료를 켜놓고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시험으로 편하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시험일 때 강의자료(PPT)를 켜놓고 컨닝을 하며 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아무래도 강의를 틀어놓고 방치를 하여도, 시험을 컨닝을 하여도 교수님들이 알 방도가 없으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음
해결방안	▪ 해마다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 ▪ 문제 형식을 all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과 주관식의 비율을 골고루 증가하여 출제. ▪ 대면 강의에 비해 자율성이 높음 점을 반영해 퀴즈, 쪽지시험, 과제 등의 횟수를 늘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함

4. 시험 관리 기타 1.0%	
현황 및 문제점	▪ 짧은 시험시간. 학교, 교수님 측에서 학생들의 문제 공유 현상을 인지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테스트의 증가 ▪ 온라인 테스트의 영향으로 PDF파일을 시험중 켜 두고, 검색어 찾기 기능을 활용하는 학우들이 증가 ▪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험문제를 변화하기보다 시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신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준비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집중할 시간이 없어 불만 발생 ▪ 교양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교양 수업을 들으면 비전공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비전공자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은 교양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테스트의 증가 ▪ 온라인 테스트의 영향으로 PDF파일을 시험중 켜 두고, 검색어 찾기 기능을 활용하는 학우들이 증가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험문제를 변화하기보다 시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신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준비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집중할 시간이 없어 불만 발생 ▪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유리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종종 있어 그 부분이 아쉬움. 그리고 족보 타는 과목들은 족보를 사지 않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큼 ▪ 배우는 전공에 따라 학생들의 기본 상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
해결방안	▪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줌이나 영상 제출을 활용 ▪ 객관식 / 주관식 / 서술 등의 조합으로 공부한 학생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 가급적 대면을 지향 ▪ 원래 알던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수업을 통해 얻고 변화한 것이 무엇인지 ▪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성장참조평가 지향) ▪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줌이나 영상 제출을 활용 ▪ 객관식 / 주관식 / 서술 등의 조합으로 공부한 학생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 가급적 대면을 지향 ▪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면 해결 가능할 것 같음. 족보를 타지 않게 찝어주신다거나, 매번 다른 문제를 내 기출을 만들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음

5. 과도한 과제, 시험 부담 1.7%	
현황 및 문제점	▪ 교양 수준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아 가볍게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의 교양 시험이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음. ▪ 보통 고학년 때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하여 가볍게 듣기 위하여 교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과 병행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음. ▪ 교양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전공과목만큼 상당히 많아서 부담스럽다. ▪ 이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외우는가 등으로 변별력을 위한 지엽적인 문제 출제, 전공 난이도의 이론적 내용을 요구하기도 하여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 ▪ 교양강좌에 내용이 너무 많아 전공 수업에 영향을 미침. ▪ 교양강좌 과제가 너무 많고 부담적임. ▪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부담스러움. ▪ 전공 과목에 비교적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교양 과목도 전공 과목 못지 않게 시험 범위가 많음 ▪ 또한 전공만큼 공부해야 할 양이 많거나 그 깊이가 깊은 과목이 있음. ▪ 문과인데 어쩔 수 없이 이과와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했을 때,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음. 전공만큼 난이도가 높은 교양은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함 ▪ 교양 1개의 과목이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커 시험기간에 부담이 됨 ▪ 성적을 매기기 위한 시험만 중요 ▪ 성적에 대한 부담감 ▪ 아무래도 전공관련 교양 외에는 흥미가 없는 교양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을 바에는 학점 잘 주는 교양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 ▪ 교양은 교양의 의미로 가볍게 자신의 흥미를 위해 듣는 느낌이 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기별 최종 성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평균 학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에 즐겁게 즐기지 못하고 많은 부담으로 다가와 듣고 싶은 것보다 들어야 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해결방안	▪ 교양은 교양 수준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범위로 가볍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제 대체로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방식을 채택. ▪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제 대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점수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 교양 수업의 취지에 맞게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함. ▪ 학생들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에 대한 많은 자료 제공 ▪ 교양이라는 단어에 맞는 교양을 개설해야 함. ▪ 전문지식이 필요없고, 교양 수업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많은 수업을 개설하는 것. ▪ 간단한 개념 정도의 교육하기 ▪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피피티를 만들어 발표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정보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면 좋겠다. ▪ 전공수업의 이해를 위한 필수교양과목을 제외하고는 성적대신 P/F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성적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양을 P/F로 바꿔서 정말 흥미 있는 교양을 들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번쯤 알아보고 싶었던 교양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과목의 평가 방법을 P/F로 바꾼다. 예를 들어 3학점의 한자 교양을 2학점으로 바꾸고, 퀴즈나 가벼운 시험을 통해 P/F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5) 과목 개설/증원

1.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현황 및 문제점	▪ 우선적으로 강의 주제, +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전공에 크게 방해받지 않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함. ▪ 자기가 진정 듣고 싶은 교양이라도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면 괜시리 듣기가 꺼려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교양이라면 관심이 없어도 들으려고 한다. ▪ 인기 과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양과목 배치 ▪ 인기가 많은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어렵고, 결국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은 희망하지 않은 교양수업을 수강할 확률이 높아짐 ▪ 현재 인기 있는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가능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수강신청에 실패하면 자신의 들어야 할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자신의 대학 커리큘럼이나 졸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 교양 과목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지만, 작성자도 그렇고 실제로 주변에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설문조사 참여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전공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진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과 코칭 관련 교과목이 중요함. 또한 실무적인 면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더욱 증설되었으면 함. ▪ 과목의 수강생이 많으면 증설하고, 적으면 폐강해야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의 수가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교양 과목의 수요에 비해 여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 있음 ▪ 재이수 학생으로 인해 여석이 부족함 ▪ 1~2학점 교양 수업이 수강하려는 학생 수에 비해 적어 수강신청이 어려움 ▪ 수강인원의 한계로 원치 않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 경쟁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 인기가 많은 강좌의 수강하고 싶지만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 ▪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신청이 어렵다. ▪ 호불호가 너무 확실히 갈린다. ▪ 결국 다른 강의를 듣게 되며 흥미가 없어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어야 한다. ▪ 인기 있는 과목은 듣기가 힘들다 ▪ 원하는 교양수업을 듣기위해 수강신청을 하지만 인기있는 교양 과목들은 주로 여석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수강과목을 듣기 어려움. ▪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열린 수업은 적음 ▪ 수강 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특정 인기 과목에 학생이 집중됨 ▪ 2학점이며 인기가 많은 교양(걷기, 배드민턴)의 강좌를 더 늘린다. ▪ 인기 있는 과목에 수강인원이 모이게 된다. ▪ 인기 있는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가능여석이 수요보다 적어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함 ▪ 비인기 강좌는 신청 안하고 인기 강좌에 모여든다. ▪ 인원제한 때문에 듣고싶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 ▪ 인기 많은 교양과목의 수업 개설 수가 적다. ▪ 인기가 있는 과목을 맡을 수 있는 교수님의 수가 적다. ▪ 인기 과목의 경우, 인원초과로 인해 수강 불가하거나 수강 하더라도 너무많은 수강생 때문에 교수와의 충분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1대 다수의 수업의 방식에서 소통의 문제가 더욱 불거지는 것 같

1.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음.
- 특정하게 인기가 많은 소수의 교양에만 몰리는 현상이 있음. 또한 교양 과목의 시간대 자체가 오전 수업이 적음. 이처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이는 수업인 반면 시간대의 다양성이 부족함.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를 가진 교양의 부족함 또한 존재함. 늦은 시간대의 야간 수업은 많은 반면, 오전 수업의 교양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 한정된 수강인원으로 인하여 자신이 듣고자하는 교양 강의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강의실의 수용가능 인원이 제한되어있고 큰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발생할 것이라 판단함.
- 인기가 많은 과목은 수강 신청 실패해서 들을 수 없음
- 인기 강의는 수강신청이 어려움을 악용해 에브리타임에서 파는 학생들도 있음
- 인기 강의에만 정원이 늘어남
- 인기 있는 과목(ex.과제없음)의 여석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말 듣고 싶은 학생이 듣지 못하고, 인기 없는 과목들은 정작 자신이 듣고싶은 과목이 폐강되어 들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교양과목의 정원이 줄어들면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쉬움. 특히 인기가 많은 수업을 수강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아쉽게 생각함.
- 인원 수용이 적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예시로 4년 동안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었지만 듣지 못하고 졸업 하게 된 사례가 있다.
-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여석이 없음
- 배우고 싶은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개설되지 않음.
- 너무 적은 여석으로 인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 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강의를 개설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인력도 부족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특정 과목에만 너무 인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맞추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 듣고 싶은 교양은 누구나 비슷해서 들을 수가 없음
- 인기있는 과목에만 많은 사람이 몰림
-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다.
- 인원이 몰리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수강신청부터 마치 티켓팅을 하는 것처럼 긴장한 상태로 진행해야하고, 수강신청 실패시 시간표를 다시 구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 수강하려는 사람이 많음. 여석에 제한이 있고 그마저도 첫날에 1,4학년이 신청을 다 하게 되면 2,3학년은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강좌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고, 만약을 위해 여러 강좌를 생각해 놓아야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음
- 인기 가목과 비인기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수가 큰 차이가 없어서 남는 과목과 넘치는 과목이 동시에 생김
- 수강 가능 인원이 부족하여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음.
- 인기 강좌에 수강인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
- 원하는 분야의 교양을 수강하고 싶어도 수강을 못하는 경우가 다분함
- 한 교양당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 또한 원인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과목은 자리가 없음.
- 특정 강의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강함
-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수강을 원하는 교양을 듣기 위해 돈을 주고 수강 신청을 대리함
- 비대면 강의나 인터넷 강의도 인원수 제한이 있어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다루는 강좌의 수가 한정적이라,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음.

1.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 대부분 한 학기의 최대 이수 학점을 취득해 4학년이 되었을 때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2학점 수업이 다소 부족하고 인원과다로 인해 수강하고 싶은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 인기가 많은 교양과목의 최대수용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의 결이 비슷해서 인기 많은 교양은 쉽게 듣지 못한다. ▪ 인기있는 과목에 비해 학생 수가 한정적이여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힘이듦. ▪ 다 같이 등록금을 내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함. ▪ 수강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매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함. ▪ 인기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많은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석 ▪ 인기있는 과목에 많은 인원이 몰림 ▪ 학점 취득을 위함 ▪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님은 한정적
해결방안	▪ 과제의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를 전공에 비해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조절, 과집중되는 과목이 온라인일 경우 증설하는 방안 ▪ 교수님들께서 한 두개 차이로 성적이 갈릴 정도로 시험문제를 쉽게 내주지 않으셨으면 한다. ▪ 인기 교양과목의 경우 담당이 가능한 교수자를 확보해 같은 과목 혹은 비슷한 과목의 수를 늘린다. ▪ 각 교양과목 별 인기 강좌는 수강신청 현황과 증원의 필요성 등을 적절히 검토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기 강좌에 한하여 수업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교양 과목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함. ▪ 해당 학기에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필수록 참여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학생 수요에 따라 수업 여석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구축 ▪ 수업 여석 부족 시 대안 교육 방안 제공 및 온라인 수업 강화 ▪ 1,2학점의 수업들을 늘리거나 사회공헌과 봉사 같은 수업처럼 헌혈 봉사 등 봉사활동 수업 또한 고려 ▪ 교양과목을 개설할 때, 학생 수요 예측을 통해 여석 확보 ▪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를 폐지하고 인기 있는 강의 여석을 늘린다. ▪ 연세대학교의 마일리지 방식: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듣는 학생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수강과목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러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의지를 돋구어 줄 수 있다. ▪ 통계를 내서 인기있는 강좌의 경우 다른 강좌보다 수강인원을 조금 더 늘려 수업을 진행함. ▪ 매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새로운 교양 창설 ▪ 인원 증설 ▪ 대체과목 추진 ▪ 비슷한 내용 강의 만들기 ▪ 교수님이 아닌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교양 의식 함양이 가능하나 수업 증설. ▪ 희망 교양 과목을 설문조사 하여 신청을 받는다. ▪ 선호도가 높은 교양을 미리 파악해 추가 같은 강의를 다양한 요일과 시간대에 개설 ▪ 예비 수강신청 때에 인원 파악 후 여석을 충분히 늘림 ▪ 강의 추가 개설 혹은 기존의 3학점 과목을 2학점으로 낮추는 방안이 어렵다면 교양 2학점 과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체육과 사회체육의 최대 수강 횟수를 3번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수강 꾸러미 결과를 통해 정원이 초과된 과목에 대해 분반을 개설한다. ▪ 다음 학기에 비슷한 교양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1.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 학생들의 교양 강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인기 있는 교양강의를 더 많이 개설하도록 함
- 자원과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더 잘 파악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되어야 함
- 인기 강좌의 여석을 늘리는 반면 비인기 강좌의 여석을 줄인다.
- 인기있는 교양의 여석을 늘리면 좋겠다.
- 인기있는 수업의 개설 수를 늘린다.
- 인기있는 수업을 맡을 수 있는 교수님을 늘려 같은 과목을 하나 더 개설한다.
- 요일별로 분반을 진행하거나 추가하여 해당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와 학생 수 간의 차이가 줄었으면 좋겠음.
-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교양 개설을 멈추면 안됨. 오전 9시나 10시 등 오전 시간대의 교양 수업을 확대하면 좋겠음.
-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을 조금 더 늘려주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인원 수용이 적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예시로 4년 동안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었지만 듣지 못하고 졸업 하게 된 사례가 있다.
- 평가를 진행하여, 점수가 낮을 시 다음 학기 폐강하고 선호하는 수업은 증설
- 선호도가 낮은 수업은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인원을 줄이더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다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을 해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대면수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의 비율을 높이면, 다양한 수업이 가능
- 신청 인원이 몰린 과목의 강의 수를 늘려 여유있는 인력으로 대체
- 특성 수업에 사람 과포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인원수 제한 늘리기
- 설문조사 등으로 학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
- 해당 과목 수강 인원을 늘린다.
- P/F를 더 많이 도입하여 학생의 학점 부담을 줄이면 학점을 잘 받기위한 인원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 교양 전문 교수님들을 더 채용한다.
- 사이버 강의로 전환해 최대수용인원을 늘여 교양과목 선택 과정에서 수강 신청 가능성이 고려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람.
- 인기 과목의 경우에는 반을 더 많이 개설하고 비인기 과목의 경우에는 인원 수와 교실을 조정
- 수강 신청 전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원하는 과목에 대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과목별 수강 희망 인원에 비례하게 최대한 수강 인원을 조정하고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편성
- 그 과목에 필요한 교수님이 부족한 경우, 기간제 강사나 타 학교 초청을 통해 수업의 여석을 늘림
- 가급적 인기강좌 수강 가능 인원을 늘리기.
- 교양 수업들의 공정한 평가를 정하고 실행하여 몰리는 강좌 최소한 하기.
- 인기가 있는 교양의 경우 인원을 늘리거나 수업 수를 늘림.
-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같은 경우 학생 수 증가가 어렵다면 강의의 수를 증가시키기
-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교양 과목이 있을 경우, 효율적으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해 학생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 수강 신청 경쟁률이 높은 강의의 개설 증가
- 대다수의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몇몇 교양들을 분석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교양들을 개설
-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교양 순으로 강의의 수를 증가시키기
- 비대면이나 인터넷 강의는 인원수 제한을 없앤다

1. 인기강좌 여석 부족/증원, 분반 필요 8.0%

	▪ 요일이나 시간을 다르게 하여 더 많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실이 부족함에 따라 큰 강의실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수업에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함. ▪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로의 전환 ▪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각 강의동마다 배치 ▪ 이른바 꿀강이라고 불리는 강의를 분석해 다른 강의들도 그와 비슷하게 변경. ▪ 교양 분반 개설 ▪ 교수 채용 ▪ 포인트 점수제를 활용한 수강신청 ▪ 교양 여석 증원 ▪ 인기 기존 과목의 정원을 줄임 ▪ 같은 이름의 강의를 같은 시간에 하나 더 만들고 같은 전공의 교수님을 한분 더 모심 ▪ 교양-a,b반으로 나누고 두 교수님이 각자 a와b중 한 강의를 중간고사까지 수업하고 중간고사 후 반을 바꿔서 수업함 ▪ 인원수가 많은 강좌는 분반으로 실시한다. ▪ 인기 많은 교양은 수업시간 및 교수님을 다르게 하여 강좌 수 늘린다. ▪ 교양 과목의 인원수를 늘림.(2명의 같은 답변) ▪ 폭을 넓혀 다른 체육과목 관련 교양수업을 넓힘. ▪ 강의 시간을 다양화하고, 시간표를 최적화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더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기과목의 여석을 늘린다 ▪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교양 과목 개설 ▪ 카테고리마다 들을 수 있는 교양 수 제한하여 학생 몰림 방지 ▪ 수업 평가 적극 활용하여 평 좋지 않은 강의는 폐강하고 평 좋은 강의는 늘린다

2. 폐강 문제 0.3%

현황 및 문제점	▪ 비인기 교양에는 신청자 부족으로 강의가 폐강되고는 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던 주제인 교양 수업이 폐강되면 학습의 기회를 잃는 것 같아 학생으로서 속상함을 느낌. ▪ 수강신청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강되는 과목이 많이 발생함. ▪ 개설 과목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과목 개설 그러나 의미없는 과목임
해결방안	▪ 해결방안으로는 최소 인원의 기준을 낮추어 소수만 신청하더라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음.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업을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함. ▪ 수강생이 비교적 적은 과목은 폐설시켜야 함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교양 과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의 교양들이 새로 생겨나지 않음 ▪ 교수부족, 예산문제, 위치문제 라고 생각함 ▪ 교양수업에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수업은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듣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공학계열의 학생들은 자연계열의 과목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 학생의 전공과 상관없는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어 흥미 없이 수업을 듣는 경우 발생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각 계열마다 열리는 수업의 개수 차이가 있음.(ex. 예술분야 0개 개설)
- 수업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개설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음.
- 흥미를 유발하는 교양과목은 몇 개 없고 그나마 흥미로워보이는 교양과목은 많이 개설이 안된다.
- 1학기 때 개설되는 교양과 2학기 때 개설되는 교양이 달라져서 교양 쏠림현상의 문제점이 발생
- 교양과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
- 특정 분야의 교양 과목의 개설 부족
- 전공과 연계된 교양과목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고 관심있어 하지 않는 수업을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경우가 많음
- 교양과목의 선택지 부족하다.
- 사회에서 본과 생활의 척도가 중요한 만큼 패스과목이 부족하다.
- 2학점으로 개설된 과목의 수가 한정적이다
- 다양하지 않은 교양과목들로 인해 듣고 싶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 배우고 싶거나 흥미가 있던 분야의 강의를 듣고 싶어도 강좌가 개설되지 않아 듣지 못하는 학생이 많음
- 하나의 분야에 다양한 교양수업이 없음
- 해당 분야 입문자를 위한 강의 (예) 개념위주강의)가 부족함
- 교양강좌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알고도 학교에서는 직접 반영하지 않음
- 만약 듣고싶은 강좌 수강신청을 실패한다면 이를 대체할만한 강의가 없음
- 교양수업을 들으려 해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수업이 없음.
- 흥미가 가는 수업을 찾아도 만약 그 수업의 수강신청을 실패하면 대체할만한 교양수업이 존재하지 않음.
- 대부분의 교양강좌가 3학점이라서 전공수업을 듣고 교양수업을 들으려면 남은학점이 부족하여 수업 선택에 자질이 생김
- 개설 강좌 다양성 부족
- 매년 비슷한 과목만 있음 > 새로운 교양 과목을 알 기회가 없음
- 인기있는 과목만 매년 인기 있음
- 수업을 들어도 흥미도가 떨어짐
- 4년동안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한정적이다
- 학생들이 관심 있게 다가갈만한 주제의 교양이 많이 부족하고,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특정 과목에만 수강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
- 교양 수업 종류가 일관화되어있음.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형강의보단 소형강의 위주로 개설이 많이 됨.
- 최대 학점으로 듣고 싶지만 2학점이 남을 때 들을 수 있는 2학점 교양과목들의 수가 적어서 신청하기 힘듦.
- 현재 경제나 사회 흐름에 맞는 교양교육도 필요하다고 봄. 주 전공과 관련된 교양이 적음.
- 교양 과목의 양과 다양함이 부족함.
- 3학점의 교양 강좌들은 많지만 1,2학점 교양 강좌의 수가 부족함.
- 학생 입장에서 흥미로운 교양 강의가 부족함. 학생의 관심사는 다양하지만, 제공되는 교양의 카테고리는 너무 한정적이다.
- 문화 예술과 관련된 교양 과목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 대학교에는 다양한 과와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강좌는 그만큼 다양하지 않음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강의가 제공되지 않음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기초적인 교양을 수강 후 심화교양도 수강하고 싶지만 심화 교양이 부재함.
-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교양과목의 수가 부족함
-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의 흥미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음
- 예산이 부족하여 교과목의 다양성이 적은 것 같음
- 강의와 상응하는 학과가 없으면 강의가 생기지 않는다.
- 특정 학점의 과목의 수가 적어, 들을 수 있는 교양 과목의 수가 적다.
- 학생들이 원하는 부류의 새로운 과목 없이 계속 같은 과목이 매 학기 반복되어 가고 있다.
- 대학의 중요 목적 중 하나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학습이나 관련 전공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적인 측면은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에 반면 교양 수업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교과목이 많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 과목이 부족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
- 교양수업이 특정 학문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주제와 관심사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체능 분야의 경우 교양과목이 26개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 교수진의 수가 적어 다양한 과목 개설이 불가능함.
- 현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
- 새로운 교양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부족함.
- 한정된 교양과목 > 야외수업이나 체험 등의 활동이 부족함.
- 실험 수업과 같은 실습수업은 타과생은 수강 불가함.
-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양 부족함.
- 인문학 교양 수업의 개수가 부족함.
- 문과(인문사회, 사회과학 등)로 치우쳐져 개설되는 교양과목의 분야
- 새로운 교양의 개설량이 적다.
-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흥미를 가질만한 수업이 많이 없고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이 많다.
- 예술(음악) 분야의 교양이 부족하다.
-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개설된 과목들이 모두 진부함
- 특정 대학에만 과목들의 개체 수가 과하게 치중,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의 수가 부족함
- 다양하지 못한 수강과목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강사 부족과 학교 재정 관련해서 강사 급여지급 문제가 원인인 것 같음.
-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은 딱히 없는 것 같음.
- 교양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주제가 관심이 있더라도 어렵고 이론적인 내용만 나오다보면 관심 있던 내용도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
- 대부분 수업자료가 줄글로 되어있어 읽고 이해하는 수업이 위주다 보니 외우기에 급급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기 어려움
- 주제가 깊으면 흥미를 가지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등과 많이 달라 초기 이해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포기하는 사태 발생
- 수업 내용이 몇 년째 같아 정제된 느낌이 있다
- 몇 년째 수업 내용이 같을 경우 족보를 구하면 누구나 외우고 시험칠 수 있으며 지식을 얻기 보다는 학점을 위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음
- 매년 매학기 획일적인 교양과목의 개설
- 원래도 적은 수의 강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가 없음.
-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 위주로 개설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흥미를 느끼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교양이 많지 않다고 느껴짐
- 매년 교양이 크게 바뀌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음
-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커리큘럼을 가진 교양 수업을 찾아보기 힘듦.
- 교양 과목의 다양성이 낮음.
- 교수진의 수가 학생의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 학교가 수업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함.
- 예술을 다루는 교양이 부족함
- 개설 교양 과목 수는 많지만 비슷한 과목이 많음
- 기존에 존재하던 교양과목만 지속적으로 개설
- 매년 교양 과목이 비슷하게 있어 교양을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교양 교육의 본질보다는 학점 위주로 선택이 됨.
- 매년 반복되는 강의로 선택의 폭이 작음.
- 같은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이루어짐.
- 학생들의 선호도 평가가 부족함.
- 교양 과목의 다양성 부족
- 같은 과목이라도 여러 교수님들이 나눠하시는 경우가 많아 분야의 다양성이 떨어짐
- 매년 같은 교양들로 구성되어 있음
- 학생들이 원하는 종류의 교양이 없음
- 교양과목이 갈래가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므로 여러 학과를 융합하는 교양 과목이 없음
- 과목이 다양하지 않음.
-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다루는 강좌의 수가 한정적이라,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음.
-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은 인원이 적거나 수업 자체가 적음.
- 매년 열리는 강좌가 비슷함.
- 교양 강의가 보통 한 학과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느낌이 강함.
- 예술대학 교양 부족
-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교양 적음
- 교양 필수나 학술적인 과목 구성
- 오래된 강의 영상
- 교양과목의 폭이 그리 넓지 않고, 특정 교양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새롭게 생기는 교양 과목마다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양만 개설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교양 수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단순 암기 위주의 수업이 많음
- 전공의 하위과목으로 여겨지는 수업이 많음(심리학의 이해, 언어 관련 수업 등)
- 과목의 분야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음
- 교양 교육에서 제공되는 과목 및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교양 교육의 평가가 주로 시험과 과제 중심이면,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목적보다 성적을 얻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기에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있음
- 교양의 목적에 맞게 교양 과목의 확대
- 종류자체가 적다
-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 수가 적다
- 교양 교육의 문제점은 조금 더 흥미를 끄는 교양이 부족
-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한 조사의 부족
-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수업을 더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증설한다.
-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양 수업이 몰려있어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과 더 다양한 교양 수업이 없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공 계열의 교양이 한정적 ▪ 인문계 계열이 배우기 좀 더 수월해서 이공 계열의 교양 수가 적은 듯함 ▪ 흥미를 이끌 교양 부족(예체능) ▪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른 현상 ▪ 이공계열 교양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트렌드나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 같은 과목만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	▪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새로 개설했으면 함. ▪ ai관련이나 여러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실습 교양이 생기면 좋겠다. ▪ 교수를 더 뽑고 더 다채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함. ▪ 자연계열의 교양과목의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많이 개설하면 인문계열 학생들도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공학계열 학생들은 앞으로 듣게 될 전공과목의 기초를 다지려는 목표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계열별 교수를 더 붙여 강의 수를 맞춰 개설하였으면 좋겠음. ▪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하자 ▪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해 어떤 교양을 배우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실시 ▪ 전공과 관련된 교양 수업을 할 교수님이 적다면 타대학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교류학점 교양을 추가 ▪ 인터넷 강의를 추가적으로 개설 ▪ 중복된 강의를 줄이고 새로운 교양을 추가 ▪ 교수진 모집 ▪ 교양 교육과정에서의 분야를 각종 과에 맞게 더 세분화하여 강의 개설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창구를 가시성이 좋도록 개설해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시 ▪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 개설한다. ▪ 패스 과목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대체적으로 패스인 과목으로 만든다면 훨씬 원하는 강좌를 부담없이 신청가능 하도록 한다. ▪ 2학점 강의를 추가적으로 개설한다. ▪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했을 경우,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홍보 부족으로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측에서 새롭고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 학생들의 설문조사 기반으로 과목을 개설한다.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인 경우, 교과목 개설 공모전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상이 될 경우, 수상경험을 쌓을 수 있음을 이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 공모전에서 채택된 과목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과목을 개설한다. ▪ 패스논패스 과목을 늘리면 좋겠다. ▪ 한 분야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 예)언어분야 -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어 등 ▪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형강좌를 개설 ▪ 교과목 개설시 미리 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강좌개설을 결정 ▪ 교양과목을 개설하기 전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개설을 논한다. ▪ 학기 시작전이나 학기가 끝난 후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되면 의견을 토대로 강좌를 개설한다. ▪ 인기가 매우 없는 강의는 없앤다. ▪ 학생들이 주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더 늘린다.예)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봉사활동 등 ▪ 1학점, 2학점, 3학점 같이 다양한 학점의 강좌를 늘림. ▪ 3학점의 교양과목을 줄이고 1,2학점의 교양강좌를 늘림. ▪ 한 분야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 예)언어분야 -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베트남어 등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형강좌를 개설 ▪ 교과목 개설시 미리 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강좌개설을 결정 ▪ 교양과목을 개설하기 전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개설을 논한다. ▪ 학기 시작전이나 학기가 끝난 후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되면 의견을 토대로 강좌를 개설한다. ▪ 인기가 매우 없는 강의는 없앤다. ▪ 학생들이 주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더 늘린다.예)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봉사활동 등 ▪ 1학점, 2학점, 3학점 같이 다양한 학점의 강좌를 늘림. ▪ 3학점의 교양과목을 줄이고 1,2학점의 교양강좌를 늘림. ▪ 새로운 과목을 조사해 개설한다. ▪ 다양화 된 주제와 교육방식을 채택한다. ▪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전공과 아예 관계없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지거나, 전공 부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더 채울 수 있는 교양과목이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 2학점 교양 비율 증진 ▪ 나쁜 강의라 불리는 강의를 파악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 및 조사 결과를 수렴한 후 그 문제점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어야 함. ▪ 교양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여야 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야 함.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챗gpt를 활용한 강좌 등을 신설해야 함. ▪ 매년 설문조사를 동해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는 무엇인지 조사 할 필요가 있음 이 설 , 문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양들을 창설하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기 . 적으로 해당 과목은 어떤지 반응들을 체크해 나가며 의견을 모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매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새로운 교양 창설, 총학생회 복지부 혹은 하나의 부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실시. 구글 폼을 통해 의견을 받고, 강의 평가 목록에 전체 교양 탭을 추가, 반응을 주기적으로 체크 (전체 대상 면담회) ▪ 교양 창설 대회에 뒷 받침 할 프로그램 창설 ▪ 교양 수업 이후 관련 심화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함 ▪ 교양에 대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특정 학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굳이 학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강사를 주기적으로 초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새롭게 개설한다면 조금 더 교양과목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좀 더 세분화하여 각 학생들에게 적절한 강좌가 개설되면 좋겠다. ▪ 성인에 걸맞은 다양한 지식과 호기심에 적합한 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 ▪ 취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한다. ▪ 학교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한 학기 동안 희망 직무에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교양 과목을 개설한다. ▪ 1. 다양한 주제와 관점 다루기: 교양수업은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다루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여러 문화, 역사, 예술, 과학, 사회 문제, 인간관계 등을 다루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 2. 다문화교육 강화: 교양수업에서 다문화 교육 요소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언어, 신념, 인종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3. 다양한 교수진 고용: 학교는 다양한 교수진을 고용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교수진을 교양수업에서 가르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4. 현지 체험 및 현실 세계 적용: 교양수업은 현지 체험, 현실 세계 응용 및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교수진의 수를 조금이나마 늘렸으면 한다.
- 교양과목의 타이틀을 단 강좌의 수를 늘리기 힘들다면, 외부 강사 초청의 기회를 늘려 다양한 교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매 학기 시작 전 (방학을 활용)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듣고싶어하는 교양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
- 학생의 의견 수렴을 하고 싶지만 강좌 개설이 힘든 경우, Y형 마일리지 제도처럼 단기간의 다양한 수업을 여러 개 듣고 일정 개수를 채운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ex. 외부 강사의 법률 특강이나 우리 학교 교수진의 단기 강의(1학기짜리의 강좌가 아닌 것,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룬 것이면 나중에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도 좋을 것)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최소 5개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2~3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매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간단한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방법)
-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 개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자주 실시함.
- 타과생 위주로 들을 수 있는 교양 실험이나 실습을 추가함.
- 핵상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를 많이 함.
- 실생활에 쓰이는 교양(주식, 부동산 등)을 쉬운 난이도로 추가함.
-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각화된 시각을 얻기 위해 인문학 교양 수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예체능 계열이나 연애, 자격증 관련 등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의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함
- 학생이 발굴하는 교양교과목 제안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강의가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함
- 새로운 교양과목을 더 많이 개설한다.
- 졸업 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수업을 개설한다.
- 예술 관련 교양을 늘린다.
- 영남대학교 수강신청 방식은 선수강신청 후 본수강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강신청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인원수를 늘리거나 과목을 추가개설, 혹은 비대면 강의로라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함
-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한 후 강의 개설
- 창의적이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양 과목 개설
- 인기 많은 과목의 수강 인원을 늘리고, 인기가 없어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은 폐강 보다는 인원을 줄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 교양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특강 날짜를 잡아 좀 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다양한 교양 수업을 확대하고, 인기와 비인기 과목 간 균형 유지.
- 최소 인원 기준을 낮춰 다양한 강의 기회 제공.
- 수업 자료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가벼운 예시들을 가져와도 좋을 것 같음
-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수업을 고를 수 있도록 개선
- 시험과 평가를 위한 수업이 되면 안됨
- 결국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전공 분야가 아닌 지식도 얼마나 잘 알고 그것을 본인의 전공과 삶의 태도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교양 수업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함
- 학생들의 전공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난이도로 변경해야 한다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강의 이름도 쉽게 변경한다
- 같은 주제더라도 트렌드와 최신 이슈들을 반영한다
- 사회적 이슈 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업 내용도 그를 활용하는 내용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ex. chat GPT, 미드저니 활용하는 방법/환경오염에 따라 각 분야의 학생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등)
- 학생 투표를 통해 상위권에 나온 강좌 신규 개설
- 새로운 교양과목 개설을 위해 시간제 교수의 채용
-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교양과목 개설
- 매년 수강신청 전 다음 학기 또는 다음 연도에 수강을 희망하거나 새로 개설되기를 원하는 교양과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양과목에 대한 개설이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 얕고 넓은 지식이 아닌 여러 분야가 융합된 흥미롭고 다양한 강의의 개설.
- 학교가 더 많은 교수진을 갖춰야 함.
- 수업에 대한 지원을 골고루 확대해야 함.
- 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움직여야 함.
- 예체능 과목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소수로만 개설해 보는 것
- 기존 교양 과목을 융합으로 새로운 교양 과목 개설
-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다양성 추구
- 교수 기준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양 강좌 개설
- 취업 혹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강좌 개설
- 원예 등 타대학 학과생들도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예술 교양 증설
- 오래된 강의 영상 재업로드 및 시험 방식이나 과제 매년 다양하게 변화
- 인기 없는 과목들은 과감히 폐강하고 트렌드에 맞는 신설 과목 개설(ex.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사용법이 중요하니 편집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과목 등 다양한 문야로 시야를 넓혀 교양 과목 신설)
- 새로운 분야 과목 개설 필요
- 수강생들의 강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비중을 낮춤
- 사회, 문화, 인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을 늘려야함
-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어야 하고 암기보다는 교양 증진, 프로젝트 및 실습 수행 등의 수업이 개설되어야 한다. 시험이 암기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응용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론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제 대체 혹은 패스 논패스 과목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기술처럼 이론의 암기보다는 실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암기에 기반한 시험이 진행된다.
-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이 함께 수업을 개설하여 융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양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현재 과목을 보면 팀티칭을 진행하여도 같은 학과 교수진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융합적인 공부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학과 교수님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간학문적인 교양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
-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 교양 수업의 본질에 맞게 수업 진행.
- 강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강의 진행.
-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양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함.
- 학생들이 원하는 개설과목을 투표나 설문을 통해 미리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3. 강의 다양성 부족 13.6%	
	▪ 학생들에게 설문하여 필요한 교양과 불필요한 교양을 조사한다 ▪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이 와서 수업 진행 ▪ 2학점 교과목 수 늘리기 ▪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에 대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시사항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공통 관심사와 흥미가 많은 것을 과목으로 추가한다. ▪ 학생들에게 학기 중 과제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시험문제 진행 후, 실력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수정 > 출제 고려 ▪ 대학원생 혹은 조교들과 함께 매년 새로운 문제 출제에 기여 ▪ 여러 설문으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알아본다. ▪ 이공계 교양 개설 ▪ 관심분야 조사 및 신강좌 개설 ▪ 교양학부 수업 들어도 교양필수학점으로 인정해주기 ▪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교양 다양하게 생성 ▪ 교육의 트렌드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몇가지 과목들을 기획하고 영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기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드론, chat GPT, app개발과 같은 특수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계신 외부 강사분들이 과목을 만들어 준다면 수업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은 과목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한 교양 과목 개설 ▪ 분야를 다양화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분야를 세분화시켜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 다루기 ▪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종류의 교양을 창설한다 ▪ 각 과의 교수들이 조교와 함께 어떤 교양을 만들지 논의해본다 ▪ [음악으로 배우는 인문학]과 같이 두 개의 전공을 합한 교양을 개설하는 등 융합과목의 다양성을 열어주면 좋겠음 ▪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교양을 설문 조사를 통해 인지. ▪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흥미에 맞는 과목의 교양을 신설.

6) 교양필수과목

1.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4.0%	
현황 및 문제점	▪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학생들에게 필요없는 교양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학점채우기용이라 생각한다. ▪ 전기공학과 1학년 과목에서 교양필수 과목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전부 자율적으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끔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는 크나 큰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채 전공을 듣게 되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거니와 학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과학 교육과정이 발 빠르게 바뀌고 있어 그로 인한 문제도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 전공 수업 수강에 대한 부담으로 교양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지 못함. ▪ 공대는 교양필수과목만 다 들어도 교양 학점이 자동으로 채워짐. ▪ 굳이 교양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 타과의 교양을 들을 기회가 없음. ▪ 너무 높은 전공 학점 기준과 불필요한 교양 필수 과목의 존재 ▪ 지정된 교양필수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1학년 학생들의 다양한 기회를 방해하고 이론에 국한된 수업이 대부분이다.

1.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4.0%	
	▪ 몇 년 전에 비해 정말 필요한 필수 교양 수업들이 많이 없어졌다. ▪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필수교양으로 지정된 수업이 많아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공수업 수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양과목이 존재하지만 이에 따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부터 교양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양필수 과목 중 글쓰기, 외국어 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공헌과 봉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대학생활설계 과목이 교양필수 과목이 됨. ▪ 자연계열 학생들은 글쓰기 및 외국어 과목을 배울 기회가 적어지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잘 못 따라가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짐. ▪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과목을 구성을 하여서 그런 것 같음. ▪ 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이번 학기에 교양필수과목이었지만 교양선택으로 바뀌며 몇몇 과 학생들이 앞으로의 전공에 필요한 교양을 듣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음. ▪ 실용영어 같은 경우 분반 수업이 형평성 문제가 됨 ▪ 융복합글쓰기 같은 경우 실생활에 도움 되지 않음/ 강의내용이 불분명함 ▪ 경제학의 이해 : 수강에 대한 의문 ▪ 각 과마다 존재하는 교양필수 과목을 원하지 않거나 진로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학점 취득과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만 한다. ▪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신입생들이 교양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학교 측에서 교양필수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추측한다. ▪ 필수교양이 너무 많다. ▪ 원하지 않는 강의도 들어야한다. ▪ 전공과 관련된 필수 교양이 많은데 전공학점과는 다른 개념이여서 학점을 채우기가 힘들다. ▪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 교양필수 중 사회공헌과 봉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봉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함. 학생의 시각으로는 아무래도 교양필수라는 강제성이 있는 과목에 이 수업을 지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교양은 학생이 원해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양 필수 과목들 중 다소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 1학년 과정 중에 있는 교양 필수 제도 때문에 듣고 싶은 교양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수업이라도 무조건 들어야 한다. ▪ 2023학년도 기준, 회화과 1학년 필수교양에는 제 2외국어가 없음. 최근 성장하는 사회에서 영어는 너무나 당연한 언어로 제 2외국어의 필요성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전공과 연계한 언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음. ▪ 이과계열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등 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수강해야 함. ▪ 각자의 전공과 관련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듣게 되어있음 ▪ 본인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 과에서 지정한 교양필수과목의 중요성 및 실효성 유무 ▪ 필수교양의 필요성에 대한 불만 ▪ 교수님들의 전공과목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교양과목의 단순화 ▪ 전공과목과의 연계성 등이 부족한 교양을 필수라는 이유만으로 듣는 것은 교양교육의 질을 저하시킴.
해결방안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몇몇의 강의리스트를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끔한다. ▪ 교양 자율화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컴퓨

1. 교양필수과목 필요성 4.0%	
	터공학과에서 실시한 교양 과목만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제재가 있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되 전공에 대한 흥미도도 높일 수 있으며 기초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공학의 기초 학문에 대한 교양 과목의 수를 늘려야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교양 학점 지정 ▪ 불필요한 교양 필수 과목을 없애 타과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줌. ▪ 매년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교양 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학교 교양 수업 중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 수업을 통계 내어 상위에 속한 교양과목들을 교양 필수로 지정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강 가능한 교양학점을 늘리거나 다른 예체능 분야에서 선택 가능한 필수교양 수업을 개설하는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론적인 수업 보다는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 이론적 지루함을 덜어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폐지된 과목들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것임. 따라서 폐지된 과목들도 다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음. ▪ 교양필수 과목 중 일정 학점 이상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의 니즈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교양필수라고 여겨지는 과목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교양선택이 되었지만 교수님들이 권하시는 과목들은 교양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봄. ▪ 분반 교수님을 교차로 배치해 형평성을 맞춤 ▪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학 논문 해석 강의 필요 ▪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경제의 연계 강의 필요 ▪ 예를 들어, 화학공학부는 향후 전공과목에 필수적인 미분적분학(1), 일반화학을 제외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할 수 있도록 교양과목의 수를 늘려, 선택 폭을 넓혀 다양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수교양과목을 줄인다. ▪ 다양한 강의를 개설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전공과 관련된 필수 교양은 전공선택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 학생 중심의 교양필수과목 설립 필요 ▪ 교양 필수 과목을 여러 가지를 두어 학년마다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 수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필수교양 과정을 정해놓지 않고,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어떤 과목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파악하는 등, 학생들의 의샤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학년별 적합한 필수교양을 늘리거나 필수과목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음. ▪ 본인의 전공에 필수로 요구되는 기술들을 조사하고 교양필수로 대체 ▪ 수요가 높은 기술, 프로그램을 배우는 교양 수업 개선해서 필수로 돌림 ▪ 필수과목에서 한 과목정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개설된 교양필수과목의 수업 내용 개편 ▪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교양필수과목 선정 시, 학생의 의견 수렴 ▪ 학기 말,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의 수강 후 느낀점과 개선할 점,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교양 필수 설문조사를 통해 교양필수 과목의 개편이 필요함. ▪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많은 교양과목 개설

7) 수강신청

1. 학사과정, 교육과정 안내 부족 1.4%	
현황 및 문제점	▪ 교양 과목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는 정보가 부족하다. ▪ 학생들은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교양과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양과목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 수강계획서를 일일이 비교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 새로운 교양이 개설이 되어도 있는지 잘 모르기에 신청하는 학생수가 적고 이로 인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여도 학생 수가 적으면 폐강이 되기도 하여서 교양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 같음. ▪ 과목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음 ▪ 새로운 교양이 개설되어 강의평이 없는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수강신청률이 저조함 ▪ 학생들에게 신설강좌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 부족 ▪ 신설강좌의 정보 부족으로 신규 개설 강좌의 존재를 모름. ▪ 과목의 이름에 확신이 없다면, 그 과목의 수강 신청을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위의 부분이 아니라 교양의 커리큘럼, 어떤 역량을 가오하할 수 있는지, 취업시장에서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 등의 이 수업의 자세한 장단점 같은 정보가 부족하다 ▪ 자율전공, 전과예정자 등 학적변동자들이 전과 예정학과 관련된 수업 정보가 미흡하다.
해결방안	▪ 교양과목을 소개해주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면 좋겠다. ▪ 고민중인 교과목을 입력했을 경우, 해당과목들을 자동으로 비교 분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 ▪ 구글 폼을 통해 의견을 받고, 강의 평가 목록에 전체 교양 탭을 추가 ▪ 반응을 주기적으로 체크 (전체 대상 면담회) ▪ 교양 창설 대회에 뒷받침할 프로그램 창설 ▪ 교수님이 아닌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교양 의식 함양이 가능하나 수업 증설. ▪ 전공과 아예 관계없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지거나, 전공 부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더 채울 수 있는 교양과목이 생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 새로운 교양이 수업이 개설되면 에브리타임 앱이나 lms의 알림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음 ▪ 수강 신청 기간 전에 이번에 배울 내용과 함께 이전 학기의 수업 자료를 선공개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과목 명과 내용을 더 명확히 해야할 필요 있음 ▪ 강의평이 없는 새로운 교양과목의 개설 시,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집중적인 홍보 ▪ 교양학부, 에브리타임 등의 수업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다 ▪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커리큘럼을 기재하기 ▪ 위의 사이트를 접근하기 쉽게 에브리타임이나 출석 어플, LMS 등에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2.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현황 및 문제점	교수님의 인원부족 > 개설되는 교양과목의 수가 줄어듦 제한된 정원의 교양수업에 여러 단과대학의 인원이 모이게 되고 인기가 많은 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너무 힘이 듦 인기가 많은 과목은 경쟁이 너무 많아 신청이 어렵다. ▪ 교양과목은 전공자 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과목인데 학점에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모두 중요하게 생각되다보니 전공에 비해 손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 과목들에 인원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 시험난이도가 쉽다고 소문이 나거나 이수가 쉬운 인터넷 강의에 수강생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 때문에 호기

2.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심이 생겨 듣고 싶지만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과목들이 있다.

- 대부분의 교양수업은 학생들의 관심사보다는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다.
-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양과목이 비슷해 비인기 과목 대비 경쟁률이 심하다.
- 교양 수업의 수가 부족하고 수강 신청 가능 인원이 적어 수강 신청이 어려움.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 수 부족
- 이론 위주의 수업이 많아 실습/실기 수업에 학생들이 몰림.
- 가볍게 즐기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부족함.
- 타학교와 같은 마일리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수강 신청 시 우선 과목을 잡은 후 다른 과목을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수강꾸러미가 터지는 경우 무조건 수강 신청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 발생
- 잡아야 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 단 하나의 방식으로 잡아야만 함.
-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학점을 잘 주는 교양과목을 선호함.
- 매 학기 치러지는 시험의 일관성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족보로 인해 해당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 현 시대에 맞춰 교양과목을 발전해나가기 보다는 예전부터 계속 시행해오던 과목 그대로 진행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다.
-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으로 과목수강에 한계가 있다,
- 출석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학점이 잘 나오는 소위 학생들 사이에서 '꿀강'이라고 불리는 강좌에 학생들이 몰려 그 수업 수강 꾸러미가 터짐. 반면 반대 성향의 수업은 학생이 모이지 않아 폐강되는 문제가 있음.
- 교양과목의 여석 부족 및 교양과목의 숫자가 부족함.
- 강의실과 교수자가 한정적, 수강 가능한 인원 제한은 필수적임
- 수강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여석이 남은 과목을 수강해야함
- 저학년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이 오전 시간대에 편향
- 과목의 선호도 편차가 심해 수강 신청 시 한 과목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 문제로 경쟁이 심해 인해 원했던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원하는 수업을 놓 . 친 사람들은 흥미없는 남아 있는 과목들을 신청해서 학점을 채워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유용한 교양들은 비교적 적고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이다.
- 심화교양을 수강하고 싶어 다른 전공 강의로 찾아보지만 여석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함.
- 학생 수에 비해서 교양과목 수가 적다고 생각함 > 그로인해 어쩔 수 없이 학점을 채우기 위해듣는 수업들이 많음
-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
- 성적채점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제한을 두는 것 같다.
-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도 정원이 적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적은 수강 인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수업을 듣게 됨.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교양과목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함.
- 어려운 공부가 아닌 흥미,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발전하고 싶은 부분에 관련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 한다.
- 재이수 시스템이 존재해 경험이 적은 신입생들에게 수강신청이 어렵다.
- 교양은 전공(수강할 수 있는 인원 제한 존재)의 특성과는 다르게 학교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므로 수강인원이 부족하다.
-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교양과목을 듣는 것이 어렵다.
-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교양과목이 아닌 여석이 남는 교양과목을 찾아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
- 듣고 싶은 교양이나 전공을 못 듣고 졸업하게 될 수도 있음.

2.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 22학년도에 개정된 졸업이수학점(최대수강학점)에 비해 2학점 개설 과목이 적으며 경쟁률이 높아 수강학점을 세이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함 ▪ 매년 소위 말해 인기있는 수업, 항상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수업이 대체로 정해져있는 편이라 수강신청 시 사람이 몰리고 여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듣고싶은 강의는 언제나 여석이 없음 ▪ 일부 교양과목에만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학생의 선택권이 반영된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수강 신청에 실패할 경우 듣고 싶은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있음. ▪ 인기 과목의 경우 처음부터 수강하기 어려움. ▪ 학교 인원에 비해 교양 과목 수용 인원이 부족함. ▪ 교양수업 시간이 전공과 많이 겹침. ▪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수강신청제로 인해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빠르게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 강의는 수강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해결방안	▪ 특정 인기가 많은 과목에 인원이 쏠리지 않도록 유익한 강의를 많이 개설하도록 하거나 더 많은 분반을 만든다. ▪ 대체로 과목의 유익성 보다도 교수님들의 성적처리과정, 과제 및 조별과제 유무 등을 토대로 교양과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목별로 비슷하게 조정하여 과목에 대한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강의를 대면강의로 진행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면 교양과목이 수강신청이 편향되지 않을 것이다. ▪ 인기 있는 교양과목의 수강 신청 인원 및 분반을 증설 ▪ 연세대학교의 수강 신청 마일리지 제도 ▪ 교양과목을 수강함에 있어 최소한의 학점을 보장해 주는 제도 도입 ▪ 오래되고 비인기 과목의 수강인원을 낮추고 최신화된 인기 과목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신규 과목 개설이 어렵다면 RIS 사업과 같이 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추가 ▪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를 폐지하고 인기 있는 강의 여석을 늘린다. ▪ 학교 측에서 에브리타임과 같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교양과목과 그 희망 신청자 수를 파악함. 그에 맞춰 여석을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학년별로 강의 수강인원 수를 배분하거나 교수자의 재량으로 인원수를 늘려주어야 함. ▪ 시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 강의, 블렌디드 강의 적극적인 활용 ▪ 과목 별 수용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또한 수강신청 방식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함 ▪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늘린다 ▪ 학생들에게 교양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개편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인기도가 떨어지는 교양과목을 없애고, 선호도가 높은 분야의 교양과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 수강인원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기. ▪ 전공의 과목들처럼 교양과목도 분반을 통해서 수강 가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학기에 원하는 과목을 못 들었다면 다음 학기에 가산점 같은 것을 제공하여 우선권 줄 수 있도록 함 ▪ 여석을 늘려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듣고 싶은 교양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에 흥미를 심어준다. ▪ 담당 교수님과 진행하는 선수강지도 일정과 수강 꾸러미의 시기를 당겨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몇 명이나 수강하길 희망하는지를 매 학기 미리 조사해 다음 학기 강좌 개설 수를 조정하거나 강의 정원을 늘린다. ▪ 인기가 많은 교양은 현강 뿐만 아니라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원하는 교양 신청이 어려움 5.2%	
	▪ 교양과목의 전반적인 난이도 하양, 난이도 평준화함. ▪ 매년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는 교양과목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 학생들이 다음학기 또는 다음 년도에 수강을 희망하는 교양과목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한 뒤 수요가 있는 만큼 해당 교양에 대한 여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양한 요일, 다양한 시간대로 수업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 ▪ 학생의 선택권을 반영하기 위한 과목 개설 선호도 조사 및 의견의 적극적 수용. ▪ 야간 수업 개설 ▪ 인기가 많거나 수강생이 많은 경우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용이성 확보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현황 및 문제점	▪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에 의해 한 곳에 몰리며 역설적이지만 인원을 늘려 교수님과의 소통이 힘들다고 느낌 ▪ 교수님들의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 시 주로 교양 학점보다 전공 학점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 같다. ▪ 학생들이 너무 교양과목을 학점만 잘따려고 평점 좋은과목들만 수강해서 괜찮은 것 같은 교양과목들이 수강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 특정 교양 강의 쏠림 및 교양 폭 좁음 ▪ 공부대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인기가 많다 ▪ 학점 채우기에 급급한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 ▪ 다양한 지식, 교양을 쌓기 위한 수강보다 쉽고 높은 학점 취득을 위한 교양을 선택함. ▪ 전공 공부와 겸하여 준비하다 보니 암기량이 많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위해 진행되는 수업이 많음. ▪ 족보나 타이핑을 구매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교양 수업을 대하게 됨. ▪ 매년 똑같은 자료와 강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으로 인해 족보가 너무 일반적으로 퍼져있고, 성적을 받기도 쉽지 않음 ▪ 강의자료가 아예 없어 공부할 자료가 적거나, 자료가 있어도 글만 빽빽한 경우가 많아 흥미가 많이 떨어짐. ▪ 인터넷 강의 교양의 경우, 오픈북 시험에 난이도도 높지 않아 암기후 끼워맞추기 시험이라서 학기가 끝난 뒤 남는게 전혀 없다. ▪ 교양교육의 본질보다는 학점 위주의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 ▪ 매년 반복되는 강의에 재학 기간 중 새로운 강의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함 ▪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같은 강의 ▪ 학생들의 의견 조사 미흡 ▪ 과목의 바운더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흔히들 말하는 꿀교양(성적 잘 주고 쉬운 내용인 과목)에 인원이 몰리는 편임. ▪ 꿀교양에 몰리는 가장 큰 원인은 성적 때문임. 교양 성적이 개인의 전체성적에 의외로 큰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꿀교양에 몰리는 다른 원인은 족보 때문임. 족보가 돌아다니는 교양 수업이 많은데 이는 공부하기에 편하기 때문임. ▪ 수요가 많은 교양 과목들의 공급이 상당히 적음 ▪ 과목의 다채로움과 재미가 부족함 ▪ 오래된 교양 과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물론 좋은 강의들은 계속 유지되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의들을 과감하게 폐강시키지 않아 그런 것 같음.

- 교양 과목마다 성적을 쉽게 딸 수 있는지 없는지의 편차가 너무 심함
- 졸업요건 달성을 위한 학점 채우기 식의 교양과목 수강은 개선되어야 한다.
- 인기 있는 과목, 인기가 다소 없는 과목의 차이
- 학생들이 소위말하는 '꿀강'과 같이 성적을 따기 쉬운 교양만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음.
- 교양을 듣는 이유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닌 성적이 우선시 되며 변질 되고 있음.
- 학점을 얻기 쉽거나 간단한 수업만 원하는 경우가 많다
-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만 듣는 경우가 많다.
- 수업을 성실하게 듣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강의가 있는 반면 전공수업 수준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강의가 있음 → 소위 '꿀강'이라 불리는 교양 과목이 생기고 해당 강좌를 듣기 위해 사람이 몰리기도 함
- 흥미위주가 아닌 성적 위주 (학점을 잘 받기 위해 혹은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
- 자신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의의 내용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원하는 과목보다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교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 ' '함 교양 과목의 의의는 자신이 배우고싶었던 분야의 강의를 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인 . 데 이런 의의를 실현하기가 어려움
- 교양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시험공부를 하고, 해당 강좌의 본질을 잃는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 실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단순히 성적을 내기 위한 교양과목이고 학점을 따기 위해 듣는 수업이라는 느낌을 받아 교양과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강의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앱 을 통해 평점과 교수님들의 강의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인기 있는 교양과목, 즉 꿀 교양이라 불리는 과목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 교양과목의 목적이 변질 되면서 학생들 역시 자신이 전공 이외에 진정으로 원하는 과목이 아닌 성적을 받기 위해 비교적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인기 과목에서 나오는 쉬운 과제와 시험으로 인해 인기 과목에 사람이 몰리게 됨.
- 과목에 대한 지식 습득의 목적이 아닌 학점취득의 목적으로 인기 과목과 비인기 과목이 나뉨.
- 어떤 교양은 전공자 정도의 지식을 요하며, 어떤 과목은 너무 쉬워서 사람이 몰림.
- 인기 과목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게 되어 수강 신청이 어려움.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양강의가 적으니,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만 수강신청하려는 경향이 큼
- 그로 인해 소위 꿀강(쉽게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강의)에 수강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교양 함양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보다 학점을 쉽게 받기위해서 쉬운 교양들만을 듣고 있어 '교양'이라는 영역을 함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움
- 교양 함양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보다 학점을 쉽게 받기위해서 쉬운 교양들만을 듣고 있어 '교양'이라는 영역을 함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움
- 내가 관심있는 분야가 아닌 과목도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는 점, 수업을 수강하는 이유가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점이 가장 문제임. 흥미가 있는 과목은 보통 인기가 많아 대부분 수강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흥미가 없는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수업에 질 또한 하락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기도 함.
- 특정과 (디자인 미술 대학) 에겐 들어봤자 의미 없는 교양들이 너무 많은데,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듣는다는 느낌이 강함. 자신의 과와 관련되지 않은 수업이 너무 많고, 자신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100% 수강할 수 없다. 문제점의 원인은 학생들이 이의 제기 없이 있는 수업안에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음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 많은 학생이 교양 과목보단 전공 과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보단 패스 과목과 같이 학점만 채우려고 듣는 경우가 많아서 시험, 과제가 적은 수업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관심이 가는 분야의 강의가 없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만을 선택하게 된다.
- 자신이 원하는 시간표 대신, 학점을 채워 듣는 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함
- 학점이라도 잘 받자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양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음.
- 학점이라도 잘 받자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쉬운 수업에 몰림
-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양과목인지 확인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됨.
- 수업 시간 진도의 빠르기, 편향된 체점 기준시험에만 중심을 둔 수업
- 비교적 수업의 난이도가 낮은 교양과목을 학점을 편하게 따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 교양 교육이 시험을 치기위한 수단으로 전락됨.
- 비교적 학점을 따기 쉬운 강좌에 몰리는 경향이 있음.
- 성적 받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듣게 됨
- 학생들이 교양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학점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나 조별과제가 없는 과목만을 수강하려 함
- 학생들의 교양 능력 증진을 위해 개설된 교양 과목의 취지와 다르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업이 아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쉬운 과목을 수강함.
- 관심이 있는 과목보다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한정된 교양과목으로 모두 신청함.
- 교양은 전공과목에 비해 부담이 적다보니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적은 시간을 투자함. 적은 노력에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찾다보니 자신의 관심사, 전공과는 상관없이 학점이 보장되어있는 교양과목을 찾는 듯함.
- 꿀교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양 별로 난이도의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만약 1학점 짜리 교양이 있는데 3학점 짜리 교양 과목보다 과제 양이나 학생에게 부담이 더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교양 별로 난이도나 수업 피로도의 편차가 심한 듯함.
- 교수님들의 재량 차이지만 교수님들마다 생각하는 교양의 가치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함. 1학점짜리 교양이라도 과제양이나 시험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원인임
- 학생들이 어려운 강의는 피하고 꿀교양 즉, 공부하기 수월하고 내용 학습이 쉬운, 점수를 잘 주는 수업만 골라서 들으려고 함.
- 교양 과목의 경우 단순 암기식 수업이 많아 교양 과목의 경우 수업 내용이 적은 것이 '꿀교양'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음.
- 흔히 말하는 꿀강인지 아닌지, 시험이 어려운지, 과제 여부 등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 교양증진의 목적보단 취득하려는 학점에 대한 성향이 더 강함
- 과목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무작정 암기하고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함
- 학생들의 흥미나 재능 위주의 교양 선택 보다는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 (2명의 같은 답변)
- 단순 학점 채우기용 강의들이 많은것 같음(2명의 같은 답변)
- 교수님마다 학생들에 대한 열의와 역량의 차이가 있어 학생들이 특정 교양에 인원이 몰리는 것 같다고 생각함.
- 인기가 많은 과목은 수강자 수가 넘치고, 인기가 없는 과목은 폐강된다.
- SNS, 학생들 간 입소문 등을 통해 수강신청 시 선호하는 과목에 신청이 몰리게 되며, 선호하는 과목의 수강자수는 늘리고 비선호하는 과목은 문제점을 개선해야함.
- 교양 과목의 호불호가 심한 이유는 매년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교수진들이 매년 시험 문제를 바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꾸지 않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함. ▪ 교양교육의 본질보다는 학점 위주의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 ▪ 학점을 많이 채워야 할수록 사람들이 교양 수업에 관해서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음 - 오로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쉽고, 양이 많지 않은 교양들을 위주로 듣는 학생들이 많음 ▪ 가장 큰 원인은 전공학점을 제외한 졸업 이수 학점이 높다고 생각함
해결방안	▪ 신청인원이 적은 과목과 대비하여 인기있는 과목들을 대체 인력 구축 등 강좌 추가개설, 한 교실에 적절한 인원 수용 ▪ 수업을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적을 나누기보다 p/np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 수강인원 늘리기 ▪ 교양 성적을 pass/false로 매기는 과목들을 좀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 교양 과목에 대한 예산 및 교수 인력 보충 ▪ 오히려 패스 과목을 늘려 전공 시험이 끝난 후 교양에 집중할수 있도록 만든다. ▪ 졸업생들에게 취업 후 도움이 될만한 교양과목을 설문조사 한다. ▪ 이러한 수업이 아닌 활동적이고 흥미롭고 다양한 경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잡힌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현시대에 맞는 관련 주제를 끌어와 강의자료를 업데이트 ▪ 시험을 서술형 방식으로 바꿔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 매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새로운 교양 창설 ▪ 총학생회 복지부 혹은 하나의 부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실시 ▪ 구글 폼을 통해 의견을 받고, 강의 평가 목록에 전체 교양 탭을 추가 ▪ 반응을 주기적으로 체크 (전체 대상 면담회) ▪ 교양 창설 대회에 뒷 받침 할 프로그램 창설 ▪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양과목 개설이 필요함. ▪ 오래된 자료들과 오래된 마인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들의 수업을 조사하여 폐강 혹은 교수 변경을 한다든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음. ▪ 강의 모니터링단을 배치한다든지, 형식적인 강의평가 외에도 수업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함. ▪ 모든 교양 과목을 p/f 과목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들고, 정말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족보 매매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니, 매 시험마다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일정상 어렵다면 일정 퍼센트를 정해서 그 퍼센트만큼은 새로운 문제를 내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온라인 교양 강의 학점 제한을 더 풀고 과목 당 수강생 수를 늘려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다음학기 강좌의 수강생을 늘리던지 등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 도전학기제 등의 현재 시행되는 교과수업 이외의 자유로운 학습기회 확대한다. ▪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의를 개설한다. ▪ 교양에서 성적 평가방법을 바꾼다. 예)A,B,C 성적 분포를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고 교수님의 재량으로 +를 달아준다. ▪ 성적 평가시 시험성적보다는 출석이나 과제에 비중을 더 두어 평가한다. 예) 출석 20점, 과제 30점 중간, 기말 각 20점, 태도점수 10점 ▪ P/F 성적 평가방식의 강좌 증설 ▪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 이다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도록 한다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 교양과목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선호 분야를 조사해 오직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이 아닌 어떤 과목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지 조사해 과목 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수 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해 Lms에 올려야 함.
- 패스 과목을 통해 부담은 줄이되, 공모전을 통해 참여와 적극성을 늘림.
- 인원 미달로 폐강될 강의들은 학점 평가 시스템을 좀 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진행함.
-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양을 연계해서 교양 관련 자격증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인기있는 과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특정 과목의 시간대를 늘리거나 수업의 다양성을 키워 개설하면 좋겠음.
- 학점 채우기를 위한 억지 수강을 줄이고,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여러 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학습 가능한 융복합적인 교양과목의 개설
- 문이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절한 내용의 교양강좌 개설
- 전체적인 교양 개편을 통해 성적 중심의 교양이 아닌, 교양 목적에 맞게 변화할 것임.
-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꿀 교양을 선택한다면 시험 난이도를 다 똑같이 어렵게 하거나 조절 필요
- 패스 과목을 늘리고 졸업을 하고도 사회생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회 제시
- 교양과목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조정한다.
- 수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해 한 수업의 수강생 숫자를 줄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교양과목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면 인기과목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공평한 수강신청 진행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적에 취중된 수업이 아닌 교양지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함.
- 형식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함.
-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해야 함.
- 인기가 없는 교양과목들이 과제나 수업 면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과목의 평가 방식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함.
- K-MOOK처럼 절대 평가 성적 산출방식 활용
- 대학교에서 일정 기준치를 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함. 학점 별로 내야 하는 또는 낼 수 있는 과제의 양이나 수준을 정해놓는다거나 좀 더 교수님들의 입장보단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과목을 편성했으면 좋겠음
- 교수 간 소통을 통해 난이도 및 수업 내용 양을 비슷하게 맞춰야 함. 하지만, 실재로 많은 교수들이 소통을 통해 양을 일치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현실이라 판단 됨.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방대한 양의 수업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성적을 판가름하기 적절한 방식으로의 시험 출제와 과제 제출
- 매년 다른 시험 문제 출제
- 2~3년에 한 번씩 교양과목의 내용을 변형하는 방법
-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양과목들을 설문조사 한 후 개설하는 방법(2명의 같은 답변)
- 교양 과목의 여석을 늘리거나 학점 비율을 다르게 매기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음.
- 강의평이 좋지 못한 강의들은 강의평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 편차를 줄여나가야 함.
- 매년 교수진들이 시험 문제를 변경하고 수업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인지 확인해야함.
-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3. 쉬운 교양에 지나치게 몰림/학점 채우기용 8.9%	
	▪ 수업계획서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음. 개인 평가 점수와 평균 등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음. ▪ 매년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새로운 교양 창설 ▪ 졸업 이수 학점을 낮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 혹은 내용이 단지 학점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필요함

8) 학교생활

1. 학우 간 교류 미흡, 소통 미흡 0.3%	
현황 및 문제점	▪ 교양 내에서 같이 듣는 수강생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음 ▪ 코로나 이후 강의 안에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짐 ▪ 학과 학생들끼리 교류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음
해결방안	▪ 팀플이나 공동과제를 통하여 학생들 간에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 늘리기 ▪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지원 ▪ 강의식 수업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 제공 (ex: 가치관 경매, YST, YAT 검사 후 비슷하거나 반대 성향의 친구들과도 대화하는 여러 활동적인 시간 제공

9) 기타

1. 기타 6.5%	
현황 및 문제점	▪ 없음 ▪ 교양이수가능학점이 적음 ▪ 인터넷 강의, 패스 과목만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많음->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 ▪ 다양한 교양과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양과목을 알지 못한다. ▪ 계절학기에 미리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려고 하면, 항상 개설되어진 과목들이 비슷하여, 계절학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없다. ▪ 졸업학점이 줄어듦에 따라 1학년 선수강과목이었던 수업이 교양선택 수업으로 바뀜. ▪ 선수강과목을 듣지못하면 2학년부터 전공과목 수업 시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듦. ▪ 선수강과목이지만 수강가능 인원이 정해져있어 수강신청을 실패하면 들을 수 없음. ▪ 전공교수님들도 선수강과목 수업은 무조건 듣고 와야 수업의 이해가 가능한다고 말씀하심. ▪ 전공과는 달리 교양은 교수님이 한 수업만 개설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강인원이 적음. ▪ 학교규모에 비해 교양과목의 수강인원이 너무 적어 학점을 보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관심있는 주제여서 그 과목을 선택한 과목이더라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 전공 듣기 전에 수강하는 기초적인 이론 교양 교육이(1학년 때 교양필수로 수강하는 과목) 전공 난이도에 비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 많음. ▪ 대부분의 시험이 객관식 형태여서 시간제한을 두고 시험을 보려는 과목도 대다수. ->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여 다 아는 내용인데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높은 학점을 가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함. ▪ 혼자 힘으로 시험을 치는 학우들은 문제 집중할 시간이 없고 문제를 다 보지 못하고 시험이 끝나서

1. 기타 6.5%

불만이 발생함.
- 다른 전공 과목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말에 시험을 치는 교양과목이 많은데 주말에도 학교를 와야하기에 통학하는 사람들은 비효율적으로 시간 낭비됨.
- 수강인원을 너무 많이 받아버린 탓에 사람이 많이 출석체크 앱이 오류가 나고 강의실에 자리가 부족함.
-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교양필수였던 과목이 필수가 아니게 되면서 그 과목이 전공에서 열리지 않으며, 교양학부에서만 열리는데 수용 가능한 수가 적어서 듣기 힘듬. 이를 못듣게 되면서 전공 이해에 어려움을 겪음.
- 화학공학부로 생각해보자면, 22학번부터 교양필수 과목을 많이 없애고 자유롭게 교양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함.(특히 1학년 2학기)
- 필수적인 것을 없애고 모든 것을 선택의 자유에 맡겨버리니 전공과 관련없는 교양들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오지 못하여 적응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학우들을 많이 봄.
- 학생들의 인터넷 강의 선호 문제
- 학생들이 전공에 비해 교양에 대해 관심도가 낮아 크게 신경쓰지 않음.
- 교양치고 너무 많은 양을 배움
- 수업 방식, 시험 난의도, 과제의 양으로 수업이 학생들에 의해 평가되어 해당 교양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수업이 판단된다는 것이다.
- 교양과목이라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는 수업들도 있어서 부담이 된다.
- 재미있고 뜻 깊은 교양 과목들이 다수 있으나 전공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 강제성을 띄는 경우가 있다.
- 흥미보단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게 됨
- 교양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쓰는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 그리고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게 다이기 때문.
- 전공수업이나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교양과목을 들을 시간이 없음.
- 교양 필수 과목은 통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고 일반교양은 타과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예를 들어, 통계학과 1학년 교양필수 수업(ex 응용통계학, 통계학 1, 통계학 2)과 일반교양으로 개설되어 있는 수업은 같은 과목이지만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 차이와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몇몇 학생들은 교양 필수 수업을 수강하지 않고 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양을 들으며 학점관리를 한다.
- 교양 과목의 대부분이 3학점이라 성적에 부담이 생긴다. 교양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과목인 마냥 학점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최대 학점이 거의 3의 배수로 이루어져서 3학점 교양이 많다. 1학점 k-mooc 강의가 많아서 2학점은 더 개설이 안 되는 것 같다. 2학점인 교양은 대부분 인기과목인 체육이라 수강신청도 힘들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점인 교양을 듣고 1학점은 k-mooc 강의를 듣는다.
- 수업 중 토론이나 과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옆자리의 친구와 의사소통할 기회조차 없어진다. 이로인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 대면 강좌에 비해 온라인 강의의 수가 현저히 적다.
- 한글 구사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 한국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불가
-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니 수업 참여도도 낮아 분위기 형성에 도움 안됨
- 교수님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채 한국 학생들과 팀플을 하도록 만들어 한국 학생들이 억지로 외국학생들 몫까지 대신하는 경우 발생
- 다문화, 개방적 태도, 융합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방치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차별적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비단 외국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어느정도 회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학생마저 영어

1. 기타 6.5%	
	회화를 배울만한 기회가 잘 없음 ▪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도 ▪ 강의 시간을 초과한 강의 후 다음 강의의 강의실이 먼 경우 지각할 가능성이 높음 ▪ 수업시간 후의 일정이 있는 학생들은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김 ▪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수업의 질이 하락함 ▪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강의에 대한 여론을 몰아감 ▪ 인터넷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강의를 틀어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음 ▪ 패스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패스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음 ▪ 뒷자리 앉으면 강의 내용 필기를 놓칠 수 있다. ▪ 진행이 너무 빠르다 ▪ 다른 과목보다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수업을 듣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 어문계열 과목을 각 나라 학생들이 수강하여 자기 나라말을 배우는 상황이 같이 수강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 ▪ 우리 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문학, 역사,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분야에 비해 과학, 공학 계열 교양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교육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과 학생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당 분야에 접근이 어렵고,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성적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신청하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 교양 이수 가능 학점을 늘리기 ▪ 그 전학기나 작년에 인기 많은 과목이라면 비슷한 과목으로 몇 개 더 증설 방향 고려 ▪ 새로이 생겼거나 눈에 띄지 않은 교양과목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 외래교수 채용; 항상 열리는 과목들이 비슷한 원인이 같은 교수와 그 분야에 제한된 과목들만 개설되다 보니 이러한 분제점이 발생 된 거라고 유추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교수를 단기적으로 채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1학년때 반드시 들어야하는 선수강과목은 교양필수로 만들기 예) 일반화학(2), 미분적분학(2) ▪ 선수강과목이지만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자리증설을 필수적으로 해줌 ▪ 교수님이 아닌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교양 의식 함양이 가능하나 수업 증설. ▪ 전공수업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내서 교양 강좌 교육과정에 넣는 방법. ▪ 문제 형식을 all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과 주관식의 비율을 골고루 증가하여 출제. ▪ 해마다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 ▪ 모든 교양과목들은 시험기간 전 주 수업시간에 시험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 한번에 많이 받지말고 그 강의를 여러반으로 나눠서 진행하여 적당한 인원수 유지. ▪ 큐알코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식의 출석체크 방법 도입 ▪ 전공 수업을 위해 몇몇 수업들은 필수로 더 지정해 들을 수 있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전공 이해를 위한 교양 과목들은 각 전공에서도 개설 ▪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는 것은 비대면 강의에서 나오는 편리함과 스피드퀴즈형 인강 시험문제 출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교양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나 P/F로 바꾸거나, 인터넷 강의 시험도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여야 함. ▪ 중복되는 강의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 강좌를 개설한다. ▪ 수업계획서를 좀 더 자세히 적어주거나, 한 학기에 나가는 수업 내용의 분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흥미로운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 같다. ▪ 학점이나 공부량에 대해 설문을 받기보다 수업의 흥미에 대해 설문한다.

1. 기타 6.5%	
	▪ 정석적인 강의명을 벗어나 흥미로운 강의명 사용 ▪ 평가 사이트(익명 평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자신에게 맞는 교양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양을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대학교이기에 전공 학점을 조금 낮추어 교양 수업을 조금 더 수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음 ▪ 말 그대로 교양이기에 보다 가벼운 대학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다. ▪ 교양 필수 과목과 일반교양으로 개설된 수업의 교수님들 간 상의를 통해 가르치는 내용과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춘다. ▪ 1학점과 2학점 과목을 증설한다. ▪ 교양의 1/3 정도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 좋겠다. (만약 A라는 교양이 있다고 하자. A를 수강신청 할 때 온라인강의로 할지 대면 강의로 할지 선택한다. 이 교양 과목의 현강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녹화하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을 위해 녹화본을 올려준다. 그러면 온라인과 대면 강의 내용의 차이가 없어 손해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시험은 대면으로 치루어서 정당성을 높이면 좋겠다.) ▪ 2학점 강의들을 개설 확대 ▪ 외국인 학생 전용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설 ▪ 한국 학생들의 영어회화교양 개설 ▪ 외국인 학생(중국/영어/전공에따라 스페인어 등 세분화)과 한국학생을 1:1로 팀을 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서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환경보단 서로 돕고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반강제적으로 만드는 것, 학생들의 외국계기업취업에도 도움이 될 경력일 것 ▪ 팀플, 토의식 등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 ▪ 교수님들의 수업시간 도우미 활용 ▪ 타 대학 사례처럼 수업 종 도입 ▪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단순히 강의자료만 읽고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교수님이 전달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음. 수업 중간중간 토론 및 실습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학생들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는 수업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팀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함. ▪ 마이크 볼륨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 집중해주셨으면 한다. ▪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공평하게 이 과목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중간지점을 찾는다 ▪ 저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기초지식을 조금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수업이 더욱 많이 개설된다면, 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신규교양강좌 제안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생활체육,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7.3%

- 성적 나누기 보다 활동중심의 교양강좌를 원한다. 생활체육에 e-sprots나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원한다.
- 평소 운동이나 건강 관련하여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교양을 듣기 희망한다.
- 체육 관련한 교양
- 현재 생활체육 등의 수업이 존재하나, 스포츠 종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인기가 많은 스포츠의 경우 수업을 증설하는 방안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인생 전반, 혹은 젊은 시절을 허비하지 않고 보내기 위해, 혹은 보다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요즘 시대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주짓수, 헬스 등 운동 관련 과목 개설을 희망했다.
- 운동
- 스포츠
- 계절에 따라 여름, 겨울방학 시즌으로 개편되는 수영이나 스키와 같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운동이나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음.
- 체육 강의가 현저히 적음, 수업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함
- 언어 과목 대신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음
-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증설
- 체육
- 스포츠 이론, 실무에 관한 교양강좌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 스포츠 이론에 대한 과목은 없으며, 따라서 스포츠 이론을 수업하는 교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 활동
- 스포츠 관련 수업이 더 있으면 좋겠다 (운동과 건강 이런 유형 제외)
- 수영
- 운동과목
- 체육 과목 중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선수 및 코치 초청 강의, 아마추어 대회 출전 등 기회가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 해외 축구의 분석, 요즘 해외파로 나간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월드컵 올림픽들이 다가오니 그래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토론도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교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스포츠 등 예체능 취미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
- 생활체육과 같은 스포츠 교양 강좌 추가 개설
- 기존의 교양강좌 중 사회체육 혹은 생활체육의 세부 활동으로 헬스 추가
- 학교 내에 헬스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헬스 실시
- '체육 (웨이트 운동)교양이 생겼으면 좋겠음.
- 체육 관련 교양 수업.
-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
- 팀워크 활동으로 다같이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방식
- 체력관리 등 자기관리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
- 여러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 교양과목이 생기면 좋겠다.
- 볼링
- 다양한 스포츠
- 등산 강좌

1. 생활체육,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7.3%

- 인라인 스케이트 및 롤러스케이트 강좌
- 자전거 관련 강좌
- 스포츠의 역사나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사회체육 발야구. 야구를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야구는 여자가 쉽게 하기 힘든 스포츠기 때문에 발야구라는 과목이 생겨서 쉽게 접해보고싶다
- 요가, 플라잉요가,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 필라테스, 골프,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 관련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야구 문화의 이해 : 스포츠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교양 과목
- 체육의 근본적인 이론에 대한 과목, 스포츠 역사에 관한 교양과목이 늘어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이론수업과 실기 수업의 반복으로 스포츠에 대한 정보가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교양이었으면 좋겠다
- 활체육과 같은 예체능 교양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매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하듯이 체력은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공부량은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움직이는시간이 적은거 같습니다.
- 이러한 체육 교양이 늘어난다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거 같습니다.
- 생활체육과 같은 실습, 체험 위주의 교양
- 체육 관련 다양한 교양과목
- 사회체육과목 증설
- 스포츠계열 교양

2.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6.5%

- 자격증 관련된 강의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쌓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양과목으로 개설을 많이하고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경우 대부분이 면담에서 기본 문서 제작을 필수 능력으로 말했음. 특히 대학 시절 비교적 적게 접하는 엑셀 등은 관련 교양강좌를 개설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엑셀의 경우 기존에 유명한 강사도 많이 존재하는데, 가끔 초청 수업으로 청강도 가능하게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주목할 것 같음.
-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교양과목을 개설
- 자격증을 위한 강의
- 이전에 개설되었던 '좋은 문서 디자인 AtoZ'와 같은 PPT, 한글 등의 문서 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격증과 관련한 교양 강의
- 전공과목 외에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 다수
- 한국사, 엑셀, 세무회계,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취업 필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강의가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 다수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등
- 생활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코딩 관련 수업이나 자격증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들이 더 개편되면 좋을 것 같음
- TOEIC, OPIC,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검정 시험 등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는 강좌
- 컴활, 토익, 토스, 오픽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
- 자격증과 관련한 교양강좌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꼭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

2. 자격증 관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6.5%

- 자격증 시험을 학교에서도 치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과목 개설 (학교에서 치는 중간, 기말고사가 성적이 아닌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주도록)
- 컴활 등과 같이 자격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좌가 있다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을 해서 집중도 높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면 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격증 취득을 더 편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 컴활, 엑셀, 엑세스, 토익 등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관련 교양.
-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과 비슷한 문제로 간단하게 매일 시험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다.
- 실전국어'라는 과목에서는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국어 문제를 함께 다루어 공부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 준비반, 취업 준비반 등을 강좌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지루한 이론 지식 보다는 현재 취업이나 실생활에서 능력/자격증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를 느낌
- 바리스타 자격증
- 음대생들의 경우 전공이 악기인 경우가 있지만 자신의 전공 악기로 취업에 도움 되는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악기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이 필요
-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양
- 미용 관련 수업 신설 요구
- 프로그램 실습 수업 신설 요구
- 경영, 경제, 회계, 엑셀 등 취업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양강좌의 개설
- 수업 시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제공하고, 해당 학기 내에 자격증 취득 시 추가점수 부여 또는 패스 학점 부여
-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 강좌를 듣고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수업
- 엑셀과 같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교양과목을 생성하면 좋을 것 같다
- 자격증 관련 교양
- 금융자격증 관련 교양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양
-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이나 기술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의가 필요함.
- 엑셀 교육 강좌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업을 원함
- 이전에 개설되었던 '좋은 문서 디자인 AtoZ'와 같은 PPT, 한글 등의 문서 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격증과 관련한 교양 강의
- 지루한 이론 지식 보다는 현재 취업이나 실생활에서 능력/자격증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를 느낌
-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강좌 예)컴퓨터 활용능력, 심리 상담
-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관련 수업 개설 희망위와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취업 및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원함.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양강좌
- 취업 능력향상관련 강좌(자격증 취득, 응용 등을 교육하는 수업을 하면 좋겠음)
- 토익, 컴활과 같은 자격증 수업

3. 실생활과 밀접한 수업 5.8%

-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주제의 교양수업도 좋지만, 당연히 알아야하면서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 집안일에 관련된 과목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수업

3. 실생활과 밀접한 수업 5.8%

-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 (생활과세금과 같은 과목)들을 좀 더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 실제 삶에서 유용한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삶에 적용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나 내용이 실 생활에서도 잘 적용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PPT, 글쓰기, 보고서작성법, Excel 등 취직 및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현재 교양 수업 중 실생활 적용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된 프로그램이야 말로 실생활에 가장 쓰이고 직장생활에서도 많이 쓰기에 가장 유용한 부분이라 이러한 수업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 실제 삶에서 유용한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삶에 적용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나 내용이 실생활에서도 잘 적용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다루는 교양 수업 (해외에서 사용하는 제스처나 줄임말,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 우리나라 현 시각 이슈 등)
- 부동산, 투자, 건강 등의 주제를 다루는 교양 수업
- 생활과 세금, 생활법률 등 생활 밀착형 교양이 많이 증설되기를 희망하는 학생 다수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이나 도난, 교통사고 등 대처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주식, 보험, 적금 등 기초적이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젊은 대학생들이 듣는다면 굉장한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심리 관련 교양, 영어회화 관련 교양, 재미있고 실생활과 가까운 과학 이야기등
- 일반적인 수업이 아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
-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응급처치 혹은 호신술과 관련된 교양이 많이 열리면 좋을 것 같다.
-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주 겪는 상황에 대한 강좌가 적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에 배우는 과목이나 강좌가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 대외활동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 실생활에 사용될 만한 교양과목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운동, 식습관, 건강이나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교양강좌가 생기면 좋겠음.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 과목이 많아지면 좋겠음.
-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교양 강의
- '인터넷 마케팅 활용법', '청년을 위한 인생 일잡'이 등 과 같이 졸업 후나 전공범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
- 조금 더 실용적인 사회생활 관련 교양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동물관련 과목 신설 요구
- 학교 졸업 이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천 학문이나 의학 및 법학과 같이 쉽게 접하기 힘들지만 현실과 밀접한 학문이었으면 한다.
-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고현학, 현상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a
- 수어, 점자 교육 등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교육도 생기면 좋겠다.
-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원함
- 취업을 준비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함
- 단순암기로 그치는 내용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교양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음.
-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것들과 관련된 주제임. 교양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길 원함.
- 예체능의 다양한 분야 혹은 /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 정말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사를 나가거나 인턴을 할 경우, 사회생활에 무지한 대학생들이 잘 모르고 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피피티 혹은 한글, 엑셀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교양 강좌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삶에 적용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이나 내용이 실 생활에서도 잘 적용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디자인, 정보 등을 전공과목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타과학생들도 교양으로 듣고자함.

3. 실생활과 밀접한 수업 5.8%

- 실생활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양
- 세금과 같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하는 것에 대한 강좌
- 학생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더 증진
- 한 교양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교양이었으면 좋겠다.
-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강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강좌와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한 교양 수업도 생긴다면 좋을 것 같다.
- 실제 삶에서 유용한 내용을 알려주는 수업

4. 음악/ 뮤지컬/ 악기 5.8%

-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악기를 배워보고 싶지만, 학교에는 전공 악기연주 과목밖에 없어 듣지 못함.
- 음악은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실제 연주를 할 기회가 없음.
- 악기에 대한 역사, 악기 연주법 등을 P/F 과목으로 배워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음
- 패스 기준은 간단한 퀴즈, 2곡 정도 완주하는 것으로 개설되면 좋을 것 같음
- 악기나 체육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 개설 예) 바이올린 수업, 기타 수업, 태권도 수업 등
- 음악
- 음악
- 한 학기 동안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강좌(마스터하고 싶은 곡을 정해 한 학기 동안 곡을 완성)
- 음악
- 음악 작곡과 작사에 대한 과목이 새로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음악 작곡, 작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전문가가 아니어도 작곡하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무료 음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작곡 방법에 대해 수업하는 교양이 있었으면 한다.
- 음악
- 음대 관련 실기수업을 교양으로 들어보고 싶음.
- 악기
-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소 배워보고 싶었거나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배우는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서양음악의이해'라는 수업에서는 클래식음악을 다루며 음악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악기 연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수업은 없다. 학교에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아리뿐이다. 요즘시대는 1인 1악기 시대이므로 악기를 하나쯤 배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다.
- 자신만의 악기 다루기, 재즈 이론수업
- 다양한 음악을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교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양음악과 국악음악을 함께 배울 수 있는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클래식계에서는 전문적으로 나아가려면 현대음악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현대
- 음악은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에 대해 깊게 배우고싶습니다.
- 음악과 다른 수학이나 문학 등이 접목된 부분에 대해 학습해보고 싶습니다.
-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 '생활음악'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광고음악 등 주변에서 쉽게접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영화음악과 클래식'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요즘 인기있는 대중적인 영화음악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겠음
- 시대별 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음악 장르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 '영화음악에 대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영화음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수업
- 오페라에 대한 교양강의가 생겼으면 좋겠다.

4. 음악/ 뮤지컬/ 악기 5.8%

- 음악치료와 관련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일반 학생들이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오페라는 무엇인지 어떠한 오페라가 있는지 간단한 교양이 생겼으면 좋겠음
- 악보를 정해 놓고 이를 완곡하는 형식
- 미술 실기 과목
- 악기에 관한 취미 활동 수업 신설 요구
- 춤을 직접 배우는 교양
- 보컬, 메이크업 교양 수업 참여도의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
- 음악
- 음악관련
- 피아노
- 작곡, 가창, 국악기

5. 다양한 실습과목 5.0%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강좌
- 졸업과제 캡스톤 디자인이 아닌 학교 주도의 추가의 자유주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있었으면 한다 이미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2학점에서 3학점 정도로 간단하고 쉽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다.
- 풍경화, 인물화 등 학습 후 이를 이용한 실습
-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 예를 들면 언론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실제 기자나 pd에 종사 경험이 있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직군 벽로 5개 이상의 해당 강좌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 지루한 이론 지식 보다는 실험 실습 과정 원함
- 다양한 과목의 이론 수업으로 진행에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실험 실습 등으로 대체한다.
- 교양강좌에는 이론적인 수업만 중심이므로 재미를 느끼기 힘들다. 로봇 수업의 경우 직접 작동하는 방법을 보는 등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면 흥미도 느끼고 전공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부분도 공부할 수 있어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학생이 많음.(ex: 유니티 프로그래밍 과목)
-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외부로 견학을 가서 수업하는 형식의 교양도 생겨났으면 좋겠다.
- 글로만 배우는 교양강좌 아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는 강좌 필요
- 실습이 많은 수업을 원한다. 이론이 아닌 직접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공부보다 체험을 많이 하는 수업,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교양
- 조별로 다양한 활동(스포츠 체험, 지역 답사 등)을 하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크게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진정한 교양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직접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수업의 강의 추가
-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어 수업을 진행했으면 함
- 식품 관련 실습 개설을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변화를 유도함.
- 실기 과목의 다양화
-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은 많지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목(예를 들면 예체능 계열, 간단한 실험 등)
- 요리라든지, 옷을 만드는 것을 배워보는 교양이 있다면 배워보고 싶다.
- 다양한 직종을 경험해볼 수 있는 교양강좌가 있다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임.
-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실기나 실습위주의 교양과목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수업을 원함(외부 프로그램 체험)
-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만 듣는 강의가 아닌 이론을 배우면 그에 걸맞은 실습도 하고 실습을 주로 하는 교양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5. 다양한 실습과목 5.0%

- 만들기, 체험해보기 등 실습이 주가 되는 교양 과목이 있다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강의로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들어 음악 교양과목일 시 직접 악기를 사용해보는 등 한 학기동안 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실습수업 /자격증을 위한 강의
- 획일화된 강좌가 아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험형 강좌
- 이론 강의보다 체험이나 활동 중심으로 된 교양강좌가 적극적으로 개설 희망
- 이론 말고 실습 위주의 수업
- 1, 2학년 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체험형 수업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미 있는 학술적 수업의 경우 단순히 정보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 실외를 이용한 수업
-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수강할 수 있는 실험이나 실습 과목의 개설
- 수업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강좌
-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함

6. 외국어/ 실전회화/ 토익 등 4.9%

- 영어 회화,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 역량 개발
- 영어 Speaking
- 토스 수업. 갈수록 기업에서 토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강만 있을 뿐 현재 영대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토스 수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 토익스피킹과 같은 토익인강강의(패스과목)을 ybm하고 협약맺어 개설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토익스피킹,토익같은 어학시험은 기본소양급으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들이 개설이되면 방학때 어학공부를 준비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회화
- 프리토킹을 바탕으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양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 영어 회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음과 억양 연습을 했으면 함.
- 회화 관련 강좌
- 온라인으로 다양한 언어 회화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 등과 같이 거리적 제약없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며 언어 공부할 수 있는 강의 개설
- 예) 원어민과 함께하는 이탈리아 수업, 스페인어 수업, 일본어 수업 등
- 실전 현장에 쓰이는 지식 및 용어를 가르치는 강좌.
- 1학년 때 영어회화 과목이 있지만,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없다. 고학년 때 영어회화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이 많으므로 회화 스터디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양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기존 개설된 토익 스피킹 강좌와 같이,오픽과 관련된 교양 강좌 제안
-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회화실력을 늘릴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면 좋겠음
- 이론 중심 수업보다는 회화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음
- 원어민 교수님과의 다양한 회화 수업
- 동화책을 가지고 영어 기초 문법과 회화를 부담없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 전공 수업도 영어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졸업 요건에 영어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만큼 실생활 영어를 제외하고도 학습적인 면에서 영어는 중요하다. 교환학생과 수업을 함께 듣거나 버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외에도 교환학생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
- 언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점 수업이 아닌 정말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언어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음대생의 경우 전공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는데 유학생활을 위해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6. 외국어/ 실전회화/ 토익 등 4.9%

교양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

-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교양 언어 강좌. 교양 수준에 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거 같다.
- 일본 회화를 중심으로 한 교양이 생겼으면 좋겠다.
- 일본 현지의 교수님과 문서형이 아닌 회화체의 수업 등 알맞은 표현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독일어를 영화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
- 과 특성상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관련 수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 외국어 회화 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 영어 회화 관련 교양
- 취업을 위해 어학성적이 필수가 된 만큼 영어나 외국어 강좌를 늘리면 좋을 것이라 판단함.
-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양과목 제고
- 토익스피킹, 기초 스페인어 외 다양한 언어 과목 개설 희망
- 스피치 기술
- 회화 대면 강의

7. 주식, 보험, 부동산 등 경제 관련 4.0%

- 제테크 관련 강좌
- 부동산, 주식에 대한 강좌
- 주식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수업
- 금융, 주식, 투자와 같은 경제 관념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양 강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음
- 고전경제 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수 있는 주제(주식,채권,부동산,펀드)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 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자산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필요
-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올바른 방법등을 가르쳐주는 강좌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해 배우는 교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즉,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투자상품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그런 교양 수업
- 주식 투자, 코인 등의 역사와 모의투자 강좌가 있으면 인기가 많을 것 같다
- 주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관해 알려주는 수업이면 좋을거 같음
- 여러 실제사례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면 더 좋을 것 같음
- 경제관련(주식, 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교양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음.
- 세계 경제 흐름과 그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쉽게 공부하는 강좌가 생겼으면 좋겠음
- 필수 교양 과목에 경제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 모의 주식투자
- 주식에 관련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와 같은 생활 경제 관련 강좌
- 주식 데이터 분석 강좌
- 경제
- 생활 속의 경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하는 교양 수업, 역사 상식 등 한 분야를 파고드는 지적으로 밀도 깊은 수업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며 도움이 되는 교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돈 버는 법. 우리는 노동소득으로 돈을 버는 방법만을 배우고 있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교과서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교양강좌로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음.

7. 주식, 보험, 부동산 등 경제 관련 4.0%

- 금융의 흐름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한 예, 적금, 주식, 투자 등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개설 희망
- 주식을 통해 현재 사회의 경제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교양이다.
- 이를 통해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 투자
- 투자 관련 교양
-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교양과목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8. 진로, 취업, 면접 스킬 관련 4.0%

- 자소서 및 취업 강화 교양 과목
- 기업소개/면접준비와 같은 취업에 도움되는 교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관련
- 자신의 학과에 관련된 진로 탐색 교육.
-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소서, 이력서 작성, 면접까지의 과정을 모의로 진행.
- 전공에 특화된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양이 있으면 좋겠다.
- 취업과 관련된 교양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수업이 추후에 취업 할 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유용하게 쓰일 것 입니다. 매주 마다 기업에서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기업에 대해 홍보하고 직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신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배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학생이 직접 발표 하고 면접처럼 학생과 교수들이 질문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격증, 악기, 요리 등과 관련된 교양강좌
- 대학생들의 큰 관심사가 취업인 만큼 취업 대비 교양 강좌 언급이 많았음
- 진로 설정 방향성 제시, 직업 현장 방문, 직무 설명 등에 관심
- 요즘 취업 입결이 많이 높아져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취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내용 가르침 필요
- 취업과 관련된 강좌가 많았으면 좋겠음
- 희망하는 직종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모셔와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예를 들어 문서 편집이나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알려주는 교양
- 진로설계라는 과목이 있지만 음악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좀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음
- 각 전공별 취업연계 교양 혹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양 수업이 필요함.(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 및 자격증 취득 관련)
- 전공이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원한다.
- 취직 후 도움이 될 수 있게 문서정리 등의 과제 제출 후 이행하는 방식
- 취업 관련 교양 과목
- 취업과 관련된 발표능력, 어휘력 등을 길러주는 수업
- 진로 등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수업
- 면접 준비 강좌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방법, 선배님들의 경험담, 취업방향 등의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양이 있으면 좋겠다.
- 광활한 분야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양강좌가 개설됐으면 한다.
- 취업 뿐만 아니라 실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알면 좋을 만한 강의들을 원한다.

8. 진로, 취업, 면접 스킬 관련 4.0%

-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수업 내용 및 미래 설계, 인생 설계에 대한 교양 수업

9. 다양한 직업 알기/ 직무 체험 3.4%

- 회사견학
-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몰라 전문가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한다.
-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교사면 교사, 창업이면 창업, 기계 관련이면 기계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실습 수업으로, 대구/경북에 위치한 다양한 직업군 회사에 방문해 그 회사를 탐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 평가는 p/f로.
-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직업 적합성 검사,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견학을 가는 것보다, 주어진 프로젝트(도시 재생 사업, 마케팅, 디자인작업 등)를 간단히 진행해 보며 실제 적합성이 어떤지 경험한다면 진로 선택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인사팀에게 면접 및 자기소개서를 코칭 받고 싶어 하는 학생 다수
-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직업, 즉 다양한 직종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양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
- 방송국, 스튜디오, 소속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 강사들이 해주시는 실전 교육을 들어보고 싶다.
- 실제 현직에 있는 강사를 통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즉 실무 위주의 수업.
-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교사면 교사, 창업이면 창업, 기계 관련이면 기계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교양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현장에 가서 실무환경에 대해 체험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경을 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여러 기업과 연계한 관련 직종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교과목 개설
- 직종 별 사내 문화 특징이나 직종별 상식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 등을 알려주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체험식 강의 혹은 취업 관련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전공이나 학과의 특성을 살린 취업, 실습체험을 위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미래 기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교사면 교사, 창업이면 창업, 기계 관련이면 기계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직업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이 있다면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
- 3학년 이상을 위한 기업탐방과 같은 실험실습 강좌
- 마케팅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
- 마케팅의 다양한 업무의 종류를 알고 각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교양

10. 토론 등 학생참여가 높은 수업 3.3%

-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 수업을 원함.
- 야외 활동도 종종하며, 전공 과목과는 다른 자유로운 수업이면 좋겠음
- 발표형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 활동적인 교양
- 영화, 독서 감상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

10. 토론 등 학생참여가 높은 수업 3.3%

- 토론을 주로 다루는 수업: 몇몇 강의에서 가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업으로 토론을 매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야기 능력을 개선 발전 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강좌 개설
- 발표, 토론과 같이 사회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는 교양을 듣고 싶어 함.
- 학생들의 경험이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교양, 자기 계발 관련 교양강좌를 원함.
- 토론 형식이 활성화된 수업
- 한 주에 주제(Ex, 사회문제 등)를 정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온 후 매 수업 임의의 조를 배정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토의해보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 스터디 방식의 수업
- 뉴스를 읽고 서로 발표하기
-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교양강좌: 평소 대화를 할 때 본인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예의있게 반박하는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렇기에 매번 토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본인의 의견을 글로 작성하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함. 개인의 의견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로 작성하는 연습을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한 것들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토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팀플이나 다른 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 운영방식
- 독서토론 강좌 추가 개설
- 어떤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원함
- 몇몇 강의에서 가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업으로 토론을 매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야기 능력을 개선 발전 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적극성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보다 활기찬 교양강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과제 중심(그룹과제 X) 교양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 강의와 토론을 통한 이론 학습
- 그룹 활동 및 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능력 강화

11. 컴퓨터/ 프로그램밍/ 인터넷 등 3.0%

- 현재 컴퓨터, IT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한 능력을 많이 요구하므로 컴퓨터 관련 기초상식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 많아지면 좋겠다.
- 피피티 혹은 한글, 엑셀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교양 강좌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양 과목이 몇 개 있지만, 강의평을 보면 비전공자가 듣기에 어렵다는 평이 많아 수강에 망설이는 비전공자들이 많다.
- 웹디자인 등 코딩과 웹 홈페이지 디자인 방법 등 비전공자도 쉽고 유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이 만들어졌으면 함.
- 피피티 혹은 한글, 엑셀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교양 강좌가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 AI 툴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학문적인 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방면으로의 도입이 필요
- chatGPT 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 트렌드를 반영한 과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 그 외에도 컴퓨터, 로봇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양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을 하기
-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어 java, node.js, spring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11. 컴퓨터/ 프로그램밍/ 인터넷 등 3.0%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컴공과 전공 수준이 아닌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능 활용을 위한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 CAD(Computer Aided Design), 캐드와 관련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는 코딩 강좌
- 코딩 관련 강좌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강좌
-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코딩
- 주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 등)을 배우는 교양 강좌이다. 사회에 나가면 컴퓨터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면 용이할 거 같아 이 같은 교양 과목을 생각해 보았다.
- 포토샵 배우기
- 코딩
- Chat-gpt에 관한 교양
- app개발,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된 교양 과목

12. 미술/ 예술 2.6%

- 미술 관련 교양강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보러가는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실습수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처럼 평소 보고만 지나칠 수 있었던 미술 작품들과 작가들의 인생과 작품 목적에 대해 배울 수 있듯이 직접 행위와 분석을 할 수 있는 과목 개설필요
- 미술
- 미술(미술사와 회화)
- 석조각 등 조각이나 판화, 도예와 관련된 교양
- 미술사, 화성확
- 표현주의 실존주의와 같은 한 사조 전반의 이해를 배울 수 있는 수업
- 미술
- 미술
- 미대 실기수업을 교양으로 들어보고 싶음.
- 미술
- 취미생활과 같은 예술 분야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과목
- 미술 감상법
- 기존의 문학작품 등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깨워줄 미술 창작 수업.
- 의상디자인이나 음악 작곡 등의 예술 관련 교양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
- 아크릴물감을 이용한 백드롭 페인팅 강좌나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는 강좌, 크로키 강좌 등 미술 계열의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교양 강좌를 개설한다면 학생들의 교양도 증진하며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미대계열의 실습수업 (의류디자인, 회화수업 등)
- 목공

13. 인문학, 철학 2.4%

- 인문학 관련 수업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전공 지식은 심도있게 공부하나, 여유 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스몰토크 등에 활용 가능한 인문학적 지식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이에 인문학 관련 수업, 특히 다양한 학과가 한 자리에서 파트너를 바꾸어 가며 대화하거나, 토론 등을 진행하는 방식의 인문학 수업이 진행되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상함.
- 인문학
-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신규 교양강좌가 늘어나면 좋겠다.
- 가령 글쓰기의 기초를 다루기만 하는 수업보단 글쓰는 것을 바탕으로 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강좌 등.
- 문예창작
- 인문 사회 계열 수업이 많아지면 좋겠음
- 대학은 학문적 정직성과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문적 부정행위의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한다
- 인문학, 사회적 이슈 관련 교양. 인간관계에 대한 교양. 철학 관련 교양
-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도덕과 윤리 등과 같은 과목의 개설
-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숙성을 기를 수 있는 강좌가 많아지면 좋겠다.
- 영화나 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 심리학 교양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아동에게 어떤 심리학적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학생들이 추측해보는 형식을 통해 개념적 지식을 배웠으면 한다.
- 많지 않은 문학 작품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게 다루어 작품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교양이 생겼으면 좋겠다.
- 인문학 디베이트 수업
- 영화로 보는 철학
- 일상에서 접하기 힘들고 교양 지식을 쌓기위한 좀 더 심화된 인문사회 내용
- 윤리 등의 문학적인 수업 희망

14. 교양다운 교양/ 부담 없는, 쉬운 난이도 교양 1.9%

- 이과/문과 등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교양
- 기계공학부 학생의 입장에서 자동차나 다른 기계에 대해서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전공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수업
- 다른 전공과목들을 교양수준으로 가르쳐주는 과목들
- 바쁜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잠깐 시간을 주면서 배움이 있는 수업
- PASS/FAIL 과목을 늘린다. 전공과목보다는 좀 더 관심있는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양 교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해당 수강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흥미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수업을 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취적인 공부를 유도한다.
- 교양의 덕목을 쌓을 수 있는 과목 개설 원한다.
- 영화나 책을 통해 경제, 역사, 철학 등을 배우는 과목
- 전공 수업에선 배울 수 없는 부가적인, 진짜 교양 과목이 필요
- 본인의 진로와는 관련 없더라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수업
- 무엇의 교양이든 어렵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목. 우선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수업 후에 실습수업을 병행하는 수업방식 선호.
- 녹색 캠퍼스와 함께하기(농작물 키우기), 다례(차 마시는 법 배우기)등 다양한 체험형 교양 수업이 개설되면 좋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임.

14. 교양다운 교양/ 부담 없는, 쉬운 난이도 교양 1.9%

- 시험에 큰 부담 없이 진정한 교양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있었으면 함.

15. 전공 기초 과목/ 타 전공 학습 1.9%

- 1학년 필수 교양을 들으며 '고등학교의 연장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특히 공대생들의 필수 교양이 이러한 특성을 많이 가져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르고자 필수 교양 과목을 없앴다고 판단되는데, 이보다는 내가 앞으로 배울 전공에 대해 얕게라도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각 과마다 '00학과 전공 알기'라는 교양을 개설하여 2-4학년 과정에 있는 전공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학문의 쓰임새, 중요성, 유래 등을 공부하면 신입생들도 더욱 쉽게 자신의 학과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공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이 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공과 관련된 교양과목이 많지 않은 것 같아 해당 학과와 관련된 교양강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 이공계 사람들은 인문학적 교양에 다가가기 쉬운 교양이 필요할 수 있고, 인문계 사람들은 이공계 교양에 발만 담그는 정도의 교양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기초적인 느낌의 교양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 인문계 학생들도 기초적인 과학과 같은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 지식 없이 초심자의 눈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좌
- 기초 수학과 미적분 1 사이의 난이도의 수학 교양
- 평소 통계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전공이 아니라 교양으로 가볍게 심리통계학과 같은 심리학과와 연관된 통계 수업을 희망한다.
- 전공과 연계되는 타과의 전공을 더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강의
- -ex. 행렬과 행렬식-> 기초 행렬과 행렬식
- 미시경제학-> 쉽게 풀어보는 미시경제학 등
- 전공과 관련된 교양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음.
- 심화 CAD 과목 필요성을 느낌
- 심리 관련 수업 신설 요구
- 기본적인 정치를 다루는 과목의 개설

16. 음식, 요리, 베이킹, 커피 등 1.8%

- 균형잡힌 식사나 영양소에 대한 강좌
- 베이킹이나 바리스타 수업 등 내가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과목도 있었으면 함.
- 베이킹의 역사, 기본 등을 배우고 나중에 직접 베이킹 실습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음
- 요리 등과 같이 혼자사는 학생들이나 요리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개설
- 요리
- 음주문화의 이해
- 제과 제빵 교양 수업.
- 제과제빵에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강좌 개설
- 제과제빵
- 요리 실습 강좌
- 음식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도록 칼질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교양 ->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거 같다
- 식품 관련 교양

17. 글쓰기, 말하기 1.6%

- 스피치
- 융복합글쓰기 수업이었는데 고명재 교수님께서 강의하셨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글도 많이 쓰고 영상도 많이 틀어주셔서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기억에 남음.
- 발표 및 말하기 실력 상승을 위한 수업, 자기소개서 작성 및 글쓰기에 대한 이론수업
- 논문을 떠올리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수업을 통해 논문을 접하며 나중에 논문 작성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 글쓰기, 책 만들기
-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 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강좌가 더 생겨났으면 함
-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강의의 개설
- 발표 스피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개설 희망
- 글쓰기 강좌
- 글 쓰는 방법, 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필사나 트렌드에 맞춰 전자책 글쓰기 같은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고 독서를 하며 토론도 하고 문학작품 같은경우에는 해석도 해보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함
- 독서 감상문 관련 수업

18. 심리학/ 기질 1.6%

- (백화점 1층에 왜 시계가 없는지 등등을 배우는 수업). 요즘 사회에서 주된 화두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관관계에서의 나타나는 심리학,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학 등 가까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에 심리에 대한 강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범죄 심리학 강좌
- 심리와 다양한 통계를 이용한 사례를 많이 조사하고 직접 찾아본다.
- 사람의 인격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 나를 알아보는 심리학, 범죄심리, 프로파일링, 지구환경의 이해와 같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다루는 교양.
- 심리에 대한 강좌
- 심리학
- 자신의 내면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생활에서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강의 내용
- 심리학의 기초 이론과 개념 소개
- 인간 관계의 심리학과 소통의 원리

19. 예체능 관련 1.6%

- 악기관련 교양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처럼 사비로 배우기엔 힘든 과목들이 생기면 좋겠다.
- 강의로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들어 음악 교양과목일 시 직접 악기를 사용해보는 등 한 학기동안 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실습수업
- 예체능의 다양한 분야
- 언어 과목 대신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음
- 예체능 계열 관련 수업이나 악기를 다루는 수업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 이러한 수업이 정말 교양으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됨.
- 예체능 부분의 강좌들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그 분야의 강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 예체능 쪽 교양

19. 예체능 관련 1.6%

- 그 학과가 아니라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예체능 수업
- 무용
- 체육활동 및 예술관련 교양강좌 개설 희망
- 경험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이 가능한 강좌가 많이 생겼으면 함

20. 자기개발/ 탐색 1.6%

- 지구환경 보호, 알아두면 좋을 쉬운 의학 지식 등, 앞으로의 사회 생활, 인생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철학 강좌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관련
- 교양을 들으며 그저 지루해 하는 시간이 아닌, 강좌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 해 볼 수 있는 교양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 이론 과목과는 관계없이 방황하는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
- 자신의 심리나 기분 등을 알 수 있는 과목이 생기면 좋겠음.
- 교수님들께서 지니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수업 방식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수업 방식에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종합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라는 존재에 대한 사유와 고찰을 통해 스스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
-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힐링되는 강좌
- 개인별이나 팀별로 발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원함
- 전공이 아닌 교양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교양강좌가 많이 개설된다면 성격형성과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이면 좋겠다

21. 다양한 교류 가능한 수업 1.5%

-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수업
- 요즘 세대들은 남들과 소통하는 법과 어울리는 법에 대해서 예전과 비해 많이 모르는거 같아 이론 중점적인 소통과 화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함께 하며 어울리는 강좌가 필요하다.
- 수학과는 특히 다른 과랑 친해질 기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교양 수업을 통해 다른 과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타 대학과 함께 듣는 공유 대학 강의
-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활동적인 교양강좌였으면 좋겠음.
-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실질적인 학생 활동을 추구하는 자유토론 위주
-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 개설 희망
- 사회문제 해결, 창업 등 다양한 것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수업 희망
- 책을 읽은 후 감상문을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학우들과 피드백을 하거나, 영화 도서 등 중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내는 수업이다.
- 다양한 직종을 체험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22. 스트레스 관리/ 힐링/ 명상 1.3%

- 건강 관련 강좌
- 날씨 좋을 때 명상하기(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 자신의 심리나 기분 등을 알 수 있는 과목이 생기면 좋겠음.
- 많은 현대인이 스트레스에 취약한만큼 스트레스와 심리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음
- 힐링이 가능한 프로그램
- 인간관계나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양 수업
- 심리와 정서와 관련되어 힐링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원함
-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원함
- 과도한 공부 및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멘탈관리방법, 명상 등의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양
-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

23. 영상 편집/ 1인 미디어 관련 1.2%

- 최근 떠오르는 유튜브와 그에 관한 저작권, 군중심리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성격의 교양 수업.
- 영화, 드라마 수업 신설 요구
- 영상 제작, 음악 편집을 하는 교양 (요즘 sns를 통해 영상 매체가 대다수이기에 영상의 개념 및 이론 중간고사 전까지 공부하고 그걸로 중간고사를 치른 뒤 기말 시험은 팀플로 영상제작 하는 것)
- 영상 편집
- 카메라나 영상에 대해 배우는 강의- 조를 구성하여 영남대를 탐방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실습 수업, 카메라 구도, 촬영기법, 영상미 등 영상 제작을 배울 수도 있으며 완성한 결과물은 학교 홍보에도 쓰일 수 있음.
- 유튜브 영상제작에 쓰이는 프로그램의 간단한 강의
- 직접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보는 과제
- 영상편집기술과 관련된 교양

24. 경영/ 경제학 1.0%

- 같은 경영학과지만 항공운항계열을 위한 항공기관련 교양 강의 추가
- 주식에 대해 미래에 도움되는 교양 수업
- 경영학의 인사제도에 관련된 수업
- 기본 상식을 얻기 위한 경제 공부
- 경제/경영과 관련된 통계 수업.
- 경제/경영 등 다양한 통계를 이용한 사례를 많이 조사하고 직접 찾아본다.
-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관련 강좌

25. 융합강좌 0.3%

- 법에 관심이 많은데, 전공이 철학 쪽이라 법철학 교양 과목이 생기면 좋겠다.
- 문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공계 수업이 생기면 좋겠다.

26. 데이터, 빅데이터, 4차 산업 관련 0.9%

- 최근 들어 챗gpt 관련 강연 등이 많아졌는데 교양과목으로 생겼으면 함
-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적인 교양과목
- 반도체의 8대 공정/이차전지 관련 교양 ->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공과대학생이라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쯤 들으면 도움될만한 교양이 될 것이라 생각됨.
- AI, Chat GPT 실습, 프롬프트명령어

26. 데이터, 빅데이터, 4차 산업 관련 0.9%

- 3D 프린터와 3D 펜과 관련해 3D 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Chat GPT, 드론

27. 역사 0.9%

- 역사와 관련된 교양, 기본적인 교양을 다루는 강좌
- 기존에 있는 언어도 좋지만 생소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 언어 역사를 배워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교양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언어에 대해 배우고 문화나 역사 체험을 위하 박물관 전시회등을 가보며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
- 역사 관련 내용들을 세분화한 강좌 추가 개설
- 유럽 신화를 배워보니 북유럽이나 켈트 등 다른 신화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는데 더 다루었으면 한다.
- 역사 유적지 탐방

28. 영화/ 연극 0.9%

- 영화
- 대중영화 감상
- 영화
- 연기나 화법, 화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양강좌 개설 희망
- 연기나 연극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교양강좌가 신규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극, 영화와 관련된 교양

29. 최신 트렌드/ 사회 이슈 0.9%

-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진행
- 해당 이슈에 대한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는 교양이 있으면 좋겠음.
- '사회적 영향력과 변화'에 관련된 교양강좌를 가르침으로써 현대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 및 분석 진행
- 한국현대문화
- 한국의 문화이자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한국의 K-POP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 외국인에게만 강의가 열려있어 아쉬움
-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한국의 문화 또한 눈부시게 발전할 것임.

30. 법률 0.7%

-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나 자취를 위해 집 계약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법의 무지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음을 인지했다.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알바비를 똑바로 받지 못했거나 중고사기를 당했을 때 등 일상생활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법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등을 알려주는 교양 강좌가 생겼으면 좋겠다.
- 법학 지식
- 공무원, 법조인, 경찰 등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민법 등의 교양 강좌를 원함.
- 법 관련 기초 지식
- 법률 관련 교양

31. 건축/ 설계/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0.6%

- 건축 인문학과 같은 과목 개설 필요
- 건축, 디자인(건축)을 배워 보고 싶다.
- 세계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
- 건축물 관련 탐사 강좌

32. 기후, 환경 0.6%

- 인문, 사회와 관련된 교양은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교양들이 많이 신설되면 좋겠다.
-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좌 개설 예) 플로깅 활동, 요양원,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
- 환경문제, 비건
- 자연과 관련된 봉사 수업

33. 동물 0.6%

- 요즘 트렌드에 맞춰 (애완)동물과 관련된 강좌가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
- 동물에 대한 교양강좌
- 동물과 관련된 교양과목
- 반려동물의 심리나 행동 분석 관련 교양

34. 외국 문화 0.6%

-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어느 문화권의 생활 양식이든,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의 개괄적인 형태를 마주하고, 그 형태는 어디에서 기원하고 비롯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한다
- 세계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낌
- 다양한 나라의 인테리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 신설 요구

35. 인간관계/사회생활 관련 0.6%

-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 정말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사를 나가거나 인턴을 할 경우, 사회생활에 무지한 대학생들이 잘 모르고 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잘 이어가는 법, 끊어내는 법에 관한 교양
- 과제가 조를 만들어서 여러 활동을 해보는 등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교양과목이 있으면 좋겠음
-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대한 교양

36. 창업 관련 0.6%

- 창업방법에 대한 강좌
- 창업과 관련된 교양강좌: 회화과 기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진로의 폭이 넓지 않음. 그만큼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 관련 분야에 취업하거나 작가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종의 종류가 한정적임.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길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해당 강좌는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업 관련 실전 교양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학교내의 벤처기업이 있고, 유튜버, 쇼핑몰, 인터넷 사업이 많이 증가하는 만큼 창업을 하기 위해 도움이되는 기초 지식

36. 창업 관련 0.6%

과 방법등이 담긴 교양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 흔히 알려진 쇼핑몰, 인터넷가게, 유튜버 등의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 창업, 전자사업 등의 학교가 아니면 어디서 잘 접하지 못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교양이면 좋겠다.

37. 과학 관련 0.4%

- 과학 혁명과 관련된 교양 , 우주와 관련된 교양 ,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발달과 관련된 교양, 새로운 물질의 발견과 핵에너진의 사용과 관련된 교양 등이 많이 개설되면 좋겠다.
- 지구과학 교양이 생겼으면 좋겠음.
- 우주 및 자연과학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양. 천문 관측 등 직접 활동하는 교양 수업.

38. 사진 0.4%

- 사진찍는 교양강좌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 들은 감성있는 사진이나 영상등 매체의 활용이 뛰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도 열린다면 광고나 영상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쪽으로 취업 할 수도 있으며 취미생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카메라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 함양, 포토샵 실습, 스토리텔링 및 기획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음.
- 사진과 그림과 같은 작품을 탐구하는 예술 분야의 교양 수업 확대.

39. 취미 발굴 가능한 수업 0.4%

- 교양 있는 취미활동 같은 수업.
- 취미와 관련된 교양수업. 실기적인 수업.
- 강의로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 들어 음악 교양과목일 시 직접 악기를 사용해보는 등 한 학기동안 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실습수업을 원함

40.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0.4%

-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
- 이공계의 전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교양
- 비판적 사고를 기름으로서 같은 주제에 대해 배우더라도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연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생기면 좋겠다

41. E-sports 0.4%

- E-sports 강의
- e 스포츠 관련 강좌가 생기면 좋겠다.
- E스포츠와 관련된 교양 또는 타 스포츠 문화와 관련된 강의 개설 희망

42. 공예 0.3%

- 옷 수선과 같은 재봉틀 사용
- 밖에서는 쉽게 배울 기회가 없는 원예나 도예같은 예술적 과목 개설

43. 대구 경북 지역 관련 0.3%

- 경산과 대구가 인접한 만큼 경산과 대구의 차이점에 대해 공부하며 대구로 탐방가는 계획도 있기를 바람.
- 다양한 활동의 체험/체육 위주의 교양 -> ex. 대구 도심 트레킹, 대구 마운틴 트레킹, 낙동강 트레킹

44. 댄스 0.3%

- 댄싱
- 춤, 노래 등 실습 및 체험형 예술 교양강좌 개설

45. 독서 0.3%

-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교양강좌
- 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많이 없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슈들만 접하다 보니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 전공 관련 전문 어휘들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면 좋을 것 같음

46. 여행 0.3%

- 여행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국내, 해외 여행지들을 소개하고 여행에서 준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청년 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47. 봉사/ 사회복지 0.1%

- 주말을 이용해 학교에 봉사를 하고 여러 일손을 돕는 봉사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48. 응급처치/ 안전/ 범죄 관련 0.1%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양

49. 인권/ 성평등/ 젠더/ 여성학 0.1%

- 연애와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자유롭게) 얘기하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수업 개설 희망

50. 정치/사회 0.1%

- 현재 사회문제에 대한 강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음. 그 학기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ex. 현재 학기는 저출산에 관해 수업하고, 다음 학기에는 그때의 사회문제에 대해 수업함)

51. 종교 0.1%

- 종교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수업

52. 기타 과목 관련 8.0%

- 차세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양
- 메이크업, 패션, 노래 악기 강좌
- 다양한 식자재를 시식해보고 문화에 관한 공부 연계(ex. 와인 시음)
- 드론 관련 교양
- 드론을 다뤄볼 수 있는 강좌
- 현재 인기있는 강의를 분석하여 그와 비슷한 강좌를 개설
- 학생들에게 개설했으면 좋겠는 교양과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 진정 교양으로써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자
- 요즘 트렌드인 융 복합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공학을 통합한 교양, 인문학과 융합된 공학 교양
- 도시계획이나 조경
-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기 힘들었음. 퍼스널컬러나 바디쉐입을 알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단순 메이크업만이 아닌 예를 들어 조향사를 직업으로 꿈꾸는 화공과 학부생이 향에 대한 역사나 종류를 알기 위한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음.
- 피부가 예민한데 피부의 종류나 타입별로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나 마사지 방법을 알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 유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학생들은 대부분 전공 교과목 수강 계획을 세운 후에 남은 학점을 전공 이외의 과목으로 채운다. 이때, 2학점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화학공학부의 경우 실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 교과목이 3학점으로만 개설되기 때문에 전공으로 학점을 채우기는 불가능하며, 교양 교과목의 대부분도 보통 3학점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학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학점 강의를 늘린다.
- 필수강좌 줄이기
-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이 많음 필수로 들어야 해서 선택을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 과목 수를 줄이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한 후 강의를 줄이거나 증대한다.
- 실전 현장에 쓰이는 지식 및 용어를 가르치는 강좌.
- 역사에서의 필수한자를 배울 수 있는 교양강좌를 개설하면 좋겠다.
- 역사학과 학생들도 수강가능한 역사 관련 교양이 개설되거나 제한 과목을 해제해주면 좋겠다.
- 교수님과 학생들 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볼 수 있는 형태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신규 교양강좌 보다는 기존 교양강좌의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규교양 강좌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교양강좌의 수를 늘려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게 좋을거 같음
- 현재는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신설하면 좋을 것 같은 강좌들
- 진로관련이나 학생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과목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법한 수업,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이 건축학에 대해 배워보고 싶을 때 건축학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 교육과 관련된 교양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교직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교양으로 가볍게 들어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공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과목들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개념은 미리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풀이해주는 강좌
- 해당 분야의 전공자는 수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어려운 공부를 혼자 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교양
- 앞으로 어떻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는 수업
- 학교는 교양 강좌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예술, 과학, 역사, 사회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도록 하고, 이를 통해

52. 기타 과목 관련 8.0%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사와 관점을 개발할 수 있다.
- 평소 바둑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바둑을 직접 두는 것은 물론 취미 생활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바둑의 개념을 다루는 강의조차 없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바둑 종목을 채택하는 등 바둑은 정신 수양과 심신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스포츠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강의인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에 한 종목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다.
- 교내 시설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팀별/개인별로 제출하고 이를 보안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실천해보는 능동적인 수업을 원한다.
- 전공이 없는 1학년 때 만이라도 대학생활을 즐기는 과목을 듣고싶다.
- 범죄심리학: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강의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왜 일어나는지 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 등을 자세하게 학습해보면서 새로운 트랜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업과 관련된 교양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 우리 주변의 자연, 동식물 등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양강좌가 생겼으면 좋겠음.
- 교양은 다른 학술적인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취향을 많이 저격하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흥미로운 내용의 과목은 개설되는 수가 많지 않아서 항상 경쟁률이 세기 때문임.
- 신규 교양강좌는 아니지만, 외국인 교수가 강의하는 한국사 수업이 1학기에는 존재하였지만 2학기에는 없어진 점이 아쉬웠음.
- 여러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이 많은데 광고 효과만 보더라도 응용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함. 이러한 플랫폼들의 활용을 다루는 교양강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변화하고 있거나 미래에 유망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교양강의 개설
-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어 혹은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교양의 필요성이 대두됨.
- 캐리커쳐, MBTI 등 요즘 시대에 뜨는 문화로 강좌를 열어 자신에 대한 탐구능력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양
- 우리나라의 지역에 대해 자세히 탐구 할 수 있는강의
- 문·이과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가 적절히 섞인 교양과목 추가 개설
- 멘토·멘티 형식으로 진행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맞춤형 학습이 가능함
- 통계 관련 강좌
- 카메라 다루는 법 교육 강좌
- 사진 촬영 관련 강좌
- 같은 경영학과지만 항공운항계열을 위한 항공기관련 교양 강의 추가
- 에프터이펙트, 프리미어프로 등 실습 수업
- 피부관리와 관련된 교양(트러블에 대한 관리법 등의 이론수업과 화장품을 만들어보는 간단한 실습수업)

53. 기타 수업 형태 관련 4.2%

- 어떤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 프로젝트 기반 학습: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타지역에서 진행되는 형태였으면 좋겠음.
-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동일 교양 교과목의 시간대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전공과목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 교양과목을 채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교양에 대한 흥미보다 시간대이기 때문에 흥미없는 과목을 학점채우기 용도를 듣기 때문에 교양과목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 이로인해 시간대를 다양하게 개설해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을 수강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 단순히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교양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이론 수업이 아닌 몸소 체험 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실습수업 추가
- 각 분야의 기초 토대를 다루는 교양과목
- 성적을 신경쓰지 않고 교양 증진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인 P/F강의가 있으면 좋겠음.

53. 기타 수업 형태 관련 4.2%

- 피피티나 엑셀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며 필요한 강좌를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강의 개설
- 한정적인 수업 방식이 학생들은 좀 더 지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야외수업을 한다던지 혹은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하여 교수님과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토론 또는 토의를 자주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강좌를 새롭게 개설하면 좋겠다.
- 교양 강좌에서 전공을 떠나 다양한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취업, 공부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
- 예술 관련 수업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실질적인 기술에 관련된 수업
- 실기 수업과 그 실기 수업에 관련된 이론 수업을 연계해서 실기 수업 이외의 정보를 알려주는 교양 수업.
-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학생의 머리에 주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소규모 인원의 다양한 과 학생들을 모집하여 토론형식의 수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세부적인 분야와 관련 있어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양, 혹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 형식(ex '경계를 넘는 인문학') 의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시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과제의 평가 기준을 높여서 운영하는 방식
-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 또는 실용적인 분야의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 예체능 관련 강의, 다수의 학생이 복수전공하는 과목의 강의 증설
-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철학자 1명을 선정하고 한 학기동안 그 철학자의 저서(N권)을 읽은 후 감상평을 쓰고 발표하는 강좌가 생겼으면 한다.
- 강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이나 수업적 요소를 조사하여 그에 맞게 수업을 진행함.
- 토론이나 참여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수업마다 퀴즈가 많은 교양수업일수록 수업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수강할 수 있었음. 따라서 중간 기말의 비중을 줄이고 퀴즈를 자주 내면서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영남대학교의 정규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을 초청하여 다양한 강의를 열어줬으면 좋겠음
- 체험활동과 같은 교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실습을 통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 평가 기준을 넉넉하게 주고 분반을 통해 학우들의 부담감을 낮추면 시험 성적에 부담감과 전공 공부를 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양강좌 운영

● **본문에서 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수업방식

1.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8.4%

- 자발적 참여 중심 운영
- 조별수업(Speaking 위주)
- 학생 주도적인 수업
- 책을 읽고 외워서 평가를받는 운영방식이아닌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강의면 좋을 것 같음.
- 수업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집중시켜 흥미를 유발.
- 학생 중심으로 책읽기 강의가 아닌 학생이 직접적으로 수업에 관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학생들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수업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일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말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면 좋겠음.
- 한 달에 한 곡씩 춤을 배우고 숙지 정도에 따라 평가
- 중간고사까지는 이론 중심, 기말고사 부터는 실습(모의 면접 등) 위주의 수업 진행.
- 이론 수업을 통해 암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자
- 실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바로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양강좌를 운영
- 토론위주나 조별수업을 통해 이론적인 학습만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협동능력, 프로젝트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강좌를 개설한다. 이때 조별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부당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함.
- 단순 이론 수업이 아니라 미국식 토론이나 열린 수업방식을 활용한 회화수업을 개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위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주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학생들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수업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실습과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 수업과 동떨어진 내용보다는 수업과 관련이 있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제로 정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문화시설이나 타시설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식이라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 판서식 수업보다는 토론, 팀별 활동, 실험 및 실습 위주 방식의 수업을 늘려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경험하고자 한다.
- 실습 위주 수업은 A를 받을 수 있는 퍼센트 수가 일반 강의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론형 강의가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양 강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교양의 평가방식을 P/F로 바꾸고, 수업방식을 발표나 토론 등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채택함.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자율도와 참여도는 높이되, 반대로 시험에서 오는 부담감은 줄이는 효과가 발생함. 이러한 점은 교양교육과정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 예체능의 경우 기초를 가르쳐주고 많은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
- 실기 위주의 활동들을 추가했으면 좋겠음.
- 실습을 늘리고 조별 활동을 늘리면 좋겠다.
-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치고 외국인과 진행하는 회화 실습을 통해 이전의 딱딱한 영어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론 수업 또한 중요하지만, 활동 중심적인 실습, 토론 활동이 합쳐진 과목
- 쉬운 주제를 정해서 다 같이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거나 설명해주며 기본 상식을 가지는 수업.
-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며,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
-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의 특성상 취업 면에서

1.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8.4%

도 그렇고 실습과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론만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해서 모든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험 수업이 늘어나야한다.

-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수업방식을 선호하는 학생이 많음으로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함
- 교수님 혼자 강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끼리 조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고 생각했다. 팀을 이루어서 의견을 펼치는 강의를 수강하였을때는 얻어가는 것이 많은 거 같다.
- 토론 형식 교양
- 학생들이 서로의 작업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프로세스를 통해 학습을 촉진합니다.
- 강의식 수업이 아닌 체험과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수업을 지향함.
- 강의식이 아닌 학생 주도형 수업(거꾸로 수업)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
- 학생들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수업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험에 집중된 수업이 아니라 참여형 수업 희망
- 학생들과 친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는 수업이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생들끼리 서로의 프로젝트나 발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으로 운영한다.
- 실습이나 실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내고 학생들이 수업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조를 이루어서 주기적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예술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직접 그려본다거나 체험형의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평가 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2.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강의 정보 사전 공개 5.9%

- 수업계획서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자신의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적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꽤 있는 편이다.
- 수업계획서 구체화: 수강꾸러미 전에 담당 교수님을 다 정하여 미지정 교수님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수업계획서를 ot형식으로 영상화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 수업계획서대로 수업 진행
- 수업계획서 구체화: 수강꾸러미 전에 담당 교수님을 다 정하여 미지정 교수님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수업계획서를 ot형식으로 영상화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 같은 강좌명의 수업임에도 교수에 따라 수업의 방식,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평가 방식이 다른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교수들의 방식을 존중하되, 의무적으로 수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하여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필수 교양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고를 기회를 주어야 함.
- 주변에 귀찮아서 수업 계획서는 보지도 않고, 에브리타임 강의평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그러나 매년 수업 계획은 달라지기에 에브리타임 강의평과 계획이 달라 수강정정을 하는 경우도 봤다. 이에 수강꾸러미 신청 전에 해당 과목의 수업 계획서를 필수적어로 읽어야 꾸러미에 담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 수업계획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앞으로 들을 강의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자극
- 강의 계획서를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첫 수업에 계획서를 설명하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함
- 교육해야 할 공통적인 사항을 교수님들끼리 토의해 정한 뒤, 해당 사항을 토대로 강의 계획서 작성 및 공유하고, 문제 출제를 해야 함
- 수업 계획서가 주차별로 자세히 나오며 미리 알 수 있게 함
- 수강 신청 전 수업계획서를 보고 수강신청을 하지만,지난 학기에 사용하던 수업계획서를 작성해두고 수업시간에 바뀐 계획을 전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심.수업계획서와 맞지 않게 한 학기가 흘러가는 경우 전공 공부에 영향을 끼치므로 수

2.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강의 정보 사전 공개 5.9%

업계획서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고 해당학기 수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

- 수업계획서를 명확하게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수업계획서가 최신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수업계획서에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미리 적혀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석, 성적 반영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수업 계획서 존재, 어떤 수업인지, 어떤 교수님이 담당하시는지 수강 신청 전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자세한 수업 계획서 필수
- 수업 커리큘럼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안
- 수업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였으면 좋겠음
- 수업 계획서를 더 자세히 기록해 주차마다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음 예를 들어서 이 차시에 과제를 내고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자세한 방법이 궁금함
- 수업 계획서와 실제 강의 내용이 다른 과목이 있는데 이를 개편한다.
- 수업계획서에 1차시 수업 관련 자료를 올린다.
-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서는 있지만 과제에 대한 수업 계획서는 없는 강의가 많다. 과제 역시 학점을 위해서는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인데 과제에 대한 수업계획서도 제공하여 좀 더 체계적인 과제 준비를 하고싶다.
- 수업계획서를 통한 학기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음.
- - 수업계획서에 맞게 강좌가 실행되며 평가도 적절하다고 생각함.
- 현재 교양과목의 수업계획서는 매우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수업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만족함.
- 수업계획서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공지함.
- 수업계획서와 다른 경우도 간혹 있기에, 확실한 커리큘럼이 짜여져 나오면 좋겠음. 특히 작년 수업계획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빈번함.
- 수업 계획서를 미리 보여주고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교수님들께서 공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업 계획서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수강신청시 학생들이 사전에 해당 강좌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교수자를 미리 지정하고 수업계획서를 명확히 공지해야함.
- 유연한 수업계획서 개발
- 수업계획서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수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수업을 해서 수강정정을 한 경험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 수업계획서와 평가방법 자세한 공지
- 수업계획서의 리뉴얼 필요
- 수업계획서, 과제, 시험 등이 상세하게 명시
- 수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계획서의 정교함과 정확성
- 강의 계획서를 수강 신청할 때 미리 열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처음에 제시한 강의 계획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함
- 수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 생각함. 간략하고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생각한 수업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함.
- 수업계획서 구체화: 수강꾸러미 전에 담당 교수님을 다 정하여 미지정 교수님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수업계획서를 ot형식으로 영상화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 수업계획서에 고지된 내용과 수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정을 통해 재공지를 해주도록 개편하였으면 함.
- 적절한 교제 선정으로 체계적인 수업
- 과제와 성적 평가 방법을 수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
- 작성된 수업계획서에 맞게 진행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으나 때로는 무분별한 공지와 두서없는 내용들로 인해 과제 파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 하기 쉬운 정리가 잘 된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업계획서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 수업계획서 구체화: 수강꾸러미 전에 담당 교수님을 다 정하여 미지정 교수님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수업계획서를 ot형식으로 영상화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 수업계획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좋음,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음.

2. 강의계획서 사전 공개/ 강의 정보 사전 공개 5.9%

- 수업 계획서 중 강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서술
- 수업계획서에 한 학기 동안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음.
- 어떤 것을 배우는지 자세한 설명란 필요
- 수강꾸러미 전 확실한 수업계획서

3. 이론 외 다양한 수업방식 진행 5.7%

- 실제 창업자 강의, 창업지원처/사이트 등을 소개시켜주고 실무자의 일을 간단히 체험해보는 방식 원함.
- 예를 들어 자소서 교양 과목이라면 4학년 위주로 자소서를 매 주 질문에 대해 조금씩 써오며 전문 강사나 교수에게 첨삭을 받는 수업 형식
- 해당 E-Sports의 전략 이론 등 위주의 교육
- 회사견학을 통해 직무를 보고 느낀점과 보고서 작성
- 주입식 교육도 좋지만 교양인 만큼 한 주제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한다.
- 다양한 조별 활동 및 외부 활동 추진
- 수업계획서에 발표형이라고 적어놓는다.
- 수업 목표및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 학생들의 관심과 강의 컨텐츠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는 실제적이며 도전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여야합니다 . 팀을 구성한 후 팀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팀워크를 강화할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합니다 . 프로젝트 일정과 단계를 정의하고, 중간 평가와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주고 , 교수나 외부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지원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양 수업은 과목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를 통한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교양의 본질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스킬을 교양교육에 통합
- 데이터 분석, 정보 검색 능력 등을 강조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수업계획서를 틀에 짜여진대로 하지 않고 창의성을 두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Tool 사용법 교육 혹은 기본 이론을 교육 후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식을 키워가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을 할 때 많은 주제에 대해 수업하는 것을 5가지 정도의 주제를 선정해 진행.
- 이론 위주의 개념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의 체험 강의의 비중이 늘어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수업이 아닌,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 교양 과목은 같은 학과생끼리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모여 듣는 만큼 서로서로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양과목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양한 체험을 요구하는 강좌가 운영되면 좋겠음 예를 들어 박물관 방문 전시회 방문 해당 강의에 사용된 제품 체험 등 전공교육과정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들이 많이 운영되면 좋겠음
-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수업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하며 수업을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 생각한다.
-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의 소통 문제가 없으며 수업 분위기가 좋은 수업.
- 수업방식에서 피피티를 읽기만 하는 과목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과목.
- 학문의 호기심에 대한 강좌와 현실을 위한 강좌로 교양을 분류하여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견해를 넓힐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얼마나 몰입도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다른 것보다 집중이 되지 않는 수업이라면 아무리 들어도 귀에 익지 않는

3. 이론 외 다양한 수업방식 진행 5.7%

다.

-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집중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되는 강의
- 수업시간에서의 배움의 끝이 아닌, 과제 제공
- 멘토링식 운영을 진행해야 한다.
- 학점에 집중하기 보다는 참여형,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구성하고 진행해보거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교양이라는 수업 특성으로 인해 강의실에 들어가면 전공수업에 비해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이로 인해 교수자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조차 분위기에 휩쓸리게 됨. 교양 수업답게 성적에 대한 부담이 되는 활동보단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 참여형 수업을 만들어야 함.

4. 학생 의견 반영 / 자료 업데이트 2.7%

- 일반으로 배우는 수업이 아닌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업계획서를 최신화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전 학기 수업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강의도 있는 것 같다.
- 학생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
- 교수님의 편의에 맞게 진행되는 수업 방식 보다는 학생들을 조금 더 신경쓰고 학생들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되어야함.
- 교수님과 학생의 의사소통이 더 활발한 강의로 개편되면 좋겠다.
-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부족한 교과목들이 있어 해당 과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 할 것 같음.
- 필기가 한눈에 들어오며 수업자료를 잘 공유해주는 수업.
- 지속적인 개선: 교양 강좌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피드백을 수렴하고 교육 방법 및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 시험과 과제의 적절한 수준 설정
- 이메일뿐만이 아닌 교수님과의 자유로운 소통 방법
- 이메일을 확인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기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통이 되기를 소망함.
- 매년 시험 문제와 영상을 다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
-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업 진행이 필요함
- 교양 수업 자료를 pdf나 인쇄물로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5. 온라인 강의 환경 개선 3.0%

- 온라인 형식의 교양 수업은 부담이 적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강할 수 있어 좋음.
-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강의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수업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음.
- 교양교육인 만큼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양을 통해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양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인터넷 강의보다 대면 강의가 참여율과 집중력이 높다.
- 온라인 강의를 듣고나서 오프라인 강의때 실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
-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개편
- 인터넷강의 시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

6. 난이도별 분반/ 난이도 조절 1.5%

- 다양한 과와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심함,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교양 수업은 전공에 비해 좀 더 쉬워도 괜찮을 것 같음.
- 다양한 과와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심함,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교양 수업은 전공에 비해 좀 더 쉬워도 괜찮을 것 같음.
- 난이도를 학생들에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
- 이공계열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의 난이도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 전공보다는 쉬운 학점 취득
- 수업 진도의 양을 줄인다

7. 기초에 충실/ 기본지식 함양 1.0%

- 전체 교양과정을 절반으로 나누어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로 설정하고 과제로는 그 중 가장 관심 있는 전공을 조사하여 오는 것으로 설정하고 시험에는 간단한 기초 지식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한다.
- 전공에 비해 비교적 수업내용, 진행방식이 널널한 것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주제는 넓고 얕은 지식을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학생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고 과제가 전공에 비해 부담되지 않는 교양
- 교양 과목은 시험을 통한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보다 교양적 지식을 자신이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은 최대한 계획서대로 진행

8. 과제, 실습에 대한 피드백 필요 0.8%

- 학생들의 학습 성과들을 측정한 후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경로를 조정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야함
- 주제를 정하여 과제를 내면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과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음.
- 운영방식으로는 교수가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 일대일 피드백을 주는 등으로 학생의 교수의 손길이 직접 닿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학생과 교수와의 유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강의 내용도 기존 이론에 실습을 보강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 학생들의 교수님들께 시험 피드백 문의를 해도 공개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없다.

2) 성적평가

1. 객관화, 평가 기준 공개 7.4%

- 평가에 투명성을 부여해야 한다.
- 답이 정해져 있는 교양들은 정답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시험지를 다시 확인하러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과목들은 왜 그 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 성적산출을 할 때 점수의 등수를 제시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보다 성적 낮은 것 같아보이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았다고 의심될 때가 가끔 있다.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시험 이후 자신의 점수와 점수 분포표를 무조건 게시
- 객관적 평가 기준

1. 객관화, 평가 기준 공개 7.4%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사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답안지를 만들어놓고 채점 이후에 학생들에게 공개되었으면 함.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의 경우 교수의 재량에 따라 채점이 됨.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두고 딱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과제나 보고서, 자료 제출 등의 과제는 채점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학생들도 자신들이 왜 이 학점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정확한 채점 기준과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시험 및 과제 점수 공개 의무화
- 현재 운영방식에 크게 문제가 없으나 평가 방법이 조금 더 정확히 표기가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시험 형식과 배점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지되었으면 좋겠음
- 평가에 대해 자세히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 일부 교양이 시험 평균을 공개 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점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중간, 기말 각각의 성적까지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따라서 전자 후자 모두 필연하게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채점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공부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시험 채점이나 과제 수합 후 점수를 모두 공개하여 성적에 이의있는 학생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음.
- 지금도 교양 과목들이 다 수업계획서나 평가 방법이 lms에 서술되어 있지만, 학점을 매길 때의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지한다.
- 교양 학점 평가 방법을 세부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 시험 점수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과제와 중간, 기말 시험의 성적들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강 과목의 시험 점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화되어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연한 학생의 권리인 점수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많지 않음
- 글쓰기나 레포트의 경우 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관성을 최소화한 평가 필요
- 수업계획서에 성취기준과 평가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
- 평가 후 채점 방식에 대한 정확한 공지
- 시험문제에 대한 풀이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 퀴즈, 중간, 기말을 본 후 점수를 공개하길 원함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교양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는 시험 문제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차라리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이런 실습은 과제로 대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 과제와 같은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물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보는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음.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중간, 기말, 과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을 수업 계획서에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안내햐야 함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
- 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시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
- 교수님들의 평가방법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
-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 방법 (평가 후 시험지 혹은 점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2. 평가 기준 완화 / 적정 수준의 과제와 시험 6.1%

-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본인 생각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식
- 퀴즈 정도는 평가 방법에서 제외 해줬으면 한다.
- 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은 최대한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기존보다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 과제나 퀴즈를 통해 여러 횟수로 평가를 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자
-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은 최대한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기존보다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 교양과목은 창의적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뽐낼수 있는 중간대체과제와 한 학기간의 학생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기말시험(전범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 시험 범위 및 채점 방법을 완화시킴
-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기 위함이 아닌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양이므로 A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 전공강좌에 비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시험을 실습과 같이 이론형이 아닌 형식으로 대체한다던가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시험 비중 완화
- 성적이라는 부담감을 벗어나 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
- 전공보다는 다가가기 쉽고, 도움이 되는 강의
- 과제에 대한 압박감이 적은 수업
-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
- 유연한 성적(과제와 시험의 양등)
- 교양이니만큼 전공수업보다는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함. 학생들이 전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교양 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음.
- 출석/과제/시험 등 적절한 비율로 평가해야 함.
-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은 최대한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기존보다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 전체적으로 전공보다는 완화된 규정이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양 교육 수준 하향화
- 전공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과제와 수업
- 교양교육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역사관련 교양의 경우 직접 답사를 가거나 영화 교양의 경우 배운 교양을 활용하여 영화를 촬영해보는 평가를 하여 이론 중심 전공 교양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어 흥미 유발
- 학점에 부담이 없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다 -> 한 학기에 적으면 1-2과목, 많으면 7개의 전공까지 듣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동시에 채우려다보니까 교양도 할 수 없이 많이 듣게 되는데 정작 많이 공부해야할 과목에 시간투자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은 최대한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기존보다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 교양 과목의 다양성을 즐기기 위해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
- 시험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시스템의 도입
- 개인 평가 점수와 평균 등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음.
- 평가방법은 교양과목인 만큼 고정된 비율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수재량에 맞게 점수를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함.
- 교양 수업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교수의 역량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과제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으로만 이루어졌으면 함 1-2개가 적당
- 기존보다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3. P/F로 변경 5.3%

- 평가 방법은 시험대신 과제대체, 성적산출은 P/F 로 하면 학생들이 성적에 부담 갖지 않고 흥미있게 수업을 들을 것이라 예상
- 성적을 나누는 건 전공학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교양 과목은 p/np로 바꾸면 좋을 거 같다.
- 평가는 P/F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론 수업만 하기 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거나 실습을 하여 재밌게 참여하고 싶다.
- 교양의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보단 P/F 방식으로 해서 교양과목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으면 좋겠다.
- P/F 형식의 교양 증설
- 교양과목의 경우, 평가방식이 P/F이며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 Pass or Fail 형식의 교양 형식을 통해 교양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자
- P/F 형식의 교양 증설
- P/F 수업을 더 많이 개설
- P/F 과목을 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하지만 단순 P/F 과목은 수업 참여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강의마다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 수업 참여도를 높임(케이묵 강의에도 매번 퀴즈를 내고 있음)
- 예체능 교양과 인터넷등의 과목은 패스 과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 전공과목 이외의 교양강좌인 만큼 P/F 평가로 학점에 대한 부담을 낮춰 다양한 학년의 수강을 도모
- 모두 패스와 논패스형태로 바꾸어서 성적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양과목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P/F 형식의 교양 증설
- 필수교양을 제외한 모든 교양은 평가방식을 P/F 과목으로 바꾸며 중간과 기말고사도 없애고 수업방식은 발표와 토론과 같은 팀플레이 위주로 개편하면 좋을 것 같다.
- P/F 형식의 교양 증설
- 전공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 시험 대신 (Pass , 퀴즈로 대체 과목들이 늘 필요가 있음
- 시험 부담이 적은 강의는 학생들이 더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음
- 시험에 의존하지 않아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음
- 여타 K-MOOK 강좌들처럼 교양강좌들도 패스/논패스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으로 관심있는 교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교양과목에서만큼이라도 패논패 과목을 늘렸으면 좋겠다.
- 패스과목의 수강학점이 늘면 좋겠다.
- 교양과목을 단지 학점을 올리기 위해 듣는 경우도 많기에 교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 같다. P/F과목으로 개설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마음 놓고 좋아하는 교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 성적은 P/F나 절대평가로 산출한다.
- P/F 형식의 수업의 수 높이기
- P/F 형식의 교양 증설
- 출석/과제/시험 등 적절한 비율로 평가해야 함.
- P/F 형식의 교양 증설

4. 다양한 평가 방식 필요 4.8%

- 실습 시험, 발표를 통한 평가
- 조원평가는 정말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조별과제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함. 기업 자기소개서에서도 협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글 작성의 경우 표절율을 정확히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도와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장기적인 학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글 작성의 경우 표절율을 정확히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도와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장기적인

4. 다양한 평가 방식 필요 4.8%

학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부 교양 수업들은 시험문제가 매번 유사하여 소위 '족보'라는 것의 매매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터넷강의인 교양 수업들은 시험 시 컨닝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시간에 비해 문제를 터무니 없이 많이 내는 스피드퀴즈형 출제 유형의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 이론만을 줄줄 외우고, 그에 따라 시험을 치고 그 성적을 매기는 강의는 적절한 교양과목의 의의가 아니기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시험 외의 개별 보고서 등을 통한 주제 탐구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함
- 오로지 교수의 주관이 담긴 평가 방식 보다는 색다른 평가 방식
-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기 위하여 학점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것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든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성 등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패스 과목으로, 성적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를 알려줌으로써 그 자세로 운동하고 자신의 역량에 있어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평가 방법으로 출석과 태도점수를 메김.
- 문화의 흥행과 관련된 이해도가 따른 평가가 생겼으면 함.
-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싫어하다 보니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과제와 시험을 평가했으면 함. 또한, 시험 문제의 경우도 수업시간의 개념을 적용해서 본인의 예시를 들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면 좋겠음.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교양에서 배운 것에 대해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 가능한 평가 기준이 필요.
- 조별 과제를 기반으로 한 출석 및 팀워크 부분을 평가, 추가로 중간, 기말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 제안.
- 영상이나 자료를 통한 수업 후, 학생들끼리 토의 후, 아이디어에 대한 한 가지 결과물을 만든 보고서 제출로 평가
-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는 실습 수업 진행하고 실습을 바탕으로 평가
- 시험에 치우쳐진 강좌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수업 평가방식이면 좋겠다.
- 몸소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의 평가
- 교양 과목 평가에 있어 중간, 기말을 시험으로 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이 교양 지식을 이해하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
- 평가 방법을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음
- 자격증과 연관된 수업을 하며 평가 방법을 학기 내에 자격증을 따는 방식으로 P/F로 수업을 평가했으면 좋겠음.
- 교양강좌 운영 중 관련 여러 공모전을 여는 것으로 수업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5. 시험보다는 과제로 평가 4.8%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큰 비중을 주지 않고 과제나 활동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간,기말시험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과제대체나 퀴즈성적반영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학교의 평가방식은 대부분 중간,기말고사로만 거의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과제를 통해 최소한의 학점을 보장하도록 평가 진행
- 자율주행자동차, 코딩과 회로를 배우는 과목은 시험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과제위주의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다.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평가 방법에서 과제 참여의 점수 비중이 늘었으면 좋겠음
- 시험에 구애 받기보다 과제형 평가방식이 좋을 것 같음

5. 시험보다는 과제로 평가 4.8%

- 다양한 팀플과 같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과제를 하고 과제로 시험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 시험성적만을 통해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평가계획서에 따라 과제점수나 출석점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적산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전공과목에 더 열중할 수 있게 교양 수업 중 대체 과제를 내주는 수업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음. 그렇게 되면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단순히 이론을 듣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 대체 과제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형식이 늘어났으면 한다.
- 학업성취도 보다 성실도나 보고서 위주로 평가하면 좋을 거 같음.
-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평가 방법을 도입합니다.
- 중간은 과제대체 기말은 시험인 방식
- 시험보다는 과제로 대체하는 것이 교양 과목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시험에 치중되어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닌 수업
- 시험보다는 학생들의 과제 제출을 성적 반영의 우선 순위로 두는 것(시험 대신 과제 제출을 하는 식으로 성적을 매겨 교양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시험 대신 과제 출제
-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 유도 (팀플) 및 중간, 기말 중 한 번은 과제로 대체해준다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평가기준에 중간, 기말시험의 비중만 높이는 게 아니라 토론, 팀별활동 수행이나 실습 과제의 비중을 늘린다.
- 교양 교육에서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경쟁에 기반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습형 수업이나 과제 중심형 수업으로 교양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과정 중심/수업 참여도 등 평가 3.8%

- 실습과 관찰을 통한 보고서의 형태가 암기 위주의 중간,기말 시험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의 형태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쓰는 형태의 보고서가 아닌 관찰과 실습을 통한 보고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암기 과목이 아닌 실험, 프로젝트를 통한 평가 위주 강좌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말하여 토론과 같은 강좌
- 시험보다 과제나 수업활동 평가를 기준으로 책정
- 팀 프로젝트를 줄이고, 수업 태도 및 출석 점수 강화. 팀 프로젝트를 줄이는 대신 개인 보고서 제출하면 부담이 줄어들 것임,
- 시험과 과제에 점수를 부과하기보다, 수업 태도와 출결에 점수를 부과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고 수업 참여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험보다는 실습 위주의 평가를 진행 필요
- 과제나 시험에 대해 평가를 할 경우, 표절율 %를 제한하여 과제제출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닌 과제 수행에 의미를 두도록 한다.
- 교양강좌인 만큼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습, 수행 등의 비중 늘리는 방안
- 2번의 시험(중간/기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보다는 과정형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와 단계적 성장(발전가능성)을 평가 (점수만 무작정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서 비교함)
-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ex.발표가산점)
-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발표가 평가 기준의 주를 이루었으면 함
-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발표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토대로 평가
- 한 학기에 한두번의 평가가 아닌 평소의 성실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제물 제출 등의 평가 기준
-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수업
- 단합력, 경쟁력, 협동심을 평가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6. 과정 중심/수업 참여도 등 평가 3.8%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글 작성의 경우 표절율을 정확히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도와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장기적인 학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태도 점수를 강화하고 강의 특성에 따른 과제물 평가 방식을 부여해야 함.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글 작성의 경우 표절율을 정확히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도와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장기적인 학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7. 부정행위 개선 1.5%

- 학문적 정직성 강조: 학문적 정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합니다.
- 인터넷으로 시험을 칠 시 컨닝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면으로 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과목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
- 강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되,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하여 시험에 있어 형평성 유지 필요.
- 객관식 답변 제출이 아닌 서술형 답변 제출을 할 수 있는 수업
- 출석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출튀하는 사람들의 엄격한 관리 필요
- 출석을 평가에 반영하는 수업이 많은데,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문 밖에서 출석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과 출석 후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양의 경우 시험이 매년 같은, 비슷한 문제로 이루어지다보니 흔히 말하는 '족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 상실되어가는 듯함.

8. 절대평가로 진행 1.5%

- 선택 교양 선에선 낮은 진입장벽과 접근성, 학생 의사 변화을 위해 상대평가보단 절대평가방식 교양 확장
- 절대평가의 시험 채점기준으로 통일하여 학생들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절대평가인 교양수업을 들어 성적에 부담을 덜 가지고 싶다.
-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완화
-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 방식과 같이 성적 분포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 부여가 되는 운영 방식을 택한다면 부담감이 줄어 해결될 듯함.
- 논술의 경우 절대평가 방법 선택
- 절대평가 기준을 높이기
- 절대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줄이고 본인의 관심사에 맞게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함.

9. 팀플레이 비중 낮추고, 개인 평가 비중 높임 1.3%

- 혼자서 자료를 찾아보고 수업의 강의 노트를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조별과제에서 역할분배를 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한다.
- 개인마다 예술성 창의성 등을 평가.
- 평가단계에서 작품성과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팀플이나 조별과제의 비율이 적은 수업
- 조별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강의 지양(개인이 혼자 이행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 등)
- 수업 방식이 팀플 없이 강의식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 한명 한명의 역량을 파악 할 수 있는 평가가 있으면 좋겠음

10. 서술형/소논문 방식 선호 1.1%

- 특강 방식으로 수업 후 소감문 제출방식 고려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학생들이 교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글쓰기 방식 늘리기
-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서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양지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지나친 상대평가의 시험은 학과 이외의 학문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시험보다 수업에 대한 감상 및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 시험을 친다면 객관식보다는 학생의 사고를 요하는 논술형이나 서술형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 에세이 제출 등 학생들이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1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1.1%

- 토론과 토의에 대한 점수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 순으로 성적을 평가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양 과제가 그 내용 자체보다 수업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제가 많았으면 좋겠다.
- 강의평가, 모니터링단 진행의 설문조사 등 학생들이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음.
-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신 과제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과제 대체 시험이 진행되었으면 함.
- 실기를 통한 평가방식을 고려했으면 함.
- 조를 정하여 자유롭게 말하는 수업방식

12. 평가 기준 강화 1.0%

- 인기있는 강의인 경우 성적을 잘 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엄격하게 변경
- 창의적인 학습 환경에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짐
- 토론, 발표, 에세이 등 과제 점수 비율을 높여 시험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성적에 대한 비율도 조금 더 유하게 해도 될 것 같다.
- 최소한의 부담과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계획서를 직접 써본다거나 간단한 퀴즈+정기고사 1회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다.

13. 출결 비중 강화 0.8%

- 평가 시 출석에 비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다음 수업에 차질이 생겨 힘들기 때문이다.
-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도 출석이나 활동 점수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주었으면 좋겠다.
- 많은 학생이 수강하다 보니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시험이나 과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출석에 관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
- 많은 학생이 수강하다 보니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식은 지금과 동일하게 시험이나 과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출석에 관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
- 전공이 아닌 만큼 지필고사가 차지하는 성적 비중을 낮추고 수업 참여나 출석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함.

14. 상대평가로 진행 0.2%

- 조를 편성하여 가장 우수한 조의 조원들한테 점수 부여.

3) 강좌/증원

1.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 5.2%

- 교양수업의 소양은 이 수업을 통해 얼마나 학생들이 알아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 학과에 관련된 강사나 현직자분들을 초청하여 실용적인 취업 준비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대한 과제를 내 평가를 한다.
- 정말 본인이 관심있고 흥미있는 것에 대해 배워보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또한 꿈에 관련된 수업이라면 정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은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바탕으로 트랜드를 분석해 교양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 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과 관련된 교양이 생긴다면, 이런 분야의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양으로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것.
- 요즘 취업 입결이 많이 높아져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취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내용도 가르침
- 현실과의 관련성이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세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실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양 필요
- 공무원 시험 등 시험대비 수업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 관련 강의가 현장 강의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음
- 자신이 생각하기에 추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양 수업이라면 그 수업은 학생 입장에서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 대학생이 관심이 많을 분야로 현실에 대입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수업
- 해당 분야에 대해 작은 호기심이라도 있는 학생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과목
-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 교양적 지식을 많이 얻거나 수업을 통해 추후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
- 전공에서보다 더 가볍게 우리 생활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
- 교양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되거나 학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강좌.
-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인물을 설문 조사해 특강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
- 매주 새로운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시각의 접근하는 수업 방식. 이런 특징의 수업을 수강했었는데 집중도 잘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런 방식의 수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양강좌 중 외국어(영어) 수업이 필수적으로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용시킬만한 회화 영어로써의 힘은 없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실생활에 응용할수 있는 강의로 변화하기를 바람.
- 교양필수 같은 경우, 관심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들어야 함.
- 이런 경우,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더욱 낮은데 이를 바탕으로 성적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느낌.
- 현장실습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실무적인 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실무 경험을 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실습지를 확보해야 한다.
- 학점채우기식 수업이 아닌 질 좋은 수업
- 배운것들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

2. 수강인원 확대 2.1%

- 인기있는 수업의 통계를 통한 인원증설
-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개설강좌 수 관리
- 인기 많은 교수님 혹은 강좌에 많은 학생 몰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수 명을 가리고 수업계획서의 구체화를 통해 수강 꾸러미 및 수강신청을 하게 합니다.
- 인기있는 수업의 통계를 통한 인원증설
- 또한 수강신청 전 과목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인기가 많은 과목은 수용인원을 늘리는 등 조치가 필요함
- 꾸준히 인기가 많은 과목들은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비해 수강 인원수가 적다. 이러한 과목들을 조사해 수강 인원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
- 강의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 차이가 큰데 인기 있는 수업의 정원을 더 늘리거나 시간대를 나눠 수업을 진행해 많은 학생들이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을 조사하여, 해당 수업들의 여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부터 선호도가 높은 과목의 여석을 늘려놓으면,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정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인기 있는 수업의 여석 증대
- 인기있는 수업의 통계를 통한 인원증설

3. 새로운 과목 신설 1.3%

- 현재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주제여야된다고 생각한다
- 음식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고 관련된 향신료 등에 관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이공계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예체능 분야의 선택 가능한 필수교양 개설하고 이를 세부적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합니다.
- 듣고 싶은 과목을 영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투표하게 하여 신규 강좌 개설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강의가 다양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수강 신청이 한 과목으로 몰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교내 동식물 촬영 후 동정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생겼으면 함.
- 자격증이나 국가시험 교양 수업이 개설된다면, 학점평가를 중간과 기말 모의고사로 운영하고 몇몇 가의 공급 기관과 제휴를 맺어 외부 강사들 (‘고시닷컴’이나 ‘한림법학원’)의 강의를 가져와서 공급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함. (영남대학교는 학생의 규모가 큰 편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함.) 또한, 이런 시험들은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우리 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수님이 계시므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음.
- 전공생이 덜 몰리는 완화된 과목이 많이 열리면 좋겠다.

4. 온라인 강의 확대 0.8%

- 인터넷 강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 인터넷 신청가능 학점이 늘면 좋겠다
- 인터넷 강의수강학점이 늘면 좋겠다.
- 전공수업과 시간표가 겹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교양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함

5. 1~2학점 0.8%

- 3학점의 교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학점의 수업을 늘리면 시간표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1학점짜리 비대면 과목을 늘렸으면 좋겠다.(부담되지 않는 교양과목으로)
- 전공과 겹치는 교양수업이 많아서 불편하다.

5. 1~2학점 0.8%

-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2학점 교양 증설

4) 기타

1. 현행에 만족함/기타 20.2%

- 교양필수과목이 있는데 기계공학부 특성상 과목이 제한되어 다양한 교양을 듣기 힘듦.
- 지금 교양 운영방식에 만족함
- 수업계획서, 평가방법 좋다고 생각함
- 족보에 영향을 받지않는 교양강좌였으면 좋겠다. 매학기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진정으로 교양을 공부한 학생을 구별하기 위한 문제로 구성
- 전공과 관련된 교양을 들어서 흔히 말하는 '양민학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과목과 전공 내용이 겹치는 재학생들은 과목 내 수강을 제한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운영방식은 현상유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형법개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 20학점인 최대학점을 듣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 2학점 과목이 필요하지만, 그 수가 적어 수강 경쟁도 많이 일어남. 고로 1, 2학점 과목을 개설하거나 여석을 만들어 수강인원을 늘이면 위와 같은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교양 필수 과목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같은 과목, 다른 시간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시간표 제작에 자유를 제공 블렌디드 강의 형식으로 변경된다면 주에 한번 현장 강의를 들으므로 시간표를 짜는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수강 꾸러미를 통해 인기 강좌 수를 파악 후,해당 과목을 "블렌디드 강의"로 변경함 (EX: 월, 수 시간표에 강의 최대 인원 100명이라면, 강의 시간표(월, 수)는 같되, 강의 과정을 촬영하여
- 월요일에 수업, A그룹 100명, 수요일 ZOOM(혹은 촬영), 수요일에 수업, B그룹 100명, 월요일 ZOOM으로 진행)
- 그렇다면 최대 인원이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음.
- 도시공학과 교수님 인력 충원 :다른 학과 교수님들은 교양강의도 진행하시는 반면 도시공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인력이 부족해 전공과목만 맡으셔도 시간이 부족함 충원 시, 도시공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강의(도시로 보는 경제학, 도시와 환경의 이해, 도시 재생의 방향성 등)가 개설되어 수강 신청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대다수 교양 과목의 전년도 시험 문제와 정답들이 돌아다녀서 강의 수강 완료로의 출석 인정과 객관식 유형의 시험 문제들에 의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참여형 수업방식과 모든 교양수업에서 평가 후 점수 공개가 필요하다
- 너무 많은 팀 과제와 토론 과제는 자제할 필요
- 시험 족보를 사도 쓸모 없도록 문제를 매년 바꿨으면 좋겠음
-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기 있는 과목을 현재보다 더 많이 개설하도록 한다.
- 평가 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A,B,C 주는 기준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여기서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A+, B+, C+을 주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단순히 시험, 인터넷 서칭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레포트 같은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주제로 글쓰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 인기 있는 수업의 통계를 통한 인원증설
- 설문조사 및 매 학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보고 인원 제한 개선하기
- 비대면 강좌 늘리기
- 다른 전공과목과는 좀 더 차별을 두어 시간을 짧게 하는 수업을 개설한다. 부담이 덜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므로 학습의 효율이 커진다.
- 모든 과목의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1. 현행에 만족함/기타 20.2%

- 과제가 많거나 과제 중심의 교양 과목들은 과제의 성적이나 석차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명확한 목표 제시,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
- 체육과 같은 교양 강의가 많이 생긴다면 교양 수업을 통하여 기초 체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현재 체육과 관련된 강의는 사회체육, 생활체육뿐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도 적으므로 듣고 싶지만 못 듣는 학생이 대다수이다. 여러 개의 강의를 개설해주었으면 좋겠다.
- 전공에 크게 관련 없는 과목은 필수 교양 목록에서 빼고 선택 교양으로 바꿔서 듣고 싶은 사람 우선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 매주 다 다른 새로운 활동을 한다.
- 평가 피드백을 충분하게 줘야 함.
- 성적을 낼 때 시험 세부 성적점수를 상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 중간, 기말 이후 학생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 하면 좋겠다.
-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있어 많이 불편을 느낄 사항만 없으면 기존 교수님의 재량대로 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중간고사는 강의식 수업으로 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토대로 시험을 친 후, 자신의 전공 또는 가르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준비하여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한다
- 여러 주제의 수업
- 대학마다 전공 전에 들으면 좋은 강의들이 있고 그것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중간, 기말은 레포트 작성, 그리고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과제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ex 영화 보기, 전시회 가기, 연극 보기, 피크닉 가기 등 사람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임. 평가 방법은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관계 발전을 더 했느냐가 됐으면 좋겠다.
-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교양
-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업
- 수업내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잘 아는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
- 학생들한테 수업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
- 1. 교수자의 역량 강화: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수자는 학생과의 열린 소통, 흥미로운 강의, 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2. 다양성 존중과 포용: 학문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포용합니다. 강좌 내에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경에서의 의견을 나누도록 장려합니다.
-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도 진행해 주시면 앞으로 있을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업계획서에 적힌 평가 방식이 아닌 수업 분위기와 사적인 것을 성적 평가에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다. 물론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기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게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최대한 계획서에 적힌 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일부 교양과목의 경우 성적을 확인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데 자유로운 성적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암기식 교양 과목 지양함.
- 일주일에 하루는 명상이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나 설문지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보고 싶음.
- 가끔 몇몇 과목들을 보면 특정 시험(ex.기말시험)의 비율이 높게(40% 정도) 반영되는데 다른 평가 비율과 적절히 퍼센트가 나뉘어졌으면 좋겠음
- 시험에 대해 평가할 때, 글 작성의 경우 표절율을 정확히 평가하고 학생의 참여도와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장기적인 학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이론 수업보다는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주제로는 경영, 삶, 사회과학, 법 등이 될 수 있음.
-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토론 수업의 방식보다는 수업시간에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수업, 편견 없고 사고가 유연한 교수님, 교수님 본인의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등의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1~2학년은 진로 선택, 기회, 스펙을 갖추기 위한 수업, 3~4학년은 전문적인 자격증, 취업 상담 등을 적극적 지원하며 전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가벼운 평가 체제
- 좋은 교양 수업이라 함이라면, 그 교양 수업시간을 기다려지고, 시험에도 무엇인가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1. 현행에 만족함/기타 20.2%

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쓰고 진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을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수강신청을 예약신청 방식으로 바꾸고싶다.
- 시험 비중 점수가 높다고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과제 대체를 하기에는 원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개편할 부분은 없는 듯함.
- 교양 수업을 모듈화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와 분야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경로를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양교육 수업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 대체로 만족
- 자율성의 유무
- 현재 운영방식에 만족함
- 12명
- 14명
- 14명
- 수업계획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혹여나 달라졌다면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실시간으로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인기있는 수업의 통계를 통한 인원증설
-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등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를 공개를 원함.
- 교양 지식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실기 + 간단한 객관식을 포함한 시험 문제
- 매주 다양한 활동
- 1학기에 기초, 2학기에 심화
- 교양교육의 참여도 향상
-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 함양
- 운영방식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였다.
- 중간과 기말의 비율을 동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 면접을 봐야함. 스피치 학원에서 따로 배우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교양과목에서 언어의 중요성, 일상생활에서 대화할때의 기술, 면접에서의 자세와 스킬 등에 대해 배우며 취업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음. 평가는 1분 자기소개를 담은 영상을 제출하는 과제로 하면 좋겠음.
- 현재 시행하고있는 운영방식 유지

4. 교양강좌 평가 기준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소통 및 상호작용 활발/ 학생 참여가 높은 수업 13.9%

- 수업참여도, 개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계획서 작성
- 주체적인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수업
-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는 수업
- 학생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수업.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얼마나 생각해주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발표형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가 적용되면 좋겠다
- 학생과 소통을 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
-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접근하기 쉬운 주제로 레포트 작성하는 수업
- 조를 짜서 토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에게 점수를 더 부여하는 강의
- 양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정답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강의형 수업을 선호
- 연설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
-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수업 (예)수업 후 과제를 내어 이해도 확인)
-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수업
-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가하는 형태
- 문제 풀이등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목
-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에 접근 및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강의
- 실기, 수업 참여도의 부분에서 평가 비중이 높은 강의
- 내가 그 교양 수업을 듣고 그 교양 수업의 주제에 대해 아는 것, 기억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등이 늘어난 경우 그 교양 수업에 대해 좋다고 생각함. 이는 보통 정보전달만 하는 수업보단 참여형 수업에서 더 잘 늘기 때문에 참여형 수업을 선호함.
-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강의
- 기존의 수직적인 방식에서 상호작용방식으로 하는 수업이 좋을 것 같음
-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수업
-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 수업방식에 있어서 피피티만 읽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문답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끼리의 의견교환이 자유로운 교양이 좋다고 생각한다.
- 그저 교수님이 설명만 하시는 수업형식이 아닌 학생들끼리 많은 얘기를 해 보고 의견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을 얻어가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개별 참여도가 높은 수업
-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교양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수업을 잘 들은 사람만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한다.
- 성적을 평가할 때에 수업 중 발표, 활동성, 수업 참여도, 출석 부분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

1. 소통 및 상호작용 활발/ 학생 참여가 높은 수업 13.9%

- 학생의 참여와 평가: 학생들의 참여와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퀴즈, 토론, 프로젝트, 논문, 시험 및 기타 학습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ex.토론, 발표 수업 등)
- 교양 수업은 학생 참여형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함. 조별 과제는 힘들지만, 다르게 보면, 교양 수업 때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참여도 높은 수업방식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양인지가 평가 기준임.
- 교수님과의 접근성이 높은 교양이 좋은 교양 수업의 기본이라 생각함.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업 관련 문제 사항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임.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
- 소통이 잘 되는 교수님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
- 교수님과 학생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
-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수용하는 수업
-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방식
- 강의식보다는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강의
- 학생과 의사소통이 원만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수업
- 학생의 참여, 토론, 새로운 아이디어 등으로 학생의 집중도가 높은 수업
- 단순히 교수자가 강의하고 학생이 듣는 수업이 아닌, 과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 학문에 대해 사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및 토의 수업과 과제를 통해 학생들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수업)
- 다양한 학과의 학생이 듣기 때문에 담당교수님(혹은 조교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특정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료를 만든다거나 발표를 하는 등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는 수업)
-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
-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가
- 강의식이 아닌 학생 중심형 수업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
- 학생이 수업 중 간단한 질의를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수업 위주가 아닌 조원들과 토론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평가방법과 병행하는 수업이 필요함.
- 학생 주도적 강의 여부
- 교수자와의 소통
- 교수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강의
- 교수님과 수강생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평가
-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강의자료를 읽기만 하는 수업은 지양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선호한다.
- 교수님의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
- 수업 시간 중 발표, 쪽지 시험, 과제물 등에서 교수가 제시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지
-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양이 좋은 교양인거 같다.
- 실제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얻어가는 지식들이 얼마나 되는가

1. 소통 및 상호작용 활발/ 학생 참여가 높은 수업 13.9%

- 교양을 들은 뒤에 그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영향을 주며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이 될 수 있냐에 따라 좋았다 무난했다 별로 였다가 나뉜 것 같다.
- 교양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업이 좋은 교양인거 같다.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의
- 시험을 치고 평가방식과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 방식이 좋은교양 수업이라 생각한다.
- 읽기 위주의 강의가 아닌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교양을 듣고 이후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양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 생각한다.

2. 내적 성장/ 유익함/ 지식습득/ 기억, 여운이 남는 수업 9.8%

- 수강하고 난 뒤 남는 게 있다고 느끼는 수업
- 자신의 생각, 생활이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얼마나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성장해나갈 수 있는 수업
- 온전히 교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수업
- 학점보다는 배움에 의미를 두는 수업
- 수업이 끝난 후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
- 이 과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점이 명확한가
- 배우고 난 후 머리에 남는게 있는가
- 종강 후에도 기억에 남고 미래에 자신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지속적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의
- 나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강의
- 교수자의 교수법이 자신과 맞고, 그 내용이 관심사와 일치하거나 유익하다고 여겨지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다.
-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성적을 떠나서 자신이 얻은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강의인 것 같다.
- 좋은 교양 수업은 당연한 말이지만 얻어 가는 게 있고, 가슴속에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전공과는 다르게 힐링이 되며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강의
-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후회가 없고,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강의
- 시간이 허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강의
-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 한 후, 머릿속에 배운 것들이 남아있고 그 남은 지식들을 실생활에 가지고와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시험을 바쁘게 준비함이 아니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축적하고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 단기성 암기 외에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는 교양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 교양 수업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듣는 것뿐 만이 아니라, 수업을 들음으로써 뭐라도 하나 얻어가는 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수업 후에 기억에 남는 게 많은 수업, 깨달음을 주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
- 기억에 남고, 딱딱한 형식이 아니었음 좋겠음
- 흥미를 느끼도록 풀어나가는 수업방식이 좋음
- 강의자료를 그대로 읽기만 하시는 수업방식이 아니면 좋겠음

2. 내적 성장/ 유익함/ 지식습득/ 기억, 여운이 남는 수업 9.8%

-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하는 강의
-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강의
- 수업 종료 시, 교수님의 지도 방식과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강의
- 전공과목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실용적인 내용의 강의
- 학기가 끝난 후 인상 깊고,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 강의
-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고정관념을 깨게 해주는 수업
-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수업
-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수업을 제공하는지, 얼마나 몰입감 높은 수업인지
-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과목
- 실생활과 연관이 있어 정보가 유익한 수업, 현재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업,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
-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에 맞는 암기형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주제들로 수업을 하거나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 같다.
- 학습자의 흥미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업, 또는 학습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면의 시각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시야를 넓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 수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사고가 어떻게 변화했고, 무엇을 배웠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 학생이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수업
-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얻고 탐구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수업
-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수업
- 자립심을 길러주는 수업
-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수업
-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가
-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
- 전공과 유용하게 관련 지을 수 있을지
-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
- 학생의 삶이나 마인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업 혹은 겉핥기 식이 아닌 해당 교양 과목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교양과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의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응용해 성취감이 드는 수업
- 저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내리기 위한 배경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 졸업필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 들을 수 있는 과목들(언어관련과목, 발표수업 등)
-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배워가며 얻어가는 것이 있는 수업
-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수업

3. 교양 수준의 수업/ 과제, 수업 부담 적은 수업 8.9%

- 매 주 나오는 과제의 성실도, 중간 및 기말시험 대체 자소서 2개 등 p/f 형식 수업
- 어렵지 않고 딱 교양과목 수준의 강의
- 시험보다는 과제대체를 하는 과목이 좋은 과목이라 생각한다. 시험보다는 보고서 쓰기와 같은 과제 대체 방식이 요즘

3. 교양 수준의 수업/ 과제, 수업 부담 적은 수업 8.9%

학생들이 부족한 글쓰기나 말하기 실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누구나 쉽다고 느끼는 접근성 좋은 주제면 좋겠다.
- 전공보다 비교적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교양으로, 전공 수업에 비해 적은 시간 비중, 부담감(과제, 시험 등)
- 전공 공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교양
- 교양은 말 그대로 '교양'이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교양은 전공보다 심화된 과정이 아닐뿐더러 얕은 지식을 배우므로 학생이 그 지식을 배움으로서 얻게 될 폭 넓은 시야가 가장 중요하다. 교양 강좌에서는 더욱이 '성실성'을 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교양다운 교양이어야함. 전공수업처럼 모든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타이핑하는 것이 아닌 가볍게 들으면서 시험기간에만 공부하는 수업이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 진정한 교양으로써 이론적인 시험 출제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평가형태
- 어렵지 않고 접근이 쉬운 과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전공수업처럼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난이도를 조성함으로써 본인이 전공과 관련 된 과목이 아닌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교양인 만큼 너무 심도 있는 주제보단 실생활과 밀접한 적당히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좋은 교양강좌라고 생각한다.
- 그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의 난이도와 '교양' 과목인 만큼 얕고 넓게 다루는 수업방식 등이 필요하다
- 수업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교양과 상식도 채우며 수업시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이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질의 정보, 적당한 양과 속도의 진도, 학생의 수업 참여 정도를 고려
- 전공에 비해 부담 없이 수강 가능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너무 적극적인 팀플과 토론의 경우 전공보다 시간과 집중을 해야하기에 지양
- 교양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가
- 전공 과목 수강에 여파가 없는 과목
- 주전공 공부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며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교양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심화적인 내용보단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교양.
- 전공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난이도의 강의
-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며 전공 수준 이하의 난이도로 가볍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
- 너무 깊고 어려운 내용이나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는 수업, 그리고 과제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적은 수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 전공 수업처럼 너무 복잡하거나 많은 과제가 아닌 수업
- 수업, 시험, 과제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교양임.
- 과제가 많지 않고,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
- 과제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업
- 전공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재미있는 수업
- 수업이 재미있고, 내용이 많지 않거나 어렵지 않은 강의
- '교양은 교양 답게' 라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함.
- 보통 교양 수업은 자신의 전공 지식수준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깊지 않은 내용 선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 전공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적당한 난이도와 과제, 분량의 수업
- 비전공자에게도 부담되지 않는 내용과 양으로 진행되는 수업
- 전공과목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강할 수 있는 내용의 강의
- 너무 어렵지 않고 전공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
- 교양 쉽게 함양

3. 교양 수준의 수업/ 과제, 수업 부담 적은 수업 8.9%

- 다른 수업에 비해 좋은 성적을 얻기 쉬움
- 수업 난이도의 적절성
- 전공과 달리 맘 편히 들을 수 있는 수업
- 팀플이 적은 수업
- 과제가 부담되는 정도인가
- 교양 수업에 맞는 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분의 특강이 이루어졌으면 함.
- 지엽적이지 않은, 부담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영상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수업이 필요함.
- 과제의 양이 많지 않고, 강의 시간이 길지 않은 강의 주제는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도움이 될지를 보고 정한다.
- 학생이 수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과제나 시험에 너무 치중한 수업이 아닌 교양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수업이 좋은 교양수업이라 생각함.

4. 흥미로운 주제/공감할 수 있는 주제 8.5%

- 필수라서 듣는 것이 아닌 각자가 원해서 듣는 교양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 생각함.
-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흥미를 느끼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
- 전공과 관련 없지만 흥미있는 분야를 배워볼 수 있는 교양.
-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주제.
- 자신의 관심분야 강의
- 주제는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와 관련된 주제의 교양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방식은 동영상 자료가 많이 사용되어 시청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뇌리에 박힐만한 수업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 가볍게 들을 수 있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닿을 수 있는 수업.
- 뉴스를 보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많지만,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우리의 미래도 예측하며 큰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역사와 현재 사회 이슈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양이 운영
- 흥미롭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는 교양 수업
-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교양수업을 한다면 그것이 호기심을 발생시키고, 호기심을 배움으로 전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양수업입니다.
-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지 않고, 수업에 흥미를 적절히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심사와 맞는 수업이 필요
- 자신의 취미와 부합한 교양 과목
- 수업 주제가 흥미로운 강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을 주제로 진행)
- 무엇보다 흥미로운 주제이면 좋을 듯 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싶어 할 수업이라면 좋은 교양이 될 수 있을 듯하다.
- 전공에 흥미를 불어넣을 정도의 교양도 좋은 교양이라 생각한다.
- 수업은 수강하는 학생 본인이 가진 생각과 수업 내용에 공통점이 생길 수 있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함.
-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과목 개설을 원함.
- 흥미로운 주제
- 수강하는 학생이 관심을 가진 주제의 교양인지
- 본인이 듣고 싶은 주제
- 흥미로운 주제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수업임.
- 재미있고 유용한 수업

4. 흥미로운 주제/공감할 수 있는 주제 8.5%

- 전공에서 벗어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 수업을 들었을 때 흥미가 생기는 교양
- 알고 있으면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는 게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관심 및 흥미로운 수업
-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같이 비판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 수업 방식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방식인가
- 다른 곳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주제로 수업을 하는가
- 자신의 관심분야가 반영된 수업
- 자유로운 수업분위기의 조성과 학생들의 많은 열의, 창의적인 주제의 신선도가 요구됨.
- 적절한 난이도로 흥미를 이끌어낼만한 수업
- 흥미로운 수업 주제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와 기초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의 강의
- 학생들은 수업 주제가 자신의 관심을 자극하고 흥미롭게 느껴야한다.
- 철학적인 주제가 아닌 학생들이 실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를 수업의 주제로 두는 것입니다.
- 주제가 다양하고 많은 것을 새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학점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흥미가 생길만한 수업이 좋은 교양인거 같다.
- 흥미로운 주제와 다양한 관점을 다루거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일수록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 학생들의 관심,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인가
- 강의 주제가 학생의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현재 사회 이슈에 관련이 있는 경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 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며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교육
- 교양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중요 요소라고 생각됨.
- 강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듣기에 흥미로운 내용이어야 함
- 관심분야가 겹치는 교양

5.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수업 6.9%

- 실생활과 관련된 수업,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교양 수업
- 흥미롭고 앞으로의 커리어나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양
- 실용적인 수업,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수업
- 실생활에 유익한 주제인지
- 수강 이후에도, 계속 앞으로의 미래 삶에 도움이 되는 교양 수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 등 일회성 강좌가 아닌 수업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관심 있고 도움이 될만한 주제,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노화되지 않은 수업 방식과 정당한 학점 부여.
-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의
- 졸업 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강의
- 수업 이후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되거나 과제해결력 향상이 되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인 것 같음
-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인 것 같음
- 수업 내용이 진실로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식인지
- 단지 수업 자료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는지 등 현실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는 강의

5.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수업 6.9%

- 좋은 교양 수업은 자신의 취미를 찾거나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 생각함.
-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에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임.
- 살아가는데 알면 도움이 되는 수업을 원함.
- 수업 방식 진행과 얼마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임.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좋은 교양임. (주식, 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교양)
- 졸업 후에도 활용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업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
- 학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수업 이후에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깊이 배울 수 있는 수업방식.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함.
- 실생활 혹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유무 또한 중요함.
- 내 전공을 제외한 분야를 교양으로 배워뒀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일상 속에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수업
-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에 맞는 암기형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주제들로 수업을 하거나 사고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인 것 같다.
- 수업 내용의 일상생활 적용 유무
-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
- 현대사회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가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
-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다
- 실용성이 있는 과목, 혹은 학생이 학점을 위해서가 아닌 배우고 싶어서 수강하는 과목이여야한다.
-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
- 교양 수업의 내용이 이론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실생활이나 일상 생활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는지
-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
-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지식 등을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양
- 수업성적의 기준이 이론적인 지식을 누가 더 외우고 암기하냐 보다는 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되었으면 좋겠음.
- 교양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수업이 실용적이며 삶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음
-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꼭 필요한 내용
-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 다양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6. 성적 평가에 부담없는 수업 6.9%

-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교양 자체를 즐기고 얻어갈 게 많으면 좋을거 같다.
- 보고서나 자신의 생각하는 그 과목에 대한 소견을 적고 성적을 위해서는 중간 기말 과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 교양수업인 만큼 흥미로운 분야를 편하게 공부해볼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 학점에도 큰 부담 없는 교양강좌
- 시험이 아닌 다른 평가 방법을 통한 학점 분배
-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시험 출제 방식으로 학생들이 만든 문제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님께서 알맞은 난이도의 시험 문제 출제하여 평가
- 절대평가를 통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정말 1학기동안 배워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
- 절대평가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대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6. 성적 평가에 부담없는 수업 6.9%

- 학점에도 큰 부담 없는 교양강좌
- 평가에 집중된 수업보다 교양인 만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의
- 전공이 아닌 교양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전공보다는 덜 까다롭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제의 기준, 성적 배분 비율 등.
- 적절한 수준의 시험과 평가가 필요하다.
- 시험이 쉽거나 평가가 널널한 과목으로 한다.
- 온라인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 비전공자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쉽고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와 시험
- 조별과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적당한지
- 과제의 평가비율이 높은 과목
- 팀플이 많이 없고 학점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교양
- 절대평가 및 P/F의 성적평가 방식
- 시험부담이 적은 강의
- 학점 부담이 적은 강의
-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와 시험의 압박이 없는 수업이면 좋겠다.
- 전공과 달리 교양은 말 그대로 교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평가 방식이 너무 깐깐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교양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 과목에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 이론 과목과는 차이가 없을 거 같아 PASS 과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 교양과목인 만큼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간단한 퀴즈나 과제 비율을 늘린다.
- 말 그대로 교양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보다는 평가나 활동을 너그럽고 여유 있게 진행한다.
- 학생들이 교양 학점에 대해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상대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 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 A+의 비율을 꽉 채운다.
- 쉬운 과제와 시험이 평가 기준임.
- 시험을 치지 않고 대체 과제가 있다면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 같음.
- - 학점에도 큰 부담 없는 교양강좌
- 절대평가로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업
- P/F 형식의 수업의 수 높이기
- 차라리 절대평가 기준을 높이기
- 학점에도 큰 부담 없는 교양강좌
- 시험범위가 너무 많지 않고 과제도 부담이 없지만 학점은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적 취득이 용이한 수업
- 성적이 후하고, 전공 외의 다른 분야의 정보에 대해 얻어가는게 많은 수업이다.
-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주는 과제에 대한 부담이 없는 수업

7. 상식/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수업 4.1%

- 교양과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의
-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
-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에 좋은 기초수학(해석학, 선형대수, 통계학) 및 응용수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음.
- 교양과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의
-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
- 배워가는 내용이 많으면 좋은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 지식 습득이 많을수록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7. 상식/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수업 4.1%

- 교양과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의
- 전공과 관련이 없으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유용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수업
- 전공수업만큼 의미있는 수업
-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좋을만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
- 전공 수업에 기초가 되거나 인성 함량에 도움이 되는 교양
-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강의
- 다양한 교양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강의
- 상식을 증진시켜주는 강의
- 자신의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평소에 듣고 싶었던 내용이나 실용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진정한 의미의 교양적 지식을 알려주는 과목이다.
- 교양적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 지를 평가하면 좋겠다.
- 음악에 대한 취미 교양 과목은 악보는 보는 이론 퀴즈(60%)와 악기를 다루어 선정된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40%)으로 평가한다. 또한 1/2 이상 연주가 가능하다면 PASS를 부여한다.
-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상식이나 책 등을 소개하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함.
-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
-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 전공에 비해 접근성이 좋아야 함
- 교양과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강의
-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쌓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

8.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 생각할 수 있는 수업 3.5%

-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닌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에 큰 가산점을 주는 방식.
- 전공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양과목이 경우에는 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수업이 좋은 교양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문제풀기만이 아닌 이론 수업을 해야함.
- 다들 각자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듣게 하는 수업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단순 암기과목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학기가 끝나고도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호함.
- 시험기간에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험을 치는 수업보단 평소에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읽고 외우는 수업보다는 해당 수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시험 방식)
- 교수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린 사고를 요구하는 수업을 개설한다.
- 창의력, 주관성을 높인 개개인의 역량을 알 수 있는 주제의 과제
-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형식보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한다.
- 교양 시험을 응시할 때 수업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교양이라고 생각
- 무작정 암기하는 수업 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시간이 있는 수업
- 단편적으로 암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기가 끝나고서도 강의를 통해 삶을 살아가며 응용하거나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은 강의
-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수업

8.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 생각할 수 있는 수업 3.5%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중간, 기말을 통한 암기식 테스트가 아닌 진지하게 해당 학문 또는 강의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기술해보며 직접적으로 사회상 또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볼만한 교양 수업
- 학점에도 큰 부담 없는 교양강좌

9. 평가 기준 정확/ 종합적 평가 2.8%

- 평가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교양
- 평가방식을 명시하여 공평하게 평가하기(수업계획서에 명시)
- 성적 평가 기준이 명확한 강의
- 성적 기준이 명확한 강의
- 그 시험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지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함
- 노력 한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강의
-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수업
-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리 공지하는 강의
- 과제양과 어려움의 정도, 팀플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강의
-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 수업
- 편파적인 대우나 평가가 없는 수업
- 절대평가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대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 점수에 공정하며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 모든 기준에 있어 모두가 공평하게 진행되는 수업이 좋은 교양이다
- 시험을 통한 점수로 등수를 메기는 방식보다는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성실성을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음.
-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

10. 강의력,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2.6%

- 교수님의 설명방식
- 다양한 수업방식
- 교수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의
- 교수님께서 수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강의자료가 있는 강의
- 강의력 좋은 교수님의 수업
- 교수님이 전문지식을 가졌다는게 잘 느껴지는 수업
- 수업자료 의 요점정리를 잘 해주시는 교수님
-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는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은 좋은 교양수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요즘 진행되는 수업은 대부분 교수가 직접 호명해서 하는 출석보다 스마트 출결 어플을 사용해 전자출결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휴대폰이 고장나 수업 시작 10분 전 미리 교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출석 인증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문제없이 전자출결을 이행하는데 왜 학생 혼자 문제가 생기냐는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음. 학생들도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를 갖추신 교수님이라면 좋은 교양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교수의 강의력이 좋은 수업의 기준 첫 번째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 돋게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함
- 수업을 재미있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수업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교수님. 친절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10. 강의력,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2.6%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 다양하고 신기한 수업방식
-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수업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
- 전공과목이 아니므로 타과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와 난이도로 강의

11. 발표, 조별활동, 토론식 수업 2.5%

- 경쟁식이 아닌 조별과제로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방식.
- 단순 암기 수업이 아닌 활동적인 수업
- 일단 성적에 구애받지않고 선진국들처럼 토론위주의 수업이면 좋은 교양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수업방식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매 강의시간 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 예를 들면 조별 토론이나 수업시간 내 실습 등
- 발표, 글쓰기, 토론이 있는 강의,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강의
-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수업 방식 필요
- 토론식 수업을 통한 조별 과제 및 발표의 수업 방식이 필요함
- 첫 조별 활동 후 학생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피드백을 한다. 만약 엄청 열정이 많은 학생 한 명과 활동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만나면 정말 불공평하다. 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를 바꾸자', '조활동을 이어 나가면 좋겠다.', '조별 활동은 도움 되지 않는다.'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수업이 평가 기준임.
- 토론 방식의 강좌
- 토론식 수업 반영
- 교양은 전공을 벗어나 다른 학과에 대해 들여다보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너무 어려운 주제를 피하고 모두가 함께 참가하여 그 학과에 대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음.

12. 진로, 취업에 도움 되는 수업 2.3%

- 진로와 관련시킬 수 있는 수업
-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삶의 방향성을 찾을수 있는가
- 학점취득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조별 프로젝트)
- 실용적인 강의 (취업, 자격증 취득,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
-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교양 수업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다.
- 학문과 지적 터득을 위한 과목은 지금과 같이 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하되, 취업과 현실에 관련된 교양은 3, 4학년 한정으로 교직원 외에 학교 취업관련 센터와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 토익 등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강의
- 활동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함.(ex.구체성, 활동 여부, 활동에 대한 설명 등) 이런 방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이 취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음.
- 학생들이 직접 취업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느낀 점과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
- 자신의 강점을 신중하게 잘 파악했는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 진로 선택 및 취업 시 도움
-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12. 진로, 취업에 도움 되는 수업 2.3%

- 1분 안에 스스로를 얼마나 잘 드러냈는지, 영상을 봤을 때 면접영상다운 준비성을 갖췄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함.

13. 피드백을 잘 주는 수업 /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 많은 과목 2.3%

-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피드백이 활발한 수업
- 교수가 학생을 생각하는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마인드, 틀에 갖히지 않고 학생들을 포용하려는 태도와 수업의 가지고 있는 가치(정보의 실용성 등)
- 교수님께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의 강의
- 과제나 시험에 관한 피드백이 잘 되는 수업방식의 교양
- 교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
- 교양수업이 좋다고 느낄 때에는 교수님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고 학생들의 반응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기에 부정확할 수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재빨리 LMS에 공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수자의 역할 및 기대사항: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교수자의 역할 및 기대사항은 학생들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수님과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수업
- 조별의 경우 자신의 역할과 업무수행을 매주 피드백 받아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
- 피드백, 크리틱으로 지식과 실무에 한단계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업
- 교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강의
- 교수님의 성향과 수업방식이 자신에게 맞는 강의
- 교수님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

14.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2.3%

- 적극적인 교수진
- 교수자의 충실하고 깔끔한 강의 자료 준비 및 성량
- 교수자의 열의가 가장 중요함
- 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열의를 보여주시는 강의
- 재밌고 쉽게 가르쳐주시며,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의
- 교수의 적극적인 피드백
- 교수자의 열의
-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
- 교수자가 전문 지식은 물론 열의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수업
- 교수님의 열정
-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이 수업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가
- 교수님들도 열정을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교수님들의 수업은 다 좋은 교양수업이라고 생각함.

15. 실습, 체험 가능한 수업 2.1%

- 나는 수업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수님의 지루한 설명보다는 영상도 같이 보거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현장 실습이 가끔 있는 이러한 재미있는 교양을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실습을 통한 학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원함.
- 다양한 학습 방법(그룹 활동, 실험, 프로젝트 등)
-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 (ex. 실습, 토론, 팀 등)
- 회화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기준이 있었으면 함.
-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실습 위주의 교양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간단한 활동이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
- 직접 실습하며 체험하는 수업 방식이 좋은 수업
- 이론과 실습이 골고루 섞인 수업
- 이론적인 것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실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활동적이고 실습을 통한 수업이 좋은 교양이다.
- 이론보다 실습위주의 교양

16.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 2.1%

- 사람들에게 유행하거나 관심이 많은 (ex 다이어트) 주제가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교양이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생업과 관련되기보다는 넓고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단지 강의를 듣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양수업이 좋은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전공과는 다른 성향으로 해봐야 아는 경험적인 역량개발에 교육의 초점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다.
-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
- 다른 분야의 지식 증진이 가능한 수업
- 한 가지 분야가 아닌 광범위하게 다른 전공, 생활에 융합되며,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함.
- 전공에 포함되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전공과 연계하여 또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수업
-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되는 강의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학교에서 습득
-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수업보다 전공 외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이 필요함.
- 교양의 의미 자체가 사회생활에서의 지식이라고 생각함. 세계의 문화 등 전공 관련 외에 다른 지식을 쉽게 이해시키는 교양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17.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1.6%

- 혼자서는 터득하기 힘들지만 알고 나면 도움이 되는 주제
- 교양과목으로 이수하면서 그 과목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수업이다,
-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지식에 대해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잘 알려주시는 강의
-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수업이 좋은 교양이라고 생각함
-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는 수업이 아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제공하는 강의
-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하며 수강할 수 있는 교양이 좋은 교양이라 생각함.
- 전공에 비해 부담이 없지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이거나 낯선 분야여도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과목
- 학생의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강의

17.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 1.6%

- 전공보다는 다가가기 쉽고, 도움이 되는 강의

18.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1.2%

- 학생의 이해를 돕는 수업자료(필요한 내용만 포함된 자료)
- 학생의 이해를 위해 적절한 시청각 수업 자료가 활용되는 강의
-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청각자료가 풍부한 강의
-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 방식
- 가독성이 좋고 새로운 강의자료
- 눈에 잘 띄는 시각 자료를 활용
- ppt뿐만아니라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한 눈에 수업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수업

19.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수업/ 주제와 맞는 수업 1.0%

- 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된 강의
- 수업계획서 준수 및 이행
-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수업이 좋다고 생각함.
- 수업계획서의 정교함과 정확성
- 수업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 내용이 알차고 과제가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0.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 1.0%

- 토론 위주의 수업 방식
- 원하는 사람들과 팀을 꾸려 조별 과제를 내는 것 -> 무작위로 하면 과제에 버스 타는 사람이 생김
- 학생들은 협력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치로 한다.
-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체험하고 토론하며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이 기억에 남고 오래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인거 같다.
- 지루하지 않게 팀플레이 형식
- 비슷한 전공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4명씩 4팀으로 구성된 강좌로 주어진 문제상황에 대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방식이다.

21.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 0.3%

- 전공 기초와는 차별화된 과목이지만 전공 지식과 융합 가능한 과목
- 포괄적이기보다는 난이도를 올리더라도 세분화하여 한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강의(특히 우리 과의 경우 졸업논문 작성 시 도움이 될 것임)

22. 학생 의견 반영 수업 0.3%

- 과제의 성실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드백을 수용하여 개선하는 교양과목이 좋은 과목인거 같다

23. 인성/자기계발 관련 수업 0.1%

- 살아가며 도움이 되는 진짜 교양 수업. 학점 따려고 듣는 수업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수업.

24. 강의력,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0.1%

- 수업 진행방식이 매끄러운지

25. 조별 과제 없는 수업 / 개별 평가 강화 수업 0.1%

- 조별과제 보다 개인과제가 개개인에게 평가의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함. 더불어 자신의 주관만으로 구성되는 레포트 형식의 과제물도 좋지만 조사(리서치) 과정이 필요한 레포트도 좋은 수업방식이라 생각함.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이 포함될 것이며 리서치 과정을 통해 정보에 대한 학습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임. 토론에 비해 레포트 과제는 교수자의 짧은 피드백만 있더라도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파악 및 보완하기 수월해 학생의 입장에서 완성형의 학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임.

26. 그 외 기타 6.6%

- 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목표는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결과물, 일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팀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팀워크를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팀원 간의 역할 분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충돌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간표 구성이 적합한 강의
- 중간고사 이후 각 학생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중간고사를 채점하지 않고 기말고사와 함께 채점
- 매년 똑같은 시험문제만 출제해서 족보 타는 수업이 아니라, 교수가 매년 직접 문제를 바꿔서 출제함으로써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인가
-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낭만, 일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강의
- 평가 방법은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것에 학생이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양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시험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요즘 토론이나 발표 같은 형식들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토론이나 발표 등을 조금 줄이되 교수님들의 이야기나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시는 수업방식이었으면 좋겠음.
- 수업 방식이 꼼꼼한지
-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이 좋을 것 같음
- 강좌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느껴져야 좋은 교양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음.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교양수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의 양이나 수업의 진도를 조절해주시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교양 수업에서 뭔가를 더 얻어가고 싶은 마음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 온라인강의가 수업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막 및 추가 코멘트를 활용해 편집이 되어 있는 강의
- 자신이 생각하기에 추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양 수업이라면 그 수업은 학생 입장에서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26. 그 외 기타 6.6%

- 과제의 양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 하는 방식 등에 따라 교양 선택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 같음
- 명확한 학습 목표 및 교과목 계획: 각 교양 강좌는 명확한 학습 목표와 교과목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이 강좌에서 얻어야 할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정의해야 한다.
- 평가 기준의 다양성: 학생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기준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결과를 표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시공간의 제약이 덜한 인터넷 강의
- 자격증이나 국가시험 교양의 경우, 평가는 중간, 기말 모의고사로 하고 과제 또한 2회 정도 개념 확인 수준에서 내도록 하고 만약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해당 시험에 합격한다면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대함.
-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수업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었던 교양이라고 기억에 남음.
- 다양한 수업방식
- 어려운 문제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어 나중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단합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함.
- 수업자료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는 수업
- 전체 인터넷 강의로 진행
- 전공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 수업
- 다양한 수업방식
-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여 교양 수업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 많은 인원이 듣는 수업
- 대면수업
- 스스로 학습하여 경험하게끔 하는 수업
- 수업자료에 의존한 시험문제 지양,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시험 문제 출제
- 자신이 흥미가 있는 주제를 토대로 강의를 해 주고 그 흥미에 충족해주는 내용들로 강의를 해주는 교양 수업이었을 때 수강한 교양 과목이 자신이 원하는 지식들을 충족해주었는지 교수님의 수업 장식은 어떠하였는지를 교양 강과 평가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음
-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항목 도입
- 자신에게 맞는 교양이 좋은 교양인거 같다
-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교양 수업인거 같다
- 수업 방식을 인터넷 강좌로 하여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좋은거 같다
- 온라인이나 교양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의 관련 내용이 아닌 교수님의 사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대부분의 교양 수업은 아침에 진행이 되는데 오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음

27. 기타_성적평가 관련 4.6%

- 학생들 개개인의 E-Sports 실제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이론 필기시험
- 노력한 만큼 성적이 골고루 나눠서 분배었으면 좋겠음. 수업시간에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판가름이 많이 났으면 좋을듯함.
- 출석, 과제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 과제나 퀴즈같은 수업 외 부수적으로 할것이 많지 않은 교양토론 및 팀플과목, 실습 및 실험과목처럼 암기시험에 대한 비중이 적은 팀프로젝트 활동이 있는 수업에 성적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중간,기말고사로만 평가되기보다는 다른 과제나 퀴즈성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 할수 있는 기준을 둔다.
- 소통이 되는 수업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강의만 하는 교수님보단 의견을 물어보며 강의하는 수업을 하되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때의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한다.

27. 기타_성적평가 관련 4.6%

- 양과목의 평가 같은 경우 토론이나 자유연구 이런 쪽으로 평가하고 평소 수업집중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가방법을 시험을 통한 암기식 시험 보다는 교양인만큼 인문학적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수필이나 수업 감상문을 통해 평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평가 방식이 적합한 강의
- 과제에 큰 비중을 두는 것보다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강의
- 학점으로 성적을 받는 제도가 아닌 PASS/FAIL강좌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 족보를 타지 않는 주관적인 글쓰기인 방법도 괜찮음
- 시험 위주 보다는 과제 위주 평가
- 성적을 후하게 주는지
- 수업 참여도를 보고 평가
- 시험과 과제에 대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양이 좋다고 생각한다.
- 팀플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제해결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말못할 사정들이 다 있지만 자신이 손해볼까봐 참고 성적을 받게 되어 억울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과제를 제출하되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토론가능,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써서 제출하면 감점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다.
- 절대평가 혹은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면 이상적일 것 같다
- 학기 시작 전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관련하여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그 목표 점수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PASS를 부여한다. 실제로 토익 스피킹 교양 강좌는 단지 수업만 듣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기만 하면 PASS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신의 목표는 잊고 단지 제출하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성적평가.
- 교양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함.
- 실기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 절대평가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대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 학점에 비례하는 수업 내용의 심화정도와 과제, 수업시간 등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탐방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석 점수를 매기고 유적과 역사에 대해 해설하는 것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평가를 함.

5. 학사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교육과정

1.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필수 학점이 높아 다른 교양, 복수전공에 어려움이 있음. ▪ 높은 전공필수학점, 최소학점 ▪ 졸업을 하기 위해서 수강해야만 하는 수업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 같다. ▪ 자과의 전공수업은 2학년부터 들을 수 있는데 복수전공의 학생이 복수전공의 전공수업을 들으려면 3학년이 되어야 해서 진입장벽이 높다. ▪ 복수전공을 해도 타과 여석이 작아 수업을 신청하기 어렵다. ▪ 복수전공이 아니면 다른과의 수업을 거의 들을 수 없다. ▪ 학생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함. ▪ 익숙하게 접해보지 않아 어렵게 느끼는 것 같음. ▪ 부/복수전공의 이점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시도하는 학생이 적음. ▪ 관련 정보를 직접 가서 듣기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음. ▪ 미래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 컴퓨터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수업을 같이 병행할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병행할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해보고 싶어도 시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 약학대학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전까지는 약대의 커리큘럼이 다른 과에 비해 들어야 할 과목 및 학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 부, 복수전공에대해 학생들이 직접 다 찾아봐야하는 것 도 맞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야할지 감조차 못하는 학생, 혹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할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 복수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 수가 적다. ▪ 학교 강의가 대부분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20점을 맞춰서 채우기 어려움 ▪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해 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스스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부,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물론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러한 정보를 알아가면서 쉽게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들은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도 확실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전공을 살릴지를 알지 못한다. ▪ 복수 전공에서 학생이 원하는 분야의 복수 전공의 선택지가 부족한 것 같다. ▪ 기준학점을 통해 복수전공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쉽다. ▪ 도덕윤리연계전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복수전공 또는 부복수전공이 어느 한 과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학과의 수업 여석이 부족하다. ▪ 타 전공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 못 하여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수전공을 하면 관련 학습계획표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 부·복수 전공을 처음 신청할 수 있는 2학년때는 생각이 없다가 추후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함. 하지만 과 내의 몇몇 학생들의 경우 3학년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여석이 없어 신청을 못함. 이런 점이 배움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 같음

1.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 한정된 교수님, 한정된 강의실이지만 신청을 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
- 학생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함
- 부·복수 전공과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공지가 언제 올라오는지 몰라 막상 신청 기간을 놓치는 학생들이 많다.
- 복수전공에 대한 안내가 적어서 찾아보는데 힘들었다. 실제로 나 역시 2학년 때 복수전공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복수전공에 대한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의문점(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 등)은 나와 있지 않아서 결국 찾지 못해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보곤 했다.
- 복수전공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음.
- 부.복수전공 시 다른 과에서의 여석 부족 등이 문제임.
- 부.복수전공 정보를 얻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부, 복수전공에대해 학생들이 직접 다 찾아봐야하는 것 도 맞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야할지 감조차 못하는 학생, 혹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할 생각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 복수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 수가 적다.
- 복수 전공하는 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없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 또한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음. 또한 복수전공을 하고 있지만, 그 과와 관련된 시설까지 사용 하지 못하고 있음.
- 부.복수 전공이 거의 되지않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 부.복수 전공에 대한 설명과 정보가 부족하다.
- 복수전공의 경우 종합적인 계열로 신청할 수 없고 학과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복수전공 선택에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것 같다.
- 부·복수전공 등 학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 복수전공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음
-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것 같음
-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의 경우 체육학부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한 학년에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학부 복수전공을 하는 중임.
-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위해 체육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진로를 다른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체육학부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음.
- 체육학부에서 여석을 열어주시는 교수님들은 수업계획에 맞게 적당한 인원수의 학생들을 받아주시지만, 아예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은 받지 않으시는 교수님도 계심.
-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마케팅의 경우 임용을 치지 않고 다른 진로를 생각 중인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이자 특수체육교육과에는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과목이지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 심지어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졸업이 힘든 학생들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복수전공과 관련하여 빠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복수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접할 기회가 적음
-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전공과목의 커리큘럼이 많아 복수전공을 고려하지 못함
- 복수전공학생은 누릴 수 없고 본 전공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문제. 예를들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으며 똑같이 실습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과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대여할 수 없는 점
- 복수전공의 경우 복수전공자에게 수업의 여석을 제공하지 않아 큰 어려움. 이는 복수전공에 대한 제도가 아직 정확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함.
- 복수전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심 없는 학생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복수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수전공을 하는

1.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과에서는 타 과로 인식되니 복수전공 과에 관한 공지사항이나 졸업요건, 시험 일정, 수업 변경 등 얻지 못하는 정보가 많음
해결방안	▪ 졸업 최소학점, 전공필수학점 등을 낮춰야 함. ▪ 수업 선택의 폭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 원하지 않아도 수강해야하는 과목들이 좀 많다. ▪ 2학년때부터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금 42학점인 복수전공 학점을 조금 높이는게 기초를 쌓는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다른학과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게 타과 여석을 증원하면 좋겠다. ▪ 복수전공이 아니더라도 일반선택으로 다른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 기계공학의 경우 전기공학등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처럼 관련있는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인터넷 강의인 '슬기로운 대학생활'에 부전공, 복수전공 내용을 추가 ▪ 관련 정보를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 ▪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안내 사항을 들을 수 있게 함. ▪ 졸업요건을 조금 더 완화 시키거나 타 과 전공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연계교육과정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학점신청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 ▪ 학과에서 가능한 부, 복수전공에 대해 홍보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 복수전공에 대한 이점이나 방법 등을 홍보한다. ▪ 성적 우수 학생에게 최대학점을 3의 배수인 21학점으로 늘인다면 수월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학과사무실과 학생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학생들 더 나아가 편입생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1학년 때에 수강하는 <대학생활설계>와 같은 강좌에서 부·복수전공 등의 학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학과 내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복수전공을 하는 선배의 방법들을 제공, 경험들과 정보들을 베이스로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 겸하여 진로 상담이나 관심사를 찾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같은 어학 계열을 복수 전공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 복수전공 희망자를 상대로 면접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왜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지 판단하고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학과에서 희망 대상자를 상대로 부, 복수전공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설명, 홍보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수강해야하는 과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 부)복수전공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좋은 제도이기에 이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고, 여석을 늘려 더 넓은 강의실을 이용한다거나, 수업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 교수님을 많이 채용하고 다양한 과에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 관련 자료를 많이 제공하여준다.. ▪ 부·복수전공 신청을 많이 하는 학과(ex)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강의실 확장, 교수님 추가 채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교에서 하는 버디프로그램처럼 복수전공을 처음 시작하는 년도에 해당 전공에 학생과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강의를 늘리거나, 강의 수강생의 한도를 늘려야 함. ▪ 부.복수전공 학생들의 여석을 늘려주어야 함. ▪ 각 학과 교수님이 자기 과와 연관이 되는 과에 대해 설명하여 여러 진로를 알려주면 부.복수전공에

1. 복수전공 제한/정보 미흡 9.2%

	대한 생각이 넓어질 것임. ▪ 학과에서 가능한 부, 복수전공에 대해 홍보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 복수전공에 대한 이점이나 방법 등을 홍보한다. ▪ 복수전공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부.복수 전공에 대한 정보를 학과 홈페이지에 기재한다. ▪ 부.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연계 시켜 멘티, 멘토 제도를 만든다. ▪ 학생이 하나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열, 공과계열, 사회과학계열 등과 같은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여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게시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학과별로 구역 나누어 게시 등)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을 늘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타과와 협의하에 부복수여석 증대 ▪ 수학교육과 SNS 계정을 통해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 게시 ▪ 체육학부 측에서 복수전공과 관련하여 정확한 공지와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음. ▪ 실기과목, 실습과목의 경우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라 여석을 많이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론 수업의 경우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을 조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음. ▪ 체육학부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대해 조금 더 편히 지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시간 마련 ▪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 제공 ▪ 학생회나 과사무실에 복수전공자들의 명단을 드려 복수전공학생도 본전공 학생과 같이 단체방에 초대되어 다양한 공모전과 행사들을 알 수 있게 하여야함 ▪ 수업의 여석을 늘려 복수 전공자 또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함. ▪ 부복수 여석과 주전공 여석의 비율을 비슷하게 조율 ▪ 학교 측에서 복수전공 관련한 설명회를 해 줄 필요가 있음

2. 강의다양성 3.8%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과목이 다양하지 못해 과목 선택의 폭이 좁음 ▪ 다양성 부족: 학사제도가 제한적이거나 다양한 전공 과목 및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리 학과의 전공 과정은 비교적 타 대학에 비해 획일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타 대학의 전기공학과는 반도체 분야의 전공을 적극적으로 다루거나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통합하여 학부로서 운영하는데 우리 학교는 비교적 단일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분야의 취업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자신이 듣고자 하는 트랙과 상관없이 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을 거의 다 들어야지만 졸업학점을 채울 수 있음. ▪ 적은 교수님 수와 각 트랙에 맞게 특성화된 수업이 많지 않음. ▪ 진학과 관련된 강의가 별로 없다. ▪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수가 적음 ▪ 학과 특성상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하는데 실제 자격증 내용과 관련된 전공 수업이 부족하다. ▪ 전공과목 부족으로 고학년 때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어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 학생들이 중요한 학문 영역에서 깊게 학습할 수 있는 선택 교과목을 제공하여 관심 분야를 더 탐구

2. 강의다양성 3.8%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 ▪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다양한 관심사와 배우고자 하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 ▪ 인디자인과 일러스트에 집중된 수업이 많아 다른 툴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었음 ▪ 따로 독학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인디자인과 일러스트에 너무 많은 수업이 집중되어있음 ▪ 시각디자인학과 전공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은 인정하나 다른 것을 배울 기회가 매우 적음 ▪ 학생들의 레이아웃 감각을 길러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인디자인 안에서만 배워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강의 중심교육, 전문성 중심, 과목 다양성 부족 ▪ 수강 가능한 전공수업이 몇 개 없음 ▪ 교수진의 전문성과 연구 관점은 학사 과정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함 ▪ 수업이 많이 없어져 졸업 학점에 비해 전공과목의 수가 적다 ▪ 한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학점이 있고 과목이 적어서 학점 채우기 어렵다
해결방안	▪ 전공 과목 늘리기 ▪ 부전공 및 이중 전공 지원 : 학교는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선택할 때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전문의 교수님을 모시거나, 최소한 기초 교양 과목으로라도 시야를 넓히고 접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학생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신임 교수님을 많이 모셔서 수업의 다양성을 키우면 좋겠음. ▪ 트랙마다 연구 분야가 맞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트랙을 전문화하고 특성화된 전공 ▪ 수업을 열어주시면 좋겠음.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초는 비슷하기에 1, 2학년 수업은 같이하며 이후의 과목들은 선택으로 바꾸면 좋겠음. ▪ 교수진 모집이 힘들 경우 학과와 관련된 진학특강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충족시켜주어야 함. ▪ 교수님 추가 등용 및 강의 추가 개설 ▪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전공 강좌 개설 ▪ 1학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툴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기획해야하고 2학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같은 작업물을 만들더라도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른데 이를 지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3D/그래픽/브랜딩/기획/영상/광고/편집출판 등 다양한 분야 안에서 주전공 2개/ 세부전공 2개 선택 후 그에 맞는 카테고리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짜여져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학생들을 학사과정 개발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고, 학생 의견을 수용하여 학과 학사 제도를 형성시킴.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 ▪ 전공 과목의 수가 부족하여 학점을 채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과목 개설은 물론이고 들을수 있는 전공을 더 다양화하고 대면 강의가 어렵다면 인터넷 전공 개설도 괜찮은 대안이다 과의 인원이 부족한게 원인이라면 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3. 실습과목 1.9%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실습 기회 부족 ▪ 주위 기업들과의 현장실습 연계과정이 부족함 ▪ 학과(환경공학과) 특성상 고학년 때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늘려야 하는데 현장실습의 선택 조건이 좁다. ▪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 실습 기회가 부족하여 적응을 잘 못할 수 있다. ▪ 조교님들이 미리 시약을 제조해 놓는 경우가 다반사라, 학생이 직접 필요한 시약을 제조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 기계 노후, 없는 기구를 통한 실험방법 단순화가 발생한다. ▪ 실험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이름이 다른 실험이라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실험 과목의 부족이 문제임. ▪ 교육현장을 경험할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음 ▪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참여형/ 실습형 수업을 늘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해야함. 질 좋은 강의자료를 통해 공부할 때의 더 나은 환경 제공되어야 함.
해결방안	▪ 근처 기업들과 더 많은 연계를 통해서 현장실습 인원들을 늘려야 함. ▪ 현장실습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함. ▪ 소수의 학생은 현장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에 먼저 현장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현장실습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 ▪ 4학년 때 자의적으로 실무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쳤으면 함. ▪ 조교님들과의 실험 실습이 아닌 교수님과 실험을 진행한다. ▪ 새 기구를 구입한다. ▪ 과목에 따라 수업 방식을 다르게 한다 ▪ 실제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험으로 연계시켜 학습 방법을 체계화 시킨다 ▪ 생명과학과에서는 취업을 하더라도 실험실 경험의 유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석사 진학의 비율이 높은 편임. 이를 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과목을 늘리거나 더욱 전문화된 실험에 대해 배우면 좋겠지만 강의 인력 부족과 더불어 학생들이 실험수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임. 제도적으로 '한 학기당 실험수업 하나 고정'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음. ▪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줬으면 좋겠음. ▪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있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이로서 참여도 향상과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4. 이수학점 1.6%	
현황 및 문제점	▪ 학점 비율이 낮음. ▪ 졸업제도에 캡스톤 디자인이 있는것은 아주 좋은것 같음. 하지만 학점 비율을 높여준다면 앞으로 취업 시 유리해져 학교 위상 올라갈 듯 ▪ 기계과 전공학점을 채우느라 부,복수 전공을 할 엄두가 안남. ▪ 컴퓨터공학과 전공 학점 채우기가 매우 힘들어 수강신청을 한번 실패하면 추가 학기가 거의 필수적이고, 타 대학들은 전공이나 교직 과목이 인원수가 충족되면 계절학기로라도 열어주는 곳이 많지만 영대는 그렇지 않음.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교직 이수 과목 학점 채우기가 타대학에 비해 매우 힘듦 ▪ 성적우수자들의 추가 학점 신청을 허용해주면 좋겠다. ▪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전공선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개설된 모든 전공들을 다 들어야 아슬하게 전공학점이 맞추어져 세부전공 수업 개설 증진 필요 ▪ 융합 전공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 이수학점 1.6%	
	▪ 타학과&타전공 전공 이수시 전공 학점 인정 불가 ▪ 최대 학점 기준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3학점 기준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 시간표를 짜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결방안	▪ 성적당 비율을 높여줬으면 함. ▪ 융합연계전공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 될 것 같다. ▪ 컴퓨터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해주고 전공/교직 과목 인원수 충족시 계절학기 과목으로 개설해주면 좋겠음. ▪ 복수전공, 부전공, 추가학점신청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 ▪ 전공과목의 세분화를 통하여 전공 과목을 더 개설해야함. ▪ 다수의 학생이 마이크로전공의 존재를 모르고 융합 전공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거의 없음. ▪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다양한 교양을 배우며 스스로 융합하고 싶은 전공을 찾고, 2학년 진학 때 융합 전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학생들의 융복합적 함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Y형 폴리매스 역량 중 창의성을 기를 기회가 됨. ▪ 타 전공 수업은 아니더라도 화학공학부 내에서의 타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일반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전공수업으로 분류되었으면 함. ▪ 최대 학점 기준을 더 높이면 좋을 것 같고, 시간표 짜는 데 수월하게 3학점으로 맞아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의 전공과 교양 학점 기준이 3학점이기 때문에 학점을 남기지 않고 채워서 듣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5. 교육과정 안내 미흡 1.2%	
현황 및 문제점	▪ 학과 홈페이지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학과 이메일같은 필수적인 요소도 과 홈페이지에 적혀있지 않으며 학과 졸업생분들의 이후 취업 소식 같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어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시행되는 우리 전공의 제도 및 자세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 ▪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며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졸업제도를 잘 가르쳐주지 않음. ▪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공지가 부족해 꼭 필요한 과목임에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있음 ▪ 학과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각 학년에 적힌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해결방안	▪ 학과 사무실에서 과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면 좋겠음. 그리고 이를 학생들 중에 운영 위원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같음. ▪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SNS등을 이용해 홍보를 한다. ▪ 학사제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준다. ▪ 교환학생 특강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진로특강은 자주 열리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들이 직접 전해주는 특강을 해준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 학과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늘려 참여율을 높였으면 함.

6. 전공 선택 어려움/ 전공 바꿀 수 없음 1.0%	
현황 및 문제점	▪ 3, 4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 관련 공모전 등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로가 확정된 상태여야 하지만 스스로 찾아보거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학과 차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 아닌 성적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더라도 그 전공을 듣게 되며 수업 내용 또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전공이라도 세부 전공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과목이 다르다 ▪ 한정된 과목만 들을 수 있다 ▪ 전공을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전공을 2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적으로 선택해야하는 것이 문제점인데 각자 원하는 전공이 있지만 오직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전공을 나뉜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	▪ 1, 2학년때 졸업 후 진로의 선택지에 대해 무얼 하는 일인지,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전공지식이 요구되는지 등의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함. ▪ 고학년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다른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애한다. 희망자가 없는 전공의 이유를 찾아내고 개편이 필요하다. 과목이나 교수님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불만을 가진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 자신의 전공을 잘 선택하기 위해 1학년 때 홍보 및 준비성 강조가 필요하다. ▪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애한다. 희망자가 없는 전공의 이유를 찾아내고 개편이 필요하다. 과목이나 교수님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불만을 가진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 자신의 전공을 잘 선택하기 위해 1학년 eo 홍보와 준비성 강조가 필요하다. ▪ 세부 전공이 달라도 수업을 들으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전공 간의 이동이 조건을 두어 가능하고 내가 생각한 취업 방향이 매번 달라 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원만한 전공 선택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교양필수과목 0.7%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이 아닌 교양인 경우 필수로 듣지 않아도 될 것같은데, 필수교양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어서 강제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음. ▪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또한 많은 대학과 학과에서 ABEEK 필수 이수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BEEK으로 인해 졸업 할 때까지 대부분 전공 학점을 채우기 급급하여 다양한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되어 진부한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강의를 듣지 못해서 자신의 진로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공 심화 지식을 얻기 힘듭니다. ▪ 학과 교양 필수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함. ▪ 특정 교양필수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선택지가 거의 없이 강제적인 교양필수과목에 회의를 느낌.
해결방안	▪ 전공이 아닌 이상 교양은 필수교양으로 이런 것을 듣는다라고 알려만 주고 교양신청은 직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교수님들께서 ABEEK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를 해보신 후 향후 ABEEK의 수정 및 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영어, 글쓰기 뿐만 아니라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컨대 다른 전공과 연계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의 수를 필수적으로 정해 그것을 필수전공으로 지정해서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거나 필수로 지정하지 않게 조율이 필요

8. 기타교육과정 개선 7.0%

현황 및 문제점	▪ 수강해야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기 힘듦. ▪ 전공과목은 계절학기에 수업이 열리지 않는다. ▪ 열린다고 해도 과목의 난이도를 봤을 때 단기간에 수강하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로 전공수업을 듣고싶어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기회가 전혀 없다. ▪ 학부 연구생을 하지 않으면 실무적인 부분을 전혀 배울 수 없음. ▪ 전공을 너무 늦게 배움. ▪ 타학교의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많이 배움. ▪ 산업 연계 프로젝트들이 부족함. ▪ 기업에서 우리 학과만의 메리트가 없어서 취업 연계형 프로젝트가 부족함. ▪ 편입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적다. ▪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는 전과 시 성적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전과를 하는 이유가 본인과 맞지 않아 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전과할 학과의 한정된 과 수용인원에 맞춰야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음. ▪ 22학번과 그 이후 학번에의 전과 불가. 급격한 대입 방식의 변화 ▪ 다양한 전공 지식을 기르기 위하여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듣고싶은 경우도 있지만, 타학과 전공 인정 과목이 너무 적어 일반선택으로 듣기에는 부담스러움. ▪ 타 학과의 전공을 듣고 싶어도 타과 여석을 받지 않는 과목이 대다수여서 듣기 위한 과정이 번거로움. ▪ 학과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4개의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분자 전공을 제외한 융합, 에너지, 시스템 전공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에너지와 융합은 1-2과목이 다를 뿐 거의 똑같은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차이가 없을 것이면 굳이 왜 전공을 나누는지 모르겠다. ▪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지만 필수과목 수강강좌가 열리는게 적어서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적다. ▪ 교과목 편성이 1학기 2학기 과목이 너무 분리되어있다. 교수님들의 숫자가 적고 편성되는 과목 수가 적어서인 것 같다 ▪ 휴먼서비스학과의 개설로 기존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았던 사회복지학 강의들이 타과강의(수강신청 시, 더 이상 전공학점이 아닌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으로 전환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 중이었던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들은 부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휴먼서비스학과 강의를 이수해야 함 ▪ 교육과정 개편이 일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학점이수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서 타과에서 이수한 '일반선택 학점'만큼 본과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이에 따라 사회복지연계전공과정 등 부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본과 학생들은 이중고를 호소함 ▪ 기악과를 포함해 음악학부에 교직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없는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예술대학의 경우 복수전공을 지원할시 채워야하는 학점과 과제량이 너무 방대함. 졸업학점을 신경쓰다보니 듣고 싶은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하기 보다는 학점이 많은 수업을 무작정 듣고 보는 경향이 있음. ▪ 실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일차원적인 시험 방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2022학년도 학과가 개편된 이후로 실내건축기사 과정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기존에 실시하던 과정이 아닌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라 중간에 휴학을 하는 학생들은 과정형 실내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학생들에게 해당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과정 이해를 하지 못해 학생들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되고 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체계적인 과정의 준비 미흡이 문제라고 생각됨. ▪ 트렌드를 따라가는 교육과정 개선 필요

8. 기타교육과정 개선 7.0%

	▪ 전공 최소학점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분야의 수업 수강에 어려움이 있음. ▪ 2학년의 주요과목과 3학년의 주요과목이 비슷해서 학사과정의 단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 ▪ 확실한 과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음. ▪ 졸업학점이 줄면서 한 학기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의 수도 줄어서 3학점인 전공선택을 듣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학점이나 1학점인 다른 과목을 들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수강인원이 적어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 현재 우리 대학교에는 1, 3학점 교양과목은 많은데 2학점 교양과목의 수는 적다. 학점을 자신의 생각대로 채우다 보면 2학점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2학점 교양과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1학점 교양과목을 2개 듣거나 짜 놓은 시간표를 조정해서 3학점 교양과목 1개를 들어야 한다. ▪ 전공 및 교직과목에서는 2학점 과목이 교직과목뿐이다. ▪ 심리학이 융합된 과목으로 교육심리밖에 없다. ▪ 타과와의 융합 과목이 필요하다. ▪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과목을 설계한다. ▪ 1학년 당시 미분적분학 과목을 덜 배운 상태에서 휴학하고 복학하였는데 2학년 과정에서 미분적분학(3) 과목이 사라져서 미분적분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있음 ▪ 20학번 남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미분적분학 후반부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행렬및행렬식 과목이 교양필수가 아니어서 수강 신청에 실패했던 학생들은 미분적분학(2) 과목의 내용 일부를 이해하기 어려워함 ▪ 수업 내용을 건너뛸 때도 있어 학습에 지장이 감 ▪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를 갔다오게 되면 기존에 배웠던 전공과목의 내용을 많이 까먹기 마련인데 복습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전공을 들을 때 기초 지식이 필요함
해결방안	▪ 전공과목을 직무분야에 특화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전공과목의 종류와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함. ▪ 전공수업만의 계절학기 수업을 만들어서 기간도 늘리고 수강료도 늘려서 이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 논리회로, 회로이론과 같은 쉬운 전공과목은 1학년 2학기부터 배워도 충분함. ▪ 고학년으로 갈수록 실무적인 전공을 추가해주면 좋겠음. ▪ 기업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업 경험을 제공. ▪ 현재보단 조금 더 폭넓은 인정범위를 책정해줬으면 좋겠다. ▪ 전과할 시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학과 자체 시험을 통해 전과인원을 선발함. ▪ 약학대학의 개방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 ▪ 타과 여석을 기본으로 최소 몇 명은 열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지식을 기르기 좋을 것 같다. ▪ 전공 별로 구체적인 컨셉을 잡아 그에 맞는 특별한 전공 과목을 개설. ▪ 모두 다른 커리큘럼으로 설계. ▪ 학과 학생 수가 많아 전공을 나누는 것으로 추측. 따라서 학과 신입생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 ▪ 전공필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바꾸는 방안 또는 교수님들이 수강강좌를 더 열수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 ▪ 과목 수를 학기별로 나누지 말고 교과목 수업의 종류를 많이 편성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휴먼서비스학과 설립 이전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 계열의 본과 전공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서 개설된 적이 있고, 휴먼서비스학과 동일 과목으로 인정되는 강의들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 선택을 위해 교직이수를 받을 수 있게 학교 측에 해결하는 방안과 교직이수

8. 기타교육과정 개선 7.0%	
	가 없는 타당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공지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 학과의 과제량을 줄이거나 전공 학점을 높여주면 좋겠음. ▪ 실기 위주의 수업은 실기 위주의 시험과 과제를 준다. ▪ 교수 혹은 과정 이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처음 실시된 과정인만큼 휴학생, 복학생등 다양한 변수에 좀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세워져야 함. ▪ 단순히 전공을 배우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 식영과의 과목 중 하나인 '식품영양학과 마케팅'처럼 급성장하는 식품영양 관련 사업 분야에서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수업이 좋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임. ▪ 전공 최소학점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함. ▪ 근본적으로,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심층적인 과목의 개설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선적으로 과의 목표, 비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업을 개설해 우리 과의 커리큘럼을 정확히 이해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 어느정도의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1, 2학점 과목을 더 개설한다. ▪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범대학 내에서도 다른 과 학생들과 그런 활동을 해보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교과교육학이 심리학과 융합되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학과 심리학이 융합된 과목으로는 교육심리가 있는데 이 과목이 교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에 한정해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과목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 옛날에 배웠던 과목에 대해 복습할 수 있는 강의 개설 ▪ 미분적분학(3) 개설 ▪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 설립

2) 수업내용

1. 교수진 1.8%	
현황 및 문제점	▪ 수강신청 시 강의평을 고려해 인기 교수님들에게 쏠림 현상이 발생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은 학생들의 강의평을 고려하지 않은 담당교수별 담당과목 지정이라고 생각함. ▪ 학과의 교수 인원 부족으로 수업에 배정되는 교수님이 한 분뿐이어서 수업 선택권이 제한되어있다. ▪ 학과 전공 교수 네 분 중 두 분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학부 연구생을 뽑지 않아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없고 넓은 폭으로 대학원 진학이 어렵다. ▪ 교수자의 인원 부족 ▪ 예비수강 신청기간이 시작되어도 수업 담당 교수가 미지정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교양 교과목 多.이 경우, 수강신청 전에 교수자와 수업계획서도 확인하지 못한 채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임. ▪ 교수 미지정 문제는 일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 ▪ 학생 수는 많은데 교수 수가 모자라며, 졸업요건이 학과에서 배우는 수업들에 비해 까다롭고 충족하기 어렵다.

1. 교수진 1.8%	
	▪ 전공과목 수가 적으며 수강생에 비해 교수가 3명으로 적음(2명의 같은 답변) ▪ 졸업 기준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거의 모든 과목을 수강해야하므로 수강가능한 과목수 부족(3명의 같은 답변) ▪ 퇴임으로 인한 전공교수진의 부족
해결방안	▪ 강의평이 낮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권고 조치를 하거나, 강의평을 고려해 담당교수별 담당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우선적으로 교수진을 더 모집하여 분야별로 전공 강의를 더 만들어야 함. ▪ 교수님을 더 뽑는다. ▪ 은퇴하는 교수님의 수에 맞게 교수님을 충당한다. ▪ 의욕 있는 교수를 채용하여 학과 분위기를 개선한다.. ▪ 최소한 예비 수강신청 이전에 각 수업의 담당 교수자가 배정되기 위해 교수나 강사의 단기적인 채용 체제를 바꾸어야 함 ▪ 교수님을 더 채용한다. ▪ 교수를 더 채용하여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함(2명의 같은 답변) ▪ 교수를 대체할 수 있는 블랜디드 강의 혹은 타 전공과의 연계를 하여 학점을 채울수 있도록 해야함(4명의 같은 답변)

2. 강의 질 관련 1.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가 전공이나 교양 필수로 듣는 수업들이 내용이나 수업 방식에 있어서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많음. 이로 인해 실력과 경력 둘 다 챙기기 힘들어짐. ▪ 수업자료가 알아보기 어려워 공부할 때 불편함 ▪ 교과과정을 오랫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아 새로운 전문 분야나 기술의 발전을 대응하 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있음 학생들이 비슷한 주제를 중복으로 학습해야 할 때 시 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음 이는 학생들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 학생들이 다양 한 주제와 관점을 접하지 못하고 중복된 내용을 학습하고 있어 학습 경험 다양성이 감소되며 과목 중복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식을 표면적으로 습득하거나 기억하는데 중점을 두게 됨 ▪ 학문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 문제 해결 리더십 및 기타 등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개발하기 힘들다고 함 ▪ 이론적인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으로 실제 직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부족하게 함 ▪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힘들고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수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공의 이론적 수업의 한계
해결방안	▪ 전공 강의에서 소개해주는 기술들을 모두 기본에 머물러 있는 수업이 아닌 그 이상의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고 수업 방식을 그저 듣고 따라 쓰기만 하는 방법이 아닌 학생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수업에 직접 참가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수용해주면 좋겠음. 그 외에는 학생들이 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주면 좋겠음. ▪ 수업자료 구체화 ▪ 교과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과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교과 과정을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며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과제에서 수업 내용에

2. 강의 질 관련 1.2%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유하는 능력을 키운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전공 수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이론적인 수업을 중심을 탈피하여야함.

3. 수업난이도 0.3%	
현황 및 문제점	▪ 전공 수업 중 수업에 잘 따라오는 학생과, 그렇지 못 한 학생으로 이분화 됨 ▪ 학생들 간 전공 지식 함양 관련에 양극화 발생
해결방안	▪ 1학년부터 학과 차원에서 스터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생 들 간 한문 관련 전공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열정적인 학업 분위기 형성 필요 ▪ 학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용고시에 대해 경쟁력 구축 가능

3) 수업운영

1. 수강인원 1.8%	
현황 및 문제점	▪ 학과가 통합되면서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의 여석을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짐. ▪ 현재 자과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과를 받고 이로 인해 여석 부족 문제가 생겨 학과의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짐 ▪ 여석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없음. ▪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정원이 적음 ▪ 졸업하기 위해 꼭 들어야하는 과목의 정원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적음 ▪ 전공과목을 수강 실패로 듣지 못함 ▪ 한 학년에 학생이 많은 편이 아닌데 수업수가 적으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 현재 역사학과는 수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과목당 수강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는 상황임. 그러나 한 학년당 6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구성된 역사학과에서 한 수업당 40명은 너무나 적은 여석이다. ▪ 컴퓨터 공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부/복수 전공을 진행하는 학생 수에 비해 여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청을 많이 받은 것 같다. ▪ 수강 신청을 할 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과목 수강을 희망하지만, 수강인원 제한 때문에 수강하지 못하는 과목이 존재함. 이는 강의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 그리고 교수님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됨.
해결방안	▪ 예전처럼 교수님들의 허락 하에 여석을 열어줄 수 있도록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 전체적인 학과 강의 여석 수를 생각하고 전과를 받으면 좋겠음. 아니면 그만큼 여석 수를 넉넉하게 늘려주면 좋겠음. ▪ 교수님 추가 등용 및 강의 추가 개설 ▪ 강의실 변경, 실험기구 추가를 통하여 전공과목의 정원 증원. ▪ 실험 과목 인원 증가 및 수업 빈도를 늘린다. 부족함 없이 신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한다 ▪ 상대적으로 좁은 강의실을 넓은 강의실로 옮겨 수용인원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있음. ▪ 재수강이나 재이수 인원들의 여석을 제한하여 처음 이 수업을 수강하는 인원들을 더 우대해 주는 방안도 있음. ▪ 트랙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교수나 강사진을 늘린다.

1. 수강인원 1.8%	
	▪ 부/복수 전공 기준을 설정하여 여석에 맞게 신청을 받는다. ▪ 부/복수 여석을 늘린다. ▪ 학생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수요가 많은 과목의 경우 큰 강의실을 배정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교수님들의 인식 개선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수강 신청 1.0%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이론 과목에 비해 실험 과목 수강신청이 어렵다. 실험을 통해 배우는게 많은 공대 특성 상 그 과목을 선착순에 실패해 듣지 못하게 되는게 매우 아쉽다. ▪ 복수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자과 수강만을 허용하는 수업이 많아 타과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불편함. ▪ 수업 시간의 편성 문제 때문에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5학년 1학기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음. ▪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교수자와의 학습 관련 면담이 필수적인데, 이 점이 문제이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및 학습 상담을 하려고 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강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수강신청을 할 때 가끔 서버에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목 다양성 및 과목 개설이 잘 되지않아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전공 과목 모두 전공 선택이라 세부적으로 진로 및 전공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계절학기를 열지 않아 재이수를 학기 중에 해야한다. 1년제로 학년 별 수업을 진행하 다보니 반 년 휴학이 불가하여 휴학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그에 따른 진로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 정규 수강신청 시, 주전공 학생과 복수전공 학생이 모두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선택의 폭이 좁고 한 강좌에 많은 사람이 몰림)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계절학기 과목에 전공강의가 문과계열에서는 일절 열리지 않고 있다.
해결방안	▪ 실험 과목 인원 증가 및 수업 빈도를 늘린다. 부족함 없이 신청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한다 ▪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의 균형을 맞춰 수업 시간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 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거나 교수님들을 더 초빙하여 복수전공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습 계획 설립과 교수와의 면담은 좋으나 수강신청은 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생이 보다 원활한 수강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학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강좌의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활용해서라도 전공강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한다. 수강인원을 늘리거나 과목을 증설하거나적어도 외부강사라도 초청해서 기간제로 수업을 늘려야 한다.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성하고 서버 안정화가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공 수업 확장하며 여석을 늘린다. 교수진 증원이 가장 급하다. 당장 개설된 과목도 폐강되고 있어, 다양성이 더 줄어들고 있다. 또한 2학년까지 전공필수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후 3학년 때부터 전공선택으로 세부 전공을 정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강의시설 및 활동 1.0%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신입생 실기고사를 위해 개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기실을 비워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책으로 공부하는 학과가 아니다보니 개인마다 짐이 어마하게 많은데 매번 짐을 빼고 다시 넣는 과정이 너무 불편함. 동시에 일주일가량 미술관의 출입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품 평가날까지 기한을 맞추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대학교의 캠퍼스가 매우 넓은데 실기고사가 이루어질 만한 공간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음. ▪ 본 학과는 실내디자인이 교육과정 중 속해있는 만큼 실습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임. 하지만 실습실 제도판 부족, 컴퓨터의 부족 및 고장, 긴 수업시간 등의 이유로 학생 수에 비해 실습 수업이 많이 부족함. 특히나 학과 개편 후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공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학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다가감. ▪ 인력 부족 등 교수의 편의를 위해 강당에서 강의 및 시험 등을 실시 ▪ 강당의 시설과 책상 등 악조건 속에서 강의하는 수업이 많음. ▪ 강의실의 열악한 냉·난방시설 ▪ 전공 책보다 작은 크기의 책상으로 인해 학습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해결방안	▪ 신입생 실기고사를 미술관이 아닌 다른 건물이나 강당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시험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실습 수업의 특성상 소요되는 긴 수업 시간에 의한 수업의 부족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습실 도구 부족 및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 수 제한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추가적인 실습 수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실습 수업의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조교와 다른 전공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쾌적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60명이 넘는 합반 수업을 진행할 때,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큰 강의실 구축 ▪ 강당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 점검 및 교체

4. 강의 시간대 0.5%	
현황 및 문제점	▪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시간표가 겹쳐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음. ▪ 하나의 수업이 다양한 시간대에 없음 ▪ 학과 시간표를 따르는게 아니라 임의의 시간표를 정하기 때문에 부/복수 전공끼리의 시간표가 겹친다
해결방안	▪ 수업을 다양한 시간대에 많이 만들었으면 함 ▪ 학과 시간표 대로 하여 시험시간이 겹치는 일을 없게 한다

5. 전공자 수강 제한 0.3%	
현황 및 문제점	▪ 편입생이나 수강자는 많은데 여석을 적게 열어준다.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적우수자를 제외하고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7학점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필수를 모두 제외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과목은 겨우 1~2개에 그침. 전공 특성상 실습 과목도 많은 뿐더러 주거복지, 실내디자인등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 수업들도 다수 존재함. 이는 폭넓은 전공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함.
해결방안	▪ 수강과목을 한 교수에 중점을 두지말고 유동적으로 같은과목에 남는 여석이 있는 교수님에게 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교칙상 최대학점을 변경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물론 이미 인지하고 있음. 다

5. 전공자 수강 제한 0.3%	
	만, 교양필수 과목의 수를 줄이거나 전공선택 과목 일부 학점을 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한다면 학생들의 수업 선택 자유도가 확연히 높아질 것임.

4) 시험평가

1. 시험문제 1.9%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똑 같은 시험문제로 유출 일명 "족보 ▪ 교수의 무책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대한 성적 공개가 잘 안되어있다시험에 대한 불공정성, 시험 정보 유출 ▪ 사실 시험 족보는 전공에서 제일 치명적이고 제일 많이 시험문제가 돌아다님. ▪ 에브리타임과 같은 공유 공간에서 시험지를 매상 매수하는 일이 빈번하다. ▪ 특정과목의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중하위권에 변별력이 없다. ▪ 바뀌지 않는 시험 문제 및 족보 유출 ▪ 몇몇 교수님들의 시험 문제들이 족보대로 나옴.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나, 서로 교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험 문제를 바꾸지 않고 내는 교수님들의 방식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철학과임에도 과제나 시험 문제가 주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해보는 식의 문제가 많다(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주제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 전부를 풀이하기 힘들 만큼 문제를 많이 냄 ▪ 공부의 양이 적은 학생이 많은 편이며,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면 성적이 너무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난이도를 낮추는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
해결방안	▪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로 변경 ▪ 시험 문제 완전 중복 출제 금지 ▪ 족보관련 시험지를 공유하는 학생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신고자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 우선 교수님께서 매년 문제를 변형하여 시험을 출제해야한다. ▪ OT시간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시험을 만들어 앞으로의 수업과 시험 방향을 잡아야 함. ▪ 막으려고 해도 족보는 유출되기 마련이므로 기출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거나 매년 시험문제를 바꾸는 방안으로 채택한다. ▪ 비대면 시험을 대면 시험으로 변경한다. ▪ 시험 문제들을 매년 다른 유형으로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 등 이를 장치가 있었으면 함 ▪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2. 과제/시험 피드백 1.2%

현황 및 문제점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대한 성적 공개가 잘 안되어있다. ▪ 시험 점수를 공개해주지 않게 되면 학기가 끝나고 자신의 점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과제 및 시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공 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서술식이 위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부여 받았을지 가늠하기 더욱 어렵다. ▪ 학과 특성상 개개인의 작업이 모두 과제물이 되고 그 결과물은 작가가 될 학생들의 고유한 작업물이 됨. 평가에 있어서 교수님들 또한 주관적인 취향이나 관심사가 존재함으로 학생들은 평가 이후 그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결국 평가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개인의 점수에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됨. 객관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든 전공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충분한 사후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해당 문제점은 전공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교육 앞에 평등해야하기도 함. 예술대학 내 다른 학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학생들이 과제의 상태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함. 결국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 됨. ▪ 시험을 친 후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갖추거나, 목표 설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외식트랙의 강의들은 시험 후 성적 공지를 해주시지 않고, 시험 후 피드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 학교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에 대하여 무신경함
해결방안	▪ 중간고사 성적 공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도 추가로 있었으면 한다. ▪ 매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면 시험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 학교 측에서 시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성적이 공정한지 판단하게 해야 함. ▪ 과제와 시험에 대해 평가된 점수가 있다면 평가한 후, 바로 학생들에게 고지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 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은 두 분이시거나 그 이상임. 점수를 채점할 때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께서 함께 평가 하시거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의 기준을 두고 평가 해야하며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방침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중간고사 이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성적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학교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에 대하여 더욱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음

3. 시험시간대 1.0%

현황 및 문제점	▪ 전공과목들의 시험 일자가 특정일에 너무 몰리게 되어 시험 준비 및 진행이 힘듦. ▪ 시험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찍 치는 날이 선호되는 것 같음. ▪ 같은 과 과목끼리만 시험 시간을 협의하여 타과 전공과목, 교양과목과 시험 시간이 겹치는 상황이 존재 ▪ 현재 복수전공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시간을 정할때에 같은 단과대학이 아니면 교수님들끼리 교류도 적고, 소통도 안되어서 시험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만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게 보여서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등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경우 시험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허다함 ▪ 단대, 학과 행성실들끼리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함
해결방안	▪ 과목별 시험 날짜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상의해서 정해지면 좋겠음. ▪ 어느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지에 따라 시험 시간을 정한다면 시험이 겹치는 일이 없을 것 같음 (3교시 수업이라면 3교시 시작 시간인 12시에 시험 진행)

3. 시험시간대 1.0%	
	▪ 미리 학과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끼리 시간표를 짤 때 안겹치게 짰으면 좋겠고, 여건상 어렵다면 최소한 복수전공 하는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 행정실 측에서 조정해주길 바람.

4. 부정행위 0.7%	
현황 및 문제점	▪ 시험을 온라인으로 쳐서 부정행위 혹은 오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우리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인 경우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많아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시험을 칠 때 한 번씩 한 강의실에 많은 학생이 모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행위의 위험이 있음. ▪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면 타이핑한 글에서 찾는 버튼을 이용해 오픈북처럼 시험 친다.
해결방안	▪ 대면시험으로 전환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온라인 강의지만 중간, 기말 시험을 진행할 때는 오프라인 시험으로 진행함. ▪ 강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부정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실마다 시험을 칠 때 정원을 정하여 한 강의실 내에 조교님과 교수님이 통솔할 수 있는 인원수를 들이거나 한 교실에 시험을 감독할 수 있는 교수님이나 조교님을 2명 이상 배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함. ▪ 학교 내 대면 시험 비중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한다.

5. 평가 기준 0.7%	
현황 및 문제점	▪ 시험 결과 공개가 교수님의 재량에 따르는 불투명한 성적관리에 대한 불만 제기 ▪ 시험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에 공개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제지가 없음. ▪ 교수님의 스타일마다 다른 주관적 평가 ▪ 평가방법과 다르게 점수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
해결방안	▪ 학교 측에서 시험 점수 및 평균, 표준편차 등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규정 ▪ 미리 교수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겠다라는 걸 고지해 주면 어떨까. 이번 시험에서는 바운스를, 또 다른 시험에서는 웨이브를. 중점으로 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준이 조금은 명확해질 것 같다. ▪ 교수님의 평가방법 준수함은 물론이고 시험 채점 내용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공개해줬으면 한다

6. 평가 방법 0.3%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수업을 분반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성적처리는 학년 전체로 진행됨. ▪ 같은 내용의 수업일지라도, 100% 동일한 수업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뿐만 아니라 분반마다 수업 때 나가는 진도도 일치하지 않음.
해결방안	▪ 분반마다 성적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함.

5) 졸업

1.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는 문제은행이 있는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졸업요건이 갖춰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졸업을 한다면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가 부족함. ▪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양 과목들이 존재하는데, (ex) 공학과 경영, 기업회계의 이해과 같은) 분명 필요에 의해 이러한 과목들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겠지만, 비슷한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번마다의 선택성과 강제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임. ▪ 교육 과정의 변화와 줄어든 졸업 학점의 비율로 인한, 교양 필수 과목 해제 ▪ 현재 역사학과는 졸업 요건으로 전공핵심 교과목을 최소 24학점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역사학과 학생들은 부·복수전공을 하고 있으며 부·복수학과 역시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역사학과의 전공핵심만으로 24학점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실정임. 즉,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전공핵심 과목을 먼저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과의 전공핵심 교과목이 실질적으로 '필수'적인지는 의문이 많음. ▪ 현재 역사학과에는 졸업시험 대신 어학성적 점수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졸업기준 토익 점수가 550점으로 너무 낮음. ▪ 현재 졸업 요건 중 TOEIC 750점이라는 기준이 낮음 ▪ → 영어영문학과 학생으로서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 졸업 시험이 사라지고 공인 영어 성적표 제출만 남아있음 ▪ 졸업을 하며 배운 내용을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음 ▪ 우리 과는 졸업 제도에 답사를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답사를 갔다 와보니 박물관 같은 곳을 주로 가서 흥미가 조금 떨어졌고 그 지역의 유적지 등을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음. 그런 점에서 답사 활동이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으며 아무래도 졸업 제도에 답사가 명시되어 있다 보니 형식적이고 학생들도 졸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음. ▪ 우리 과 특성상 여러 졸업요건을 만들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졸업요건이 조금 더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다. ▪ 독서 졸업 제도의 경우 독서 인증에 대한 확인 기준이 모호해 시도하는 사람이 적다. ▪ 졸업요건이 다양하지만 주로 한가지 방법의 난이도가 더 쉽다고 판단되어 그 방법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 졸업 기준이 타 과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되며 시험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졸업시험 기준을 통과하려고 통상 휴학하며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개인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다수이다. ▪ 우리 학과에는 졸업요건으로 졸업시험이 없다. ▪ 졸업 요건 항목에 대한 불균형이 큽니다. 토익 750점과 컴활 2급을 한 카테고리 안에 묶어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대외활동이 아니면 수상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 다양한 방면으로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담이 된다. ▪ 하나의 어학성적으로 주전공 및 복수 전공에서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것은 취득 점수가 상이하여도 인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어학시험을 2번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 학교 차원에서는 같은 어학 점수로 2개의 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졸업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격증 취득 개수에 따라 졸업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점수를 채우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련 문제집이나 인터넷 강의 구매료, 자격증 응시

1.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료를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며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 ▪ 졸업을 요건으로 졸업 연주가 있는데 졸업 연주 오디션 위해서 한 학기에 한번 치루는 기초이론시험 1,2 통과가 필요함. 연주 오디션도 부담이 되는데 기초이론시험까지 통과해야하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의견 ▪ 교수님이 지정한 졸업제도를 통해서만 졸업이 가능함. ▪ 현재 본과는 오직 '졸업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영양사 면허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대비한 졸업시험에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 ▪ 현재 우리 학과의 졸업 요건은 성적 기준이 없는 공인 어학성적의 제출과 한 과목당 10문제, 총 5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졸업 시험응시로 구성되서 바뀌어야 함 총 4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졸업 요건으로는 턱없이 미비한 과정일뿐더러 학생들이 무엇을 얻고 졸업하기를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는 현황임 ▪ 매년 거의 비슷한 문제로 출제되는 졸업시험을 위한 족보가 남발하는 실정이며, 기준이 없는 어학성적을 오로지 제출용으로 받기 위해 의미없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대다수 ▪ 졸업을 하기 위한 인정자격증 점수가 낮다. ▪ 학생들이 학과를 졸업할 때 학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졸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 영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교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요건 토익 점수가 800점인 것이 높음 ▪ 졸업 요건이 졸업 논문 혹은 토익 800점 이상인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 ▪ 졸업 학점이 높고 졸업 요건 중 하나인 토익의 요구 점수가 높음 ▪ 한문교육과 졸업요건 중 서예전시회에 작품을 2번 이상 출품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작품을 씀 ▪ 졸업요건 평가 과정도 교수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기준임 ▪ 4학년 때 최소 학점으로 수업을 듣기도 힘들고, 1-2학년 때는 공강을 만들기도 힘듦. ▪ 졸업학점이 타과보다 높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함. ▪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도 졸업학점 때문에 망설이게 됨. 졸업학점이 높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하게 된다면 5학년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임. ▪ 졸업 요건이 졸업 논문뿐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 제시 ▪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되어온 관례적인 절차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음. ▪ 군사학과는 졸업하게 되면 소위로 임관하여 육사, 삼사, 학군 출신 인원들과 진급, 장기 심사를 위한 경쟁을 하게됨 ▪ 체력, 학습, 전문지식 등의 분야에서 타 출신들에 비해 차이가 남 ▪ 졸업요건 같은 경우에도 육사, 삼사 출신들은 체력이 특급 이상인데 비해 군사학과의 졸업 요건은 2급 이상임 ▪ 장기 희망자가 많은 군사학과 분위기 상 야전에 나가기 전 기본적인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함 ▪ 무도단증에 있어 반영되지 않는 무도가 많음 (현재 태권도, 유도, 검도 반영 중) ▪ 현재 군사학과 졸업요건은 졸업 논믄과 졸업 책자, 체력, 무도, 운전면허, 전산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토익(토플)으로 총 7가지임 ▪ 군사학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군단을 병행하고있어 방학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 학기중에 취득하는 경우도 많음 ▪ 학기 중에도 주전공, 복수전공, 학군단을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는 학생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부담임 ▪ 졸업 기준에서 요구되는 어학점수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음

1.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 지금 있는 학과와 비슷한 어학 능력을 요구하는 무역학과와 경영학과는 졸업여건 토익 700이상이며 식품경제외식학과는 800이상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 ▪ 졸업시험 면제 기준인 토익의 점수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음 ▪ 외식산업트랙 특성상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높게 요구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기엔 비슷하게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의 경우, 졸업 요건 중 토익은 700점 이상이면 됨. ▪ 졸업을 위해서 취득하여야 하는 학과 관련자격증에 대한 문제가 있음 ▪ 학생들의 진로와 맞지 않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학사제도가 문제임. ▪ 우리 학과(식품경제외식학과 외식산업트랙) 학생들의 진로는 타 과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의 분야 중 호텔리어, 조리, 바리스타 등의 분야에 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임.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사제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함. ▪ 22, 23학번을 제외하고는 졸업학점이 130학점임. 개설된 전공과목 수가 적어 ▪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거의 모두를 수강해야만 졸업학점을 채울 수 있음. 이렇다보니 원하는 학점이 나오지 않아 흥미도 잃음. ▪ 졸업 작품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 졸업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졸업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학생들이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설계에 뜻이 있지 않은 학우들 또한 졸업작품을 위해 한 학기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나누어 쓰게 된다고 생각한다. ▪ 설계 분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작품이 필수인 것 ▪ 설계 분야로 가지 않을 학생도 졸업 작품, 선수강 설계과목 때문에 시간이 낭비될 수 있음
해결방안	▪ 졸업 요건에 어학점수, 졸업시험, 논문, 자격증 등 필수 졸업 요건을 추가해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교육 과정의 변화로 새로운 학번들에게도 적용되는 변화점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구학번들에게도 적용 ▪ 교양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특정 과목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 존재 ▪ 부·복수전공을 하게 된다는 조건 하에 전공핵심을 절반인 12학점만 채우거나 전공핵심을 꼭 들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 하여야 하는 방안이 있음. ▪ 아예 전공핵심을 폐지하는 방안이 있음. 실제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는 전공핵심 졸업요건을 23학년도 1학기에 폐지하였음. ▪ 졸업요건에서 어학성적의 요구 점수 자체를 없애거나 낮추기보다는 타 학과들과 비슷한 점수대로 맞추고 졸업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영어영문학과의 졸업 요건 기준 강화 ▪ 어학 시험 접수비 지원, 고득점 시 어학 시험 접수비 환급 제도 마련 ▪ 학과 내 주기적인 모의 토익 등 어학 시험 실시 ▪ 졸업 시험 제도 부활 ▪ 졸업 요건의 다양화 ▪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었던 박물관이나 보고 싶었던 유적지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답사 지역을 선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기존의 독서 졸업제도의 경우 구술로 교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독서 감상문 등의 보고서 형식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졸업요건들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춘다면 좋을 것 같다. ▪ -졸업 기준을 낮춘다면 굳이 휴학을 안 하고 부담 없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 대한 여유도 생길 거 같다.

1.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 시험 유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이 선택하여 시험을 치는 방법, 또는 학년별로 전공필수 과목을 몇 개 지정해서 전공필수 과목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 토익 점수 고득점에 걸맞도록 컴활, JLPT, HSK 등에도 높은 커트라인이 설정되어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졸업 시에 필요한 자격증과 대외활동에 대한 넓은 포용력
- 대외활동과 자격증에 대하여 유연한 졸업 점수를 부여한다.
- 하나의 어학점수로 주전공, 복수전공에서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취득 점수가 상이하면 각각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이론시험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넣는 것보다 기초이론을 교양 수업을 통해 배우면 졸업요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 타과처럼 토익성적으로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토익/토플시험 같은 공인 어학성적의 기준점 이상 취득'이라는 졸업요건 추가
- '영양사 면허증, 조리기능사 자격증, 위생사 자격증 등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최소 3가지 이상 취득'이라는 졸업요건 추가
- 공인어학성적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학과 학생들의 전반적인 어학 성적을 파악하여 높지 않은 기준이라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태도는 물론 기본적인 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불필요한 시험응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 졸업을 하기 위한 인정자격증 점수의 상승
- 다양한 공모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를 졸업 요건으로 추가하여 평가한다.
- 토익 점수를 700에서 750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함
- 졸업 요건에 학과 자체 졸업 시험도 포함해주었으면 좋겠음
- 토익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어학시험(토플, 아이엘츠) 등으로 졸업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졸업 조건을 넓히고, 졸업 학점을 조금 낮추어야 함
- 작품 통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제시하고, 통과 기준을 낮추어야 함
- 2번 출품에서 1번 이상 출품으로 출품 횟수를 줄이는 방향도 고려해야 함
- 전공필수 수업시간표를 공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음.
-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전공수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타과의 교직 과목을 수강한다거나, 복수전공으로 인한 초과학기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토익은 물론, 다른 언어 자격증도 졸업요건으로 인정되고자 함.
- 다른 졸업요건을 제시하는 개혁적인 방향을 논의해야함.
- 졸업요건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학사 장교들의 장점을 살려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졸업 요건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 이외에도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특히 드론 분야의 졸업요건을 시행
- 필수와 권장 취득 자격증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 졸업 논문과 책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요건 중 택 2~3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 난이도를 낮춤
- 졸업기준을 외국어 구사능력이 요구되는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와 같은 700점으로 하향 조정하면 해결될 것임.
- 다시 생각해보고 기준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임.
- 식품자원경제, 외식산업의 각 트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예를 들자면 전공 수업 증설(특히 외식산업의 경우 실습 중심의 수업)
- 학생들의 진로를 조사한 뒤 각자에게 맞는 진로 관련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

1. 졸업요건 변경 필요 10.8%	
	함 ▪ 현재 교수님 1명당 강의하시는 과목 수를 고려하면,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함. ▪ 교수님을 충원하여 전공과목을 더 개설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생각함. ▪ 학과에서 지정한 특정 자격증 취득 시,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 학생들이 졸업작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전공 선택을 더 넓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면 함 ▪ 설계를 하지 않거나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는 학우들을 위한 졸업제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2. 졸업요건 정보 3.0%	
현황 및 문제점	▪ 커뮤니케이션 부족 ▪ 선후 필수 교과목의 설명이 부족하며 졸업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졸업논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졸업 유예가 없음. ▪ 학생들마다 알고 있는 졸업요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름 ▪ 과제전시회나 포트폴리오 심사는 적절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나 이전에 있던 어도비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시간적 압박을 줌 ▪ 원하는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등을 얻고 싶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것들도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많이 하락된다. ▪ 포트폴리오의 경우 이력서를 제출할 회사마다 달리해야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 포트폴리오가 정말 취직과 실무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졸업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 문제 ▪ 과제전시회의 경우는 미대생은 시험기간 이후에 발표를 진행해서 타 학과 학생들보다 일주일정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면 되는데 중간작업이 끝나자마자 과제전시회를 준비해야해서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다 ▪ 과제전시는 2학기에 하는데 과제전시를 위한 수업은 1학기에 진행하여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크리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 ▪ 과제전시와 별개로 많은 전공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큰 것이 사실 ▪ 과제전시의 퀄리티를 높여 포트폴리오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봐줄 수 있는 여유나 교수님이 충분하지 않음 ▪ 4학년 때 졸작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서 다른 학교나 타과에 비해 많은 아웃풋이 나오지 않음 ▪ 과정전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 학교에 관한 모든 부분이 학사 홈페이지에 나와있지만, 조금 더 찾기 쉽게 나와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졸업을 할 때 필요한 것과 부, 복수 전공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 ▪ 졸업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자격증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해결방안	▪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졸업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졸업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기재 ▪ 사전에 협의한 졸업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정리 후 학과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공지하는 방안 ▪ - 졸업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회사에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각 학생들의 강점

2. 졸업요건 정보 3.0%	
	별로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각 분야의 교수님 별로 포트폴리오를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시키거나 변경하여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진행해야 한다 ▪ 과제전시회와 연계되는 수업과 과제전시회의 제출 일자를 한 학기로 통합시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분야 별로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도록함 ▪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이끈다. 학과 홈페이지에 고정 게시물로 해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 과정전 스케쥴을 학기 초 3학년 단톡방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한 표/차트로 기재. 공지해둬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진행 ▪ 졸업전시는 4학년1학기, 포트폴리오심사를 4학년 2학기에 진행하는 방법 고려

3. 졸업학점 2.5%	
현황 및 문제점	▪ 졸업학점이 학년마다 다르다. ▪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양 학점이 많음. ▪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줄어들어 지식의 습득이 감소함. ▪ 졸업 조건 완화로 해당 학과의 진입 장벽 완화 ▪ 전공을 다양하게 배우는 것은 좋지만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에게 학점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은 시간낭비에 속한다. ▪ 필요이상의 졸업학점이 제기된다. ▪ 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수 - 2021학년도 이전 졸업요건 학생 ▪ 졸업을 위한 학점 수가 타대학에 비해 적음. ▪ 졸업학점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수도 제한되어 있어 전공을 추가로 더 들을 수 없어 아쉬워하는 학생 다수. 예) 경북대, 대구대학교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 영남대학교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 ▪ 졸업학점이 그 해 학생 인원수에 맞게 선정되어 매번 졸업학점이 바뀌는 것이 불편함. ▪ 전공 과목이 너무 적고 그것을 깊게 배우는 것이 아닌 한 학기만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상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전공과목을 들어야만 졸업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불편함. ▪ 학과의 졸업학점 기준이 높다보니 주전공을 무사히 마치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여 부·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현재 교육 과정이 바뀌어 이전의 학번들의 졸업학점이 조금 높은 것 같다. ▪ 졸업학점 기준이 조금 높다. 현재 졸업학점을 120점으로 낮췄으나 한 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도 낮아지는 바람에 개선되지 않는다.
해결방안	▪ 다시 졸업학점을 통일시킨다 ▪ 전공학점은 그대로 유지하나 졸업학점을 줄임. ▪ 졸업 조건 원상복구로 학생의 지식 습득 최우선 ▪ 과의 트랙마다 세분화된 전공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많이 부여 ▪ 졸업학점을 일부 낮춰 학생들이 전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0학점으로 줄여 만족하는 학생이 다수지만,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은 변하지 않아 졸업 학점 내 전공학점-교양 학점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도시공학과의 가장 큰 문제인 “전공과목 수 부족”으로 전공과목 부족으로 졸업을 어려워하는 학생 다수 ▪ 졸업 학점을 타 대학과 같이 130점으로 높이거나 수업 학점을 낮추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더

3. 졸업학점 2.5%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함. ▪ 졸업학점을 채우는 기준을 학생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매년 똑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과 졸업학점을 낮추거나, 4학년 2학기에 들을 수 있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수업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꾼다. ▪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줬으면 함. ▪ 고학년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다른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만약 졸업학점을 120점으로 낮췄다면 한 학기 이수가능 학점을 낮추지 말고 19학점으로 올려야된다.

4. 조기졸업/졸업유예 1.6%	
현황 및 문제점	▪ 졸업유예가 없다. ▪ 처음부터 조기졸업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서 처음부터 조기졸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공지해줬으면 좋겠다. ▪ 공모전 수상 경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나 많은 전공 수업과 포트폴리오 과제전시들을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음 ▪ 공모전 관련 수업이 존재하나 각 학생들 별로 준비하는 분야가 다르고 교수님 또한 각자의 분야가 있으시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지 않아 결국 따로 준비를 해야한다 ▪ 졸업유예가 되지 않아 강제로 수업을 덜 수강하고 다음학기를 수강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 졸업유예가 없는 것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 타 대학에 비해 졸업유예의 조건이 한정적이다. (우리대학의 경우에 8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예정자로 등재되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 부/복수전공의 경우 타 학과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졸업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타학과의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졸업이 늦춰짐 ▪ 졸업제도와 부·복수전공의 경우 학사제도가 복잡함. 필수 이수 과목 및 중복 인정 과목, 이수 학점, 교직 과목 등 책자와 학생 URP를 보며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마저도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해서 졸업이 늦어진 사례도 보았음.
해결방안	▪ 학생 신분으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졸업유예를 도입한다. ▪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여 조기졸업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 졸업유예 시스템을 구축 ▪ 혹은 공모전 관련 수업을 세분화하여 과목명으로 달아 학생들이 선택적 수강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한다 ▪ 방학때 공모전 관련 스터디를 개설(교수님 지도 하에) ▪ 학년 별로 성적우수 선배들과 후배들을 연결해주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금 지급,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과 단톡에서 공모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기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졸업유예 제도가 있는 대학에서는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기에 졸업유예에 따른 부담금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 졸업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타과 수업의 경우, 학과와 교수자 간의 의논을 통해 부/복수전공자

4. 조기졸업/졸업유예 1.6%	
	들이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개설 계획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교수의 연구년으로 인해 수업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대체 교수자를 모색하기, 다수의 학생들의 수업개설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중 또는 계절학기에를 통한 개설 방안을 마련하기 등이 있음 ▪ 졸업제도와 부·복수전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학년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함. 졸업 요건이나 필수 이수 과목 등에 대한 설명을 학년별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5. 졸업논문/시험/작품 0.9%	
현황 및 문제점	▪ 작곡전공의 경우 졸업연주회에 오케스트라를 부르는데 인원축소로 인해 비용적 부담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이어가기 어려워져간다. ▪ 너무 어려운 졸업시험의 난이도로 인해 불합격으로 졸업이 유예되는 경우도 존재함(올해 졸업시험 결과 5명의 학생이 초과 학기를 등록해야하는 상황 발생) ▪ 졸업 유예가 불가능한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 ▪ 의류전공 타 대학의 경우 대부분 졸업 전시회를 통하여 졸업을 마무리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도움이 되는 졸업요건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학과의 경우 시험으로만 마무리하여 아쉬움이 더러 있는 경우가 있음 ▪ 졸업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부담감을 느낌
해결방안	▪ 학교에서 연주와 관련된 비용적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 졸업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취업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감 덜어주기 ▪ 졸업시험을 4학년에 응시하는 만큼 2학년 과목의 출제 비중 축소 ▪ 졸업시험 시행 전 2학년 과목에 한해 교수님의 특강 진행 ▪ 졸업 시험의 응시가 아닌 졸업 전시회를 요건을 수정하여 기획 및 제작 등 학생들의 실무적인 능력을 최종적으로 발휘하고, 또한 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 학생들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대한 기준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리학 관련 자격증(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을 취득할 시 졸업으로 인정해주거나, 토익점수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보인다. ▪ 졸업 시험을 1년에 2번, 학기별로 시행해야 한다.

6. 자격증/어학성적 0.9%	
현황 및 문제점	▪ 학과 내규에 의해 성적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어학성적 시험의 성적표 제출여부가 포함되기도 함. 그래서 해당 학기 성적이 높더라도 성적장학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졸업요건 중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이 자격증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하고 체험하는 데 부담이 된다. ▪ 자격증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음. ▪ 공인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돈과 시간낭비가 심하다 ▪ 조기졸업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다. 모든 학기의 학점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한 학기라도 학점이 4.0 미만이면 안 된다.
해결방안	▪ 성적장학금의 지급 조건으로 어학사험 성적표 제출여부를 없애고 순수 학기 성적으로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임. ▪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원이나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학교 측의 장학금 지원이나 우수 학생 선발 등 시험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6. 자격증/어학성적 0.9%	
	▪ 자격증 응시료 지원 혹은 자격증 취득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한다 ▪ 3학년부터 성적 장학 사정 기준으로 공인 외국어 성적을 두거나 모의 토익으로 대체가능하게 해야 한다. ▪ 총 학점 4.0 이상이면 조기졸업이 가능해야된다고 본다.

7. 영역별 이수 조건 0.1%	
현황 및 문제점	▪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가 너무 한정적이여 아쉬움.
해결방안	▪ 도시공학과도 사회학, 지리학 등으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6) 진로취업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듦. ▪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자주 열람하기 힘듦. ▪ 현재 졸업인원 취직현황과 취업률 등 정보가 부족함. ▪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개설된 공모전이 부족함. ▪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 알 수 없음. ▪ 현재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기업을 잘 모른다. ▪ 요즘 취업의 문이 높아져 취업을 하기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 취업선배들 초청 특강이나 과에서 취업관련 특강을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설학과 특성상 졸업하거나 취업한 선배들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설명이 부족하다보니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접할 수 없다. ▪ 졸업 후 진학에 대한 정보가 적음 ▪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융합 교육이나 산업계와의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대학의 자율운영 부족, 적극적인 학사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 학과 자체적으로 취업을 위한 길잡이 역할 및 정보제공이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 수업이 대부분 문학과 관련돼있음 ▪ 대학생활설계 과목 내용이 실제 진로 설정에 도움 되지 못함 ▪ (구체적X, 특정 진로 희망 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 어려움) ▪ 과의 특성상 진로 관련으로는 멘토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학생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움을 청할 곳이 딱히 없음. ▪ 학생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학과사무실과 학생회 그리고 학생까지 3자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문제임. ▪ 수업이 대부분 문학과 관련돼있음 ▪ 대학생활설계 과목 내용이 실제 진로 설정에 도움 되지 못함 ▪ (구체적X, 특정 진로 희망 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 어려움)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받지 못함
- 취업한 선배들과 학부생들 사이의 중간 다리가 부족해서 취업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 때문에 취업특강이 비교적 적은 것 같다.
- 수학과끼리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과 동아리도 비활성화 되면서 학생들끼리 교류하는 것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듯함
- 선배님들께 정보를 받을 곳이 없음
- 정보를 얻기 어려워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쌓임
-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보이고, 많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점이 부족함
-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코로나로 인해 선배들과의 만남이 적어지고 소통할 계기가 부족해지면서 선배들의 많은 경험과 취업관련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는 것 같다.
- 본인이 속하는 학과의 선배들이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떤 교육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을 거쳤으며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경로를 학교에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학고 학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고 직접 찾아야만 하는 정보들이 많아서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 취업 및 진학을 위해 필요한 기업 소개, 취업 준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학교 혹은 학과 측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 - 취업을 위한 특강이 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건이 잘 되지 않아 열어주지 않거나 참여율이 적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진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자세히 제공되지 않는다.
- 교수님이 학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주기에는 시간상 여건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자료를 직접 모으는데, 막상 고학년이 될수록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아무리 자료를 모으고 찾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고 한다.
-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것 같음. > 학과 홈페이지가 잘 활성화되지 않음
-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 부족함.
- 학과차원의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취업 관련 지도와 상담, 강연 등의 제도가 부족함.
- 특히 저학년을 중심으로 선후배 간 소통이 끊겨 비슷한 진로를 가진 선배와 이야기 나눌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편을 토로하기도 함
- 전공 특성상 관련된 일들을 찾아보기가 타과보다 어렵다.
- 예체능 계에 대한 취업 진학 설계가 부족하다.
- 예체능 관련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외부활동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이지 않다.
-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 취업에 도움 되는 정보가 부족함
- 클래식 실기 전공자에게 주어진 취업의 길이 적은데 전공을 살려 할 수 있는 많은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적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는 전공생들이 많음
- 교육과정 특성상 기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취업에 관한 부분이나 현실적인 방면에 대한 정보가 적다고 느낌.
- 너무 다양한 전공을 배우다 보니 오히려 취업 면에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됨.
- 자신의 꿈이 확실하지 않거나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에 대해 불명확한 계획이 있는 경우가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많음. ▪ 특수전공인 만큼 인원수가 적어 갈 수 있는 길이 적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 학과 강좌가 성악에만 집중 되어 학생들이 그 이외의 진로를 알기가 어렵다. ▪ 다른 학과에서는 국내시험 등등의 통계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졸업한 선배들의 정보, 자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2022학년도부터 가족주거학과에서 주거환경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되면서 기존 가족학, 주거학으로 나뉘었던 트랙이 가족학을 제외하고 주거학 단일 전공으로 자리 매김함. 학과 개편 후 단독 트랙으로 변경된 만큼 학생들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기대하지만, 학생들의 높은 기대감에 비해 정보의 장은 턱없이 부족함. ▪ 취업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음. ▪ 과 홈페이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최신 경향에 맞는 정보의 부재 ▪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 취업인 데 비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와 방법이 적다고 느껴짐 ▪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고, 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들과의 교류가 없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학원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정보가 부족함 ▪ 정보를 교류할 졸업하신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부족함 ▪ 대부분의 신입생은 임용고시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정보를 찾아보지 않음 ▪ 정보 수집의 창구가 부족함 ▪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사범대 소속이지만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와 관련 수업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임. ▪ 외식산업 트랙 선배님들의 취업정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학과 졸업 후 취업가능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임. 코로나 이후 선후배간의 교류가 사라져 선배들이 진학한 곳을 알지 못함. ▪ 학생들이 직접 찾는 노력의 부재도 있으나, 학과 특성상 직업이 한정적이라고도 생각이 듬. ▪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 교수님들이 소개해주어도, 하고자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음. ▪ 어떤 분야에 대해 배우고 취업하는지 간단한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취업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 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진학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경로가 많이 없다. ▪ 현재 학사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학생들의 전공에 관한 관심 부족,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요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발생한 것 ▪ 취업, 박람회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 접하기 어려움 ▪ 학생들의 관심도가 점차 떨어져 취업 정보와 같은 정보들을 전해주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해결방안	▪ 학교 측에서 선후배끼리 잘 어울려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교수님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수업 시작 전 수업 종료 후 도움되는 프로그램들과 연결시켜 주신다면 좋을 거 같다. ▪ 학과에서 알림단 같은 걸 만들어 매달 취업,진학,공모전에 대한 자료를 알려주는 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임했으면 한다. ▪ 취업한 선배의 스펙을 공유하여 어느정도의 위치의 기업을 갈 수 있고 어떤 기업에 많이 가는지의 정보를 더 제공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불안감을 해소 할수 있을 것 같다. ▪ 취업에 도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 후배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분기별로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 실제로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 학과 사무실이나 학생회 주도 하에 기업이나 취업한 선배들을 최대한 초청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 OT시간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 시험을 만들어 앞으로의 수업과 시험 방향을 잡아야 함.
- 학과홈페이지나 스마트출결앱을 통해 알려주거나 학과게시판에 자주 공고해야 함.
- 새로운 진학결과를 알 수 있는 수업 혹은 졸업생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 간 융합, 대학과 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취업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학과사무실이나 교수님들이 신경써야 함.
- 역사학과 자체적으로 취업 특강을 준비하여 홍보 및 진행하기도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할 학생회나 학과사무실 등이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취업 선배와 교류 프로그램
-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과목인 '서양어문학과 진로개발'이라는 강좌를 재개한다면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도움 될 것임
- 마찬가지로 '글로벌 문화콘텐츠와 항공서비스영어' 과목처럼 실무적인 과목을 개설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가능함
- 다양한 분야에 취업한 선배님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음.
- 취업한 선배님들께 강연을 부탁하는 등, 여러 조언을 들을 자리를 마련한다.
- 취업 선배와 교류 프로그램
-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과목인 '서양어문학과 진로개발'이라는 강좌를 재개한다면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도움 될 것임
- 마찬가지로 '글로벌 문화콘텐츠와 항공서비스영어' 과목처럼 실무적인 과목을 개설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가능함
-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진로 옵션을 조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을 도입해야함
- 전공과목에 취업과 연계된 수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졸업한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있다면 더 많은 취업의 폭을 알 수 있을 것 같음
- 취업과 진로에 관련하여 졸업 선배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학부생들끼리 서로서로를 이끌 수 있는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 전공에 대한 특강이나 진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고 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전공의 특성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된 과목을 더 개설한다.
- 예체능 관련 진로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는 sns를 개설한다.
-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특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음악 취업과 관련된 교양 혹은 전공과목 개설하는 방안
- 실제로 영남대학교 기악과 피아노전공을 졸업을 하고 음악활동 또는 관련 일을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을 초청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방안
- 취업 특강을 통해 관련된 정보나 과정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임.
- 직접적으로 실제 우리 과를 나온 선배와의 멘토링과 같이 다양한 취업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많은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졸업한 선배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작은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 학과 전공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자 및 현직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경험담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함
- 학과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격증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함
- 학과 관련 취업 및 진로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취업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함. 건축학과나 건축디자인전공, 조경학과 등 학과 전공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학과와 연계해 취업강연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학과 홈페이지에 진로 관련 항목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딘 편이고 다양하지 않음. 학생들이 학과 정보를 얻기 위해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인 만큼 학과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학과 홈페이지의 정보 업데이트
- 졸업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과 측에서 취업설명회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가 단순히 1~2번에서 그치지 않고, 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취업에 대한 설명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 학과와 관련한 취업정보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사이트 구축이 어렵다면 해당 정보가 있는 사이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함
- 학과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 그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구축된다면, 사실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해져 현실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
-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마다 졸업하신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소통할 기회를 가짐
- 수학교육과 익명 질문 커뮤니티를 개설해 소통창구 만듦
- 임용 합격자들이 학교에 와서 임용고시에서의 주의사항 및 팁, 임용 공부하는 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짐
- 임용고시가 어렵지만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
- 고 로드맵을 제시
- 두 달에 한 번 학교에서 재직중인 선배님을 초청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짐
- 임용과 관련하여 지도안 짜는 방법, 판서 방법과 관련한 수업도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음.
- 취업프로그램이나 스터디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면 좋겠음.
- 선후배간의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함.
- 올해는 시기가 맞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학과 전체가 농업관련 취업박람회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취업 설명회나 조경을 주제로 한 답사를 자주 다녔으면 좋을 것 같다.
-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의 다양화
-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알맞은 진로를 제시해주고, 관심이 없는 학생에게도 지속적으로 진로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강의 혹은 강의 수업을 통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음
-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잘 보이는 곳과 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하면 좋

1. 진로 취업 정보 부족 13.5%	
	겠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과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음 ▪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게 정리해, 학생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음 ▪ 몇 년 동안의 취업 분야, 이 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의 전공, 대외활동,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게시물로 알리거나 책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졸업생이 학교에 취업현황을 알려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 과의 학사제도를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면담 기회를 만들어 부담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 수업시간 혹은 건물게시판, 카카오톡 단체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최신화되는 정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 - 특강에 대한 홍보도 많이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제를 특강으로 세워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교 홈페이지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학과 자체 홈페이지를 활발하게 운영하여(학생회 측에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공지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즉시 하고, 어플을 따로 만들던지 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수월했으면 좋겠다. ▪ 현재 나는 '진로코칭프로젝트'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연구원에 대한 현재 트랜드와 준비 방법,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등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아직 1학년이라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큰 편은 아니지만 혼자 취업에 대한 미래 걱정을 할 때보다 교수님께서 정보를 제공해주시다 보니 훨씬 수월하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미리 준비할수록 나중에 편할 테니 지금부터 정보를 모으는데 확실히 전문적인 분의 도움의 손길의 효과는 확실한 것 같다. 학교 측에서 이러한 강좌를 늘려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러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취업을 한 졸업생과의 멘토-멘티 활동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산전수전 직접 겪으며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선배님과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에브리타임' 외에 졸업생이 있는 커뮤니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이라 어느 것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익명이라도 자신이 취업한 직장의 이름을 공개하여 타 취준생들과 대화하는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사용된다면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학과 홈페이지 활성화에 노력하고, 생명과학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패스과목)등이 더 많이 개설되었으면 함. ▪ 취업설명회처럼 자율참석으로 하면 정작 들어야 할 학생들은 혼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음. 따라서 복수전공에 대한 설명회나 포괄적인 취업설명회는 1, 2학년부터 강제로 참석시켜야 함. ▪ 취업 관련 지도와 상담, 강연 등 취업연계제도를 재정비해야 함 ▪ 향후 진로를 고민할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분석 및 채용 관련 안내, 그 기관 취업에 필요한 준비과정 등 ▪ 비슷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간의 스터디 필요 ▪ 취업한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전공 관련 전문가의 강연 진행 및 취업 현황 통계 공개 등 ▪ 학과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함 ▪ 취업연계와 관련된 특강 및 강의를 신설해 취업 기관과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2. 진로취업프로그램 3.2%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 멘토링 있다면 취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함. ▪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 기업 설명회, 기업탐방 등 기업과 관련된 설명만 많이 진행하고, 공정실습과 같이 원하는 직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 취업과 진학을 위한 사후 제도가 부족함. ▪ 학생들의 정보력 부족과 오로지 작가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 가장 큰 문제임. 취업의 방향성과 직종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실제 현대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임. 또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하는 사회의 흐름에서 하나의 전공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인턴십 기회가 소수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인턴십을 가기를 희망하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며, 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실무 체험, 현장체험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부족함.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거나 결정할 수 있는 특강이 부족함. ▪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실무 체험, 현장체험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부족함.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거나 결정할 수 있는 특강이 부족함. ▪ 무용강사로서 문화예술사로서는 커리큘럼이 잘 짜여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용수로서의 실기 역량 향상과 졸업 후 취업 불안정 ▪ 졸업을 하고도 취업의 길이 다른 타과에 비해 너무 좁다 ▪ 1학점, 2학점 전공과목들이 많고 복수 전공은 할 수 없는 시간표이며, 취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부족하다. ▪ 취업, 공모전, 대외 활동 및 비교과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홍보가 적다. ▪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하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만 막상 임용고시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음 ▪ 과내에서 직업,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 ▪ 취업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외활동 등 교외에서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짐. ▪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취업특강을 듣고 싶어도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해결방안	▪ 단기간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함. ▪ 취업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설(공정실습, 실제 직군을 설명해주는 강의 등). ▪ 홍보를 좀 더 활발히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있는 시간이나 수업 간의 공강이 많은 시간에 특강을 만들거나 참여에 대한 메리트를 만든다면 더욱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갈 것 같다. (예시로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참여할 때 수료증을 주며 교환학생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과 진학을 위한 사후 제도가 부족한데, 교수님들의 관심과 예산 및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 같음. ▪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음. ▪ 회화과 졸업이 곧바로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특강 혹은 이론및 실습 수업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양한 방면의 취업과 관련된 융합, 연계전공의 종류를 확대해야 함. ▪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인턴십을 체험하여 취업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음

2. 진로취업프로그램 3.2%	
	▪ 교수님이나 체육학전공 졸업생 초청 강연 등, 또는 대구/경북 지역의 구단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장실습을 통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 교수님이나 체육학전공 졸업생 초청 강연 등, 또는 대구/경북 지역의 구단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장실습을 통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 취업과 관련된 강연 추진 ▪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취업 관련 공모전 및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 임용고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직업, 취업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함. ▪ 다양한 분야의 취업특강 또는 대외활동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전공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취업의 질 문제/ 특정 경로(임용)만 지원 3.0%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현황을 보면 졸업 후 진로가 다양하지 않다 ▪ 너무 자연에 대한 학문을 다루어서 그런 듯 함 ▪ 수학 선생님이라는 분야로만 진로가 정해진 느낌이 강함 ▪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대부분 정해져 있음. ▪ 다양하지 않은 취업 분야로 인해 복수전공자들이 많아짐. ▪ 우리 학과 취업 방향(연구원 등)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함. ▪ 임용고사를 제외하면 취업의 폭이 넓지 않다. ▪ 취업 정보가 교사나 교육공무원에 치중되어 있어 교사와 공무원 이외에 교육과 관련된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임용과 관련해서 특강이 열리는 경우는 많으나, 창업, 체육회 등의 특강이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임용고시에서 채용하는 교사의 수는 적은데다,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짐 ▪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임용 고시 자체에서 교사들을 적게 채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 ▪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음 ▪ 많은 분들을 초청해 와서 취업 관련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데, 강의 주제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 한정되어 있음. ▪ 유아교육과로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 주제를 너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함. ▪ 산림은 산림 분야 및 공무원으로 많이 취업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방안으로 나가야되는데 한쪽으로 몰려서 문제인 거 같음 ▪ 산림분야의 세분화가 잘 되어있지 않음
해결방안	▪ 심화실습에서 다양한 활동, 회사들을 많이 경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다른 과랑 합친다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음 ▪ 생명과학과의 취업 방향이 한정적인 것은 학문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부. 복수 전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하나의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임용을 준비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기초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실무 위주의 역량 수업)

3. 취업의 질 문제/ 특정 경로(임용)만 지원 3.0%	
	▪ 임용에 붙지 않거나 졸업 후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과 특성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관련 강연을 주최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교사의 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졸업생을 초청하여 강의를 하거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예: 공무원/공기업 취업 멘토링) ▪ 우리 학과가 너무 한정된 영역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리 학과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전공을 가진 학과와 교류를 한다거나, 그 교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면 좋을 것 같다. (뭘 이루면 좋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연구처럼 학문과 관련된 것이었으면 한다.) ▪ 과에서 주도하여 교사 이 외에 다른 분야에 취업한 선배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취업 관련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음 ▪ 다양한 진로와 관련한 특강을 많이 준비해줬으면 좋겠음. ▪ 학생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취업 안내 책자 마련 ▪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데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는 환경 마련 ▪ 유아교육과에서 교사가 아닌 관련된 취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복수전공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유아 관련 회사나, 다른 길을 선택한 선배님들의 강의 진행. ▪ 유아교육과로 진학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향에 대한 정보와 활동 제공. ▪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다른 여러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교사 외의 직업을 가진 졸업한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강의 진행. ▪ 학과의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 방안을 통해서 취업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거 같음 ▪ 복수 전공 등 세분화를 좀 더 확대하고 홍보해야한다.

4. 전공 살린 취업 어려움 2.8%	
현황 및 문제점	▪ 전공을 활용한 취업 기회가 명확하지 않다. ▪ 우리 학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이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인 만큼 언어 능력 하나만으로는 취업이 힘든 것 같다. ▪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철학과 학사제도에만 따라가면 취업에 힘듦이 생긴다. ▪ 수학과를 졸업하여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거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알고 싶음. ▪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자기 주변의 선후배, 학우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 보다 공무원 시험 등 전공과 무관한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점차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껴지면서 전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의견을 제시함 ▪ 전공의 특수성이 너무 강해 취업처가 제한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사회학을 살려 특정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이 없는 현실 때문이라 판단 ▪ 편입생들이나 고학년에 대한 학과 생활 적응 기반 마련 부족 ▪ 학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약 70%이상인 것에 비해 여학생의 취업이 비교적 어려움. 주로 종자 및 비료회사는 영업직으로 남학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연구직의 경우 학부 졸업으로는 힘들고 석박사를 요구함. ▪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학과의 특성상, 성적에 맞춰 진학한 학생들이 많음. ▪ 문과계열 학생들이 이과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학과에 흥미를 잃음.

4. 전공 살린 취업 어려움 2.8%	
	▪ 학점을 잘 받는것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함. ▪ 실험실과 전과자가 많아 타과보다 취업속도가 느린 듯하다
해결방안	▪ 먼저 전공 수업을 통해 얻어간 지식을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카테고리로 실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어야 함.(강의 OT시간에 하였으면 함.) ▪ 전공과목에 취업과 연계된 수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선택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자과 전공을 살려 취업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고 그 경험담들을 듣고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게 전화상담이나 메신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음(전공을 살려 취업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먼저 들어보고 다른 경험담도 들을 수 있게) ▪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각 학교 학생회나 교수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날짜를 정해서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기제를 하여 실명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참석과 불참석을 정해서 들으면 함. ▪ 직업, 취업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함. ▪ 지도교수님이나 교수님과의 1:1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은 어떠한 커리큘럼을 밟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줌. ▪ 여학생들이 취업가능한 연구원, 공무원, 농협 등 재학기간 중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방향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해야함. ▪ 학점을 잘 받는것도 좋지만, 자신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강의를 제공 ▪ 학생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학과 자체 기초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 전공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전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음.

5. 진로취업 상담 2.1%	
현황 및 문제점	▪ 취업 및 진학에 대해 담당 교수 및 과 관련 교수와의 상담, 대화를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다. ▪ 학과에 사람이 너무 많고 전공도 다양하기 때문. ▪ 대형과이기 때문. ▪ 과 자체의 취업프로그램 부족, 홍보 부족,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이뤄짐. ▪ 취업할 때 취업 상담 시간을 잡기가 어렵다. ▪ 취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해야하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함. ▪ 담당 지도 교수님과 소통 및 교류가 적어서 취업 등 학생의 진로에 대해 상담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학과 교수님과 언제,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로상담을 위해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을 잡기에 부담스러움. ▪ 취업과 관련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 교수님들이 다 봐줄 수 없으니 관심이 부족함
해결방안	▪ 3학년부터 전공 수업 등을 통해 수업 전에 취업에 관한 어울림, 취업센터 등에 대한 활용방안 안내가 있었으면 한다. ▪ 정기적으로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 수업을 한다. ▪ 취업프로그램, 과행사 적극적으로 홍보, 개설 요망

5. 진로취업 상담 2.1%	
	▪ 취업 컨설팅 사람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 이 문제는 학생 본인의 각오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언급을 해주고 교수님과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더 늘려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하여 각각의 분야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 ▪ 지도 교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면담 필요.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중 교수님과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 많았음 ▪ 학생들과 교수님 간 서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수강 신청 전에 수강 꾸러미를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졸업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수님과 학생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생성 ▪ 선후배간의 과 동아리 형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이 너무 많아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지는 관심이 부족하여 1:1혹은 익명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과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과 내의 선후배 사이 프로그램 개설 된 것을 알리고 졸업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짧은 강연이나 시험 및 기업 취업 후기 같은 만남이 지원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이 힘들다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6. 진로취업 과목 0.5%	
현황 및 문제점	▪ 취업관련 수업 부족함 ▪ 전공과 관련된 수업들이 많아 시간이 부족함. ▪ 잘 모르겠다. 보통 타 대학 같은 경우 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
해결방안	▪ 학점 취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의 증설. ▪ 자료를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계과 특성상 갈 수 있는 현장의 범위가 넓은 편인데(플랜트, 자동차, 선박 등) 우리 과가 어느 현장을 가는 데 이점이 있는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7. 기타 지원 부족 2.3%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학교에 비해 취업에서 경쟁력이 될만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 같다 ▪ 현장실습이 졸업조건이지만 학교에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안함 ▪ 현장실습 신청시 학과에서의 지원 부족 ▪ 개별적으로 사무소를 알아봐야하는 것이 문제 ▪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터디나 학회의 개설 및 지원이 부족함. ▪ 향후 취업을 위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부족하며 학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과 동시에 재정도 부족하여 활동이 늘지 않고 점차 축소되는 것처럼 보임. ▪ 취업 및 진로 지원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함 ▪ 학년 영양사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업체나 장소를 학생이 직접 컨택해야 함. ▪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만, 대학생인 개인에게 급식업체의 협력을 받아내는 것은 큰 부담임.

7. 기타 지원 부족 2.3%	
	▪ 교환학생 등 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 참여 불가능 ▪ 교수님들의 수가 적어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들을 모두 다 진행하기 어려움 ▪ 선배들이 취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음 ▪ 코로나 19의 여파로 선후배간의 소통이 줄어듦
해결방안	▪ 학과 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회사와 연계하려고 하거나, 실습에 관한 졸업조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생각함. ▪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전공 필수 또는 선택으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 수에 맞게 현장들을 섭외하고 연결시켜 주었으면 함. ▪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얻는 능력을 갖도록 처음부터 공지를 해주거나 실습 과목 자체를 이론과목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실습비를 학교 차원에서든 등록금에서든 지원을 해야한다. ▪ 학회나 스터디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림.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공 관련이나 취업 연계 동아리 및 스터디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 ▪ 이를 학과에 보고하면 일정한 평가기준을 거쳐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 취업 및 진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및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충남대의 경우,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 장소를 제공함. ▪ 실습 현장과 학교 간의 거리가 가까워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업 급식 업체에서 하는 실습이므로 실습 환경이 아주 우수할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 또한 차이가 날 것임. ▪ 차별화된 대학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학교의 지원이 필요 ▪ 경북대와 성균관대 역시 특정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본교의 위상과 명성을 위하여, 더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영남대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 지금보다 더 많은 교수를 채용해야함. ▪ 학생회에서 선후배의 소통을 늘리고 졸업한 선배들을 초대해 질의응답시간 진행해야 한다

7) 기타 학교생활

1. 학사정보 안내 미흡 3.4%	
현황 및 문제점	▪ 학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았음. ▪ 학과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학생이 찾아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 많다. -> 처음에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 학생들이 전공 연계 활동이 뭐가 있는지 잘 모름. ▪ 학생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신청기한이 지난 후 알게되는 경우가 많음. ▪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너무 적음. ▪ 학사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 소식란에는 하루 평균 2개씩 공지가 올라오기에 찾고 싶은 자료를 찾는 데 오래 걸린다.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 사회복지 연계전공과정을 비롯해 해외전공현장실습 기획 경진대회, 해외 파견, 특강, 포럼 등 세부 장소와 일정에 대한 공지가 부족하거나, 변경이 잦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함.

1. 학사정보 안내 미흡 3.4%	
	▪ 학생들이 소식을 직접 찾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함 ▪ 타 단과대학에 비해 시험 시간표가 너무 늦게 공지됨. ▪ 단과대 행정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보임. ▪ 학사제도를 보기 쉽게 알려진 곳이 부족하여 학과 SNS의 공지가 필요 ▪ 교수님들이 학과 단톡방 같은 사적인 곳에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부,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공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음 ▪ 부,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나 상담을 할 사람이 많지 않음 ▪ 가끔 시험 일정이 시험 일주일 전처럼 너무 직전에 뜬다. ▪ 일정 조율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거나 시스템상의 오류
해결방안	▪ 학교 자체적으로 겨울방학 등을 기점으로 활발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임. ▪ 도전학기제 관련하여 발표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학사제도만을 다루는 설명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좋은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래서 학과에서 적극적 홍보가 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LMS공지나 스마트출결 활용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지와 홍보책을 늘린다. ▪ 여러 대회나 학사 제도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도로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취업, 진학에 대한 많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취업에 관한 설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들 지나가다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과 건물 내에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 대생설과 같은 과목 설립 필요 ▪ 졸업제도, 부·복수 전공, 시험, 대외활동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만들어 게시한다면 찾고 싶은 자료의 확인이 쉬울 것 같다. ▪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사전 공지를 통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교내 행사를 알릴 때처럼 학과 행사나 정보도 스마트출결 푸시 알람을 통해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 학생회와 학과 사무실 차원에서 다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고, 궁금해할 만한 소식들은 따로 정리해 여러 차례 공지해주길 바람 ▪ '시험 기간의 시작 날짜 기준 최소 2주 전 시험 시간표 안내'라는 가이드라인 제정 ▪ 시험 기간 정확한 날짜 설정 ▪ 학과 SNS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접근성있게 홍보가 가능함. ▪ 학교 측에서 학사일정 관련한 안내 방법 마련 필요 ▪ 학기에 한 번 정도 부, 복수 전공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음 ▪ 예를 들면 시험기간 2주 전 월요일 이런 식으로 일정을 공지하는 날을 정한다.

2. 장학금 관련 0.3%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에 대한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학생장학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학과 내 너무 많은 인원들에게 수혜를 나눠주기 위해라고 생각함 ▪ 영남대학교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보가 없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함.
해결방안	▪ 소득분위 등 학생들에 뒷배경에 의거하지 않는 장학기준이나. 열심히 하려는 학우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2. 장학금 관련 0.3%	
	▪ Y형 폴리매스, 학교 홍보대사/국제 홍보대사/방송부, 학생회, 모니터링단 등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활동을 정리한 책을 나누어주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뿐더러 장학금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됨

3. 학생 의견 청취 부족 0.3%	
현황 및 문제점	▪ 사람들이 체육학전공 홈페이지를 잘 찾지 않고 있고, 따라서 홈페이지 활동도 멈춰있다. ▪ 체육학전공의 홈페이지가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해결방안	▪ 홈페이지 담당자를 정해 홈페이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과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학과 학생들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4. 만족/없음/모름/기타 8.7%	
현황 및 문제점	▪ 대체로 만족 ▪ 타 대학 전기공학과 대비 20만원 가량의 계산기가 필요하다. 물론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고 특정 과목은 소수점을 10자리 넘게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i 계산기가 필요하다. ▪ 취업 시, 서류나 면접 등에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것 같다는 우려 ▪ 5개의 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을 일정 이상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타 학과 학생으로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것은 같아, 여석이 부족한 경우 수강 신청하기 어려움 ▪ 학교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 ▪ 문제점이 없다. ▪ 계절학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전공과목이 폐지되어 전부 취소됨. ▪ 종강 후 바로 계절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 계절학기 가격이 비쌈. ▪ 계절학기에 듣고 싶은 강좌가 없음. ▪ 계절학기 수강인원이 적어 학점을 따기 불리할 것 같음. ▪ 우리 학교와 타 대학 학사일정이 달라 수업을 놓쳐 불합리한 경험이 있었음. ▪ 특정 학과에만 인턴 활동이 몰려있어 아쉬움. ▪ 부·복수전공자와 편입생이 많은 과 특성상 고학년 수업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 그래서 수업계획서와 달리 수업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팀플수업을 할 때에는 기존 전공자들이 많은 양의 과제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2학년때 세부전공으로 나뉘어서 타전공과의 연결 부족 ▪ 시험 채점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점수만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시험지가 채점되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다수임. ▪ 학생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학과사무실과 학생회 그리고 학생까지 3자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문제임. ▪ 교직이수의 성적 제한으로 성적을 잘 받는 학생만이 성실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음 ▪ 저학년이라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겠다 ▪ 학과 학사제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점을 잘 모르겠다 ▪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4. 만족/없음/모름/기타 8.7%	
	▪ 학교에서는 비정규과목이라는 것을 편성하여 온라인 강의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이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해 선배를 통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내용도 많이 있다. ▪ 프랑스어문학과는 보통 문법과 회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대부분인만큼 1학년때부터 이어진 커리큘럼을 꼭 수강해야만 따라 올 수 있는 과목이 대다수임 하지만 부·복수전공자와 편입생이 많은 고학년 수업에는 전공 기초 지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1학년때부터 전공 수업을 해온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음. 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수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전공 기초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기본지식들을 설명하며 수업하기에는 전체적인 수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함. 그래서 수업 내용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게다가 이러한 학생들이 섞여 수업을 할 때 조모임을 하면 학년때부터 전공 수업을 해온 학생들이 더 많은 양들을 맡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문제 들이 발생함. ▪ 통계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통계학과 전공, 수학과 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기타 과목들을 모두 수강해야 한다. 4년 동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다른 과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 교직이수는 부/복수 전공처럼 전공학점을 줄여주지 않는다. ▪ 교직이수를 하며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직 전공 수업이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교직이수 하는 학생들이 타과에서 교직이수하는 학생들보다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 ▪ 수학 교직이수를 위한 전공 과목이 수학과에 열리는데 이 타전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과 태도임.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해보며 인성과 태도 부분이 많이 결여된 채로 단체 생활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음. 학업성취도 이외에 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편입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편입생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편입생들은 졸업을 위해서는 63학점이라는 전공학점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재학생들보다 부족한 전공학점과 급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시 재학생들이 신청을 다 하고 남은 여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 이마저도 여석이 많지 않아 남은 여석을 두고 편입생들 끼리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 ▪ 현장실습을 경우, 재학생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현장실습을 처리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편입생은 일반학점으로 받아야하는 차별이 존재 ▪ 학생들에 따라 시간이 안 맞을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참여하라 하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잘 고려해주지 않음 ▪ 부·복수전공자와 편입생이 많은 과 특성상 고학년 수업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 이런 학생들이 다수로 이루어진 수업에는 전체 수업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수업계획서와 달리 수업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팀플수업을 할 때에는 기존 전공자들이 많은 양의 과제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계절학기 전공 과목이 전혀 개설되지 않는다. ▪ 세부 성적을 알지 못하여 성적의 투명성이 없음
해결방안	▪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한 해서는 학과의 지원이 필요하다. ▪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임. 절대 취업 전 거치는 곳으로 고착되어서는 안됨. 이런 의미에서 위의 융합전공은 오히려 환영 받아야 마땅한 제도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 때 이수한 과목의 분야가 폭이 워낙에 넓으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함. 융합전공인 만큼 돌아본 학과를 바탕으로 융합하는 활동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학생의 융합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4. 만족/없음/모름/기타 8.7%

- 실습 수업의 경우 다른 방안을 고안해야겠지만, 강의식 수업의 경우 수강 인원이 모두 찼을 시, 이메일로 별도 수강 신청을 해도 인정될 수 있도록 융합전공 제도 중인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할 것임.
- 계절학기를 종강 후 시간 간격을 두어 개설하고, 전공과목이 폐지되지 않게 계절학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원을 충당한다면 인원이 많아져 학점을 따기에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 타과 여석을 만들어 다른 학과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만든다면 폐강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홍보 방법으로는 스마트 출결 쪽지,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으로 홍보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학교와 학사일정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음.
- 도시공학과도 학점인정 인턴 활동이 많이 생겨 전문성과 진취성을 기르고 싶음. 또한 우리 학과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한 특강을 개설해서 보강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음.
- 고학년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다른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수강신청 이전, 졸업이수조건 및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을 공지
- 전공을 굳이 나누지 않고 학생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소재공학부와 융합하여 2차전지나 연료전지와 같은 전문화된 과목을 개설한다. 또한, 자동차학부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된 프로젝트 협업을 한다.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끝나면 각 시험마다 시험 채점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줌.
-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인 경우 원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채점결과를 공개함.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틀린지 알고 보완할 점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 또한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해 시험친 부분을 다시 리뷰하여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고정관념을 바꾸고 학교에서도 성적순이 아닌 진짜 교직 이수를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함
- 화학과 과동아리인 '화생방'은 멘토-멘티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배들께서 1학년들 모르는 질문을 받아주신다. 나 역시 그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고, 일반화학 중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배들께서 도와주셔서 문제 풀이에 대한 꿀팁과 교수님들의 문제 성향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과 말고도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서로 교양과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같은 교양과목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이다. 이러한 활동을 학과나 단과대 범위를 넘어 학교 전체에도 만들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 프랑스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활용한 특강을 개설해서 보강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음.
- 고학년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 프랑스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다른 수업과 병행하며 해당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직이수를 하게 되면 관련 교과의 필수 이수 전공분야 7개 이상(21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전공을 듣는 만큼 전공 졸업학점을 줄이면 부담스럽지 않게 교직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타전공 인정 과목을 증가한다.
-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와 같이 수업 태도나 단체 생활 결여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수강신청 시간을 재학생과 편입생을 동일한 시간으로 하여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거나 재학생의 불만이 있을 경우, 교수님의 권한 하에 편입생들을 위한 여석이 수업마다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

4. 만족/없음/모름/기타 8.7%	
	▪ 특히 전공핵심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핵심 수업의 경우 편입생들을 위한 여석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 ▪ 신청을 받고 신청 인원만 참여하도록 함 ▪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한 특강을 개설해서 보강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음. ▪ 고학년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에도 전공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 반을 따로 개설하여 다른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전공선택 수업은 계절학기 수업으로 개설이 필요하다. ▪ 중간, 기말, 과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6. 융합 및 연계 전공 설계 방안 제안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컴퓨터공학과 8.4%

- 컴퓨터공학과와의 융합 과목으로 새로운 생물정보학 분야의 전공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다.
-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님들에게 더욱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 같음
- 시각디자인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융합하여 서비스 개발을 진행, UI/UX에서 서로에게 윈윈인 수업 개설 가능
- 개발자들과 소통하며 앱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경험이 필요하다. 취업 시 어플리케이션 출시 경험이 중요한데 학과 내에 기회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취업을 한다면 실무에서 굉장히 큰 장점, 경력이 될 것
- 4차 산업시대인 만큼 AI 와 관련된 학과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로봇공학과와 같은 학과와 연관지어서 전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컴퓨터 공학과-화학공학부도 ai를 다루며 공정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 이러한 분야를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코딩 수업 등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수학과+컴퓨터공학과(수치해석학 수업 연계) -> 산업수학(ex) 딥러닝 등) 같은 수학이 실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학습
- 컴퓨터공학과 융합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 아무래도 수학과 컴퓨터가 가장 연관이 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 수업이 3학년까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통계와 컴퓨터공학을 합친 빅데이터 위주 전공학과를 개설하면 좋겠다.
- 통계학과와 컴퓨터 공학이 융합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 파이썬, java, c++언어 등을 배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컴퓨터공학과 융합해서 배우게되면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그와 관련해서 더 폭넓게 배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통계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만큼 빠질 수 없는 두 분야이며, 통계학과에서 다루는 도구들에서 더 심화되어 컴퓨터공학적인 부분을 함께 배우면 실무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통계의 취업은 너무나도 넓어서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재무회계 같은 계열과 융합을 하면 더 다방면한 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접적인 수학 과목도 좋지만, 더 다양한 통계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여 분석기법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하여 전산물리쪽 강의 증가
-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하여 자연의 자료를 전산화하기
-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뭘 하는걸 좋아하다보니 컴퓨터공학과의 수업을 몇 개 가져와서 기계과의 수업과 적당히 섞어봤으면 좋겠다.
- 요즘은 컴퓨터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컴공에서 듣는 수업을 기계공학부 수업에 융합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컴퓨터 관련 전공과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계를 설계하여도 결국 프로그래밍을 해야하고 그를 위해선 프로그래밍을 배워야한다. 원하는 진로에 맞는 수업을 위해선 타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컴퓨터 공학과와 연계하여 반도체 관련 전공을 만든다.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안은 전공공부를 시작하는 학년때 학생들이 2 그걸 잘 짜서 할수있을지가 의문이여서 안될것같고, 융합전공은 여러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게 좋을 것같다 기계과에서는 . 컴공이랑 융합해서 코딩을 좀 배울수 있으면 좋겠다.
- 스마트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계과의 강의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으며, 컴퓨터 혹은 전자 관련 학과와 융합하여 최신 기술 관련 강의가 추가로 개설되기를 희망함
- 로봇공학과 학생들을 2학년 이후 소프트웨어 중점과 하드웨어 중점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맞게 컴퓨터 공학과 전기, 전

1. 컴퓨터공학과 8.4%

자, 기계공학과의 심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거나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어느 수업을 들으면 실무 또는 로봇개발에 도움이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꼭 로봇과 수업만 들어야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컴공과,기계과등 에 관심이 있는 과목이 있고, 로봇과 관련이 있다면 그걸 이수했을 때 로봇과의 특정 과목을 대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컴퓨터관련된 작업이 매우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공학의 전공일부과목을 융합연계해서 전공을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기공학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와 융합하면 좀더 깊이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 1학년 때 듣는 교필 과목 중 프로그래밍(컴공과)과 교류하여 코딩 위주의 전공이나 화학과와 교류하여 '복합성 전공'선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 컴퓨터 공학과와 융합하여 컴퓨터 비전에 관한 과목 증가
- 화학과 혹은 기계학과, 컴퓨터학과와 융합을 희망합니다.
- 컴퓨터공학과 (배워보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들음)
- 전자공학과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부터 기계공학과등 많은 과와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 학점도 인정해 주면 좋겠다
- 컴퓨터공학과: 현재 자율주행 방면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딩이 필수적이에요. 이에 코딩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하게 된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는 진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자율주행이 현재 뜨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컴퓨터 공학과와 융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젠 모든 기계를 만들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AI가 발전하는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기본 기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수업연계를 하면 좋은 인재들을 만들 수 있을것같습니다.
- 전기자동차가 전망이 좋은 만큼 전기전자 쪽이나 컴퓨터 공학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관해서 컴퓨터공학과 혹은 전자공학과와의 융합연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와 함께 자율주행 코딩 혹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전공을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자동차 공학과를 진학 한 후 한 분야를 정해 더욱 심오하게 공부를 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또한, 다른 학과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모든 직종들의 디지털화에 맞게 공학계열의 프로그래밍이나 통계쪽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지식이 있다면 복수전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경영학과는 보통 사무직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다루게 된다.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해서 '경영과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으면 한다.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교사가 된 후의 업무에 잘 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컴퓨터공학과 (이유: AI 시대인만큼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컴퓨터공학과와 융합
-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한 수학, 컴퓨터 전공과목 개설
- 컴공과, 전공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컴퓨터관련 학과와 통합해 컴퓨터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적 데이터 분석등
-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교육 수업 진행, 심리를 주로 다루는 교육론 수업 진행
- 컴퓨터공학과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컴퓨터를 이용해 정밀하게 그릴 수 있도록 융합한다.
-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코딩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수학이 쓰이기 때문에, 코딩에 대해서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배운다면 수학교사 이외 다른 분야의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컴퓨터공학과 8.4%

- 디지털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작업을 하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 컴퓨터공학과 외 기타 IT 전공과 융합하여 재미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수업 또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컴퓨터공학과와 융합해 컴퓨터교육을 사범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요즘 학교나 유치원에서 코딩 교육을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컴퓨터공학과, 주변에 생각보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고, 취업 후 업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코딩을 사용하는 학과와 교류한다.

2. 경영학과 5.8%

- 경영과 마케팅을 융합해 경영자나 외식산업컨설턴트로도 취업 가능함
- 마케팅론을 듣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타과생을 허용하지 않아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음. 때문에 다양한 전공들의 수업을 제한받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경영학과와 융합하여 음악 행정 기획, 음악 경영과 같은 수업이 개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학과 특성상 어느 학과와 융합해도 잘 융합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경영학과과 융합하면 좋겠다.
- 사회학과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강의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영 복수전공생들이 많은 만큼 경영 전공과 사회 전공을 융합한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 경영, 심리, 사회학과와 융합하여, 해당 학과의 과목과 연계하여 전공 학점 인정을 해주었으면 함.
- 경영학과와 융합해 마케팅 수업 강화
- 경영학과와 융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마케팅 업무에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또한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미디어 전공생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학과와 융합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고 creative 라는 전공 과목과 마케팅을 융합하여 세부 전공을 만들어 마케팅에서 미디어가 주는 좋은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전공 과목이 될 것 같다.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경영학과를 융합하여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 경영학과와 융합하면 마케팅과 광고를 동시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음
- 경영학과의 마케팅 수업을 전공 선택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학과로 융합해 마케팅 수업
- 경영학과나 마케팅 쪽을 합쳐서 소비자 심리학 전공이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음.
- 임상, 상담, 법 심리학은 비교적 자세하게 배울 수 있지만 산업심리나 소비자심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경영학과와 연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영어영문학과는 상경계열, 특히나 경영학과와의 복수 전공자가 많음.경영학과와 융합과목을 개설하면 좋을 듯 함
- 영어영문학과는 보통 경영대학으로 복수전공, 성적이 되지 않더라도 경영 쪽 수업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전공 수업 선택한다면 경영학과의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영어영문학과와 경영학과를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학도들도 실제로도 세부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많이 선택하고 영어와 관련된 지식,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모두 쌓을 수 있다면 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영어영문학과에서도 비즈니스 영어를 더 많이 도입하고 경영학과 수업을 영어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경영학과 복수 전공이 많은 만큼 상경계열의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면 좋을 듯함
- 언어학과와 경영학과를 융합했으면 함
- 수학과와 경영학과의 수업을 병행하여 수학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영대학과 융합해서 배우게되면 전공과 관련된 지식과 그와 관련해서 더 폭넓게 배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약사로 나아가는 진로를 고려할 때, 약학 지식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변리사와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학 전공을 토대로 다양한 진로를 탐구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

2. 경영학과 5.8%

을 통해 창의적인 경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약사로서의 진로에는 약학 지식 외에도 마케팅이나 변리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에 대해 약학 전공과 연계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약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약사로서의 진로를 고려할 때, 약학 지식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변리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학 전공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해와 기반을 구축하면, 학생들이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 경영학과에는 마케팅, 재무금융, 운영관리, 경영정보,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수업이 개설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는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재무회계 과목이 마지막이므로, 회계세무학과 부복수전공을 하거나, 타전공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금융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다면 경제금융학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복수전공이 아닌, 경영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는 연계전공이나 이중전공 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공 과 수업을 핵심적으로 듣되 그 외 관심있는 다른 전공 수업을 들음. 더 세분화된 전공위해 (회계세무학과, 통계학과 등) 융합
- 어문계열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사람들 다수가 무역학과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 같다. 무역에서도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가 필요한 시대인 만큼 어문계열과 상경계열의 융복합적인 전공이 나온다면 좋을 거 같다.
- 경제,경영학을 함께 배우고싶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의 주 협력국은 개발도상국이며 해당국가들은 경제,문화,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 나는 우리학과와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와 융합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 학과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개발하는 학과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의 문제점들을 두 학과가 협력한다면 더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로스쿨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약학과 관련된 법규과목을 배우긴 하지만 단 한과목뿐이며 여러 약학과 관련된 판례위주로 전공연계를 하게 되면 졸업 후에도 약사로서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경영학과랑 융합하여 스포츠경영을 배우는 것.
- 마케팅과 관련된 학과에 관심을 가짐
- 경영학과의 경영방법. 회계방법. 마케팅 방법 배우기
- 경영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한다면 우리 수업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경영적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경영학이나 마케팅, 혹은 미술 쪽의 타 학과와 교류하거나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 마케팅, 유통 관련은 경영학과 경제학과와 융합하여 브랜딩에 대해 배우는 강의

3. 전기/전자공학과 4.9%

- 전자공학과와 함께 융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 화학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융합해 반도체전문학과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 우리 학과에 반도체/이차전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주 많지만 우리 학과에는 반도체 과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도체/이차전지를 주로 다루는 전자공학과와 융합하였으면 좋겠다.
- 전자공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반도체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전자공학과의 전공인 반도체 공학실험, 반도체 공학, 전자기학 등 여러 과목들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
- 융합화학공학전공이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만큼 고분자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심화전공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 전자공학과, 현재 물리학과에서는 전자공학을 복수전공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물리학은 반도체에 대한 기초적인

3. 전기/전자공학과 4.9%

뿌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자공학은 결실을맺게한다고 보면 된다. 이 둘의 시너지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된다.각 학과 내의 학생들을 뽑아 직접 토론을 통해 융합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을 것같다.

- 전자학과에서 회로관련 강의나 컴퓨터 쪽에서 실험관련 프로그램 사용으로 강의를연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강의를 추가했으면 한다.
- 타 전기 전자 와 같이 융합하여 취업이나 타과 수업을 듣는 것을 장려 하였으면 한다.
- 단순히 기계도 전기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과와 같은 분야에 대해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좋겠다.
- 기계과와 전기 or 전자과와 접목이 되어 회로 공부를 같이하면 좋을거 같음
- 전기 전자 쪽 전공과 융합했으면 좋겠다 완전한 과의 융합은 어렵지만 전공 과정. 중간중간 전기 전자쪽의 교육 과정을 섞는건 가능할거같다
- 우리 학과와 전자, 전기과와 함께 하여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대한 수업이 생성되면 좋겠음
- 스마트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계과의 강의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으며, 컴퓨터 혹은 전자 관련 학과와 융합하여 최신 기술 관련 강의가 추가로 개설되기를 희망함
- 본인은 유기수 교수님 연구실의 학부연구생입니다 전기자동차에 . 들어가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인데 사실 기계공학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 수업들이 좀 듣고 싶은데 이처럼 본인이 공부하고싶은 분야가 있다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전공 학생설계학기 , 등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조금더 부담이 덜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학업계획서를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 읽어보신 후 승인해주시면 그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 전기차와 같은 전기 분야가 사람들의 관심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전기공학을 로봇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로봇공학과 학생들을 2학년 이후 소프트웨어 중점과 하드웨어 중점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맞게 컴퓨터 공학과 전기, 전자, 기계공학과의 심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거나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어느 수업을 들으면 실무 또는 로봇개발에 도움이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타 대학과 같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융합하여 전기전자학부로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안을 실시하면 전공 과목의 선택 폭이 넓어질뿐더러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좀 더 맞는 분야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자공학과랑 전기공학과는 융합하여 섞어서 배워야한다고 생각함. 실제로 서울권 대학들은 전기전자공학부가 많고, 실제로 예전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는 송배전공학, 전기기기 등 전기공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들음.
- 타 대학과 같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융합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전자공학이나 자동차공학, 반도체 화학 등 전기공학도가 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현대의 산업에 맞는 과목 개설이 필요함.
-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과 등과 함께하는 캡스톤 수업 등이 생겼으면 좋겠음.
- 전기공학과, 전기전자를 같이 배우게 되어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세분화하게 배우고 더욱 깊게 배우며 수업 선택의 폭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 현재 우리 학과의 인공지능/SW 트랙은 컴공과와 수업 교류를 하고, 반도체와 신호/통신 트랙도 각각 기계과나 전기과 등 비슷한 성격의 학과와 수업 교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전자공학과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지는 폭넓은 학과인 반면에 그 분야들을 전부 학과 내에서 다루려다보니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을 더 많이 모시거나 아니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전자와 전기공학과를 다시 합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와 전자공학과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초는 같기에 1, 2학년 수업은 같이하며 이후의 과목들은 선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기자동차가 전망이 좋은 만큼 전기전자 쪽이나 컴퓨터 공학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자공학과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의 회로설계 등과 같은 분야의 전공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기 자동차와 자율 자동차에 대해 배우는 입장에서 전기, 로봇등과 같은 학과와 전기전자 과목이나 코딩 혹은 제어 과

3. 전기/전자공학과 4.9%

목 등에 대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와 함께 자율주행 코딩 혹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전공을 만든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로 변화함에 따라 기계적 지식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소프터웨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기에너지 전공과 융합하고 싶다. 융합화공전공에서 들을 수 없는 전공인 배터리관련 수업은 타과가 들을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다. 융합한 학과에 존재하는 원하는 전공 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전공학점으로 채워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 통계학과의 프로그램 관련 수업이 정보통신 공학과와 융합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 중 더 탐구해보고 싶다면 부·복수 전공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C 프로그래밍과 같은 정보통신 공학과의 전공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점은 전공 선택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
-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과 등과 함께하는 캡스톤 수업 등이 생겼으면 좋겠음.

4. 식품영양학과/식품공학과 3.4%

- 식품경제외식학과 학생들 중 식품영양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고,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품영양학과와 융합하여 위생 관련 수업을 개설해주었으면 좋겠음
- 식품영양학과와 융합을 한다면 좀 더 세분화된 전공과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임. 우리 과의 실무적이며 서비스 분야의 지식과 식품영양학과의 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학문을 융합한다면 더욱 더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식품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식품공학과'의 전공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분야에 한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전공을 넘나들면서 더 폭 넓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식품경제외식학과는 식품영양, 식품공학 등과 연관해 연구원 쪽으로도 취업 가능함
- 경제학과 혹은 식품영양학과와 융합되거나, 학점교류 형식으로 수업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음. 이 두 학과 모두 우리 과 수업과 일정부분 연관이 있기도 하며 복수전공도 많이 하고 우리 과 수업의 더 심화적인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자신이 배운 과목을 식품에 관련한 식품영양학과와 융합해 적합한 취지를 만들 수 있어 배우기 좋은 거 같다.
- 식품영양학과의 진로와 연관되는 학과와 융합이 되어 자신이 듣고 싶은 전공 및 교양 과목 등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진로가 다르기에 한 두가지 정도의 다른 학과의 전공을 들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학과 전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경영학과와 융합하여 식품과 관련된 마케팅에 배우는 것도 좋을 듯함.
-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문학과와 자과랑 같이 복수전공을 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식품경제외식학과 외식산업트랙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 식품공학과와 화학관련 전공 수업을 함께 들으면 전공 지식 심화에 도움이 될 거 같다.
- 수강한 과목을 다양한 학과와 연계하여 폭 넓은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식품공학과, 경영학과, 화학과, 식품경제외식학과 등 관련 학과와 학문적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식품공학과와 융합 수업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과 관련된 학과는 식품영양학과, 식품경제외식학과, 식품공학과가 있는데 3개의 학과 말고도 체육학과와 융합하여 미래의 초개인화 식품시장을 위한 식품 헬스케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식품과 체육이 잘 융합하여 미래의 건강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음
- 경영학과랑 융합하면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경영의 지식을 융합하여 졸업 후 취업하여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식품영양학과의 전공과목에 급식경영학이 있는 만큼 식품영양학과 전공선택 과목에 또 다른 경영과목을 배우며 경영학에 대해 더 깊이 다루어도 좋을 거 같다.

4. 식품영양학과/식품공학과 3.4%

- 생명공학과나 식품공학과의 전공을 연계하여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와 연계하여 유아의 건강을 생각한 식단을 고안해 제공
- 의생명공학과도 식품영양학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다. 식품영양학과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식품영양에 특화된 것을 배운다면, 의생명공학과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배운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학, 내분비학, 신경생물학, 암생물학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생명공학과와 융합하면 조금 더 넓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 식품영양학과와 원예생명과학과와 융합을 하여,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양학과 생리학, 원예생명과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종자개발과 식량 생산을 모두 배워 식품 개발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음
- 식품 관련 학과들의 교류가 이루어져 전공 지식 공유 및 전공 관련 활동들을 함께 한다면 새롭고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함.
- 원예생명과학과와 융합한다면 농식품산업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계IT대학과 융합하여 푸드테크 산업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 식품영양학과와 경영학과를 융합한다면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심리학과 3.4%

- 심리학과와 융합하여 수업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계하면 양질의 수업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리학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전공 강의를 개설하고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
- 심리학과와 연계.
- 심리학이나, 경찰행정학과와의 수업을 융합하여 범죄나 심리 쪽으로도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존 수업과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흥미가 있을 것 같다.
- 심리학과와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면, 이것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에 융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심리학과와 융합하는 것
- 예전에 있었던 과목인 인물로본서양사 같은 과목이 개설되면 심리학과 미학, 역사까지 모두 융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덕심리철학 같은 경우, 심리 분야와 철학을 연관지어 다루는데, 이처럼 다른 학과의 분야와 융합된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면 좋겠다.
- 심리학과 행동생물학과 ,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같이 배우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의 사회복지 트랙과 심리학과의 심리학 트랙을 융합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 심리학과랑 융합하는 것. 소비자행동론이나 마케팅원론에서는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심리학과와 융합해 심리에 대해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앞서 전술한대로 경영학과와 심리학과의 융합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유아교육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유아의 심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 전공을 만들어서 아동심리치료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한다.
- 심리학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음. 유아의 심리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등을 알 수 있는 유아심리학 관련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현장 뿐만 아니라, 연구직 쪽으로도 빠지는 경우도 고려하여 심리학과의 교육과정과 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심리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양수업뿐만 아니라 전공수업에도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유아의 심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리학과나 언어치료 등

5. 심리학과 3.4%

- 유아교육과 안에서도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긴 하지만 심리학과의 수업을 좀 더 자세히 듣는다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심리학과, 교사라는 직업 또한 학생들, 동료 교사분들 등 여러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마음을 나누는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학과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는 직업이므로 융합하다 보면 학생들을 상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심리학과, 학교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리학과,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직업을 꿈꾸는 학과이므로 심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교육 전공은 심리학과 융합되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학과 심리학이 융합된 과목으로는 교육심리가 있는데 이 과목이 교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에 한정해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과목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6. 건축학부 2.9%

- 조경에 관련한 더욱 많은 지식을 얻으면 좋을 것 같음
- 연계된 수업을 교양이라도 듣고 싶음
- 건축학과와 회화과가 융합하였으면 함. 건축학과 학부생이 바라보는 건축물과 회화과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건축물을 비교하며 서로 교류하는 수업이 생긴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작활동과 창의력 기르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 건축학과와 융합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구조물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건축학과 학생은 전개도를 제작할 때 트랜스아트과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됨.
- 블렌더나 시포디 등 모델링 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건축학과와 같이 연계해서 설계도를 배우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음.
- 이미 우리 과에는 연계전공으로 미술보존복원이 있는데, 이 분야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음. 이를테면 디자인미술대학과 건축을 융합하여 대구권 학교 중 문화재 보존복원에 강점을 보이는 우리 학교에서 불교미술, 불교건축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음.
- 환경공학과와 건축학과가 융합하여 환경문제가 나오지않는 미래 건축물을 공학적으로 설계한다면 향후 미래에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 도시와 건축을 전공하여서 아파트건설, 단지 건설등을 배우고 싶다.
- 건축학과와 융합하여 더 다양한 수업과 전공에 대해 배우고 싶다. 융합은 아니더라도 2,3학년 때 수업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을거 같다.
- 건축학부의 건축디자인수업과 토시공학과의 도시설계 수업을 융합하여 도시와 건축 모두 디자인을 배워보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 건축학과등과 융합하여 건축관련 국제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전공선택 과목으로 환경공학과, 토목과 등의 건축과 관련된 학과의 전공수업을 개설하여 전공과목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건축과 연계된 다양한 전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디자인학과, 건축학과 등을 융합하여 연관되는 수업을 조사하고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건축학과와 관련하여 실내디자인과 건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융합하고 싶은 학과는 건축학과나 조경학과이고, 각 학과마다 겹칠 수 있는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편성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다.
- 가족주거학과와 건축 디자인과가 융합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하고싶은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으

6. 건축학부 2.9%

면 좋겠다
- 조경학과, 건축디자인학과 등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연계해 다방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 조경학과 또는 건축디자인학과와 연계하여,수업을 교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7. 공과대학 2.9%

- 같은 공과대학끼리 비슷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다른 공대와 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기계공학 또는 전자, 전기 공학과가 그 예시이다. 공대는 나중에 공장을 설계하는 것에 중점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넓은 분야의 기술을 익혀야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공대끼리 공통적으로 들어야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와 관련된 기계공학부, 자동차공학부, 전자공학부 등 같은 공과 대학에서 세부 전공별로 관련되는 학과, 또는 전공 수업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같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공대 쪽 학과와 인지심리학이 융합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독일이 공학쪽과 관련이 깊은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어와 공학의 융합 전공을 신설하였으면 좋겠다.
- 공과대와 융합된 과목을 개설하였으면 좋겠다
- 공학 쪽으로 연계하여 융합한다면 취업 쪽에서도 큰 걱정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 물리학과는 광범위한 지식을 수강하기 때문에 특히 공대 계열과 융합이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컴퓨터 공확과 등과 융합할 수 있는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이공 계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과융합하거나 학생들의 희망 학과를 설문조사하여 일부분 타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하면 보다 더 넓은 전공지식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 반도체를 공통주제로 기계, 전자, 화학, 화공, 재료공학과와 융합·연계 전공 제도 및공통 전공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음
- 도시 설게 및 건축 그리고 공대 쪽과 연계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반도체 산업이나 초전도체 개발 연구를 물리학과나 화학공학부와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복합적인 화학 내용에 대해 배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과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 우리 과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도 알게 될 것이다.
- 생명과학/생명공학과와 화학과는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전공 지식들이 많아 다른 학교에서도 두 학과과 융합되는 전공이 많다. 추천 교양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해주었으면 좋겠다.
- 생화학, 컴퓨터공학(빅데이터 분야) 등의 학과 및 계열과 융합하면 전공지식 및 활용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함.
- 큰 범위에서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건설시스템공학과와 같이 융합하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 도시공학과나 실내디자인 등 유사 전공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한다.
- 에너지화공전공과 융합하고 싶다.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은 타 전공으로 여겨지는 세분화된 전공에서 타전공 과목을 듣더라도 교양이 아닌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의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 에너지 전공의 이차전지 수업을 융합전공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융합화학공학전공이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만큼 고분자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심화전공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8. 어문학과(영어,국어 외 다른 언어 관련 학과) 2.7%

- 언어관련 학과(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등)과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외취업과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서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해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다.
- 중어중문학과와 역사학과를 융합한 동양사전공
- 유럽언어문화학부와 역사학과를 융합한 서양사전공
- 다른 나라의 역사도 배워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언어랑 융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어문학과(영어,국어 외 다른 언어 관련 학과) 2.7%

- 국어국문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국어국문학과가 책이나 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역사학과의 역사 관련 사서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역사학과에서는 한자와 외국어가 필수적인 만큼 한자와 외국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음
- 같은 어문 계열이나 외국어를 필요로하는 학과의 수업을 자유로이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 현재 우리 학교에 '유럽학 전공'이라는 연계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역사학과나 영어영문학과는 할 수 있지만, 철학과에서는 할 수 없다. 철학과에서도 서양철학이나 사회정치철학 등을 통해 유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과에서도 유럽학 전공 수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 철학과는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토대로 논리적인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을 항상 키워낸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글을 써야 한다면, 언어적인 면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국어국문, 영어영문 등 어문계열의 학과와 융합 및 연계 전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 과를 졸업하면 국제개발 쪽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영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할만큼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언어와 관련된 학과의 수업을 듣게 하여 외국어 토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해자봉과 같은 활동을 갔을 시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로써의 한국어가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른 언어 관련 학과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증진시켜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조경이 아닌 대학교 생활 동안 조금 더 많고 다양한 나라의 조경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 음악과와 외국어 학과 또는 외국인 학생들과 회화로 대화하거나 그 문화에 대해 들어보거나 하는 과목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언어관련 학과와 연계하고 싶다.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유치원 현장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수업이 좋을 거 같다.
- 영문학과와 융합되면 좋을 것 같음. 미술전공자라면 한번쯤 해외에 진출 할 순간을 꿈 꿀 텐데 미술 관련 용어를 별도로 배운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임. 현대 사회에 영어, 외국어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 영어 수업이 생긴다면 졸업 후에도 더욱 다양하게 직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화학공학과와 영어영문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음
- 사회학+영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수업에 영어로 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영어영문학과와 융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9. 시각디자인학과 2.7%

- 순수 예술만을 고집하고 작가의 길만을 고집하는 회화과의 커리큘럼에서 디자인학과 혹은 트랜스아트과 전공을 융합 연계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과 취업 준비 혹은 작가로 나아갈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이 필요함.
- 포토샵과 일러스트와 같은 부분을 시각디자인과와 연계하여 더욱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디자인학과와 융합해 더욱 예술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디자인과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더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 도시설계에 필요한 시각디자인을 배우면 좋겠다.
- 자작차동아리에서 미대에서 차 디자인을 하는 등 융합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융합하고 싶은 학과는 산업디자인과이고 그 이유는 요즘에 어떤 장치이든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 디자인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공 수업에 디자인 수업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 디자인과와 협업하여 어떠한 작업물에 관해 디자인과 설계의 상호작용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디자인과와 저희 학과인 기계공학부를 융합 및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협동 프로젝트: 기계공학과와 디자인과 학생들이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 및 제조

9. 시각디자인학과 2.7%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에서 기계공학과와 디자인과를 융합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및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협력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미술학과와 융합한 디지털아트 융합전공이 있다.
- 컴퓨터공학과 전공자들과 다른과 전공자들과의 융합 프로젝트 ex) 게임개발 (컴퓨터 + 미술대학)
- 기존의 우리 학과와 시각디자인 학과랑 함께 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걸로 아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 기획하는 단계도 있다. 기획쪽으로 관심이 있는 인문학과들과도 같이 협력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컴퓨터공학과-시각디자인학과 : UI/UX 디자인과 개발에 대한 전문가 양성(Front End개발자)
- 산업 디자인 및 디자인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설계과목과 같이 수강하면 전산 설계에 대해 이해와 실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 같습니다.
- 시각디자인과 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시각디자인학과와 융합
-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눈에 더 잘 띄는 시각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 디자인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인문대학 2.7%

- 군사학이 군사에만 한정된 과목이 아닌 다양한 제 분야의 전공들과 연계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수학, 과학과 같은 이공계 과목뿐 아니라 역사, 사회 분야의 인문계 과목과도 연계하여 전공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이미 몇몇 학생들이 문화인류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문화인류학과와 융합하는 전공이 나온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 문화인류학과와 융합하여 역사고고학이라는 세분화된 전공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구원 또는 학예사가 되기 위해선 고고학과 역사를 아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 마냥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은 고고학과 인류학만을, 역사학과 학생들은 역사학만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슷한 계통인 고고학과 역사학을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전공이 아닌, 융합 연계 과정을 통해 역사와 고고학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좋겠다.
- 역사학과는 주로 학예사에 대한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역사학과만으로는 연계가 어려워 주로 문화인류학을 복수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수전공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예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역사학과와 문화인류학과의 융합교육과정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사학과와 문화인류학과의 연계과정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역사학과의 경우, 문화인류학과와 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융합하여 고고학같이 따로 새로운 세분화된 전공을 만들어 수강한다고 하면 관련된 역사학과 및 문화인류학과 수업을 학과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역사학과랑 가장 관련있고 비슷한 문화인류학과와 융합하는게 가장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역사 사료에 쓰인 언어를 배우는 어문학과들과도 융합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과는 문화인류학과와 융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최소 4분의 1 정도의 인원은 문화인류학과 수업을 필수전공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문화인류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배우는 전공(역사학과 고고학) 교육과정이 어찌 보면 유사하기도 하고, 융합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문계열 학생들과 융합하여 작품소개와 학생작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세계사, 한국사 등과 연계하여 인물에 대한 군사적 전술이나 역사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 우리 문화인류학과가 역사학과랑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둘의 겹치는 내용인 인류와 관련해서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중국 철학사, 유럽현대철학, 근대철학 등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에 수업을 같이 듣는다면 서로의 수업이 학습에 도움을 주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임용고시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공무원(교육행정)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렇기에 행정학과와 융합 혹은

10. 인문대학 2.7%

협업하여 행정과 법(교육관련)에 대한 전공학점 인정 수업을 같이 개설해주면 좋겠다.

- 교육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들과 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철학과와 융합하여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과 자신만의 교육관을 설립해보는 수업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
- 역사학과와 융합연계를 하여 중세국어에 대한 더 깊은 연구 혹은 교수법연구를 원하는 학생을 위한 세부 전공 과정을 만든다.
- 역사학과랑 융합해 역사를 배우면서 흐름대로 그 당시 있었던 고전서적을 배웠으면 좋겠다.
- 역사학과와 융합하고 싶습니다. 임용을 보기 위해선 한국사 급수를 따야 하기도 하고 전공을 배우며 한문의 비중도 많긴 하지만 결국 그 속의 내용은 우리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기에 한국사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넣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1. 기계공학과 2.6%

- 기계공학과와 함께 융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 환경공학과 기계공학이 융합하여 적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는 세부전공이 생겼으면 좋겠음.
- 기계공학과와 융합할 수 있는 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화학공학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진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폭이 좁다고 생각됨. 따라서 반도체를 많이 다루는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등에서의 전공과 융합이 된다면 반도체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로봇공학과 학생들을 2학년 이후 소프트웨어 중점과 하드웨어 중점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맞게 컴퓨터 공학과 전기, 전자, 기계공학과의 심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거나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어느 수업을 들으면 실무 또는 로봇개발에 도움이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꼭 로봇과 수업만 들어야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컴공과,기계과등 에 관심이 있는 과목이 있고, 로봇과 관련이 있다면 그걸 이수했을 때 로봇과의 특정 과목을 대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기계공학과랑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 전기공학과 기계공학을 합친다면 복합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전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 제어, 자율 주행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더욱 세부적인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계공학부와 전기공학과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관련 전공 수업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자동차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등 많은 공대와 협력이 가능하다.최근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전기공학과에서는 전기차 관련 수업은 듣지 못한다.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들이 전부 뭉쳐 자동차의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수업도 들어보고 싶다.
- 기계공학과 융합하고 싶다. 결국 로봇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화학과 혹은 기계학과, 컴퓨터학과와 융합을 희망합니다.
- 현재 우리 학과의 인공지능/SW 트랙은 컴공과와 수업 교류를 하고, 반도체와 신호/통신 트랙도 각각 기계과나 전기과 등 비슷한 성격의 학과와 수업 교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전자공학과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지는 폭넓은 학과인 반면에 그 분야들을 전부 학과 내에서 다루려다보니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을 더 많이 모시거나 아니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전자공학과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부터 기계공학과등 많은 과와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 학점도 인정해 주면 좋겠다.
- 전자공학은 로봇, 반도체, 회로 등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와 관련된 학과와 융합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즘 전기자동차 쪽이 전망이 좋아서 전자공학과가 미래자동차공학과나 기계공학과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 쪽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 미래자동차 공학과를 진학 한 후 한 분야를 정해 더욱 심오하게 공부를 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또한, 다른 학과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6%

- 피아노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가 융합되어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고 경영학과와 융합되어 마케팅 경영의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
- 개인적인 흥미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융합하고 싶음. 같은 단대 내에서는 융합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음.
-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심리학과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의 융합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융합하는 전공강좌를 개설해서 사회학적 문제들을 직접 다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며, 공공사회학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사회학과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에 요즘 시대에 맞는 미디어 관련 수업도 개설되면 좋을 것 같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융합전공을 냈으면 좋겠다.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두 학과와 융합전공을 냈으면 좋겠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 pr 분야와 경영학과 마케팅 분야를 융합해 광고를 기획하고 마케팅 하는 식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 아무래도 경영학과인 경우 마케팅과 관련된 전공과목이 많은데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일부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음.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경영학과의 마케팅 융합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에는 마케팅 분야 직업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기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습 등을 우리 학과의 마케팅과 융합시켜 수업을 들어보고 싶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경우 마케팅원론을 자과의 전공학점으로 넣을지 타과의 전공학점으로 넣을지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을 다른 과목으로도 더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 IT시대와 발맞춰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영어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등을 수업 내용으로 진행하면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수업이 가능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복수 전공 희망
- 최근 들어,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 역사 왜곡 관련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역사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연계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은 정확한 역사 지식을 배우고, 역사학과 학생들은 편집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워 이론에 집중된 수업에서 벗어나 현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 언론정보학과와 융합했으면 좋을 것 같다. 역사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요즘, 학과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언론정보학과에서 배우는 영상 제작 기술, 홍보 기술, 촬영 기법 등을 활용하여 역사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역사를 손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함께 역사 UCC나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 외국의 영상 문화, 방송 문화를 전공 수업 또는 교양 수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함
- 미디어 마케팅과 융합하고 싶다. 문화인류학과에서 주로 나아가는 진로는 학예사이다. 학예사는 박물관의 전시 및 홍보 등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 마케팅의 분야와 융합이 된다면 더 나은 전공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융합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업을 진행함

13. 생명응용과학대학 2.4%

- 원예학과와 연계한다면 생명, 물리, 화학 등의 관해서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원예학과와 연계한다면 진로의 폭이 넓어지며 다양한 진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됨
- 우리학과는 전공에서 자연과 관련한 과목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 깊이가 얕음
- 나무만이 아닌 꽃들도 알아가며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조경학과와 연계한다면 진로의 폭이 넓어지며 다양한 진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됨.
- 조경학과와 융합하여 식물을 탐구하고 기르기
- 조경에 관련한 더욱 많은 지식을 얻으면 좋을 것 같음

13. 생명응용과학대학 2.4%

- 생명공학과와의 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 생명공학, 생명과학과 화학은 전공지식이 겹치는게 많고, 서로 관련된 지식들도 많기에 융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도 현저히 넓어질 것이다.
- 생명공학과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 과목의 여석을 늘린다.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 관련된 견학 프로그램의 기회를 많이 늘려주었으면 한다.
- 화학과 생명의 융합+마케팅 ex. 바이오화장품학+경영경제학 수업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싶다.
- 화학과 관련된 생명과학과와 실험을 같이 진행
- 화학과 생명과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 실제로도 관련성이 깊다. 생명과학 관련 수업을 전공선택으로 과목을 설계해두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다.
- 조경학과. 건물을 설계한 후에는 그 건물의 형태와 사이트의 분위기에 맞도록 사이트 외부공간을 꾸미는 조경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조경에 관한 과목을 따로 전공과목으로 선정하여 조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 부분도 교육을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 건축과 조경, 도시설계, 등 타 대학 대비 교류가 부족함. 융합전공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음
- 조경학과와 융합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 설계 상 조경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데 조경에 대한 지식을 함께 얻는다면 좋을 것 같다.

14. 통계학과 2.4%

- 교통과목을 더 심도있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 통계학과와 융합하면 교통분야에 대해 더 심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 통계학과를 복수전공 생각 중, 영어와 함께 하게 되면 해외 회사에 취업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
- 수학과와 통계전공을 선택하여 서로 연계되는 과목들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통계학과랑 수학과는 수치를 평가하거나 수학을 사용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잘 맞을 거 같습니다.
- 수학과를 전공하면서 통계학과를 복수전공 하고 있는데 가끔 비슷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서로의 다른 과의 수업 수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곤 해서 융합해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학과와 제일 연관이 있는 통계학과와 융합하여 다양한 통계와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고싶다.
- 통계학과와 융합하여 빅데이터 융합전공
- 모든 직종들의 디지털화에 맞게 공학계열의 프로그래밍이나 통계쪽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지식이 있다면 복수전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통계학과와 융합. 마케팅이나 재무 쪽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영학과에서는 통계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우지 않으므로 통계학과와 융합해서 경영과 통계라는 과목 등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전공 과 수업을 핵심적으로 듣되 그 외 관심있는 다른 전공 수업을 들음. 더 세분화된 전공위해 (회계세무학과, 통계학과 등) 융합
- 통계학과와 연계한 통계수업
- 통계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해 배워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통계학과와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회계, 통계
- 통계학과와 융합하여 통계학을 좀 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 한문교육과 2.3%

- 한문교육과의 한문에서 더 많은 고전 글을 다룰 수 있고,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게,
- 국어교육과의 고전 문학 관련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게 한다.
- 역사학과랑 융합해 역사를 배우면서 흐름대로 그 당시 있었던 고전서적을 배웠으면 좋겠다.
- 한문과 가장 관련이 깊다면 깊은 국어와의 융합과목을 설계하면 좋겠다.
- 국어와 한문은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은 것 같아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켜 수업을 하면 국어와 한문 모두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 같다.
-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한문과 관련된 학과와 수업, 과제 등이 교류 및 융합되었으면 좋겠음.
- 역사학과와 융합하고 싶습니다. 임용을 보기 위해선 한국사 급수를 따야 하기도 하고
- 전공을 배우며 한문의 비중도 많긴 하지만 결국 그 속의 내용은 우리의 역사와
-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기에 한국사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넣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학과와 연계하여, 학과 학문에 집중하느라 교육에 개념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교육학과와 융합해 교육에 대한 전공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다.
- 한문교육과와 국어교육과가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상당 부분에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융합할 수 있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한다면 공부의 효율과 신속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 한문교육과의 한문에서 더 많은 고전 글을 다룰 수 있고,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게, 국어교육과의 고전 문학 관련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게 한다.
- 한문과 가장 관련이 깊다면 깊은 국어와의 융합과목을 설계하면 좋겠다.
- 국어와 한문은 서로 간의 공통분모가 많은 것 같아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켜 수업을 하면 국어와 한문 모두의 경계를 허물 수 있을 것 같다.
- 한문교육과와 국어교육과가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상당 부분에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융합할 수 있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한다면 공부의 효율과 신속도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16. 화학공학과 2.1%

- 환경공학은 다양한 전공의 융합되는 내용이 많아 토목이나 화학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었다면 졸업할 때 직무를 정하기 좀 더 쉬웠을 것 같다.
- 화학공학부와 관련된 환경공학과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 화학공학과와 연계하여 이차전지쪽 취업 높이기
- 요새 이차전지가 좀 핫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수업과 프로그램들이 많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학과는 화학공학과와 화학과 같습니다.
- 화학공학과와 화학과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반도체 산업이나 초전도체 개발 연구를 물리학과나 화학공학부와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복합적인 화학 내용에 대해 배워 그것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과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 우리 과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도 알게 될 것이다.
- 화학공학과와의 융합
- 공학 쪽 학과(대표적으로 화학공학)와 융합했으면 좋겠다.
- 생명과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고 연구 개발 후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 시킬 기술과 접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실제 공학 기술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미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차전기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기계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연계한 베터리 전공이 생기고 화학공학과 베터리 전해질 쪽을 기계공학과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맡아 융합 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 신소재공학부와 재료에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 요즘 트렌드인 배터리에대해 화학공학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 화학공학과 2.1%

- 본인은 유기수 교수님 연구실의 학부연구생입니다 전기자동차에 . 들어가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인데 사실 기계공학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 수업들이 좀 듣고 싶은데 이처럼 본인이 공부하고싶은 분야가 있다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전공 학생설계학기 , 등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조금더 부담이 덜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학업계획서를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 읽어보신 후 승인해주시면 그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학년 때 듣는 교필 과목 중 프로그래밍(컴공과)과 교류하여 코딩 위주의 전공이나 화학과와 교류하여 '복합성 전공'선택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 전기공학과는 배터리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화학공학과의 전공수업을 연계해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전공필수 수업은 무조건 다 같이 들어 기본적으로 그 학년을 위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자리에 추가적으로 다른 학번들이 재수강이나 재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7. 체육학부 2.0%

- 피아노과와 무용과의 융합, 실제로 발레에는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데 피아노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낼 수 있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발레를 연습하기도 함. 대학교육과정안에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시켜주면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됨
- 조소과가 만든 오브제 사용하기, 과 내에서 타 전공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기
- 음악과 관련된 학과와 융합한다면 무용을 하는데 있어 더 전문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미디어 쪽과 융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용을 직접 출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담아내는 영상 촬용 쪽이랑 연관 지어도 좋을 것 같다
- 무용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음대와 융합하여 음악 작곡에 대해 접해보고 무용작품과 연관 지어서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
- 경영학과와 연계하여 예술을 하며 기획과 운영 등을 스스로 만들어 예술의 제작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 체육학부 수업을 다 같이 진행하면 무용과는 체력과 인체에 대한 지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예술계 학과와 같이 융합하면 좋을거 같다. 음악 같은 예술계 학과와 같이 융합하면 좀 더 세분화 되어 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거 같다.
- 음악대학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무용에는 음악이 절대 빠질 수 없기에, 협업하여 공연을 올리거나 작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음
- 음악 전공과 같이 협업하여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싶다.
- 음악대학, 미술대학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특히 음악대학과는 연결고리가 많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만들어 주면, 그 음악에 맞춰 안무를 짠다든가. 예술 전공끼리의 협업이 있었으면 한다.
- 음악과 미술과 연주+그림(혹은 조각)+무용 함께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정해 연주하며 거기에 맞는 걸 몸으로 표현한다.

18. 국어교육과 1.7%

- 국어교육과의 경우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수업을 선택 가능, 영어영문학과는 영어 학원으로의 취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방식, 영어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현저히 적음,
- 국어교육과라는 과의 폐쇄성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가 힘든 것은 사실이나 고전과목에 관하여서 민속학과와 연계하여 조금 더 전문성을 심화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수업이 있었으면 한다.
- 국어교육의 전체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부전공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음. 학생 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각 요구에 따라 세부적인 분반이힘들지만, 임용 중심과 학문 집중 분반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함.

18. 국어교육과 1.7%

- 융합 연계의 범위가 좁으나 이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명확하다. 최근 개설된 한국어교육과 전공 또는 통번역학과의 융합 전공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사범대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방향 등이 있다. 폭을 넓히기보단 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국어교육과가 글로벌교육학부의 국제한국어교육전공의 수업과 융합하여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국어 교육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관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2학년 혹은 3학년 과정에서 그 학부의 전공수업을 선택하여 듣는다면 국어교육과에서는 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한문과 관련된 학과와 수업, 과제 등이 교류 및 융합되었으면 좋겠음.

19. 사회과학대학 1.7%

-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시각을 필요로 하고 예술과 문화, 인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 다른 학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건축 설계에 있어 개념을 잡는 부분은 무조건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각 학과의 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경험해 사고가 확장될 듯. 융합이나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그런 전공 선택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와 융합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학과와 융합하여 음악 행정 기획, 음악 경영과 같은 수업이 개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 역사가 문화콘텐츠화 되고 있는 흐름을 타 두 학과가 연계하여 역사학과는 아이디어를, 문화콘텐츠 쪽 학과는 매체 활용을 맡아 같이 만든 문화콘텐츠 결과물을 유튜브와 같은 sns를 이용하여 전파하고 이에 학교 홍보 및 학과의 명성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좋겠다. 이미 역사학과에는 시퀀스라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의 단점이 모두가 콘텐츠화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류준형 교수께선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 챗gpt나 위키를 사용할 만큼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진취적이시다. 이를 보완해줄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가 도움을 준다면 하나의 재밌는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할 것이라 본다.
- 심리학과와 군사학과 융합하여 '군심리상담'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면 좋을 거 같다.
- 사회복지학과와의 융합
- 사회복지학이 연계전공인만큼 사회복지와 새마을국제개발학의 융합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 전공과목의 다양성을 높여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은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경찰행정학과입니다. 군과 경찰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이나, 심화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의 특성 때문에 한가지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도록 두 학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찰행정학과와 융합하고 싶다.
- 나는 우리학과와 경찰행정학과나 법학과 가 융합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 학과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개발하는 학과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의 문제점들을 두 학과가 협력한다면 더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 의류패션학과 1.6%

- 디자인에 흥미가 많은 학생들은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는 과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 파이버 공학과나 소재관련 학과와 융합하여 섬유 소재에 관련한 디테일한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 영상이나 포스터 작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과의 수업과 같이 융합전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 의류패션학과 1.6%

- 시각디자인학과 전공 수업과 융합해 각 학과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 디자인학과 또는 무역학과와 융합하여 패션관련 직업을 더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
- 디자인 관련은 미술대학과 융합하여 깊게 배우는 강의
- 파이버시스템 공학과도 패션 섬유와 관련이 있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
- 산업디자인학과와 융합해보면 각자의 아이디어, 창의력 등을 공유하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겹칠 수 있을 만한 수업을 개설해 산디과 학생과 패디과 학생 모두 들을 수 있는 전공수업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의류패션학과와 파이버시스템공학과와 복수전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유 분야 연구원에 취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실기 위주 패션디자인과를 만들어서 의류패션학과와 복수전공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예술 대학 내 디자인 전공과 복수전공을 대부분 학생들이 가능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교육학과 1.5%

-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몇몇 부분들은 교육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나 비고츠키 등등 교육학과 강의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심리학과 강의에서도 배우기에 학점 중복인정과목을 몇 개 지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 교육학과의 졸업 요건의 경우 졸업 논문 작성과 토익이 있다. 졸업 논문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통계를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며 방법에 관한
- 교육학과의 어떠한 전공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통계학과 전공 수업과 연계해 졸업 논문을 위한 세부전공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과 심리학과는 이미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더 융합되었으면 좋겠음.
- 사범대학의 특성상 본인의 소속학과의 전공을 깊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융합하고 싶은 요구사항은 딱히 없다. 굳이 생각하자면 '교육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임용시험 과목 중 '교육학' 영역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정도가 되겠다.
- 교육학과와 독일어과와 연계된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 교육학과
- 교육학과와 연계하여, 학과 학문에 집중하느라 교육에 개념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교육학과와 융합해 교육에 대한 전공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육학 특성상 심리학과 맞닿아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수업이 너무나 빈약함. 교육 심리학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 교육학을 언론 정보학부와 융합하여 교육 관련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교사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2. 예술대학 1.3%

- 생활제품디자인과 융합하여 나무, 세라믹을 다루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다면 보다 더 전공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공작실과 세라믹 실기실이 조소동과 붙어있어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미대 분야와 관련하여 응용된 강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술과 음악의 융합으로 음악미술치료를 배우거나 미술작품의 시대적배경과 음악의 시대적 배경을 연관시켜 새로운 방식의 연주회 또는 전시회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생기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됨

22. 예술대학 1.3%

-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시각을 필요로 하고 예술과 문화, 인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 다른 학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건축 설계에 있어 개념을 잡는 부분은 무조건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각 학과의 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경험해 사고가 확장될 듯. 융합이나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그런 전공 선택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 토목이나 미대와 융합하는 수업이 한번쯤 있으면 좋겠음.
- 미술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을 미술로 녹여내는 행위는 예술적으로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보는 이들의 머릿속에 신선함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다
- 건축학부와 산업디자인학과를 융합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
- 도시의 미적 감각 추구. 가로등,공원 등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싶다.
- 현대미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평면 작업이 아닌 입체나 영상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함. 주변에서 디지털과 영상작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영상 작업에 쓰이는 음악 또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학교생활을 하며 음악제작이나 관련 작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음. 때문에 미술 전공자와 작곡과의 융합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작업을 온전히 본인들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임.

23. 의과대학 1.2%

- 의예과와 연계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심리'의 경우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확실히 약학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를 조금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약사는 특성 상 의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예과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과대학과 연계
- 의예과와 연동해서 함께 수업듣기
- 약사는 특성 상 의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예과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과 협력하여 연계된 의료 협력 시스템 구성
- 화학공학과와 약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음

24. 체육학과 1.2%

- 체육학과와 연계 동아리를 개설하여 항상 앉아서 작업만 하는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저는 체육학과와 통계학과가 융합하여 수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학과는 자신들의 기록과 신체 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통계학과는 이를 분석하여 체육학과에게 더 나은 방식과 현재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알려주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 같습니다.
- 예체능계열과 좀더 융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평소에도 운동과 스포츠 계열을 좋아하지만 전공 학과와 연결적인 부분이 적어 아쉽다는 생각 들었음.
- 체육과 미래인공지능을 합쳐 현재 대두되고있는 인공지능 심판처럼 미래사회 와 체육을 융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심리학과와 연계하여, 운동을 통해 심리 치료등 이런 과목이 생기면 재미 있을 것 같다.
- 현대에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누구나 쉽게 그것을 찾고 수집할 수 있다. 여러 소셜 미디어 자료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프로 선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그것을 활용해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며 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관건은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적절히 골라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회계와 행정과의 연계 전공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체육, 스포츠에서 필연적이기에 연계전공이 생긴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24. 체육학과 1.2%

것이다.
- 타 학과 학생들과 함께 듣는 융합전공 수업을 개설하여 팀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융복합 분야에 대하여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 체육학부,체육학전공 &의류패션학과 스포츠의류 관련 수업)
- 체육이랑,과학이랑 의료랑 융압

25. 유아교육과 1.1%

- 행정학과와 연계해 교직과목 중 교육행정과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융합할 수 있을 것 같다.
- 또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유아, 아동과 관련된 법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 교사가 될 것인지, 그 외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인 지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진로방향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교사가 되면 행정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행정학과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느낀점은 기본상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 수학, 국어, 영어의 기초 상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이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의 전공과정을 배워봄으로써 유아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양육자(부모)의 경제 환경, 유아 주변의 결핍된 정책들 등)들의 사례에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싶다.
- 유아교육과와 융합해보고 싶다. 교육학과와 유아교육과의 공통된 내용을 같이 배우고 유아교육과정도 함께 배워 유아교육쪽으로 가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26. 미래자동차공학과 1.0%

- 키네틱 아트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 자동차 공학과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음.
- 미래 자동차 공학과의 수업을 수강해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수업이나 실습 등 전기공학과 연계가 되는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저는 자동차회사의 AI인공지능을 목표하여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미래자동차학과나 로봇공학과와 같이 융합을 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만한 실험 능력을 키운다.
- 컴퓨터공학과와 미래자동차공학과의 교류로 인해 미래 자동차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기가 많다. 전자공학과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회도 교내외에 많은 만큼 자동차공학과랑 융합을 해서 자동차 쪽 지식을 쌓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요즘 전기자동차 쪽이 전망이 좋아서 전자공학과가 미래자동차공학과나 기계공학과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 쪽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27. 무역학부 1.0%

- 무역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식품과 관련된 무역회사에 들어가는게 목표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학부와의 융합이 좋을 것 같음
- 경영학과/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영학과와 융합을 하여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27. 무역학부 1.0%

- 무역학과
- 무역 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多
- 무역 학과와 융합하여 영어가 좀 더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무역학과랑 독일어와 합이 잘맞는 듯하기 때문에 다른학과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우리 과가 외국어와 외국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무역학과와 연계해서 전공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28. 특수체육교육과 1.0%

- 체육학부와 융합하여 복수전공 학생들의 짐을 줄인다
- 디자인미술대학과 융합하여 장애와 관련된 영상과 시청각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 심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등 장애학생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과와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좋을 것 같다.
- 특수체육교육과를 졸업 시 중등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며, 체육학부 복수전공시 중등 특수교사, 중등 일반체육교사 자격증 두 가지 모두가 나온다. 하지만 복수전공의 TO가 한정적이여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지 못하여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체육학과 복수전공의 TO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특수에 관한 과가 특수체육교육과밖에 없음. 요즘은 유아교사도 특수유아교사 등 넓게 나아가기 위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물론 특수교사 자격증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짐. 그러나 우리 학교는 타과가 특수체육교육과로 복수전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듦. 유아교육과에 세분화된 전공으로 특수유아교육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유아교육과 특수유아교육과가 따로 분리 되어있는데 융합연계전공을 통해 유아교육과에서 선택적인 과목으로 특수유아교육의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유아교육분야에서 더 다양한 진로들이 생길 것 같음.

29. 글로벌인재대학 0.9%

- 새마을국제개발학과와의 융합을 좀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국내사회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배우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움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통번역학부 -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학과들과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전공 수업과 유럽언어문화학부의 수업을 융합하여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통번역학과의 수업을 전공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 통번역학과에 대한 영어영문학과와의 긴밀성을 인정해 융합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30. 자동차기계공학과 0.9%

- 자동차 학부와 융합하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된 프로젝트 협업도 좋을 것 같다.
- 기계공학부,자동차기계공학부,로봇기계공학부 와 같이 같은계열의 학과들 사이에서는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다른 과의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 세부전공의 커리큘럼을 학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원하는 트리의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 본인은 유기수 교수님 연구실의 학부연구생입니다 전기자동차에 . 들어가는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인데 사실 기계공학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 수업들이 좀 듣고싶은데 이처럼 본인이 공부하고싶은 분야가 있다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30. 자동차기계공학과 0.9%

물론 .마이크로전공 학생설계학기 , 등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조금더 부담이 덜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학업계획서를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 읽어보신 후 승인해주시면 그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동차 학부 와 함께 수업 교류
- 자동차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등 많은 공대와 협력이 가능하다.최근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전기공학과에서는 전기차 관련 수업은 듣지 못한다.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들이 전부 뭉쳐 자동차의 직접적인 개발에 대한 수업도 들어보고 싶다.
- 전자공학이나 자동차공학, 반도체 화학 등 전기공학도가 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현대의 산업에 맞는 과목 개설이 필요함.

31. 자연과학대학 0.9%

- 기초 수학 같은 과목을 융합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수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화학에 계산 문제가 많아서 수학과를 통한 다양한 문제 풀이법과 문제를 풀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은 수학과 코딩이므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위해 수학과 과정과 컴공과 과정을 융합 연계해서 들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생명공학과나 화학공학과와 융합 전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화학공학부-바이오소재전공'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비슷한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예를 들어 화학공학, 생명공학과)과 융합하고 싶고, 다른 과의 전공 수업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32. 주거환경학과 0.8%

- 조경학과와 연계하여 인테리어와 조경을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
- 복수전공을 해서 건축학과 또는 조경학과와 융합
- 디자인과 경영을 융합시켜 디자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 주거환경학과와 조경학과 수업을 연계에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과목을 개설한다.
- 조경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주택만 설계하는 것보다 주변경관까지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주변경관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수업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33. 로봇공학과 0.7%

- 기계공학부,자동차기계공학부,로봇기계공학부 와 같이 같은계열의 학과들 사이에서는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다른 과의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 세부전공의 커리큘럼을 학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원하는 트리의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 미래자동차학과나 로봇공학과와 같이 융합을 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만한 실험 능력을 키운다.
- 전자공학은 로봇, 반도체, 회로 등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와 관련된 학과와 융합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33. 로봇공학과 0.7%

- 전기 자동차와 자율 자동차에 대해 배우는 입장에서 전기, 로봇등과 같은 학과와 전기전자 과목이나 코딩 혹은 제어 과목 등에 대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로 변화함에 따라 기계적 지식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소프터웨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4. 신소재공학부 0.7%

- 신소재공학부와 융합하여 이차전지나, 연료전지같은 전문화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화학공학부와 신소재공학부를 융합하여 반도체관련과목을 위주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복수전공은 아니지만, 신소재 공학부에서 반도체과목들을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게 한다면 좋을 것 같다.
- 신소재학과와 융합하여 반도체관련 경쟁력 높이기
- 신소재공학부와 재료에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 요즘 트렌드인 배터리에대해 화학공학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학과와 신소재 학과와 함께 하여 기계의 소재에 대해 더 자세한 수업.

35. 철학과 0.7%

-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시각을 필요로 하고 예술과 문화, 인문학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 다른 학과와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건축 설계에 있어 개념을 잡는 부분은 무조건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각 학과의 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경험해 사고가 확장될 듯. 융합이나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그런 전공 선택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음.
- 설계수업을 인문대학과 연계한다면 더욱 참신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철학과 등
- 원하는 분야의 윤리를 탐색하며 융합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철학과와 융합하여 공대생들의 인문학적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경영학과 + 철학과 + 공학과 세 개의 다른 학과를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학계열이 취업할 때 유리하다. 하지만 공학계열만 전공하다보면 추후 직원이 되었을 때 이를 운영하는 경영, 철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3개의 전공을 적절히 배분해 수업을 한다면 진정한 문이과 통합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함.

36. 화학과 0.7%

- 화학과와 융합, 화학공학부와 화학과는 겹치는 내용도 많을뿐만 아니라 화학을 기초로 공학을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화학과, 우리 과목에 있는 생물화학 과목을 화학과 교수님과 우리과 교수님이 함께 블렌디드 강의 하기.
- 학과와 융합하여 생명체의 질병에 관련된 실험 진행하기
- 생명과학과 화학과 융합. 연관된 것들이 많으며 생명을 할 때에 화학적 성질 등 화학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학년 때 일반화학 1을 필수교양으로 듣고 2학년 때 생물화학이 전공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화학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음.
- 화학과 혹은 기계학과, 컴퓨터학과와 융합을 희망합니다.

37. 환경공학과 0.7%

- 환경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 설계와 관리에 대해

37. 환경공학과 0.7%

배울 수 있다.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세부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 전공선택 과목으로 환경공학과, 토목과 등의 건축과 관련된 학과의 전공수업을 개설하여 전공과목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건축과 연계된 다양한 전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공학과와의 융합. 환경공학과에서 듣는 전공 수업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선행과목 수강을 필수로 두고)
- 환경공학과의 전공과 융합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 환경친화적인 도시 계획하는 교육과정 설계

38. 경영대학 0.6%

- 경제금융학부와 합쳐보는 것도 나쁘지않을듯하다. 경제를 알면 그국가에 흐름을 체크할 때 매우 도움이 될뿐아니라, 그국가에 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큰역할을 하여 발전하는속도가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
- 항공운송학과와 융합하여 다양한 군사적 시각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학과와 도시공학과를 연계하여 도시공학을 경제학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
- 철학과 경제학과 쪽의 수업을 융합하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해있는 것이 바로 경제시스템 인데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기반과 운용 원리를 설명한 다양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자들의 철학적 특징과 경제지식 쪽의 특징을 합쳐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9. 기계IT대학 0.5%

- AI와 윤리학을 접목한 과목/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를 철학적 사상과 접목시켜 해당 문제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시험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논의 중 하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 or 과제 대체로 해당 내용을 레포트로 제출
- 수학과의 선형대수학과 인공지능을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벡터를 사용합니다. 선형대수학을 전공하고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도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보면 그 기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싶어 선형대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형대수학의 세부 전공으로 인공지능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수학과에서 식, 공식들을 계산할 일들이 많이 존재 하는데 ai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식이 반복 될 때의 오차 등을 찾는 프로그램을 연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0. 영어교육과 0.5%

- 영어교육과와 융합하여 실무적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영어교육학과에 대한 영어영문학과와의 긴밀성을 인정해 융합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영어수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41. 기타 19.0%

- 저는 조경학과와 다른 학과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경 분야는 생물학, 생태학, 건축학, 지리학, 도시공학이 얽힌 복합학문이고, 조경학도로서 어느 정도 분야에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타 학과에 조경학과의 필요성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표로 삼은 방향에 맞게 전공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 기타 19.0%

- 설계, 계획,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공핵심 과목에 대한 내용 수정
- 부전공을 지원하고 싶지만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예술대학 내 다른 학과의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강의나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임.
- 컴퓨터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과의 전공 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세부전공을 택하고 싶습니다.
- 같은 단대의 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개편
- 이공계열 AI나 데이터, 상경계열의 통계쪽 학과와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데이터 분야가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 교육학과와 이공계열, 통계쪽과 융합한다면 데이터 관련자들과 분야가 교육적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른과랑 합치지 않고 환경공학과의 독립성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 컴퓨팅 연산 처리관련 과목 학습으로 설계, 디자인적 데이터 처리를 통한 새로운 학습 모델 도출이 필요하다.
- 다른 배터리, 반도체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싶음. 과목이 많이 개설되서 열어주면 좋을 듯 함.
- 다른 학과와 협력하여 강의를 개설한 후 조별과제나 토론을 통해 다른 학과와 의견을 나눈다.
- 화학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에서 하는 회로설계와 같은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되게 할 순 없지만, 반도체 재료에 관한 전공이나, 공정기술같은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였으면 좋을 거 같다.
- 원하는 산업을 선택해 제출하면 그 산업에 관련된 다른 전공수업도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교양은 패스과목을 늘려서 성적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수업을 늘렸으면 좋겠다.
- 고분자전공은 신소재학과와, 에너지전공은 자동차학과와 융합한다면 양질의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을 것 같다.
- 듣고싶은 과목이 있는데 화공은 일반선택이고 다른 전공은 전공선택/필수가 될 때 조금 그렇다.
- 이차전지 관련하여 배터리에 관한 수업을 더 다양한 학과와 함께 진행하여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 관련된 학과들의 일부 수업을 전공 수업으로 설정하여 들을수 있으면 좋겠다.
- 주변의 건물이나 옷을 보면 많은 재료가 사용되는데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여 소재, 재료에 대한 것을 깊이 공부한다.
- 화학공학부 안에서 세분화 및 융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공학적 사고와 더불어 인문학적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전공과 융합
- 세부 전공과 다른 과가 융합된 규모가 큰 전공을 개설한다.
- 외교와 관련된 국제법 혹은 정치와 관련된 꼭 알아야할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수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치에 한정된 강좌뿐만 아니라, 외교는 물론 다른 영역까지 융합시킨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학의 여러 분야와 연관되는 사회복지학, 가족주거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과와 연계한 교과목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
- 전공의 세분화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 학과만큼 다른 분야와 융합이 잘 되는 학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사회법학, 사회통계 등 전공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취업 과정에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치료학과, 음악학과, 미술치료학과 등의 융합을 통해 세부전공으로 아동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 등의 전공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됨.
- 사회학과 세부전공은 교직이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사회심리, 사회공학 등 과목을 융합한다.
- 인문학 + 인공지능=인공지능인문학
- 사회학이랑 지리학을 전공할 수 있는 융합전공이 신설되었으면 한다. 타 대학과 다르게 영남대에는 지리학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학과 지리학이 융합된 전공이 생겼으면 한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인만큼 기본적인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 많아지길 희망. 촬영,기획,편집 등 관련한 활동 증진
- 마케팅분야, 기자분야, 빅데이터 분야, 언론 경제분야 등으로 세분화해서 좀 더 심화된 전공을 배우고 싶다.
- 본인이 가고자하는 병과와 관련있는 학과와 연계수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각 병과에 맞게 다른 학과와 융합해보면 좋겠다

41. 기타 19.0%

- 큰 틀 안에서 자신이 가고자하는 병과를 정한 뒤, 그곳에 맡는 수업들을 다른 학과와 융합하여 진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과, 세부전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아동심리학 등과 융합하고 심리학의 세부 전공을 나누어 지도교수님과 상의한 후 세부전공에 대한 수업을 듣는 방법
- 사회복지, 뇌 과학, 컴퓨터공학과 융합·연계 전공이 생기면 두 학문을 모두 배울 기회가 될 것 같다.
- 우리과 건축학과 등에 세부전공으로 있으면 좋겠다. 다른과에 비해 특색이 강해, 다른 전공과 달리 취업로가 정해진다. 우리가 세부전공으로 있으면 더 많은 취업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환경, 건설시스템과 같이 비슷한 계열의 학과들과 같이 듣는 전공 수업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 전공과 관련된 타과의 전공을 타과 제한을 없애고 비슷한 전공과목을 연계하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타과 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과목 (강의 시간에 여러 과목 교수님들의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1학년 때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듯함)4
- 복수 전공이 활발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현재는 성적에 대한 우려로 복수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더러 있음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통번역학부 -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학과들과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 영어통역부분, 이과학과 등 영어영문학과와 다른 특색있는 학과의 장점들을 살려 융합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줬으면 좋겠다.
- 역사학과는 현재 주의의 인식에서 취업의 한계가 있다고 여겨 지지만 그 틀을 깨부수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앞서가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학과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거 혹은 인문과 이공계 통합 전공 등 학생들이 전공을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이라는 전공과 과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된 전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강신청에 융합전공 연계전공 탭이 신설되면 접근성이 늘어날 것 같음
- 학부에서 무조건 한가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학부 전공 상관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범대학 내에서도 다른과 학생들과 그런 활동을 해보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컴퓨터공학과&심리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행렬과 통계의 필요성을 1,2학년 기초에 들어가는 만큼, 통계학과에서도 다른 타과에서 응용되는 방안을 파악하여 통계학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실제 강의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 다른 전공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려 다른 다양한 전공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현재 자신의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소속학과와 관련있는 다른 학과의 전공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 통계와 실생활과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보고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싶다. 의학통계나 심리통계, 또는 경제/경영과 관련지으면서 실생활에서의 예를 알아보고 관련 코딩수업도 해보는 식의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전공 수업을 선택하고 그와 주제가 비슷한 강좌를 같이 듣는 방식ex. 물리화학 - 일반물리 or 역학 수업 등
- 생화학 전공, 화학 전공으로 나뉘었다가 통합되었는데 생화학 관련 수업이 적어진 것 같아 아쉽다. 생화학 전공 수업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약학과와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영어)
- 융합과학적인 교육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제나 해외 이슈들을 다루는 학과와 융합하여 다른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공에 맞게 제공
- 우리 과의 경우 기본 전공교육이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학과 융합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더욱 넓은 전공지식을 응용할 과를 찾는것이 우선이라 보인

41. 기타 19.0%

다.

- 융합전공의 경우는 다른 학과 수업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타전공 과목을 수강하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해당학과 교수님들도 인원이 초과되어 난감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분의 타전공을 엮어서 하나의 강의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존의 3학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전공의 1학년 과정과 우리과의 전공을 일주일에 한번씩 나눠서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어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고를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관련 단대, 과랑 협력한 강의 개설
- 경제학부, 사회복지학부, 행정학과정도 -> 개발에만 막연한 투자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지 못한다. 개발 전문가든 사회복지 전문가든 경제학이든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공부로 여러 기회를 늘렸으면 한다.
-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는 새마을과 사회복지 그리고 국제개발을 합친 융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이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학문과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대회를 하는것도 좋지만 다른과와 협력할 수 있는 대회라던지, 국책사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포함되는 다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각 관심분야 별로 필요한 학과와 융합하여 국제개발협력 실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이 있습니다.
- 우선 학생설계 전공이라는 시스템을 대학교 측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임. 제일 큰 문제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없는 현실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 및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얻는 것이 더 나아 보임.
- 다른 학과의 특징을 잘 몰라 융합에 관해서는 어렵다.
- 학과 세부전공을 나누지말고 지유롭게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우리 과에 세분화 되어있는 전공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는 못할 것 같다.
- 아직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한 분야라서 어느 점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 현재 3개로 나누어진 기계과 세부 전공의 통합. abeek 인증을 줄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세부 전공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 반도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싶다.
- 다른 학과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타과 여석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 융합, 연계전공 등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러한 전공을 통해 그 과의 학생과 성적 배분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ex) 융합, 연계, 설계 전공끼리의 성적계산 혹은 절대평가. 기존의 과 학생들과의 통합 성적 산출
- 연계전공 안 함.
- 대부분의 기계전공 학생들이 생산, 생산기술, 품질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산업공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업에 대한 역량과 취업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희망함
- 연계전공을 하고싶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하게되는게 아쉬움
- 현재 교육과정에 만족한다.
- 기계과도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 있게 융합 전공을 개설해주면 좋겠다.
- 로봇공학과는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과와 융합해서 수업을 개설한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 업계 협력 및 산업체 연계를 할 수 있는 전공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1학년때 PYTHON C언어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둘 중 언어 한 개를 선택해서 충분히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아지면 나머지 과목은 솔직히 독학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진다.
- 순수 이공계열 진로와 이공계+자연계열 진로, 그리고 대학원과 취업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전공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컴퓨터공학부에서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빠르게 접하고 배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1. 기타 19.0%

- 솔직히 공과 대학과 융합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컴퓨터공학과 2학년때 나누어지는 트랙 시스템(ex.화학공학과)이 존재는 하나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전공 수업을 들어야 전공 학점을 채울 수 있어 효과가 미비함. 따라서, 화학공학과 처러 2학년때 아예 컴퓨터공학과 xx전공처럼 아예 트랙으 나누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공생들이 공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함.
- 전자공학과의 경우 전기과와 컴퓨터 공학과의 코딩부분이나 회로 반도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과인 만큼 지금은 전자공학 전공 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전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공학 반도체 전공 이런식으로요
- 다른 학과에도 겹치는 내용의 과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통합하여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함.
- 전자공학과가 반도체 분야, AI 분야로 나눠져도 될 것 같다.
- 현재 전자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공학과의 전공 수업이 인정되는 과목이 3과목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또 인정은 되지만 그 과에서 타과생을 받지 않아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배우는 과목이 다른 과 강의 내용과 연결되거나 연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타과 전공 인정 과목이 조금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세부 전공을 정하는 경우 어떤 수업이 필요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과목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수전공 선택 시 졸업요건을 완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복수전공과는 다른 이름의 전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과 학생들이 타과 수업을 좀 더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학과내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나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소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안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의 전공수업을 연계하여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아리를 통해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ex : 전기자동차 동아리 = 전기과 + 자동차과)
- 과 특성상 6학년 때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학사과정 중 필수 전공 과목들을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과목들 위주로 배정하면 좋겠다.
- 약학과 전공 수업은 약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수업들인데, 다른과들이 그 수업을 들을 마땅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앞으로 약사의 직능의 대부분이 단순한 복약지도,약 조제 및 검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확장되고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세부 전공과목 선택을 통한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것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고학년의 세부 전공과목 선택도 필요한것 같다.
-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하여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다면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경영과 공학쪽 전공 융합
- 우선 융합·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 해당 전공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경영학과는 기업을 경영하는 지식에 대해 배우는 학과이므로, 이에 대해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융합·연계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영남대 경영학과 출신 중 창업을 한 선배님들을 모셔서 강연하는 과목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신의 학과를 중심으로 어떤 세부학과를 들어야하는지에 대한 멘토링이나 세부전공을 위해 들어야하는 강좌나 추천강좌가 소개되어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음. 재무면 재무, 인사면 인사, 마케팅이면 마케팅 등등
- 경영학과를 보면 영어와 관련하여 해외 취업에 도움을 주면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 등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영어에 비하면 관심이 적긴 하나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없다면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여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 사진 관련 수업이 늘었으면 좋겠고 학교측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구비해 대여해준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큰

41. 기타 19.0%

경제적 부담 없이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 전공 과목 세분화를 통해 영어학과 영문학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듯
- 철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을 선택해 (서양철학, 동양철학 등) 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그것에도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철학과에서는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논리학, 인식론, 철학사 등 여러 가지 세부 전공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세부전공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어떤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는 크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전공핵심강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과가 각 학번이 서른명에서 마흔명 남짓하는 소수과인만큼 세부전공제도 적용이 어려워보인다는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졸업 논문 심사에 큰 효용을 낼 수 있을 것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세부 전공별 인원 제한이 있다면,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물리학과가 다양하게 폭넓은 교육을 하고있는데 세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선택하여 그것을 중점적으로 배울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희망 진로에 따라 세분화된 전공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는약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니 관련 전공으로 융합 전공이 있으면좋겠고, 문과대학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진학하기 위한 융합 전공이 있으면 좋겠다.
- 과목의 세분화 중 생화학 분야를 따로 빼내고 교수진을 더 채용하여 생화학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 2-3학년 즈음 세분화된 전공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다른 학과와 융합을 하더라도 학과들간의 성격이 매우 달라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과 자체적으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빠른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 영어학과 영문학 중 전공을 선택하는 방안
- 영문학과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전공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들의 전공 중 영어와 관련이 있다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
- 타 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영어영문학과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 개설
- 자신이 전공수업을 직접 선택하여 듣는다면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한 전공수업 수강생이 줄어들 것이고 전공에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인의 진로를 확실히 못정하고 꿈에 대해 고민하다가 뒤늦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복전공을 하다가 안 맞아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게 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하여도 되지만 졸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점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인정은 되지 않더라도 진로에 관한 다른 과 전공을 들었을 때 전공학점으로 인정 해주는 방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다른 강의를 들으면 그 과목에 대한 경험을 본인의 취업 자소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 공고에서 그 과목을 들으면 좋다고 과목명을 제시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3,4학년이 되어서 진로를 결정했더라도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는 전공을 들으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 국제개발의 분야에 연관된 교내 학과들과 연계하여 타과 전공을 듣게되더라도, 우리학과와 관련된 활용방안 및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리학과 전공으로 인정하는 식의 방향으로 세분화된 전공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7. 교육과정 혁신방안 제안

- **본문에서 간략하게 표로만 제시된 항목에 대한 세부 응답 raw data (단답형, 중복 문장 제외)**

1. 강의 다양성 11.6%

-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전공에는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공 수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선택 과목의 수를 늘렸으면 좋겠음
- 특강을 많이 주최해주면 좋을 것 같음
-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토론과 같은 아카데미식 토론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서 학업증진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줌
- 피아노 악기 특성상 개별 활동에 익숙해 모둠별 활동을 하는 경향이 낮음, 학생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예술대학 내의 다양한 전공의 합동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
-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나 구체화 된 의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혹은 직접 강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한 영화, 뮤지컬 강좌, 유튜브, 춤 등의 과목이 새로 개설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 기존 1~2개로 제한되었던 전공선택과목의 수를 늘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각 학과의 전공과 관련있는 타학과의 전공 교양수업을 개설하여, 전공과 밀접하게 연계된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양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국소적이고 지역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양보다는 좀 넓은 범위의 교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철학과목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교양으로 다져지고 토론이 많은 과목이 개설되면 교양 증진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 다양한 주제의 특강 형식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 단순히 지식을 넣어주는 수업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강의가 늘어나면 좋겠음.
- 쉽고 편하고 가볍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까지 진행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수업하거나 과제로 학생들에게 부여하기보다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유익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여 수업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 교양 과목의 수와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양 과목의 시험 방식이나 출석 인정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이 좀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학부들이 융합하여 세분화되는 전공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각 학부에 더 다양한 전공선택 수업을 늘려 그 학부에 대한 다양한 수업과 자유로운 교양수업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학과보다 학부를 늘려서 과에 세부화된 전공들을 다양하게 하고 그 세부화된 전공들에 대한 다양한 수업정보나 관련된 전공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대외활동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방법을 늘렸으면 좋겠음
- 화학공학부내에서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과목들을 더 증설하고, 캡스톤주제도 더 많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 화공시스템의 경우 반도체관련 주제는 캡스톤에서 열리지 않고, 이차전지의 경우 하나의 주제만 열려서 경쟁이 심할 것이다. 물론 정통화공도 반도체 이차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통화공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에 관한 비중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을 것 같다.
-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교양수업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더 많은 질 좋은 수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많은 학생들이 천문 관련 과목을 듣고싶으나 교양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불만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우

1. 강의 다양성 11.6%

리 학교의 천문 관련 학과가 없기에 교수님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분 정도는 모셔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차전지 수업을 융합화공전공에도 열어주면 좋겠다.
- 다양한 교양, 전공 과목 개설
- 국제적 외교와 관련된 법적 지식 수업 필요
- 기초학문에서 더 나아가, 응용의 성격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
- 다양한 교양, 전공 과목 개설
- 솔직한 강의 평가 및 평가가 잘 반영된 강좌 마련
- 인기 강좌 관련 과목 확대
- 대학교는 하나의 학과를 정하고 수업을 듣는 곳인 만큼 전공 수업의 질과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새로운 강의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과 전공 과목을 늘려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앞으로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전공과목의 다양성을 늘린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 분야를 결합한 인공지능 사회학이 신설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과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다양한 교양 과목을 개설하여 영남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무적인 경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강의 방식의 변화와 강의 영상의 질을 위해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 과목의 개수를 늘려 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듣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이 실기 영향을 많이 받는 과들은 실기와 관련한 과목들을 많이 형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한없이 타전공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수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 진로에 대해 들어보면 엔터쪽으로 가려는 학생들도 있고 마케팅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데 마케팅원론 수업을 전공 선택으로 넣어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수강 선택지를 좀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수업(예를 들어 성격심리학, 아동심리학)과 같은 수업들이 열리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확실히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다양한 검사들에 대해서 성인 mood, 진단과 같은 검사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배울 기회가 심리평가 말고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배우는 내용도 일부분일 뿐 아니라, 수박 겉핥기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함. 그래서 임상으로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 현직자 강의 프로그램
- 전공 수업 선택지를 늘렸으면 함 (한정적인 수업이 문제)
- 더 다양한 교양 수업이 생겼으면 좋겠고, 진로 고민에 대한 교양 수업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 저희 학과의 경우 진로가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만큼 각각의 진로에 있어서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1학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기에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2학기정도를 다니면서 본 선배님들의 고충이나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해본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2 학년때는 전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강좌들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론 같은 강좌가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후 3,4 학년때는 이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도 졸업을 가능하게끔 해주신다면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과 열정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학년이 되어보니 평소 학교다니면서 학점관리와 자격증공부, 대외활동을 같이 하기에는 힘든 점이있다. 학교차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는 자격증, 토익 등 관련 교양을 만들면 학생들은 학점관리와 그 외 자신들에게 필요한 스펙을 같이 얻을 수 있어 더욱더 효율적일것같다.
- 통계학에 관심도 많은 편이고, 좋아하는 편이지만 곧 졸업할 시기도 다가오는데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이

1. 강의 다양성 11.6%

많이 든다. 이 전공을 살려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에대한 의문점이 많다. 실제 통계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 특강과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관점을 알려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수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온라인 강의를 늘려 강의를 학습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양 수업들이 많아지고 수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흥미도 커지고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배님들의 문제 풀이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에게 연구실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많은 학생들이 연구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학부생일 때 연구실 생활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다. 그렇기에 연구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연구실 소개 등이 자주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각자 흥미에 맞는 연구실 및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 지금 교양교육과정에서 실용영어, 독서와토론 등의 과목들도 좋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 상식을 배울수 있는(예:청약주택, 금리, 세금 등) 과목이 필수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면 한다.
-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만큼 당연한 것이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법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험이나 집안일 정도의 상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시킨 교양과목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 전공 과목 수를 늘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학생수는 늘어나는데 개설된 반은 그대로이기에 핵심이 되는 전공을 아예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 이거 때문에 휴학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업못들어서 휴학생각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해결 방안을 좀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음.
- 수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공과목 증설에 힘써주세요.
- 전공과목의 수를 좀더 늘려서 졸업 학점을 맞추기 쉽게 해주면 좋겠다. 현재는 모든 전공과목을 다 들어야 겨우 졸업학점이 채워지는 현실이다.
- 전공학점을 채울 수 있게 많은 과목이 증설되었으면 좋겠다.
- 설치전공 제외 추가적으로 수업이외에 생겼으면 하는 수업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등). it관련 학과이고 졸업생도 it계열로 취업을 많이하지만 그에 대한 과목이 부족해서 it관련 과목을 개설해주었으면 함. (웹 개발, AI 등)
- 체육 분과 교육 상승
- 앱 관련 수업
- 자연어처리. 자연어처리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없다
- 게임 개발(언리얼) 3학년 쯤 배운다면 좋을 듯 하다. 언리얼이 C++로 돌아가기 때문에 2학년때 배운 C++의 감을 잃지 않으면서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볼 수도 있다. 사양이 꽤나 높지만 319호의 사양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 JAVA, JavaScript, UI/UX, Cloud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같은 많은 사회에서 쓸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수 있는 다양한 교양 수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우리학과는 교수님들과 학과분들 모두 힘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뀌어가는 교육흐름에 좀 더 빨리 많은 변화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번잡할 것이지만 한학기에 필요없는 과목 하나, 필요한 과목 하나만 교체해나가면서 해도 충분히 많은 발전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에 언급했듯이 들을 수 있는 분야가 적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못 듣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와 연계 전공 등 다양한 교류가 있는 강좌를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생들 인기 강좌를 많이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취업이 점차 어려워짐에따라 학생 각자의 진로도 세분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학교또한 학생들의

1. 강의 다양성 11.6%

수요를 알맞게 파악하여 여러 과목들을 계설하고 수요가 적은 과목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교양과목의 커리큘럼을 제시하여 커리큘럼에 맞게 수강을 하여 자격증취득(어학),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공이나 교양필수 과목등으로 특정과목을 수강하고 싶으나 수강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인기 교양과목의 사이버강의 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들을 수 있는 과목의 내용적인 폭이 조금 좁은 듯 해서 전공과목에서도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고, 많은 수강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과 또는 학교 내에서 미리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등에서 다양한 성격과 방향성을 지닌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대 변화에 따른 수요에 발맞춰 교양 과목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더 트렌드에 맞는 교양 수업이 필요하다. 교양 수업에서 언제인지도 모를 자료를 사용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다. 물론 좋은 내용의 수업이지만 시대에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학과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듣고 싶은 교양이 없을 뿐더러 듣고 싶은 교양이 있더라도 시간이 안 맞거나 이미 수강 인원이 다 차서 듣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교양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 수업 시간도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취업관련 프로그램도 더욱 생성되었으면 좋겠다.
- 평가가 어려워 예술을 다루는 교양 수업이 부족하지만, 이론 등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예술을 다루는 교양 수업이 조금이나마 늘어 많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예술 경험을 하면 좋겠음.

2.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 분배) 10.1%

- 저는 영남대학교 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어느 정도 학과 과정을 마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과 수업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재능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충분한 선배, 동기, 후배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양, 전공 수업 모두 이 기본기를 조금 더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기본기가 잘 다져진다면, 분명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영남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설계, 계획,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공핵심 과목에 대한 내용 수정하는 등 취업 준비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되면 좋겠음
- 디자인은 실 생활에 빠지는 곳이 없는 정말 중요한 분야다 그만큼 아주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데 되려 이 사실이 학생들에겐 버거운 것이 사실. 본인의 강점을 살려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학년 때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전시나 포트폴리오에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
- 3학년 때 이를 실행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세부전공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 작업물을 진행하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스킬에서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
- 소속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젝트와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본 학과 전체 학생에게 적용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전공 교육 과정의 세분화와 다양성이 존재 했으면 좋겠음.
- 중간,기말고사를 치고 난 후 모든 과목 성적 공개 의무화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시험점수도 모르고 학점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인 것 같다.
- 같은 학부에 세부전공이 달라도 같은 학부에서 열리는 전공과목은 타세부전공이 수강해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다. (ex: 에너지 전공에서 열리는 고체화학을 시스템 전공이 수강해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2.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 분배) 10.1%

- 학부 특성상 2학년 때 4개의 전공이 갈라져서 운영이 되는데, 1학년 때 모든 걸 알 수 없는데 1학년 때 한 선택으로 인해 전공이 갈리게되어 본인이 다른 전공에 듣고 싶은 과목이 생겨도 그 과목이 일반선택으로 인정이 되어 졸업시에 졸업학점을 채우기가 매우 까다로워 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전공을 통합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화학공학부도 전공을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와 반도체에 특화된 과목들은 에너지 전공과 융합전공에만 개설이되기 때문에 다른 전공들은 같은 화학공학부지만 다른 전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의가 많이 열리고 세분화된 다른 전공에서도 이수가 되면 좋겠음
- 비대면 시험을 모두 대면으로 하면 좋겠음
- 요즘 반도체와 2차전지가 국가 주력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에 발 맞춰, 화학공학부도 반도체나 2차전지와 관련된 전공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거 같다. 그러나 화공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 2학년부터 전공수업을 들어가는데 타 전공의 강의를 들으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으로 들어간다. 듣고 싶은 2차전지 수업이나 반도체의 수업은 그 전공에서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만 화공시스템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부분에서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한다.
- 전공간의 전과가 가능하였음 좋겠다. 에너지전공, 융합전공, 시스템전공과 같은 경우는 2학년때의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시기에 훅 변해버린 세부진로에 따라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면 좋겠다.
- 졸업유예 제도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꼭 생기면 좋겠다.
- 화학공학부가 다양한 전공과 학과와 융합하여 화학공학 하나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조금 느슨하게 조절한다.
- 전공의 자유도 측면에서 보면, 우선 4개의 전공은 유지하되 학생 각자의 미래의 취업과 관련된 전공을 전공이 정해진 이후인 3,4학년이라도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히려 교양보다는 전공 수업 선택에 자유를 주어 각자 듣고 싶은 전공 수업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타과 전공 인정 제도를 통해 타과에서 본인의 분야와 연관 있는 과목들을 들었을 때, 같은 분야에 한해서라도 전공 인정을 해주는 과목이 늘어났으면 한다. 본인이 기존에 들었던 과목의 응용, 심화 과목이 타과에 개설된다면 들을 수 있도록 타과 허용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으로 전공 수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면 한다.
-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주제를 정한 뒤 전공과목을 설계하고 자율 전공등의 비중을 늘려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기회가 늘었으면 한다.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 간 융합, 대학과 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 수강 과목의 학년별 경계가 명확함
- 1학년 때는 분반이 존재, 원하는 시간대로 시간표를 정할 수 없음 (1학년 과목의 경우 1교시가 너무 많음...)
- 역사학과는 1학년 때 영어, 한자,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2, 3학년의 전공 수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외국어를 활용한 수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1학년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강인원을 유동적으로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 수강 인원 수 증대, 교양&전공 강의 추가 개설 등 학생들이 보다 쉬운 환경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의 경우 역사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수강인원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강인원의 제한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교양필수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역사학과랑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을 필수교양으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초급일본어도 그렇다. 일본 역사 관련 수업을 듣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어를 필수교양으로 꼭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영어, 한자, 글

2.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 분배) 10.1%

쓰기처럼 필요한 수업들도 있지만, 굳이 큰 연관이 없는 필수교양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각 전공수업별 타과여석을 늘리면 좋겠다. 지금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원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역시 타과여석이 별로 없어서 수강정정 때 겨우 신청해서 듣는 수업이다. 못해도 타과여석을 최소 모든 전공수업에서 문과계열은 20석, 이과계열은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공 수업에 대한 자과 여석을 늘려야 한다. 본인이 1학년이지만 여석이 없어서 1학년 수업 대신 2학년 전공 수업을 듣고 있다. 2, 3학년 선배들과 경쟁을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달라서 성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 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 같이 전공과 관련이 없는 필수교양은 배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출산의 추세로 인하여 인기가 없고 취업이 힘든 학과들의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학교도 이러한 추세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필요치 않은 학문은 대학에서 개설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인기가 없는 학과들이라도 분명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하여 모든 학과에 대한 지원을 똑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음
- 사실 1학년 때 독일어와 프랑스어 모두를 듣는 방식이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라는 의미로 보여준 것이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언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렇기에 학기별로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다. 1학기 때 독일어를 배우고, 2학기 때 프랑스어를 배우면 훨씬 더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언어가 비슷하지만 다르기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암기의 문제에서는 매우 힘들었다. 그렇기에 한 학기 당 한 과목이 내 생각에는 생각할 시간도 많고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저 외우는데 집중하면서 무엇을 내가 선택할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 교양 수업을 심오한 주제가 아닌 한번쯤 살아가면서 생각해본 주제들에서 나온 수업들로 구성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어문계열의 인문대학 수업들이 더 이상 그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언어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우는 교육과정이 생기면 좋겠다.
- 게절학기에 전공도 수업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같은 단과대학 내에 복수전공, 교직은 매우 잘 활성화되어있지만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복수전공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복수전공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거의 다 제한되어있고, 복수전공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 또한 수강자들이 너무 많아 듣기 힘들어 수강하기 힘듭니다. 같은 인문대학 내에서의 수강 또한 시험 기간이 거의 다 겹칩니다. 본 당사자의 경우, 철학 수업과 복수전공 수업인 영어영문학 수업의 시험이 매 학기마다 겹쳐서 늘 교수님께 말씀드려 따로 시험을 쳤어야만 했습니다. 같은 단과대학 내에 복수전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타 학교에서는 입학부터 전공을 정해진 상태로 가는것이 아니라 1학년때 다양한 전공을 학기에 2개씩 들어보고 2학년때부터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 이 방법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보는 동시에 자신한테 맞는 전공을 찾아 전공을 살려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처럼 느껴졌고 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전과, 편입,재입학을 하는 방법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더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가장 큰 부분이 교양 수업 측면에서 이상적 수업은 모든 학생이 원하는 수강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양 과목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어떤 과목이 시간이 덜 소요 되는가가 아닌 어떤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은가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할 때 진정한 학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계절학기에 열리는 과목 중 전공, 교직 관련 과목이 너무 적다.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계절학기를 무조건 해야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채워야 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으니 계절학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졸업을 연기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계절학기에 열리는 과목을 투표해야 한다는 것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 계절학기에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들에게 투표를 부탁해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수강 인원은 투표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교양과 전공을 같이 들어 2, 3학년 때의 시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 전공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고, 교양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하고 활동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좋

2.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 분배) 10.1%

겠다.

- 기존의 성적우수자들에 대하여 최대 수강신청 학점이 열리는 것에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수업 하나를 더 듣는 것은 합당하며, 지식 함양의 보장성도 있겠지만, 단일 전공으로 3.75를 받는것과 복수전공으로 3.75를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난이도 차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면 안그래도 복수전공으로 들어야하는 수업은 많지만, 성적우수는 더욱 받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원치않았던 추가학기를 듣는등의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강가능 학점을 유지하되, 부복수전공자들에게는 일정 평균 학점이상을 유지하면 기존의 성적우수자들에게 부여되던 추가 수강가능 학점을 부여하는 식의 방식이나, 아예 기본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증가하면 좋겠습니다.
- 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함.
- 자주는 아니지만 학과 시간표에서 교양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분반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반을 선택할 수 없어 어느 한 과목은 해당 학기에 포기하고 다음 년도에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교양 필수와 전공 과목의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함.
- 인문•사회•자연의 교육과정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인문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계열의 교양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계공학과 전공 교육과 관련해서는 4대역학과 관련된 어려운 학문들을 Ⅰ, Ⅱ 로 나누어 기초를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복수전공의 학점을 42학점에서 60학점으로 조금 더 높이는 대신 2학년때부터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다.
-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전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4학년 1학기에 재이수 과목이 생기게 되면 4학년 2학기에 재이수를 들을 수 있도록 1학기 과목에 대한 재이수 과목 반이 추가 증설 됐으면 좋겠다
-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면좋을 것 같습니다
- 학과의 교육과정을 한 학기에 끝나는 교육과정이 아닌 여러 학기에 거치는 교육과정을 통해 좀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1학년 수업 진도를 고쳤으면 좋겠다. 지금 1학년 교양필수 과목들은 다른 교양과목과 별로 다를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도를 많거나 또는 어렵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 보면 결국 2학년부터는 언어를 다루는 것은 매우 능숙해야하고 그 언어로 더욱 어려운 수업을 나가는데 지금 1학년들을 보면 아직 언어도 잘 못 다루는 학생들도 보인다 따라서 위에 말했던 것처럼 1학년 때 언어를 선택해서 한 언어를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2중 for 문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만큼 언어를 배우고 1학년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 3, 4학년의 전공과목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1, 2학년의 전공과목이 교양과목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수강인원의 줄고 있는 것은 걱정되는 사항으로 고려됨.
- 기계IT대학의 과들을 통합시켜 조금 더 전공의 전문성을 높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2학년까지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와 같이 해당 기초 내용을 가르치고 3학년부터 조금 심화된 특정 분야의 전공만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자공학과라면 반도체나 통신, 회로 등 컴퓨터공학과라면 웹 어플리케이션, 딥러닝 등
- 지금 약학부 1학년 교양의 경우 2학기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수업과 '컴퓨팅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컴퓨팅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수업의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나 과제 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 약학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수강해야하는 강의의 수가 많아 학기중에 모든 과목을 온전히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강의의 경우 2학점으로 개설되었으나 그 내용이 3학점으로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학점으로 개설된 강의들 중 그 양이 방대한 과목의 경우 3학점으로 개설된다면 학생들의 학업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로서는 6학년 때만 집중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며, 그 전 학년에서는 약사의 실무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에서도 일부 실무 경험을 더 포함시켜 학생들이 약학 교육

2. 교육과정 개선(필수교양 과다, 학년별 전공 분배) 10.1%

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약사로서의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미리할 수 있고, 지역약국,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한 약사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약학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몇몇 2학점 과목의 내용이 3학점 과목과 유사하게 많은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2학점 과목 중에서도 내용이 방대한 경우, 해당 강의를 3학점으로 개설하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인 경우 1학년이 끝난 후 전공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학년에는 일반적으로 전공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2학년 때 전공수업이 학생이 생각했던 거와 다를 시 학교생활에 흥미와 학습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에 1학년에 전공수업을 진행하거나 4년제의 자유전공을 운영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우리 학과의 수업을 더욱 다양하게 개설하여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부득이하게 듣지 못하여 졸업을 위해 한 학기를 더 수강하여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직과목은 두 학기 모두에 실시한다.
-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교직 수업 몇 개가 졸업 요건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 필수 졸업 수업에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사범대에 진학하여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진로가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자신의 학과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학과의 수업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을 한 두가지 정도 청강해보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수업이 자신의 진로의 방향과 맞으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과의 수업을 한 두가지 정도 복수 전공을 등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선수 후수 과목이 바로 다음 학기와 연결이 되어있으면 좋겠다. 현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바로 다음 학기와 연결 되어있어 교수님들께서 미리 공지를 해 주신다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3.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 7.5%

- 경희대학교의 경우, 트랙제도와 같이 학과 간 일부 교육과정을 교류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무용학부와 한의학과 연계 트랙으로 쉽게 만나기 어려운 학과의 학생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타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다양한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다
- 학생들이 방학/학기 중 타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부복수 전공이 아닌 학점교류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시행
- 타과 수업을 들어보고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 자신의 전공에 접목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
- 학점교류를 아니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점교류 학생들과 소통하며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타과 전공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받음
- 교양 수업 외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문을 다양히 배울 수 있도록 함
- 건축학과는 건축학도가 직접 다른 학문을 배운다기 보단 다른 학문을 배우고 있는학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함.예를 들어 토목이나, 조경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등 실무로 나갔을 때 만나게 될 수많은 전공들과 학생시절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갇혀 있는 우물을 벗어나야 한다 생각함.
- 전공에 얽매이기보다 그 주변부분 중에서 연관이 있는 다양한 학과들과 연계하여 함께 수업하는 강좌도 개설한다고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3.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 7.5%

-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과목 개설하기
- 다른 학과와의 복합형 수업도 개설할만함
- 법, 정치 그리고 외교 모두 융합된 수업 구성하기
- 사회학과 단독으로 학습하기엔 광범위한 특징이 강합니다.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과 연계하여 강의를 개설한다면, 각각의 연계학과들의 강의 내용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ex : 조별로 한 학기 단위의 프로젝트 진행, 타 단과대 학생들과의 친목과 교류가 가능한 강의) → 대학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 발전, 졸업 후 사회 진출에 있어서 도움 가능
- 다른 대학교와 연합을 해서라도 취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환학생이나 유학, 워킹홀리데이 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다.
- 부복수전공을 더욱 추천해서 이젠 문과, 이과로 나누는 이분법을 넘어서 융합적인 인재가 많아지도록 학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역사학과라는 하나의 학과에 틀어박혀 진로가 좁다는 인식을 다양한 학과와의 융합, 연계전공을 통해 역사가 다양한 곳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활동, 수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더 나은 전공융합을 위해서 많은 과목이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 앞서 말한 융합적 교육체제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도출해내고 이를 외부활동을 통해 많이 알려 영남대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특징인 "복합적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밀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그리하면 타 대학과 다른 영남대만의 특징, 강점을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이 취업함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 혹은 학교 대외활동을 설명할 때 강점으로 작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철학과는 순수학문을 배우는 학과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취업과 같은 실전에서 약해지는 편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철학과와 철학과 학생들이 배운 것을 기업과 일터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진다. 졸업 이후의 특정 진로가 잘 자리잡혀 있는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 인문대학 학생들은 다른 전공과 연계해 자리를 잡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공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폭이 넓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할 기회와 경험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전공 과목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도 좋지만 복수전공 등 다른 과목에 대한 융합에 대한 것들도 학교측의 지원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자신의 학과이외에는 어떠한 성향의 수업을 듣고 어떠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들으면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재학중이 학과이외에 다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대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이 가능한 다른 단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비슷하지만 다양한 학과와 교류하여서 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학과를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
-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 않은 것에 항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따로 없지만, 소속 학과의 사회복지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더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양과목의 다양화와 원하는 다른 학과 수업을 조금 더 손쉽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어느분야에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과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느과지만 애매한 상태로 졸업하면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단점이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과나 전기과, 컴공과 등 다른 학과와 융합된 수업을 한다면 진로의 방향을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됨
- 타과와의 협업으로 다른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봇공학과는 과 특성상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한다. 그래서 만약 기계공학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타 학과와의 교류가 존재한다면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다른 과의 전공과 융합된 전공과목을 개설해 세부전공을 정했다면 다른 길로 나아갈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공대나 기계IT에서는 공통적인 전공필수과목을 배웁니다. 그런 과목들은 계절학기에 재이수와 재수강을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 7.5%

-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하고 있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게임, 자동차,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과 접목하여 앞으로 더 나은 컴퓨터공학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컴퓨터 공학과의 세부 전공이 더 개설되면 좋겠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부 전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듣다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깊게 배우기에 많이 부족한 교육과정인 것 같다.
- 인공지능을 통해 다른 전공과 연계될수있는 수업.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여러 분야와 협업할수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히 파보면 좋겠다.
- 세분화된 전공 및 융합 교육 (학생들이 다양한 관련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세분화된 전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전공 또는 부전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학과와의 협력을 촉진)
- 다양한 전공과 연계하여 다른 분야의 취업시장에도 접근성이 좋게 하여 학생의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앞서 말한 전공의 분류입니다. 기계과는 기계설계, 기계시스템, 첨단기계로 전공이 나뉘어집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자동차에서 세분화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 전기(자율)자동차 로 전공을 나뉘는 등 구분을 지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길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걸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희 학과와 관련된 다른 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연계 전공 강좌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약사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약학 지식 외에도 마케팅이나 변리사와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 기회를 통해 약사로서의 역량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진로 다각화 및 경력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평소에 학교에서 서로 다른 전공을 연계하고 융합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밀접한 두 가지 전공을 융합하는 과목이나 활동을 개선하면 두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융합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진학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려대학교의 경우 이중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심화전공 중 1개를 꼭 선택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우리 학과 경영학과는 배우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얕다 보니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얻어갈 수 없다. 우리 학과에서도 다양한 학과와 융합전공을 해서 경영+심리, 경영+언어 쪽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심화전공을 만들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예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하나 지금 이 시대는 자연계나 상경계를 제외하고는 취업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되었다 거기에 따라 위 2개와 관련 된 학과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계와 같이 사람들이 빠지는 학과 같은 경우 기존 전공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분야와 융합을 한 강의를 개설한다거나 열심히 하면 전공과 관련 된 취업 또는 사회에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학과가 너무 한정된 영역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리 학과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전공을 가진 학과와 교류를 한다거나, 그 교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면 좋을 거 같다.
- 다른 학과와 접목할 수 있는 교류 형태(동아리, 사회 봉사, 교양 과목 등)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문이과 통합형 인재 만들어 내기 위하여 문이과가 적절히 섞인 교양과목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각 학과 수업을 받으면서 식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학과 수업 과정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3. 융합과목(학과 교류 부족, 다양한 융합과목 희망) 7.5%

- 학생들의 진로가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자신의 학과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학과의 수업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을 한 두가지 정도 청강해 보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수업이 자신의 진로의 방향과 맞다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과의 수업을 한 두가지 정도 복수 전공을 등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른 사범대 교육학과 사람들과 더 교류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를 위한 화학, 생화학, 식품 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교차 학제적인 연구를 촉진시킨다면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 같음 또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최신 연구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면 육각형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음

4. 실습과목(실무교육 부족, 실습기회 부족) 6.2%

- 교육과정에 현장 실무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강화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
- 실무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햡을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모집하여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의 경우 학기 중에 밀라노에 가서 학생들이 의복디자인한 것을 런웨이로 실현하거나 쇼 스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각디자인학과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동행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를 접하고 접목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학생 개개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에 1-2회는 직접 만나 피드백을 받는 장기 워크샵이나 1-2주간의 집중 단기 워크샵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 생겼으면 좋겠음
- 소속 학과의 실습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이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건축학과는 현장실습 관련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 실무적인 활동과 관련된 강좌
- 강의 후 현장 방문 견학이나 실습 견학 등이 필요함
- 방문 실습형 및 참여형 수업 늘리기
- 실습형 강좌 개설
- 이론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경험을 더 살릴 수 있는 교양 실습 과목을 더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이 여러 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속 학과의 과목이 많아지면 좋겠고 실습 비중이 커졌으면 좋겠음
- 여러 실습형태의 수업이 더 생겼으면 좋겠음. 단순히 앉아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음
- 시험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이론 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실습 위주의 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
- 회화, 영어 인터뷰 연습, 작문 등의 과목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 실무적인 과목 위주의 강의가 늘었으면
-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와 교수들을 초빙하여 교양과목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교양과목, 전공과목, 취업 활동 등 다양한 수업에서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실무 경험을 배워보고 실제 경험해 보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물리학과에 반도체 공정 실습에 대한 수업 내용이 많아졌음 좋겠다
-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와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이론과 시험만이 아닌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교양,전공 상관없이 이론위주보다 실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4. 실습과목(실무교육 부족, 실습기회 부족) 6.2%

- 교양,전공 상관없이 이론위주보다 실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 현장 실습을 다니거나 외부 강사 초청 강연과 같은 것들이 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왜 배우나 싶었으나 점점 알면 알수록 역학 과목 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전공과목을 배우는 과정이 잘 짜여 있다생각합니다.
- 설치전공 제외 추가적으로 수업이외에 생겼으면 하는 수업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등).
- Ai 모델 만들기 실습
- 신호처리가 이론으로는 있지만,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적용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습으로도 배워보고 싶다
-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을 탐방하는 과목 혹은 전공 수업 중 팀원을 꾸려 공모전을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무 경험 강화 (현장 실습, 산업체와의 프로젝트 협력 등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약학 대학의 교과과정에 더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6학년 때만 집중적으로 실습을 수행하고, 그 전까지는 약사 역할 및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3학년, 4학년, 5학년 과정에서도 일부 실무 경험을 더 포함시키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약학 교육을 더 잘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미리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약국,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한 약사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미리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는 약학 대학의 교육 방식을 더 임상 경험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6학년 때만 집중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며, 그 이전에는 약사의 실제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에도 일부 실무 경험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전체 교육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학생들은 약사로서의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할 수 있고, 지역약국,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한 약사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미리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영학과는 실무가 중요한 과목이지만, 현재는 이론 과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1세기지식특강이라는 과목처럼 관련자의 강연을 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실무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만 배우는 전공 지식과,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는 전공 지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년제 유아교육과와 전문대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은 4년제 유아교육과가 실무경험이 떨어진다고 함. 이론적인 지식은 월등히 높고 아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 유아들을 접할 경험이 봉사밖에 없음. 봉사만 하고 3,4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학과에서 평소에 학생들이 유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주위의 유치원들이 우리학교에 체험학습을 온다면 우리과와 연계해서 놀이를 같이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 유아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은 다른 학교에 비해 이론 중심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론이 중요하지만, 대구대학교의 경우 직접 유아들을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던가 연극회를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처럼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도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 실기 수업이 부족하고 졸업 시험을 치는 것도 형식적인 평가 방식에 불과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 수업 증가, 졸업 작품 패션쇼가 필요합니다.
- 의류패션학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실무 교육 진행을 통한 학생 역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실습 위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실기와 발표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 실습과목(실무교육 부족, 실습기회 부족) 6.2%

- 실습을 직접해보고 이 일이 자신에게 확 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현장감이 잘 안다가 와서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긴가민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교수-학생 의사소통(과제 및 시험 피드백, 학교생활 상담 등) 6.0%

-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공지를 안해주는 교수님이 많으심
- 시험을 치고 성적을 열람해야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음을 통해 학습의 능률이 오를 수 있음
- 학기마다 두 번씩 진행 하고 있는 강의평가가 실제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에브리타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강의평가를 볼 수는 있지만 이 기능이 학교 urp에 들어온다면 더욱 편리할 것 같음
- 학교 urp에서 이전 학기 학생들이 진행했던 강의평가를 볼 수 있다면 수강신청을 할 때나 교수님들이 수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에 대한 제도와 지원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홍보가 잘되지 않고, 실제로 실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함
- 학교 측에서 좀 더 신경써서 어떤 방면으로 나아가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학과마다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 같다.
-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고, 현재 학과에서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실무자들의 초청 강연, 취업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 직무특강, 취업캠프, 교육지원 등의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취업특강을 듣고 싶어도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에 데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청년들을 위한 위로와 독려를 목적으로 한 강연도 많이 열리면 좋을 것 같다.
-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면담 등 이러한 것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느낌
- 쪽지와 같이 1대1로 주고받는 메신저가 아닌 특정 수업에 대해 다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수업에 있어서 질문이나 모르는 것을 부담없이 물을 수 있을것임
- 인원이 많은 수업의 경우 멀리 있는 학생도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모르는 것을 묻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교수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정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귀를 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수업에 적극 반영하는 포용적인 태도로 임해주시면 학생들이 수업 듣기 편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 학생설계 및 융복합 전공과 관련하여 홍보 및 교수님과의 상담 필요
- 분기별로 교수-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양질의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의 제공자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함. 강의 제공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수업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강의는 폐강을 하는 등 결단력있는 조치가 필요함.
-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에서도 교수님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글쓰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더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씩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과 교수님들의 교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 교수님들의 성적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교수-학생 의사소통(과제 및 시험 피드백, 학교생활 상담 등) 6.0%

- 교수님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많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이라도 1년 최소 1번 가졌으면 좋겠다.
- 기계공학부에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줬으면 한다.
- 학생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교수님과 상담할 기회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모든 시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등의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의 공략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원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 유독 전기공학과는 폐쇄성이 짙다고 생각한다. 학과 내 활동이 타 대학, 타과에 비해 현저히 적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적으며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학생 개개인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학과 내 활동이 더 다양해지고 학과 학생들끼리 더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
- 시험 점수 고지를 필수로 하면 좋겠다.
- 수업계획서의 변동이 있을 시 공지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안이지만, 즉시 수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나하나 공지를 다시 찾아보거나 물어 확인한다면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으므로 주간 수업계획을 메모 작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획대로 실시되었을 시 체크 표시를 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방면으로 사용되는 건 어떨까 한다.
- 시험, 과제 점수 의무적 공개
-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때,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주시고 진도를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제 피드백 제공
-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공개로 내가 왜 이러한 성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수와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기간을 정해서 교수와 학생들의 간담회같은 것도 열었으면 좋을 것 같음.

6. 교수진(교수 부족, 강의 질 편차) 5.7%

- 은퇴하는 인원의 수에 맞게 교수 인원을 충당한다.
- 각 과마다 교수를 늘려서 보다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젊은 교수진 위주의 강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 교수님들의 수를 늘려서 전공 수업을 늘리면 좋겠다.
- 교수님이 부족하여 학과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형학부 전공 교수 추가적으로 영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양 혹은 전공 모두 듣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의 수나 교수님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현재 학과에 학생수에 비하여 교수님이 적어 듣고 싶은 수업도 못 듣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양도 아니고 원하는 전공 과목을 못 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과 전공 교수님들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과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인기 있는 전공 과목들의 분반은 늘리고, 교수를 채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전공 과목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젊은 교수 또는 강사 적극 선임하기
- 교수 채용 증가와 수강신청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 인원 증가
-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젊은 교수님들이 필요.
- 교수를 더욱 선임하기
- 다양성을 띄는 강의 및 또 다른 시각을 보이는 젊은교수(현재 정치외교학과는 젊은 교수 및 강사가 한명도 없음)

6. 교수진(교수 부족, 강의 질 편차) 5.7%

또는 강사 선임

- 과당 교수 채용 증가
- 젊은 교수님 및 강사님 채용을 늘려주세요
- 현재 정치외교학과에는 젊은 교수도 없으며, 소수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젊은 교수님이 학과에 더 들어왔으면 좋겠음
-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교수를 학과 교수로 선정
- 교수진 증원이 된다면 앞선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함.
- 교수진을 많이 뽑아야 함
- 교수님들이 맡는 과목수가 2~3개씩 되다 보니 오히려 수업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 강사를 조금 더 고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리학과의 개설되는 수업은 적다. 분반이 있는 수업은 별로 없어서 한 수업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많다. 또한 어떤 수립은 매년 개봉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제목을 가르칠 교수들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 현재 도시공학과 전임 교수님은 세분이지만 정연식 교수님께서는 안식년이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 계시며, 서정인 교수님께서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심. 그 때문에 김철영 교수님께서 전공과목을 거의 맡으시고, 이일 교수님 등 겸임교수님께서 대부분 수업을 주관하셔서 교수님과의 소통이 어렵고, 전임 교수님이 바쁘셔서 공모전 및 대외활동에 자문하기 어려움. 또한 진로 상담 및 전공 방향 설정 상담 때도 스케줄을 맞추기 매우 어려움
- 강사가 아닌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더욱 더 많은 양보다 질적인 강의가 많은 수업들이 많으면 좋겠다.
- 학과의 교수님들을 더 많이 채용하면 좋겠다. 한 전공에 대해서 미리 교수님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대해 교수님들을 채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추가적인 교수 채용 및 양질의 강의 평가
- 교육자는 교육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훨씬 더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비싼 등록금 주고 대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전공 교수진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라서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과목들이 몇 몇 있는데 교육 혁신으로 젊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을 배치하였으면 좋겠다.
- 교수님들의 수가 부족한 학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충전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의평가제도를 조금 더 강하게 활용하여 유능한 교수님들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교수님과 다양한 학과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 교수님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학과는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 더 다양한 전공과목의 개설 필요함. 특히 반도체 관련 교수님이 부족함
-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지만 원하는 수업을 편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휴학을 결심하게 된 학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19년에 입학하였을 때 선배들이 수강하였던 과목은 교수님의 퇴직 이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동안이요. 올해도 교수님이 퇴직하시고 과목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수업의 다양성을 점점 잃게 되고 현재 운영되는 수업 마저도 수강신청 인원이 한정되어서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부디 수강신청이 힘든 학과에 한해서라도 먼저 교수님들을 더 모셔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고생해주시는 영남대학교 실무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학과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과 내의 관련으로 전문적인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개설하고, 수강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보여요. 관련된 교수들을 채용하고, 관련 수업의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어교육과 고전문학 교수님 채용에 대한 답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7. 취업 지원(대외활동, 인턴, 자격증 취득 관련) 4.9%

- 과 특성상 트랜스아트과는 조소, 사진,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을 배우는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다양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각각의 전공에 맞는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각각의 전공에서 취업한 선배들의 직접적인 취업 준비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미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넓은 캠퍼스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각 과에서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화학공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로는 취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던지 전공 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선이 안 되게 다른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취업과 관련된 활동 마련
-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도시공학과는 다른 타 공학 대학보다 인턴 활동이 적어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렵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적어 개인의 전공을 성장시킬 기회가 적음. 2023년 이번 여름, 김철영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영천 서부동 청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냄.
- 영어영문학과에서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수님들과의 기본적인 상담도 좋지만, 학생 개개인에 맞춰진 진로상담에 기반을 둬 취업 경로를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취업한 선배들과 후배들과의 교류라든지, 교수님의 회사 추천 등 여러 가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 영어영문학과에서 토익에 관련된 지식을 거의 배우지 않는 것 같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문학을 배우는 게 맞지만, 토익도 충분히 배웠으면 좋겠다. 토익은 하나의 비즈니스 영어이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취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 따로 외교원에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는 학과과정을 거치면 토익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영어를 배우는 것과 토익 자체를 배우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실습이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취업과 관련 없는 순수학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발목을 잡긴 하지만, 최대한 취업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제도를 추가하는 것도 우리 학과의 교육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취업과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캠페인이나 강연 또한 활성화된다면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자소서를 첨삭하고 컨설팅 하는 사업이 생각났습니다. 경험이 많고 생각과 의지를 잘 표현 하고싶은데도 글로 잘 녹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첨삭 받을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매학기 마다 힘들면 3월초나 12월 말 중에 자소서 첨삭을 신청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과 안에서 가고 싶은 취업 분야를 미리 선택해 그에 관련된 전공을 듣도록 해 취업에 도움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선배 멘토링 등도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 관련 직무에서 하는 것들을 실제로 배워보고 겪어보는 것이 추후 더욱 도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학교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서 취업에 대한 이점이 생기면 좋겠다.
- 학생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도 어울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활동과 인턴십 등 취업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관련 직종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많아지면 좋겠다.
- 3~4 학년 대상 취업연계를 잘 해주세요
- 변화해가는 산업에 발맞추어 부, 복수 전공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7. 취업 지원(대외활동, 인턴, 자격증 취득 관련) 4.9%

창구를 마련하였으면 함.

- 취업에 대한 과의 자체적인 수업 혹은 취업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모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음
- 자격증, 영어 스피킹 등 자격증 따로 공부하는 것 보단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면 좋을듯 함.
- 현재 학부 과정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전공관련 탐구하는 과동아리)와 프로젝트 및 대회를 준비하는 작은 소모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많은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 및 공모전이 더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음
- 학과에서 운영하는 진로 활동, 취업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안정적인 영양사 실습을 위해 급식 업체와 계약
- 특정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가 우리 학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들을 개설해주신다면 우리 학교의 위상과 명성, 더 나아가 더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 과목 부족(세부 전공/트랙 과목 부족) 4.4%

- 교양 과목을 더욱 세세하게 늘려 교양 과목을 통해 시각이 넓어져 전공과목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다.
- 전공수업에는 크게 불만이 없으나 미술드로잉 수업이 추가되었으면 함. 설계할 때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많이 느낌. 대신 이 수업은 학점을 나누는 수업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저 건축드로잉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 전공과목 강의 수 부족으로 전공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 개인에게 적합한 세부 전공(설계/교통/환경)을 찾기 어려우며 전문성을 기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예체능 부분이나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음
- 우리학과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으며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닌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 조금 더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
- 타과 4학년 수업(ex, 4차 산업혁명과 취업)과 같은 과목처럼 실질적인 취업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과에서 주관해주시는 강연들이 있지만 해당 강연은 수업편성이 아닌 임의의 강연 형태로 아르바이트나 개인 일정, 타 수업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듣기 힘든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업 형태의 강의를 신설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양한 과목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 및 소속 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교수들이 필요하고 전공을 더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교수님들께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맞춰와서 학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는 학생들까지 모두 데리고 갈 이유와 시간이 없다.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세분화된 전공 교육과정을 마련해 소수의 학생들만이라도 키워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신규 전공과목 증가
- 너무 많은 범위를 배우는 것 같아서 과목의 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음
- 전공 다양화. 전과를 하지 않아도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모든 학생이 편하게 수강
- 부산대학교 기계과에는 기계공학개론이라고 레고블록을 가지고 공학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가 만든 도면이나 모양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고 조금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및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교육 경로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과목 부족(세부 전공/트랙 과목 부족) 4.4%

-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함. 하지만 매트랩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임. 그래서 매트랩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고,plc에 대한 전공과목이 개설되었으면 함.
- 교양이외의 다양한 전공이 생기거나 다른 학과의 전공 중에 전공 인증과목을 늘려서 전공 학점을 채우고 싶고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학과의 수업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전자공학과에서 중요한 수치해석을 더 이상 강의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또 교과과정에는 적혀있지만 실제로 개설되고 있는 과목은 많지 않습니다. 전자과 학과생은 많은데 학부로 바뀌어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통신/제어, 반도체/마이크로전자공학 이렇게 나누지 않고 반도체공학, 전자파, 제어공학 이렇게 나누어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을 앞둔 4학년의 입장으로 지금까지의 전공 과목들은 학점 채우기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교수 인원이 충분하게 충당되지 않아 듣기 싫은(혹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과목을 듣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 더 전공을 세분화시켜 취업 시에 전공 역량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했던 학과 통합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공과목의 선택의 폭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수업의 수를 늘려서 전공 지식을 다양한 방향에서 쌓고 다양한 취업시장을 노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저희 미래자동차공학과가 현재 과 이름도 바뀌고 교육과정이 많이 개편되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쪽으로 많은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따라 기계와 관련된 전공 수업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계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은 만큼 기존의 전공수업들을 유지한채 다양한 전공수업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경영학과에서 추천하는 트랙은 있으나, 결국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심없는 분야까지 다 수업을 들어야 한다. 세부 전공을 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만 듣는 것도 좋은 것 같다.
- 학과에 다양하고 세부적인 전공 이론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다.
- 특수체육은 특수교육의 일부분이다. 특수임용에는 과목이 세분화되어있지않다. 그렇다면 체육교육과가 사범대에 형성되고 특수체육이 생활과학대학 학과로 편성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 세부학과를 만들어서 학과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도안 짜는 수업을 필수로 해서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많은 교양을 듣고,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현재보다 더 세분화 되고, 학생들의 편의에 맞는 교양 강의를 제공해 준다.

9. 취업 정보(재학생-졸업생 네트워크, 기업 정보) 3.7%

-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모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로분야 만큼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선배들의 다양한 취업방향을 알고싶은데 알기 힘들어서 선배들의 취업 방향이 어떤 곳인지, 이 과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에 유리한지 더욱 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 소속 과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으면 좋을 것 같음
- 이제 코로나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지금 중,고등학생을 신청받아 학과투어 및 실습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취업 관련된 설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학과에서 졸업조건에 현장실습이 포함되어있다. 본래 학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하면 매칭되는 제도였는데 지원할 때 몇 명을 뽑는지, 언제 발표가 되는지 아무 정보 없이 신청하여야 했으며 이후 모든 인원이 매칭

9. 취업 정보(재학생-졸업생 네트워크, 기업 정보) 3.7%

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찍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각자 알아서 회사와 연락하여 매칭해야했는데 이 역시도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늦게 전달되어 실습 인정 신청 기간에 맞추기 힘들었으며 학생 개인이 회사와 연락하여 조건을 맞추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때문에 최소한 처음 학교에서 지원할 때 몇 개의 회사가 몇 명을 뽑는지 정도는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화공과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해 2학년까지 전공커리큘럼과 취업방향 및 진로에 대해 설명하는 수업이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학부연구생 뽑는 것을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하여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졸업생과 재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 관계가 유지되게 맨토맨티를 진행하는 등 이러한 방식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어렵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그 순간만 얘기 듣고 아쉬운점이 많아서요.
- 취업한 선배들의 스펙을 알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되는 지를 미리 알 수 있어 원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들이나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활동같은 경우,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격증이나 활동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취업을 위한 창고마련
- 학교 측이나 학과에서 주관하여 취업 관련 설명회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다. 이로써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며 특히 취업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생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진로를 위해 우리 학과를 졸업하시고 이미 사회에 나가있는 선배님들을 초빙해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기
- 우리학과에서는 졸업생과의 소통을 더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영어영문학과 학생들 중 졸업 후에 전공을 활용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래서인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학과 차원의 제도들이 좀 더 필요하고, 이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과와 관련된 직업에 취직하신 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보신 분의 직무 경험이나 전공과 관련된 생각을 듣고 싶다
- 과와 관련된 직업에 취직하신 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보신 분의 직무 경험이나 전공과 관련된 생각을 듣고 싶다.
- 좀 더 취업 관련 시스템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주도하는 취업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략적인 정보가 있어야 취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업 시간에 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안에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개인주의가 강한 학과라서 어느정도라도 뭉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학과의 특성상 교육이라는 한정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취업길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임용에 합격하신 선배님들과 교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 부족문제만 해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교류의 장(멘토-멘티, 학생 간 교류 부족) 3.6%

- 선배들이 취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학생들이 학과와 관련된 진로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함
- 코로나 19의 여파로 선후배간의 소통이 줄어듦 단대나 과사에서 졸업한 선배 중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에게 양해를 구해 취업 관련 강의를 부탁 취업한 선배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학생들의 취업 관련 고민 해결

10. 교류의 장(멘토-멘티, 학생 간 교류 부족) 3.6%

-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소통도 중요하니 필요하다고 느낌
- 미술은 인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 말이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님. 작업을 하다 보면 창작을 해야 하는 작가들은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좋은 작업과 아이디어를 생각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나 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생각을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므로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며 팀플과, OT, MT와 같은 학과 행사가 많아져 선후배 및 동기들, 미래의 작가들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예시로 2022학년도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전공 실기실을 돌아다니며 개인이 선호하거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는 선배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이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선후배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더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들이 제법 있었음.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많이 보고 들으며 경험해야 하는 학생, 작가 지망생들에게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함이 학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함.
- 졸업생들과 후배들을 취업 시장에서 연결을 시켜준다면 속 터놓고 연봉이나 조건들을 협상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솔직히 서울, 대기업 등의 선호 이유는 연봉이 가장 클 텐데 서울의 기회 비용과 연봉, 그리고 대구의 기회 비용과 연봉을 비교해보면 크게 더 나을 것도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선입견과 각 회사의 입장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학교 동문회 등을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 회사와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면 서로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타대학과의 교류를 늘려 우수한 교육방식의 교류와 인재 교루하기
- 학과 내에서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 활동을 증진했으면 좋겠다.
- 오프라인 수업이 활성화되어 다른 실습 처 학생들의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현재 과 활동은 연극이 유일함, 학과 내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과 활동이 다양해졌으면 함
- 선배와의 교류가 어려움, 학과에서 선배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대면식, 과 동아리 등)
-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학과 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과 언어 교류,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수업 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 주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현재 영어영문학과에는 영어영문학과 내 학생들 간의 교류가 없다고 생각함 교수님들께서도 영어영문학과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재학생 간에 학년의 경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영어영문학과의 과 동아리 신설
- 1) 활동 : 영어 스크립트 해석, 영어 교육 동아리
- 2) 과동아리를 통해 선후배간의 정보 교류가 활발함, 영문과는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함
- 저희 수학과는 동아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과지만 다른 동아리면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점점 그런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이지만, 아마 완전히 없어지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해결하기 정말 힘든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학과는 더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 다양한 학과들과의 교류와 함께 같은과 학생들끼리의 교류 또한 조금 더 활성화하여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친한 선배들이나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라도 학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나 졸업요건, 정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 교재에 대한 solution이 제공되면 좋겠다. solution 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후배들도 볼 수 있도록, 멘토링과 비슷하지만 그냥 문제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 선배들과 멘토멘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는 신생학문으로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아고라처럼 학과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면 미래로 향하는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 본인이 소속된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강연이나 행사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본인의 방향을 잡을 수

10. 교류의 장(멘토-멘티, 학생 간 교류 부족) 3.6%

있을 것 같다.
- 경영은 대형과라 학생회, 사업단 소속이 아니면 혼자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별한 활동도 없는데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유아교육과의 직속제도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 체계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직속선배와 후배를 이어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속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직속제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 수업방식(대면/비대면, 이론강의/참여형 등) 3.2%

- 이론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범위가 너무 많아지며 지루해지는 강의들이 많다. 따라서 실습형 강의나 참여를 유도하는 강의가 많이 개설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외국 대학교의 우수한 강의방식이나 학점제도 방식을 검토하여 본교 교육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적용하기
-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 참여형 토론 수업 늘리기
- 가능하다면 사회학 수업을 생산성,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수업한다면 어떨까 싶음
- 실습과목의 부족으로 영상이나 장비들을 다루는 것이 타학과 학생들보다 미숙한 것 같다 -> 이론과목 줄이고 실습과목 추가
- 조금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강의들이 늘어났으면 함
- 결국은 교수님과 학생의 적극성이 알찬 수업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합니다. 피피티 그대로를 읽기 위한 수업 진행은 올바른 성적을 나눌 수 없는 수업이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낮춥니다. 학생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의실에서의 수업보다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수업
- 전공은 어쩔 수 없지만 교양은 교양인 만큼 느려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정보를 읊어주기만 하는 식의 수업이라 참여도 피드백도 잘 돌아오지 않는다.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강의식 강의보다 조별과제나 토론등의 참여형 강의가 늘어났으면 좋겠음
-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컴퓨터공학과에 한 수업은, 강의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교수님께서 수업을 촬영하시어 포털사이트에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여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오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컴퓨터공학과 수업을 말하면 강의실이 수학과 강의실보다 넓은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덥습니다. 수학과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공부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너무 시험 중심의 학습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며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싶습니다.
- 판서식 강의가 아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상호작용하며 토론과 발표, 그리고 조별과제 수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일방적인 강의내용 전달의 교양 교육수업이 대부분인데 실생활과 밀접한 이론들을 주제로 실제로 그 이론을 사용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낸다면, 이론 전달의 강의를 넘어서 학생들의 흥미도와 실용성을 높여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수업 내용은 일정 주기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학생 참여 방식이 주가 되어가도록 변화한다면 학생들 학습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교양 수업에서 ‘패션과 문화’와 같은 이론만 배우기 보다 이론과 더불어 옷을 직접 만들어 보며 체험하는 등의 실기식 수업도 함께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임할 것 같다.
- 녹색캠퍼스와 함께하기(농작물 키우기), 다례(차 마시는 법 배우기)등 다양한 체험형 교양수업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11. 수업방식(대면/비대면, 이론강의/참여형 등) 3.2%

- 대부분의 수업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학생들이 조금 더 체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여러 과목들이 학생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하게 수업을 진행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교양과목이면 자신의 전공이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전공과목도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활동적이고 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면 좋을 것 같다.

12. 교내시설(화장실, 과사무실, 스터디룸 등) 3.1%

-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겠지만 외식산업트랙 조리실 도구 상태점검을 해주셨으면 함. 기본적인 나무도구에는 곰팡이가 생겨 사용하지 못했고, 일부 오븐팬의 위생상태도 엉망이며 사용할 수 없는 오븐팬이라면 처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고무주걱의 상태도 좋지 못해 내열성이 있는 주걱들로 새로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 외식산업학과학부 특성상 조리 분야의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실습할 실습실이나 실습기구 자체 등이 많이 열악하다고 느낌. 또한 양식이나 한식조리, 바리스타실무 수업만이 아닌 제과나 제빵 위주의 실습수업도 개설되면 좋을 것 같음
- 음악과 특성상 연습을 오래해야하며 연습실 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음악과는 연습시간이 전공수업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습실과 관련해서 예약시스템이라던가 연습실 내 악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 고장난 피아노나 부서진 악기 등을 교체해야 연습실이 부족할 때 연습실 상태 때문에 연습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음
- 연습실의 부족과 노후화, 피아노과 학생들의 연습실이 부족해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연습실의 증가와 피아노 수리가 필요함.
- 음악대학의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외관도 허름하고 내부에도 한기가 심하게 느껴짐
- 안쓰이고 버려진 강의실이나 건물이 너무 많음. 땅도 넓고 학생도 많고 그만큼 일어나는 프로그램과 동아리도 많은데 건물을 관리라는 명목하에 제한해두고 통제하는 것은 맞지않다 생각함. 학교측에서 나서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사용하고 학부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야한다 생각.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개선이나 증설, 좋은 학식 업체 선정 등에 투자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
- 공강이 긴 사람들을 위해 잘 수 있는 수면방등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CRC 센터의 물리학과 반도체 공정실험실이 다시 돌아가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학과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으면 좋겠다.
- 흡연 부스, 흡연 구역이 지정돼있었으면 좋겠음
- 수학과 동아리방들이 지하실 사용 금지 조치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현재 (구)약대가 공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험 기간에는 이과 도서관과 중앙 도서관의열람실이 가득차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구)약대를 리모델링해 라운지와 열람실을 만들면좋을 것 같다. 지리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고, 학생들의 이용율도 높을 것 같다.
- 시설물 변경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 시험기간 강의실 개방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 학교는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불편해서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 105호는 책상이 너무 작고 강당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의자와 책상 자체가 불편합니다.(전공책을 올리기에도 작은 사이즈의 책상)

13. 교육과정 안내(커리큘럼 정보 부족) 2.6%

- 시간표를 짜고 수강신청 하는과정에서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 눈에 보기 어려워서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음. 특히 교직과목 등에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음
- 교양과목에 대한 강의평이나 수업 계획서를 한 사이트나 어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전공별로 연계할 수 있는 교양과목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음 교양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학생들이 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교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유용할것임
- 타과 전공과 융합하여 수업을 하기위해서 미리 선수과목을 수강하라고 사전에 공지하거나 추가로 공부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 미리 알려주면 더 좋을 듯하다.
-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전 학년에서 세부 전공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각 전공에 대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전공을 굳이 나누지 않고, 희망하는 직종이 있다면 어느 수업을 수강하면 좋은지 추천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신입생 때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인지 시키고, 불필요한 교양 필수 과목은 줄이고 세부 과의 소개나 전망,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혹은 기초적인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교 프로그램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 제가 DGM융합전공(친환경배터리소재)를 붙었는데 좀 더 많이 화공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커리큘럼이고 배터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비슷한 공학대학에서 학점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임 정확히 명시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학교에 취업 관련 정보나 멘토링 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경우,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경험해보는 실전 과정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한 분야에 집중적인 정보보다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도 골고루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교 지원 대외활동 적극 홍보 (학교 사이트 말고 각 과 학생회에게 알려주어 각 학과 학생들에게 공고하는 방식)
- 적극적인 홍보와 학과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이 생성되어 활발한 학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학과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특히 교과목 개요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 중이며, 여전히 졸업요건이 조정되기 전인 졸업학점 130점 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은 거로 아는데 주로 학교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으로 올리다 보니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는데 학교 식당 같은 곳에 게시판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쉽게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 앞서 말했다시피 경영학과라는 과가 특성상 넓은 직업군을 생각해볼수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학과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못하고 우왕좌왕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경영학과만의 그런 특별한 커리큘럼이나 학생들을 좀더 케어해줄수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4. 강의 시설(소프트웨어 미지원, 시설고장, 실습실 부족) 2.4%

-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스터디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수업시간 이외에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각 과별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 실제로 시험기간에 도서관 자리는 오전 11시에 모두 예약이 끝나버린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기간만 되면 공부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 매년 진행되는 수시 실기고사를 강당이나 다른 장소에서 실시되면 좋겠음. 학기 중에 매번 개인 짐 및 작품 등을 옮겨야하는게 너무 힘들고 보통, 학교 시험기간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실기고사로 인해 자리를 옮겨야하고 그 시간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시험기간이 길어짐. 또한 실기실을 비우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물건이 없어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함.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디자인 미술대학교 학생들은 4년 내내 어도비를 사용해야만 수업 및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어도비 프로그램이 아무리 학생할인이 있다 하더라도 매달 약 2만원~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도비를 지원해 주어 학생들이 보다 부담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음.
- 과제 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졸업전까지 무료로 배포해주고, 이 기능이 있다면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에브리 타임 등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한다.
- 학과 학생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강의실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많은 편인데, 그에 비하여 강의실이 너무 좁아 답답함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특히 더운 날에는. 그래서 강의실이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지면 좋겠다.
- 전기관의 환경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기계관처럼 (해부한 자동차 설치해둠) 전공과목과 관련된 구조물을 설치했으면 한다. ex) 발전소에서 실생활까지의 전기 생산과 공급, 수요를 시각화한 모형 등..
- 공대 학생들의 공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과대학, 기계it대학 쪽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약학대학을 새로 지은 것처럼 차례로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보다 많은 학생이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을 것 같다.
- 등록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과는 의예과를 제외하고 공과대학 학생들인데 공과대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특히, 전기관) 너무 낙후 되어있음. 또한, 비교대상이 영남이공대 이긴 하지만 같은 재단의 영남이공대 건물만 가봐도 영남이공대의 대다수의 건물 및 시설이 영남대 보다 우수함. 또한, 계절학기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문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대학은 교직 계절학기가 인원수만 충족하면 열리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수요가 많으면서도 열리지 않는지가 의문임.
-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실험 수업을 할 때 기구가 부족하여 수업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험 수업을 위한 기구들을 더 충당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과의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최신화(실험실 도구 새로 바꾸기, 수업시 사용되는 재봉틀 및 과제실의 재봉틀 새로 바꾸기 등) 해주었으면 좋겠다.
- 무용학전공이 생활하는 연습실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있다. 위치만이 아니라 실내 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맨발로 뛰고 맨다리로 굴러야 하는 바닥이 마룻바닥이라 틈이 있어 발톱이 빠지기도 한다.
- 무용실 오디오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음악이 나오지 않거나 노이즈가 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5. 성적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 AB 비율 확대) 1.8%

- 회화과도 디자인학과처럼 전공수업을 진행하며 완성된 결과물을 공모전에 제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몰두할 것이며 과제물로 수상까지 이어져 경력을 쌓는다면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전공수업의 집중을 위해서 교양수업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통일하면 교양필수과목에 구애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교양을 들을수있게해야한다
-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라던가 수업 태도, 쪽지 시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 기간에 사정이 생겨 시험을 원래의 실력대로 칠 수 없는 학생을 배려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오로지 교수만의 평가 방식보다는 타 학생의 의견을 통해 성적을 채점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들이 많았으면 한다.
- URP 어플을 따로 제작해 성적 확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다.
- 교양과목은 절대평가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양과목을 수강할 때 학점을 챙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본인이 듣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용이 쉽거나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 또한, 이론과 암기를 위주로 하는 교양 수업이 많다. 따라서 교양과목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과목의 특성과 체험이 잘 맞으면 체험을 넣고 아니라면 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수업방식을 채택해 수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P/F 과목을 늘리면 학생들은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양과목 학습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과제가 간편해지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난이도도 쉬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양선택 과목에서 P/F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공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점을 최대한 채워서 들을 수 있게 다양한 학점의 과목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강좌 내용, 수업 진행방식 등의 문제점 또한 같이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16. 수강 신청(수강 꾸러미 불편, 수강 신청 시간대) 1.6%

- 수업들을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 더 다양한 전공과목이 늘어나거나 전공과목당 수강할 수 있는 반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되고 불만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같은 조건의 학과 학생인데 수강신청에서부터 듣고싶은 강좌를 놓치는 상황은 학생들이 배움의 길이 좁아진다고 생각한다.
- 수강신청을 할 때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신청 시간이 달랐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교양은 오전, 전공은 오후에 신청을 해서 수강실패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음
- 시간표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선착순, 성적순, 수강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분반 내에서도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함)
- 전기공학과 전공 수강 신청 좀 널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턱없이 과목이 부족하여서 선배님들이 2학년 수업까지 다 듣고 있어서 더욱 더 수강신청이 어렵습니다.
- 영남대학교는 위에서 제시한 듯이 해당 강좌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 강좌의 강의실을 바꾸더라도 강좌의 여석을 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과의 발전 방향을 위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1학년에도 전공 강좌를 들을 수 있게 진행해주면 좋겠다.
- 학생들 인기 강좌를 많이 열어주세요
- 전과나 전공자유선택학부에서 경영학과로 온 학생들은 교직과정 신청 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고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도 소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해당 학생들을 고려해서 1~2자리 정도는 전과나 전공자유선택학부 출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마련해두었으면 한다.
- 경영학과는 자과 학생들도 많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므로 수강신청 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석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인기 교수님 강의는 타 교수님보다 인원을 기존보다 더 증설하는 방향

16. 수강 신청(수강 꾸러미 불편, 수강 신청 시간대) 1.6%

으로 해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작 수업 하나 못 잡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시간대의 어떤 과목의 수업인지에 따라서 시간표 거의 전체를 엎고 새로 짜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절학기 시기에 사범대학 전공들을 개설하여 복수전공생 혹은 시간이 맞지 않아 제때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 장학제도(장학금 안내, 장학제도 재정립) 1.6%

- 전공과 교양의 수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으레 취업에서 필요하다는 몇 개의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이 그에 해당되기도 하고, 디자인 단대의 경우 학교 수업 외에 책이나 유료 강의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해당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최대 상한선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이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인증 보고서를 제출한 뒤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면 학습에 쓰인 것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돌려주는 제도이다.
- 자기관리,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더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책 읽기나 타전공 수업을 들으면 장학금 지급하기 등
- 학교 장학에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아니면 상금을 얻는 대회을 많이 알려주는 사이트를 알고 싶습니다
- 학교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지원이 조금 더 많아지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여러 장학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 해주세요.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에 편의를 더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취업, 장학금과 같은 혜택들을 더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장학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대학의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입결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 혹은 졸업 후 사회에서 좋은 위치(대기업)에 배치되는 학생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성적이 좋은 학생(입시생) 그리고 기존의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사회의 좋은 자리에 배치되는 자교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이다. 성적이 좋지만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수 없이 자신이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가야하는 상황 혹은 성적향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 학교에서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학생들에게 준다면 좋은 학생풀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후기 등을 작성하여 수기를 공모하여 장학금을 주는 좋은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18. 진로 탐색(진로 설계, 인턴십, 기업탐방 등) 1.6%

-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과 내에서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 협력단, 사업 프로그램, 선배와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을 더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
- 체험 또는 현장 방문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분야를 접해보고 진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수업전공 이론만 배워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고 흥미가 떨어진다.
-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경험과 실무 지식을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턴십, 현장 교육, 산업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학교 및 학부 부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와 욕구들을 반영하여 학교 및 학과의 방향을 조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

18. 진로 탐색(진로 설계, 인턴십, 기업탐방 등) 1.6%

하는 인프라 및 자금을 더욱 더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도움 되는 정보와 프로그램,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임용이 아닌 다른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축제 규모를 줄이더라도 학생 실생활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모전등의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과를 졸업하여 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을 거 같다. 또한 각 진로를 가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다.
-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견학이나 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에 대한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인턴과 같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나가기 전 준비과정을 밟을 수 있게 지원을 마련해주었음 좋겠다. 예를 들면, 다양한 예술지원 교육기관과 같은 진흥원에서 인턴생활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 이론식 수업 말고 취업연계 수업을 했으면 좋겠음. 이런 의견들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19. 외부활동(탐방 등 체험활동, MT/축제 등) 1.4%

- 학생들에게 자유 학기 또는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춰 교육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함
-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이나 제주도 등 먼 지역의 전시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 등 전국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전시가 많은데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시 관람이라는 부분은 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함. 수업시간 또는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단체로 전시를 관람하러 간다면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임.
- 공지를 늦게 받거나 통학 시간이 긴 학생의 경우 공강일에 강연을 해버리면 듣고 싶은 강연도 듣지 못하게 되니 연관있는 수업을 대체하거나 공인출석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더 유용할 것 같다
- 선배들의 강연이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대체할만한 자격이 충분함
- 창업 교육 프로그램시 실제로 도전해볼만한 공모전이나 대회에 필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자신감이 생길것임
- 공대계열 학생들을 위한 DGM 프로그램처럼 사회과학대학 쪽에도 취업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고, 취업활동이나, 아니면 사회학적 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영남대 군사학과는 장교양성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써 야전부대 및 군 관련 기관 견학 및 병영체험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학년 별로 수행 가능한 봉사나 인턴 제도 등 학교가 선행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제도나 기관이 존재하였으면 한다.
- 과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면 좋겠고 외부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20. 졸업요건(졸업학점 과다, 어학성적) 0.8%

- 복수전공을 늦게 시작한 경우, 졸업학점을 모두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과의 졸업학점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표는 한정적이다 보니 시간이 겹치면 못 듣게 되는 수업 또한 많음. 그래서 5학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졸업학점때문에 많은 과목의 수업을 듣다보니 미대 특성상 과제가 많아 하나의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가 없음. 이런 점이 개선되어 학생들이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부담감을 갖지 않고 다른 분야들을 폭넓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20. 졸업요건(졸업학점 과다, 어학성적) 0.8%

- 졸업 요건 달성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취업난이 심하니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졸업 유예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 졸업에 대한 걱정을 하는 대학교는 대구에서 여기가 유일할듯함. 계명대학교처럼 모든 전공학점을 3학점으로 통일한 뒤 수업시간이나 과제를 늘리거나 타 전공 인정이 유해져야한다고 생각함. 또는 경북대학교처럼 수업이 엄청 많이 열려서 정말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하는데 현재 졸업학점이 130학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그래서 모든 수업을 분반 2개를 기본으로만 만들어줘도 모든 학생이 졸업하는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음.
- 졸업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 졸업 요건을 완화해주었으면 좋겠다.

21. 수업 난이도(기초교육 부족, 기초/심화 구분 필요) 0.8%

- 학생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전공을 배우고 적당한 나이도로 전공에 대한 흥미 먼저 높이면 더욱 열심히 전공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 화학과 전공수업들은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따라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기초 전공 수업들을 개설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화학과의 커리큘럼과 과목의 특성상 난이도 널뛰기 현상이 매우 심하게 존재한다.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공부하다가 다음 해에 진짜 전공 내용을 접하니 갑작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면 화학과의 학생들이 화학이란 전공과목을 더욱 애정을 갖고 대할 수 있고, 지치지 않은 상태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 교양 필수 과목 사이에 준전공/심화 교양의 단계를 추가하여 이후 전공과목 이수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없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학점(최대, 기준학점) 문제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 졸업학점 및 최대, 기준 학점의 최대치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교양과 전공과목의 난이도 널뛰기 현상이 심한 것 같다.
- 전자공학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도 과연 밝을까는 미지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수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업의 난이도 역시 높이는 것에도 한계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수업의 심화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2. 학점인정(타 학과 개설과목 전공학점 인정) 0.6%

- 타전공 수강인원정원도 늘어나고 듣고 싶은 타전공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타전공의 듣고싶은 강의를 들어도 전공학점으로 쌓이는 제도 필요
- 다른 과 전공인정수업이 다양해지면 좋겠다.
- 타과 전공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과를 하거나 비슷한 계열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23. 이수학점(2학점 전공과목 관련) 0.6%

- 2학점짜리 인터넷 강의 개수를 늘려주면 좋겠다 3학점짜리 인터넷 강의는 많은데 2학점짜리 인터넷 강의는 부족한 게 아쉬웠다
- 전공 필수 학점을 줄이고 교양수강신청가능 학점을 늘리거나 부전공을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면 좋을거 같다
- 한 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려줬으면 함. 전공 과목을 더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함.
- 1, 3학점 교양과목은 많은데 2학점 교양과목의 수는 적다. 학점을 자신의 생각대로 채우다 보면 2학점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2학점 교양과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1학점 교양과목을 2개 듣거나 짜 놓은 시간표를 조정해서 3학점 교양과목 1개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2학점 교양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2학점 교양과목을

23. 이수학점(2학점 전공과목 관련) 0.6%

선택할 폭을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24. 선수강지도(형식적인 선수강지도) 0.1%

- 교수님과의 수강지도 상담이 매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5. 수업 시간(수업 간 이동시간 고려) 0.1%

- 시간표 사이에 공강이 길고 애매함.

26. 기타 14.0%

- 학교 및 학과는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함.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관심을 고려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교내 프로그램을 보면 '링크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학과도 그런 사업단에 선정되어 더 다양한 강좌들을 수강하고 싶음
- 성적공개 의무화 실행 ex) 시험지에 학생 본인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작성하여 공지사항에 성적 공지
-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필수 교양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학생들이 많은 만큼 1학년에게도 수강 과목에 대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한다면 좋을 것 같음. 혹은 필수 교양인 만큼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평가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필수 교양의 원래 취지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과별로 창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타과 사람이 필요할 때 창업에 관심이 있는 그 과의 사람을 쉽게 찾고 교류할 수 있을것임
- 성악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포터즈나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학과와 관련된 천마 아트센터 서프터즈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과와 관련된 활동인 만큼 이러한 공지사항들을 잘 알 수 있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 지난 방학 때 진행하였던 특강이 좋았습니다. 특강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을 융합 연계 설계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방법에 대해선 잘 몰라 교수님과의 면담이나 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융합 연계 설계 전공에 대한 홍보가 1,2학년때부터 활발히 필요할 것 같다.
- 학과 특성상 한 학기마다 재료비 등 판넬과 모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생이 부담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원비가 학교측에서 재고하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가끔 만나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게 어떤가 함. 여기서 중요한 건 본격적인 도서관과 교육 시설이 아닌 작은 소규모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약속을 위해 만나는 포인트가 되거나 학업을 위해 잠깐 모였다 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타과의 교양수업을 듣다 보면 다른 과의 시설물들(다른 공부할 만한 공간들)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본과 건물에 속해있는 것이아니라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의 교류도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함.
- 저번 학기와 비슷한 문제를 내지 않으셨으면 함
-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한 과목인데, 수강 허용 인원이 적어 듣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 한정으로 강의를 늘리거나 자과 허용 인원을 늘리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들어야 하는 과목을 못 들어 다음 과목에 영향이 가 듣지 못하는 강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번에 못 들어 다음에 들어야 하는 경우에 수강 가능 학점에 의해 듣고 싶은 과목은 못 듣고, 이 과목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취업 분야에 관련한 지식 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학생설계 전공을

26. 기타 14.0%

신청했던 학생들의 계획서를 일부 공개함으로써, 계획의 정도를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전공 여석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전공 여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더라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공 여석을 늘리는 것은 강의실의 자리 여석이란 한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더 추가 하는 것이다.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학생들이 학비로도 충분히 폭 넓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ex) 코딩, 유튜브 편집,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
-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전, 특강을 많이 진행 하였으면한다.
- 전공강의 수강신청 인원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술동아리를 늘리기
- 교양수업의 여석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으며, 임관 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전공수업들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내 순환 버스 수 증가
- 증명서 발급기 수 증가
- 흡연구역의 확실한 통제
- 군사학과 지원자를 더 모으기 위해, 1학년들의 출신학교에 군사학과 설명회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사용과정 등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 URP 어플을 따로 만들면 좋겠다.
- 다른 자연과학대학 학과들은 모두 있지만 우리 학과만 없는 교직 이수 과정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우리 과는 대부분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아 학부 연구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 또한 좋다고 생각한다.
- 우리학과인 생명과학과는 빠르게 발전한 과학기술이 맞추어 전공지식을 빅데이터, 프로그램등을 이용해 응용하는 여러 전공과목들이 있다. 생명과학에만 중점을 둔 수업만 있었다면 응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응용을한 전공과목 때문에 전공지식 활용에 대한 폭 넓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타과에서도 자신들의 전공지식을 이용해 활용하는 전공과목들이 생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 학교의 위상은 학생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학원이 해당 대학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전공이 맞지 않아 다른 대학의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학원 졸업 이후가 걱정되거나 불만족스러워 다른 대학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외교원 YES 프로그램은 신청해놓고 듣지 않거나 대충 넘기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심한 경우 중급반에 학생이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줄이고 토익 교재나 강의를 살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남는 예산을 대학원에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블라인드강좌를 늘려서 수강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복수전공에 대한 제한들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전공들은 실습 및 실험 수업들이 종종 있는데, 해당 과목의 경우에 재료비 및 학과 예산의 문제들로 부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의만으로도 지식을 함유할 수 있지만, 타과생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면 보다 융복합적인 인재양성과 지식활용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예산의 문제라면 학생이 원한다면 수업료의 일부를 지불하고 실

26. 기타 14.0%

습수업을 듣게한다는 등의 규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교육이라 생각을 한다. 교육의 혁신을 찾고 있다면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꿔라 이것이 매우중요한 포인트다.
-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학생들이 많이 줄게 되면서 대학교 입학 정원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그러한 이유로 대학교 측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영어나 외국어 홍보 영상 및 관련 공모전을 많이 실시하는 것은 좋은 실행으로 생각함. 하지만 그 전에 내교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교수님 등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지금 영대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님들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임. 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의로 학습하러 오는 곳임. 입학 성적, 취업 결과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님. 취업결과만 봤을 때는 전문대학들이 제일 좋지만,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입학하려고 함. 이런 실정만 봐도 알 수 있음.
- 많은 대학교 중에 영남대학교를 선택한 것에는 성적, 본가와의 거리, 등록금 등 많은 까닭이 있겠지만, 영남대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했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함. 교직원 또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임. 영대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교수님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함.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 파악을 해야 좋은 학교로 성장할 수 있음. 영남대학교도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되어야 함
- 우리 학교의 교양과목에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과목들과 K-MOOC 이라는 과목이 있다. 이는 강좌 수강과 중간, 기말고사 역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픈북으로 시험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험 중간중간 검색기능을 사용해서인지 공부가 덜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오프라인 시험보다 적다. 오픈북이나 대리시험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시험에서 문제 수를 늘리고 시험 시간을 줄이는 등의 제약을 두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정작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도 시험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못 풀었다는 불평이 주위에서 계속 들린다. 이러한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과목 자체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시험 시간을 터무니없이 줄이는 등의 제약은 없었으면 한다.
- LMS에 업로드 되지 않고 수업시간에 넘기면서 사용하는 수업 자료의 경우 일일이 사진을 찍거나 필기해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발생
- 영남대학교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올드하다. 영상 공모전이나 학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내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내부 구조는 보수적인 것 같다. 학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학교를 어떻게 더 신선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 학원,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 등 실무적, 실용적 프로그램의 개발
- 생긴지 오래 되어서 너무 족보를 타는 과목이 많은 것 같고 틀에 박힌 과목이 많은 것 같다. 한 번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시험 내용을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 활동 홍보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며, 학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수업 밖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 전공은 작년과 유사한 느낌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적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는 것이기에 굳이 족보 등 내려져 오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응시하면 높은 성적이 나오는 시험은 개인적으로 이 학과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 전공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는 전공 점수가 내려져 와서 받아온 자료들을 단순 암기를 통해 이와 비슷한 시험을 통해 얻은 점수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더 보람이 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이 조금씩이라도 작년과 다르게 출제한다면 교양도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 전공과목과 관련된 동아리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동아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넓은 곳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인문 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이공계열 학과보다 입결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특강 등을 보다 다양하게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보여주기 식의 진행 말고 이 면담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게 된 것들을 소

26. 기타 14.0%

개하였으면 합니다. 늘 교육혁신이니 뭐니 해놓고선 다음 년도에 반영하지도 않은 경우를 익히 봐왔습니다. 학생들이 시간 들여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진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 학교는 전공에 대한 교육혁신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양에 대한 교육혁신이다. 요즘은 한가지의 전공으로 삶을 영위하는데에 있어 힘듦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에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렇듯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다른 지식 예를 들어 자신의 전공과 잘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저는 교양과목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학교 측에서 교양과목 교육혁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양과목을 조금 더 늘리거나 학생 정원의 수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양보단 학과 수업에 대해 더 설문조사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제 주위 동기들 중 교직이수를 하고 싶거나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동기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적 제한을 없애거나 커트라인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개선 된다면 더욱 쾌적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과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별로 진로 및 취업상담 등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전공에 대하여 잘 모르겠음.
- 전공과목에 대하여 과 자체적으로 계절학기 전 수요조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계절학기에는 전공을 들을 수 없을꺼라는 학생의 인식을 없애고자)
- 학교에서 미뤄주는 과가 너무 확연히 차별이 된 듯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사업, 모든 과에 다양한 기회가 고르지 못하고 몇몇 과에 집중된듯하다. 예를 들어 최근 미래자동차과 로봇기계학과와 달리 다양한 사업이 없고 다양한 기회가 없는 것 같음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같은 학교학생이 아닌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음
- 영남대를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재학생들의 학업 뿐 아니라 여가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과가 졸업학점도 많이 줄이고 교수진도 줄이고 종합설계과제 과제비도 많이 줄이고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피해가 학생들이 입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학과나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받는 혜택, 수업의 질, 수업 개수 등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위에서 언급된 내용만 개선되어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사항이 될 것 같아요.
- 이 부분은 각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노력이 중요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 공학인증제도 폐지가 선행된다면 각자의 역량을 더욱 잘 키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말로요.
- 이번년도에 많은 학과가 신설되는데 여러 학과를 개설하는 것 보다 지금 있는 학과를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영남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에 만족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수도권편중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학생들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로서는 6학년 때만 집중적으로 실습을 수행하고, 그 이전 학년에서는 약사의 업무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3학년, 4학년, 5학년에서도 실무 경험을 일부 포함하여 학생들이 약학 교육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은 약사로서의 진로 선택을 미리 고민하고, 지역약국,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 다양한 약사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사전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양을 넘어 전공과목에서도 교수진 혹은 강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강좌와 교수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매년 수강신청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과목의 여석 문제다. 본인의 학과를 제외하고도 수강 신청 기간만 되면 '에브리 타임'에 과목 여석을 늘리거나 교수님의 수를 늘려 강좌를 수강하게 해달라는 글이 빗발친다.
-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을 학기 초반에 모두 공지해주면 좋겠음

26. 기타 14.0%

- 소수과로 이루어진 사범대학에서는 전공과목 분반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을 나누지 않고 한 수업으로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지금처럼 연강으로 같은 내용의 강의를 반복하시지 않아도 되어 효율적일 것 같다.
- 강의평가에 기재된 사항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강의에 대한 불편사항이 매년 반복되어 강의평가에 기재되면 학교측에서 제제 후 집중적으로 강의평가 모니터링을 해야함. 그럼에도 개선사항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학교측에서 조치를 취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생간의 교류가 적어 정보의 전달이 느리며, 학과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간의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성화하거나 많은 정보들이 학교와 학과 홈페이지에 다수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홍보가 늘었으면 좋겠다.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화와 다문화 환경을 강화해야 함. 국제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실습 과목에 도움이 되는 실습 품목이나 실습비를 지원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 교양과목 중 인터넷 강의는 수강 가능한 인원수를 늘리거나 인원 제한을 없앴으면 좋겠다.
- 인터넷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의 수에 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매칭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학생들은 교육봉사를 어디에 해야할지, 어떻게 매칭해야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교육봉사의 참여도가 늘어날 것 같다.



부록Ⅲ

추천교양과목 세부 응답

No.	과목명	추천이유
1	생활체육	▪ 교수님들이 모두 재미있었고 과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과 운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기 좋았다. 몰랐지만 해보고 싶었던 과목을 체험해보고 원래 알았던 스포츠는 더 꼼꼼하게 알아갈 수 있었기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되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 강의실에서 수업만 듣는 전공수업이나 타 교양수업과는 달리 남매지를 걸으며 그동안 놓치고 있던 주변에서 찾아볼수있는 예쁜 풍경들을 보며 심적으로 힐링을 할수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친구들과 얘기하며 걸을수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학기의 활력이 될만한 교양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으며 배드민턴 초보자도 배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며 조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걷는 걸 싫어하던 저에게 걷게 만들어준 교양과목이다.
		▪ 체육대학 소속의 교수님의 교양 수업인데 수업에 대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진입장벽도 낮아 운동에 자신 없는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 2학이고 패스과목이라 시험도 대체과제로 진행돼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다.
		▪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 활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기에 앉아만 있는 수업에 비해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 체육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헬스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줌
		▪ 학점과 더불어 건강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만 다니다보니 운동이 많이 부족해서 고민이었는데 여러 다른 과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티볼이라는 운동을 하니 쉽고 재밌어서 추천하고 싶었다.
		▪ 재밌고, 부담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학우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친해질 수 있었고, 여러 학번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운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달리기와 야구 연습을 통한 체력 증진도 가능하므로 이 과목을 추천한다.
		▪ 바쁜 와중에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 활동적인 교양으로,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 배울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추천함.
		▪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재밌는 과목임.
		▪ 농구수업을 들었는데, 평소엔 농구할 기회가 없었지만 생활체육수업을 들으며 농구도 하고 체력증진할 기회가 생김.
		▪ 교수님께서 한명한명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초보에게도 추천하는 강의이다.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큰 장점이 있다. 건강과 학점 모두 챙길 수 있는 과목이다.
		▪ 다양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 새로운 운동법을 배워서 좀더 건강해 질 수 있었다.
		▪ 배드민턴을 치며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추천함
		▪ 한 주 동안 과제와 알바에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수업이다. 교수님의 걷기, 달리기에 관한 설명으로 이에 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노래를 들으며 경관이 좋은 남매지 근처를 걷는다. 수업 대부분이 그저 걷기와 달리기만 하는 거라 부담이 되지 않으며 한두 시간 산책하고 오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전문적인 수업과 더불어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심으로서 안정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해주심에 추천한다.
		▪ 평소 배우고 싶었던 운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다.
		▪ 혼자 배우기엔 막막했던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을 개개인 코칭을 위해 분반진행과 일대일티칭이 잘 갖추어져있고 시험방식 또한 처음 골프를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노력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신다. 나와 같이 처음 접하는 골프가 막막한 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교양이다.
		▪ 교양과목으로 보통 체육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을 듣는데 중, 고등학교 때 체육수업을 하면 기분이 좋았듯이 교양으로 직접 활동하고 움직이는 크로스핏 운동을 하면서 체력

No.	과목명	추천이유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를 배우고 몸을 움직이니 좋았다.
		▪ 재밌었고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 조원들끼리 다 같이 활동하며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근하시고 좋은 분이시다. 매번 수업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신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강의였다. 다른 체육 과목들보다는 힘들 수 있지만 과제도 어렵지 않고 매 수업 시간을 즐기다 올 수 있었다.
		▪ 평소 관심이 있었던 테니스를 한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고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 돈을 주고 배워야하는 운동도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초부터 잘 설명 해주 셔서 추천합니다.
		▪ 티볼 경기를 진행하며 재미있게 수업을 배울 수 있어 좋았음.
		▪ 운동하며 학점을 채울 수 있음.
		▪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흥미를 느낄 기회이며,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쉽게 채울 수 있음.
		▪ 기초 체력증진에 아주 효과적이고 대학에 와서 체력을 따로 기를 방법이 없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기에 추천한다.
		▪ 주로 1시간씩 번갈아가면서 마시지를 해주는데 파트너랑 서로 마사지 해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었고 부모님께 직접마사지를 해드릴 수도 있어서 실생활에서 유용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친구에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시원해지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평소에 알 수 없던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실습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를 풀어줄 수 있었다.
		▪ 운동을 통해 체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집중력을 길러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며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해주십니다.
		▪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흥미이다. 원래 농구를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 마침 학교 교양으로 수강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와 함께 행복하다.
		▪ 수강했던 교양과목들 중 가장 본연의 목적에 알맞은 프로그램 구성이었고 그저 알아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 체력 측정 후 그에 맞는 운동 추천 등 실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수업이어서 좋았음.
		▪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만 하다가 생활체육을 통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 성적 경쟁을 해야 하는 다른 수업들과 달리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았음. 학업 스트레스를 운동이라는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고 관련 스포츠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건강한 신체를 가꿀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 학기에 학업 때문에 건강이 신경을 쓸 시간이 많이 없는데, 생활체육을 통해서 학점도 챙기고 몸도 챙길 수 있어서 좋았음.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 소통을 많이하시고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신다, 생활체육에서 걷기를 하면서 바쁜 일상생활 속 여유를 찾는거 같아서 좋았다. 오후 시간이여서 적당했다. 부담이 없다.
		▪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 잘할 수 없는 운동을 학교 수업시간에 포함하여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 운동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생활 체육 수업을 들음으로써 꾸준한 운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프리하게 수업을 진행해서 부담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조별 활동이 있어서 다른과 학생을 사귀기 쉽지 않은 음대생들도 다른과 친구를 만들 수 있었다. 골프에대한 흥미도 쉽게만들 수 있다.
		▪ 배드민턴이라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땀을 흘리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친목 쌓기도 되게 좋았고 뿌듯했음.
		▪ 다양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 새로운 운동법을 배워서 좀더 건강해 질 수 있었다.
		▪ 운동에 대한 기초를 다질수있었다.
		▪ 배드민턴을 치며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추천함
		▪ 티볼 경기를 진행하며 재미있게 수업을 배울 수 있어 좋았음.
		▪ 운동하며 학점을 채울 수 있음.
		▪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흥미를 느낄 기회이며, 출석만 잘하면 학점을 쉽게 채울 수 있음.
		▪ 평소 관심이 있었던 테니스를 한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고 테니스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 전문적인 수업과 더불어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심으로서 안정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해주심에 추천한다.
		▪ 몸의 스트레칭,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음. 건강해짐
		▪ 숙련도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어느 한쪽에 취우침 없이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좋았습니다.
2	생활과세금	▪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접 마주하게 될 문제인 세금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신다.
		▪ 교수님의 강의력, 매우 유용한 강의 내용이다.
		▪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사고의 전환, 실생활에 도움, 교수의 열정)세금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세금의 역사를 알고 타당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었음. 수업마다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 좋았음
		▪ 실생활에 유익하고 교수님이 알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셨다. /
		▪ 수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도 적당히 등수가 갈릴만한 정도였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다.
		▪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세금인데 아직 대학생이라 많이 접해보지 못해 무지한 경우 많습니다. 이 교양과목은 세법에 대해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부가가치세나 세금내는 시기나 주의사항,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이 살아가면서 이후 사회생활 할 때 꼭 알아둬야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교양이라서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시험에 도움 될 정도의 수업보단 정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정도의 수준을 알려주는 교양이고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추천해주시는 책, 삶의 조언 등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진정한 교양수업이지! 라고 생각했던 수업이기에 추천합니다.
		▪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며 필수적으로 들어도 좋을 만큼 기본적이 면서도 좋은 내용을 강의하시기 때문에 추천한다.
		▪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 교양강의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 아직 수강중이지만 들어본 교양 중에 가장 유익하고 실생활에 도움 됨.
		▪ 더해서 좋은 인생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다. 더불어 탄탄한 수업구성과 재치 있게 지루하지 않는 수업이다.
		▪ 세금을 자주 접하다 보니 실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 공대생으로서 대부분 수업시간동안 수식과 이론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과 세금 과목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을 얻어 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지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접할

No.	과목명	추천이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유익한 경제 지식들도 사이사이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 개념들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생활과 세금을 추천한다.
		▪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강의이고 이상적인 교양과목의 수업이다.
		▪ 졸업하고도 사회에 나가서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을 가르쳐주신다.
		▪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음
		▪ 수업이 재미있고 도움이 됨
		▪ 세무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쉽게 세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음.
		▪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실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과목.
		▪ 세금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익한 수업이었다. 교수님께서도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어 알지 못했던 세금과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추천하는 교양이다.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바 관련 내용들이 많았고 교수님께 직접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이라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도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양적으로도 세금에 역사 관련한 부분이 세계사와 접목되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전공에선 배울 수 없지만 생활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 지식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에 딱 맞는 수업이었다. 또 교수님이 직접 집필하신 책으로 배우다 보니 과목에 대한 교수님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 공대로 접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고 교수님께서 충분히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목임.
		▪ 평소에 세금에 대하여 무지하였는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왜 내는지 등 기본적인 지식을 알게되어 좋았다.
		▪ 내용이 마냥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았으며, 생활과 세금이라는 과목명에 맞게 생활 속의 세금에 대해 재밌게 배울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다.
		▪ 일상생활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 없는데, 배울 기회가 잘 없었으나 이 수업을 통해 세금의 종류부터 역사, 기준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강의를 통해 세금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기준이 자세히 나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어려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고,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졌다.
		▪ 교수님께서 수업과 연관 지어 재밌는 이야기도 해 주시며 최대한 학생수님께서 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심
		▪ 각종 세금들의 유래와 그 세금들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현재 세금정책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최종소비자가 받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소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 세금에 관해 일상 생활에서 필요했던 기초적인 세금 상식을 함양할 수 있고 정한 교양 수업라고 느꼈음. 세금에 대한 것을 배워 유익함
		▪ 교수님의 강의력, 매우 유용한 강의 내용
		▪ 공대생으로서 대부분 수업시간동안 수식과 이론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과 세금 과목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을 얻어 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지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세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유익한 경제 지식들도 사이사이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 개념들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생활과 세금을 추천한다.
		▪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각종 경제 관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따라서, 생활 속 여러 세금과 이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다 접근하기 쉬운 교양과목으로 미리 배워둔다면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둔 사회초년생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추천하게 되었음.
		▪ 처음 학교에 입학해 학문적 호기심이 없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 과목

No.	과목명	추천이유
		을 배우면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학문적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흥미로웠음
		▪ 교수님의 강의력과 전달력이 좋으셔서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짐. 강의 이름만 보고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다면 시험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수강인원도 많고 과제도 없어서 그런지 꿀교양으로도 많이 알려져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지식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경영대학 학생으로서 한번쯤은 들을만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해 주시는 말이 꽤나 도움이 됨. 실생활과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많고,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선에서 법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왜 실생활에서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보다 넓게 읽을 수 있게 된다.
3	애니메이션의세계	▪ 우선 성적에 대한 압박이 없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평소에 보던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기법과 극적인 효과 연출 방법을 배우면서 극적인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토록 재미와 공부 둘 다 챙긴 강의는 이 강의가 최고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에 아직 우리나라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였고 저 또한 그저 오락거리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으로 쾌락을 느끼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교양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수업도 재밌고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편차가 적절히 분배되어서 좋다고 생각함.
		▪ 비교적 가볍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수업시간에 전공과목의 비중을 덜어주기 위해 교수님께서 시험의 비중보단 수업에 치중을 더 두셔서 편했다.
		▪ 이론수업과 실제로 감상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설명과 영화 기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 스스로 독후감을 써보며 그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영화기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목임.
		▪ 강의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촬영 기법, 작가의 창작 의도 등을 이해하며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 뒤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예술적인 요소를 더욱 즐겁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 강의를 듣고 애니메이션의 매력과 깊이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과 문화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 애니메이션에 대해 가벼운 흥미만 있었지만 직접 수업을 들어보니 교수님의 재치있는 강의력 덕분에 더 관심이 생기고 수업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음
		▪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를 시청하고 짧은 감상문을 쓰면서 영화의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었음.
		▪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교훈도 느끼고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기법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이 기대가 된다.
		▪ 과제나 강의에 대한 부담이 적고 매 주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어 즐거움
		▪ 주 2회 수업 중 하루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 이론 강의를 통해 배운 카메라 샷, 카메라 워크 등이 수업 외에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접할 때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교수님, 강의 모두 좋았다. 하루는 애니메이션 보고 하루는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지 공부조차 재밌었다. 공부내용에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기억하기 더 쉽고, 불 다 끄고 큰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정말 영화관에 와있는 기분이었다. 듣고 나서 누가 교양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말하는 과목이다.
		▪ 두번의 수업중 한번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번은 애니메이션에 숨어진 교훈, 기법 등을 배우는 것이였는데 평소 무심하게 단순히 줄거리로만 보았던 애니메이션에 우리가 삶을 생활하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교양이였기에
		▪ 수업 내용의 구성과 수업방식, 학생들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생 모두에게 관

No.	과목명	추천이유
		심과 노력을 보이는 교수님이였음.
		▪ (사고의 전환, 실생활에 도움)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보며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하여 숨어있는 뜻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음
		▪ 교양과목을 듣는 데 제일 느낀 바가 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교류하며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 수업에 대해 깊게 알 수 있었고 알찼다.
		▪ -지금까지 들었던 수강과목 중 가장 교양다운 교양이라는 느낌을 받은 수업.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하는 방식이었는데 영화 감상, 이론 시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좋았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감상문을 쓰는 과제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내 생각을 써 한 번 더 애니메이션이 기억에 남게 되었고 교수님이 각 과제마다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좋았다.
		▪ 수업 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을 다같이 시청하고 감상문을 쓰는 수업이어서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수업을 통해 평소 재미로만 쉽게 지나쳤던 애니메이션 속 숨겨진 의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음.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개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았음. 과거에 또는 앞으로 내가 감상할 애니메이션을 단순히 '슬프거나 우스꽝스럽다.'는 감정적인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작가 및 감독의 연출 의도를 염두에 두고 분석할 수 있었고 애니매이션을 하나의 작품으로 존중하게 됨.
		▪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제작 방식을 배울 수 있고 평소에 무심하게 보던 애니메이션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았음.
		▪ 교수님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몰랐던 면의 흥미로움을 알 수 있고 한눈에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신다.
		▪ 애니메이션의 원리에 대해 배우지만 초보자도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시각에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 평소 관심있던 분야의 교양 수업이었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취미였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부분들을 참고하여 영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졌습니다. 취미에 더욱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수업 시간 마다 이론 수업 후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다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교양이라 생각해서
		▪ 친구와 같이 수강하면 재밌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수업을 듣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것이 수업의 대부분이라서 부담이 적어서 좋았음.
		▪ 강의 중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시청하고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평을 남긴다는 수업 진행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움.
4	사회체육	▪ 교수님들이 모두 재미있었고 과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과 운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기 좋았다. 몰랐지만 해보고 싶었던 과목을 체험해보고 원래 알았던 스포츠는 더 꼼꼼하게 알아갈 수 있었기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 수영을 정식적으로 배워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양을 통해 수영을 배울수 있는점이 좋은 것 같다
		▪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간단하지만 운동의 효과를 알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 학점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 수업 시간을 통해 체력 운동까지 겸할 수 있음.
		▪ 여러 전공, 교양 수업들을 수강하며 힘들었던 심신을 운동을 통해 단련할 수 있었음.
		▪ 남매지를 걸으며 건강을 챙기기 좋았음.
		▪ 처음에는 못 했던 동작을 학기가 끝나갈 때쯤 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의 균형과 체력을 증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신체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강의시간에 배드민턴을 직접 해보면서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에 대해 더 잘알 수 있게 되고 운동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
		▪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두시간만이라도 몸을 쓰면서 체육활동을하니
		▪ 리프레시되는 느낌이었음.
		▪ 크로스핏이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닌데 교양과목을 통해 쉽게 접해볼 수 있다
		▪ 남매지나 학교를 걷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고 힐링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시험에 대한 부담도 다른 과목보다 적고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을 통해 주기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 패스 과목이라 부담이 적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면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몸 풀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음.
		▪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태도가 열정적이셔서 학생으로서 더욱 의지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타학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 지친 공부에 활력이 되어줄 수 있고, 체력 증진이 가능한 점이 가장 좋아서 추천하고싶다.
		▪ 평소 관심이 있었던 운동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어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 디자인과 학생들은 많은 과제 양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기초체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런 간단한 운동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고 실생활에서도 응용 가능해서 좋았다.
		▪ 야구의 기본적인 자세와 룰들을 배워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추천합니다.
5	미술치료의이해	▪ 수업을 통해 미술치료의 이론에 대해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기법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해석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던 수업이었음.
		▪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고 교수님이 정말 멋있으시고 좋으시다.
		▪ 시험에 나올만한 개념 문제는 따로 찝어주시고 평소에 수업은 편하게 들으러 가도된다. 수업 중 야외수업도 있으며 한 학기 중 하루 원하는 날짜에 자체휴강을 하고 휴식시간을 보내라 하신다. 그림으로 나의 심리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우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시험 범위도 많지 않고, 시험 전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교양다운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내용도 재밌고, 강의 중 팀을 이루어 실습을 하는 것이 유익하였습니다.
		▪ 학생들과 소통 위주로 하는 실습이 좋았다.
		▪ 학업적인 것에 집중하기 보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좋았다.
		▪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과 같이 본인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비교적 활발하게 타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음. 또한 내가 그린 그림을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내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어서 흥미로웠음.
		▪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매 수업 조별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
		▪ 강의식 수업이 아닌 토론식, 참여식 수업이여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술치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체험한 과제물을 가지고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의 이야기도 들려주며 수업 내용을 적용해보고 나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식견을 넓힐 수 있었음.
		▪ 전공과 관련 있는 교양이라 더욱 흥미로웠고, 본인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기록해야 하며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또한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기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음. 수업에서

No.	과목명	추천이유
		배운 내용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심리 테스트를 해주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처럼 배움이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함.
		▪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양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좋았음.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수업과 수업내용 중 '미술치료로 알아가는 가족 이야기' 파트는 실제 체험 하는 수업내용이 대부분이라 실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더욱 흥미롭게 임할 수 있었음.
		▪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 본인도 치료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함을 찾아갈 수 있었다. 마음이 치유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 교양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삶에 대한 위로라는 느낌을 받았음. 미술치료 실습을 통해 미술치료의 내용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직접 해봄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미술작품을 통한 위로를 받았음.
		▪ 간단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서 재미있다.
		▪ 그림을 그려내어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이지만 그림과 이야기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시간처럼 느껴진다
		▪ 교수님이 예의바르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친철하게 학생을 대한다. 수업에 집중이 잘 되도록 자기주도학습, 조별활동 등 본인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게한다. 자신의 감정선에 대해 남들한테 자유롭게 표현할 수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좋다.
		▪ 학생들을 고려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수업 방식
		▪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시험 칠 때 전공만큼의 부담이 들지 않았다.
		▪ 수업 진행 방법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는 게 흥미로운 방식이라 좋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모둠 내에서 간단한 발표를 하는 것이 자신 및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좋았음.
6	진로상담과자기실현	▪ 해당 과목을 수강하며 비슷한 전공을 가진 학우들, 아예 다른 전공을 가진 학우들과 각각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해보며 여러 가지 시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부담스러운 과제 형식의 활동이 아닌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라 다양한 시각으로 나의 진로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어서 추천한다.
		▪ 조별로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 있어서 빠르게 주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중시했으며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수업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이었음
		▪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설정하면서 동기부여도 되었기 때문이다.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 부담감이 적음
		▪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면 자신의 성향,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모든 과정을 통한 성취감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를 보고나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게 과제인데, 글쓰는 능력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이 교양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이 과목을 정말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교양수업을 통해, 모의면접이나 자소서를 써볼 수 있었다.
		▪ 조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수업하는 방식임.
		▪ 답이 정해져 있는 강의식수업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음.

No.	과목명	추천이유
		▪ 여러 분석도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교양이다. 교수님이 정말 너무 착하시고 시험 문제도 착하다. 팀플이 주된 수업방식이라 편하게 듣기 좋은 교양.
		▪ 교수님께서도 친절하시며 수업도 알차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며 수업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자기의 적성을 찾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적성찾기에 도움됨
		▪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학우들이 듣기 좋은 과목이다. 자신의 적성에 대해 다시 알아 볼 수 있고, 또 무슨 진로를 결정할 지 모를 때 들으면 좋다.
		▪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며 간단한 조별활동으로 타인의 성향과 비교하며 재밌고 적극적이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음
		▪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검사와 조별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
		▪ 입학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가볍게 듣기 좋은 과목이라는 후기를 보고 신청했지만 조별이 많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조별이 오히려 힐링인 과목이었고 조별로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 나누고 얘기하고 게임도 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과목이었다. 또 강의 내용도 주제가 거의 '나'에 대한 것이어서 나의 생각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시험 치는 범위도 수업 시간에 한 검사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라 부담이 크게 없었다. 그리고 교수님도 너무 공감 잘 해주시고 긍정적이셔서 좋았다.
7	리빙디자인과문화	▪ 전공과 전혀 다른 주제의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신선하고 재미있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유익했다. 평소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더 흥미로웠던 것 같다. 교수님도 매우 친절하셔서 학생들을 배려해주시는게 느껴져 너무 좋았다.
		▪ 디자인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배우며, 왜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 강의였습니다. 또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교양과목 수강 이후 책이나 디자인가구를 볼 때 수업내용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 줄수 있었음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다른 수업들과는 다르게 많은 시각자료와 함께 교수님이 여행가신 곳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다양한 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대해서 여러방면으로 접할 수 있어 힐링이 되는 과목이였습니다.
		▪ 교수님께서 수업에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셔서 대충 수업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출석도 확실하게 잡으려고 노력하셔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아가게 노력하시기 때문입니다.
		▪ 정말 교양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강의였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성적을 위해서 소위 꿀강이라 불리는 강의들을 많이 수강하는데 그런 과목들을 듣다보면 시험에만 급급해서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거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은 시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강의명만 보면 전혀 상관없어보이는 교육 분야 강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을 배웠음.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여러 디자인들에 대한 상식을 알게되어 정말 교양이 쌓인 기분임.
		▪ 수업 중 과제로 박물관에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여 추천함
		▪ 수강하고나서 견문이 넓어졌다.
		▪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전공이 아니어도 잘 알 수 있게
		▪ 짜여진 수업 내용과 사진 자료가 많아 시각적으로 다양한 미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유익하면서도 재밌어서 정말 교양다운 교양이라는 생각이 듦.
		▪ 너무 딥하게 배우지도, 그렇다고 겉핥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적당한 깊이감으로 수강할 수 있어 부담되지도 않았음.
		▪ 라이프스타일 및 리빙에 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 리빙디자인과문화는 각 시대마다 디자인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No.	과목명	추천이유
		▪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 교수님께서
		▪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쉽게 내주신다.
		▪ 어려울 수도 있는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 대해 전공이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주시고 여행 이야기와 엮어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 해주십니다.
		▪ 예술의 역사와 디자인에 관련해 관심이 없더라도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름만 들어본 유명한 디자이너랑 예술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강의력이 좋으셔서 해당 과목이 더 재밌게 느껴졌다.
		▪ 색에 대한 이론과 가구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디자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강의이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부담이 적음, 전공과의 연계성) 디자인에 대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며 깊게 전공 수업처럼 배우는 것이 아닌 대표적 역사, 인물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교양으로 듣기 좋았고 전공과도 접합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아 도움 되었음
8	문학과영화	▪ 평소 접해보기 힘들었던 영화나 모르고 있던 영화를 감상하고 직접 분석해 보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으며 대학교 교양에서 배우기 좋은 지식이었다 생각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좋은 학문이였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팀활동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교수님이 매사에 열정적이시고 수업 분위기가 좋다
		▪ 영화감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큰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영화'라는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중간평가까지는 영화의 역사와 촬영기법에 대해 배우고, 기말 평가까지는 선정된 몇가지 영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알차다고 느꼈습니다.
		▪ 단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교수님께서 잘 유도해 주신다.
		▪ 영화라는 친숙하고 생활에 가깝게 밀접해 있는 분야의 소재를 공부하면서 교양과목의 성격에 걸맞은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애초에 영화에 관심이 많아 재밌게 들었으며, 영화를 단순히 생각없이 보는 것이 아닌 문학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았다.
		▪ 학생 참여형 수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 영화에 관심 있다면 영화의 다양한 기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영화를 예시로 보면서 흥미로운 수업을 할 수 있다.
		▪ 평소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기에 주로 영화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잘 맞음. 중간시험 후에 모두 조별과제로 진행되어 조금 힘들 수 있음.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영상 자료도 많아서 재밌음.
		▪ 평소 영화에 관심이 많다면 흥미롭게 들을만한 영화 분석 내용을 전달해주시고, 잘 몰랐던 영화들과 기법들을 알 수 있었음
		▪ 평소 영화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교양다운 교양이라고 생각함.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배우고 수업 시간에 영화 보는 시간도 있어서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수업임.
		▪ 영화 일반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흥행을 위한 상업적 영화가 아닌 숨겨진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 영화의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꼭 들어볼만한 수업이라고 생각함.
		▪ 평소 영화를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어서인 것 같음. 게다가 한 영화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정말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음. 초반에는 영화사나 기법, 형식 등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는데 교양으로 듣기 적당한 수업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딱 적당한 것 같음.
		▪ ppt를 이용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신다. 특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양한 촬영기법 등을 알 수 있어서 영화에 대해 더욱 이해도가 증가할 수 있다.
		▪ (실생활에 도움, 사고의 전환) 수업 시간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No.	과목명	추천이유
		감상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우리 문화생활의 일부인 영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울 수 있어서 좋았음
9	인간발달과교육	▪ 우리가 살아옴과 살아감에 있어서 철학적인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었음.
		▪ 교양과목 이름인 인간발달과교육에대한 이론적 설명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강의도중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실습 교육 등등유동적인 강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도록 해주었기에 교양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인간성, 사회성 등을 알게 되기에 추천하게 되었다.
		▪ 교수님의 성격이 유쾌하시고 강의력이 출중하심. 수업내용을 따로 필기하지 않아도 시험을 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메모를 해두었지만 놓치는 내용이 없는지 항상 긴장하며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됨. 그래서인지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의자료(ppt)만 바라보며 교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좋고 여러 방면에서 병들어가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수업이라 생각함.
		▪ 교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주셨습니다.
		▪ 매 수업 시간마다 좋은 강연을 듣고 오는 기분이였고 세상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교양 과목이였습니다.
		▪ 인간발달과 교육 수업을 친구 추천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토론을 통해 공유하여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수님의 생각이 멋있게 느껴졌던 수업이라 추천하고 싶다.
		▪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수업이었다.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여유로움을 가지는 법을 알려주신다. 그렇다고 수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라' 라고 하시고 수업 진행을 하신다. 수업내용도 들으면 나쁠 거 없는 내용들이다.
		▪ 인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유익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의 지도 방향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시험을 치기보다는 수업시간에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인간발달에 자신을 대입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세계 다양한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이슈들이 나와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양과목은 단순히 점수를 가르고 지식을 잠깐 외우고 마는 수업이 아닌 이러한 이슈들과 나, 현대의 시각을 넓혀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교육의 방향성과 나의 교육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이 교양 수업을 추천합니다.
		▪ 영화나 다큐를 틀어주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셨다. 산책 하라고 휴강도 2~3번 내주셨다.
		▪ 학교에서 들어본 강의 중 가장 교양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봄에 벚꽃놀이 하라고 야외에서 가지는 시간을 주신게 좋았음.
		▪ 전공과목에서 들을 수 없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 (교수의 열정, 부담이 적음)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피드백이나 소통도 꼼꼼히 해주시며 성적을 잘 주심
		▪ (흥미로운 수업 방식 N=2, 사고의 전환 N=2)인간 발달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움 집착, 은둔형외톨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삶에 있어 사람들과 많이 대면하게 되는데 사람의 발달 과정이나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별로 중요한 요소를 배울 수 있었음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어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음.
10	창업길라잡이	▪ 창업길라잡이 수업은 창업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자 하는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천한다.
		▪ 시내나 영대 쪽에 가게유형과 트렌드를 알게 되고 창업을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보아야하는지 알게 되는 강의라 추천합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패스강의라 시험을 안 치고 과제로 대체되어서 엄청 편하다.
		▪ 인강으로 편하게 수강이 가능하고,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평소 창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많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흥미를 가지게 됐다. 단지 창업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유명인들의 일화 등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과서적인 지식보다 현장에서의 유용한 기술과 경험을 알려주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았다.
		▪ 시험이 없고, 인터넷 강의로 진행된다.
		▪ 많지 않은 과제, P/F로 성적의 부담이 적다.
		▪ 요즘 청년 창업의 비율 꾸준히 증가하고 폐사업자도 증가한다는 기사를 접해서 이 교양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자신이 구상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상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미와 흥미를 느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 패스과목으로 별다른 중간기말없이 대체 과제로 2학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한 지역을 탐색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았는데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다.
		▪ 인생의 목표가 취직이 아닌 친구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양인 것 같다.
		▪ 먼저,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목은 학생들이 리더십,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조직 능력등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은 경제적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평소 창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많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고 흥미를 가지게 됐다. 단지 창업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유명인들의 일화 등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2.교과서적인 지식보다 현장에서의 유용한 기술과 경험을 알려주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았습니다.
		▪ 시험이 없고, 인터넷 강의로 진행된다.
		▪ 시내나 영대 쪽에 가게유형과 트렌드를 알게 되고 창업을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보아야하는지 알게 되는 강의라 추천합니다.
11	c프로그래밍	▪ (교수의 열정)차근차근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시며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한 조언도 잘 해주셔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듦
		▪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딩을 시키는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코딩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때는 이론 위주의 코딩 수업을 받았다면, C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 여러 코드를 돌려보고 직접 코드를 만들어보면서 코딩이 수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를 배울수있었고 차근차근 공부하여서 실력을 다지기 좋다.
		▪ C언어를 배우며 천천히 기초를 쌓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잘 가르쳐주셔서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도 거부감과 어려움 없이 잘 수강할 수 있었으며 논리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교수님의 수업이 이해가 잘 된다.
		▪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학습 할 수 있다.
		▪ C에서 어려운 포인터까지 안가고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 기계 IT 혹은 공과 대학 학생들에게는 코딩이란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교양으로 미리 접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좋은 요소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 코딩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다.
		▪ 기계 IT 혹은 공과 대학 학생들에게는 코딩이란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교양으로 미리 접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좋은 요소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 C언어를 배우며 천천히 기초를 쌓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잘 가르쳐주셔서 처음 배우

No.	과목명	추천이유
		는 과목인데도 거부감과 어려움 없이 잘 수강할 수 있었으며 논리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C에서 어려운 포인터까지 안가고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 교수님의 수업이 이해가 잘 된다.
		▪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학습 할 수 있다.
		▪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를 배울수있었고 차근차근 공부하여서 실력을 다지기 좋다
12	미국드라마로배우는 영어표현	▪ 문법적인 부분 등의 정해진 내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미국드라마를 보면서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다양한 미국드라마들을 접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익힐 수 있다.
		▪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음
		▪ 인터넷 강의라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음. 그리고 영어 대사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회화쪽에서 더 도움이 됨.
		▪ 드라마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영어표현을 배워서 가볍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 고등학교때부터 배워오던 딱딱한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용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
		▪ 미국 드라마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이 말하는 속도가 평소 치뤄오던 영어듣기 시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나 이 속도에 적응한다면 공인 영어시험의 듣기파트 고득점은 물론, 영어회화 실력도 기를 수 있다.
		▪ 우리가 필수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영어는 문법에 기반한 영어라 회화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가 많다고 느꼈는데, 실제 회화에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배움으로써 영어에 대한 경계가 줄었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영어를 보다 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인터넷 강의라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음. 그리고 영어 대사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회화쪽에서 더 도움이 됨.
		▪ 고등학교때부터 배워오던 딱딱한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용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
		▪ 미국 드라마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이 말하는 속도가 평소 치뤄오던 영어듣기 시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긴 하나 이 속도에 적응한다면 공인 영어시험의 듣기파트 고득점은 물론, 영어회화 실력도 기를 수 있다.
		▪ 미국 드라마로 배우는 영어 표현
		▪ 우리가 필수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영어는 문법에 기반한 영어라 회화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가 많다고 느꼈는데, 실제 회화에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배움으로써 영어에 대한 경계가 줄었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영어표현을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흥미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영어 난이도도 너무 어렵지 않아 누구든 가볍게 들을 수 있어 추천하는 교양임
13	자산관리와인생제무재표	▪ 자산의 종류와 재무제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기말 과제로 나만의 인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이 과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었음
		▪ 이 강의는 인터넷 강의 유형인데 강의 퀄리티가 젤 좋았고 회계에 대해 모르는 학생도 알기 쉽게 가르쳐주기 때문임
		▪ 재무제표를 작성해 볼 기회가 앞으로도 흔치 않을텐데 이 강의를 통해 스스로 인생 자산관리를 계획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돈에 대해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강의라서 교양 강의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든다.
		▪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줘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경제,회계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실제로 경제활동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서 앞으로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인터넷 강의치고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인데다 교수 두분이서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에 재미를 갖고 좀 더 몰두 할 수 있음.
		▪ 기초 회계 재무제표를 교양과목으로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기본 베이스가 없는 타전공이 듣기에도 어려움 없이 따라 갈 수 있어서 추천하는 교양 과목입니다.
		▪ 우리과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내가 어떻게 소비 하는지 알 수 있고 나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 강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교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농담도 하셔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다. 온라인이라 복습하기에도 수월하고 얻어갈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 학생에게 전공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경험하고 신경써야할 개인의 자산과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교양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꾸준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4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실습	▪ 이 과목을 통해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 교양 수준으로 쉽고 가볍게 배울 수 있었으며, 관련 학과가 아닌 타전공 학생들도 C언어의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
		▪ 가장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컴퓨터 공학과 복수 전공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 교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c언어에 대해서 잘 알려주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 요즘 코딩업무를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만큼 이 과목을 배워 기초코딩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
		▪ 현재 컴퓨터 즉 IT를 이용하는 산업이 즐비하는 가운데 코딩 및 간단한 C언어에 대한 지식은 함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자율주행에 관련된 실습을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받쳐주는 것 같아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코딩언어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 교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c언어에 대해서 잘 알려주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 자율주행에 관련된 실습을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받쳐주는 것 같아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또한, 코딩언어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15	융복합글쓰기	▪ 맞춤법, 문장을 잘 연결해 문단을 만드는 방법, 띄어쓰기 등 잘못 알고있었던 글쓰기 지식들을 배울 수 있고 추후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 평소에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 공학도에게 부족한 인문학 소양을 늘릴 수 있어서 좋았고 추후 직무 생활 중에 교육과정에서 배운 보고서나 글쓰기를 통하여 발표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강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인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 글쓰기는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줌
		▪ 평소 글 쓰는 것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내 생각을 글로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표능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유용한 과목이다.
		▪ 공대를 다니는 경우 글을 쓸 기회가 많이 없는데 글쓰기 과목을 통해 글쓰는 방법과 맞춤법, 문장 부호, 문장 구성요소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있어 좋다. 또한 취업할 때 필요한 자소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잦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좋은 인간관계 형성할 수 있었음. 팀원들과 함께 여러 미

No.	과목명	추천이유
		술작품과 창작가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소설을 짓는 수업이 있었는데, 각자가 본인의 전공을 활용하는 방법이 흥미로웠음. 제각각 준비해온 내용으로 타 전공의 팀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음.
		▪ 글쓰기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보고서,레포트 등 작성이 보다 쉬워져 과제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대학에 오면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 더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글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 -현대인에게 부족한 글쓰는 능력을 토론형식의 수업으로 기를 수 있어 좋았다.
		▪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의 기본 마음가짐, 사고방식, 과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힌트를 주는 과목이라서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기본이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융·복합적 글쓰기 방식을 통해 지성인이라는 길로 나아가라는 학교측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 대한민국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는 글쓰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생 1학년 때 수강했던 교양필수과목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함
16	현대사회와스포츠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포츠를 좋아하여 흥미가 있었다.
		▪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도 해서 흥미롭게 들었고, 수업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기말시험 범위가 처음부터라 많긴 하나 마지막 주에 다 찝어주셔서 시험 준비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현대스포츠까지 얼마나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려줘서 내용이 흥미롭고 실제로 과제는 운동목표를 선택해 실제로 운동을 하는 과목이었다.
		▪ 스포츠가 가진 특징, 상징, 기능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개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운동일지를 적는 활동이 있는데 이 덕에 꾸준하게 헬스를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스포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다
		▪ 수업에 열정적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
		▪ 교수님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수업 중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 시각 자료 등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할 때, 과제를 제출할 때 답변으로 칭찬 혹은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이러한 모습으로 첫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적응에 도움을 주신거 같아 추천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스포츠에 대해 잘 알려주신다.
		▪ 시험과 과제가 힘들지 않고, 과제가 단순 레포트 형식이 아닌 현대사회와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은 운동에 관련된 과제가 나와서 좋음.
		▪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음
		▪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수강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심, 학생들의 토론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수업
		▪ 평소에 관심 있던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이론들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수업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17	광고의이해	▪ 공과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속에서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에 관한 내용도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 내용 재밌고 학점을 잘 줍니다.
		▪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현재 전공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반대의 분야라서 좋았다.
		▪ 매 차시마다의 분량이 적절하여 '교양'에 딱 알맞은 과목이라 생각한다. 시험정보나 결과 안내 등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인터넷 강의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좋았다. 심리학과 연관되어 있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
		▪ 수학 과목을 듣다가 광고의 이해를 들으니 편했다. 광고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광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보며 광고에 대해 더 재밌게 접근하며 배울 수 있었다. 광고는 많은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강의를 들을 경우 쉽고 깊은 이해로 좋은 점수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 구체적인 강의 내용들을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해주심

No.	과목명	추천이유
		▪ 평소 관심이 있었으나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야였는데 교양으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되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 활동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 우선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들을 수 있고 과제 또한 '광고 시나리오 그려보기 (4컷)' 등 강의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만 있다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기에 추천한다.
		▪ 이 수업을 들으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광고에 관한 사실들을 알게 됨. 이 수업에서 영상 광고뿐만 아닌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됨. 트랜스아트과인 나한테 이 교양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지만 생각보다 접점이 많아서 광고 제작에 흥미가 있거나 없더라도 이 강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음.
		▪ 미디어에 대해 교양적으로 배우면서 영상을 제작할 시나리오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광고로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이후 전공 과제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8	성공과창업전략	▪ 전공 과목을 수강할 때와 다른 창업 할때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외부 교수님들을 통해 배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현직자들의 성공 전략과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시험이 없고 중간 기말과제도 비교적 간단하며, 여러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오셔서 창업에 대해 잘 말해주심..
		▪ 단순히 창업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강사분들 인생과 시행착오(경험)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창업 팁과 방법등 잘 알수 있었음.
		▪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좋았다. 과제도 창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입문하기 다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초청 강사를 통하여 실무적인 내용까지 배울 수 있고 창업의 바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알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한다.
		▪ 평소에 접하지못하는 다양한 창업자들의 성공전략과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 pass/fail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 외부강사님들이 와서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자신이 생각만 하고 있던 사업, 사업아이템을 이 수업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었어서 생각만 하던 것이 결과물로 나올 때 뿌듯했다. 또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실제로 발전시킬 때 이 수업에서 배운 걸 토대로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
		▪ 이름처럼 창업전략에 관해 관련된 다양한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강의할 기회가 많으며, 후에 창업 관련하여 진로를 고민한다면 매우 추천하고 싶은 교양과목이다
19	식물의세계	▪ 복수정답이 많은 시험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어느정도만이라도 공부하면 쉽게 학점 받아 갈 수 있는 과목이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에 열정도 있으시고 피드백이 빠르시다.
		▪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남대학교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알게 돼서 학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실 과목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려운 과목일까봐 걱정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과 이해 쉬운 예시, 사례들을 들려주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강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한 수업의 방식보다는 어느 한 이야기를 듣는듯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 생명공학과에 유리한 수업과목(교필이 아닌 교양으로 신청 요망)
		▪ 왜냐하면 원예생명과학과에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랑 비슷해서 큰 부담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수업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알지 못했던 우리 학교의 여러 식물과 학교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인터넷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의 퀄리티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다.
		▪ 어렵지 않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고 과제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 없었고 교수님

No.	과목명	추천이유
		도 친절하고 좋았다.
		▪ 교수님께서 교양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수업처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시험은 가르쳐 주신 부분에서만 내주십니다.
		▪ 전공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를 느끼며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함.
		▪ 인강으로 진행이 되어 여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교양 과목의 내용과 우리 주변 이야기들을 엮어서 강의가 진행되어 재밌게 수강할 수 있었음.
20	식품과건강	▪ 요새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나 운동 및 식단관리라는
		▪ 일들이 주변에 흔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 교양지식을 알아가기 좋기때문
		▪ 교양을 들으면서 스스로 식단에 대해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 영양소에 대해 공부하면서 적절한 식단을 찾아갈 수 있었다. / 들었던 교양 중 제일 유익하였고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장암, 변비, 당뇨병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음식을 섭취하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시험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치다보니 한 시험시험마다의 부담이 적어서 좋았던 것 같다.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병, 영양소 등의 내용을 다루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학생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는 교수님인 것 같다.
		▪ 생활과 건강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영양소의 기능에 대한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교양함양을 위한 수업으로써 일상생활에 연관된 지식을 많이 함유할 수 있었고, 전공보다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음.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친절했습니다.
		▪ 운동을 하면서 잘 챙겨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수업에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지를 알려줌.
		▪ 교수님이 열정이 넘치심.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수업이 지루하지 않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관련지식들을 많이 알려 주셔서 유식해 보일 수 있음. 과제와 시험이 부담스럽지 않음.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과제를 주심.
		▪ 식품과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
21	결혼과가족	▪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공부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법과 국가 체계에 대해 배우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 인터넷 강의라 수강이 편하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성에 대한 다양한 흥미로운 내용과 실생활에 유용할 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교수님께서도 최대한 이해시켜주려하며 시험도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
		▪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상 지식들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하는 내용을 가르쳐주셔서 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수업에 조활동이 많아 심심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며 간단한 조별활동으로 타인의 성향과 비교하며 재밌고 적극적이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음
		▪ 흔히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지만 한 번쯤은 누가 알려줬음 하는 사랑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며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런지 수업 내용도 유익했고, 교수님의 수업 방식도 마음에 들었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고 해도 대다수의 수업에선 설명식 강의이기 때문에 상호소통이 없는 편인데, 이 수업은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여서 인상 깊었음.
		▪ 온라인 강의에만 열심히 임하면 시험도 큰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음
		▪ 온라인 강의라 공간적 제약이 적음, 시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시간, 공간적 제약을 덜 받음
22	사랑학개론	▪ 전공 특성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수십명 앞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교수의 열정, 흥미로운 수업 방식)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소통이 잘되었음. 대학생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만한 과제들을 많이 내주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음.
		▪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수업이 교양이라는 취재에서 적절하다
		▪ 사랑학개론 과제 중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타인이 생각하는 사랑을 비교하는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가족,친구,연인 간의 사랑을 비교하였는데 타인과 내가 같은 주제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교수님께서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해주고 대체과제로 책(자서전) 만들기를 내주셨는데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 다른 교양과 다르게 교양을 같이 듣는 타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감정적 교류), 교수님도 재미있게 수업해주셔서 들어본 교양 중 가장 추천하고 싶다.
		▪ 들었던 교양 중에 가장 흥미로웠고 이해될 수 있게 설명도 잘해주셨다.
		▪ 교양과목을 하면서 타과학생들이랑 친해질 일이 잘 없었는데 다른과 사람들과 같이 과제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고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여 추천한다.
		▪ 수업 내용이 너무 깊지도 않고, 가볍게 교양으로 듣기 좋은 과목이었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해 본 교양 중에 가장 교양 다운 교양인 것 같았다.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것과 현실 문제나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는 수업 내용들이 많아서 재미있었고 팀으로 과제를 하고 토론을 했던 경험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좋았다.
		▪ 그저 사랑만 배우는 것이 아닌 사랑의 단어에 여러 종류의 깊이를 알아가서 좋았음. 가족의 애와 우정의 애 연인의 애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관계에 대해 소중함을 알게 됨.
23	심리학의이해	▪ 평소 관심이 있었던 심리학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양이라 좋았고 많은 강의자료를 올려주시는 편이라서 여러 번 참고하여 공부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평소 생명과학에 대해 알고 있다면 쉽게 이수할 수 있는 교양임.
		▪ 팀플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고 교수님이 하는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 부담이 없는 강의임.
		▪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된다면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비전공자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이해를 추천한다.
		▪ 우선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수업에 열정적이시다. 뇌과학과 성격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상당히 흥미로웠다. 본인을 소개하는 과제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피드백도 길게 해주셔서 좋았다.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심리학 이론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탐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 교수님이 열정적이고 학생들에게 열린마음으로 다가와주신다. 타 전공인 심리학의 이해에 기본적인틀을 알 수 있었고 흥미로운 주제라 앞자리에서 듣게되었다.
		▪ 심리학 좋아하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면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평소 생각했던 심리학과 달라서 더 흥미로운 강의입니다.
		▪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가벼운 내용으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추천함.
24	영어로배우는의사소통	▪ 평소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영어로 대화하는것에 대해 자신감을 기르고 영어 소통시 원활한 소통을 꿈꾸며 신청할 수 있어 좋다.
		▪ 다양한 외국 영화를 보면서 쉽게 현지에서 쓰는 영어 표현과 억양을 배울 수 있다.
		▪ 회사나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영어 표현들을 배움으로써 TOEIC과 같은 영어 자격증과 연계되어 차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또, A 학점을 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점 취득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과목을 추천하였다.
		▪ 교수님이 호주 출신이신데 호주의 native 영어와 환경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면 이해하기도 쉽고 유익함을 느낄 수 있음
		▪ 사회에 쓸법한 영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
		▪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알수있고 그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하는 방법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 영어는 현대 비즈니스 및 학문의 국제적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영어의 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영어는 수업 속에서도 자주 쓰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공학과경영	▪ 사회 정보를 알기에 좋다.
		▪ 공학도라면 향후 기업, 연구직, 사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공학과 경영은 이러한 공학도에 초점을 맞춰 단순 학문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 미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 및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공대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인 경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영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공대생도 경영,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또한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와 경제 등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가 중요한 만큼 꼭 공대생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대생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경영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음.
		▪ 공대 학생이라 경영단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경제신문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공대로서 생소한 경영에 대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었다.
		▪ 공대생에게 필요한 공학과 관련된 경영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공학도가 나중에 사업을 기획하거나 제품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 유익했다.
		▪ 공학과 경영을 접목시켜서 공학을 배우는 학생은 듣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영 마인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알려주는 과목으로 기술적 능력과 함께 경영학적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이다.
		▪ 공학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경영이란 과목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26	기초독일어	▪ 독일어에 대해 잘 몰라도 기초부터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강의가 지루하지 않았고, 관심 있었던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성악과로써 가사를 읽거나 문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커서 추천해주고 싶다.
		▪ 교수님이 열정있으시고 복습과 실습을 겸비한 수업방식이 도드라지심. 기억에 남고 그냥 학점 챙기는 교양이 아닌 지식을 얻어가는 교양인 것 같음
		▪ 다른 나라 언어의 기초를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음.
		▪ 학생들이 독일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기초부터 잘 알려주시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교수님께서 겪은 재밌는 이야기를 수업을 통해 이야기하며 수업과 쉬는 시간을 적절하게 섞어 진행하십니다.
		▪ 전공에 관련된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음
		▪ 새로운 언어는 낯설기 마련인데 교수님이 친근하고 친절하게 언어 입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반복학습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며 매 수업 시간 시작과 끝이 복습으로 이루어져 수업만 잘 들으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다.
		▪ 독학하기 힘든 독일어를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
		▪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언어이기도 하고,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음.
27	나만의책만들기	▪ 평소 시와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학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교양 수업임. 타과 학생들과 특정 도서를 두고 토론을 하거나 본인이 작성한 글을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며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음. 교양 수업의 특성상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수업에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함.
		▪ 한번쯤 꿈 꾸었던 진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
		▪ 한학기를 다 듣고 나면 나의 책이 완성됨
		▪ 편견일 수 있지만 요즘의 학생들의 문장력과 어휘력, 발표력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생각

No.	과목명	추천이유
		한다. 본 교양과목은 하루글쓰기, 포토포엠, 고전명전, 단편소설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작성하고 그를 조별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하나의 책을 완성하는 결과물 또한 있어 학생들의 문장력을 키움과 동시에 의사소통능력, 발표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추천한다.
		▪ 대학생이 되어서 글을 쓸 기회가 적다. 심지어는 글을 읽을 기회조차 없다. 하지만 해당 교양 수업으로 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책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나의 생각을 글로, 혹은 시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해당 교양과목을 추천하고 싶다.
		▪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기회가 있다. 마지막에 쓴 글들을 모아 책을 구성해 결과물을 하나 만든다.
		▪ 매일매일 글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나의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볼 수 있다. 책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신다. 글쓰기에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야간수업이라 늦은시간에 했지만 주간수업도 있어서 할만하고 재미있다.
		▪ 수업 내용이 알차고,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재미도 있는 교양이였다.
28	영화로하는영어공부	▪ 과와 너무 상관없는 이수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들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크게 과와 다르지 않는 과목을 찾다가 발견했다.
		▪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에 영화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였다.
		▪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구어 등 실제 화법에서 사용되는 구문 등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영어를 잘 모르고 재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교양이다. 영화를 통해 친근하게 영어에 대해 배울 수 있기에 추천하고 싶다.
		▪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듣는 교양이 아닌 신선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듣기 좋은 강의인 것 같다. 한 편의 영화를 한 학기 동안 세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이 교양을 듣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 영어회화에 대한 공부를 영화를 통해서 하는 교양인데, 영화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문장과 숙어 등을 많이 알려주셔서 나중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영어문장과 숙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 영화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흥미도가 높음
		▪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 영상을 통해 그 속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공부하며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었다.
		▪ 영화는 일상적인 대화와 문화적 맥락을 제공하므로,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돕는 훌륭한 수업임. 영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표현을 경험함으로써, 실제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언어 구조를 습득할 수 있어 추천함
29	음악감상및비평	▪ 교수님이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고 얻어갈 수 있는 음악적 지식이 많다. 서양음악사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배울 수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없어서 처음이라 무지한 학생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었다.
		▪ 현재 저의 전공이 클래식 전공으로 저의 전공과 본 강의가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되었던 강의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서양 음악사뿐만 아니라 작곡가들의 일대기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작가의 소설이나 시를 읽고 그 작품의 탄생 배경까지 파악하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연주곡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클래식 전공자들로서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평소 문화생활을 좋아하거나 악기 연주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게 추천합니다.
		▪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음악이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의는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음악 감상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도 핵심적인 것을 얻어갈 수 있게끔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배우며 감상하는 수업 활동은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뿐

No.	과목명	추천이유
		만 아니라 서양 음악에 관하여 풍부한 교양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해당 강의를 추천합니다.
		▪ 교수님의 화려한 언변과 재치있는 강의력으로 홀린 듯이 수업을
		▪ 수강했다. 특히 수강하는 기간동안 음악사조와 작곡가에 대한 지식, 음악적 소양이 쌓여가는 것을 확연히 체감했다. 이때껏 대중음악만
		▪ 듣던 본인이 기악곡을 찾아 들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또한 오프라인 클래식 공연을 보고 작성하는 레포트 과제도 너무 신선했다.
		▪ 음악 감상 및 비평을 수강하면서 좋은 곡들도 많이 알아가고
		▪ 전공과목으로 힘들 때마다 힐링 받을 수 있는 교양수업이었다.
		▪ 먼저 두 분의 교수님 팀티칭 방식의 강의로 세계 음악, 클래식 음악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다양한 음악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음악에 관해 잘 모르고 수강해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	토익스피킹	▪ 첫 주에 모의 테스트로 시작해 본격적인 강의 수강에 앞서 자신의 실력을 진단해 볼 수 있다. 매주 강의가 제공되며 곧바로 스피킹 녹음을 해볼 수 있고 주어진 예시 답안과 자신의 답안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다.
		▪ 패스 2학점이며, 전공과목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고 토익스피킹을 정해진 날이 아닌 기간 안에 수업을 들으며 공부도 할 수 있고 학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서 좋았다.
		▪ 토익스피킹이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알수 있고 어학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기초다지기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익스피킹 모의시험을 여러 번 칠 수 있으며 문항별로 세세하게 가르쳐주며 이를 통해 연습을 잘 할 수 있다. 강의를 통해 문항별 혹은 전체적으로의 팁을 알 수 있기도 하여 유익한 것 같다.
		▪ 나중에 토익스피킹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습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기에 좋은 교양과목인 것 같고, 매주 실제 영어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연습하는 문제들도 많아서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 아직 1학년이라 수강한 교양과목이 두 개밖에 없었고 수강한 과목 둘 다 사이버 강의라서 제대로 교양과목을 접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강한 과목 중 YBM에서 진행한 토익스피킹 수업이 처음 접하는 토익스피킹에 대해 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추천한다.
		▪ 인터넷 교양강의로 직접 가야한다는 부담이 적고 토익스피킹 시험을 맛 볼 수 있다.
		▪ 토익스피킹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 영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에 가까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음
31	현대인과패션	▪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음.
		▪ 패션의 역사와 패션쇼에 대한 강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추천하고 싶음.
		▪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들으면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 패션에 관한 지식들을 일상생활에 빗대어 설명해주어서 재미있고, 중간고사 문제의 난이도가 적당해서 부담되지 않았음.
		▪ 예시,영상,사진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 패션에 많은 관심이 없더라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 현대 패션에 대해서 접할 수 있고 트렌드에 맞는 패션을 알 수 있다.
		▪ 체형에 따른 코디법, 체형 커버를 위한 코디법에 배울 수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다.
		▪ 요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이슈는 패션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강의는 패션의 유행과 컬러 등을 쉽고 자세히 알려준다. 교양다운 수업 진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일대를 알 수 있었으며 패션 스타일을 알아보는 좋은 경험이었습

No.	과목명	추천이유
		니다.
32	생활법률	▪ 평소 우리가 살면서 접해보거나 인터넷에서 보는 상황에 대한 법률에 관해 배우는 과목이라 수업에 대한 흥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다.
		▪ 법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추천한다.
		▪ 실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날 만한 다양한 법관련 내용들을 보다 쉽게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또한 배울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은 교양이다.
		▪ 어려울 수 있는 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고 수업도 재미있었음
		▪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법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생활에 융통하게 쓰일 수 있는 어렵지 않고 상식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줌
		▪ 교수님께서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 노력하심.
		▪ 일상생활 속 알아두면 좋은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특히 현직 변호사인 교수님께서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사례 및 판례를 수업내용과 함께 제시해 주시니 더욱 이해하기 좋고 수업내용도 유익했음.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의 경우 수업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실용적이었던 교양이라 생각함.
33	서양음악의이해	▪ (부담이 적음) 정말 교양으로 듣기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수업
		▪ 클래식에 문외안인 사람들도 다양한 국가와 시대의 클래식을 접하면서 클래식에 익숙해지고, 클래식에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제를 통한 추가 학습을 통해 클래식에 대해 흥미가 생긴다.
		▪ 서양음악에 대해 폭넓고 깊게 알 수 있음
		▪ 서양음악사에 대한 교양 차원에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수님의 강의력이 정말 좋았다. 클래식이다보니 음악 감상 시간에는 잠이 와 집중이 풀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교수님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 음악 대학 내용과 현재 본 전공과 관련하여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 접근이 쉬워 추천합니다.
		▪ 음악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음 (음악에 관심 많은 사람이면 더 추천)
		▪ 서양음악사와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다양한 작곡가, 악기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더욱 쉽게 음악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서양음악에 관련된 문화와 역사, 작곡가 등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34	실용영어	▪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발표를 자유롭게 해서 좋았다.
		▪ 강의 때 영어에 관한 회화도 많이 알려주시고, 경험담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현지에서 쓰는 관련된 표현을 많이 가르쳐주신다. 또한 회사에서 실제로 쓰이는 회화들을 틈틈히 알려주셨고 토익 어법 문제들에 대한 언급도 자주 있으셨다.
		▪ 실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수의 열정 N=2)교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학생 한명 한명 꼼꼼하게 피드백해 주시며 학생의 참여도를 높여주심으로써 학업성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보임
		▪ 어떤 일을 하든지 글로벌 사업에 대응할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실용적인 방면에서의 영어를 잘 알려준다.
		▪ 영어를 배우면서 팀플을 하니 재미있었음
		▪ 클래식을 전공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외국인 교수님과 직접 수업하였기 때문에 영어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1학년 공통 수업으로 배정되어 있었던 과목으로 학기 초 부담되지 않는 선의 조별활동으로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 교수님과 대화하고 질의응답하는 수업 과정 속에서 얻는 유익함이 많아 기억에 남았습니다.
35	초급중국어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데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교수님께서 기초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여러 번 꼼꼼하게 복습해주셔서 노베이스지만

No.	과목명	추천이유
		수월하게 들은 것 같다.
		▪ 중국어를 처음 접한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인 것 같다. 연습을 중요시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 문장과 단어를 배울 수 있어서 과목명과 같이 중국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초급자인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 교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내용이 초급이라 어렵지 않다.
		▪ 중국어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음
		▪ 과목명대로 성조 발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음.
		▪ 이와 더불어, 회화를 배울 때 실생활과 접목하여 유용하였음.
		▪ 간단한 회화를 재미있게 가르쳐주시고 문법과 발음까지 교정해주는 좋은 수업이였다.
		▪ 학생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기초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의사소통 중심 수업으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36	스무살의인문학	▪ (흥미로운 수업 방식)매주 새로운 유명 인사나 교수님께서 오셔서 지루하지 않게 스탠딩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점이 기억에 남음
		▪ 한 주마다 진행되는 강연자들의 강연을 듣는 3학점 패스 과목이다. 우선 패스과목이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그들의 삶과 철학을 듣고 "인문학"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갖게 해준다. 대학생을 주제로 한 특강이라서 좋았다.
		▪ 농대 특정 상 인문학과의 거리가 먼 편인데, 여러 분야의 교수님, 연구원 등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았다.
		▪ 매주 바뀌는 강연자들의 강연 내용이 재밌고, 더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주 강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 학점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특강을 들으면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7	지속가능한공공디자인	▪ 과제나 수업 내용 등의 면에서 부담이 적고, 교양 과목명이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인 것과 연관하여 지속가능성, 디자인에 대해 밀접히 다루고 있다는 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강의 자료를 활용함
		▪ 교양다운 교양'이라는 강의 평을 보고 신청했었는데 딱 적절한 표현이었다. 환경과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유익하게 들을만한 강의에 시험 난이도 또한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제도 흥미로웠고 내용의 창의성보다 성실성을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아서 무난한 교양으로서 추천하고 싶다.
		▪ 딱 교양다운 가벼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
		▪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 교수님도 좋으시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내용
		▪ 요즘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 사회문제 환경보호, 지속가능성을 공간과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적용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지식에 대한 견문이 넓어져 추천하고싶다.
38	한국의전통교육	▪ PPT와 설명이 충분했고 어느 과던 흥미를 끌 수 있는 과목이었음
		▪ 첫 번째로 해당 과목은 교수님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렇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수업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 전통교육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및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에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교양과목입니다.
		▪ 시험이 어렵지 않다.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신다.
		▪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해주신다.
		▪ 조선시대 유학교육 사상에 대해 진득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교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수님께서 항상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심
39	행렬및행렬식	▪ 행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로 2학년이 되어서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벡터와 행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과목으로 이공계열 학과에서는 전공 과목에서 행렬이나 벡터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전 선수강한다면 전공 과목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 학과 전공과목으로 필수로 쓰일 행렬을 1학년 때 미리 배워 많은 도움이 됨.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응용까지 쉽게 할 수 있었음.
		▪ 전공 과목에서 활용되는 지식들을 교양에서 배울 수 있었다.
		▪ 수학교육과에서 필수로 배우게 될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행렬및행렬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배울 기회가 없어 곤란했으나 행렬및행렬식 교양 과목을수강함으로써 배울 수 있었다.
		▪ 수학에서 긴 풀이식이 있을 경우 행렬이라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었고, 배워두면 다방면으로 사용이 용이해서 추천한다.
40	미분적분학	▪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의 심화적인 내용으로 익숙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교양들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흥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일반물리를 포함한 모든 공학과목에서 기초를 담당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교 시절 부족하였던 과목을 다시 한 번 훑어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으며, 전공 과목 공부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웠는데 고등학생 때 미적을 좋아했어서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미적분을 잘 하지 못해도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기초를 다지기에도 좋았다. 또한 2학년 때 듣는 물리화학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의 심화적인 내용으로 익숙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다른 교양들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흥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 2학년 수업을 하면서 미분적분학 내용을 안 배웠다면 이해 못했을거라고 생각한 과목이 많았기에 이 수업을 들으면 다른 과목을 배우면서 분명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41	사회적기업의이해	▪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제적인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출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고 많은
		▪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 자칫하면 잘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매 시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음
		▪ 평소 몰랐던 측면에 대해 알게 될 수 있고 교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심
42	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	▪ 교수님과의 원활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업 도중 바로 질문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수업 내용을 더 잘 숙지할 수 있었다.
		▪ 지금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적이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어 유익했습니다.
		▪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관련 교양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고,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가르쳐주시기에 추천한다.
		▪ 파이썬의 기본적인 개념과 컴퓨팅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임.
		▪ 소프트웨어(파이선, 엑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됨
		▪ 해당 수업에서 다루는 전문 지식의 분량이 많아 수업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 주고 싶음. 수업

No.	과목명	추천이유
		내용이 심도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어 현대 사회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인공지능의 이점에 대해알 수 있어서 좋았음. 전공 특성상 이공과 계열의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AI,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함.
43	영남뫼가람의생태와 생물	▪ 교수님께서 TMI를 곁들이면서 설명해주셔서 어느 교양보다 즐겁게 수강할 수 있었다. 자연에 관심이 많거나 지구과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수업 열의를 이 과목 추천하는 이유 중 가장 강조하고싶다. ▪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과 함께 생명과학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강의를 해줘서 좋고, 과제도 없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과목이라 추천합니다. ▪ 영남지역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알 수 있음. ▪ 해당 수업을 통하여 예전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키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기에 추천하였습니다. ▪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진부한 내용이 아닌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교양이라서 실생활과 더 연관된 정보 얻을 수 있음. ▪ 교수님이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때문이다.
44	운동과건강	▪ 운동과 건강 수업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됨. 이 수업을 통해 올바른 운동 기술과 건강 습관을 배울 수 있으며, 신체 조절, 근력 향상, 유연성 향상, 심혈관 건강, 체지방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생명과학에 대해서 배웠을 때 화학과 일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수업내용이 어렵지 않고 상황에 따른 운동법과 건강관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강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여서 좋았다. ▪ 강의력이 좋음 이해가 될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임 ▪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에 효과적인 운동방법과 이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는 일생동안 운동을 접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양 수업이었다. ▪ 운동과 건강을 통해 다양한 운동과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몸의 균형 좋은 생활습관에 대해 상기시키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 이후 실제로 생활에 적용시켜 건강한 삶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45	좋은삶과 사상찾기	▪ 삶의 가치관, 도덕적 기준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사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 ▪ 고등학교 시절 윤리 과목을 들은 학생이라면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수업듣기에 좀 더 수월하고, 더 심화된 내용이 추가 되어서 윤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추천함 ▪ 윤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배울수 있어서 열심히만 한다면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이다. ▪ 과목명이 좋은 삶과 사상 찾기인 것처럼 강의 학습과 교재 학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말 좋은 삶과 좋은 사상을 찾을 수 있어서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 기본적인 철학 상식에 필요한 사상가들의 철학관을 배우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보게 하는 과목이었다. ▪ 교수님이 친절하시며 삶을 살아가는 기본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내용은 딱딱할 수 있지만 생각을 많이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46	4차산업혁명시대창업과법의세계	▪ (부담이 적음, 흥미로운 수업 방식)중간고사가 없고 과제 또한 많은 편이 아니고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음 ▪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처음 배웠단 느낌을 받음 ▪ 교수님께서 법이라는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접근하기 쉽도록 학업적인 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수업 또한 잘 이끌어주셔서 공부하기 좋았다. 창업 계획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법의 내용이므로 일상적인 부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뿐더러

No.	과목명	추천이유
		관련 기본 지식 함양에도 도움이 됨
		▪ 평소 법에 대한 교양이 무지하였지만 이 과목을 통해 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창업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교수님께서 수업을 자세하고 알차게 설명해주신다. 갈등관리는 사적 갈등을 얘기하는줄 알았지만 지역, 나라 등 생각도 못한 갈등이 많다는걸 알게되어 고정관념이 깨졌다.
47	갈등관리의이해	▪ 교수님께서 수업을 자세하고 알차게 설명해주신다. 갈등관리는 사적 갈등을 얘기하는줄 알았지만 지역, 나라 등 생각도 못한 갈등이 많다는걸 알게되어 고정관념이 깨졌다.
		▪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시되는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을 대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의가 어렵지 않은 주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시험이 따로 없고 과제 대체로 성적을 부여해서 부담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되어 부담 없어서 더 좋았다.
		▪ 갈등관리의 이해를 수강함으로써 심리학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멘탈 케어 연습을 할 수 있음
		▪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수없이 많을 텐데 이 교양 수업을 통해 어느정도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48	대구경북의이해	▪ 구미와 대구 중구 쪽 지역 탐방을 가고 타과 학생들과 어울리며 대구 경북권에 대한 지역 특색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음. 대학 교양 수업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기도 함.
		▪ 우리학교가 위치해있는 영남지역의 역사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미래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실제 탐방을 통해 우리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다.
		▪ 대구경북지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고 과제로 지역 탐방을 하는데 많은 곳을 가 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패스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 패스과목이라 시험기간에 부담이 적음
		▪ 대구와 경북의 문화와 탐방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역사와 기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9	대학생활설계	▪ 대학 생활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과목이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온라인 강좌로 수강할 수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아 더욱 효과적이었다.
		▪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성인이 되어서 설레는 방면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에 있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저를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대학 생활에 관한 내용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음.
		▪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여러 방법들을 알게되어서 교양과목 중 가장 추천합니다.
50	디지털시대의예술문화	▪ 현시대의 예술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여 작품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관점을 배울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음.
		▪ 교수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신다. 현시대의 예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내용이 흥미롭고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다.
		▪ 디지털시대에 맞게 발전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 교수님이 매우 좋으시고 이해되게 잘 설명해 주신다.
		▪ 인터넷 강의 수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 인터넷 강의이지만 시험은 대면으로 치는 점도 좋음

No.	과목명	추천이유
51	미술치료로이해하는 가족이야기	▪ 다른 전공이나 교양 과목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였음. 수강한 교양 과목 중 '미술치료로 이해하는 가족 이야기'의 교육과정 속 나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줌으로써 일상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교수님의 과제 피드백이 세부적이고 따뜻하십니다.
		▪ 교수님께서 학생 개개인에 관심이 많으시며 과제나 수업 중 피드백 등에서 이를 느낄 수 있음. 성취감과 교양을 쌓아가는 느낌을 받음.
		▪ 인터넷강의로서 미술치료에 관한 치료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데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설명해주신다. 과제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기회가 있어 과제를 하며 성찰이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경우가 다소 있다.
		▪ 미술치료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체험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이론 수업 이외에도 실제 사례와 실제 치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어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주고 인터넷 강의의 한계를 극복함. 이를 통해 미술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기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수업에서 배운 치료 기법을 과제로도 수행함으로써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매우 만족스럽게 수강할 수 있을 강의임.
52	세상을바꾸는발표와 토론	▪ 평소 사회성이 떨어졌으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 남들과 소통하는 법을 많이 깨우치게 됨.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많은 것을 배운 수업이었음.
		▪ 평소에 자신이 없던 발표를 많이 경험해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도 해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발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음
		▪ 수업에 매우 열정적이시고 발표가 무섭지 않게 도와주신다. 또한 발표를 하기위한 과정에서 조사할 때 몰랐던것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되면서 자신감을 얻게된다. 나도 몰랐던 세상의 문제점을 알수있다.
		▪ 해당 수업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고, 발표, 토론, 글쓰기 등의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
		▪ 우연치 않게 융복합 글쓰기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으셨는데 항상 토론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도 중립을 지키셨고, 조별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업명 그대로 맞는 듯 한 느낌이 들었고 유익한 점으로는 누구든지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53	슬기로운건강생활	▪ 주제가 건강 관련이라 이해하기 쉬웠고 매주 수업하는 강사님이 바뀌어 수업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 의대의 각종 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특히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 우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다보니 몰랐던 건강 지식들을 배워 매우 유익하였다.
		▪ 평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주제 또한 다양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 매주 다른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수업하는게 신기하고 강의 주제가 우리 건강에 대한 주제여서 매우 유익한 교양 수업이었다.
54	음악으로배우는인문학	▪ 소설과 시, 영화, 오페라 등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개념을 통해 인문학을 배우는 과목으로 음악과 인문학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음
		▪ 인문학과 음악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 소개되어 있어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에 수강하였습니다. 실제 강의 내용은 음악사 내용이 다수 바탕이 되어 음악 전공생인 저에게 더 유익한 수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시험범위가 방대해 시험기간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는 강좌였습니다.
		▪ 교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강의해주시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주심
		▪ 생소한 클래식 음악 감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악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

No.	과목명	추천이유
		한 사람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클래식 음악과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두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알차고 유익한 수업 내용,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함
55	장애인의이해와실천	▪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편견과 이해의 부족을 사회와 교육적으로 장애인들을 받아 들일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 이 수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과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 기본적인 장애의 종류 및 분류 기준을 알려주고 그들을 도울 경우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도와야 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알려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려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지나친 배려는 수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듬. 또한 주변에 몸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개인주의 관념이 깊게 박힌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라 생각함. 더불어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사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 주변에서 자주 보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면 잘 알기 어려운 질책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수업이다.
		▪ 교양이라는 말에 가장 적합할 정도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 수업을 통해 장애인 관련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됨. 추가로 주어진 과제덕분에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됨
		▪ 인터넷 강의라 그런지 내용이 많긴 했지만 평소 관심 있는 분야를 다룬 것이라 흥미롭게 수강한 강의이다.
56	초급일본어	▪ 일본여행을 목적으로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위해 신청했던 과목이었는데, 초급이라는 말에 맞게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발표를 골고루 시키면서 모두가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초급일본어 수업은 문화 탐구, 여행,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지에서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또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서 비즈니스 활동에도 도움이 됨. 일본어 학습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두뇌 활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문화 환경에서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에 초급 수업은 접근하기 쉽고 흥미로우며, 일본어와 한국어의 공통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급일본어 수업을 강력히 추천한다.
		▪ 초급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 갔다와서 잘 써먹었습니다.
		▪ 인터넷 강의 언어교양수업도 들어봤지만 직접 교수님과 하는 대면 수업이 더 공부하는데 수월했고 단기간에 언어 습득하는데에 좋은 수업이었다.
		▪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제2외국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7	4차산업혁명과기업가정신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업을 듣고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십니다.
		▪ 강의제목에 맞는 주제로 긴 길이의 강의를 집중력이 깨지지 않도록 흐름을 잘 잡아서 강의해주신다. 수강생이 많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강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을 정도로 분위기를 잘 잡아가신다. 창업관련 정보나 4차산업의 핵심 지식들을 유익하게 배울 수 있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나 내용들이 많이 차지해서 좋다.
		▪ 지금 까지 들은 교양중에 가장 얻어갈게 많은 과목이었고, 교수님도 되게 열정이 넘치셔서 되게 다양한 과제와 실제 업계종사자분도 모셔서 강연도 하시고 재밌고 유익한 과목이어서 추천한다.
		▪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와 연관 지어 기업가가 되었을 때 바라보아야 할 관점과 자세, 정신 등을 배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임.
58	경계를넘는인문학	▪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 인문학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실제 사회에서의 활용

No.	과목명	추천이유
		방법과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현대나 미래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 해당 과목은 P/F 과목이기에 성적부여도 상대평가가 아니며 시험도 없다. 시험 성적에만 얽매여서 정작 진정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1주일에 한번쯤은 시험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초청강연을 통해 새로운 지식도 쌓아가며 자신을 위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합니다.
		▪ 해당 수업을 통하여 예전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키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기에 추천하였습니다.
		▪ 매번 다른 주제로 다른 교수님과 수업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재미있다.
59	나무의이해	▪ 교양 과목인 만큼 어려운 과목은 아님. 식물이나 나무에 관심만 있다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음. 다만, 양이 많음.
		▪ 전공과 관련된 교양이라 관심사에 맞고 내용이 흥미로웠다. 온라인 인강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부담도 없음.
		▪ 나무와 환경에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강의질도 좋았습니다.
		▪ 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양다운 내용을 배울 수 있었음
60	문학과금기	▪ 제가 생각하는 대학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수업이 아닌, 정말 '교양'수업다운 강의였음. 얻어가는 지식도 많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다루고 있어 수업 내용이 흥미로웠음. 우리 사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수업임.
		▪ 시대가 지날수록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상관을 쓰지 않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양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토론을 통한 수업 진행으로 인해 사고의 깊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 다양한 갈등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교양다운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61	뮤지컬과친해지기	▪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뮤지컬들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도 있다. 교수님만의 채점 기준표가 명확하고 피드백도 좋으시다. 뮤지컬영화 해석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해석해주시기 때문에 교양적 소양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었다.
		▪ 교양과목의 취지에 가장 적합했음.
		▪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공부할 뿐 아니라, 경험도 하게 해주었음.
		▪ 뮤지컬의 역사와 그에 관한 영화 등으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추천한다.
62	삶의기술	▪ 가장 교양 다운 교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명상'이라는 주제가 수업 시간 때 조금 지루하고 졸린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전공시험에 비해 편한 마음으로 가서 명상하며 생각 정리도 하고 뜻깊고 재미있었던 수업이었다. / 힘든 전공수업 사이에 단비 같은 존재이며 수업 시간에 명상을 하고 효과와 느낀 점을 작성하는 수업이었다. 시간표상 '전공 1 - 교양(삶의 기술) - 전공 2'가 연이어 있었지만 힘들지 않고 오히려 환기하고 오는 기분이라 좋았다.
		▪ 심리학과 명상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명상 실습을 한다는 점이 재밌었기 때문이다. 과제도 명상 후 느낀 점을 몇 주간 작성하는 것이었다.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다른 교양과목과도 차별화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추천한다.
		▪ (실생활에 도움, 부담이 적음)명상 수업이기 때문에 학업으로 인해 지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
		▪ 교양함양을 위한 수업으로써 일상생활에 연관된 지식을 많이 함유할 수 있었고, 전공보다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음.
63	서바이벌베트남어	▪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만큼 공부할 양은 방대하다. 하지만 성적 비율 꽉꽉 채워서 학점

No.	과목명	추천이유
		잘 주시고, 타 언어보다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교수님께서 처음 베트남어를 접하는 사람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설명해주셔서 관심 있다면 겁먹지 말고 수강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한번도 배워보지 못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에 흥미가 있었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다양한 단어와 문장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어서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수업이다.
		▪ 교수님께서 학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추천한다.
64	소비자의이해	▪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 시중에서는 흔하게 마케팅과 소비자 심리 자료들이 있지만 이들이 합쳐진 자료는 잘 없어서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 노트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한눈에 모든 정보를 알아보기 쉽다. 이론 설명 또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다.
		▪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제학의 내용이라 흥미로웠으며 어려운 경제학의 내용을 적절한 예시를 들며 쉽게 설명해나가는 교수님의 강의력이 좋았다.
		▪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마케팅은 어느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과정으로 더욱 유익했음.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강의자료의 정리와 요약이 잘 되어있어 ppt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학습하기에 좋았음.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들이 초면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적절한 비유와 함께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체크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더욱 좋았음.
65	스마트폰이낳은신인류포노사피엔스	▪ 공부하는데 부담감이 적음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배경 지식들을 가볍게 배울 수 있었으며 P/NP kmooc 과목으로 주어진 날짜까지 시험을 제출하면 되므로 부담없이 교양 수준으로 듣기 좋았다.
		▪ 케이묵 강의였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언제든지 들으면 돼서 강의 듣기 부담스럽지 않았다.
		▪ 인터넷 강의이며, 과제나 레포트의 기간이 많아 시험기간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좋은 과목이기 때문이다.
66	영어회화트레이닝	▪ 영어에 어려움이 있어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 외국영화를 보여주면서 흥미있게 미국인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단어나 숙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토픽, 오픽 등과 같은 어학 성적 자격증을 위한 회화 공부가 필요하였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며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 수능과 토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영어공부만 접하다가 드라마나 영화의 클립영상을 보며 다른 교양과는 다르게 재미있게 교양을 들을 수 있었고 배우들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67	영화속인공지능과인문학	▪ 영화 내용이 재미있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수업에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수업을 안내해주시고 과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 영화를 선호하며 인공지능과 인문학에 모두 관심이 있어 새로운 영화를 소개받음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해볼 수 있음.
		▪ 온라인강의라서 시간표와 상관없이 수강 할 수 있다.
		▪ 평소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8	예술과교육	▪ 예술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융합적인 과목으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음
		▪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맞지만, '예술'과 '교육'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시험을 치기 위한 지식 함양이라기보다는 수업의 주제를 개인의 인생에 접목시켜 가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 단순한 자료를 읽는 수업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수업으로 접근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서 강의를 해 추천합니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 교양과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강의임. 수업 내용도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고 유명한 도서를 통해 예술과 철학에 관한 공부를 연결해 할 수 있어서 욱더 좋았음. 동시에 삶과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철학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철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개인의 사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 좋았으며 예술과 연계해 다양한 철학자 또는 예술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개인적으로 '예술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사유에는 시공간 및 인종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음.
69	인간과동물	▪ 평소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 영상을 즐겨 시청해 왔으며, 해당 동물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그 외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자료 또한 매우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며 팀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라 추천함
		▪ 강의내용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해주셔서, 끝까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이 강의를 수강신청하면서 생각했던 기대치가 충족이 되었던 수업이였다.
		▪ 관심있는 분야의 교양지식을 키울 수 있어서
70	자연과학과삶의이해	▪ 과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고 그 점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는 것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게 해주었다.
		▪ 배우는 내용이 재미있어서
		▪ 교수님의 역량이 뛰어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과제로 나오는 글쓰기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의 강의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과제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 교양 시험을 준비하며 무작위로 범위 내 정보를 외우기만 하는 타 수업들과는 다르게 수업 중간 글쓰기 과제를 통해 해당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이처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방식이 더욱 좋았음. 단순히 암기를 통해 학습하는 다른 수업들과는 다르게 학기가 끝나고도 내 지식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오래 기억되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함.
71	한국미술의이해	▪ 미술작품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작품이 실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흥미롭게 배웠다.
		▪ 한국 전통의 미술 작품을 섬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수업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흥미를 갖고 수업을 수강함. 한국의 여러 작품과 제작과정을 알아가며 한국미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음. 전통이라함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과거에 제작한 작품에서 현재의 기술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기발한 제작방식을 발견하며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한국 미술에 대하여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예전부터 알고 있던 한국 미술의 지식에 덧대어 더 깊이 한국 미술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미술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어 전시회나 특정 작품에 대하여 실물을 보았을 때 기억이 더 잘 났습니다.
		▪ 한국의 미술에 대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72	행복한삶과가족	▪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웠다.
		▪ 결혼, 행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 삶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다.
		▪ 행복한 삶과 가족을 미래에 원한다면 이 교양과목을 들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나의 여자친구와 행복한 삶과 가족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거 같았기 때문이다.
73	AI시대와언어	▪ AI에 대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새로웠다, 또 자신의 생각을 포함해 글 쓰는 과제의 비중이 있어서 좋았다.
		▪ AI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AI에 관해서 가볍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 AI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AI에 관해서 가볍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74	경영과컴퓨팅	▪ 엑셀이라는 과목이 많은 학생들이 시도하기 어렵고 혼자 익히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학교에서 함께 가르쳐 주고 수업을 진행해 주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No.	과목명	추천이유
		많이 얻을 수 있었다.
		▪ 이공계열 학생들은 엑셀 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마련인데 현장에서 엑셀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보고 해당 과목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
		▪ 이공계열 학생들은 엑셀 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마련인데 현장에서 엑셀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보고 해당 과목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
75	계열실무영어	▪ 원어민 교수님들과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대화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또한 일방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대화와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다.
		▪ 영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 외국인 교수님과 수업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76	고전에서만나는리더	▪ 대학교 와서 듣는 첫 교양 수업이였는데,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여러 인물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 다양한 철학자들의 삶을 탐구하면서 나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과 윤리를 들었었다면, 큰 부담이나 많은 공부없이 쉽게 좋은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77	공업수학	▪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심.
		▪ 자과생 생각에는 해당 과목이 졸업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함.
		▪ 이 과목 하나만 잘 배워두더라도 어느 과목이든 운용할 수 있다.
78	국가안보론	▪ 현재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 휴전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의식을 키울 수 있어 추천함.
		▪ 국가에 대한 안보와 형태를 알수있다
		▪ 국가안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
79	글로벌비즈니스의이해	▪ 교수님이 매우 인자하시고 친절하시며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다.
		▪ 전공적 지식 수준이 아니라 교양과목 수준의 수업내용으로 이해가 잘되고 교수님의 설명 또한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심
		▪ 교수님의 성격도 좋으시고 교양으로 배우기 딱 적절한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
80	내몸과질병이야기	▪ (흥미로운 수업 방식, 교수의 열정)평소 생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다.
		▪ 생활 습관이 원인인 질병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그런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게 도와주는 과목이다.
		▪ 학교 생활을 하면서나 성인이 되면서 술이나 흡연 등을 많이들 접하게 되고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음주와 흡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이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음주와 흡연 등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게 되며 지금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게 된다.
81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 교수님의 성격이 너그러우시고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신경써주심.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할 생각이 있다면 꼭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함. 사실 교외에서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준비하기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수업이지만 학기 중, 교수님께서 주최하시는 특강을 통해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쉽게 알지 못하는 행정 관련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특정 과목을 모두 수강한다면 졸업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취업에 취약한 회화과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수업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와 실습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예체능 전공자에게 자격증이란 머나먼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라는 국가자격증을 학부생 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No.	과목명	추천이유
82	생활한자	▪ 한국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한자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한자어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음. 무엇보다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열의가 높으심.
		▪ 기존에 몰랐던 한자들과 뜻풀이를 해주셔서 흥미롭고, 어휘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어 추천한다.
		▪ 한자를 좋아하고 기반지식이 있어 개인적으로 쉬웠음
83	숲과물의세계	▪ 내가 생각하는 교양은 자신의 학과 전공이 아닌 다른 이론이나 지식에 대해 배우거나, 자신의 견해를 넓히는 것이다. 해당 과목의 내용이나 이론적으로 유익하여 추천하기보단 해당 과목을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고 견해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비대면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 교수님이 전문적이시며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이 인상깊었다.
84	식탁의혁명	▪ 현대인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 상태에 관한 지식을 알려준다.
		▪ 식생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들은 건강과 식습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데, 위 교양과목은 올바른 재료의 손질 및 보관법, 체중 관리의 중요성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준다.
85	신짜오베트남	▪ 평소에 언어계열에 관심이 있거나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 교수님이 너무 착하시고 수업도 정말 잘해주신다.
		▪ 성적도 내가 친 점수대에 비해 후하게 주시고 학생들의 사정을 최대한 다 봐주시는 편이시다.
86	실용베트남어	▪ 일단 다른 나라 언어를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완전 처음부터 발음 하나하나 교수님이 알려주시고 수업에도 베트남 교환학생분들이 많아서 현지인 발음을 듣고 발음을 교정할 수 있어요!
		▪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신다.
		▪ 교수님께서 매우 친절하시고 생소한 언어인 베트남어를 재미있게 가르쳐주신다.
87	외국인을위한다문한국사회의이해	▪ 교수님께서 복습도 매번 해주시고 ppt에 있는 예제만 다 풀 줄 알 정도 되면 시험과 퀴즈 정도는 무난하게 풀 수 있어서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이었다. 부담 없이 들은 과목이라 다른 과목 시험 준비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서 성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학점 따기 용이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해진 기간 안에만 퀴즈를 풀고 영상을 보면 되었기에 추천합니다.
		▪ 내용이 쉽고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과목이고 시험과 과제에 대한 부담도 적어 학업 부담을 덜 느끼고 학점을 챙길 수 있는 과목이다.
88	우리땅 독도이야기	▪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솔직히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왜 어떠한 이유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같기 때문이다.
		▪ 다음에 외국인과 만났을 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89	융합디자인사고	▪ 디자인전공과 관련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아이디어나 제작방식에 대해 가르침이 있었던 수업이였으며, 그만큼 수강 후에도 배웠던 점을 응용할 수 있었기에 좋았던 교양이였다.
		▪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적 관점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디자인을 발현시키기 위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대부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90	인간관계와철학	▪ 정말 교양다운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재밌고 친절하시고 무엇보다도 철학수업이지만 한번도 지루하다고 느낀적 없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보면 인간관계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 인간관계의 철학은 그저 철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교수님께서 매시간 질문을 던져주심으로 수업 참여도가 올라감.
91	인권과법	▪ 교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수업에 임했으며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No.	과목명	추천이유
		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현대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추천.
		▪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주셨으며, 내용이 알차고 유익했다.
92	전기기기	▪ 전기공학과의 대표적인 핵심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두 분은 강의력이 매우 좋으시기로 소문나신분입니다. 짧게 핵심만 요약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험 관련 족보가 전혀 없고 수업이 실무지식 바탕으로 진행됨.
		▪ 전기기기들의 구조 및 기본적인 동작원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음.
93	전쟁의이해	▪ 수업 내용 충실 / 교양 함양 / 교수자 열의 높음
		▪ 해당 과목을 통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의 전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렵기만 했던 인터넷 신문의 외교, 정치란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 같다.
		▪ 지구상에 불필요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을 일깨움으로써 전쟁은 발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를 알려준다.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등 비인도적이고 참혹성이 나타나는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전쟁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참혹성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94	진로코칭 프로젝트	▪ 졸업 이후에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해당 과목을 통해서 특정 기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상담과 강의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음.
		▪ 시험 부담이 적고, 진로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추천한다.
		▪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아직 자신의 진로나 취업방향성에 혼란이 있으시면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95	취업설계	▪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므로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장점이 있다.
		▪ 자소서, 이력서 경험정리 등 취업 준비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주고 디테일하게 짚어주는 강의였음.
		▪ 취업에 고민이 많은 학년이 듣기 좋은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96	컴퓨팅사고와파이썬 프로그래밍	▪ 컴퓨터 공학과 학생으로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 파이썬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
		▪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었던 수업인데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어가는것이 많은 과목이었다
97	컴퓨터비전프로그래밍및응용	▪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매우 만족스럽고, 주제 또한 흥미로웠음.
		▪ 컴퓨터 비전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 재밌었음.
		▪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계심.
98	키워드로듣는문화 스토리텔링	▪ 인터넷 강의라는 장점으로 수강하기가 편리하였으며 교수님께서 매 강의시간 올려주시는 PPT와 영상자료들이 유익했다.
		▪ 평소에 관심분야가 좁아 스몰토크나 취미를 정하는 등 일상에 재미를 둘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이 수업은 평소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하여 넓은 분야의 상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 인터넷 강의의 정점이다,
99	트렌드영어	▪ 실용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음.
		▪ 여러 가지 흥미 있는 기사나 사회 문제에 대해 영어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영어로 많이 다룸
100	한국근현대사	▪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임. 수업을 들을 때 강의자료의 난이도가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좋아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부담이 적었음. 교수님의 강의력이 출중하셔서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음. 개인적으로 역사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방대한 정보를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학습자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음.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요즘 친구들이 한국사에 관심이 없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역학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한국사의 역사적 사건의 이유 와 결과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에 대해 입체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101	한국사	▪ 시험방식이 객관식으로 직관적이고 학습 범위가 과하지 않으며 공부한 시간과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임.
		▪ 또한 조별과제나 다른 활동 없이 과제 두 번 제출이 전부인데 이 과제는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적는 것이라 부담감이 적음.
		▪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연결하여 설명해주시고, 직접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제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시험의 난이도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아 수업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어 갈 수 있는 수업이다.
102	환경과웰빙	▪ 환경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 지구 환경에 대한 교양으로 일상에서 잊고 지내던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음.
		▪ 중간고사를 하지 않고 매 주차 내용에 대한 가벼운 퀴즈가 실시되어 과목의 부담이 적고 간단하게 복습도 할 수 있음.
103	4차산업혁명	▪ 인터넷 강의지만 강의 완성도도 높고 4차 산업에 대한 현재 흐름이나 요즘 뜨고있는 산업들을 설명해주고 기초적인 이론부터 같이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쉽다. 미래에 나타날 4차 혁명설명과 과거로부터 영향받은 산업들도 같이 나열하여 4차산업혁명의 역사도 알 수 있다.
		▪ 학과 특성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으나, 정작 개념적인 이해는 부족하였다.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며 부담없이 들을 수 있어, 미래 기술에 대해 궁금한 학생에게 꼭 추천한다.
104	기초수학	▪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과목이다. 교수님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없어서 재미있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다.
		▪ 부족했던 기초 수학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어 좋았다.
105	논리적쓰기와토론	▪ (실생활에 도움, 사고의 전환) 다른 사람들과 많은 주제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내 생각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추후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음
		▪ 교수님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셔서 수업 분위기도 좋고 항상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106	드라마로 배우는일본어	▪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재밌는 드라마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 특히 드라마로 배우다보니 보다 실용적인 단어를 배울 수 있다. 시험이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일본어 발음만 외우면 돼서 편하다.
		▪ 드라마를 통해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
107	문학의이해	▪ 문학의 정의를 시작으로, 문학의 이론과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 문학 작품을1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개인을 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경산의 과거와 심화된 글쓰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집니다.
108	뮤지컬의도시대구툐아보기	▪ 뮤지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역사부터 잘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 뮤지컬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돋우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 온라인 강의로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학습이 가능했고 풍부한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수업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된 점이 좋았다. 지식적 측면에서도, 순수 흥미 측면에서도 강의의 질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또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의 교양이고, 또 고급적인 교양중 하나이기에 실생활에서의 교양적 안목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있어 추천함
109	미래사회와디자인	▪ 현재의 디자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하여 논해볼 수 있다.
		▪ 현재 4학년이지만 아직까지 이만한 교양이 없을만큼 유익했습니다. 디자인의 흥미와, 지식 모두를 얻을수있었고, 수업방식 또한 너무 좋아서 모든 수업이 이 교양 처럼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할 정도라 너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110	북한학	▪ 일단 교양 이름만 봤을 땐, 되게 지루하고 북한의 뭘 배우는지 정확히 예상이 가지 않

No.	과목명	추천이유
		았음,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체제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배우는 과정 중 교수님이 되게 간결하고 핵심 내용만 딱딱 집어주어 귀에 쏙쏙 들어와 유익한 수업이었음. 시험도 강조했던 부분에서만 나와 두 배로 좋았음
		▪ 북한의 정치 구조 및 개발된 무기와 보유 중인 무기 등을 배우면서 평소 쉽게 접할 기회가 없던 북한의 권력 구조 및 무기 개발 수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세계 각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어 북한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111	사회공헌과봉사	▪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대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봉사에 흥미를 붙이게 되어 지금까지도 자발적으로 헌혈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봉사함으로써 나 자신의 성장과 행복감이 상승한다.
112	사회과학과수학	▪ 수업내용의 대부분 고등수학 개념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며. 집합, 행렬, 극소 및 극대 등등.. 수학을 사회과학에 활용하는 법을 주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 평소에는 대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쓸모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바꾸게 해 주는 좋은 강의이다. 추가적으로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최근 학생들은 행렬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데 이 수업을 통해 행렬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다. 교양에서 배운 행렬은 이후 전공과목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113	생명과학입문	▪ 교수님이 너무 수업을 잘해주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수업할 때 기억에 너무 잘 남음
		▪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114	세상을바꾸는스타트업이야기	▪ 학점 취득이 용이함
		▪ 케이묵 교양 문제는 쉽고 편하게 1학점 획득 가능하다.
115	세상을움직이는코딩이야기	▪ 코딩하는 방식들 보다는 코딩이 현실세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게 되면서 컴퓨터 과학이 자연과학, 인문학, 공학, 사회과학, 예술, 교육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을 확장시켜준다.
		▪ 성적기준 35%는 A가 아닌 A+이다. 코딩의 역사를 배운다.(철학, 역사)
116	스마트사회의 이해	▪ 미래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며 유익한 시간이었다.
		▪ 차산업혁명과 미래 신기술(IT, BT 등)에 대해 간단하게 배우며, 스마트 시티가 적용된 도시와 각종 규제까지 학습함으로써 미래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과목이였음.
117	ACADEMICENGLISH	▪ 영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영어로 말하는 것과 외국인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 강의를 수강하고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추천한다.
118	여성과법	▪ (부담이 적음)중간고사 대체 과제, 기말고사 O, X 문제로 공부하는 것에 부담이 없고 수업 내용도 상식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음
		▪ 실생활에 쓰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119	역사속의철학	▪ 매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철학 수업을 쉽고 흥미롭게 만들었음.
		▪ 철학이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 과목은 철학을 깊게 공부하기보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라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철학에 대한 거부감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학생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0	영문독해	▪ 독해보다는 문법과 문장 형식 분석에 더 중점을 둔 과목이다. 기존 문법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었고, 영어 문법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한다.
		▪ 지금까지 배워왔던 영어 문법 공부랑은 다른 방식으로 교수님만의 스타일로 문법, 문장 형식을 알려주셔서 새로웠습니다.
121	영화로보는생명공학	▪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하려는 의지가 보임.또한, 학점도 최대한 +을 달아주시려고 노력함.

No.	과목명	추천이유
		▪ 내용이 쉽고 인강에 영화가 포함되어 지루하지 않음
122	영화로보는춤이야기	▪ 강의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연 관련 영상도 보고 즐길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들음
		▪ 우혜영 교수님이 너무 잘가르치시고 꿀강입니다.
123	유럽의이해	▪ 수업을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유럽의 역사와 여러 나라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 다른 나라의 세계사나 문화적 바탕, 환경에 대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교양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를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124	음악으로배우는유럽문화	▪ 이전까지 쉽게 배울 수 없었던 더 넓은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음악을 통해 배움으로써 식견을 보다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여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추천합니다.
		▪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서술할 수 있고, 학생이 탐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25	음주문화와 술의이해	▪ 시험이 포괄적으로 나오는 만큼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다. 평소 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학점 잘 받을 수 있다.
		▪ 다양한 술에 대한 배경과 여러 가지 상식을 알 수 있다.
126	의사소통기술	▪ 이 교양과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교양 내용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라 유익하게 느껴졌고 교수님도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셔서 이 교양과목을 추천하게 된 것 같다.
		▪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예절을 배울 수 있었다.
127	이야기고사성어	▪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 교수님께서 매시간 강의를 열심히 해주시고 매번 배운 고사성어에 맞는 영상자료도 준비해서 보여주십니다.
128	이야기로듣는철학	▪ 교양과목을 듣는 데 제일 느낀 바가 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교류하며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 수업에 대해 깊게 알 수 있었고 알찼다.
		▪ 교양의 정의에 잘 맞는 강의이다.
129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처음에는 단순하게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였으나, 강의를 들을수록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많았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항상 많은 생각이 들었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양 과목을 학습하면서 대학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배웠고, 교수님께서도 인자하시고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심. 수업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인지하셔서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심.
130	인물로보는중국사	▪ 교수님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새로운 개념도 많이 알 수 있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면 반드시 수강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역사에 대해 깊게 알 수 있으며 저녁시간이라서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이 재미있었다.
131	일반물리(1)	▪ 전공을 들어가기전에 쉬운 내용으로 다시 다잡아주어서
		▪ 전공과목을 듣기 전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꼭 들어야하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능과학탐구과목을 화학, 물리를 선택 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기본적인 공학 지식을 쌓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32	일반물리(2)	▪ 유익하고 재밌었다
		▪ 기계공학부라면 물리를 바탕으로 고체역학, FEM 등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반물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한다.
133	일반화학	▪ 교수님의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잘 가르쳐주시고 실력만으로 평가해 무엇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수능과학탐구과목을 화학, 물리를 선택 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기본적인 공학 지식을 쌓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34	자원봉사론	▪ 교수님께서 직접 해보신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음 강의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함

No.	과목명	추천이유
		▪ 기존에 알고 있던 자원봉사란 개념과는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135	진로탐색	▪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목표와 꿈을 새롭게 평가하고,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나에게 자기성장과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고, 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 과제도 쉽고 시간투자 부담이 적다.
136	통계학	▪ 전공에서 배우지 않는 통계학을 접하는 계기가 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워 추천하고 싶다.
		▪ 통계학 교양을 통해 확률과 통계의 기본을 익혀 물리학과의 양자역학, 열 및 통계물리학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137	파이썬 프로그래밍	▪ 대학 오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서 기초부터 시작 했는데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 해주었고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어렵지 않고 재밌게 교양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 1학년때 배운 수업보다 더 난이도 있는 수업이지만 그래도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138	패션과문화	▪ 패션의 역사와 최신 트렌드의 유행의 이유 등 평소 쉽게 접할수 있는 옷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수있음.
		▪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수업임. 평소에 옷에 대해는 관심이 크게 있진 않았지만 패션이라는 분야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과목임. 유명한 외국 연예인이 유행시켰던 룩이나 몰랐던 룩들을 알게 되어 나중에 제가 옷을 살 때도 이러한 감각이 더해져 더 좋은 질감의 옷이나 룩을 고를 수가 있었음.
139	현대대중문화의이해	▪ 과제 난이도도 쉬운 편이었고 마냥 암기식이 아닌 수업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는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꾼 강의였다. 이를테면 왜 우리가 클래식과 같은 문화를 이른바 '고급문화'라고 칭하는지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위치와 예술적 취향의 관계에 입각한 주장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문화를 그저 유희로 생각하고 즐겨왔던 내게 더할 나위없는 충격이었다.
140	현대미술의 쟁점	▪ 작가의 꿈을 꾸는 전공생이거나 장래 예술계에 종사할 생각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임. 동시대의 미술 시장을 설명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작가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유명세에 따라 그 작가 또는 작품의 가치를 매기지만 이 수업에서는 작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역대 최고의 화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고흐나 피카소를 떠올리곤 하지만 막상 '유명세'의 이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임. 나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 요즘 시대에 비만이 자주 발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영약학적, 생리학적 원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교양과목이었음. 또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며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을 배울 수 있었음
141	현대정치의이해	▪ 정치의 정의와 기원, 성장 과정, 현대 정치의 추세를 알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제 정사 등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구조와 원리를 그리고 올바른 정치 관념 생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42	협상의심리학	▪ 사람을 상대할 때의 심리를 알 수 있었고 심리학이라고 하여 너무 어려운 용어가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최대한 쉬운 말로 심리학 용어들을 정리해주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 강의내용 중 실제로 사용할 만한 대화나 협상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143	환경과조경	▪ 교수님이 밑줄 그어주신 위주로 공부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고,

No.	과목명	추천이유
		▪ 과제도 미리미리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144	건강한노화와운동과학	▪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운동에 있어서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원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음.
145	건축으로읽는사회문화사	▪ 고대 건축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시험이나 과제도 할만 함
146	경산의재발견	▪ 학교가 경산에 있지만, 경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 경산의 역사는 물론이고 경산의 발전 가능성 등을 알 수 있었다. 한 분의 교수님만 수업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여러 분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강이라 시험이 없다는게 큰 이점인거 같다.
147	경영학의이해	▪ 장래에 창업에 관심이 있었는데관련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148	공연예술의이해	▪ 해당 과목을 이수한 후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늘어났다.
149	공존사회와교육	▪ 교수님이 정말 좋으셨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해주심
150	교양원예	▪ 정해진 비율대로 학점을 다 채워서 잘 주신다.
151	교육평가	▪ 교수님이 열정적이고 유익하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다뤄주시고 그것과 큰 연관을 가진 평가를 배울 수 있다. 시간대가 적당하며 딱딱하지 않은 주제로 여운이남는 수업을 한다.
152	국어표기법과표준화법	▪ 한글에 대해 미처 몰랐던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음
153	국제문화의이해	▪ 사회문화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쉽게 이해가 가도록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54	글로벌리더십	▪ 시험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 좋았다.
155	글로벌사회공헌의이해와실천	▪ 이공계 계열이라 항상 수학,화학 쪽의 강의만 들었었는데 전공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세계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 추천합니다
156	기술혁명과공학윤리	▪ 우리 공학도가 나중에 가지게 될 여러 가지 윤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57	기업회계의이해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 지식으로 교수님의 열의도 높아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주시고 다양한 문제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58	기초프랑스어	▪ 대부분 전공 관련된 교양과목을 선택하고 또 들었었는데, 원래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기도 하였지만, 색다르게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과목을 추천한다. 그리고 부담없이 프랑스어라는 다른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기에 추천한다.
159	뇌와인간	▪ 심리학과 수업이어서 심리복수전공을 고민중인 학생이라면 한번쯤 맛보기로 들어보기 좋은 것 같다. 수업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과제도 영화 이터널선샤인을 보고 배운 내용과 연관해 적기여서 부담없는 과제였다.
160	다문화교육과정책의이해	▪ 공부할 양이 많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조금만 공부하면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이다. '교양'으로 들을만한 과목이라 추천한다.
161	답사를통해본마을학이해	▪ 도시 집중화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대두시키며 우리가 미래 새대를 위해 고민해야할 여러 문제를 마을학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해당 주제 자체가 교양으로 학습하기에 적절한 과목이라 생각한다
162	도시의 이해	▪ (전공과의 연계성, 자료의 충실성) 아직 도시의 역사와 학문을 접하지 못한 도시공학과 1학년 수강생들이 이 교양을 통해 도시의 형성 과정, 도시와 얽힌 역사를 가볍게 배울 수 있어 추천하고 싶음. 전공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는 수업.
163	독도의역사	▪ 우리 땅인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음.
164	독서와 토론	▪ 매시간 토론을 준비하고 여러 주제를 조사하면서 대학교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 방법, 출처를 인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논설문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 유용했다.
165	독일어권도시기행	▪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며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서 독일의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쉽게 이해했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음.
166	드라마로보는분단그너머	▪ 수업의 주제가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재밌어서 집중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67	디지털영상처리	▪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음.
168	디지털통신공학	▪ 관심있는 내용의 전공 과목임.
169	메디치가문이야기	▪ 평소 세계사에 관심이 있어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지배했던 가문에 대해 재밌게 수강하였다.

No.	과목명	추천이유
170	모바일앱만들기	▪ 오픈북이라는 점이 좋았고 잘 모르면 교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정말 좋은 교양과목인데 2학기에는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171	무기체계론	▪ 다양한 군사용 무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다른 학과 관련 수업을 들으니 흥미가 생겨서
172	문화예술교육개론	▪ 우선 교수님의 수업 진행이 너무 깔끔하다. 매 수업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시는게 느껴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도 잘 해주신다. 자기가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성적에서 나타나는 수업이다.
173	문화예술교육의이해	▪ 예체능 전공자에게 자격증이란 머나먼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지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라는 국가자격증을 학부생 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174	범죄수사론	▪ 새로운 내용들을 배울수 있어서 좋았음
175	베트남사회문화탐구	▪ (자료의 충실성,흥미로운 수업 방식) 수업자료(PPT)가 가시성이 좋았고 생소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밌게 알려주셔서 흥미로웠음
176	비만학개론	▪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리 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수업계획서에 있는 과정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여 자세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177	빅데이터와기계학습의이해	▪ 질문을 했을 때 잘 봐주시고 비전공자들을 배려하면서 수업진행해주십니다
178	상상력을디자인하는동화쓰기	▪ 동화, 동화의 구조 등에 대해 배우게 되고 직접 동화를 써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수업의 과정을 통해 잊고 있던 동심의 세계에 빠져보기도 하고 창의력, 상상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 학습지 활동을 통해 수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흥미롭게 참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전공과 관련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기에 유아교육과학생분들게 더 추천드립니다.
179	생명과학(1)	▪ 사람의 인체 및 질병, 건강 등에 관심이 있다면 수업 내용이 재미있을 수 있다.
180	생명과학실험	▪ 화학 실험과는 또 다른 실험들을 통해 실험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다.
181	생명과학입문	▪ 교수님이 너무 수업을 잘해주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수업할 때 기억에 너무 잘 남음
182	세상을바꾸는명연설과리더십	▪ 세상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일대기와 그들의 명연설을 분석하여 영어 표현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양도 쌓을 수 있습니다.
183	세상을읽고소통하는크리에이터되기	▪ 유튜브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활용하는 수업이 주로 이루어져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길러줘서 추천한다.
184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최근 우리 사회에서 IT산업이 성장하고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 교양 과목에서 컴퓨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185	쉽게배우는영어뉴스앤이슈	▪ 영어를 쉽게 배울수 있고 공부하는만큼 점수가 나옴
186	스스로하는인테리어디자인	▪ 교양수업이지만 작게나마 직접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냄.
187	시창청음	▪ 평소 박자를 잘 헷갈려하며, 박자에 관련하여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창청음 수업에서 여러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관한 악보를 그리는 수업을 통하여 박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되었고 시창청음 과목을 수강한 후 실력이 많이 늘어 추천합니다.
188	신문만화와대중문화	▪ 신문만화와 대중문화 수업은 대중문화 현상과 그 중의 만화를 분석하여 문화 현상을 깊이 이해하며, 미디어 해석 능력을 향상시킴. 이 수업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됨. 이러한 이해와 능력은 미디어, 문화 관련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함.
189	신비한생명의세계	▪ 전공인 화학만 듣다 보니 편향된 지식을 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수강한 과목이다. 강의명 그대로 화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명과학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190	신에너지공학	▪ 우선 친환경 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친환경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식으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알 수 있었다.
191	실용금융	▪ 평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금융에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저축, 주식 등 돈 관리법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도움이 되었

No.	과목명	추천이유
		습니다.
192	실용중국어(2)	▪ 한번 수업할 때 50분이라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된다.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학생 한 명씩 발음교정을 해주시는 점도 좋다
193	아동과현대사회	▪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적절한 대처법등을 알 수 있어서 미래에 자녀를 교육할 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과 관련된 문제점과 여러 법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194	언어와인간	▪ 교수님이 수업 내용을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쉬웠으며 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들의 유래를 배울 수 있어서 언어에 대해 더욱 흥미가 있을 수 있게 되었음.
195	역사와자연생태로알아보는독도이야기	▪ 교수님이 학생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학생의 입장을 이해해주시려한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신다.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경험해볼 수 있고 흥미로운 영화와 많은 시청각 자료들이 있어서 좋았다.
196	영남대학교의미술문화	▪ 전공과 다른 분야의 강의라 자칫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심
197	영남라이프아카데미	▪ 영남라이프아카데미라는 교양에서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역량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고, 많은 토론과 발표를 거치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교양과목이라는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에 행복하고 따뜻했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198	영남뫼가람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남 지역에 어떠한 문화 유적지와 관람지 천연 기념물 그리고 병목현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199	영상문화의이해	▪ 흔히 움직이는 형태를 비추고 있는 것이 영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진 시각적 표현물(사진)도 영상의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의 종류와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200	영어프레젠테이션	▪ 인터넷 강의여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고, 책 내용이 영문 이력서나 프레젠테이션같이 따로 배워볼 기회가 잘 없는 주제여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 이 교양을 추천합니다.
201	유럽의신화와문화	▪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202	융합인문학	▪ 많은 사람들의 강의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강 식으로 강사가 매번 바뀌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적인 소통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203	음악기초이론따라가기	▪ 기존에 관심있었던 음악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감상하는 시간이 적었는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감상에 대해 진지하게 적어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었다.
204	인터넷및인공지능과윤리	▪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에 꼭 들어봐야 할 교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관련 범죄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학생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205	일반물리실험(1),(2)	▪ 처음 대학교에 들어와 이론으로만 배운 식들을 직접 유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
206	일반생화학	▪ 수업 방식이 매우 깔끔하고, 판서를 활용한 부가 설명이 잘 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는 친절함과 퀴즈/시험 후 꼼꼼하게 리뷰해주시는 덕분에 좋은 성적 잘 받았다.
207	일반화학실험	▪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수업 형태라 흥미로웠다.
208	재료와인간의역사	▪ 재료라는 작은 주제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나 여러 자원 경쟁들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209	전공세미나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학생들의 예술적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발현시키고 발전하게 해주는 유익한 수업이다.
210	전기공학기초실험	▪ 수업만 듣는게 아닌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211	전력전송공학	▪ 교수님께서 강의를 되게 잘해주신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시고 기본적인 전공지식까지 신경써서 알려주신다. 또한 자격증취득과도 연관해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되는 강의였다.
212	전산기계제도	▪ 취업 영역에서 활용방안이 많고 실용성이 좋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213	전쟁사	▪ 평소에 세계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교수님이 장교 출신이셔서 전쟁사를 설명하면서 중

No.	과목명	추천이유
		간중간에 깨알같이 알려주시는 TMI 내용이 알찼습니다.
214	정보통신학개론	▪ 정보통신의 개론에 대해 알 수 있어 전공의 베이스가됨
215	좋은문서디자인AtoZ	▪ 세 교양 다 진심으로 무언갈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음. 억지로 수업을 듣는 느낌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수업임.
216	지속가능성을위한화학이야기	▪ 일상생활과 연관이 많은 주제들의 원인, 더 자세한 내용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음.
217	진로설계	▪ 진로에 대한 상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
218	창업의법과세제	▪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처음 배웠단 느낌을 받음 Ex)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19	청년기와청년문화	▪ 수업 참여도를 잘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지내온 청년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20	축제와인간사회	▪ 축제에 관해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이며 족보가 없기에 노력한만큼 나오는 성적
221	취업전략(2)	▪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난 후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강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2	컴퓨터프로그램및언어	▪ 컴퓨터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c언어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한다.
223	클래식친구만들기	▪ 우선, 입학 후 필수교양과목을 제외하고 직접 선택하여 수강한 유일한 교양과목입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클래식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224	통신시스템	▪ 교수님께서 수업을 정말 잘 가르쳐주심.
225	프랑스문화의이해	▪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다방면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프랑스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뮤지컬, 오페라 등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 등을 알고 싶다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한다.
226	프로그래밍언어	▪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교수님께서 열정이 있으심.
227	피드백을통한논문작성의실체	▪ 평소 궁금했던 글쓰기의 이론 수업과 여러 팁들, 그리고 전문적인 논문 작성단계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교양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가장 수강 보람이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228	한국전통성악	▪ 교수님이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잘 안되면 다시 천천히 잘 알려주십니다
229	현대독일의이해	▪ 교수님도 좋으시고 수업 자체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 독일의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30	현대미술의이해	▪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면 다양한 미술 역사와 기법에 관해 알 수 있어서 좋은 교양과목이라고 생각된다.
231	현대사회와범죄	▪ 특강도 가고 배우는 내용이 흥미로움
232	현대인과 생활환경	▪ 현대인과 생활환경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배우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떤 것을 제공해주며 다양한 방면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233	화성법	▪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배워 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배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